기사로 본 안양 근대사

- 안양학자료집 제1권 -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01
THE INSTITUTE OF ANYANG STUDIES

기사로 본 안양근대사

2001. 12

안 양 학 연 구 소

발 간 사

다사다난했던 21세기의 첫 해도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소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만 현재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모습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가능할 때 미래 우리들의 소망스런 모습을 차질 없이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안양시의 잊혀져 가는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여 안양학연구소 첫 번째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1920년대 초부터 1980년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던 안양권과 옛 시흥군 관련 기사 약 800항목을 묶어 『기사로 본 안양근대사』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 안양시의 산업화과정 동안 이 땅에 살았던 분들의 체취와 호흡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부디 이 자료집이 과거 안양시의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자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을 세우고 의결해주신 안양시 당국과 시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름방학 내내 기사색인집과 씨름하며 일제시대 동아일보 기사를 정리한 김연중 박사, 겨울방학을 모두 투여하면서까지 나머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내고 정리한 조경식 연구원과 우리 행정학과의 사랑스런 제자들인 이병송, 송민규, 전정민, 한광숙, 권보영에게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2001년 12월

안양학연구소 소장 문 원 식

'21세기 안양'을 위한 사료집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한 우리 안양은 예로부터 이어온 역사적 전통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로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지자체의 한 전형(典刑)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안양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고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로운 세기에 우리 안양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 행정을 주관하는 시청을 비롯하여 각 분양의 기관들이 힘과 뜻을 함께 결집하여 '21세기를 앞서 가는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결대학교는 안양을 대표하는 종합대학으로서 대학지성인을 전인적으로 잘 양육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양이 큰 비전을 가지고 21세기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양이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를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해 주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안양학연구소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신문기사 자료집」을 펴낸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19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직전까지 무려 100여 년 동안 주요 언론에 반영된 우리 안양의 이모저모를 일일이 찾아내어 「기사로 본 안양근대사」라는 한 권의 자료집으로 펴낸 것을 보고 그 참신한 아이디어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 자료집은 우리 안양의 과거 성장사를 통해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모쪼록 본 자료집이 우리 안양의 각계각층에서 널리 활용되어 '21세기 안양'의 입체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안양학연구소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성결대학교 총장 성 기 호

축 사

우리안양은 수도서울의 관문으로서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고 훌륭한 입지조건과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21세기를 향해 우리나라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양시가 걸어온 발자취의 고찰을 통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가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안양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안양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학연구소에서 이번에 발간하는 『기사로 본 안양근대사』는 단순한 자료집 차원을 떠나 안양의 발자취를 조명해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집이 우리지역이 성장 발전해온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안양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안양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에도 많이 활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집이 정리 발간되기까지 그간 애써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학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안 양 시 장

「신문기사로 본 안양근대사」

우리 안양시가 21세기 경기도 중부권의 수부도시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수도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양학연구소 교수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금번에 발간하는 「기사로 본 안양근대사」는 단순한 안양 역사의 자료집 차원의 가치가 아니라 안양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향후 안양 발전의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60만 시민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우리 안양의 발전과정의 생생한 사실들과 안양 역사의 각종 자료들을 모아 발간하는 과정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필연적인 사명이라 하겠으며, 안양시의 진정한 발전과 건설에 매우 막중한 길잡이 역할을 다하리라 생각하니 기쁨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뿌리이자 거울이라고 생각하며 금번에 발간된 「기사로 본 안양근대사」야말로 우리고장의 역사를 정립하여 계승 발전하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 안양의 내력과 현실을 이해하는데 좋은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번 「기사로 본 안양근대사」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지역발전의 훌륭한 역사의 표본으로 보존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안양학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1년 12월

안양시의회 의장

목 차

동아일보 안 양 편 ..... / 11

조선일보 안 양 편 ..... /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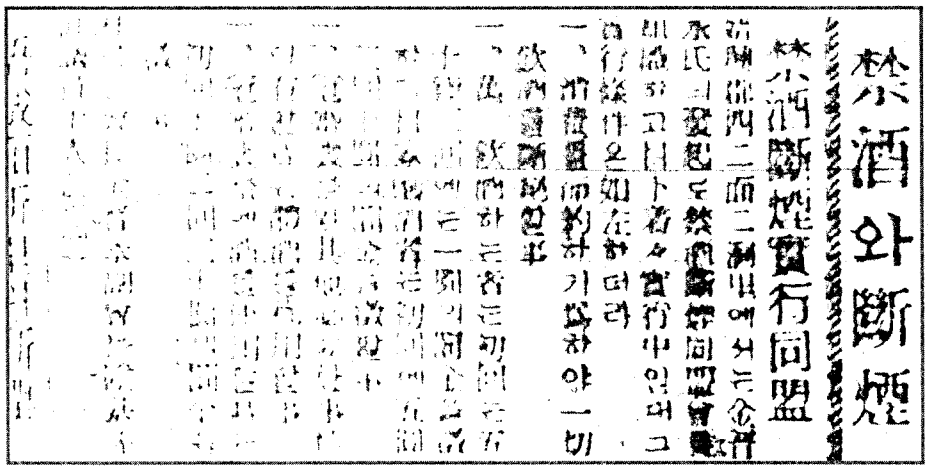
동아일보 시흥군편 ..... / 255

조선일보 시흥군편 ..... / 325

색 인 ..... / 389

동아일보 안양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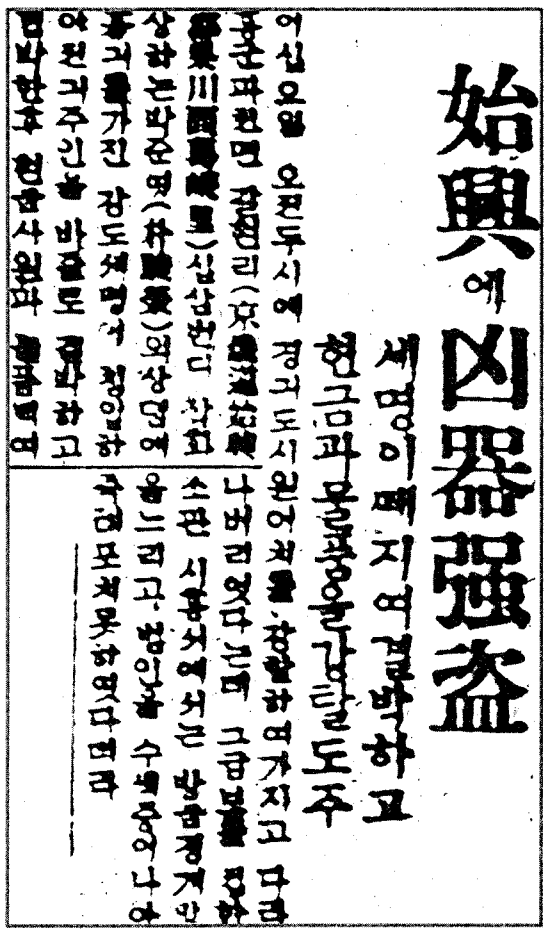
▶ 1923.3.31(4)5


禁酒와 斷煙

금주와 단연

금주단연실행동맹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에서는 김진수씨의 발기로 금주단연동맹회를 조직하고 목하 착착 실행중인대 그 실행조건은 여좌하더라

▶ 1925.10.27(2)


始興에 凶器强盜

시흥에 흉기 강도

3명이 떼지어 결박하고
현금과 물품을 강탈 도주
25일 오전 2시에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갈현리 13번지 잡화상하는 박준영의 상점에 흉기를 가진 강도 세명이 침입하여 전기 주인을 바줄로 결박하고 협박한 후 현금 4원과 물품 백여원 어치를 강탈하여 가지고 달아나 버리엇다는데 그 급보를 접한 소관 시흥서에서는 방금 경계망을 느리고 범인을
수색중이나 아즉 체포치 못하엿다더라.

▶ 1926.10.5(4)2

巡廻採訪

文化輸入에 至極히 便利

京城에 連接된 始興

(5)

始興 一記者

◇影像慘澹 ◇鐵道青年會 ◇農業教育會 ◇軍浦青年團 ◇南面振興會 ◇安養少年尖候隊 ◇果川新聞 ◇宗教界 ◇耶蘇教 ◇鐵道耶蘇教會 ◇水原洲教會

문화수입에 지극히 편리한 경성에 연접된 시흥

시흥 일기자

창신의숙은 시흥군 영등포면 양평리에 잇는바 그만한 사립학교로 8십여명의 취학난에 방황하는 무산아동교양에 만흔 힘을 쓰는중이라는데 해교는 대정 12년3월경에 김목사와 김준기씨외 수씨의 열성과 노력으로 설립된 이래 여러 가지로 유지곤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교 간부수씨의 열렬한 활동은 조금도 쉬임업시 계속하여 온 결과 나날이 점점 발전의 서광을 보게됨을 따라서 현재 교실로 만은 협소함으로 불원간 교사 증축에 착수하리라고 동교간부모씨는 힘잇는 말을 한다.

사회단체

어느곳을 물론하고 각 사회단체가 전일그것에 비하면 대체가 침묵상태에 잇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흥 역시 이와같은 운명을 벗어나기 난한감이 불무한바 대개현상을 약술하면 여좌하다.

-노량진청년회

대정 3십년추에 유지멧사람의 발기로 창립된 노강구락부의 후신으로서 금년7월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명인 노량진청년회를 변경한 것이다 동회는 창립당시에는 사회사업에 만흔 활동을 하엿슬 뿐 아니라 작년 흥수시에도 구호사업에 적지 안은 공헌이 잇섯다한다.

현재 회원은 7십여명에 달한다하며 신간부들은 모든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겟다는 성명을 한지가 발서 오래나 아직까지는 수면상태에 잇는것갓다 그러나 먼저갓흔 운명에 빠지지 아니할 줄로 믿는 것은 동회신간부들의 열성으로써 증명하는 바임으로 동회의 사명과 목적을 관철하기까지 분투하기를 동간부들에게 부탁하여둔다.

-시흥청년회

대정 13년7월15일에 창립한 후 사무소를 시흥군 동면 시흥리에다 두고 환등순회강연으로 혹은 수해구제사업 여러가지방법으로 사회사업에 적지 안흔 활동을 하여 오던바 현재에는 간부들의 산재로 인하여 집합이 자조 못됨으로 열성이 차차 냉각하여짐을 따라서 유야유야중에 잇든바 지난7월22일에 정총을 열고 다시임원을 개선하는 동시에 많은 활동을 하려는것갓다.

-군포구락부는

금년춘에 시흥군 남면 군포장에 설립된 미래자식개발과 청년수양사업에 전력 쓴다고한다.

-노량진교육회

역사가 깁고 피란중첩에 쌓인 노량진에 잇는 은로학교가 유지곤란이란 비참한 운명에 빠져서 폐교가 되어 잇슴을 본 동리 유지제씨의 발기로 동교를 부활하겟다는 목적으로 대정 10년8월에 비로소 노량진교육회가 조직된 후 폐교가 하였던 은로학교를 완전히 경영하여 오던바 대정12년5월에 간부 일동이 개임 되자 회무는 점점 □□□□□ 함으로 따라서 은로학교까지 유지곤란을 감하여 오던바 대정40년에 지하아서는 거액의 부채만 남아 있을 뿐으로 유야무야중에 간판까지 없어지게 되엿섯다는 이것을 본 유지 이원시 인국현씨와 수씨는 다시 동회부흥발기를 동년5월21일에 개최된 후 동월 31일에 총회를 개최하고 완전히 동회를 부흥 시키인 후 우금까지에 지하여 오는 중 역시 은로학교도 따라서 유지하는 중이며 현재 회장 이원시씨 총무에 안국현씨라 한다.

-남면진흥회는 대정13년도에 현 군포장우편소장 조중완씨의 발기로 창립 되엿는데 목적은 농촌진흥과 풍속개량에 전력을 다하여 농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구입하야 일반농가에게 공평히 사용케 하는 등 실로 기사업이 도리어 면행정에 비하여 농민에게 직접 실익을 엇는 일이 비일비재이며 동회가 창립되든 즉 대정13년추에 농림산품평회를 개최하야 시흥군 일원의 산업장려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야 기성적이 심히 양호 하엿슴으로 일반은 동회장인 조중완씨의 독특한 열성과 헌신적 활동을 끝업시 경송한다 한다.

-과천유신회는 대정13년10월에 창립되엿는대 동회에서는 산업발전과 교육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방금 조선일보취차판매를 경영하는 중 이라한다. 회원은 현재 6백여명에 달한다하며 회장은 김완식씨이다.

-안양소년척후대는 현 단장인 김명우군의 발기로 금년 삼월에 창립 되엿는바 소년사업과 좀더 나이가서 사회사업에까지 만흔 노력을 하는 중이라 한다.

종교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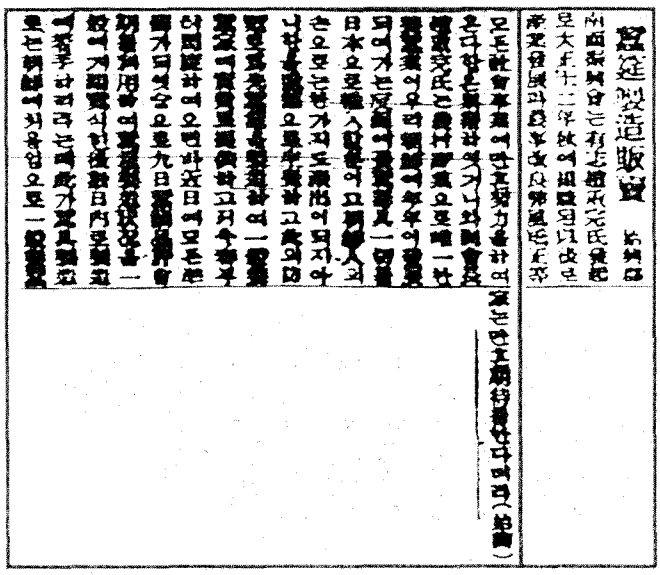
-야소교가 시흥군에 들어오기는 거금 30여년 전부터이엿다 장로교회가 대개이며 백명 이상의 교도를 가진 교회가 4개소이고 기타 구개소 합십삼개소이며 신도는 약8백여명에 달한다는데 그 중 대개를 소개하면 여좌하다.

- 노량진야소교회

1905년에 북면 흑석리에사는 김영수, 김광진 등태현 외에 수인이엇던 동기로 흑석리에 모히여서 예배를 보다가 수년 후 교세는 점점 부진하여 유야무야중에 잇었다가 다시 본동리로 회당을 이전엿섯스나 미신숭배로 유명한 무촌인 관계상 역연 그러한 상태로 1920년까지 지내왓었다. 그러다가 1920년에 이석진목사가 래임한 후로 성의인 이목사의 지도하에 교세가 점점 왕성하여 신도가 일가월증하엿슴으로 수간의 회당으로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업슴으로 이목사의 열렬한 활동으로 금 천여원을 만들어서 십여간와가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진행하여 오는바 현금에는 신앙이 특이한 신도가 상당히 만타하며 신도 총 수는 약백여명에 달한다하며 일반은 이목사의 공헌에 대하여 많은 경애와 칭송이 만타고 한다.

-영등포교회는 약30여년전에 구 영등포에 사는 김상옥 고순익 고허학서의 몃사람이 김포 세교리교회로 매주일 배를 타고 예배를 보러단이다가 기후4.5년이 되매 신자수가 차차 증가됨으로 허학서씨외 수인의 주선으로 지금부터 26년전에 구 영등포교단에다 회당을 건축하고 50여명의 신자가 모여서 예배를 보다가 대정 10년에 공비 5천여원을 들여서 연와제의 현교당을 신축하엿섯스며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저서 현금교도수는 2백3십여명에 달한다하며 현금 동교회역에 만흔 공헌이 있으며 주관하는 사람으로는 정인환씨가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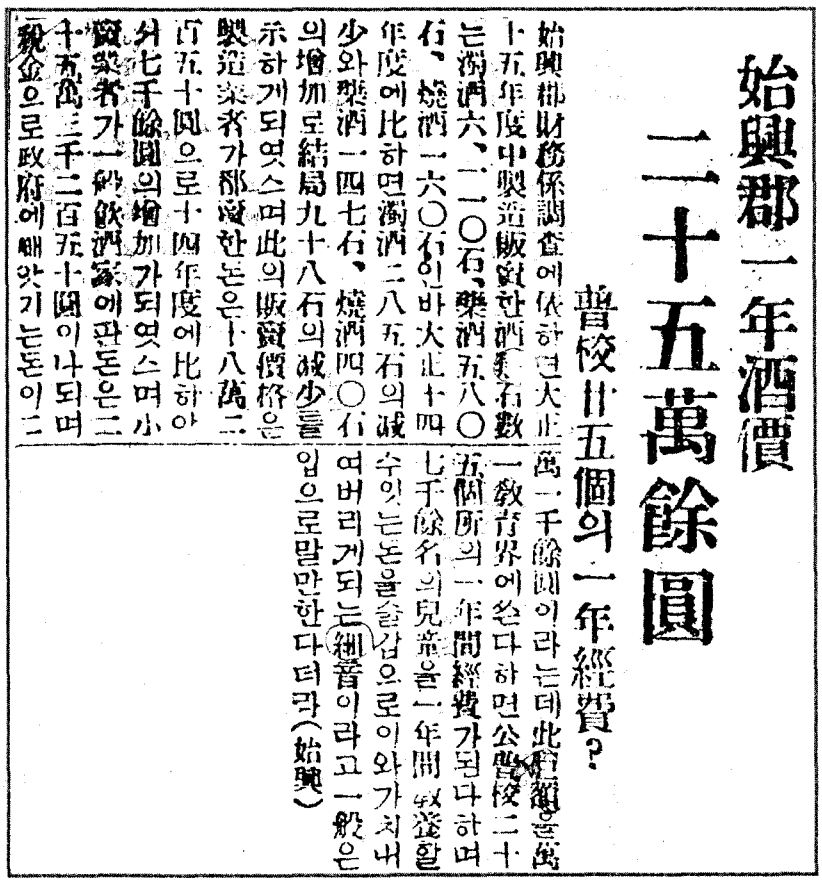
▶ 1926.11.12(4)5



잠연 제조판매

시흥군 남면진흥회는 유지 조중완씨 발기로 대정 12년추에 조직된 이후로

▶ 1927.2.6(4)10



始興郡一年酒價
二十五萬餘圓
普校廿五個의一年經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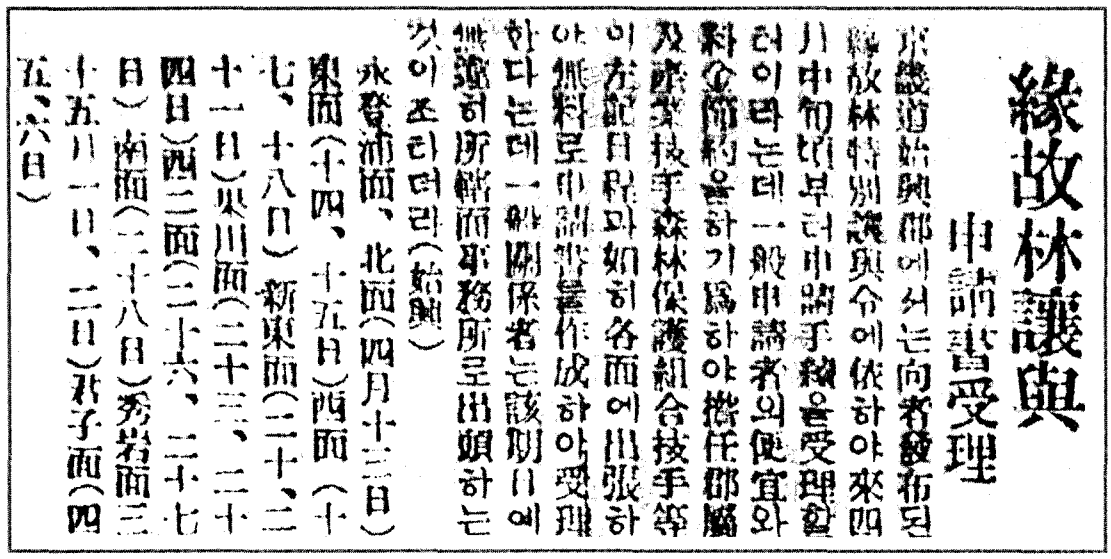
始興郡財務係調査에依하면大正萬一千餘圓이라는데此額을萬
十五年度中製造販賣한酒類名數一敎育界에온다하면公普校二十
는淸酒六、二一〇石、藥酒五八〇五個所의一年間經費가된다하며
石、燒酒一六〇石인바大正十四七千餘名의兒童을一年間敎養할
年度에比하면淸酒二八五石의減수잇는돈을술갑으로이와가치내
少와藥酒一四七石、燒酒四〇石여버리게되는細音이라고一般은
의增加로結局九十八石의減少를입으로말만한다더라(始興)
示하게되엿스며此의販賣價格은
製造業者가郡廳한돈은十八萬二
百五十圓으로十四年度에比하아
外七千餘圓의增加가되엿스며小
賣業者가一般飮酒家에판돈은二
十萬三千二百五十圓이나되며
稅金으로政府에빼앗기는돈이二

시흥 1년 주가 25만여원

보교 25개의 1년 경비 ?

(시흥) 시흥군 재무계조사에 의하면 대정 15년도 중 제조판매한 주류석수는 탁주 6110석 약주 580석 소주 160석인바 대정 14년도에 비하면 탁주285석의 감소와 약주147석 소주 40석의 증가로 결국 98석의 감소를 시하게 되엿스며 이의 판매가격은 제조업자가 도매한돈은 18만2백5십원으로 14년도에 비하야서 7천여원의 증가가 되엿스며 소매업자가 일반 음주가에 판돈은 2십5만3천이백5십원이나되며 세금으로 정부에 빼앗기는 돈이 2만1천여원이라는데 차거액을 만일 교육계에 쓴다하면 공보교 25개소의 일년간 경비가 된다하며 7천여명의 아동을 일년간 교양할 수 있는 돈을 술값으로 이와 같이 내여버리게 되는세음이라고 일반은 입으로 말만 한다더라.

▶ 1927.2.25(4)1



緣故林讓與
申請書受理

京畿道始興郡에서는向者發布된緣故林特別讓與令에依하야來四月中旬부터申請手續을受理할터이라는데一般申請者의便宜와料金節約을하기爲하야擔任郡屬及森林保護組合技手等이方記日程과如히各面에出張하야無料로申請書를作成하야受理한다는데一般關係者는該期日에無論히所轄面事務所로出頭하는것이조타더라(始興)

永登浦面、北面(四月十三日)東面(十四、十五日)西面(十七、十八日)新東面(二十、二十一日)東川面(二十三、二十四日)西二面(二十六、二十七日)南面(二十八日)秀岩面三十五月一日、二日)君子面(四五、六日)

연고림양여 신청서수리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향자 발포된 연고림 특별양여령에 의하여 래사월중순경부터 신청수속을 수리 할 터이라는데 일선 신청자의 편의와 요금절약을 하기 위하야 담임군 속급산업기수 삼림보호조합 기수 등이 좌기일정과 여히 각면에 출장하야 무료로 신청서를 작성하야 수립한다는데 일반관계자는 해기일에 소할 면사무소로 출두하는 것이 조타더라 (시흥)

영등포면,북면(4월13일) 동면(14,15일) 서면(17,18일) 신동면(20,21일) 과천면(23,24일) 서이면(26,27일) 님면(28일) 수암면(30,5월1일,2일) 군자면(4,5,6일)

▶ 1927.3.5(4)3

二個公普校增設
學校評議員會서決議
始興은二面一校施設

지난三日午前十一時부터始興郡無事히閉會하엿다는데左의議題와各部를두엇다더라(始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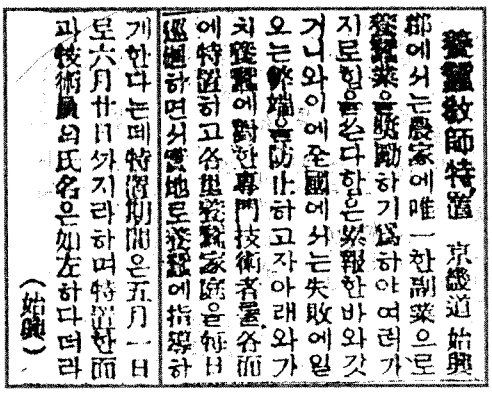
評議會規則에서始興學校評議員會議事細則郡守의開會辭로開催하고昭和二年度學校費豫算을原案에로可決하고午後三時에閉會하엿다는데豫算額은(全部六個公普校와一分教場)總支出六萬九千三十一圓인데그中에는臨時支出一萬三千七百四十圓으로安養公立普通學校費新設하기로計上하엿스며西面分教場을今年度부터公立普通學校로昇立하기로決議하엿슴으로局部에서는于今調印中이라는데此로써始興郡內에對하야公普校八個所와私立二個所合十個校가됨으로써로一面一校의實施가完全히되리라더라(始興)

2개공보교증설 학교평의원회서 결의

시흥은 일면일교시설

(시흥) 지난3일 오전11시부터 시흥군청회의실에서 시흥학교평의원회의를 신미군수의 개회사로 개최하고 소화 2년도 학교비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후 3시에 폐회하엿다는데 예산액은 (전부 6개공보교와 1분교장) 총 지출 6만9천3십1원인데 그 중에는 임시지출 1만3천7백4십원으로 안양공립보통학교를 신설하기로 계상하엿스며 4면분교장을 금년도부터 공립보통학교로 독립하기로 결의하엿슴으로 동부에서는 우금 인가신청중이라는데 차로써 시흥군 10면에 대하여 공보교 8개소와 사립 2개소 합 10개교가 됨으로 실로 일면일교의 실시가 완전히 되리라더라.

▶ 1927.5.8(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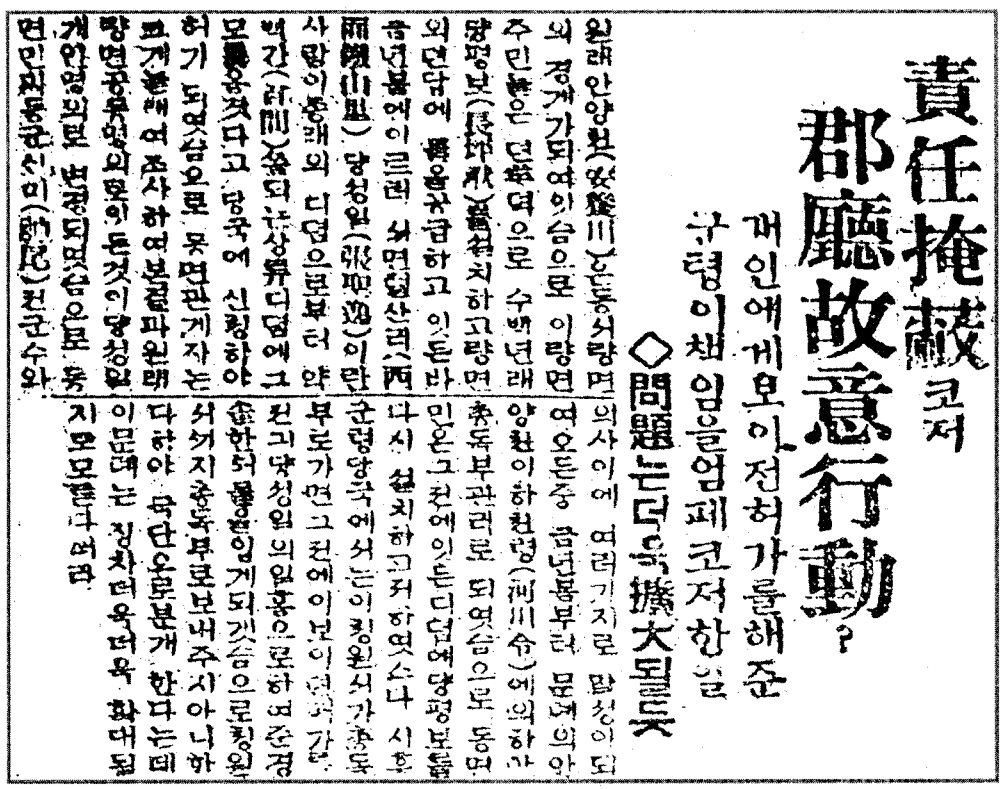


養蠶敎師特選 京畿道始興郡에서는農家에唯一한副業으로養蠶業을奬勵하기爲하야여러가지로힘을쓴다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이에全國에서는失敗에일오는弊端을防止하고자아래와가치養蠶에對한專門技術者를各面에特設하고各養蠶家를每日巡廻하면서實地로養蠶에指導하게한다는데特設期間은五月一日로六月廿日까지라하며特設한面과技術員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始興)

양잠교사 특치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농가에 유일한 부업으로 양잠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힘을 쓴다함은 기보 한바와 갓거니와 이에 전국에서는 실패에 이르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아래와같이 양잠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각 면에 특치하고 각리 양잠가정을 매일 순회하면서 실지로 양잠에 지도하게 한다는데 특치기간은 5월1일로 6월10일까지라 하며 특치한 면과 기술원의 씨명은 여좌하다더라.

▶ 1927.7.5(2)1



責任掩蔽코저 郡廳故意行動?

개인에게로이전허가를해준 군청이책임을엄폐코저한일

◇問題는더욱擴大될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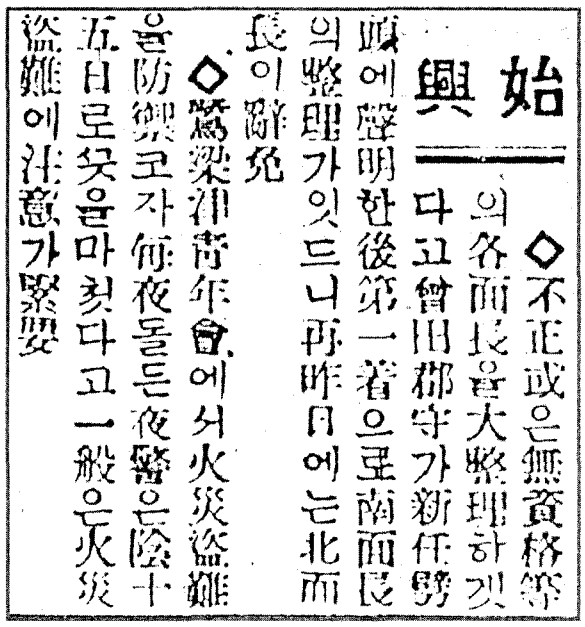
원래안양천(安養川)은동서량면(東西兩面)의사이에 여러가지로말썽이되어 경계가되엿슴으로 이량면(二兩面)여오든중 금년봄부터 문제의안양천은 하천령(河川令)에의하야 주민들은 덕택(德澤)으로 수백년래 양평보(兩坪洑)를설치하고량면에 관리로되엿슴으로 동면민은그전에잇든디뎜에 량평보를 외면답에 물을공급하고잇든바 다시 설치하고저하엿스나 시흥군 당국에서는이청원서가 총독부로가면 그전에이보이전허가를 금년봄에이르러 새면뎜산리(西店山里)장성일(張聖逸)이란 사람이동래의 디뎜으로부터 약백간(百間)쯤되는상류디뎜에 그전긔당성일의일홈으로하여준경 허가되엿슴으로 동면관계자는 크게놀래여 조사하여본결과원래 량면공동명의로 잇든것이 장성일개인명의로 변경되엿슴으로 동면민과군신미전군수와의사이에 여러가지로 말썽이되어 오던중 금년봄부터 문제의 안양천이 하천령에의하여 총독부관리로 되엿슴으로 동면민은 그전에 있던 지뎜에 보를 다시 설치하고저 하엿스나 시흥군 당국에서는 이청원서가 총독부로 가면 그 전에 이보 이전 허가를 전긔 장성일에 일홈으로하여준 경솔한 허물을 입게되겟슴으로 청원서까지 총독부로 보내주지 아니한다하야 극단으로 분개한다는데 이 문뎨는 장차더욱더욱 확대될지도 모른다더라

책임 엄폐코저 군청고의행동

개인에게로 이전허가를 해준 군청이 책임을 엄폐코저 한 일, 문제는 더욱 확대될 듯

원래 안양천은 동서량면의 경계가 되어 잇슴으로 이량면 주민들은면덕으로 수백년래 장평보를 설치하고 량면에 면답에 물을 공급하고 있던 바 금년봄에 이르러 서면 철산리 장성일이란 사람이 종래의 디점으로부터 약백간쯤되는 상류디점에 그 모를 옴겻다고 당국에 신청하야 허가되였슴으로 동면관계자는 크게 놀래여 조사하여 본 결과 원래 량면공동명의로 잇든 것이 장성일개인명의로 변경되엇슴으로 동면민과군 신미전군수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어 오던 중 금년봄부터 문제의 안양천이 하천령에의하여 총독부관리로 되엿슴으로 동면민은 그전에 있던 지점에 보를 다시 설치하고저 하엿스나 시흥군 당국에서는 이청원서가 총독부로 가면 그 전에 이보 이전 허가를 전긔 장성일에 일홈으로하여준 경솔한 허물을 입게되겟슴으로 청원서까지 총독부로 보내주지 아니한다하야 극단으로 분개한다는데 이 문뎨는 장차 더욱 확대될지도 모른다더라

▶ 1928.2.11



始興

◇不正或은無資格等의各面長을大整理하겟다고曾田郡守가新任勞頭에聲明한後第一着으로南面長의整理가잇드니再昨日에는北面長이辭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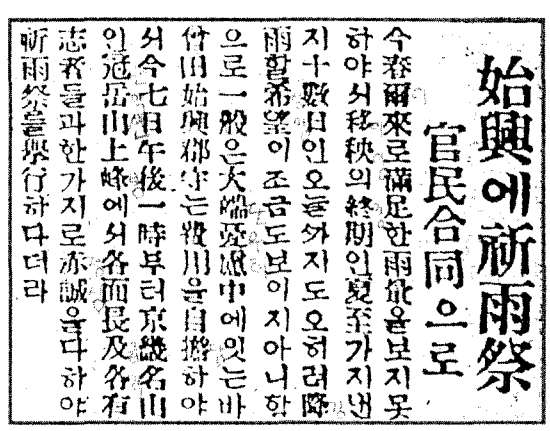
◇警梁津青年會에서火災盜難을防禦코자前夜돌든夜警은陰十五日로끗을마쳣다고一般은火災盜難에注意가緊要

시흥

◇부정 혹는 무자격등의 각면장을 대정리하겟다고 증전군수가 신임벽두에 성명 한 후 제1착으로 남면장의 정리가 있더니 재작일에는 북면장이 사면

◇노량진 청년회에서는 화재도난을 방어코자 매야 돌든 야경은 음15일로 끗을 마쳣다고 일반은 화재도난에 주의가 긴요

▶ 1928.7.7(4)7



始興에 祈雨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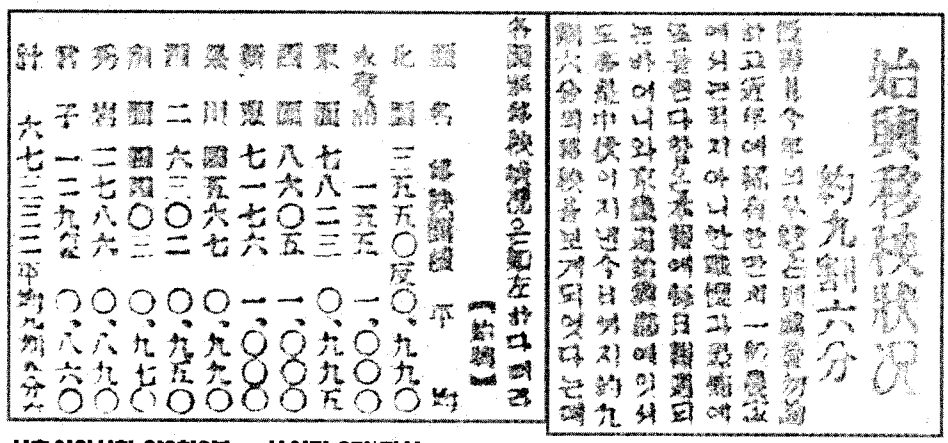
官民合同으로

今春爾來로滿足한雨量을보지못하야서移秧의終期인夏至가지낸지十數日인오늘까지도오히려降雨할希望이조금도보이지아니함으로一般은大端憂慮中에잇는바曾田始興郡守는費用을自擔하야서今七日午後一時부터京畿名山인冠岳山上峰에서各面長及各有志者들과한가지로赤誠을다하야祈雨祭를擧行하다더라

시흥에 기우제 관민동합으로

금춘이래로 만족한 우량을 보지못하야서 이앙의 종기인 하지가 지낸지 십수일인 오늘까지도 오히려 강우 할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아니함으로 일반은 대단 우려중에 잇는바 증전시흥군수는 비용을 자담하야서 금칠일 오전 1시경부터 경기명산인 관악산상봉에서 각 면장급 유지자들과 한가지로 적성을 다하여 기우제를 거행하다더라.

▶ 1928.7.3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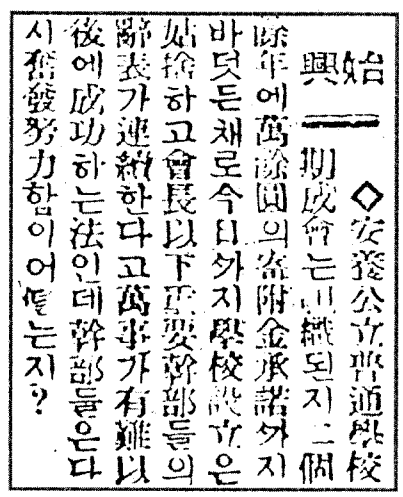


始興移轉決定

約九割六分

시흥이앙상황 약9할6분 · 서이면 95%달성

▶ 1928.10.10(3)11



始興 ◇安養公立普通學校 期成會는 組織된지 二個 昨年에 萬餘圓의 寄附金承諾外지 바덧든 채로今日外지學校設立은 始終하고會長以下重要幹部들의 辭表가連續한다고萬事가有難以 後에成功하는法인데幹部들은다 시奮發努力함이어떠는지?

시흥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는 조직된지 2개여년에 만여원의 기부금승락까지 바덧든 채로 금일까지 학교설립은 고사하고 회장이하 중요간부들의 사표가 연속한다고 만사가 유난이후에 성공하는 법인데 간부들은 다시 분발 노력함이 어떨는지?

▶ 1928. 10. 28

旱害救濟策으로 等外道路改修

總工費一萬餘圓

今年의旱魃은그程度가前에보기어려울만치甚酷한關係로農村의經濟的打擊이말할수업슴으로始興郡에서는管內에第一甚한秀岩君子兩面住民의生活上多少의救濟가될가하야道間計劃中이든安養秀岩間의等外道路改修工事를明春부터始作하고자方今道當局에認可申請中이라는데總工事費는二萬一千六百三十圓中地方費補助額이一萬二千餘圓이라더라【始興】

한해 구재책으로 등외도로 개수

총 공비 2만여원

(시흥)금년의 한발은 그 정도가 전에 보기 어려울 만치 심혹한 관계로 농촌에 경제적 타격이 말할수 업슴으로 시흥군에서는 관내에 제일 심한 수암 군자 양면주민의 생활상 다소의 구제가 될까 하야 저간계획중이든 안양 수암간의 등외도로 개수 공사를 명춘부터 시작하고자 방금 도당국에 인가 신청 중 이라는데 총공사비는 2만 1천 6백 3십원 중 지방비 보조액이 일만 삼천여원이라더라.

▶ 1928. 11. 27

始興郡免稅額

一萬六千二百餘圓

今年旱災로因하야始興郡에서도付하고叺織映響을開催한다하였슴에딸하地稅의免除額도相當하다는데그內容은本稅가七千九百九十二圓二十七錢과地稅賦加金四千七百九十五圓二十六錢二厘와面經費賦加金三千六百圓合一萬六千二百八十七圓六十三錢의二個面에八個所의集衆地를選定한後二日間講習會를開催하고巡廻敎師를派遣하야前記二個面을巡廻指導케할터이나라來十二月부터明年五月까지前記二個面各里에製叺指導員을駐在케하야서大大的으로製叺奬勵를힘쓰리라더라【始興】

讀者優待劇盛況

本報

地方論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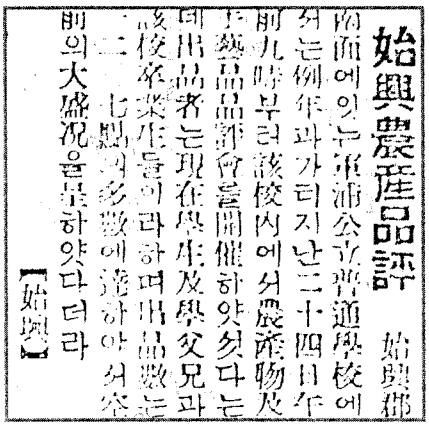
龍雲堤防期成會創立

文川郡農況

三割以上減收

시흥군 면세액 /1만6천3백여건

▶ 1928.11.2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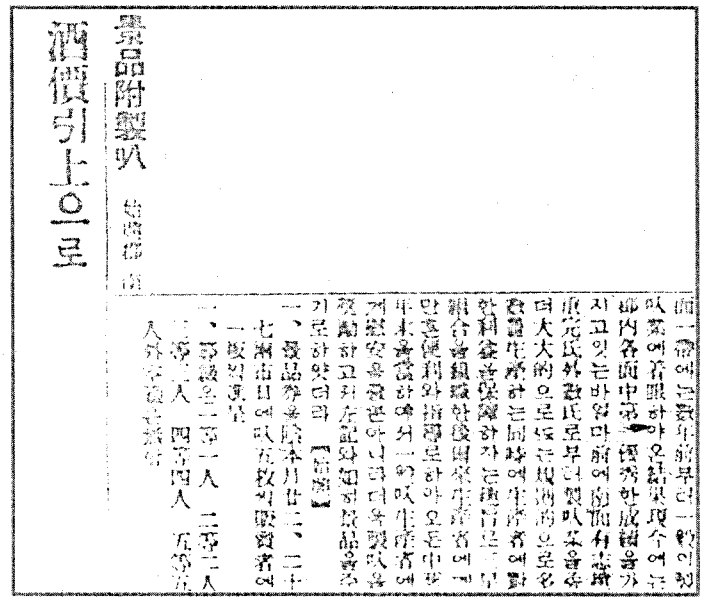


始興農産品評

시흥농산품평

(시흥) 시흥군 남면에 잇는 군포공립보통학교에서는 예년과 가티 지난 24일 오전9시부터 각 교내에서 농산물급수예품 품평회를 개최하얏섯다는데 출품자는 현재 학생급 학부형과 해교 졸업생들이라 하며 출품수는 1227점의 다수에 달하여서 공전의 대성황을 정하얏다더라.

▶ 1929.2.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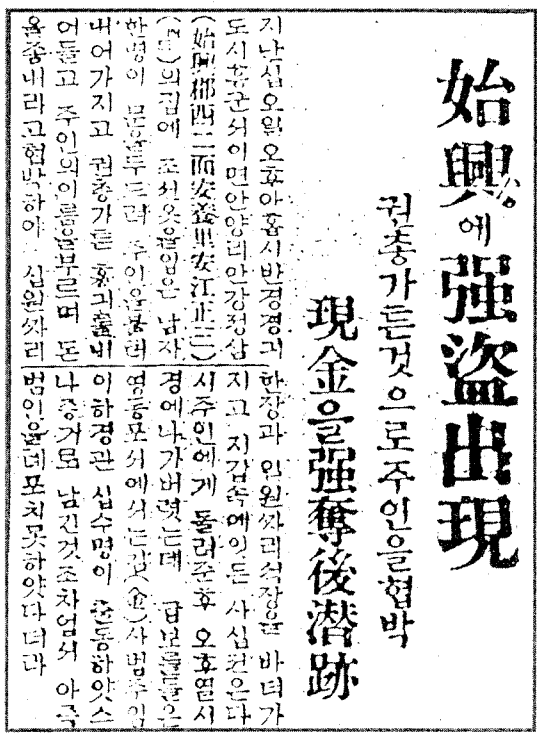
景品附製以

酒價引上으로

경품 부제말

시흥군 남면 일대에는 수년전부터 일반이 제팔업에 착안하여온 결과 현금에는 군내 각면중 제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잇는바 얼마전에 남면 유지 조중완씨 외 수씨로부터 제팔업을 좀더 대대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다수를 생산하는 동시에 생산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삼성조합을 조직한 후 이래 생산자에게 많은 편리와 지도를 하야 오던 중 구년말에 당하여서 일반 팔생산업자에게 위안을 줄뿐만아니라 제팔을 장려하고자 좌기와 여히 경품을 주기로 하얏다더라.

▶ 1929.3.18(2)4



始興에 强盜出現

권총가튼것으로주인을협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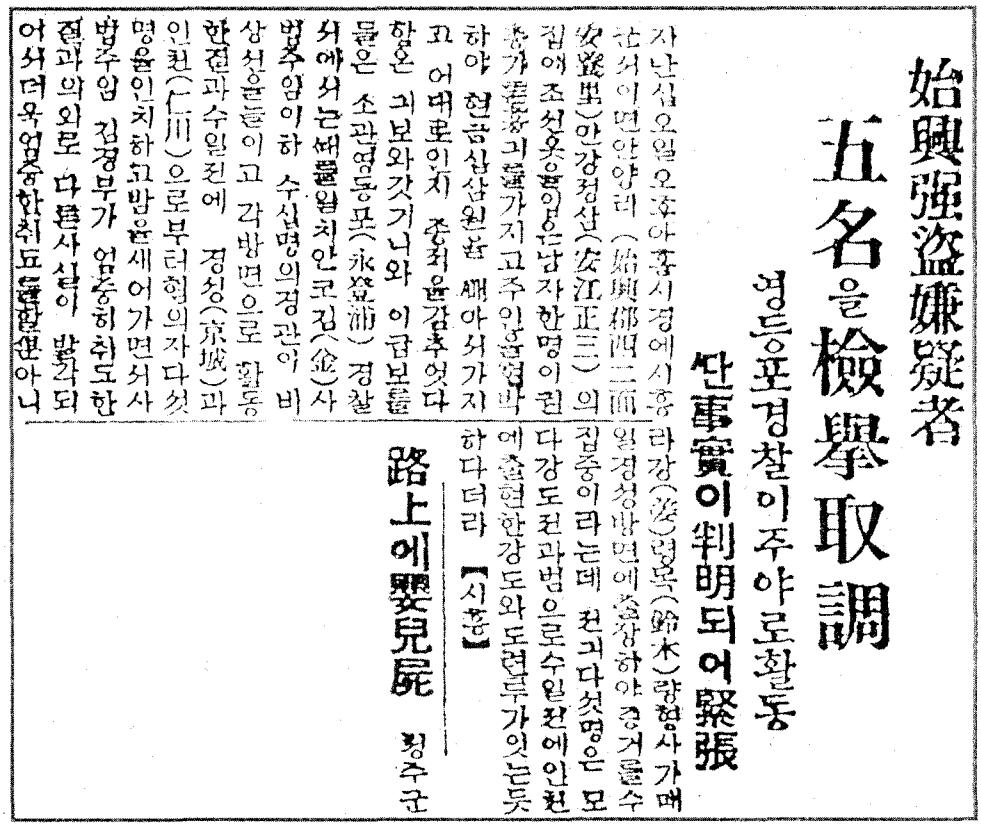
現金을强奪後潛跡

시흥에 강도출현

권총 갓튼 것으로 주인을 협박
현금을 강탈 후 잠적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안강정삼(43)의 집에 조선옷을 입은 남자 1명이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불러내어 가지고 권총 가튼 흉기를 내어들고 주인의 이름을 부르며 돈을 좀 내라고 협박하야 10원짜리 한 장과 1원짜리 3장을 받아 가지고 지갑 속에 잇든 40전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후 오후 10시경에 나가버렷는데 급보를 들은 영등포서에서는 김 사법주임 이하 경관 십수명이 출동하얏으나 증거로 남긴 것 조차 업서 아직 범인을 체포치 못하엿다더라

▶ 1929.3.24(5)3



始興强盜嫌疑者
五名을檢擧取調
영등포경찰이주야로활동
딴事實이判明되어緊張

자난십오일오후아홉시경에시흥라강(羅江)면옥(鈴木)량형사가매
군서이면안양리(始興郡西二面
安養里)안강정삼(安江正三)의
집에조선옷을입은남자한명이권
총가튼흉긔를가지고주인을협박
하야현금십삼원을빼아서가지
고어데로인지종적을감추엇다
함은귀보와갓기니와이급보를
들은소관영등포(永登浦)경찰
서에서는즉시긴급히활동하야
범주임이하수십명의경관이비
상선을늘이고각방면으로활동
한결과수일전에경성과인천(仁川)으로부터혐의자다섯
명을인치하고밤을새어가면서사
법주임김경부가엄중히취조한
결과의외로다른사실이발각되
어서더욱엄중한취조를할뿐아니
라강령복양형사가매일경성방
면에출장하야증거를수집중이라는데전긔다섯명은모
다강도전과범으로수일전에인천
에출현한강도와도련루가잇는듯
하다더라【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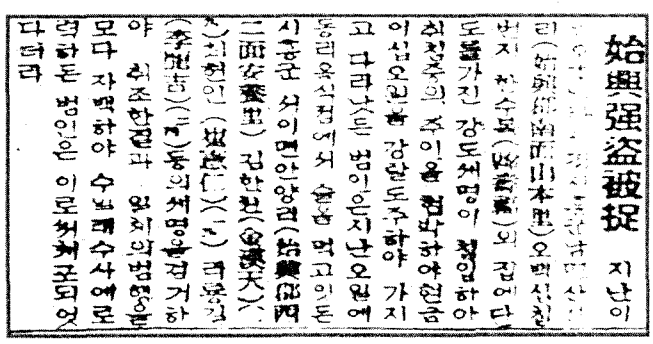
路上에嬰兒屍 횡주군

시흥강도 혐의자 5명 검거취조

영등포 경찰이 주야로 활동, 딴 사실이 판명되어 긴장

(시흥)지난 15일 오후 9시경에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안강정삼의 집에 조선옷을 입은 남자 한명이 권총가튼 흉기를 가지고 주인을 협박하여 현금 13원을 빼아서가지고 어데로인지 종적을 감추었다함은 귀보와 같거니와 이 급보를 들은 소관영등포경찰서에서는 때를 일치안고 김사주임이하 수십명의 경관이 비상선을 늘이고 각 방면으로 활동한결과 수일전에 경성과 인천으로부터 협의자 5명을 인치하고 밤을 새어가면서 사법주임 김경부가 엄중히 취조한 결과 의외로 다른 사실이 발각되어서 더욱 엄중한 취조를 할 뿐 아니라 강,령복 양형사가 매일 경성방면에 출장하여 증거를 수집중이라는데 전기5명은 모두 강도 전과범으로 수일전에 인천에 출현한 강도와도련루가있는듯하다더라.

▶ 1929.12.8(2)10



始興强盜被捉 지난이

시흥군 서이면안양리(始興郡西二面安養里) 김한천(金漢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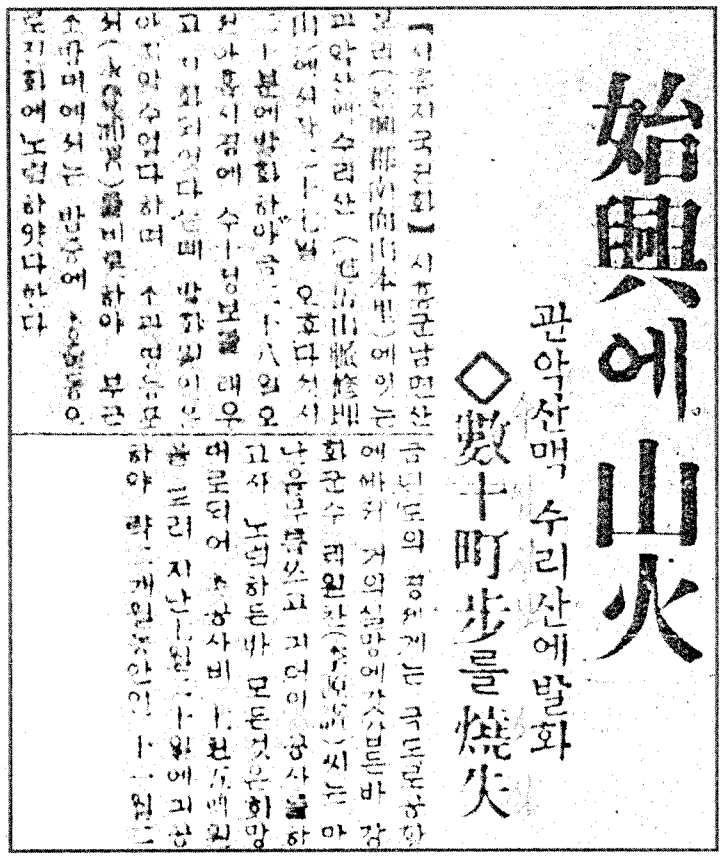
▶ 1929.12.9(3)6

시흥을 풍비튼 강도단체포

금춘의 사건도 가튼 자 소위
군민은 이로써 안도

(시흥) 금년봄에 시흥군 안양시 안강정삼이란 일본사람의 집에 단도와 기타 흉기를 가지고 나타나서 현금 15원을 강탈 도주한 강도사건이 발생되자 관할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주야 겹행으로 그 체포에 노력하얏스나 반년이 지난 금일에 이르기까지 종적이 묘연하여 거의 낙망에 이른 이때에 다시 지난 2일 밤 11시경에 남면 산본리 한수복의 집에 삼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 25원 10전을 강탈 도주한 보고를 접하게 된 동서에서는 김사법 주임이하 형사대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사건이 발생 된지 2주야가 된 지난5일 깁흔 밤중에 일망타진으로 삼인조 강도단을 체포하고 겨우 한숨을 놓게 되엇다는데 경찰의 취조에 의하면 범인은 모두 안양사람으로 일반의 상당한 신임을 받는 김한천, 최현인, 이용길 등 3인인데 주범 김한천이가 전기 최,이 양인에게 공범하자는 양해를 어더 가지고 지난달 상순경에 경성으로 올라와서 변장 할 때에 쓸 양복3벌과 모조 육혈포3개와 길이 8촌5푼이나 되는 단도 2자루와 목출모 두개와 회중전등 3개와 기타 집신 2켤레를 사 가지고 내려와서 제일 착으로 지난 달 15에 안양 박준영 상점을 습격하려 하얏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달 31일로 미루엇던 바 그날은 마침 안양에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날이라서 방이 환하게 밝음으로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금월 1일 밤 11시경에 자전거를 몰아 타고 남면 산본리 모부호의 집으로 향하다가 도중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되어 후사를 염려하여 다시 돌아와 다음날 가기로 상의하고 이용길은 지난2일에 안양연초조합을 엿보아 누가 담벳갑을 만히 찻아가나를 탐지하여 전 피해자인 한수복이가 현금 190여원을 차저가는 것을 알어가지고 즉시 최현인에게 알이어 뒤를 밟아 집을 알고 돌아오게 한 후 어둡기를 기다려가지고 3사람은 각각 자전거를 타고 한수복의 집을 습격 한 것을 알게되엇으며 또한 금년 봄에 안강의 집에 설교강도를 한 것도 전기 김한천의 단독 행동인 것을 자백하얏다는데 사건이 사건인 만큼 인심시초조하든 끄테 교묘한 수단으로써 그와 가티 무난히 체포하얏다고 동서 김사법주임은 자만을 말하더라.

▶ 1930.11.29(7)3



始興에 山火

관악산맥 수리산에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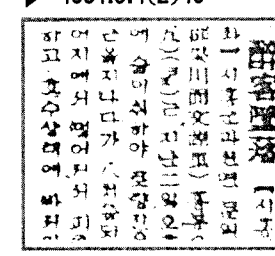
◇數十町步를 燒火

시흥에 산화

관악산맥 수리산에 발화
수십정보를 소실

(시흥지국전화) 시흥군 남면 산본리에있는 관악산맥 수리산에서 작27일 오후5시20분에 발화하야 금 28일 오전 9시경에 수십 정보를 태우고 진화되엇다는데 발화원인은 아직 알수 업다하며 소관 영등서를 비롯하야 부근 소방대에서는 밤중에 총출동으로 진화에 노력하얏다한다.

▶ 1931.3.4(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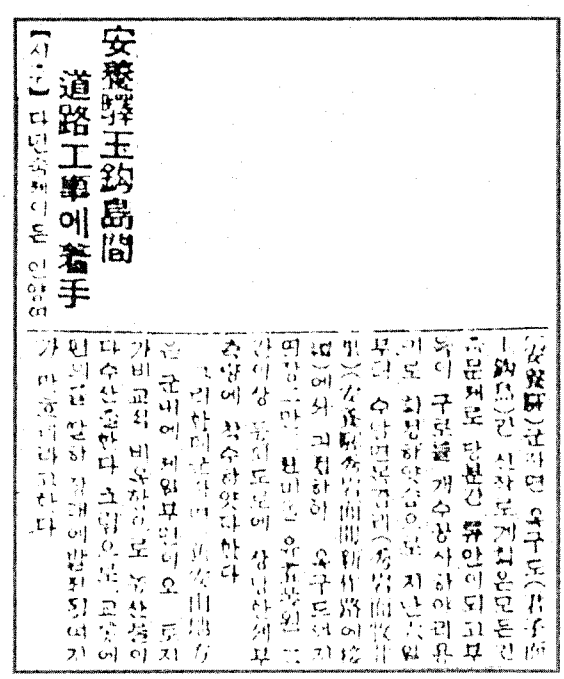


醉客墜落

취객 추락

(시흥)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홍봉오(35)는 지난 2일 오후 8시경에 술이 취하야 노량진 우편소 부근을 지나다가 8척쯤되는 랑떠러지에서 떨어저서 피를 많이 토하고 혼수상태에서 빠저잇다한다.

▶ 1931.10.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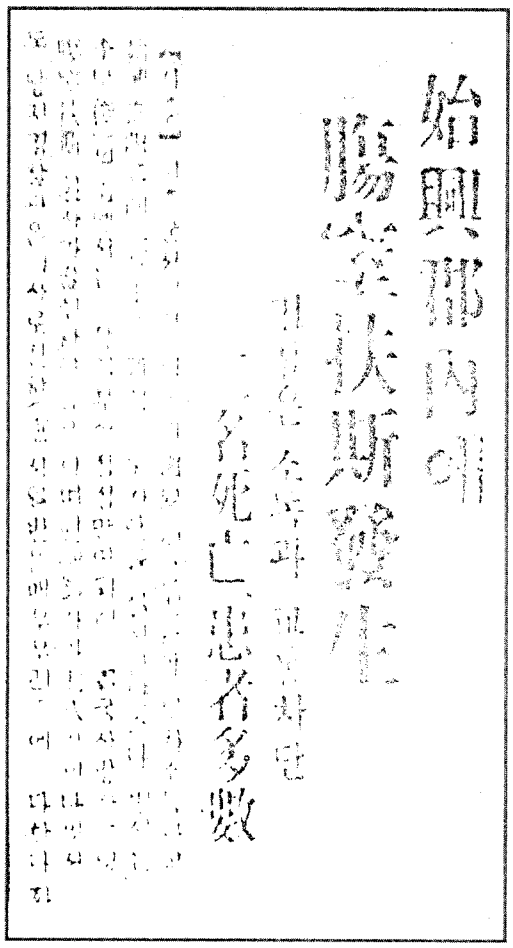
安養驛玉鉤島間

道路工事에着手

안양역 옥구도간 도로공사에 착수

(시흥) 다년 숙제이든 안양역 군자면 옥구도간 신작로 계획은 모든 건축문제로 당분간 류안이되고 부득이 구로를 개수공사하야 리용키로 확정하얏슴으로 지난 6일부터 수암면 목감리에서 기접하야 옥구도까지 연장 2만 3천 미돌 유효폭은 이간이상 등외도로에 상당한 세부측량에 착수하얏다한다 그러한데 군자면은 군내에 제일 부면이오 토지가 비교적 비옥함으로 농산물이 다수산출한다 그럼으로 교통에 편의를 딸아 장래에 발전될 여지가 많으리라고 한다.

▶ 1931.10.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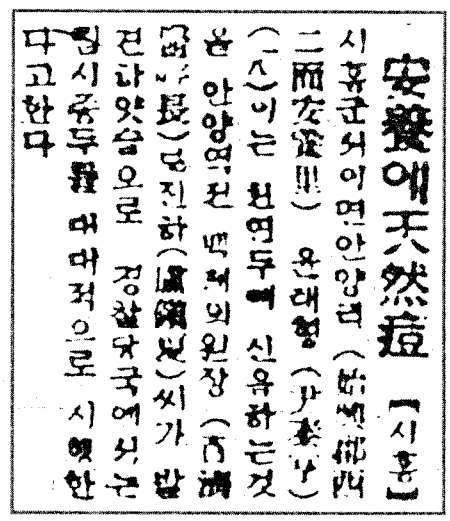


始興郡內에
腸窒扶斯發生
警察은 소독과 교통차단
多數死亡、患者多數

시흥군내에 장질부사발생

경찰은 소독과 교통차단 2명사망 환자다수
(시흥)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 이성훈의 집에서는 장질부사환자가 발생하얏슴으로 당시 경찰관은 의사로 로진하를 청하여 루차 소독과 교통차단을 실시하얏으나 병세는 점점 만연되어 결국 사망자 2명이며 현재 환자가 7,8인이나 잇서서 일반은 매우 우려 중에 잇다한다.

▶ 1932.1.20(7)5



安養에天然痘 【시흥】
시흥군서이면안양리 (始興郡西
二面安養里) 윤태형 (尹泰亨)
(一八)이는 천연두에 신음하는것
을 안양역전 백제의원장 (百濟
(醫院長) 노진하(盧鎭河)씨가 발
견하얏슴으로 경찰당국에서는
임시종두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다고한다

안양에 천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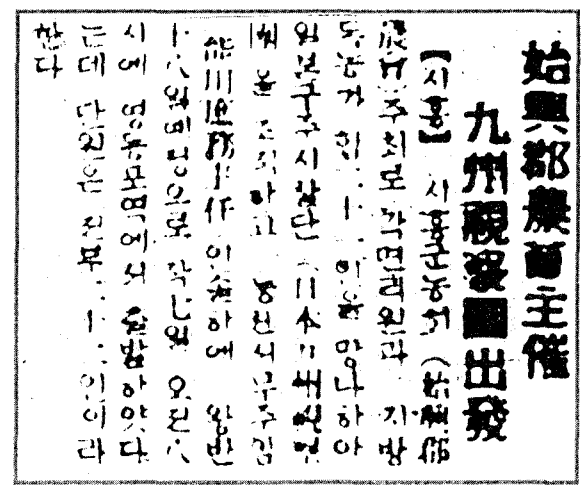
(시흥)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윤태형(18)이는 천연두에 신음하는 것을 안양역전 백제 의원장 노진하씨가 발견하얏슴으로 경찰당국에서는 임시종두를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 1932.6.5(7)4

궁춘기민에 속미를 분배 오기영씨 미상

경성부 교북동 오기영씨는 지난 24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에사는 빈곤사는 20호에 좁쌀8포대를 분급하야주어 춘궁에 남어지기아를 면케 하였음으로 칭송이 자자하다는데 오씨는 년례로 매년 춘궁때이면 그 곳에빈한한 동포들에게 자혜를 만히 하여 비산리 동민들은 년전에 그곳에다가 석비까지 세워 송덕을 하얏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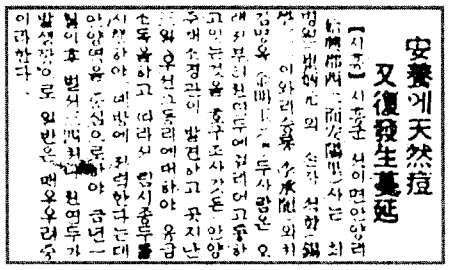
▶ 1932.6.9



시흥군 농회 주최 구주시찰단 출발

(시흥) 시흥군 농회 주최로 각 면리원과 지방독농가 합 21인을 망라하여 일본구주시찰단을 조직하고 능천(能川)서무주임 인솔하에 왕복 18일 예정으로 작 7일 오전 8시에 영등포역에서 출발하였다는데 단원은 전부 22인이라 한다.

▶ 1932.6.9(7)7


安養에 天然痘
又復發生蔓延

안양에 천연두 우부발생 만연

〈시흥〉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사는 최병원의 손자 석학이화 이승요의 처 김명옥 2사람은 오래 전부터 천연두에 걸리어 고통하고 있는 것을 호구조사 갓든 안양주재소 경관이 발견하고 곳 지난 삼일 우선 그동리에 대하여 응급소독을 하고 따라서 임시종두를 시행하여 예방에 전력을 한다는데 안양역을 중심으로 하여 금년일월이후 벌써 삼사처나 천연두가 발생함으로 일반은 매우 우려중이란 한다.

▶ 1932.7.2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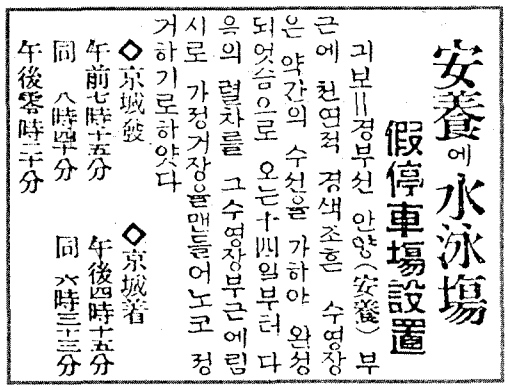
安養石水洞에
水泳場을 新設
山明水麗한 絶勝地에

안양 석수동에 수영장을 신설

산명수려한 절승지에

(시흥) 경부선 안양역에서 북으로 약18정도 되는 석수동은 이름과 가티 수석이 많고 겸하야 그정석신일분더러 산명수려하야 고래로 시인묵객의 작회가 부성하든 승지이었다. 근래지방의 발전을 따라 지방유지 제씨들은 석수동에다가 일대수영장 설치를 계획하고 지난 10일부터 해공사에 착수하였다는데 그 수영장의 위치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천연의 경색이 풍부한외에 근소한 공비로도 리상적 일대 수영장을 할수 있다는 바 총공비 1천5백원으로 장은 60미돌 광은 20미돌로 기리는 1미돌 8에 세멘트 콩트리트로 공사는 느저도 7월내로 준공할 예정이라 한다. 경성을 중심으로 하야 여러곳에 승지는 만흐되 상당한 수영장은 별로 업다. 인천은 거리가 멀고 한강은 수음이 업슴이라. 안양은 곳곳에 녹음이 무성하야 여름에는 학생의 림간학교의 피서지로 유명할뿐더러 가을에는 관풍 습률의 승지로 이름있는 곳인데 겸하여 수영장이 완성되면 금상첨화로 안양일대는 관악산 아래에 락원지대가 되어 지방발전은 더욱 번영하리라고 한다.

▶ 1932.8.12(7)9



安養에 水泳場
假停車場設置

괴보||경부선 안양(安養) 부근에 천연적 경색조흔 수영장은 약간의 수선을 가하야 완성되엇슴으로 오는十四일부터 다음의 렬차를 그 수영장부근에림시로 가정거장을맨들어노코 정거하기로하얏다

◇京城發
午前七時十五分
同 八時卅分
午後零時三十分

◇京城着
午後四時十五分
同 六時三十三分

안양의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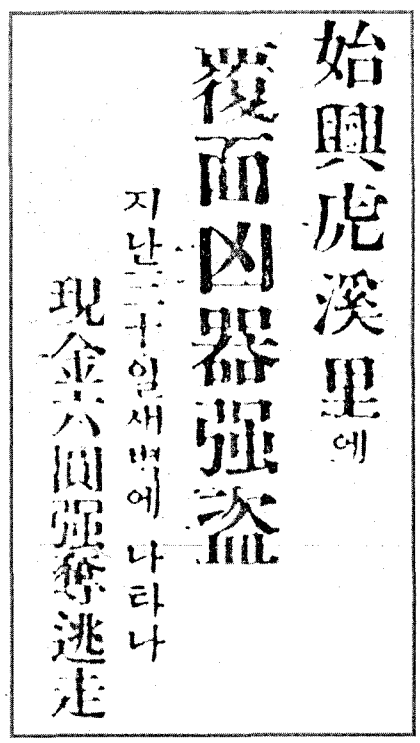
가정거장 설치

괴보=경부선 안양 부근에 천연적 경색조흔 수영장은 약간의 수선을 가하여 완성되었으므로 오는 14일부터 다음의 열차를 그 수영장 부근에 임시로 가정거장을 만들어놓고 정거하기로 하였다.

경성발
오전 7시15분
동 8시15분
오후 0시20분

경성착
오후 4시50분
동 6시 33분

▶ 1933.1.2(3)



始興虎溪里에
覆面凶器强盜
지난三十일새벽에 나타나
現金六圓强奪逃走

시흥 호계리 복면 흉기강도 지난 30일 새벽에 나타나

현금 6원강탈 도주

30일 오전 3시경에 호계리 74번지 김영선의 집에 복면한 강도1명이 곤봉과 낫을 가지고 침입하여 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6원을 강탈 도주하얏다한다.

▶ 1933.7.25(4)1

農村更生의 一夜講習 【시흥】 공동생활 실험을 목지하야 시흥군(始興郡) 각 농촌진흥회 중견청년 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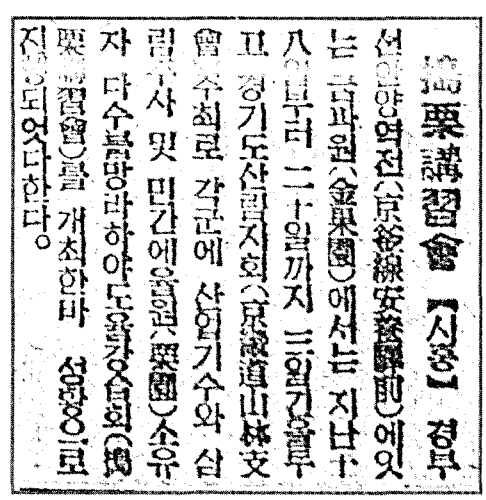
農村更生의 一夜講習

十二일을 망라한 경기도 주최의 一야(夜) 강습회는 지난 二十三, 四양일간 군포(軍浦) 공보교내에서 개최되엇는바 농촌갱생의 새로운 기운이 찻엇으며 동석에서는 폐단많은 사음(舍音)의 폐지문제등이 통론되엇다고。

시흥의 일야강습

[시흥] 공동생활 실험을 목적하야 시흥군 각 농촌진흥회 중견청년 육십이인을 망라한 경기도 주최의 일야 강습회는 지난 23,4양일간 군포 공보교내에서 개최되엇는바 농촌갱생의 새로운 기운이 찻엇으며 동석에서는 폐단많은 사음의 폐지문제등이 통론되엇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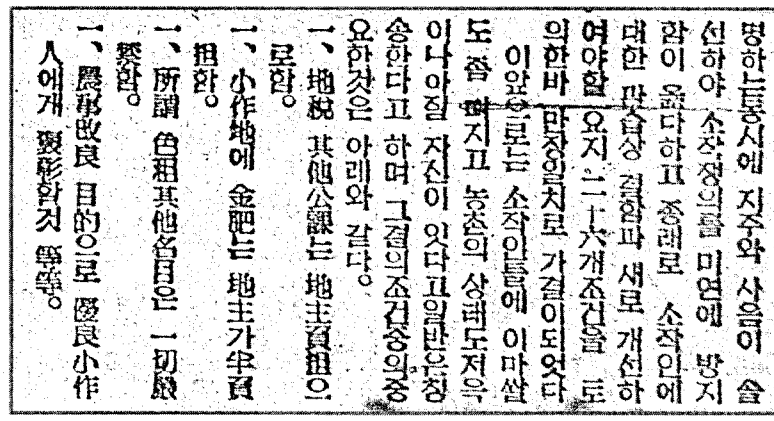
▶ 1933.10.26(3)6


道路講習會 【시흥】 경부선 안양역전(京釜線安養驛前)에잇는 금과원(金果園)에서는 지난十八일부터 二十일까지 三일간을두고 경기도산림지회(京畿道山林支會) 주최로 각군에 산업기수와 산림주사 및 민간에율원소유자 다수를망라하야도율강습회(栗講習會)를 개최한바 성황으로 진행되엇다한다。

도율강습회

[시흥] 경부선 안양 역전에 잇는 금과원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을 두고 경기도 산림지회 주최로 각 군에 산업기수와 산림주사 및 민간에 율원 소유자 다수를 망라하야 도율 강습회를 개최한바 성황으로 진행되었다 한다.

▶ 1933.10.26



小作人에 福音

지세와색조를폐지

始興南面地主會서

【시흥】 시흥군남면(始興郡南面) 사무소내에 지난 二三일오전十시부터 면내에 거주하는 지주 사음 二十여인이 회합하야 정명환(鄭明煥)씨를 의장으로 지주회를 개회한후 현한 농촌에 궁박한 생활에 시달리는 소작인들에 대하야 지주와 사음의 책임을 규명하는동시에 지주와 사음이 솔선하야 소작쟁의를 미연에 방지함이 옳다하고 종래로 소작인에 대한 관습상 결함과 새로 개선하여야할 요지 二十六개조건을 토의한바 만장일치로 가결이되엇다 이앞으로는 소작인들에 이마쌀도 좀 펴지고 농촌의 상태도저윽이 나아질 자신이 잇다고일반은칭송한다고 하며 그결의조건중의중요한것은 아래와 같다。

一、地稅 其他公課는 地主負担으로함。

一、小作地에 金肥는 地主가半負担함。

一、所謂 色租其他名目은 一切廢絶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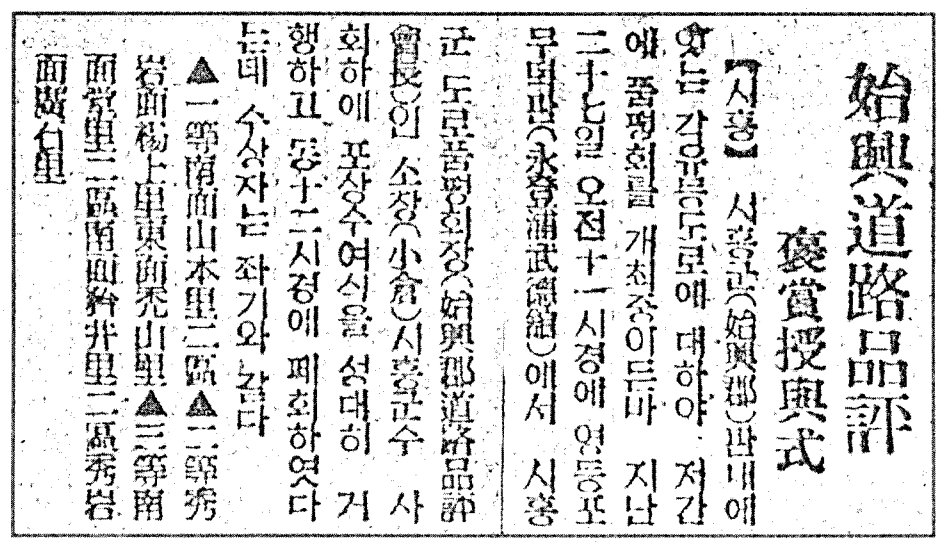
一、農事改良 目的으로 改良小作人에게 褒彰할것 等等。

소작인에복음

지세와색조를폐지
시흥남면지주회서

(시흥) 시흥군남면사무소내에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면내에 거주하는 지주 사음 20여인이 회합하야 정명환씨를 의장으로 지주회를 개회한후 현한 농촌에 궁박한 생활에 시달리는 소작인들에 대하야 지주와 사음의 책임을 규명하는동시에 지주와 사음이 솔선하야 소작쟁의를 미연에 방지함이 옳다하고 종래로 소작인에 대한 관습상 결함과 새로 개선하여야할 요지 26개조건을 토의한바 만장일치로 가결이되엇다. 이앞으로는 소작인들에 이마쌀도 좀 펴지고 농촌의 상태도 저윽이 나아질 자신이 잇다고일반은칭송한다고 하며 그 결의 조건중의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一. 지세 기타공과는 지주부담으로함. 一. 소작지에 금비는 지주가반부담함. 一. 소위 색조기타명목은 일절업금함. 一. 농사계량 목적으로 우량소작인에게 표창할것 등등

▶ 1933.11.29(5)1



始興道路品評

褒賞授與式

【시흥】 시흥군(始興郡)관내에 잇는 각유등도로에 대하야 저간에 품평회를 개최중이든바 지난 二十七일 오전十一시경에 영등포무덕관(永登浦武德館)에서 시흥군 도로품평회장(始興郡道路品評會長)인 소창(小倉)시흥군수 사회하에 포상수여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동十二시경에 폐회하엿다는데 수상자는 좌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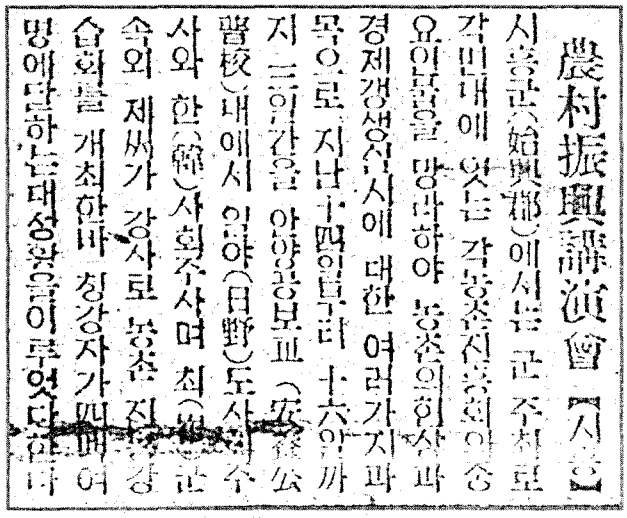
▲一等 南面山本里二區 ▲二等 秀岩面梅上里東面禿山里 ▲三等 南面堂里二區 南面新井里二區 秀岩面臺里

시흥도로품평

포상수여식

(시흥) 시흥군관내에 잇는 각유등도로에 대하야 저간에 품평회를 개최중이든바 지난 27일 오전열한시경에 영등포무덕관에서 시흥군 도로품평회장인 소창시흥군수 사회하에 포상수여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동12시경에 폐회하엿다는데 수상자는 좌기와 같다. ▲일등 남면 산본리이구 ▲이등 수암면양상리 동면 수산리 ▲삼등 남면 당산리 이구 남면 금정리이구 수암면광석리

▶ 1933.12.19일조(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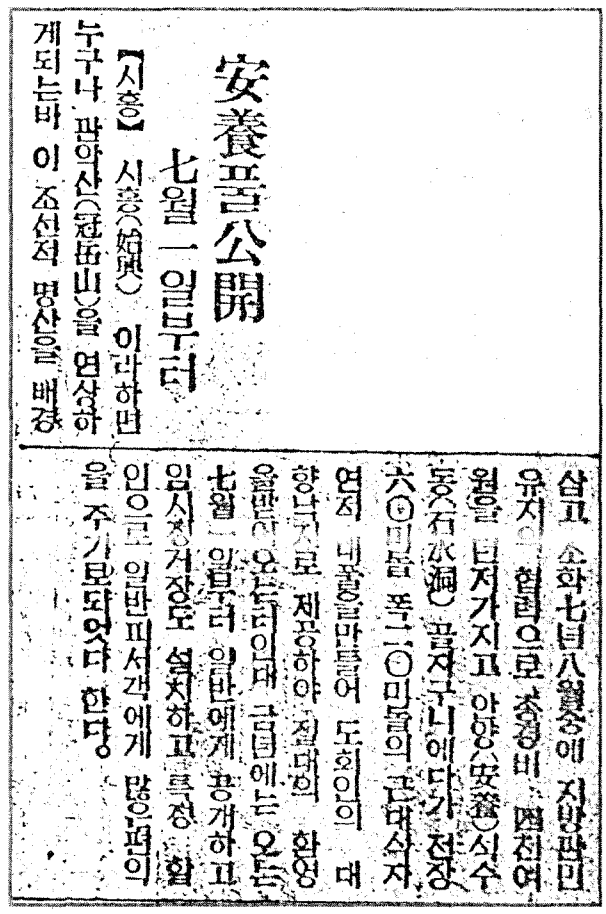
農村振興講演會 【시흥】

시흥군(始興郡)에서는 군 주최로 각면내에 잇는 각농촌진흥회의 중요인물을 망라하야 농촌의현상과 경제갱생실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으로 지난十四일부터 十六일까지 三일간을 안양공보교(安養公普校)내에서 일야(日野)도사와 한(韓)사회주사며 최(崔)군속외 제씨가 강사로 농촌 진흥강습회를 개최한바 청강자가 사백여명에달하는대성황을이루엇다한다

농촌진흥강연회

(시흥) 시흥군에서는 군 주최로 각면내에 잇는 각농촌진흥회의 중요인물을 망라하야 농촌의현상과 경제갱생실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으로 지난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을 안양공보교내에서 일야 도사회 주사와 한 사회주사며 최군속외 제씨가 강사로 농촌 진흥강습회를 개최한바 청강자가 사백여명에 달하는 대성황을이루엇다한다

▶ 1934.7.1(3)8



安養풀公開

七월一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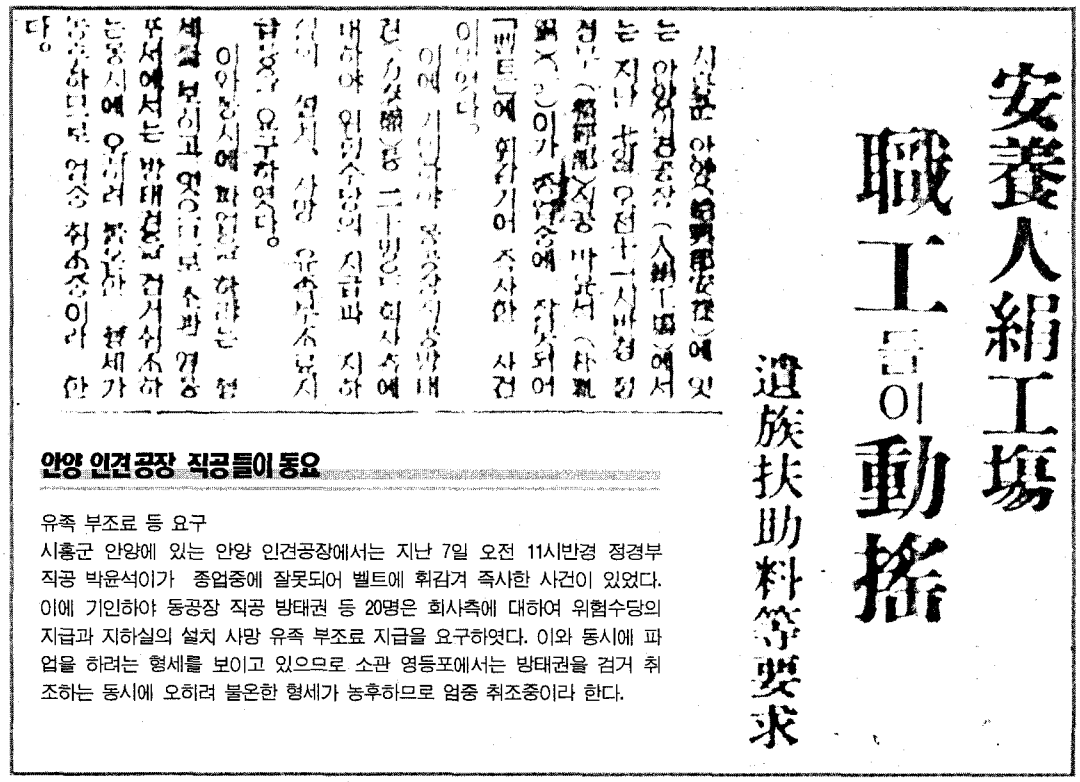
【시흥】 시흥(始興) 이라하면 누구나 관악산(冠岳山)을 연상하게되는바 이 조선적 명산을 배경삼고 소화七년八월중에 지방관민유지의 협력으로 총경비 사천여원을 던저가지고 안양(安養)석수동(石水洞) 골자구니에다가 전장 六〇미돌 폭二〇미돌의 근대식자연적 대풀을 만들어 도회인의 대향락지로 제공하야 절대의 환영을받게 되엇는데 금년에는 오는 七월一일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고 임시정거장도 설치하고 특정 할인으로 일반피서객에게 많은 편의을 주기로되엇다 한다.

안양풀공개

7월 1일부터

[시흥] 시흥이라하면 누구나 관악산을 연상하게되는바 이 조선적 명산을 배경삼고 소화7년8월중에 지방관민유지의 협력으로 총경비 사천여원을 던저가지고 안양 석수등 골자구니에다가 전장 60미돌 폭 20미돌의 근대식자연적 대풀을 만들어 도회인의 대향낙지로 제공하야 절대의 환영을 받어오는 터인대 금년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고 임시정거장도 설치하고 특정 할인으로 일반피서객에게 많은 편의을 주기로되엇다 한다.

▶ 1935.4.1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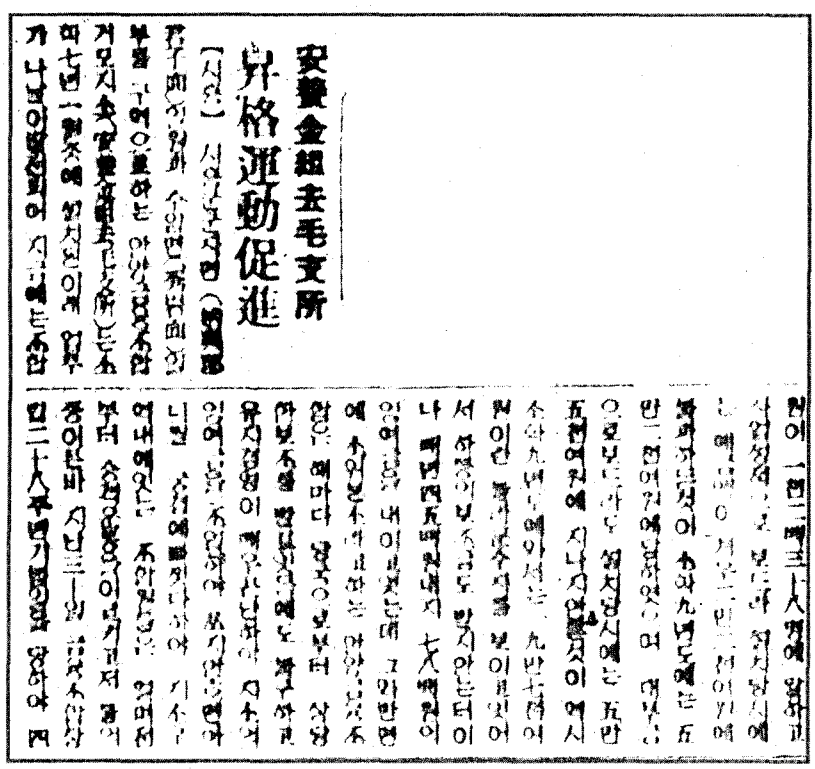
安養人絹工場
職工들이動搖
遺族扶助料等要求

안양 인견공장 직공들이 동요

유족 부조료 등 요구

시흥군 안양에 있는 안양 인견공장에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반경 정경부 직공 박윤석이가 종업중에 잘못되어 벨트에 휘감겨 즉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기인하야 동공장 직공 방태권 등 20명은 회사측에 대하여 위험수당의 지급과 지하실의 설치 사망 유족 부조료 지급을 요구하엿다. 이와 동시에 파업을 하려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관 영등포에서는 방태권을 검거 취조하는 동시에 오히려 불온한 형세가 농후하므로 엄중 취조중이라 한다.

▶ 193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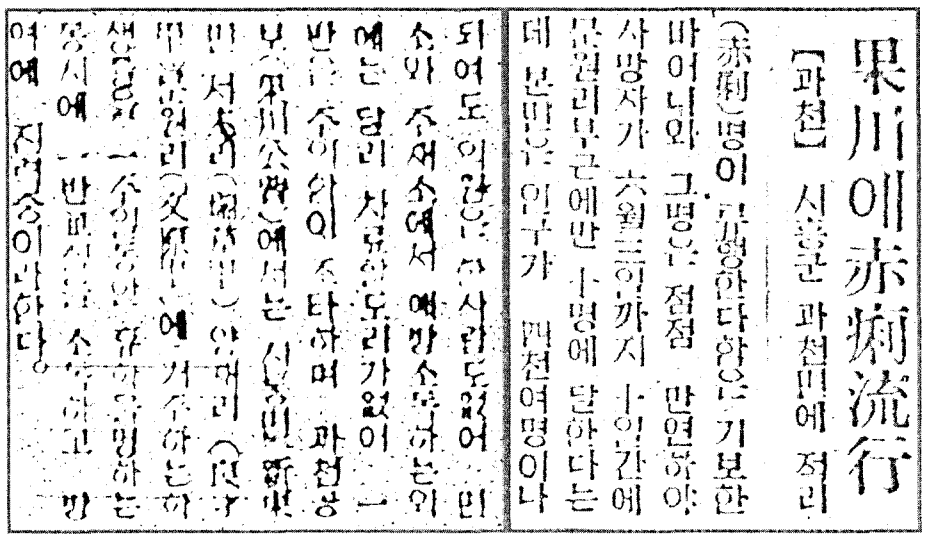


安養金組去毛支所
昇格運動促進

안양금조 거모지소 승격운동 촉진

(시흥) 시흥군 군자면 일원과 수암면 일부를 구역으로하는 안양금융조합 거모지소는 소화 7년 1월중에 설치된 이래 업무가 나날이 발전되어 지금에는 조합원이 1천2백38명에 달하고 사업성적으로 보드라도 설치당시에는 예금액이 겨우 2만2천여원에 불과하든 것이 소화 9년도에는 5만 2천여원에 달하엿으며 대부금으로보드라도 설치당시에는 5만5천여원에 지나지 안을것이 역시 소화9년도에와서는 9만7천여원이란 놀라운수지를 보이고 잇어서 하동의 보조금도 받지 안는터이나 매년 4, 5백원내지 7, 8백원의 잉여금을 내이고잇는데 그와 반면에 소위본소라고하는 안양금융조합은 해마다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보조를 받고잇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경영이 매우곤난하야 지소의 잉여금을 분입하야 쓰지안흐면아니될 궁경에 뻐젓 다하야 지소구역내에잇는 조합원들은 얼마전부터 승격운동을 일으키고저 논의중이른바 지난 30일 금융조합창립 28주년 기념일을 당하야 4

▶ 1935.6.8조(3)2



果川에 赤痢流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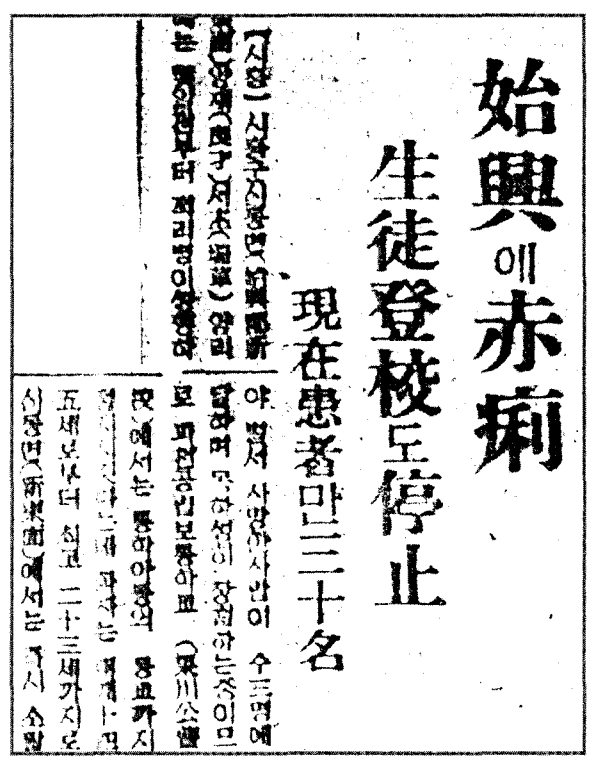
【과천】 시흥군 과천면에 적리

(赤痢)병이 류행한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병은 점점 만연하야 사망자가 수월삼일까지 십일간에 문원리부근에만 십명에 달한다는데 본면은 인구가 사천여명이나 되어도 의원은 한사람도없어 면소와 주재소에서 예방소독하는외에는 달리 치료할도리가없어 일반은 주의함이 조타하며 과천공보교에서는 신동면 서초리 양재리 문원리에 거주하는학생들을 일주일동안 휴학을 명하는 동시에 일반교실을 소독하고 방역에 진력중이라한다.

과천에 적리유행

(과천) 시흥군 과천면에 적리병이 류행한다함은 기보한바거니와 그병은 점점 만연하야 사망자가 유월삼일까지 십일간에 문원리부근에만 십명에 달한다는데 본면은 인구가 사천여명이나 되어도 의원은 한사람도없어 면소와 주재소에서 예방소독하는외에는 달리 치료할도리가없어 일반은 주의함이 조타하며 과천공보교에서는 신동면 서초리 양재리 문원리에 거주하는학생들을 일주일동안 휴학을 명하는 동시에 일반교실을 소독하고 방역에 진력중이라한다.

▶ 1935.6.8



始興에 赤痢

生徒登校도停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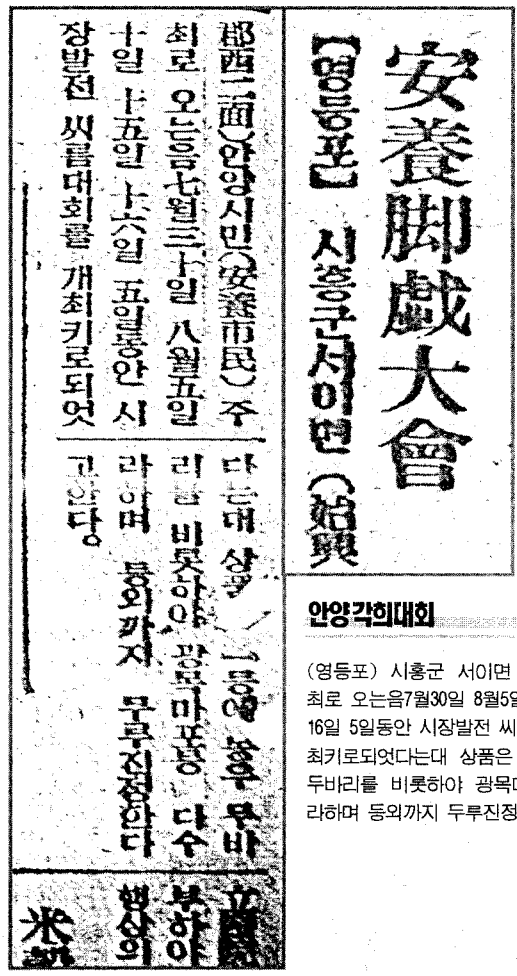
現在患者만三十名

【시흥】 시흥군신동면 [illegible] 양재(梁在)서초(瑞草)양리 [illegible] 부터 적리병이 성행하야 벌서 사망한 사람이 수3명에 달하며 목하성히 창궐하는 중이므로 과천공립보통학교에서는 통학아동의 등교까지 정지시켯다는데 환자는 대개 14 5세로부터 최고 二十三세까지로 신동면에서는 즉시 소독

시흥에 적리

생도등교도 정지
현재 환자만 삼십명
(시흥) 시흥군 신동면 양재 서초 양리에는 몇일전부터 적리병이 성행하야 벌서 사망한 사람이 수3명에 달하며 목하성히 창궐하는 중이므로 과천공립보통학교에서는 통학아동의 등교까지 정지시켯다는데 환자는 대개 14 5세로부터 최고 23세까지로 신동면에서는 즉시 소독

▶ 1935.9.3조(3)9



安養脚戲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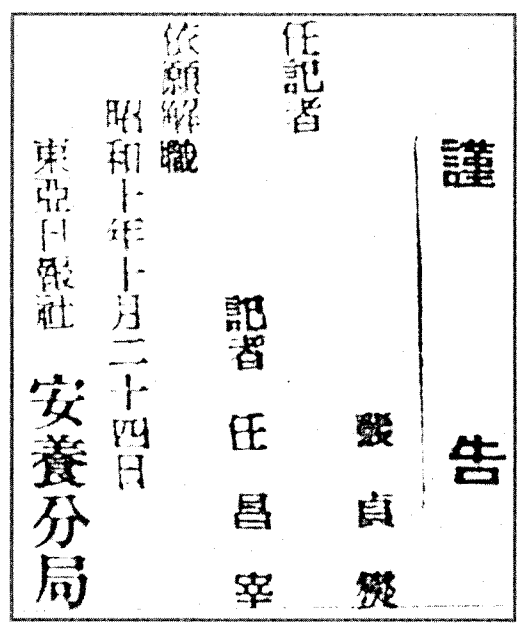
【영등포】 시흥군 서이면 (始興

(西二面)안양시민(安養市民) 주
최로 오는음七월三十일 八월五일
十일 十五일 二十八일 五일동안 시
장발전 씨름대회를 개최키로되엇
다는대 상품 一등에 농우
리를 비롯하야 광목마포등 다수
라하며 등외까지 두루진정한다
고한다.

안양각희대회

(영등포) 시흥군 서이면 안양시민주최로 오는음7월30일 8월5일 10일 15일 16일 5일동안 시장발전 씨름대회를 개최키로되엇다는대 상품은 1등에 농우 두바리를 비롯하야 광목마포등 다수라하며 등외까지 두루진정한다고한다.

▶ 1935.10.26(5)10



謹告

辭職願

任記者

昭和十年十月二十四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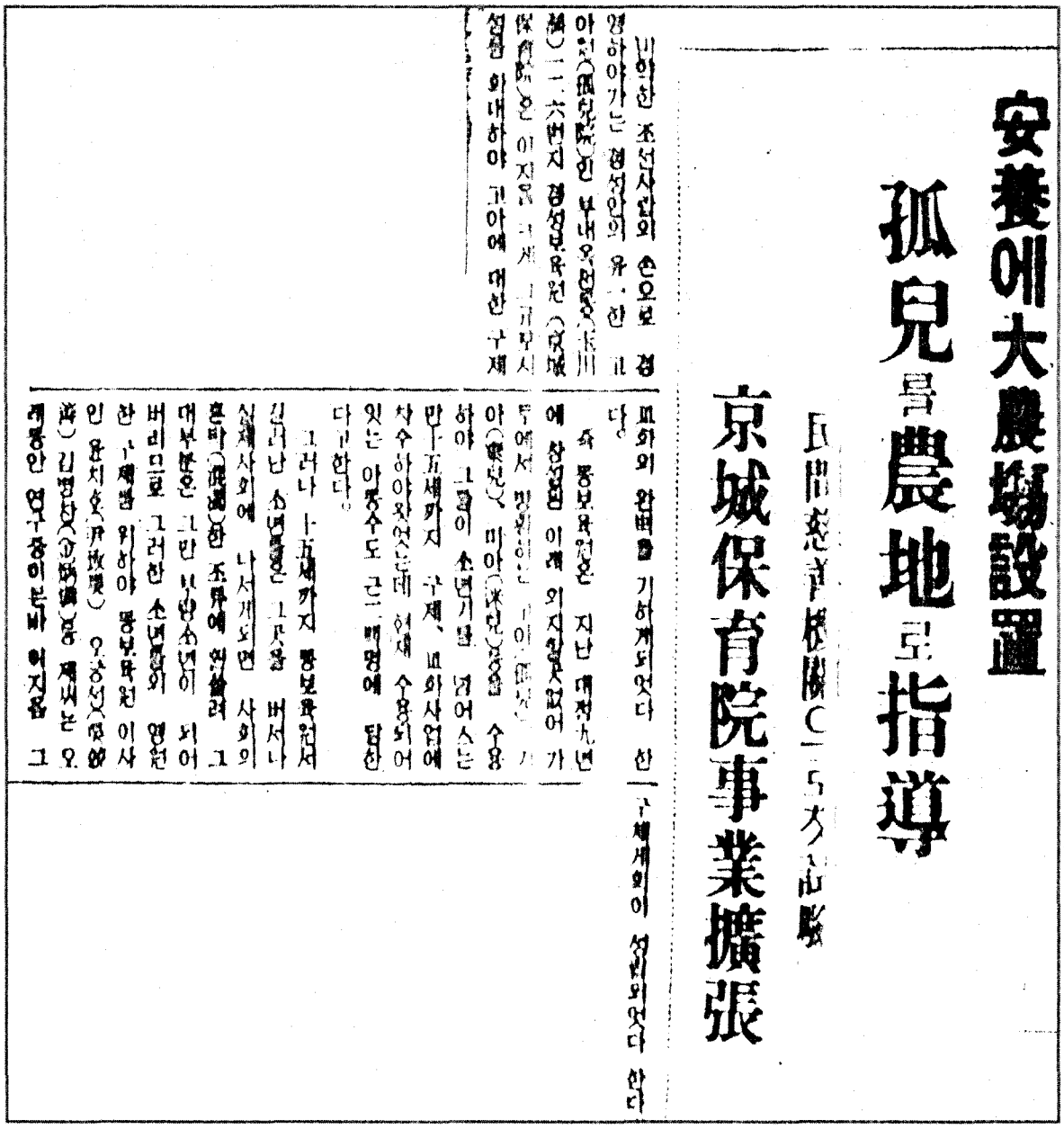
東亞日報社 安養分局

記者 任昌宰

근고

임기자 배정 악
의원해직 기자 임창재
소화 10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안양분국

▶ 1935.11.19



安養에 大農場設置

孤兒를 農地로 指導

京城保育院事業擴張

빈약한 조선사람의 손으로 경영하야가는 경성안의 유일한 고아원인 부내옥천동(府內玉川洞) 백이십육번지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은 이지음 크게 그규모시설을 확대하야 고아에 대한 규제교화의 완벽을 기하게되었다 한다. 즉 동보육원은 지난 대정9년에 창설된 이래 의지할곳없어 가두에서 방황하는 고아, 기아, 미아 등을 수용하야 그들이 소년기를 넘어스는 만십오세까지 구제, 교화사업에 착수하야 왓엇는데 현재 수용되어 잇는 아동수도 근이백명에 달한다고한다. 그러나 십오세까지 동보육원서 길러난 소년들은 그곳을 버서나 실제사회에 나서게되면 사회의 혼탁한 조류에 휩쓸려 그 대부분은 그만 부랑소년이 되어버리므로 그러한 소년들의 영원한 구제를 위하야 동보육원 이사인 윤치호 오긍선 김병찬 등 제씨는 오래동안 연구중이든바 이지음 그 구체계획이 성립되엇다 한다

안양에 대농장설치

고아를 농지로 지도
민간자선 기관으로 첫시험
경성보육원 사업확장

빈약한 조선사람의 손으로 경영하야가는 경성안의 유일한 고아원인 부내옥천동 백이십육번지 경성보육원은 이지음 크게 그규모시설을 확대하야 고아에 대한 규제교화의 완벽을 기하게되엇다 한다. 즉 동보육원은 지난 대정9년에 창설된 이래 의지할곳없어 가두에서 방황하는 고아, 기아, 미아 등을 수용하야 그들이 소년기를 넘어스는 만십오세까지 구제, 교화사업에 착수하야 왓엇는데 현재 수용되어 잇는 아동수도 근이백명에 달한다고한다. 그러나 십오세까지 동보육원서 길러난 소년들은 그곳을 버서나 실제사회에 나서게되면 사회의 혼탁한 조류에 휩쓸려 그 대부분은 그만 부랑소년이 되어버리므로 그러한 소년들의 영원한 구제를 위하야 동보육원 이사인 윤치호 오긍선 김병찬 등 제씨는 오래동안 연구중이든바 이지음 그 구체계획이 성립되엇다 한다

▶ 1936.2.26

始興郡廳舍 移轉을計劃

공작자등 백 명이 회합 期成會組織코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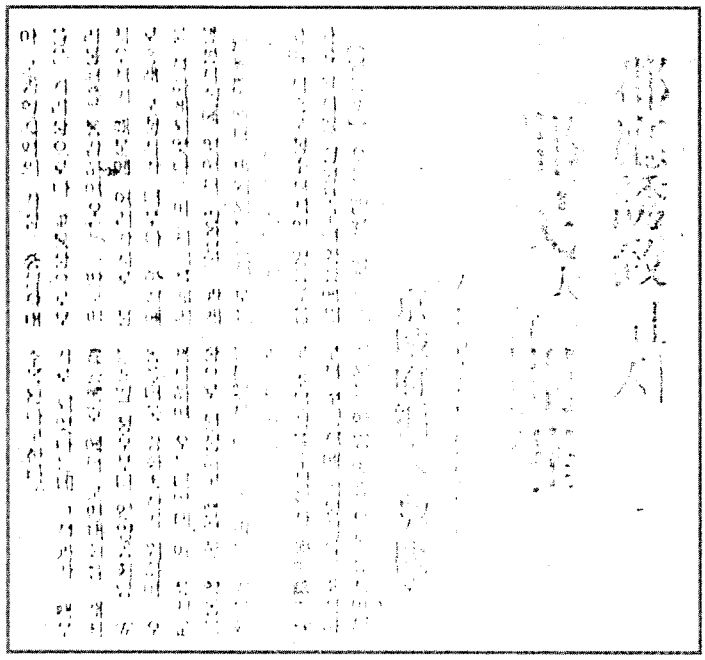
【영등포】 영등포읍(永登浦邑) 북면(北面) 동면(東面) 서면(西面) 신동면(新東面) 과천면(果川面) 서이면(西二面) 남면(南面) 수암면(秀岩面) 군자면(君子面) 등 一읍九개면 행정구역으로한 시흥군(始興郡)청의 소재지는 영등포로서 전군을통하야 그소재가너무나 한편모퉁이에 치우친관계상 군내의 모든진운(進運)에 적당치 안을뿐아니라 공사나 사사를불구하고 불편한점이 만어서 종래 지방유지간에는 군청사를 군의중앙부이며 교통에편리한 서이면 (西二面) 안양(安養)에 이전할필요를 절대로느끼여 오직시기만기다리든 터이엿섯는대 이번에대경성 건설 계획이 드디여실현됨에따라 영등포읍 일원과 로량진(鷺梁津) 일부를 중심으로한 북면(北面) 일부를 경성부에 빼앗기게 됨에따라시흥군과 행정상 시설에 잇어서 아모 관계가없게되는 영등포에다가 군청사를 그대로둔다는것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나 또는군내의 모든 산업진흥상으로보아 적당치 안타고해서 이번기회에 기어히군청이전의 목적을달성하려고 지난 二十一일 오후一시부터군내 공직자 유력자등 백여명은 서이면사무소에모이여 군청이전 기성회를 조직하고 맹렬한활동을개시하엿다고한다.

시흥군 청사 이전을 획책

공작자등 백 명이 회합
기성회조직코 활동

(영등포) 영등포읍 북면 동면 서면 신동면 과천면 서이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등 1읍 9개면 행정구역으로 한 시흥군청의 소재지는 영등포로서 전군을 통하여 그 소재가 너무나 한편모퉁이에 치우친 관계상 군내의 모든 진운에 적당치 안을 뿐 아니라 공사나 사사를 불구하고 불편한점이 만어서 종래 지방유지간에는 군청사를 군의 중앙부이며 교통에 편리한 서이면 안양에 이전할 필요를 절대로 느끼여 오직 시기만 기다리든 터이엿섯는데 이번에 대경성 건설 계획이 드디여 실현됨에 따라 영등포읍 일원과 노량진을 중심으로 한 북면일부를 경성부에 빼앗기게 됨에 따라 시흥군과 행정상 시설에 잇어서 아무 관계가 없게되는 영등포에다가 군청사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나 또는 군내의 모든 산업 진흥상으로 보아 적당치 안타고해서 이번 기회에 기어히 군청이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난 21일 오후1시부터 군내 공직자 유력자 등 백여명은 서이면 사무소에 모이여 군청이전 기성회를 조직하고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엿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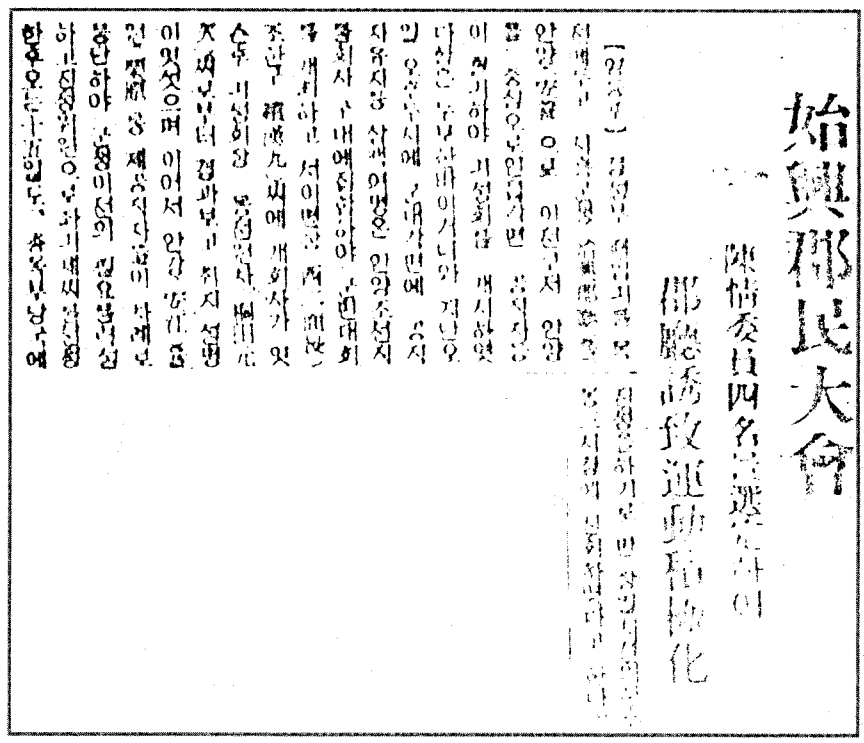
▶ 1936.3.4(3)6



군청 유치 코저 군민 대회 개최

시흥군청을 안양으로
경성부 편입을 계기로
오는 4월■일을 기하야 실시될 경성부 구역확장에 이하야 시흥군청소재지인 영등포일대는 자연 시흥군에서 제외되는 동시 모든 행정시설에 잇어서 밀접한 관계를 결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계기로 종래 군청사가 너무나 한편에 치우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 불편을 통하여 오던 일시반 군민들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 보아 군관할 지역의 가장 중심지대가되는 안양으로 유치 이전코저 기성회를 유치하고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 공장장 동전원차 씨를 기성회장으로 선정하고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여 오는 터인데 이런 유치운동을 더욱 강화촉진키위하야 오는 5일 정오부터 안양공회당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키로 되엇다는데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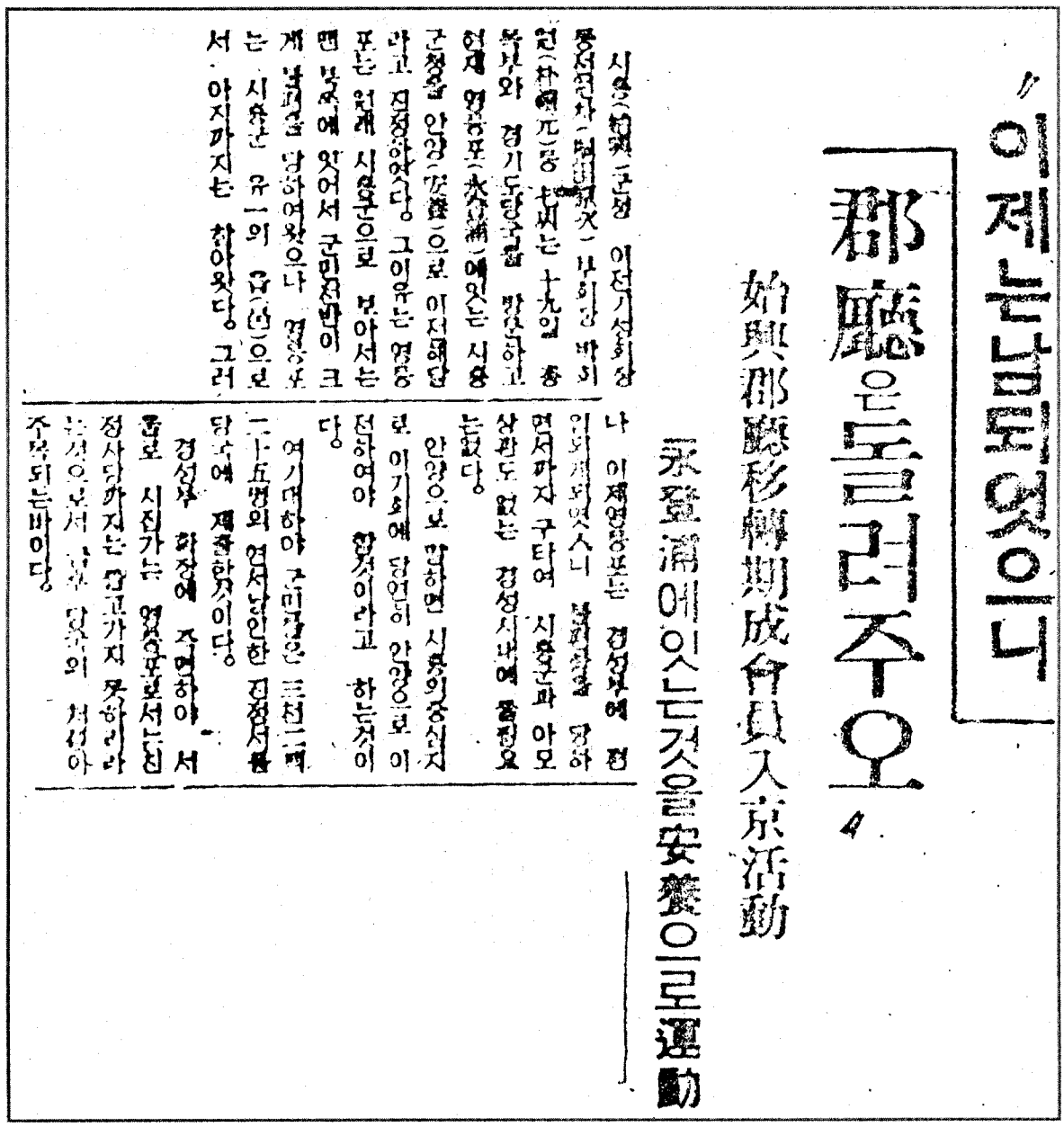
▶ 1936.3.7(4)4


始興郡民大會
陳情委員四名選定
郡廳誘致運動强化

시흥군민대회

진정위원4명을 선정하여
군청유치 운동 적극화
(영등포) 경성부 편입기를 목전에 두고 시흥군청을 안양으로 이전코저 안양을 중심으로 인접 각면 공직자 등이 궐기하여 기성회를 개시하였다 함은 누보 한 바 있거니와 지난 5일 오후2시에 군내 각 면에 공직자유지 등 3백여명은 안양조선직물회사 구내에 집합하야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서이면장 조한구씨에 개회사가 잇슨 후 기성회장 동전원차씨로부터 경과보고 취지설명이 잇섯으며 이어서 안강율원 등 제 공직자들이 차례로 봉단하야 군청이전의 필요 등 력설하고 진정위원으로 좌기제씨를 선정 한 후 오는 15일도, 총독부 당국에 진정을 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한 후 동3시경에 산회 하엿다고 한다.

▶ 1936.3.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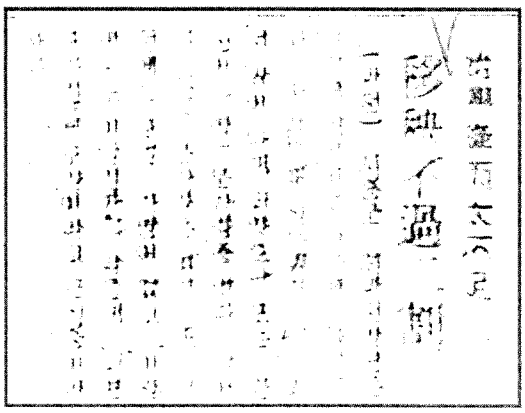
이제는남되엇으니
郡廳은돌려주오
始興郡廳移轉期成委員入京活動
永登浦에잇는것을安養으로運動

이제는 남되엇느나 군청은돌려주오

시흥군청이전기성회원 입경 활동
영등포에 잇는 것을 안양으로 운동

시흥군청 이전기성회장 동전원차 부회장 박희원 등 7씨는 19일 총독부와 경기도당국을 방문하고 현재 영등포에 잇는 시흥 군청을 안양으로 이전해달라고 진정하였다. 그 이유는 영등포는 원래 시흥군으로 보아서는 맨 북쪽에 잇어서 군민전반이 크게 불편을 당하여왓으나 영등포는 시흥군 유일의 읍(邑)으로서 아직까지는 참아왓다. 그러나 이제 영등포는 경성부에 편입되게 되엇으니 불편함을 당하면서까지 구타여 시흥군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경성시내에 둘 필요는 없다. 안양으로 말하면 시흥의 중심지로 이 기회에 당연히 안양으로 이전하여야 할것이라고 하는것이다. 여기대하야 군민들은 3천3백2십5명의 연서 날인한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한것이다. 경성부 확장에 즉면하여 서울로 시집가는 영등포로서는 친정사당까지는 들고 가지 못하리라는것으로서 금후 당국의 처결이 주목되는바이다.

▶ 1936.6.2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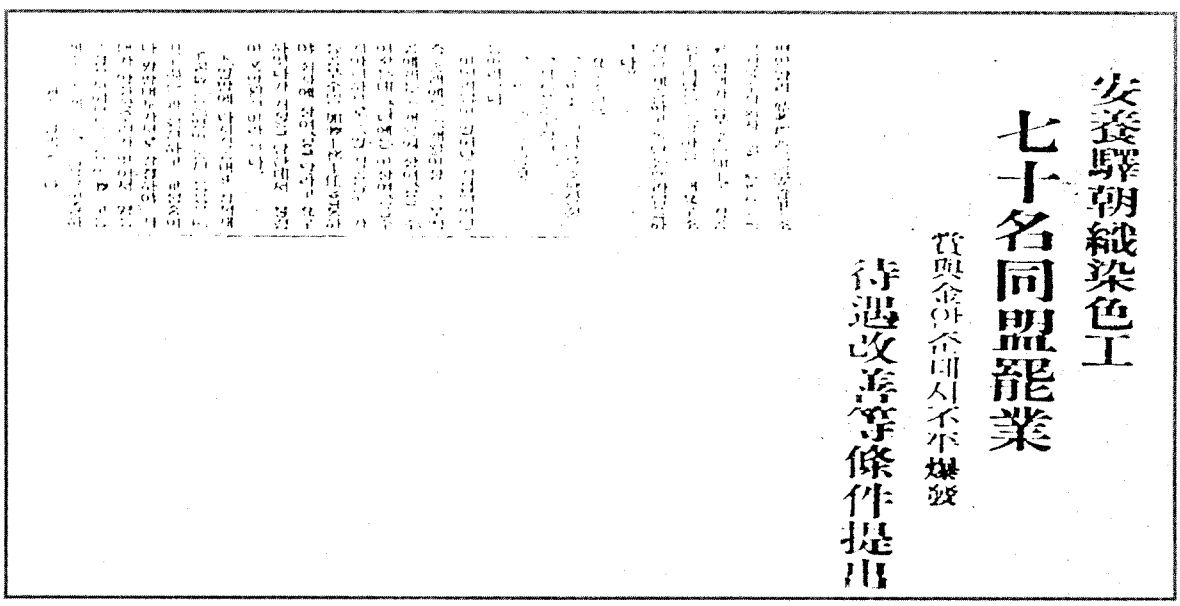


시흥 강우 태부족

이앙불과 이할

(과천) 시흥군 과천방면은 이번에 내린 비로 전군에는 불만족하나마 같을 때 심은씨가 지금와서 싹이 나게 되었으나 모는 간신히 2할 2푼가량쯤 냇다. 나머지 7할 8푼 가량은 비가 또 오기 전에는 모댈 가망이 없고 이왕 낸 논도 이달 말까지 감을게 되면 모다발을 모양이라고 근심중 이라 한다.

▶ 1936.7.10(2)11


安養驛朝絨染色工
七十名同盟罷業
賃與金의差別시不平爆發
待遇改善等條件提出

안양역 조직염색공 70명 동맹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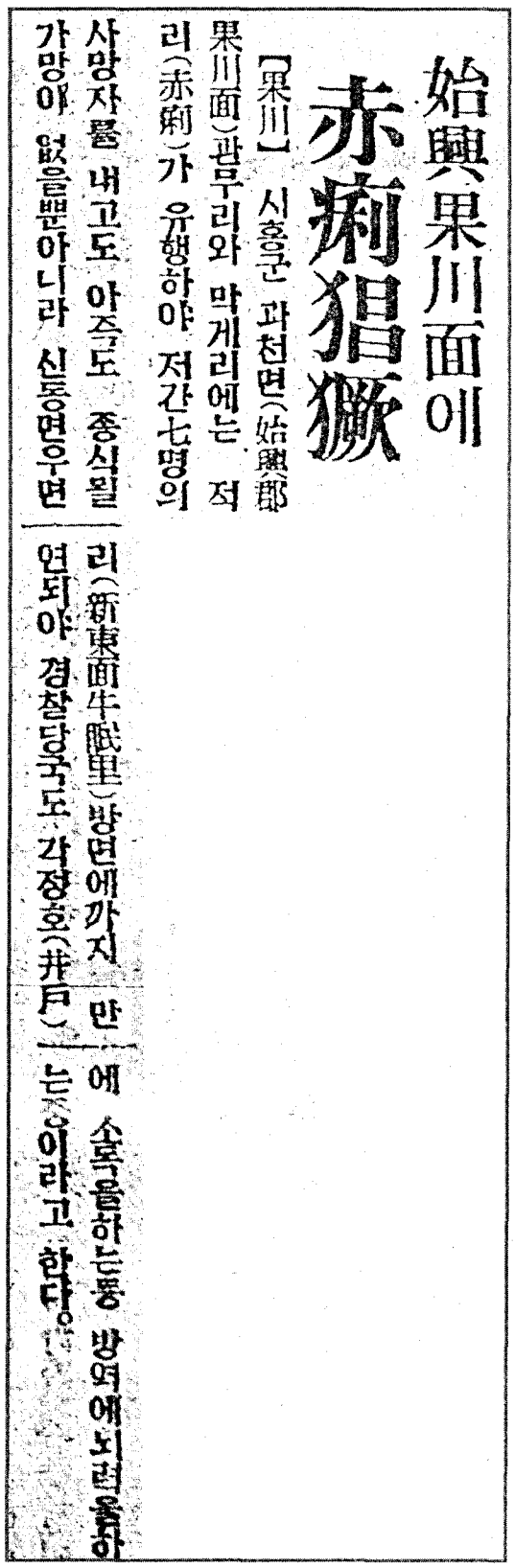
상여금 안준 데서 불평폭발

대우개선 등 조건 제출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조직물 주식회사 염색가공부 직공 70여명은 9일 아침 개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돌연 동맹파업을 하였다.

요구조건은 □□□□

▶ 1937.6.24(4)



始興果川面에

赤痢猖獗

【果川】 시흥군 과천면(始興郡果川面)관무리와 막게리에는 적리(赤痢)가 유행하야 저간七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아즉도 종식될 가망이 없을뿐아니라 신동면우면리(新東面牛眠里)방면에까지 만연되야 경찰당국도 각정호(井戶)에 소독을하는등 방역에뇌력을하는 중이라고 한다.

시흥 과천면에 적리 창궐

(과천) 시흥군 과천면 관무리와 막게리에는 적리가 유행하여 저간 7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아즉도 종식될 가망이 없을 뿐 아니라 신동면 우면리 방면에까지 만연되여 경찰당국도 각 정호에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 뇌력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 1937.7.16(4)7

安養、虎溪、內仁에

共勵水組를創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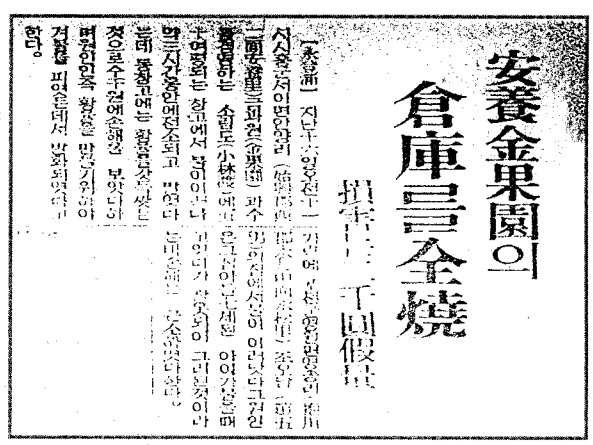
【永登浦】 경기도내에 四개소의 계획밖에없는 간이수리조합은 시흥군서이면(始興郡西二面)내의 삼개소를 설치케되어 지난十二일 오전十一시부터 오후二시까지 안양공회당(安養公會堂)에서 관계지주 三十여명이 회집하야 서이면장 이기선(李基善)씨의 사회하에 그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창립위원선정 기타 일체진행방침을 신중히 처리하엿다는데 그몽리구역은 호계공려수리조합(虎溪共勵水組)이 二十정보三단七묘一九평, 안양(安養)공려수리조합이 五十二정五단四묘七평 내인토지개량계(內仁土地改良契)가 六十五정三단七묘五평으로 그사업총비가 一만七천九백十八원으로 국고보조가 八천七十七원, 지주부담이 一만八백四十一원을 요한다는데 관계지주는 一백명으로수삭후 그공사를 착수한다하며 이는 관계수로 개선과 저수지를 설치하야 한발로 내버릴 그전답을 이용하야 새로운 옥토를 만들게되어 일반지주들은 그 예산안과 사업계획관을 토의하엿다한다 그창립위원은 아래와 같다.

安養共勵水利組合委員長松本杉藏、委員尹重鎭、李光淳、李彦燮、元貞常、金聖基▲內仁土地改良契委員長 李鎭約 委員尹重鎭、金仲洙、李起興、朴鍾奭、李榮澈▲虎溪共勵水利組合委員長趙漢九委員尹重鎭、李光淳、金聖基、李陞承、李彦燮

안양,호계,내인에 공려수조를창립

(영등포) 경기도내에 4개소의 계획밖에없는 간이수리조합은 시흥군서이면내의 삼개소를 설치케되어 지난십이일오전십일시부터 오후두시까지 안양공회당에서 관계지주 삼십여명이 회집하야 서이면장 이기선씨의 사회하에 그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창립위원선정 기타 일체진행방침을 신중히 처리하엿다는데 그몽리구역은 호계공려수리조합이 20정보3단7묘19평, 안양공려수리조합이 52정5단4묘7평, 내인토지개량게가 65정3단7묘5평으로 그사업총비가 1만7천9백18원으로 국고보조가 8천7십7원 지주부담이 1만8백4십1원을 요한다는데 관계지주는 일백명으로수삭후 그공사를 착수한다하며 이는 관게수로 개선과 저수지를 설치하야 한발로 내버릴 그전답을 이용하야 새로운 옥토를 만들게되어 일반지주들은 그 예산안과 사업계획관을 토의하엿다한다. 그창립위원은 아래와 같다. 안양공려수리조합위원장송본삼장 위원 윤중식, 이광순, 이승순, 원정상, 김성기▲내인토지계량계위원장 이석표 위원 윤중식, 김중제, 이기순, 박성진, 이영철 ▲호계공려수리조합위원장조한구 위원윤중식,이광순,김성기,이경승,이영철

▶ 1938.2.19조(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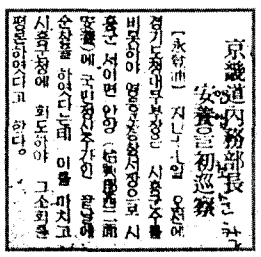
安養金果園의

倉庫를全燒

損害二千圓假量

【永登浦】 지난十七일오전十一시경에 시흥군서이면안양리 (영등포=五정목) 과수 금과원(金果園)에서 불이나 이십여평의 창고를 전소하고 말엇는데 동창고에는 소립도(小粒稻)에 약이십여석이 저장되엿섯는데 이것이 모두 타버리고 그리고 이 불은 시흥군청에서 조사한 결과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동창고에는 황율을 많이 저장하엿섯는데 이것이 모두 타버리고 말엇다 한다.

▶ 1938.2.19조(남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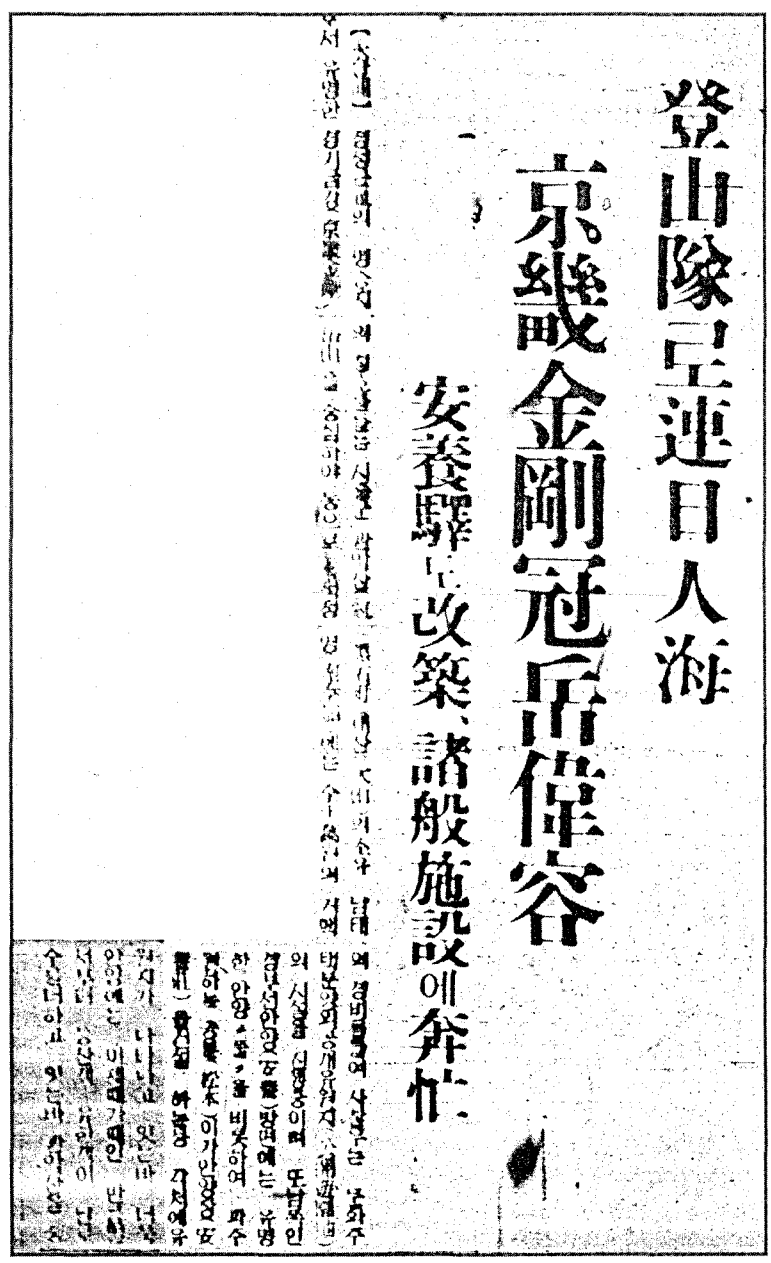
京畿道內務部長
安養을初巡察

(永登浦) 지난 十一일 오전에 경기도청내무부장은 시흥군수를 비롯하야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시흥군 서이면 안양에 (국민정신주간인 끝날에 순찰을 하였다는데 이를 마치고 시흥군청에 회도하야 그소회를 평론하였다고 한다。

경기도내무부장 안양을 초순찰

[영등포] 지난 십칠일 오전에 경기도청 내무부장은 시흥군수를 비롯하야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시흥군 서이면 안양에 국민정신주간인 끝날에 순찰을 하였다는데 이를 마치고 시흥군청에 회도하야 그소회를 평론하였다고 한다.

▶ 1938.6.1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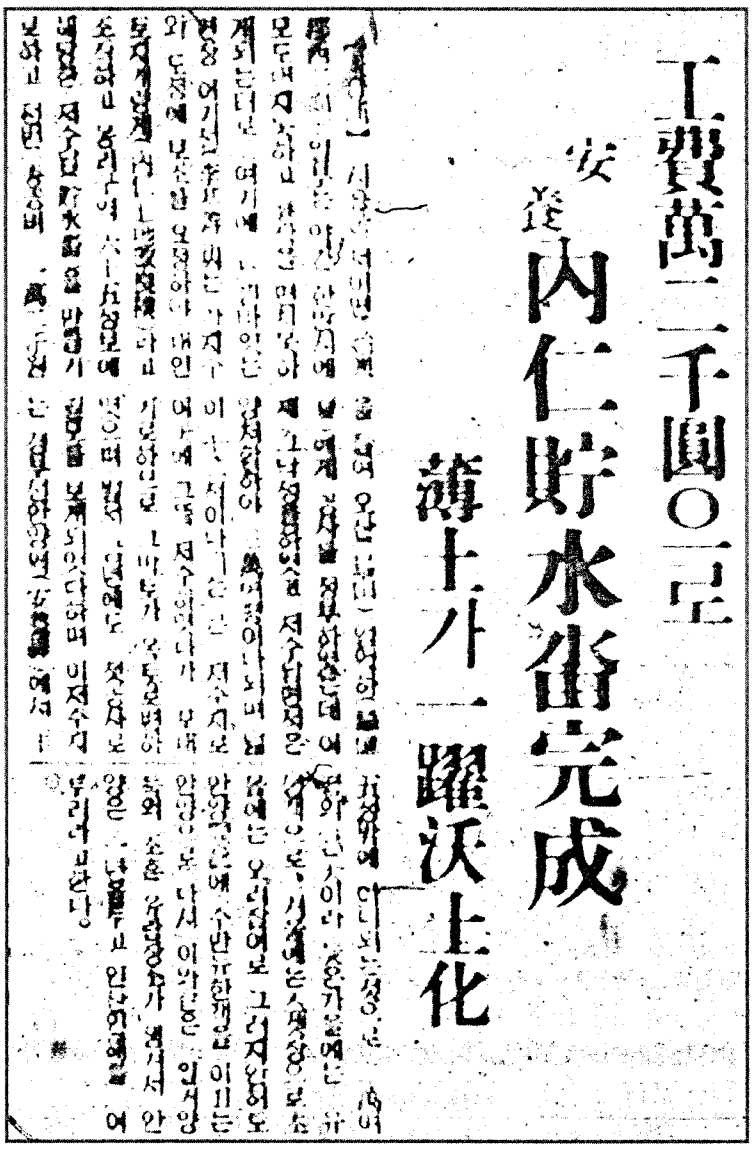
京畿金剛冠岳偉容

安養驛改築、諸般施設에 奔忙

등산대로 연일 인해, 경기 금강관악위용 안양역도 개축, 제반 시설에 분망

(영등포) 경성근교의 명승지로서 유명한 경기금강의 청호를 들은 시흥군 관악산을 중심하야 동으로 흑석정 대산의 소유 남태령에는 수 십만원의 경비를 들여 사찰부근 문화주택분양 외 공개유원지 의 시설을 진행중이며 또 남쪽인 경부선 안양방면에는 유명한 안양「풀」을 비롯하여 과수원하는 송본이가 안양장을 건설하는등 가쳐에 유원지가 나타나고 있는바 더욱 안양에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벌써 등산객 유환객이 날로 수가 더하고 있는바 관악산을 중심삼아 안양 "풀" 등으로 머지 안흔 장래에 안양의 면목은 일신 될 것이라 하야 이제 그 착공을 하였으나 안양역은 수만원을 들여 경부선에 ■■ 안을 갑종역을 건축키로 방금 지반공사를 하고있는바 일반은 남부 시흥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 1938.6.29(7)



工費萬二千圓으로

安養

內仁野水畓完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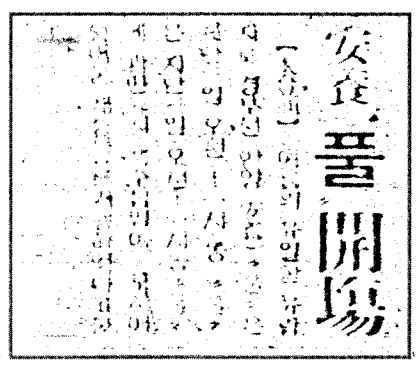
薄土가一躍沃土化

공비 만2천원으로 안양 내인 저수답 완성

박토기 일약 옥토화

(영등포) 시흥군 서이면 일부는 약간 한발시에 모도 내지 못하고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되는 터로 여기에 느낀바 있는 면장 이기선씨는 각지주와 도청에 보조를 요청하야 내인 토지 계량계라고 조직하고 몽리구역 65정보에 해당한 저수답을 만들기로 하고 전번 총 공비 1만2천원 들여 오산 엄억하에게 공사를 청부하였는데 이제 그 낙성을 하였고 저수답 면적은 합하여 3만여 평이나 되며 넓이 12척 이나 되는 큰 저수지로 이곳에 그득 저수하였다가 모내기로 하므로 그 박토가 옥토로 변하였으며 벌써 금년에도 첫 공사로 필모를 보게 되었다 하며 이 저수지는 경부선 안양역에서 15정 밖에 아니 되는 것으로 3만여 평의 큰못이라 늦은 가을에는 유한객으로, 겨울에는 스켓장으로 초봄에는 오리 잡이로 그러지 안아도 안양「풀」에 수만 유한객을 이끄는 안양으로 다시 이와 같은 일거양득의 조흔 유람장소가 생겨서 안양은 일년을 두고 인산인해를 이루리라고 한다.

▶ 1938.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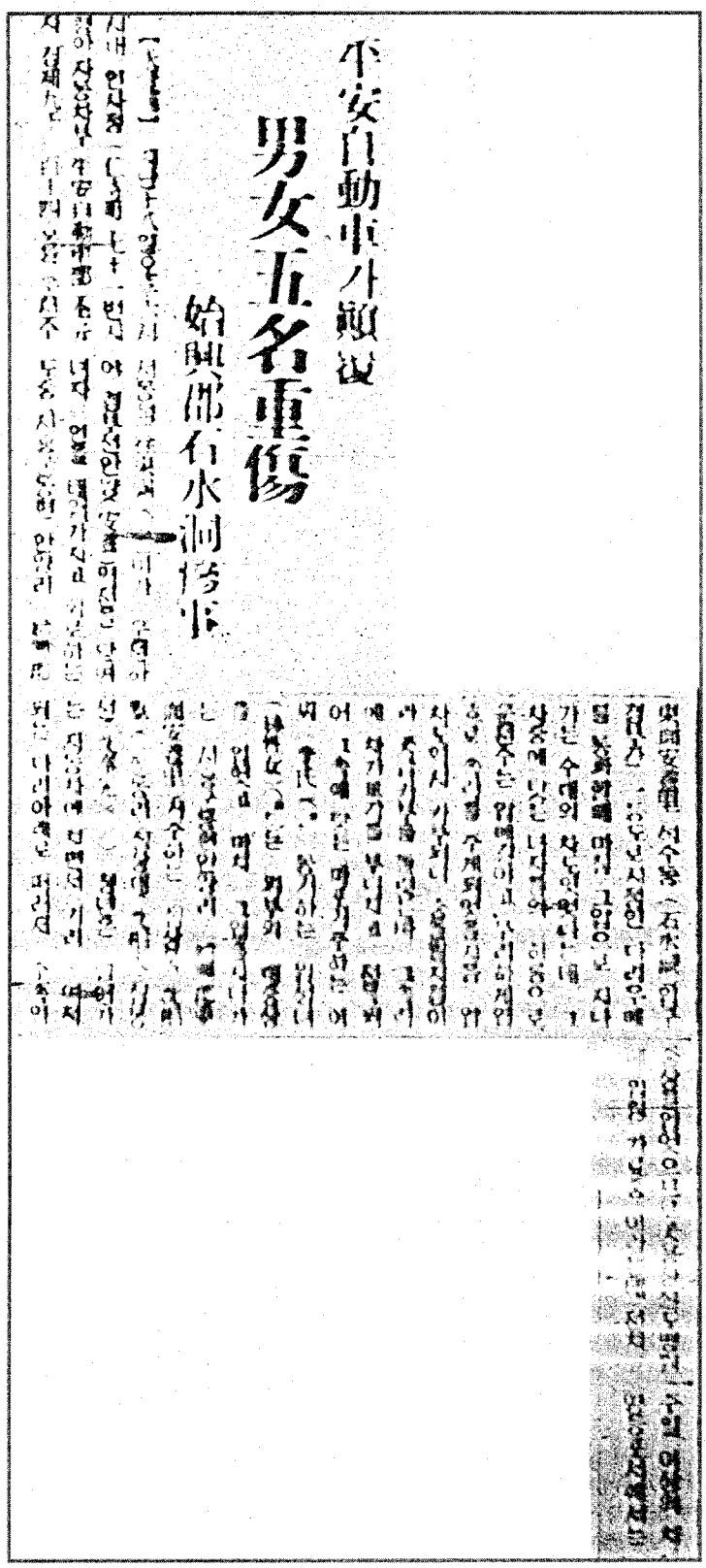


安養 풀 開場

안양 풀 개장

(영등포) 여름의 유일한 유람지로 경부선 안양「풀」은 지난 일3 오전 11시에 동「풀」에 관면 유지 수십명이 모여 성대히 개장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 1938.8.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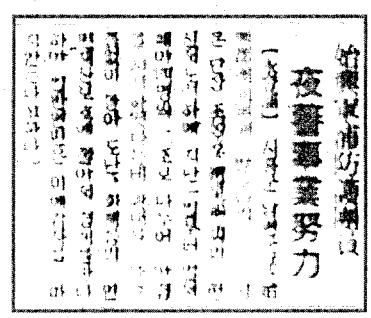

平安自動車ノ顚覆
男女五名重傷
始興郡石水洞ノ下

평안 자동차가 전복 남녀 5명 중상

시흥군 석수동 참사

(영등포) 지난 18일 오후 6시 시내 인사정 711번지 평안 자동차부 소유차 경제 9314호의 운전수 서동석이가 운전하여 경부선 안양역전을 달여 여자 3인을 태워 가지고 회로하는 도중 시흥군 동면 안양리 석수동입구 경부선 1등 도로지점인 다리 위를 통과할 때 마침 그 앞으로 자나가는 수대의 차도 있었다는데 차 중에 탓는 여자들의 희롱으로 운전수는 앞에 갈잇고 무리하게 엽으로 속력를 주게 되엇을 즈음 앞차도 역시 카부되니 충돌지경이라 조금 카부를 돌렸는바 그 속력에 차가 교각을 부디치고 전복되어 그 속에 탓는 마포 거주하는 이씨 동거하는 임성녀는 외부의 대중상을 입엇고 마치 그 옆을 지나가는 시흥군 동면 안양리 거주하는 김상노 동리 심상대 심봉선 청년은 넘어가는 자동차에 치면서 길이 10여 척 되는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수족이 중상을 입엇으므로 곧 용산 철도병원에 입원 간호중이라는데 전치 3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며 영등포에서는 방금 운전수를 엄중 취조중이라 한다.

▶ 1938.12.10(조2)10


夜警團組織努力

시흥 군포방호단원 야경사업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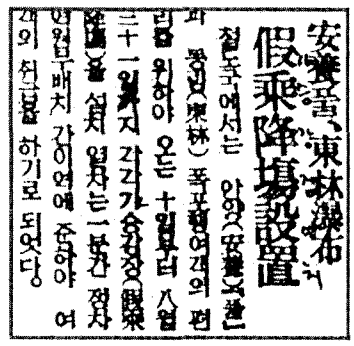
(영등포) 시흥군 남면 군포 방호단원 15명은 단장 조성호씨의 헌신적 노력 하에 지난 1일부터 벌서 매야 4명씩 2조로 나누어 야경를 사서하엿다는데 관내를 물샐틈없이 돌아 도난, 화재 등의 인민재산보호에 활약적 경계를 한다하여 일반 면민은 이에 감사를 마지 안는다고 한다.

▶ 1939.1.12(남7)5

안양 전화 개통 축하

(영등포) 안양 시내·외 전화는 금월 18일부터 개통케 되었는데 그를 기념키 위하여 또는 지방발전을 촉진코저 각계인사는 금월 7일 오후 2시에 서이면 공회당에서 축하식을 거행하였다 한다.

▶ 1939.7.7(2)4



안양풀, 동림폭포 가승강장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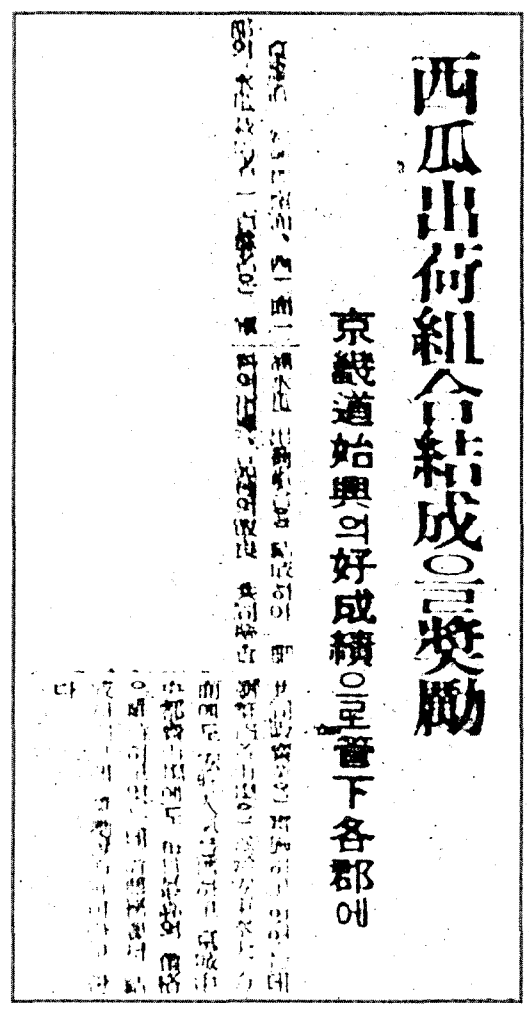
철도국에서는 안양「풀」과 동림폭포 행여객의 편리를 위하야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가승장강을 설치 열차는 1분간 정차 역원무배치 간이역에 준하야 여객의 취급을 하기로 되엇다.

▶ 1939.7.25(남7)3

천혜의 안양 풀 수영객 답지

(수원) 경부선 안양역전에 있는 안양수영장은 수년 전부터 개장되어 매년 각처로부터 물질하는 수영객이 수만 명에 달하여 오던 중 금년 여름에는 지난 7월 21까지 약 1개월 미만에 1만7천5백여명에 달하였다하며 요사이도 매일 수 천명이 몰려든다는 바 동 수영장은 □□□□□□ 제반시설이전 □□□□□□□□□□□□이라 한다.

▶ 1939.7.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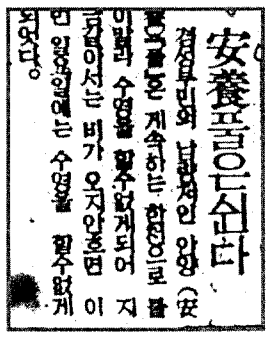

西瓜出荷組合結成을奬勵

京畿道始興의好成績으로管下各郡에

경기도 시흥의 호성적으로 관하각군에 서과 출하 조합결성을 장려

경기도 시흥군 남면, 서이면 일부의 서과 □□자(者) □ 백□자은 군 보수과 출하조합을 결성하야 □□□□□, 품□의 민□ 공동식 공동 □□□을 □□□하고 있었는데 □□□□□□□ □□□□□□면에도 □□□□□□하고 □□중앙부 □□□에도 □□□□의 □□□□□하고 있는데 도□□□서 □□□□□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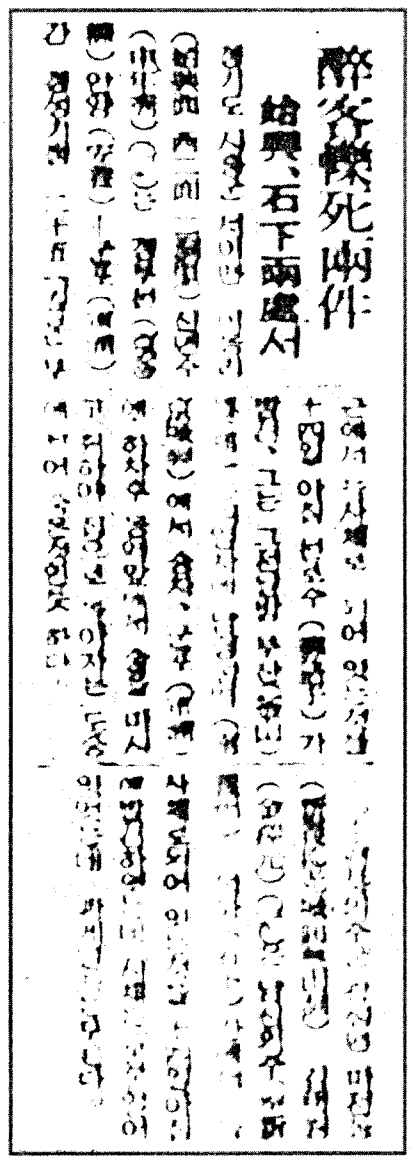
▶ 1939.8.10(2)11


安養풀은쉰다

안양풀은 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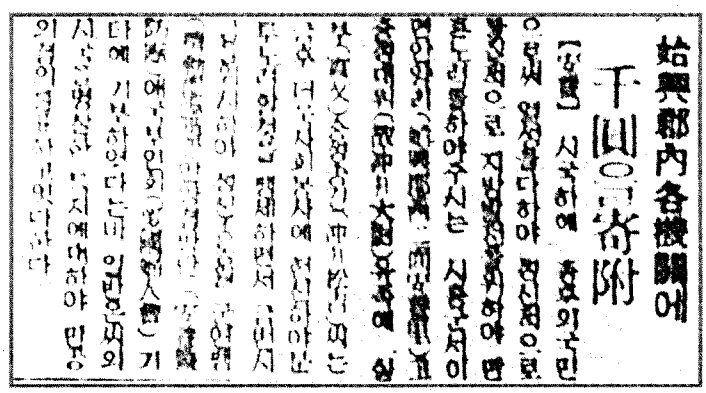
경성부민외 납량처인 안양「풀」은 계속하는 한천으로 물이말라 수영을 할수없게되어 지금같아서는 비가 오지안흐면 이번 일요일에는 수영을 할수없게 되엇다.

▶ 1940.1.16(2)5


醉客凍死兩件

始興、石下兩署서

▶ 1939.11.3조(4)2


始興郡內各機關에

千圓을寄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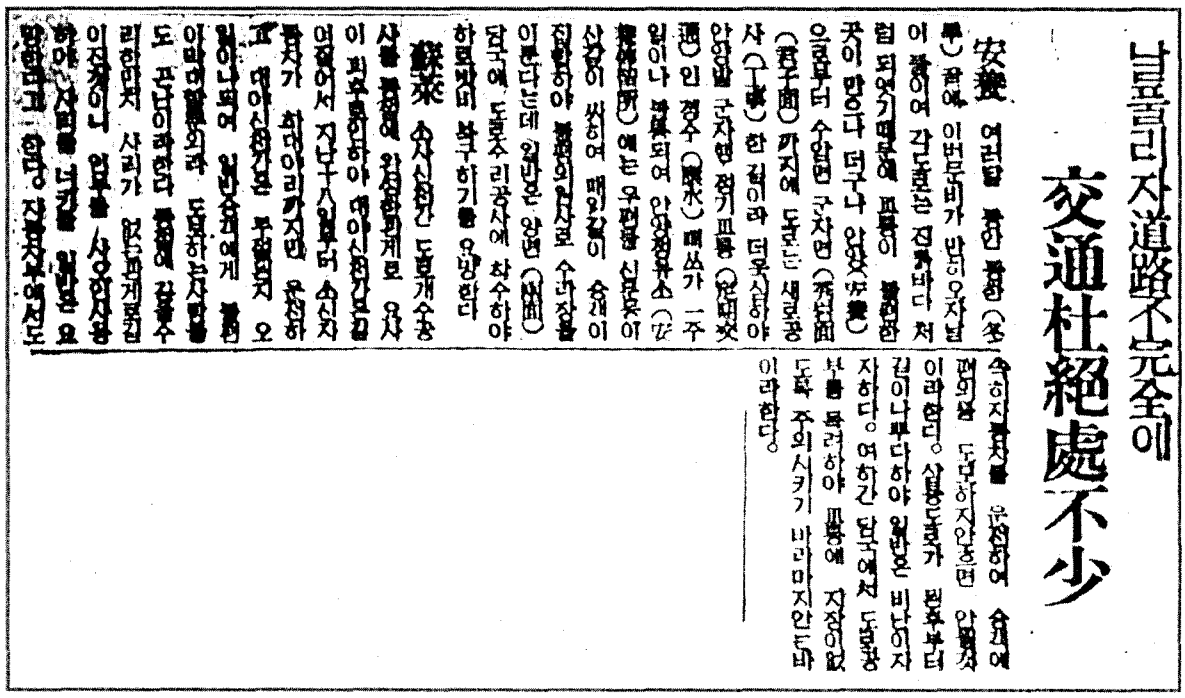
시흥군내 각기관에 1천원을 기부

(안양) 시국 하에 종후의 국민으로써 열성을 다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방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야주시는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고 충정대위 유족에 실부 충정송길씨는 금후 더욱 사회봉사에 헌신하야 분투 노력할 것을 맹세하면서 금번 시국에 대응하야 적극적 활약하는 단체의 활동을 측면적으로 원조하고저 11월 1일 면장 이기선씨를 통하여 1천원을 국방헌금을 위시하야 정신 총동원 군연맹 안양경방단 애국부인회 기타에 기부하였다는 바 일반은 씨의 시국을 명찰한 특지에 대하여 민공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한다.

시흥, 석하양처서 취객 즉사 양건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 신연수는 경부선 안양-군포간 경성기점 25「킬로」부근에서 변사체로 되어 잇는 것을 14일 아침 선로수가 발견, 그는 그전날밤 부산선 제 104열차에 남경성역에서 승차, 군포에 하차 후 동역 앞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야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치어 죽은 것 인 듯 하다.

▶ 1940.2.24(남7)1



날풀리자 道路不完全에 交通杜絶處不少

安養 여러달 동안 동한 끝에 이번 눈비(雪雨)가 만히 오자 날이 풀이여 각 도로는 진흙바다처럼 되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곳이 만흐나 더구나 안양으로부터 수암면 군자면(西面)까지에 도로는 새로 공사(工事)한 길이라 더욱심하야 안양발 군자행 정기뿌스(定期버스)인 경수(京水)뻐스가 一주일이나 불통되여 안양정유소(安養精油所)에는 우편물 신문뭇이 산같이 싸히여 매일같이 승객이 집합하야 불평의원사로 수리장을 이룬다는데 일반은 양면(兩面) 당국에 도로수리공사에 착수하야 하로밧비 복구하기를 요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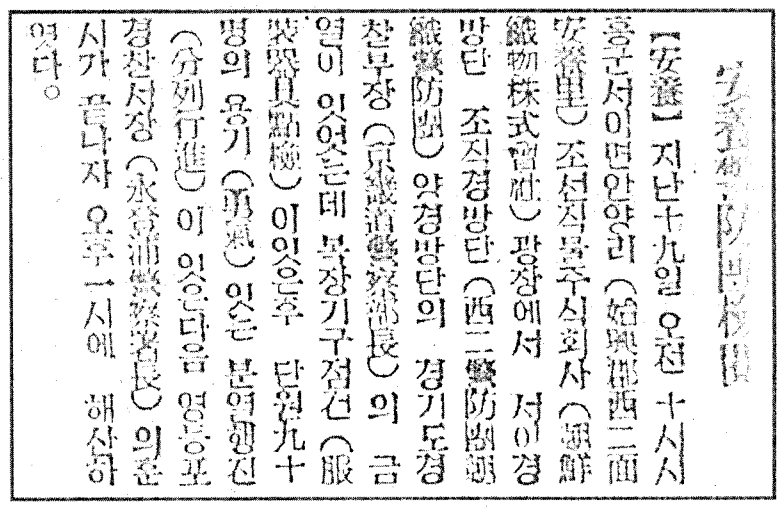
蘇萊 소사신천간 도로개수공사를 동절에 완성한관계로 요사이 괴후로 인하야 대야신천간은 길이 질어서 지난 십팔일부터 소신자동차가 화대아리까지만 운전하여 승객에 편의를 도모하지 오일이나 되여 일반승객에게 불편이막대할뿐외라 도보하는사람들도 곤난이라한다 동절에 길을수리할만지 사리가 없는관계로길이진것이니 인부를 사용하야 사리를 너키를 일반은 요망한다고 한다 자동차부에서도 속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승객에 편의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 한다 삼통 도로가 된 후부터 길이 나뿌다 하야 일반은 비난이 자자하다 여하간 당국에서 도로공부를 독려하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시키기 바라마지안는바이라 한다

날 풀리자 도로 불완전에 교통 두절 처 부소

[안양] 여러 달 동안 동한 끝에 이번 눈비가 만히 오자 날이 풀이여 각 도로는 진흙바다처럼 되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곳이 많으나 더구나 안양으로부터 수암면 군자면까지에 도로는 새로 공사한 길이라 더욱 심하야 안양발 군자행 정기 교통인 경수 뻐쓰가 일주일이나 불통되여 안양 정유소에는 우편물 신문 등이 산같이 싸히여 매일 같이 승객이 집합하야 불평의원사로 수리장을 이룬다는데 일반은 양면 당국에 도로수리공사에 착수하야 하로밧비 복구하기를 요망한다.

소래(蘇萊) 소사 신천간 도로 개수공사를 동절에 완성한 관계로 요사이 괴후로 인하야 대야 신천간은 길이 질어서 지난 십팔일부터 소신자동차가 화대아리까지만 운전하고 대야 신천간은 두절된지 오일이나 되어 일반 승객에게 불편이 막대할 뿐외라 도보하는 사람들도 곤난이라 한다. 동절에 길을 수리한만지 사리가 없는 관계로 길이 진것이니 인부들 사오인 사용하야 사리를 너키를 일반은 요망한다고 한다. 자동차부에서도 속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승객에 편의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 한다. 삼통 도로가 된 후부터 길이 나뿌다 하야 일반은 비난이 자자하다. 여하간 당국에서 도로공부를 독려하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시키기 바라마지안는바이라 한다.

▶ 1940.2.25(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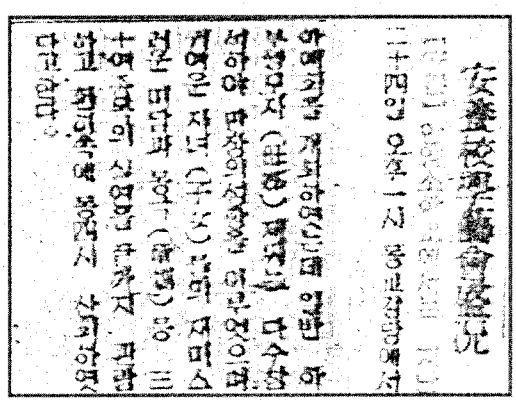


【安養】지난十九일 오전 十시시흥군서이면안양리 (始興郡西二面安養里) 조선직물주식회사 (朝鮮織物株式會社) 광장에서 서이경방단 조직경방단 (西二警防團組織警防團) 양경방단의 경기도경찰부장 (京畿道警察部長) 의 금열이 잇엇는데 복장기구점검 (服裝器具點檢) 이잇은후 단원九十명의 용기 (勇氣) 잇는 분열행진 (分列行進) 이 잇은다음 영등포경찰서장 (永登浦警察署長) 의훈시가 끝나자 오후一시에 해산하엿다。

안양 경방당 검열

지난19일 오전 10시 시흥군서이면 안양리 조선직물주식회사 광장에서 서이경방단 조직경방단 양경방단의 경기도경찰부장의 금열이 잇엇는데 복장, 기구점검이 잇은 후 단원90명의 용기 있는 분열행진이 잇은 다음 영등포경찰서장의 훈시가 끝나자 오후1시에 해산하엿다.

▶ 1940.2.2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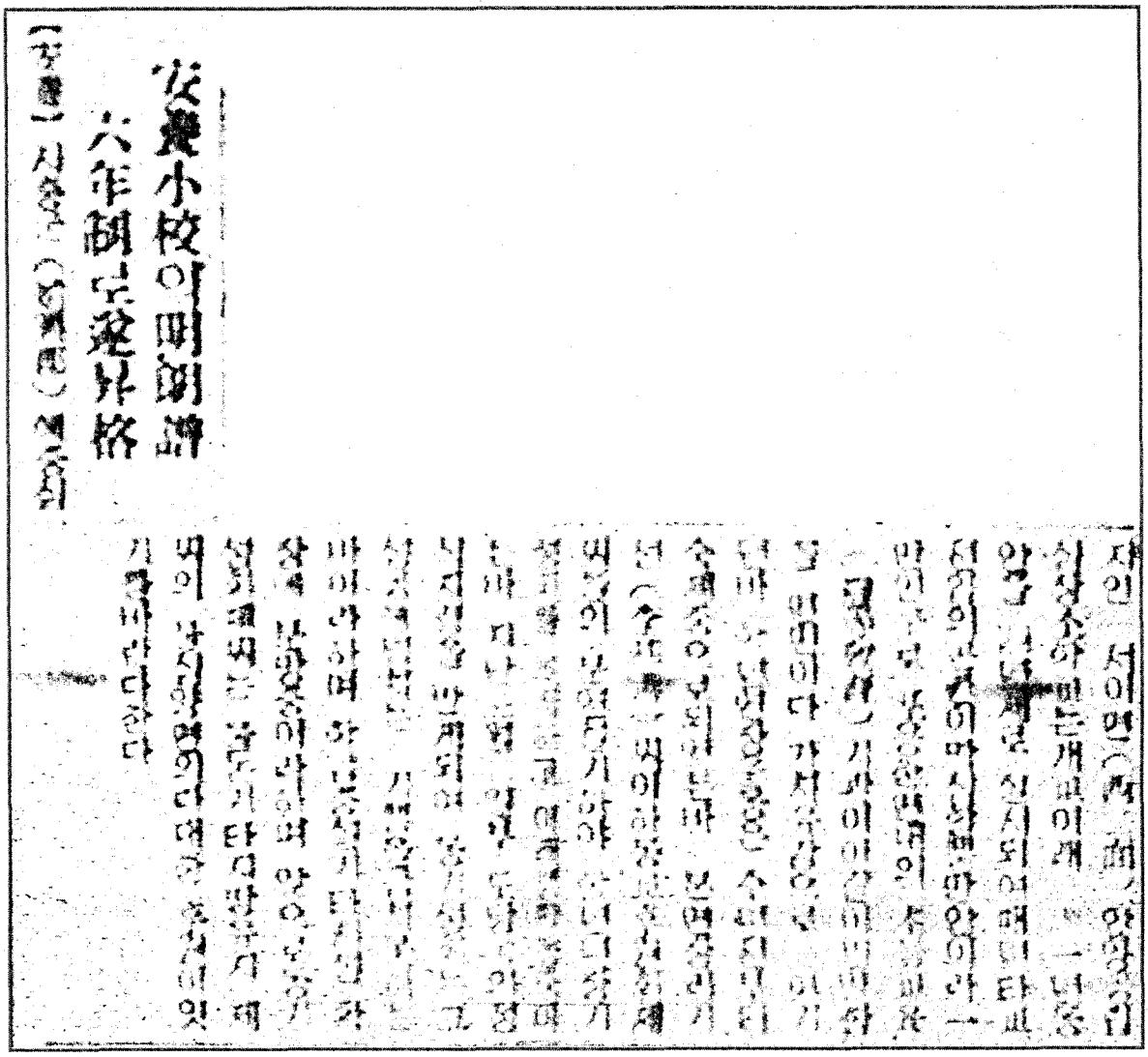
安養校學藝會盛況

(안양) 안양소학교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 동교 강당에서 학예회를 개최하엿는데 일반 학부형모자 제씨는 다수참석하야 만장의 성황을 이루엇으며 귀여운 자녀들의 재미스러운 미담과 동극 등 삼십여 종목의 실연을 끝까지 관람하고 환히 속에 동 4시 산회하엿다고 한다.

안양교학예회 성황

(안양) 안양소학교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 동교 강당에서 학예회를 개최하엿는데 일반 학부형모자 제씨는 다수참석하야 만장의 성황을 이루엇으며 귀여운 자녀들의 재미스러운 미담과 동극 등 삼십여 종목의 실연을 끝까지 관람하고 환히 속에 동 4시 산회하엿다고 한다.

▶ 1940.3.11(4)3



안양소교의 명랑보

6년제로 대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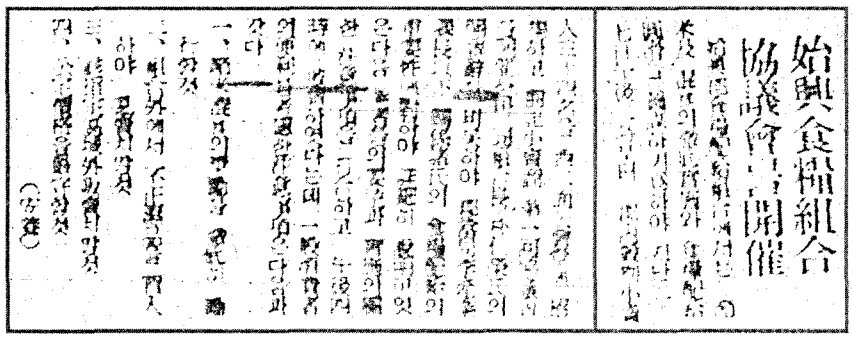
(안양) 시흥군에 중심지인 서이면 안양공립심상소학교는 개교이래 11년동안을 4년제로 실시되어 매년 타교 전입의 곤란이 막심 할뿐만 아니라 일만 인구로 포옹할 면내의 초등교육기관이 이같이 빈약함을 면민이 다같이 유감으로 여기던 바 학년연장운동은 수년 전부터 숙제중으로 되었는바 본 면장 이가선씨 이하 동교 후원회 제씨들의 분연궐기하야 학년연장 기성회를 조직하고 이래 맹 활동 중이던 바 지난 3월 일부도 당국의 정식지령을 받게 되여 동기성회는 그 성공에 넘치는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이라 하며 학급증설기타시설확장에 분망중이라 하며 앞으로 동기성회제씨는 물론 기타지방유지 제씨의 물심양면의 대대한 후원이 잇기를 바란다 한다.

▶ 1940.3.24

안양 소교도 입학난 지원아동 반분 수용

(안양) 시흥군 안양공립소분교 입학 지원 아동수는 남녀 합 2백5십6명이라는데 수용 아동인원은 1백 명이라 한다. 나머지 1백5십 여명은 갈곳이 없어 방학할 처지에 있어 인생항로의 첫발을 내려놓는 학원동산에는 입학난의 아우성치는 소리로 천진난만한 동심을 여지없이 울리어 주고있으니 다같이 통탄할 현상이 아니랴? 이 같이 면내 초등교육기관의 입학난은 해마다 심각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교사 증축 학급 증설은 급무중에도 급무가 아닐 수 없다 이점에 대하야 감독당국은 물론 동교후원회가 유지제씨들은 좀더 협력하야 동교힘압하 난을 하루속히 해소되도록 애써주기를 일반은 크게 기대하는 바이라 한다.

▶ 1940.3.30(6)6



始興食糧組合
協議會 開催

시흥식량조합 협의회를 개최

시흥군 식량배급조합에서는 절미급 혼식의 철저 실시와 식량배급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군내 양물 소매인 34명을 서이면 공회당에 소집하고 전기소매상 제 일회 협의회를 개최한 바 동 조합장 박인영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군 당국 이산업과장 이하 관계 제씨의 식량배급의 중요성에 대하야 상세히 설명이 있은 다음 업자들의 요망과 실시에 관한 주의사항을 타협하고 오후 4시에 산회 하였 다는데 일반소비자의 편이를 고려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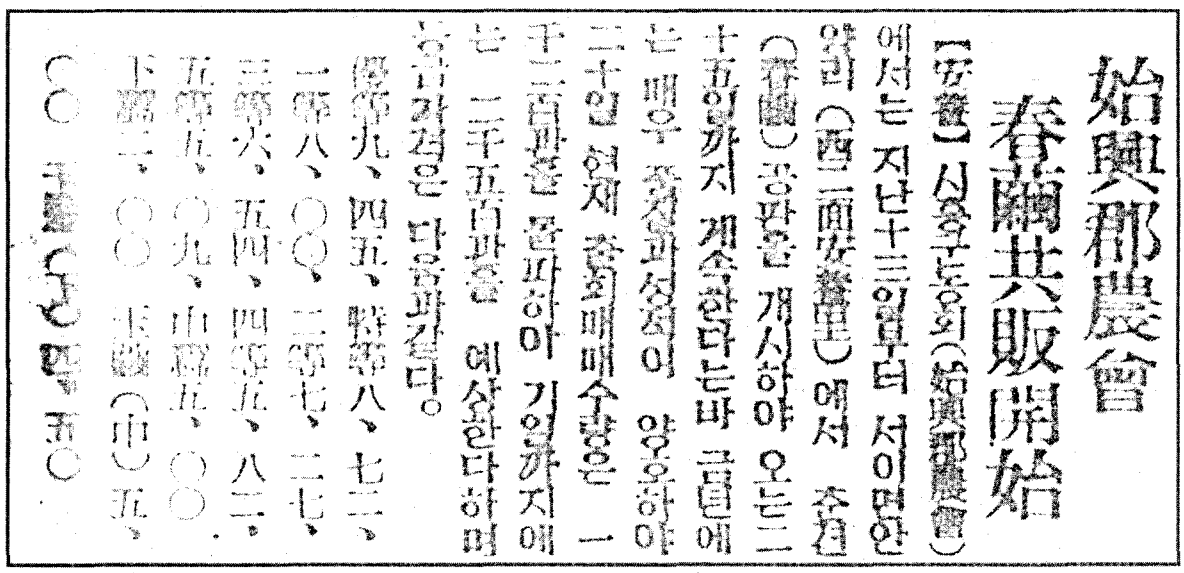
1. 절미 혼식의 장려를 철저히 이행할 것
2. 조합 외에서 부정 물품를 매입하야 판매치 말 것
3. 회 지정구역 외 판매치 말 것
4. 공정가격을 엄수할것

시흥군 농회 통상총회

시흥군 농회 소화 15년도 통상총회는 23일 동 군 회의실에서 각 위원 출석하에 성대히 개최되었는데 금년도 수지 예산은 2십만7천1백2십1원의 거액이오 총회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의원의 의석결정
2. 회장의 인사
3. 출결석 위원수 보고
4. 개회
5. 의안
6. 의사로 서명자 지정(2인)
7. 의회
8. 부의 사항

▶ 1940.6.22(남3)4.



始興郡農會
春蠶共販開始

시흥군 농회 춘견공판개시

(안양) 시흥군 농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서이면 안양리에서 춘견 공판을 개시하야 오늘 25일 까지 계속한다는 바 금년에는 매우 품질과 성적이 향호하여 20일 현재 출하 매매 수량은 기일까지에 1천2백관를 돌파하여 기일까지에는 2천5백관을 예상한다하며 등급 가격은 다음과 같다.

우등 945
특등 872
1등 8백
2등 727
3등 654
4등 582
5등 509
중견 5백, 하견 2백, 옥견(중) 5백, 옥견(하)450

▶ 1940. 7.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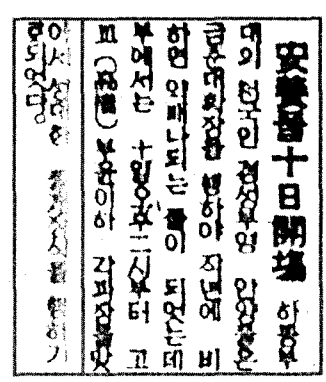
安養「풀」
明一日부터開場

명일부터 개장하여 물을 질기는 하동(河童)들을 기쁘게할것이라한다。그런데 금년에는 경성부에서 六千원을 기부하야 기리 四十메돌, 폭 二十메돌의 풀한간과 우물한곳을 더느려서 화장한외에 종내 五十평의 임간학교(林間學校)를 六十二평으로 넓히엇다한다。(사진은 안양풀)

안양 "풀" 명1일부터 개장

[영등포] 염렬지옥에 팔십만 부민이 동경하는 안양 풀은 명일부터 개장하여 물을 질기는 하동들을 기쁘게 할것이라 한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성부에서 육천원을 기부하야 기리 사십 매들, 폭 이십 매들의 풀 한간과 우물 한곳을 더 느려서 화장한외에 종내 오십평의 임간학교를 육십이평으로 넓히엇다 한다.(사진은 안양풀)

▶ 1940.7.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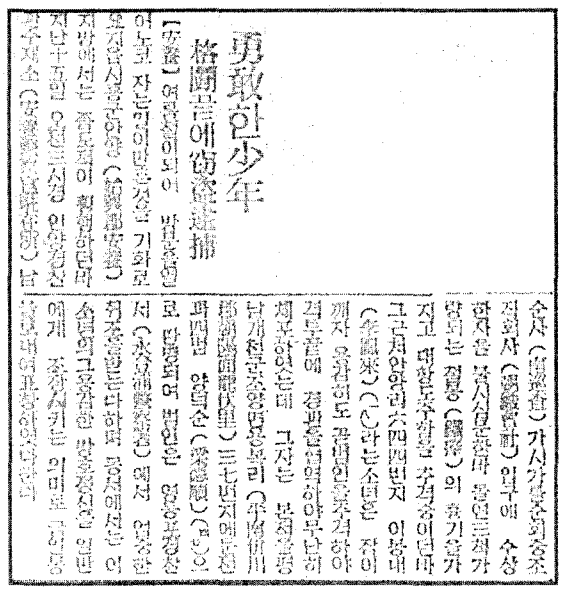


安養풀十日開場
하동부대의 천국인 경성부영 안양풀은 금순대확장을 행하야 작년에 비하면 약배나되는 풀이 되었는데 부에서는 十일오후二시부터 고교 부윤(府尹) 부윤이하 각과장들이

안양풀 10일개장

하동부대의 천국인 경성부영 안양풀은 금순 대확장을 행하여 작년에 비하면 약 배나되는 풀이 되었는데 부에서는 10일 오후2시부터 고교 부윤 이하 각 과장을 맞아서 성대한 풀 개장식을 행하기로 되엇다.

▶ 1940.7.20(3)1



勇敢한少年
格鬪끝에逮捕

용감한 소년 격투 끝에 절도 체포

(안양) 여름철이 되어 방문을 열어노코 자는 일이 만흔 것을 기회로 요지음 시흥군 안양지방에서는 좀도적이 횡행하던 바 지난15일 오전3시경 안양경찰관주재소 남순사가 시가를 순회 중 조직회사입구에 수상한자를 불시 심문한바 돌연 3척 가량 되는 철봉의 흉기를 가지고 대항 도주함을 추격 중 이던 바 그 근처 안양리 644번지에 이봉래(18)라는 소년은 잠이깨자 용감히도 곧 범인을 추격하여 격투 끝에 경관을 협력하야 무난히 체포하엿는데 그자는 본적을 평남 개천군 주동면 용복리 37번지에둔 전과4범 양덕순으로 판명되어 범인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엄중한 취조를 받는다하며 동서에서는 이 소년의 그 용감한 방호정신을 일반에게 조장시키는 의미로 금일봉을 보내여 표창하엿다한다.

▶ 1946.3.19(2)8

강연회성황

(안양) 안양부인회에서는 서울 독립척성부인단의 허영순여사를 초빙하여 지난 15일밤 동양방직강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허여사는 「자주독립과여성의의무」라는 연제로 2시간반 동안이나 열변을 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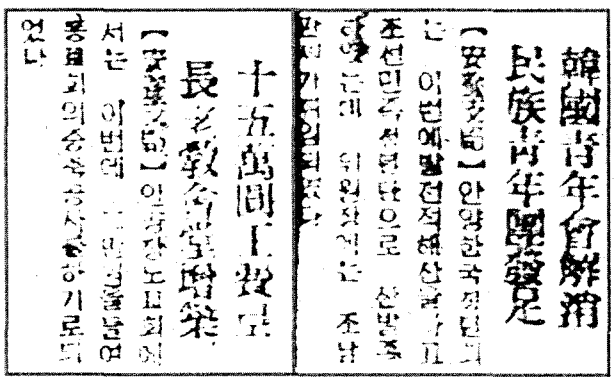
▶ 1946.11.12(4)2

中學創設에三百萬圓
特志家徐丙璨氏가出捐
안양 빠이루 공장관리인 서병선씨는 안양중학교 창설기금으로 사재 3백만원(부동산)을 내기로 되었는데 안양유지들은 3일 오후2시에 곳안양중학교 설립기성회를 결성하고 박영래씨를 회장에 추대하여 설립준비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중학 창설에 3백만원

특지가 서병선씨가 쾌척
(안양) 안양 빠이루 공장관리인 서병선씨는 안양중학교 창설기금으로 사재 3백만원(부동산)을 내기로 되었는데 안양유지들은 3일 오후2시에 곳안양중학교 설립기성회를 결성하고 박영래씨를 회장에 추대하여 설립준비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 1947.5.28(2)5



韓國青年自解消
民族青年團發足

十五萬圓工費로
長老敎會堂新築

한국청년회해소 민족청년단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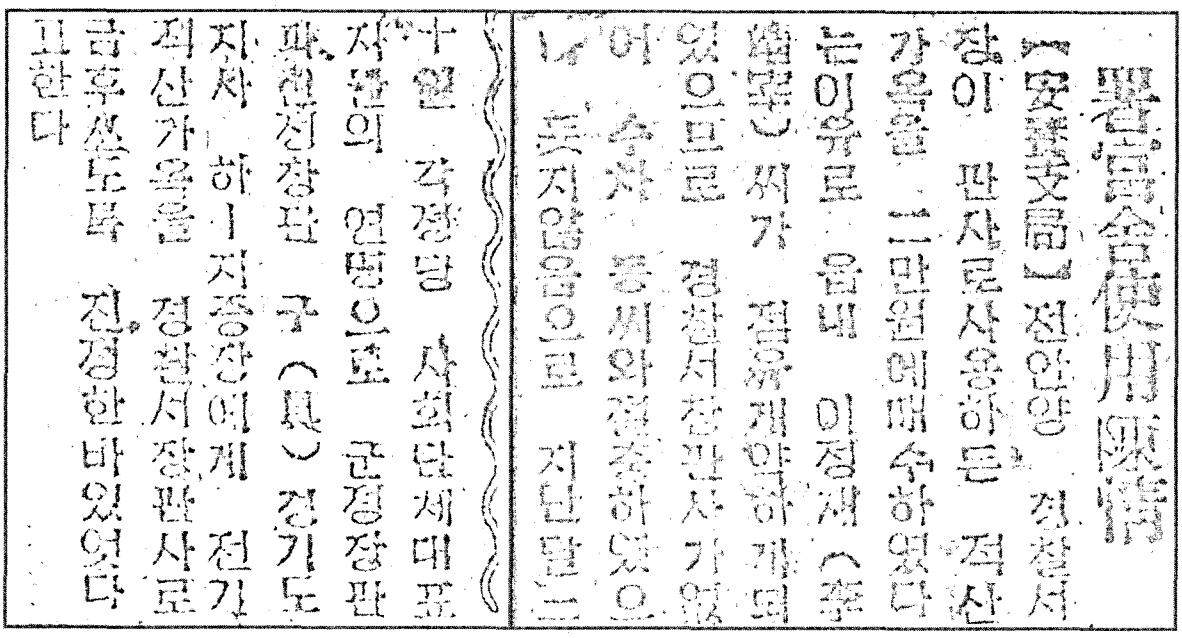
(안양지국) 안양한국청년회는 이번에 발전적 해산을 하고 조선민족청년단으로 산발족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조남관씨가 취임되었다.

15만원공비로

장로교회당증축

(안양지국) 안양 장노교회에서는 이번에 15만원을 들여 동교회의 증축공사를 하기로 되었다.

▶ 1947.6.11(2)5



警官使用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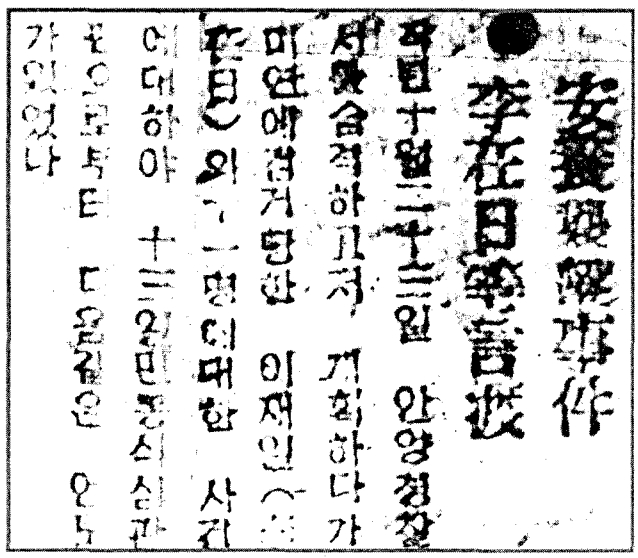
【安養支局】전안양 경찰서장이 관사로사용하든 적산가옥을 二만원에매수하였다는이유로 읍내 이정재(李鼎載)씨가 점유계약하게되었으므로 경찰서장관사가없어 수차 동씨와절충하였으나 듯지않음으로 지난달 三十일 각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연명으로 군정장관과 민정장관구경(具)경기도지사 하(河)지증장에게 전기적산가옥을 경찰서장관사로 금후쓰도록 진정한바있었다고한다

서관사사용진정

(안양) 전 안양 경찰서장이 관사로 사용하든 적산가옥을 2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읍내 이정재씨가 점유 계약하게 되었으므로 경찰서장 관사가없어 수차 동씨와 절충하였으나 듯지 않음으로 지난달 30일 각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연명으로 군정장관과 민정장관구경

기도지사 하-지증장에게 전기적산가옥을 경찰서장관사로 금후 쓰도록 진정한 바 있었다고 한다.

▶ 1947.6.14(2)1



安養署에서 事件
李在日等 書送
작년十월二十三일 안양경찰
서에서습격하고저 계획하다가
미연에검거당한 이재일(
) 외 十一명에대한 사건
에대하야 十三일민공식심판
로부터다음과
가있었다

안양 습격사건 이재일 등 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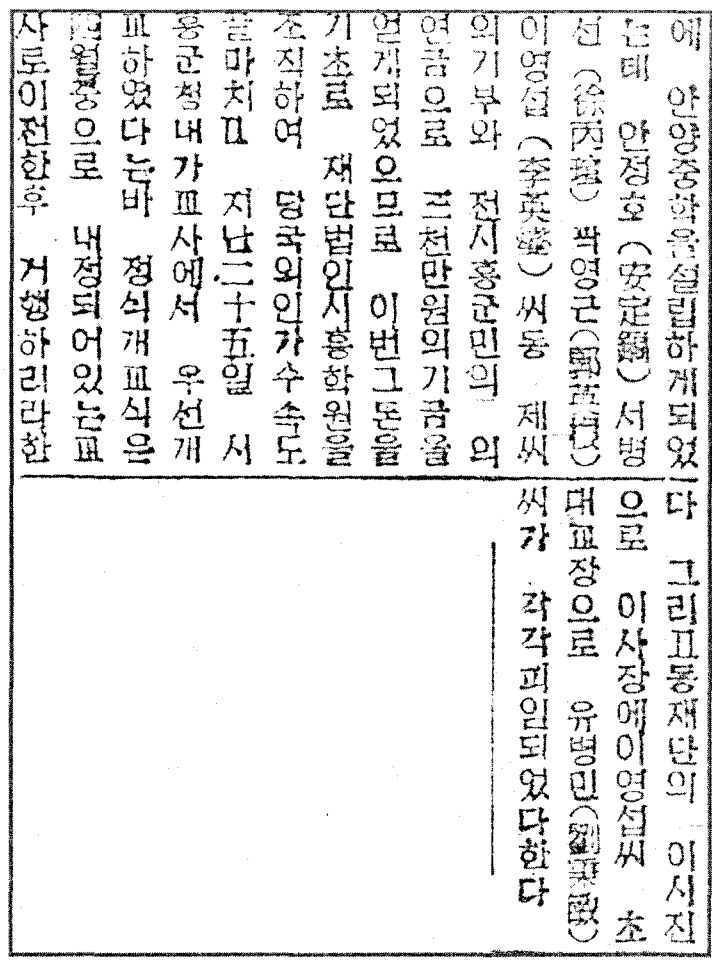
작년 10월23일 안양경찰서를 습격하기를 계획하다가 미연에 검거당한 이재일 외 11명에대한 사건에 대하여 23일 민공식 심판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언도가 있었다.

이재일(□□) 5년

□□□(□□) 10년

□□□□□

▶ 1948.2.2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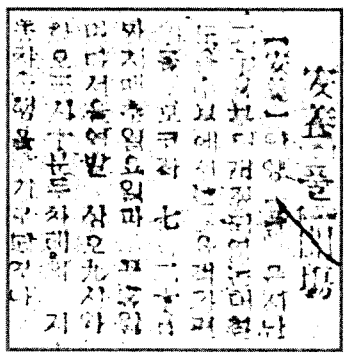
安養中學校
廿五日開校

경기도시흥군(始興郡)에서는 동군군수한창수(韓昌洙)씨의발의로 동군내안양에 안양중학을설립하게되었는데 안정호(安定鎬) 서병선(徐丙璇) 곽영근(郭英根) 이영섭(李英燮)씨등 제씨의기부와 전시흥군민의 의연금으로 三천만원의기금을 얻게되었으므로 이번그돈을 기초로 재단법인시흥학원을 조직하여 당국의인가수속도 끝마치고 지난二十五일 시흥군청내가교사에서 우선개교하였다는바 정식개교식은 四월중으로 내정되어있는교사로이전한후 거행하리라한다 그리고동재단의 이사진으로 이사장에이영섭씨 초대교장으로 유병민(劉秉敏)씨가 각각피임되었다한다

안양 중학교 25일 개교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동군군수 한창수씨의 발의로 동군내 안양에 안양중학을 설립하게되었는데 안정호, 서병선, 곽영근, 이영섭씨등 제씨의 기부와 전 시흥군민의 의연금으로 3천만원의 기금을 얻게되었음으로 이번 그 돈을 기초로 재단법인시흥학원을 조직하여 당국의 인가수속도 끝마치고 지난 25일 시흥군청내 가교사에서 우선 개교하였다는 바 정식개교식은 4월중으로 내정되어있는 교사로 이전한후 거행하리라한다 그리고 동재단의 이사진으로 이사장에 이영섭씨 초대교장으로 유병민씨가 각각 피임되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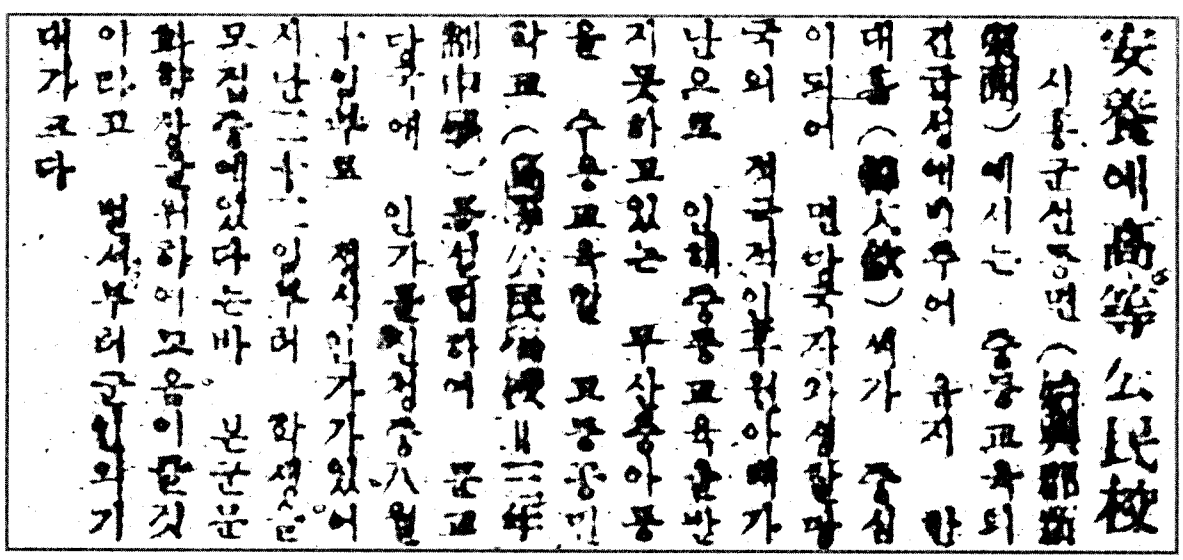
▶ 1948.6.26(2)3



안양「롤」개장

[안양]안양「롤」은 지난 20일부터 개장되었는데 철도 운수부에서는 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7월20일까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마다 서울역 발 상오 9시와 하오 3시 10분 두 차례의 전동차운행을 하기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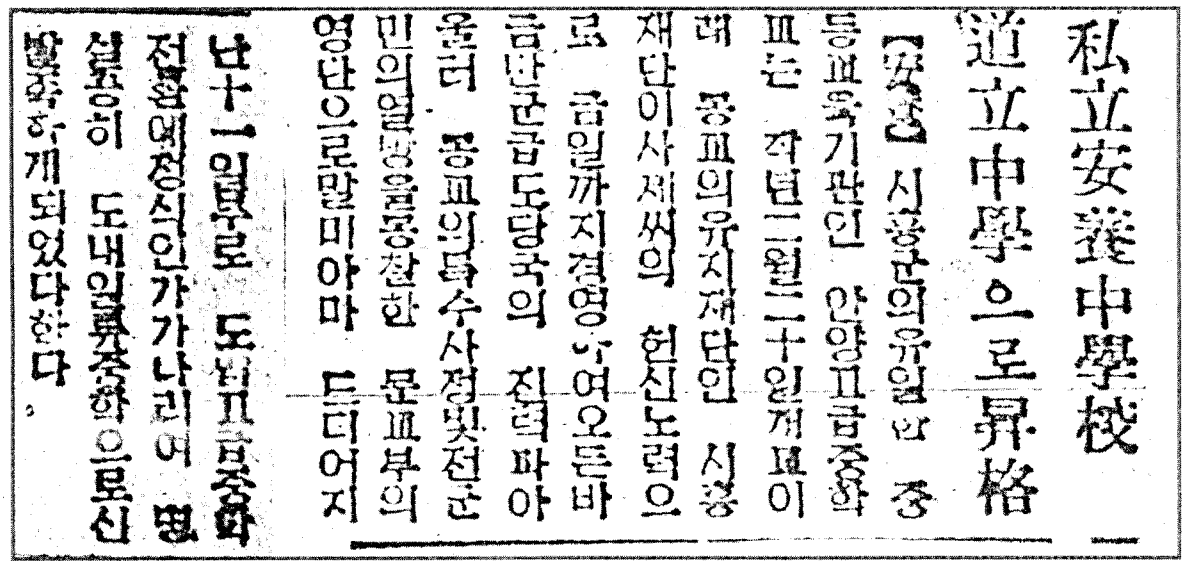
▶ 1948.6.29(3)6



안양에 고등공민교

시흥군 신동면에서는 중등교육의 긴급성에 비추어 유지 한대흠씨가 중심이 되어 면당국자와 경찰당국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가난으로 인해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산층 아동을 수용교육할 고등공민학교(3년제 중학)를 건립하여 문교당국에 인가를 신청 8월 10일 부터 정식인가가있어 지난 22일부터 학생을 모집 중에 있다는 바 본 군 문화 향상을 위하여 도움이 클것이라고 벌써부터 군민의 기대가 크다.

▶ 1949.1.21(2)11



私立安養中學校
道立中學으로昇格

【安養】 시흥군의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인 안양고급중학교는 작년二월二十일개교이래 공교의유지재단인 시흥재단이사제씨의 헌신노력으로 금일까지경영하여오든바 금반군급도당국의 진력과아울러 공교의특수사정및 전군민의열망을통찰한 문교부의 영단으로말미아마 드디어 지난十一일부로 도립고급중학 전환예정식인가가나리어 명실공히 도내일류중학으로신발족하게되었다한다。

사립안양중학교 도립중학으로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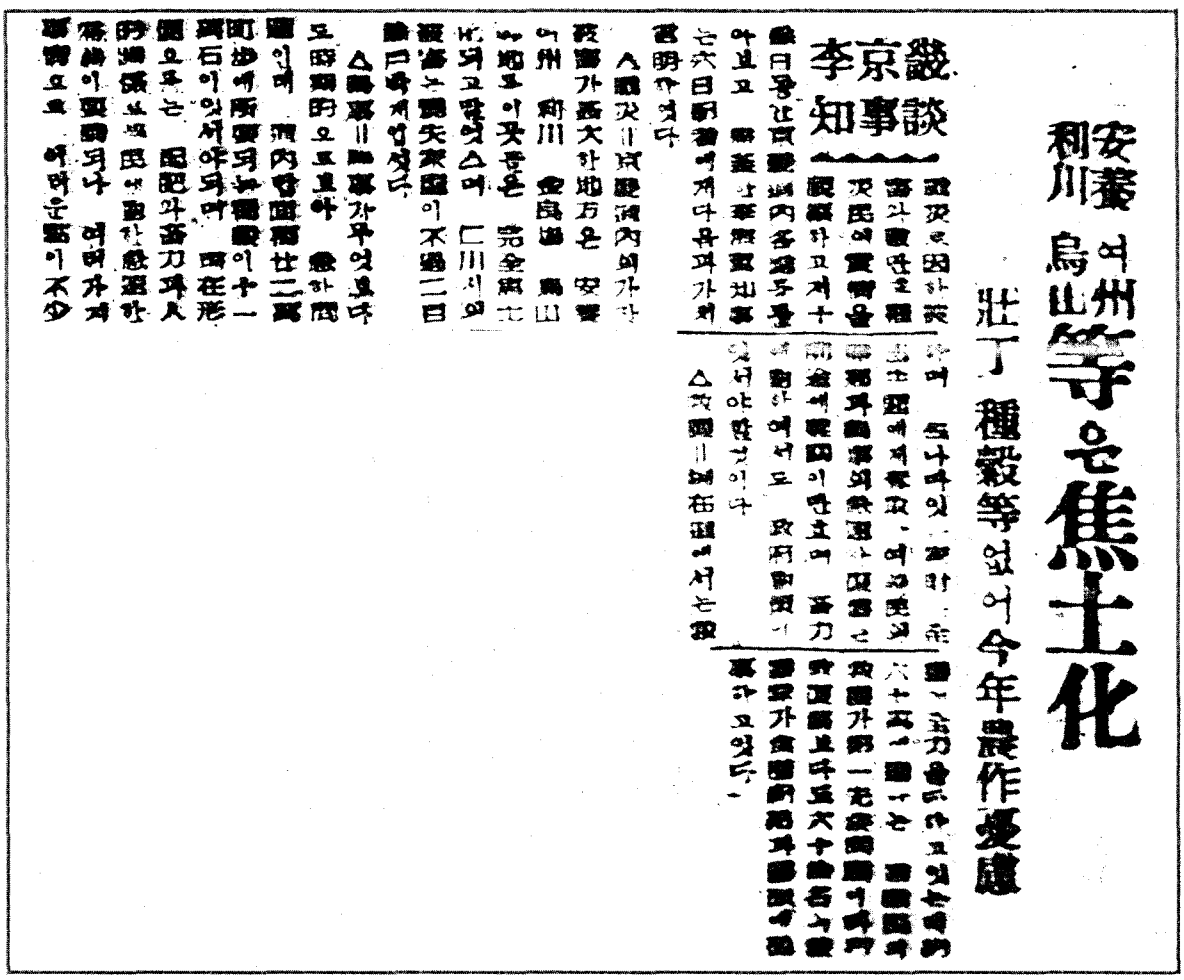
[안양] 시흥군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인 안양고급중학교는 작년 2월 20일개교이래 공교의 유지재단인 시흥재단이 사제씨의 헌신노력으로 금일까지 경영하여 오든바 금반군급도당국의 진력과 아울러 공교의 특수사정 및 전군민의 열망을 통찰한 문교부의 영단으로 말미아마 드디어 지난 11일부로 도립고급중학 전환예정식인가가나리여 명실공히 도내 일류중학으로 신발족하게 되었다한다

▶ 1950.4.24(2)5

안양공업중학교 개교기념식거행

(안양) 안양공립공업중학교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신 교사를 증축 중이던 바 금방 준공이 되었음으로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동교강당에서 내빈과 학부형 참석하에 낙성식겸 개교기념식을 거행하고 식이 끝난 후에는 기념음악과 연극을 행하리라한다

▶ 1951.3.7(2)6



安養 利川 烏山 여州等은 焦土化

壯丁 種穀等없어 今年最作憂慮

李京畿知事談

(이 경기지사 담)안양 여주 이천 오산 등은 초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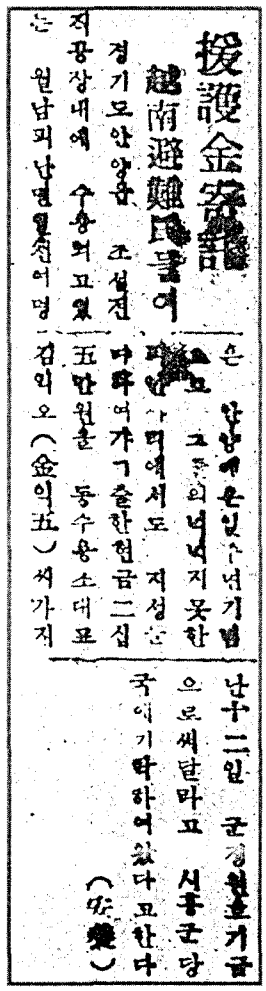
장정 종곡 등 없어 금년 농작 우려

이재로 인한 피해와 수만호 이재민이 실정을 관찰하고저 10수일동안 경기도내 각지을 돌아보고 □□□ 이□□ 지사는 육일 □□에게 다음과 가치 언명하였다. △□재=경기도내의 가장 피해가 심대한 지방은 안양, 여주, 이천, 김량□, 오산 등지로 이곳들은 완전 초토화되고 말었스며 인천시의 피해는 □시가정이 불과 2백여호 밖에 없었다.

△농사=농사가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보아 급한 문제인대 도내 답면적 이십이만 정보에 소요되는 종곡이 십일만석이 있어야되며 현재 형편으로는 배비와 총력과 인적상황로 도민에 대한 급속한 종곡이 요청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점이 불소하며 □나따잇은 가재는 전군□ □에제 탈취, 여 □민의 □□과 □□의 □속□ □□□ □도에 □□이만호며 □력에 대하여서도 정부대책잇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에서는 □□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악 육십만 □□는 이재민의 □□가 제일선□문□이□□□□보다도 육십□명의 □□가 식□□□과 □□에 □사하고 있다.

▶ 1952.7.2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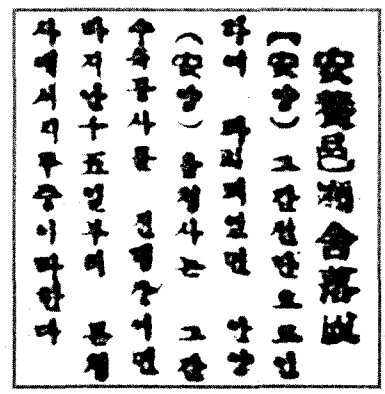


援護金寄託
越南避難民들이
(안양)경기도안양읍 조선직공장내에 수용되고있는 월남피난민일천여명은 안양에온일주년기념으로 그들의 넉넉지 못한 피난사리에서도 지성을 다하여각출한현금二십五만원을 동수용소대표 김익오(金益五)씨가지난十二일 군정원호기금으로써달라고 시흥군당국에기탁하여왔다고한다

월남피난민들이 원호금기탁

(안양)경기도안양읍 조선견직공장내에 수용되고있는 월남피난민일천여명은 안양에온일주년기념으로 그들의 넉넉지 못한 피난사리에서도 지성을 다하여각출한현금2십5만원을 동수용소대표 김익오씨가지난 12일 군정원호기금으로써달라고 시흥군당국에기탁하여왔다고한다.

▶ 1952.12.2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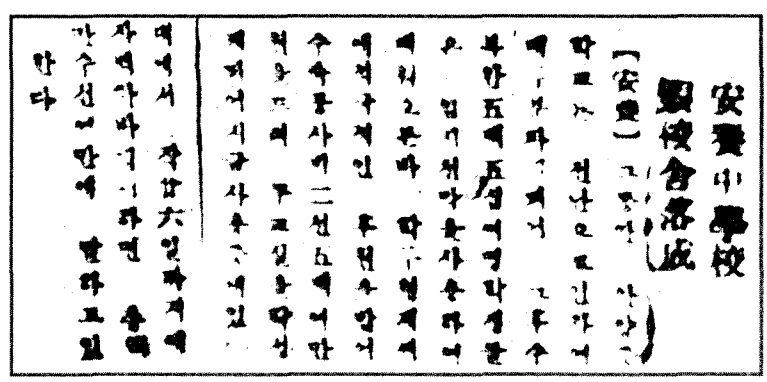


安養邑廳舍落成
(안양) 그간전란으로인하여 파괴되었던 안양읍 청사는 그간수축공사를 진행중이던바 지난15일부터 본청사에서 직무중이라한다

안양읍청사 낙성

(안양) 그간 전란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안양읍 청사는 그간 수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바 지난 15일부터 본 청사에서 직무 중이라 한다.

▶ 1952.12.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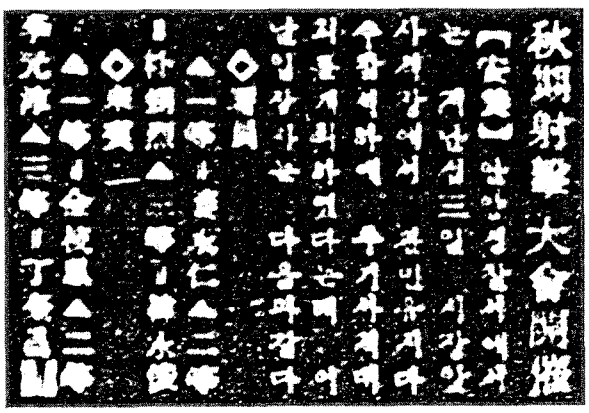


安養中學校
舊校舍落成

안양중학교 가교사 낙성

(안양) 그 동안 안양중학교는 전난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되어 그 후 수복한 5백 5십 여명 학생들은 임시천막을 사용하여 배워오던 바 학부형 제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어 수축공사비 2천5백여 만원을 드려 두 교실을 낙성케 되어 지금 사용 중에 있다.

▶ 1954.11.18(3)5



추기 사격대회 개최

(안양) 안양경찰서에서는 지난 13일 시장 앞 사격장에서 관민유지 다수 참석하에 추기 사격대회를 개최하였다는데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 1955.10.26(4)1

安養遊記

金孝鳴

안양 유기 김동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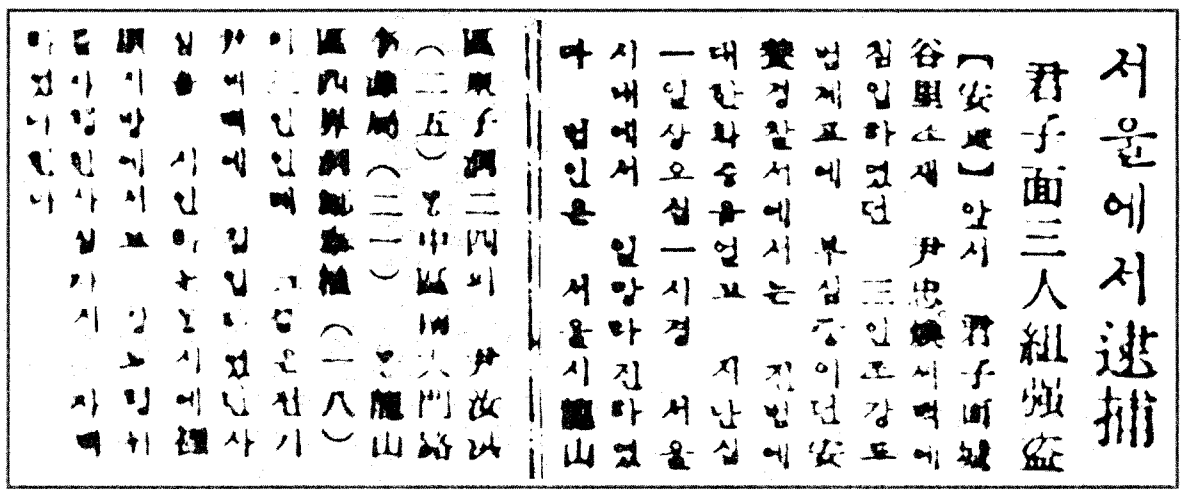
「여기가 어떨까?그늘이 있고 폭포가 있고.....」「풀-」을 지나 관악산 쪽으로 물줄기를 거슬러 한참을 나오다가, 누군가 이렇게 의견을 들린다. 어느새 조그마한 천막이 시넷가에 자리를 잡는다. 모도가 유목시대의 우리조상들의 옛 모습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다. 나는 이내 타올을 목에 걸고 이른바 「폭포」떠러지는데로 나려갔다 적당히 바위가 틀린 천연의 욕조엔 선객이 이, 삼인 어린 애들처럼 물장난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나려지는 폭포수를 두 어깨로 떠받치며 팔장을 끼고 눈을 감아 본다. 물은 창자 속으로도 뼈 속으로도 스며들어, 한여름 묵은 더위가 묵은 때와 함께 다 씻기는 듯하다. 내 육체로서 옛 「고리시아」의 조상을 그려보려는 엉큼한 욕심을 잠깐 느껴보는 것도 암벽이 그럴듯한 탓일지도 모른다.「메기대」 한 사나이가 탄성을 올리자, 다른 사나이는 거로서 돌멩이를 들러 메고 덤벼든다. 또 다른 쪽들은 타올로 그물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멀즈막이 모원■세를 엄한다. ■여름 물가으로 유도하야 사로잡자는 ■■이리라 설사 악의에서가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야속한 짓들이뇨. 남의 영성에 무단히 침입한 것만 으로도 심히 송구스러울 일이어든, 하물며 원주자에게 대한 이렇듯안 무례가 어데 있으랴. 어쩌면 이 조그마한 수성의 여왕일지도 모르는, 저 메기양으로 더불어 함께 미역감고, 숨박꼭질하고, 발로하는 수작이 아니기에 더욱 진묘한 이해에 이를 수 있고 사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도 아름다운 인연이기에, 이제 저들은 이 은혜로운 기회마저 폭행으로 더럽히려 드는걸까. 사나이들의 서두는 품이 몹시 심상치 않음을 알자, 메기양은 바위틈에 숨은 채 드디어 나오지 않는다. 나도 메기양처럼 인간을 피하야, 그러나 바위틈 대신 으슥한 숲속을 찾었다. 나는 여기서 문득 생각난 듯, 나뭇잎을 따서 일부러 모양 사나운데를 가리우고 한팔로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맞은편 산 둥성이와 그 위에 뜬구름과 하늘을 바라본다. 내 몸에 털이 없는 것이 얼마나 흉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큰나무가지에 오르는 대신, 맞은편 바윗둥 위에 올라가 쭈구리고 앉아 본다. 이마에 손을 얹고「세상」을 내려다본다. 그러나 손등에 털이 없으나, 어찌 세상이 옛 모습이기를 바라랴. 나는 다시 타올을 목에 걸고 천막으로 돌아온다. 나는 벌써 벗은 몸이 아니다. 「세상」과의 슬픈 대좌! 이 경우에 ■을 반기는 것은 반듯이 ■사시대에의 나의 향수를 위해서만이 아니리라. 황혼이 나릴 무렵「추억」위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포로다! 문명의 포로다!」하고, 짐승처럼 소리소리 질렀더니 모두들 웃지 않는가. 단지 명정으로만 들리나 보다. 숲 속의 달밤이 그립대서 취정만 일리야 있느뇨. 이윽고 집에 돌아오니 나는 오늘 괭장히 먼데를 여행하고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했다. 거화·유 사장의 호의가 새삼 고마웠다.

▶ 1955.11.14

상이용사 추수봉사

(안양) 화성군 일왕면 포일리에 거주하는 재대군인 안남식 (27)씨외 17명은 같은 동리에 팔을 잘린 상이용사 안■섭 (26)씨의 양친이 노구를 이끌고 추수에 허덕이는 딱한 사정을 보고 지난 10월 21일 이를 도와 추수를 완료케 하였다한다 이들 상이용사들의 미거에 대하여 부락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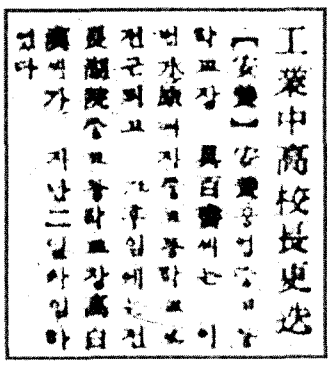
▶ 1955.12.18(3)8



군자면 삼인조 강도 서울에서 체포

(안양) 앞서 군자면 성곡리 소재 윤충환씨 댁에 침입하였던 삼인조 강도범 체포에 부심 중이던 안양경찰서에서는 진범에 대한 확증을 얻고 지난 11일 상오 11시경 서울시내에서 일망타진하였다 범인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4의 윤여홍(25), 중구 남대문로 이■국(21), 용산구 서계동 정태식(18)의 3인인데 그들은 전기 윤씨댁에 침입하였던 사실을 시인하는 동시에 ㅁㅁ지방에서도 강도행위를 자행 한 사실자체 자백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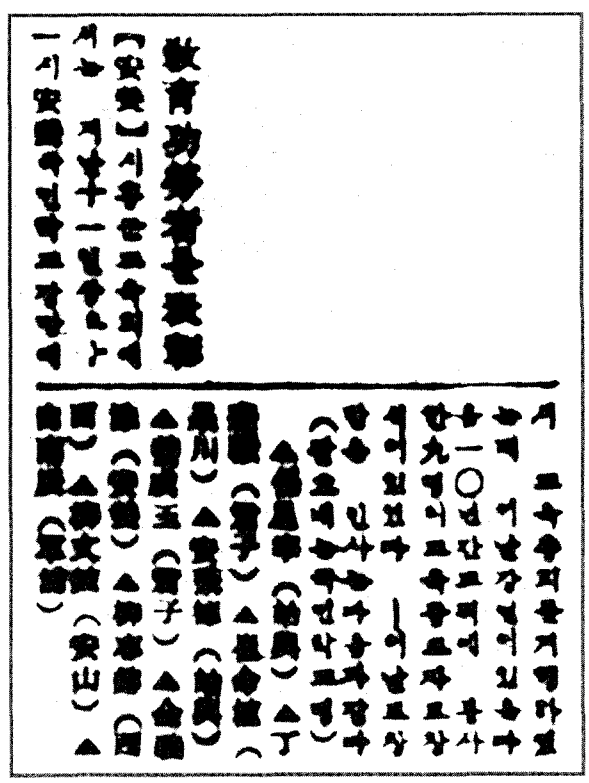
▶ 1956.4.13(3)6



안양공업중고교장 경질

(안양) 안양공업 중고등학교장 구백제씨는 이번 수원여자중고등학교로 전근되고 그 후임에는 전 장호원 중고등학교장 우백한씨가 지난 2일 차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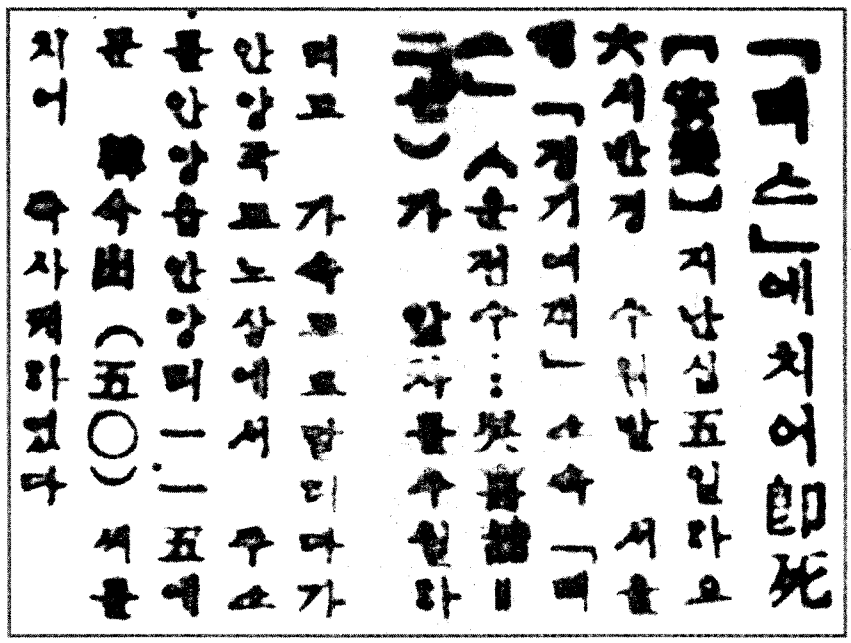
▶ 1957.1.15(3)3



교육 공로자를 표창

(안양) 시흥군 교육회에서는 지난 11일 상오 11시 안양국민학교 강당에서 교육총회를 거행하였는데 이날 강연이 있은 다음 10년간 교직에 봉사한 9명이 교육공로자 표창식이 있었다. -이날 표창 받은 인사는 다음과 같다.(괄호내는 국민학교명)
△□□□(시흥) △정□□(□자) △최명식(과천) △안□□(시흥) △□□□(□자) △김□□(안양) △유□□(서면) △유문□(안산) △□□□(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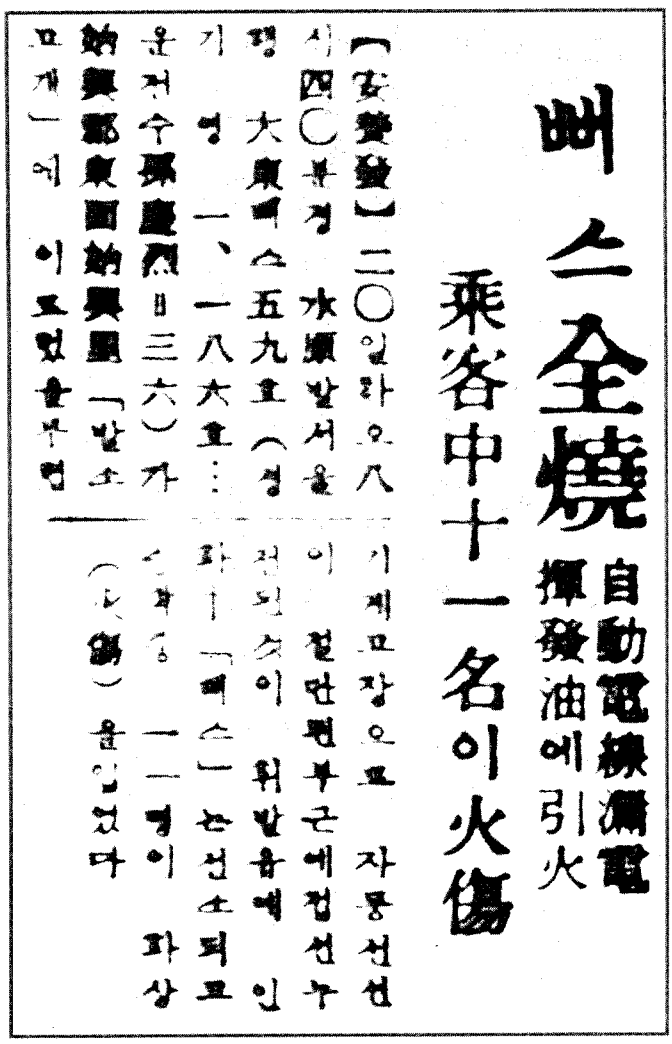
▶ 1957.5.21(3)1



「뻐스」에 치어 즉사

(안양) 지난 15일 하오 6시 반경 수원 발 서울행 「경기여객」소속「뻐스」(운전수...오희철27)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가속도로 달리다가 안양국도 노상에서 주소를 안양읍 안양리 115에 둔 한금출(50)씨를 치어 즉사케 하였다.

▶ 1957.5.22(3)6



빼스全燒 自動電線漏電 揮發油에 引火

乘客中十一名이火傷

【安養發】二〇일하오八시四〇분경 水原발서울행 大東빼스五九호(경기 영 一、一八六호)가 운전수孫慶烈(三六)가 始興郡東面始興里「발소개」에 이르렀을무렵 자동선전이 절단된부근에 접선 누전되어 휘발유에 인화 승객중 一一명이 화상을 입었다

(安養)발 二〇일 하오 八시 四〇분 경 수원발 서울행 대동빼스 五九호(경기 영 一、一八六호)가 시흥군 동면 시흥리「발소개」에 이르렀을 무렵 기계고장으로 자동전선이 절단된 부근에 접선 누전되어 휘발유에 인화「빼스」는 전소되고 승객중 一一명이 화상을 입었다

버스전소

자동전선누전
휘발유에 인화
승객 중 11명이 화상

(안양)발 20일 하오 8시 40분 경 수원발 서울행 대동빼스 59호(경기 영 일,1186호...운전수 손경열 -36)가 시흥군 동면 시흥리「발소고개」에 이르렀을 무렵 기계고장으로 자동전선이 절단된 부근에 접선 누전 된 것이 휘발유에 인화-「빼스」는 전소되고 승객 중 11명이 화상을 입었다.

▶ 1959.4.17(4)3

金浦·始興郡選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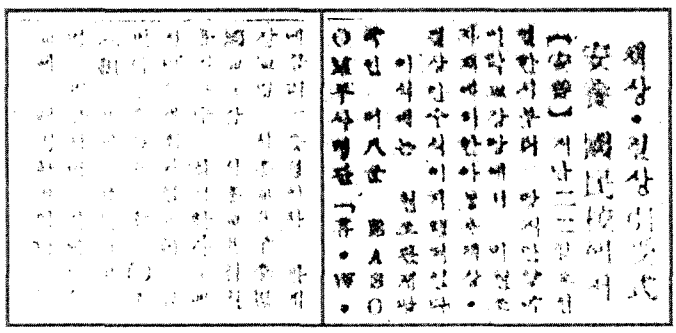
京畿道內模範郡

경기도에서는 도내 모범군으로 김포군과 시흥군을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종 도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 한다. 이와 동시 모범읍·면으로는「안양읍」과「용인면」「광주군」「아동면」을 선정하고 역시 말단 행정지도를 실시 할 것이라 한다.

경기도내 모범군 김포·시흥군 선정

경기도에서는 도내 모범군으로 김포군과 시흥군을 선장하고 이달 말까지 각종 도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 한다. 이와 동시 모범읍·면으로는「안양읍」과「용인면」「광주군」「아동면」을 선정하고 역시 말단 행정지도를 실시 할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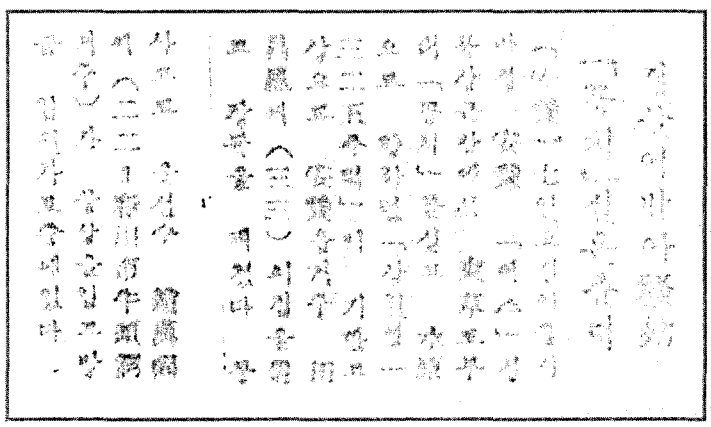
▶ 1959.4.25조(4)2



안양 국민교에서 책상 · 걸상 인수식

(안양)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당시 안양초등학교 강당에서 미 원조자제에 의한 아동용 책상 · 걸상 인수식이 거행되었다. 이식에는 원조관계 당국인 미 팔군 BASOOM부사령관「휴 · W · 메클리」중령이하 관계장교 및 시흥교육구 이사국 교육감 시흥교육위원 유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는데 금번 인수 총량은 730조 분에 달한다고 하며 방금 관내 각 국민학교에 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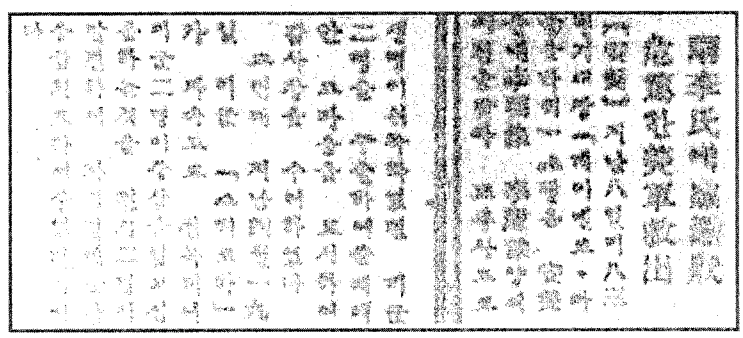
▶ 1959.5.8조(4)4



「꽁치」실은 츄럭 집들어 받아 소동

(안양) 7일 오전 7시 반경 안양「빠스」정류장 근방에서 속초로부터 「꽁치」를 싣고 수원으로 향하던 「강원 영 1325 츄럭」이 기관고장으로 안양읍 거주 전기봉(33)씨의 집을 뚫고 장독을 깨쳤다. 동 사고로 운전수 조만복(22 춘천시 우두동 거주)가 중상을 입고 방금 입원 가료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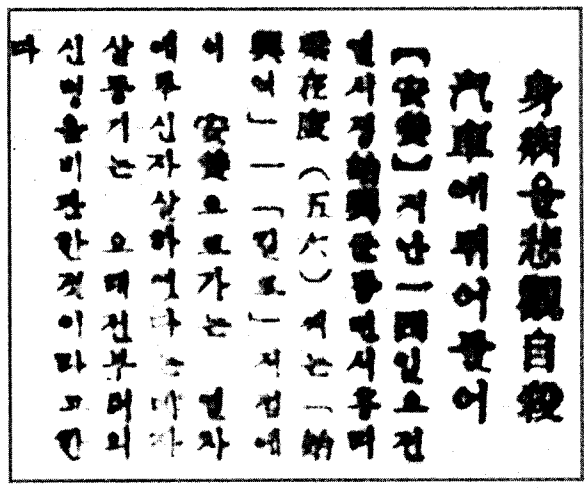
▶ 1959.5.11조(4)1



위독한 미군 구출 양이씨에 감사장

(안양) 지난 8일 미 83병기대장「레이먼드 · 따불을박쥐」소령은 안양읍내 이영■, 이■■양 씨의 집을 찾아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하였던 미군 2명을 수술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지난 4월 19일 미군「스리코타」가 과속으로 점복되어 미군 2명이 중상을 입고 신음하는 것을 전기 2명이 발견하여 자기 집에 운반 응급치료하여 주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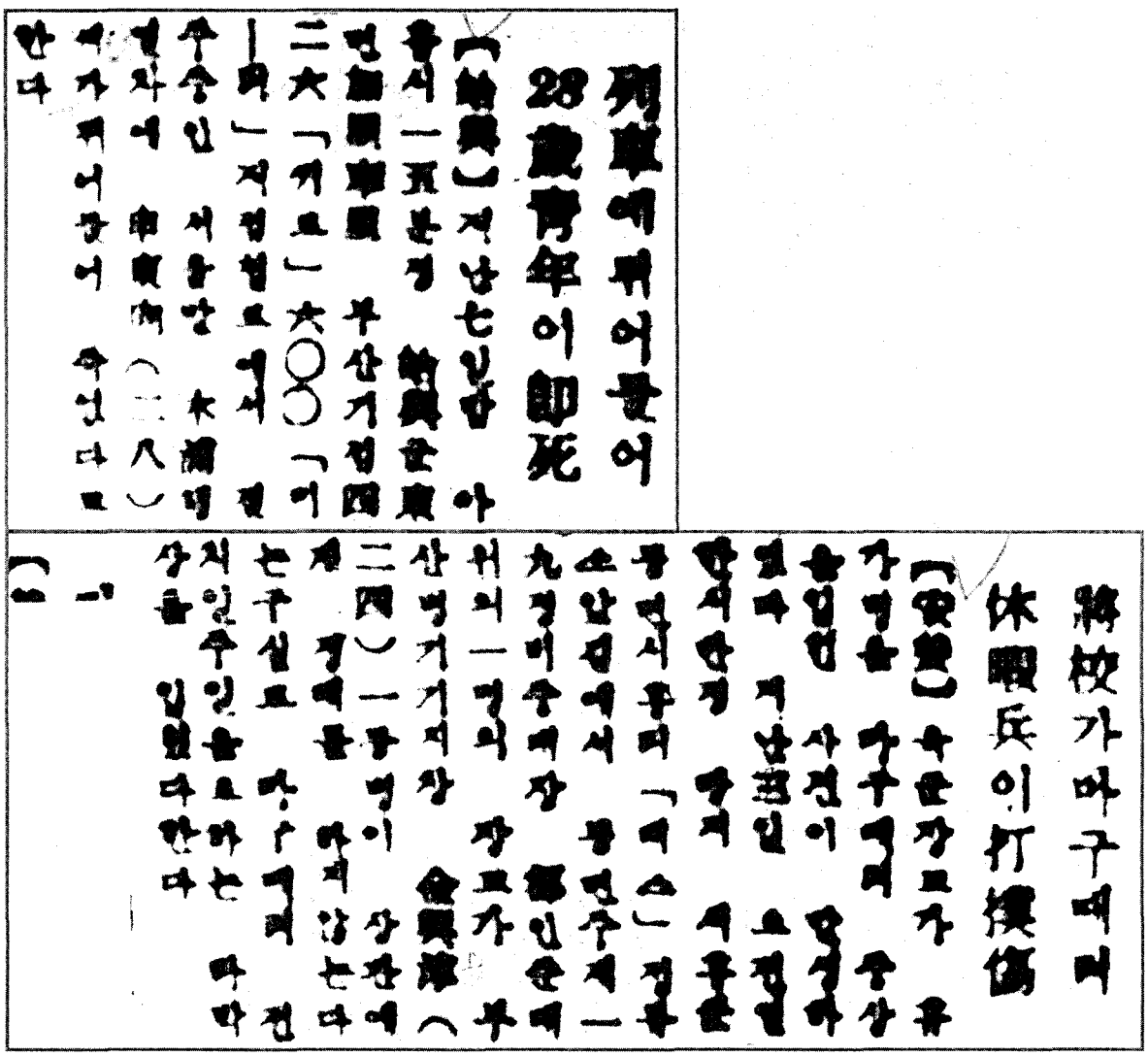
▶ 1959.5.18(4)3



기차에 뛰어들어 신병을 비관자살

(안양)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시흥군 동면 시흥리 양재도(56)씨는 시흥역 1킬로 지점에서 안양으로 가는 열차에 투신자살하였다는데 자살동기는 오래 전부터의 신병을 비관한 것이라고 한다.

▶ 1959.6.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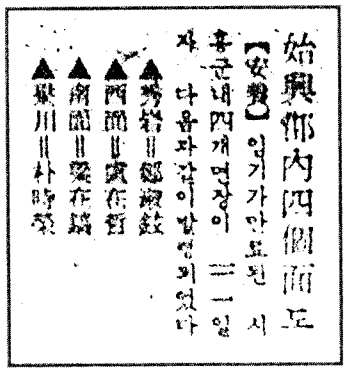
열차에 뛰어들어 28세 청년이 즉사

(시흥) 지난 7일밤 9시 15분경 시흥군 동면 가리봉리 부산기점 426킬로 600미터지점 철로에서 질주중인 서울발 목포행 열차에 신동문(28)씨가 뛰어들어 즉었다고 한다.

장교가 마구 때려 휴가병이 타박상

(안양) 육군장교가 휴가병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3일 오전 11시30분경에 당시 시흥군 동면 시흥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동면주재 19경비중대장 도인춘대위외 1명의 장교가 부산 병기 기지창 김홍순(24) 일등병이 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은 다는 구실로 마구 때려 전치 일주일을 요하는 타박상을 입혔다 한다.

▶ 1959.8.14(4)1



시흥군내 4개면도

(안양)임기가 만료된 시흥군내 4개 면장이 21일자 다음과 같이 발령 되었다.
과천-박시영
수암-정숙현
서면-노재철
남면-양재호

▶ 1959.8.1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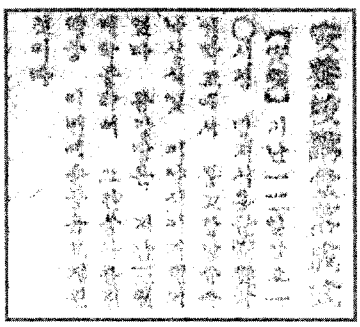
수영하다 체녀익사

(안양) 지난 15일 당시 유원지 「풀」에서 수영을 하던 서울시내 마포구 이진순은 물 속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즉사하였다.

고압선에 감전 즉사 연 찾으려던 어린이

(안양)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 나기경씨의 2남 은복(8)군은 지난 15일 상오11시 경 전선에 걸린 연을 때러 갔다가 3300볼트의 고압선에 감전-즉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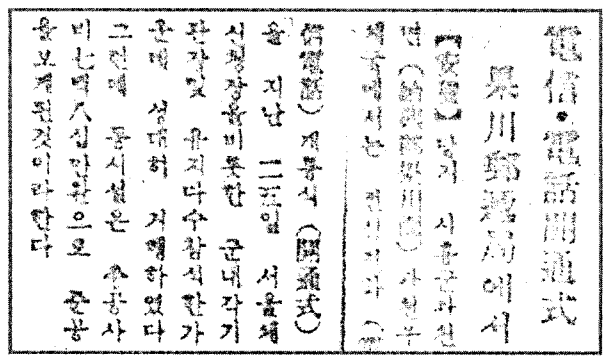
▶ 1959. 9. 18조



안양교 강당 락성식

(안양) 지난 12일 상오 10시경 당시 시흥군 안양 국민학교에서 동교 강당증축 낙성식 및 이양식이 거행되었다. 동 강당은 지난 삼월 시작을 하여 그간 공사를 진행 중 이번에 준공을 보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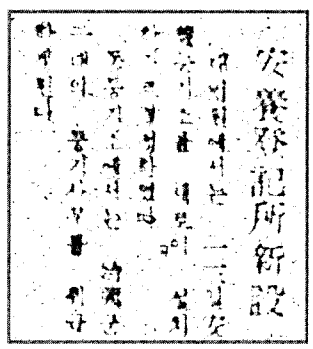
▶ 1959.11.27(4)3



전신·전화개통식 과천우체국에서

(안양) 당지 시흥군 과천면 과천우체국에서는 전신전화개통식을 지난 25일 서울체신청장을 비롯한 군내 각 기관장 및 유지다수참석한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다. 그런데 동시설은 총 공사비 7백 8십만 환으로 준공을 보게된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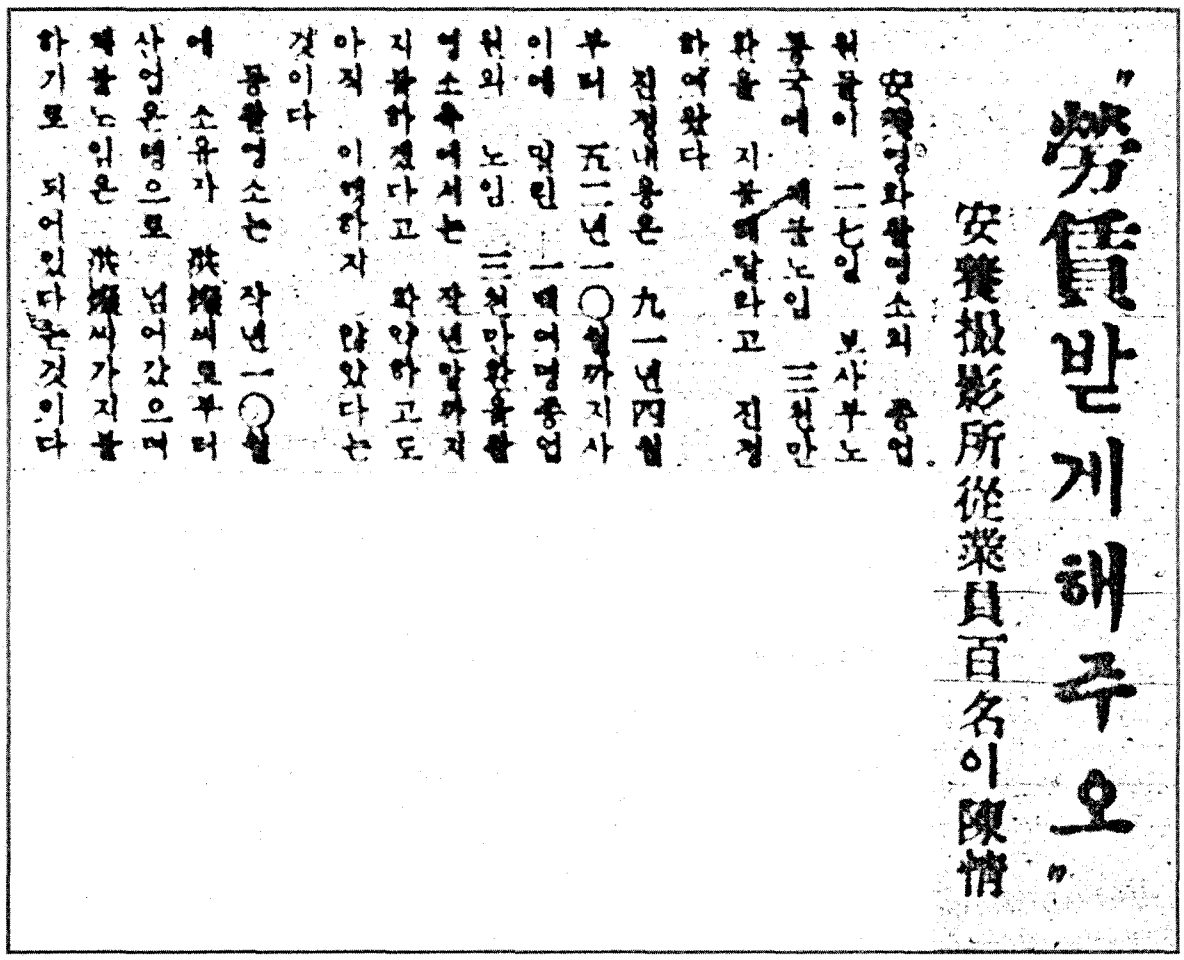
▶ 1960.1.13(3)8



안양 등기소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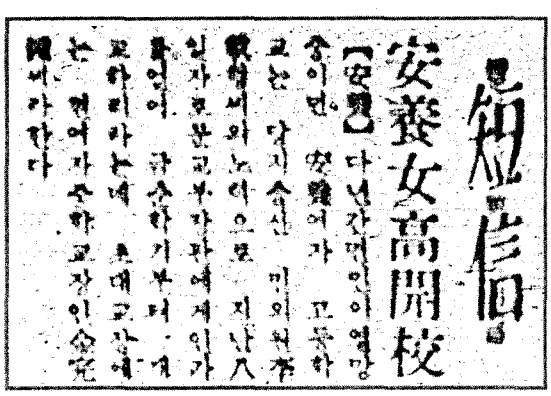
대법원에서는 13일 안양등기소를 새로이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등기소에서는 시흥군내의 등기사무를 취급하게 된다.

▶ 1960.1.29조


"勞賃받게해주오"
安養撮影所從業員百名이陳情

안양촬영소 종업원 1백명이 진정 "노임받게해주오"

안양영화촬영소의 종업원들이 27일 보사부 노동국에 체불노임 3천만 환을 지불해달라고 진정하여왔다. 진정내용은 91년 4월부터 52년 10월까지 사이에 밀린 1백 여명 종업원의 노임 3천만 환을 촬영소 측에서는 작년말까지 지불하겠다고 확약하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 촬영소는 작년 10월에 소유자 홍찬씨로부터 산업은행으로 넘어갔으며 체불노임은 홍찬씨가 지불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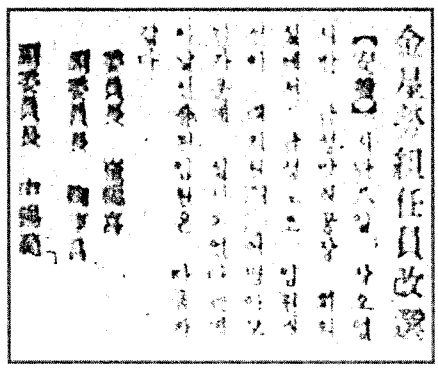

安養女高開校

▶ 1960.3.29(4)1

안양여고 개교

(안양) 다년간 면민이 열망 중이던 안양여자고등학교는 당지 출신 민의원 이재형씨의 노력으로 지난 8월자로 문교부 장관에게 인가를 얻어 금춘학기부터 개교하리라는데 초대교장에는 현 여자중학교장인 김완■씨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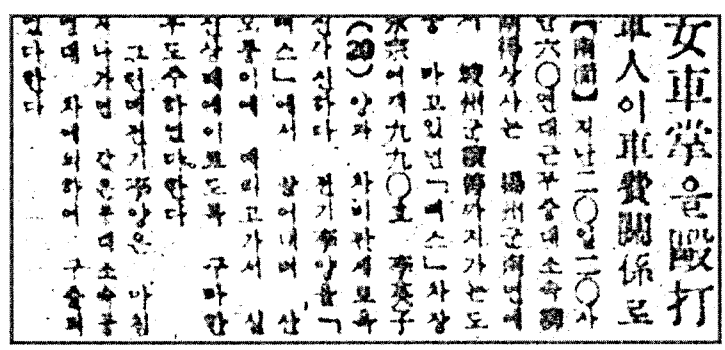
▶ 1960.5.11(4)5



금성노조임원개선

(안양) 지난 8일 상오 11시30분 금성방직 공장 회의실에서 금성노조 임원개선이 대의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는데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최복희
부위원 - 국동원
부위원장 - 신석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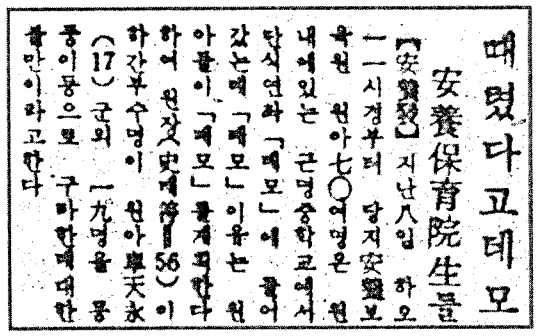
▶ 1960.6.25(4)2



군인이 차비관계로 여차장을 구타

(남면) 지난 이십일 20사단 60연대 근무중대 소속 ■남득상사는 양주군 남면에서 파주군 ■선까지 가는 도중 타고있던 「뻐스」차장 영종여객 9백9십 호 이영자(29)양과 차비 관계로 옥신각신하다 전기 이양을 「뻐스」에서 끌어내려 산모퉁이에 데리고 가서 실신 상태에 이르도록 구타한 후 도주하였다한다. 그런데 전기 이양은 마침 지나가던 같은 부대 소속 공병대 차에 의하여 구출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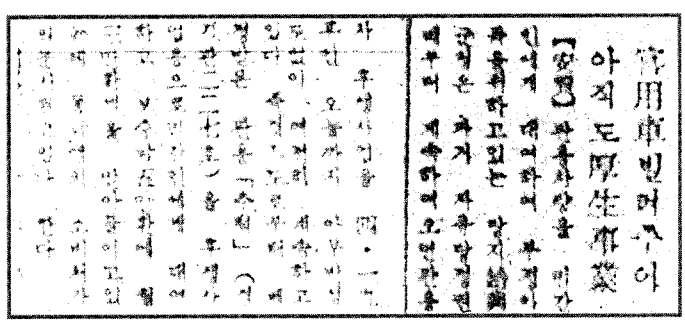
▶ 1960.8.11(3)12



안양보육원생들 때렸다고 데모

(안양) 지난 8일 하오 11시경부터 당시 안양보육원 원아 70여명은 원내에 있는 근명중학교에서 단식연좌「데모」에 들어갔는데 「데모」 이유는 원아들이 「데모」를 계획한다하여 원장 사태선(56)이하 간부 수명이 원아 차천영(17)군외 19명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한데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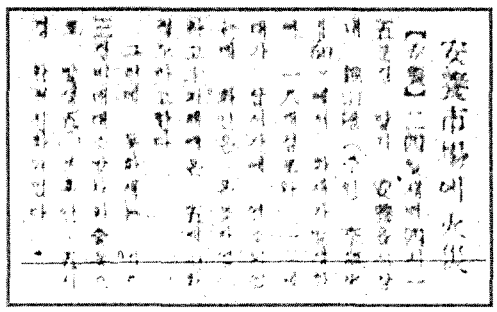
▶ 1960.9.6(4)1



관용차 빌려주어 아직도 후생사업

(안양) 관용차량을 빌려주어 민간인에게 대여하여 부정이득을 취하고있는 당지 시흥군청은 과거 자유당 정권 때부터 계속하여 오던 관용차 후생사업을 4.19후인 오늘까지 아무반성도 없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즉 경기도로부터 배정 받은 관용「추럭」(경기관 227호)을 후생사업용으로 민간인에게 대여하고 보증금 5만환 에 월 3만환 씩 을 받아들이고있는데 동금액의 소비처가 의문시되고 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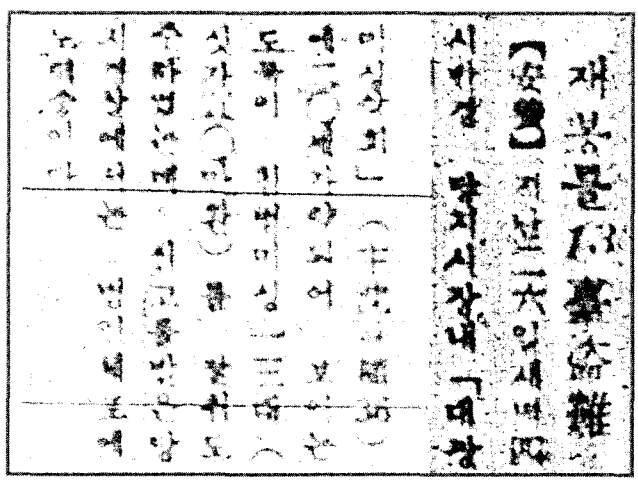
▶ 1960.9.27(4)1



안양시장에 화재

(안양) 24일 새벽 4시 15분 경 당시 안양읍 시장 내 금산원(주인 이학래 -60)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8개 점포와 12세대가 삽식간에 연소되었는데 화인은 온돌 과열이라고 -피해액은 5백만 환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동 화재는 ■ 83경비대대 소방사의 출동으로 발생 50분 후인 5시경 완전 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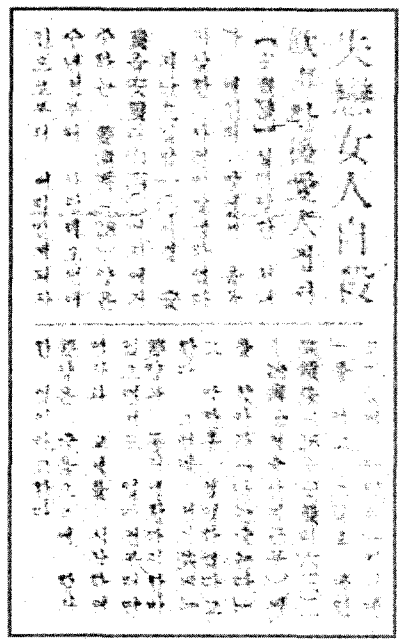
▶ 1960.10.28(4)2



재봉틀 13대 도난

(안양) 지난 26일 새벽 4시30분 경에 당지 시장 내 「대광미싱상회」(주인 심두수36) 에 20세 가량 되어 보이는 도둑이 침범 미싱 13대(싯가50만환)를 탈취 도주하였는데 신고를 받은 당지 경찰에서는 범인 체포에 노력중이다.

▶ 1961.5.1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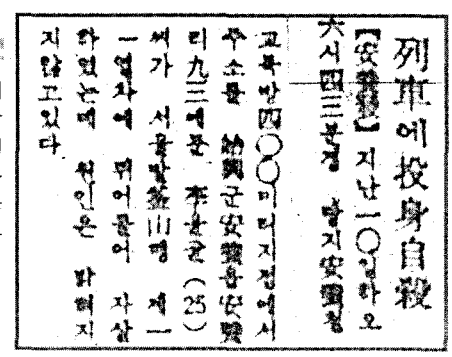
음독한 후 애인집서 실연 여인 자살

(안양) 실연 당한 처녀가 애인의 방에서 음독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9일밤 19시경 안양읍 안양리 산 40번지에 거주하는 강■수(28)양은 수년 전부터 사랑해오던 애인으로부터 버림받게되자 고민 끝에 다량의 「키■■」를 먹고 그 길로 애인 홍종수(26안양리 632=시흥군청 축산계 근무)씨를 찾아가 「나는 죽는다」고 말한 후 절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기홍씨는 강양과 동거생활까지 한바있으면서도 얼마 전부터 안 여자와 교재를 시작하여 강양은 죽음으로서 항거한 것이라고 한다.

▶ 1961.8.11(3)3

열차에 투신자살

(안양) 지난 10일 하오 6시 43분 경 당시 안양철교 북방 4백 미터 지점에서 주소를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93에 둔 이윤균(25)씨가 서울발 부산행 제 11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는데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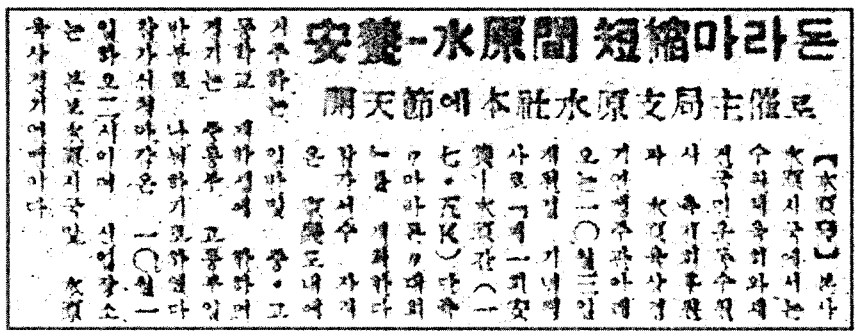


列車에投身自殺

【安養】지난一〇일하오
大시四三분경 발지安養철

교북방四〇〇미터지점에서
주소를 始興군安養읍安養
리九三에둔 李윤균(25)
씨가 서울발釜山행 제一
一열차에 뛰어들어 자살
하였는데 원인은 밝혀지
지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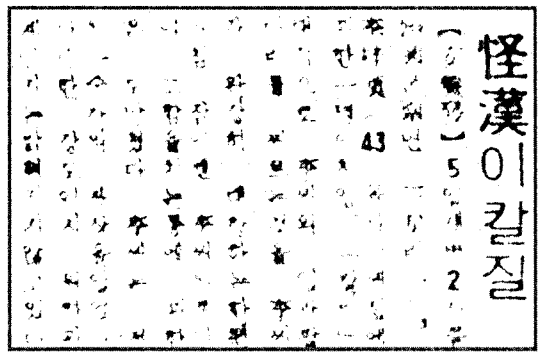
▶ 1961.9.22(2)9



개천절에 본사수원지국주최로 안양-수원간 단축마라톤

(수원) 본사 수원지국에서는 수원체육회와 전국민운동수원시 촉진회 후원과 수원육상경기연맹 주관아래 오는 10월3일 개천절 기념행사로 (제1회 안양-수원간) 단축마라톤대회(17.5K)를 개최한다. 참가선수 자격은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일반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하며 경기는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눠하기로 하였다. 참가신청마감은 10월1일 하오2시이며 신청장소는 본보 수원지국 및 수원육상경기연맹이다.

▶ 1962.9.6(7)11



괴한이 칼질

(안양) 5일 새벽 2시쯤 시흥군 남면 삼성리 이계한(43=목사) 씨 집에 괴한 1명이 침입, 「칼빈」대검으로 이씨의 입과 팔 다리를 찌르는 것을 이씨가 완강히 대항하는 한편 마침 잠이 깬 이씨의 부인이 고함을 치는 통에 괴한은 도망쳤다. 이씨는 전치 1주간의 자상을 입었다. 단순한 강도인지 원한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 1962.9.25

國有林貸借에 말썽

管理人 밀치고 緣故없는 郡守丈人에

情實로 무너진 「10年功든塔」

국유림 임대차에 말썽
관리인 밀치고 연고 없는 군수장인에

정실로 무너진 10년 공든탑

(안양) 현직군수가 관내 1만5천 여평의 국유 임야를 별다른 이유 없이 10여 년이나 공들여 가꿔온 관리인으로부터 빼앗아 관내에 주소도 없는 그의 장인에게 임대차 해준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간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며 전 관리인이 「억울한 사정을 시정해달라」고 관계요로에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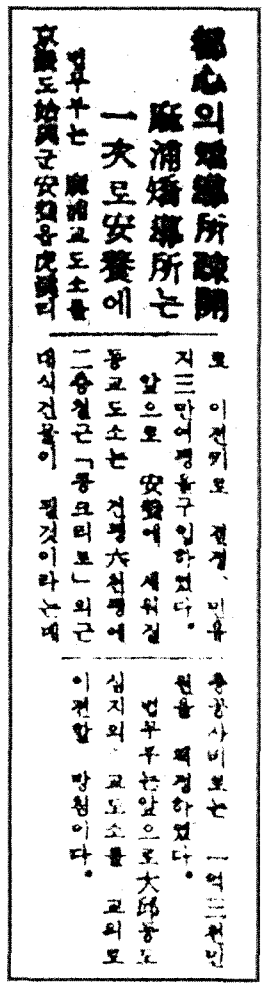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산35번지 소재 국유 임야 1만5천여 평은 그간 10여년간 호계리거주 이원순(64)씨에 의하여 알뜰히 가꾸어져 왔는데 지난7월 21일 돌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관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이 관내에 살지도 않는 현 시흥군수 안제휘씨의 장인 백웅제(63=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90-12)씨에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말썽이 빚어지게 되었다. 시흥군 당국은 「관리인 이씨가 전기임야를 소홀히 관리했고, 정부에서 수차나 임대차계약신청을 촉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는 이유를 들고있으나 관리인 이원순씨는「58연도에 임대차계약신청을 내었으나 당국에 의하여 묵살된 사실」을 들고 그 후에도 줄곧 「임대차계약을 받을 기회를 엿봐왔었고 또 지난 60년 4월에는 동임야가 자기명의로 목야지 조성모범전시프로 허가까지 나와 그간 허다한 인건비와 노력까지 들여가며 목야지 조성에 애써온 사실을 듣고, 「이번 군 당국의 처사는 순전히 정실에 치우친 위법적인 처사」라고 호소하고 있다. ㅁ안군수의 장인 백씨는 자기가 안양에 전혀 연고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5월쯤 사위 (안군수)가 서울에 왔기에 관내에 ㅁ산과 과수원을 할만한 땅을 불하해 주도록 부탁. 인감과 인장을 사위에게 맡겼더니 작년에야 신청허가가 나왔다고 알렸기에 그곳에 목장을 해볼 작정으로 나와있다고 그 경위를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하여 군당국 실무자 및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림계장담 - 서류가 내무과에서 내려왔기에 한 것 뿐 그 후는 모르겠다.

■산업과장담 - 정부에서 임차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으며 산을 관리한 흔적이 없었다.

■■리 주민 김 모씨 - 오래전부터 이씨가 해마다 나무도 심고 비료도 주고 잘 관리해왔으며, 2년 전에는 우리도 함께 산에 풀을 심고, 비료도 주곤 했다.

▶ 1962.11.1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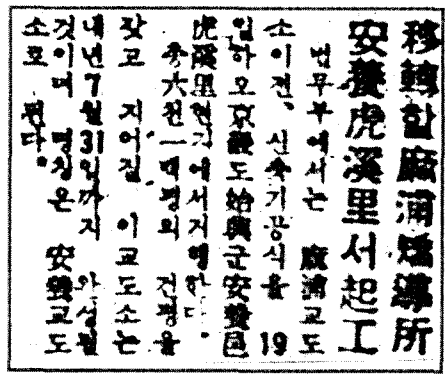
都心의 矯導所 移轉
麻浦矯導所는
一次로 安養에
법무부는 麻浦교도소를
京畿도 始興군 安養읍 虎溪리

로 이전키로 결정、민유
지三만여평을구입하였다。
앞으로 安養에 세워질
동교도소는 건평六천평에
二층철근「콩크리트」의근
대식건물이 될것이라는데
총공사비로는 一억三천만
원을 책정하였다。
법무부는앞으로大邱등도
심지의 교도소를 교외로
이전할 방침이다。

도심의 교도소 소개 마포교도소는 1차로 안양에

법무부는 마포교도소를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로 이전키로 결정 민유지 3만여 평을 구입하였다. 앞으로 안양에 세워질 동교도소는 건평6천 평에 2층 철근「콩크리트」의 근대식 건물이 될 것이라는데 총 공사비로는 1억 3천 만원을 책정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구 등 도심지의 교도소를 교외로 이전할 방침이다.

▶ 1962.11.19(7)10



移轉할 麻浦矯導所
安養虎溪里서起工
법무부에서는 麻浦교도
소이전、신축기공식을 19
일하오 京畿도始興군安養邑
虎溪里현지에서지예한다。
총六천一백평의 건평을
갖고 지어질 이교도소는
내년7월31일까지 완성될
것이며 명칭은 安養교도
소로 된다。

이전할 마포교도소 안양 호계리서 기공

법무부에서는 마포교도서 이전, 신축기공식을 19일 하오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현지에서 거행한다. 총6천1백 평의 건평은 갖고 지어질 이 교도소는 내년 7월31까지 완성 될 것이며 명칭은 안양교도소로 된다.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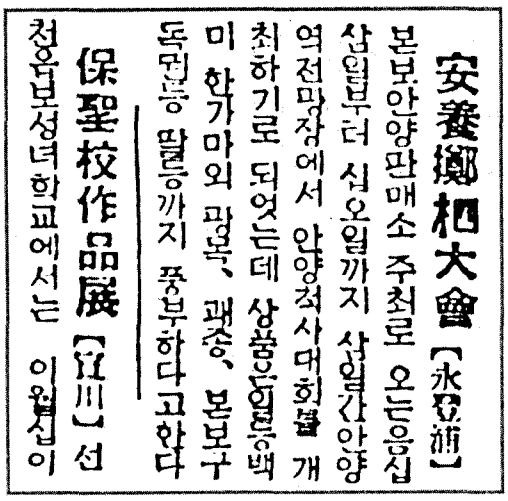
歡呼聲에 싸인 安養
樂園이룬 栗林一帶

오든비도 굿치고들엇이 울어진 안양에서
자미잇든 여흥으로 가는 산곡타고 유쾌
盛況으로 마친 二回 女子拾栗大會

〈가정부인〉歡呼聲에 싸인 安養

낙원이룬 栗林一帶 특집, (제2회 전국 부녀자 밤 줏기 대회)

▶ 1935.2.14 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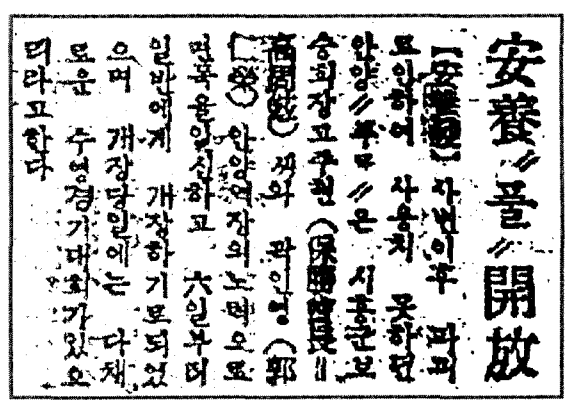
安養擲梠大會

本報안양販賣所主催로 陰十三日부터 三日間

安養擲梠大會【永登浦】본보안양판매소 주최로 오는음십삼일부터 십오일까지 삼일간안양역전마장에서 안양적사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엇는데 상품으로는백미 한가마와 광목、괘종、본보구독권등 말등까지 풍부하다고한다

保聖校作品展【江川】선천읍보성녀학교에서는 이월십이

▶ 1952.7.8 조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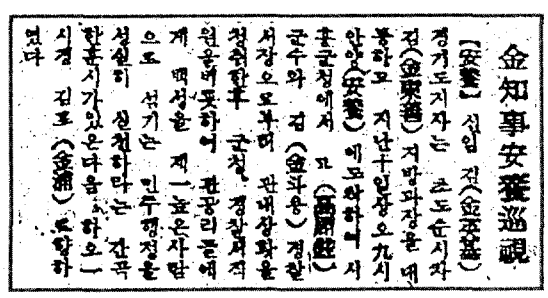


安養"풀"開放

【安養通】자별이후 파괴되야하여 사용치 못하던 안양"푸ㄹ"은 시공군보 승회장고주원(保勝會長)씨와 곽인영(郭[illegible])씨와 안양역장의노력으로 역북을일신하고 六일부터 일반에게 개장하기로되었으며 개장당일에는 다채로운 수영경기대회가있오리라고한다

안양 "풀" 개방

▶ 1952.11.15 조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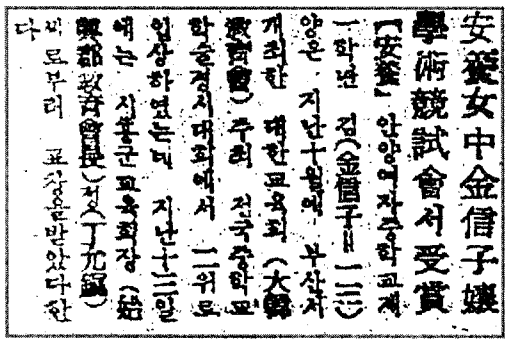


金知事安養巡視

【安養】십일 김(金英基)경기도지사는 조도순시차 김(金東雄)저밤과장을 대동하고 지난十일광오九시 안양(安養)에도착하여 시초군청에서 고(高岡錠)군수와 김(金斗容)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상황을 청취한후 군청、경찰서직원을비롯하여 관공리들에게 백성을 제一로은사람으로 선기는 민주행정을 성실히 실천하라는 간곡한훈시가있은다음 하오一시경 김도(金道)지사일행은 도착하였다

金英基지사 안양 순시

▶ 1952.12.18 조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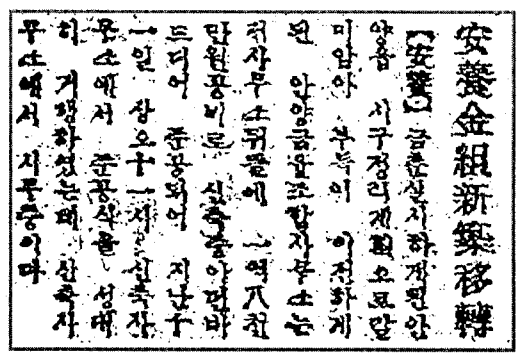
安養女中金信子孃
學術競試會서受賞

【安養】안양여자중학교제二학년 김(金信子)양은 지난十월에 부산서 개최한 대한교육회(大韓敎育會) 주최 전국중학교학술경시대회에서 二위로 입상하였는데 지난十二일에는 시본군 교육회장(始興郡敎育會長)으로부터 표창을받았다한다

안양여중 金信子양

학술경시회서 수상

▶ 1953.1.17 조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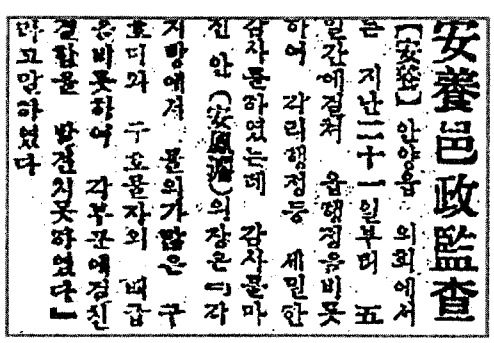


安養金組新築移轉

【安養】금융조합지하개인안양읍 시구정리개축으로말미암아 부득이 이전하게된 안양금융조합자부소는 지상부소뒤뜰에 二억八천만원공비로 신축중이던바 드디어 준공되어 지난十一일 상오十一시부터 신축장부소에서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신축자

안양 金組신축 이전

▶ 1953.5.1 조간 2(9)



安養邑政監查

【安養】안양읍 의회에서는 지난二十一일부터 五일간에걸쳐 읍행정을비롯하여 각리행정등 세밀한 감사를하였는데 감사를마친 안 (安風洞)의장은 각 지방에걸쳐 분의가많은 구호대와 구호물자외 배급을비롯하여 각부곤에걸친 결함을 발견시켰다고말하였다

안양읍 政監查

▶ 1953.5.8 조간 2(5)

安養射擊大會

【安養】지난四일 안양경찰서에서는 관민유지 三백여명이 참집한가운데 동사격장에서 성대한사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성적은 다음과같다

▲警察官

一等 洪元燁 (一四点)
二等 李相洛 (一三点)
三等 郭文鏡 (一二点)

▲一般

一等 李源甫 (一三点)
二等 金大根 (一二点)
三等 文昌永 (一一点)

안양사격대회

▶ 1953.5.12 조간 2(1)

地方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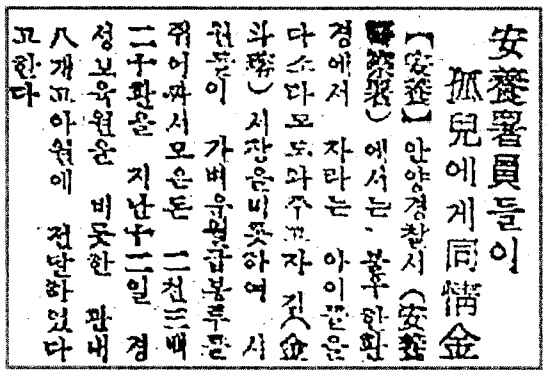
始興出身戰歿 軍警合同慰靈

安養에서殿修

시흥출신전몰 군경합동위령

안양에서 엄수

▶ 1953.5.18 조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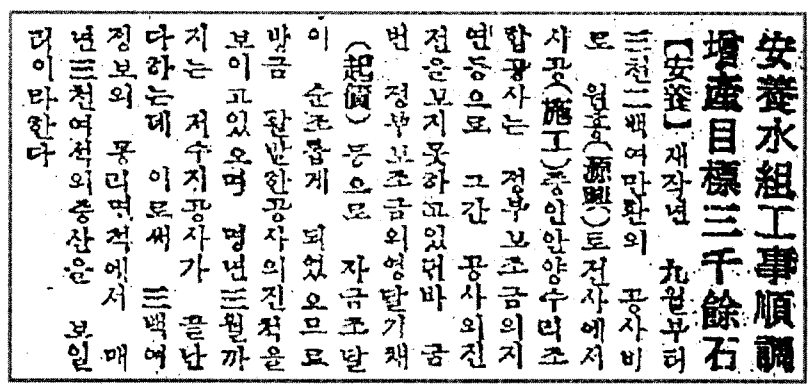


安養署員들이 孤兒에게 同情金

【安養】 안양경찰서 (安養警察署) 에서는 불우한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다소나마도와주고자 김(金斗璨) 서장을비롯하여 서원들이 가벼운월급봉투를 쥐어짜서모은돈 二천三백二十환을 지난十二일 경성보육원을 비롯한 관내 八개고아원에 전달하였다고한다

안양署員들이 고아에게 동정금

▶ 1953.5.22 조간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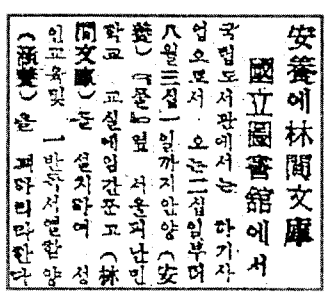
安養水組工事順調
增產目標三千餘石

【安養】 재작년 九월부터 三천二백여만환의 공사비로 원홍(源興)토건사에서 시공(施工)중인안양수리조합공사는 정부보조금의지연등으로 그간 공사의진전을보지못하고있던바 금번 정부보조금의영달기채(起債) 등으로 자금조달이 순조롭게 되었으므로 방금 완만한공사의진척을보이고있으며 명년三월까지는 저수지공사가 끝난다하는데 이로써 三백여정보의 농림면적에서 매년三천여석의증산을 보일터이라한다

안양수조공사 순조

증산목표 3천여석

▶ 1953.7.26



安養에林間文庫

國立圖書館에서

국립도서관에서는 하기사업으로서 오는二십일부터 八월三십一일까지안양 (安養) 『문고』를 서울피난민학교 교실에임간문고 (林間文庫) 를 설치하여 성인교육및 一반독서열함양 (涵養) 을 꾀하리라한다

안양에 임간학교

▶ 1953.12.20

中學入學試驗 하고 안하고냐

當局方針을 變更?

入學選拔要領을 만든다고

국민학교와 중학교간의 균형적인 점령지이므로 앞으로 있는 국민학교아동의합리적교사재배치하여 인가가 매우부족을뿐그런데인데 간편경하여 조만간에 하게 제도운 구상을

과거의 국가고시제도의 장점을 반영한다 입학고사제도는 지난 오년간의 오로 전국국민학교 육학년생에게 실시함으로써 대년들의 중학교입학시험에 대처하느냐 않느냐하는 양론으로 갈리어 마침내 중학교장측 전의서와 전우하여 『입학운동을 제거하고 아동을 육시험지옥으로부터 구출하기위하여』 중제도를 철폐 한다는 국민학교장 학부형측의 건의서가 문교당국에 제출되어주목을 끌고 있던 것이다 이에 문교당국에서는 그 방안 앞으로의 건의서를 검토하는한편 수차에걸친 교장회의 를 열고 처리할 수있을는 지 검(金) 초등교육국장은 난五일 실시한 합격고저는 우선 『시험적』으로 六학년생에게만 실시한것이며 지리적 그밖의 여러가지 조건으로 보아 반드시 중학교입학시험에 대처하기 위한것은 아니라고하였다 그리고 제도운학교입학 지원자선발요령은 국가고시제도에 지장할것인지도 는 국민대차적인 찬부양론은 점총하여 만문것인가는 미정이라고 말하였는데 여하튼 국가고제시도 한 장점자로 삼기위하여 존속하여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양측의심각한 이해 차면한문교부측의태도가 명부족하여 이미 결정방학기에는 여간 시간적 조건으로 보아 대년도중학입학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鉉) 서울 입행은 문교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곤

교부당국에서 지난五일 시행한 합격고사 결과문장 학교의 정원 유인한자로 인것은 중앙하여서 이곳 절대찬성한다는 건의지 저촉하였다한다

五일오전 전국각기시험장에 나타날 대까지 전력 학부사람과 접촉단속하게 되어있다

원은 모 장의학생일에 한하여 六학년 각도에 지시 하였다한다

安養敎育界代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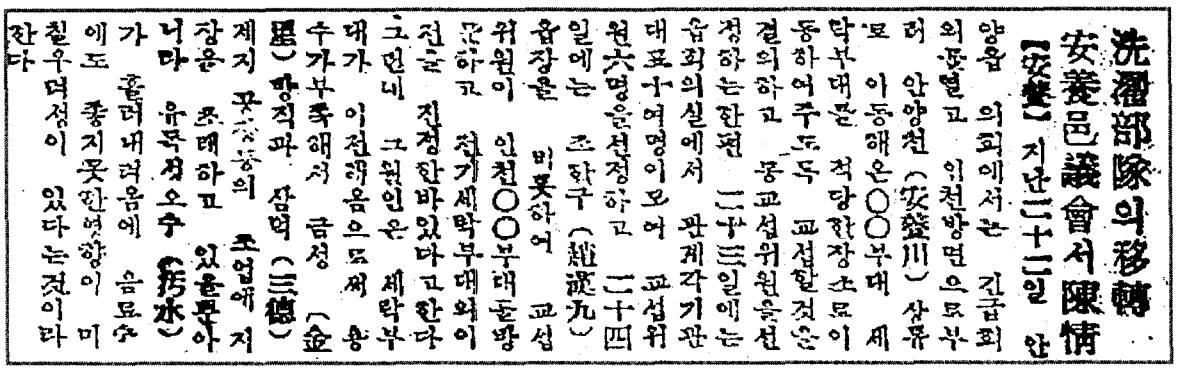
再試驗反對建議

十八일 안양(安養)중에 학미학교대표정항시 (鄭恒時) 안양교사진의대표 권동석(權東錫) 대한부형회대표 이형대씨 (李炯來) 등 구교육위원회에 제출한 (石川)

안양교육계 대표

학력고사 반대건의

▶ 195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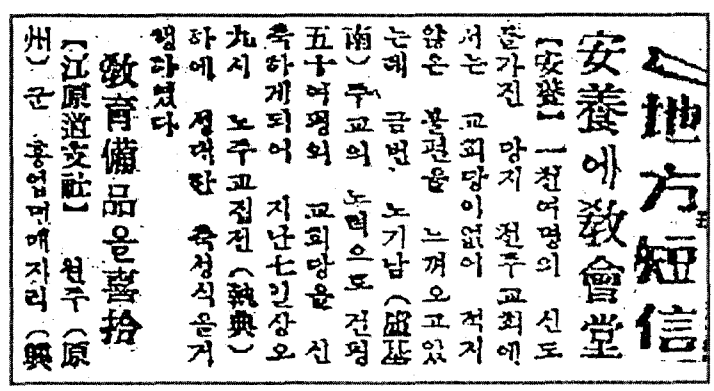


洗濯部隊의移轉
安養邑議會서陳情
【安養】지난二十二일 안양읍 의회에서는 긴급회의를열고 인천방면으로부터 안양천(安養川) 상류로 이동해온○○부대 세탁부대를 적당한장소로이동하여주도록 교섭할것을 결의하고 몽교섭위원을선정하는한편 二十三일에는 읍회의실에서 관계각기관대표十여명이모여 교섭위원六명을선정하고 二十四일에는 조하구(趙漢九) 읍장을 비롯하여 교섭위원이 인천○○부대를방문하고 세탁부대외이전을 진정한바있다고한다 그런데 그원인은 세탁부대가 이전래음으로써 용수가부족해서 금성(金星)방직과 삼덕(三德)제지 공장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아니라 유독성오수(汚水)가 흘러내려옴에 음료수에도 좋지못한영향이 미칠우려성이 있다는것이라한다

세탁부대 이전

안양읍의회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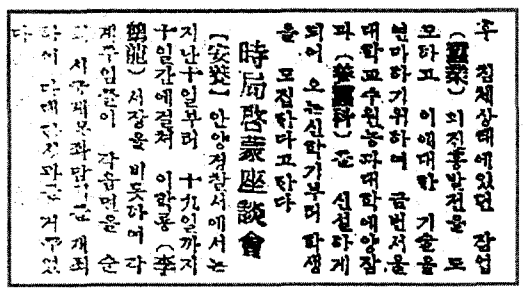
▶ 1954.2.19 조간 2(2)



地方短信
安養에敎會堂
【安養】一천여명의 신도를가진 망지 전주교회에서는 교회당이없이 적지않은 불편을 느껴오고있는데 금번 노기남(盧基南)주교의 노력으로 건평五十여평의 교회당을 신축하게되어 지난七일상오九시 노주교집전(執典)하에 성대한 축성식을거행하였다
敎育備品을喜捨
【江原道支社】 원주(原州)군 흥업면에서는

안양에 교회당

▶ 1954.03.22 조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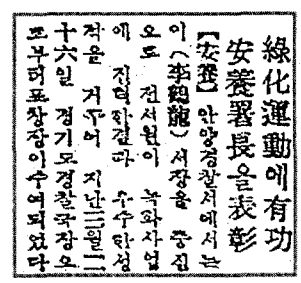
후 전체상태에있던 잡업
(雜業) 의진흥발전을 도
모하고 이에대한 기술을
널리하기위하여 금번서울
대학교수원등과대학에양잠
과 (養蠶科) 를 신설하게
되어 오는신학기부터 학생
을 모집한다고 한다

時局啓蒙座談會

【安養】 안양경찰서에서는
지난十일부터 十七일까지
十일간에걸쳐 이학동 (李
鶴龍) 서장을 비롯하여 각
계주임급이 각읍면을 순
회 시국계몽좌담회를 개최
하였다

안양경찰서 시국계몽 좌담회

▶ 1954.4.4 조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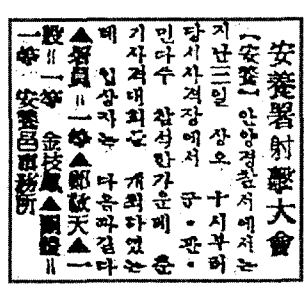


綠化運動에有功
安養署長을表彰

【安養】 안양경찰서에서는
이 (李鶴龍) 서장을 중심
으로 전서원이 녹화사업
에 진력한결과 수수한성
적을 거두어 지난三월二
十六일 경기도경찰국장으
로부터표창장이수여되었다

녹화운동에 유공 안양서장 표창

▶ 1954.4.9 조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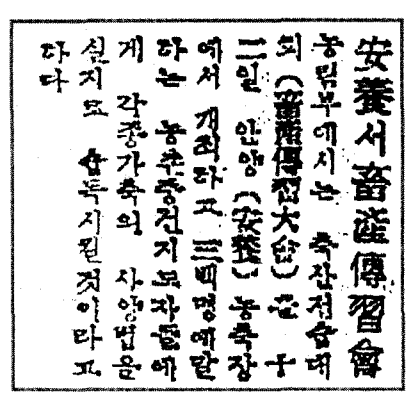


安養署射擊大會

【安養】 안양경찰서에서는
지난三일 상오 十시부터
당서사격장에서 군·관·
민다수 참석한가운데 춘
기사격대회를 개최하였는
데 입상자는 다음과같다
▲署員의部▲一等 金技鳳▲二等
一等 安養昌直務所

안양서 사격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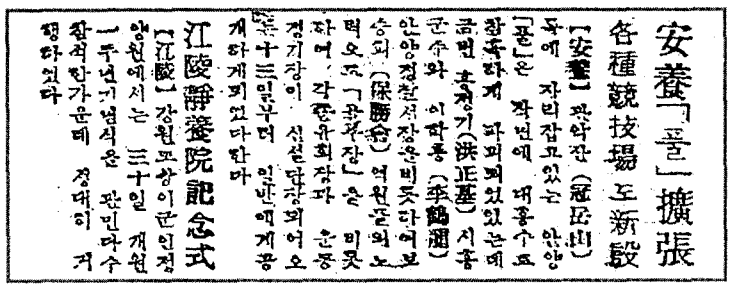
▶ 1954.5.13 조간 2(7)



安養서畜産傳習會
농림부에서는 축산전습대
회 (畜産傳習大會) 를 十
二일 안양 (安養) 농촌장
에서 개최하고 三백명예달
하는 농촌중견지도자들에
게 각종가축의 사양법을
실지로 습득시킬것이라고
한다

안양서 축산전습회

▶ 1954.6.6 조간 2(2)



安養「풀」擴張

各種競技場도新設

【安養】관악산(冠岳山)록에 자리잡고있는 안양「풀」은 작년에 대풍수로 활약하게 파괴되었었는데 금번 홍정기(洪正基) 시흠군수와 이학룡(李鶴龍) 안양경찰서장을비롯하여보승회(保勝會) 역원들의노력으로 「골프장」을 비롯하여 각종유희장과 운동경기장이 신설확장되어오는 十三일부터 일반에게공개하게되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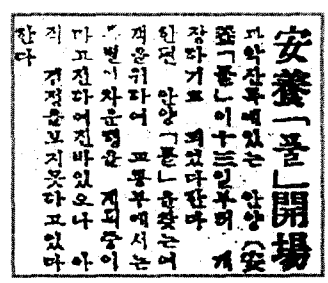
江陵靜養院記念式

【江陵】강원도상이군인정양원에서는 三十일 개원 一주년기념식을 관민다수참석한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다

안양「풀」확장

각종경기장도 신설

▶ 1954.6.13 조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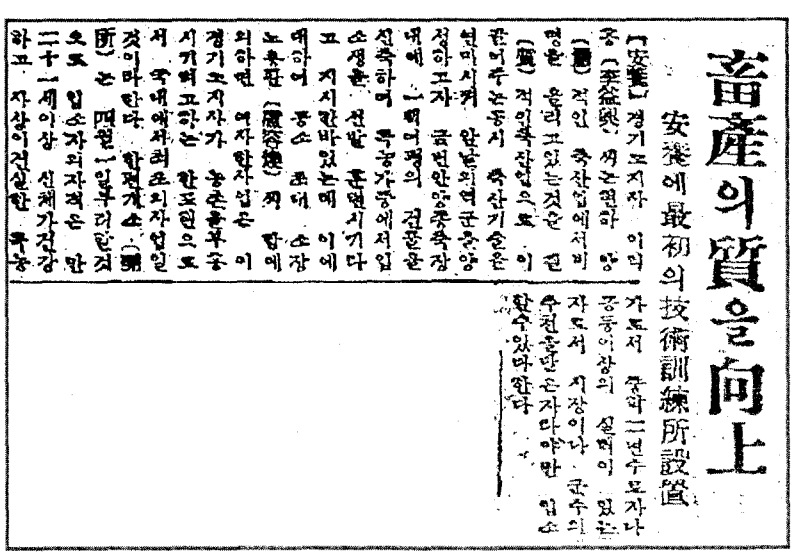


安養「풀」開場

관악산록에있는 안양 〈安養「풀」이十三일부터 개장하기로 되었다한다 한편 안양「풀」은골프는여름철이 제일시원하여 교통부에서는 더욱더 시설을 확장할것이라고 있다고

안양「풀」개장

▶ 1955.3.17 조간 4(5)



畜産의質을向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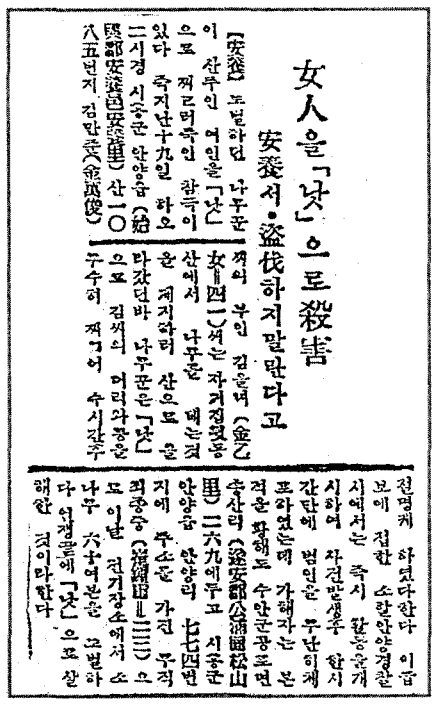
安養에最初의技術訓練所設置

【安養】경기도지사 이력종 〔李益燮〕씨는 농업은 축산업에서비 (農) 적인 축산업에서는 관 영할 운영하고있는것은 관 (官) 적인목장업으로 이 관이두는동시 축산기술은 연마시켜 앞날의영군운양 정하고자 금번안양종축장 내에 一백여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목공가동에서입 소생을 선발 훈련시키기다 로 지시한바있는데 이에 대하여 농소 로대 소장 노홍팔 〔盧洪燁〕씨 담에 의하면 여자학자입은 이 경기도지사가 농촌을부흥 시키려고하는 한도원으로 서 국내에서처음으로자업일 것이라한다. 학정계소 〔講所〕는 四월一일부터한것 으로 입소자의자격은 만 二十一세이상 신체가건강 하고 자상이건실한 농동

축산의 질을 향상

안양에 최초의 기술훈련소 설치

▶ 1955.5.22 조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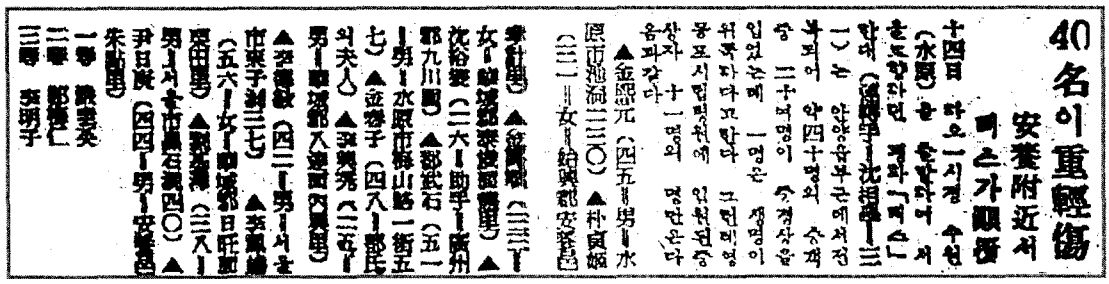


女人을「낫」으로殺害

安養서·盜伐하지말란다고

【安養】 도벌하던 나무꾼 김씨의 부인 김을녀(金乙女)(四一)씨는 자기집뒷동산에서 나무를 베는것을 이 산주인 여인을「낫」으로 찌르러죽인 참극이 있다 즉지난十九일 하오 二시경 시흥군 안양읍(安養邑安養里) 산一〇八五번지 김만준(金萬俊)

▶ 1955.10.15 조간 3(4)



40名이 重輕傷

安養附近서 버스가 顚覆

十四日 하오 一시경 수원(水原)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경화「버스」한대(京畿四부一沈一三一)는 안양읍부근에서 전복되어 약四十명의 승객중 二十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一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통보시 입원된 중상자 十一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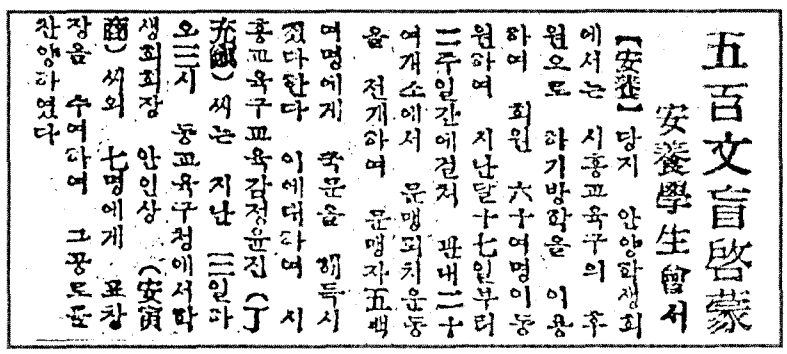
▲金熙元(四五)男一水原市池洞二三〇 ▲朴貞姬(三二)女一始興郡安養邑

(이하 판독 어려움)

안양부근서 버스가 전복.

40명이 중경상

▶ 1955.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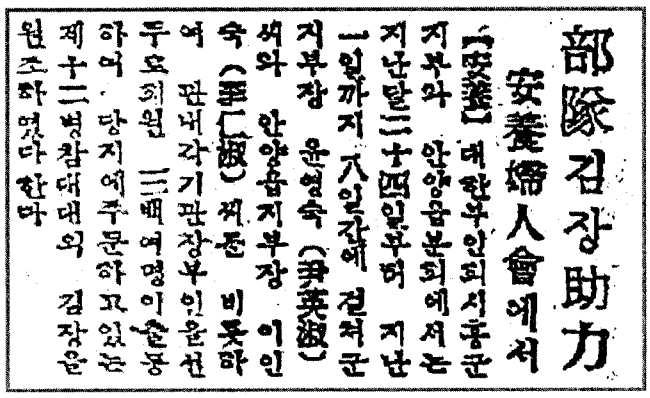
五百文盲啓蒙

安養學生會서

【安養】당지 안양학생회에서는 시흥교육구의 후원으로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회원 六十여명이 동원하여 지난달十七일부터 二주일간에걸쳐 관내二十여개소에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여 문맹자五백여명에게 국문을 해득시켰다한다 이에대하여 시흥교육구교육감정윤진(丁允鎭)씨는 지난 二일 오二시 동교육구청에서학생회회장 안인상(安寅商)씨외 七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그공로를 찬양하였다

안양학생회 500문맹 계몽

▶ 1955.12.5 조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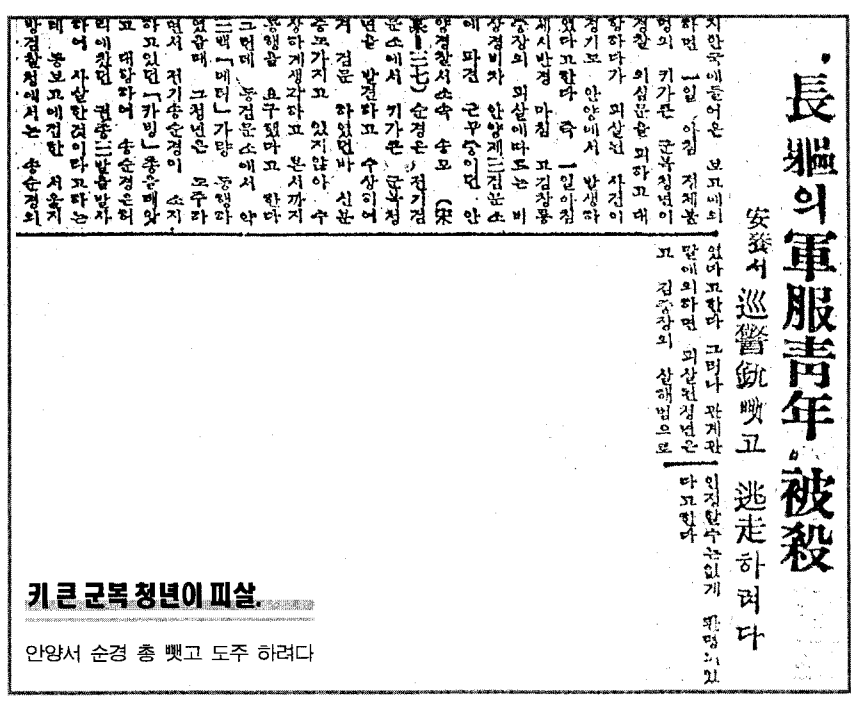
部隊김장助力

安養婦人會에서

【安養】대한부인회시흥군지부와 안양읍분회에서는 지난달二十四일부터 지난一일까지 八일간에 걸쳐군지부장 윤영숙(尹英淑)씨와 안양읍지부장 이인숙(李仁淑)씨 등 비롯하여 관내각기관장부인을선두로회원 三백여명이출동하여 당지에주둔하고있는제十二병참대대의 김장을원조하였다한다

안양부인회에서 부대김장 조력

▶ 1956.2.3 조간 3(4)



長驅의軍服靑年 被殺

安養서 巡警銃빼고 逃走하려다

키큰군복청년이 피살.

안양서 순경 총 뺏고 도주 하려다

▶ 1956.2.6 조간 3(6)

巡警拘束은浪說

治安局長 安養脫走兵射殺事件에談

五일 김치안국장은 지난 一일 안양가두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치않고 대항한자는 사살한것 이라고 말하면서 가해자인 송순경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상 반되며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근무중 일것이다고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인 김중대(金鍾大 二二九) 는 육군형무소 각업장에서탈출한 탈주병으로서 고김상장의 저격사건 자체도 알지못하고무심이 남쪽으로가던길이 아닌가 추측된다는것이다

순경 구속은낭설.

치안국장, 안양 탈주병 사살사건에 답

▶ 1956.4.21 조간 2(7)

衝突된버스다시轉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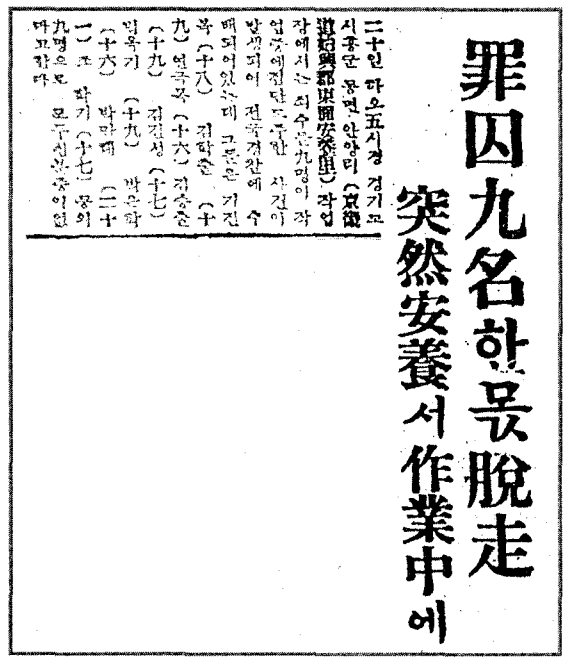
安養南方에서九名이重輕傷

【京畿支社】二十일 상오 十一시二十분경 안양(安養) 남방약三키로 지점 육교(陸橋) 근방에서는수원발 서울행대동(大東) 「버스」가 높이약二「메터」되는 언덕에서 추락 전복되어 九명의 중경상자를낸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동서각에 마침수원방면으로달리던 군용「스티코타」와충돌되어 운전수가 부상을 입어 혼수상태가되자 차체는 차체대로 굴러떨어져 진것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사망자는없었으며 부상자는 수원모병원에이송응급가료중이라고 한다

충돌된 버스 다시 전락

안양 남방에서 9명이 중경상

▶ 1956.04.23 석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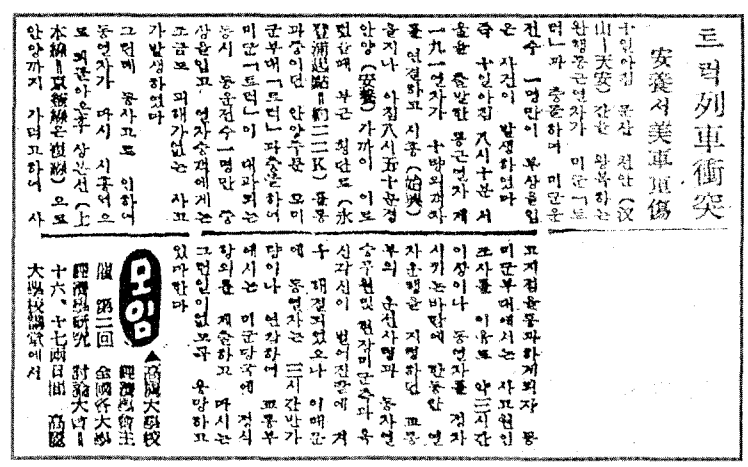
罪囚九名한명脫走
突然安養서作業中에

二十일 하오五시경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京畿道始興郡東面安養里) 작업장에서는 죄수九명이 작업중에정당도주한 사건이 발생되어 전국경찰에 수배되어있는데 그명은 기진복(十八) 김학순(十九) 연국주(十六) 김승순(十七) 김경성(十七) 김옥기(十九) 박라례(十六) 박기(十七) 등의 九명으로 모두신안중이라고한다

죄수 9명 한명 탈주

돌연 안양서 작업중에

▶ 1956.05.11 조간 2(9)



三列車衝突
安養서美車頂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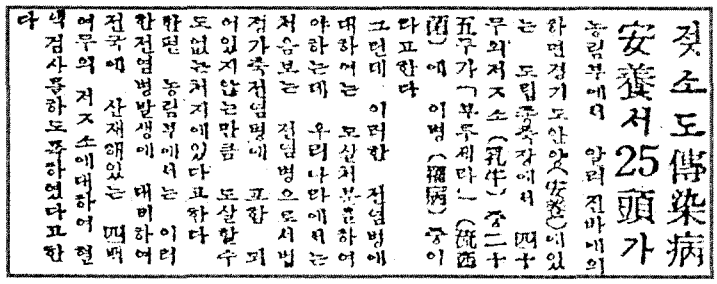
十일아침 부산 진산(汉山一天安) 간 완행혼합열차가 미군그레터니과 충돌하여 미군운전수 一명만이 부상을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十일아침 八시十분 서울을 출발한 부산행 제一九一열차가 수방의과하를 연결하고 시흥(始興) 을지나 아침八시五十분경 안양(安養) 가까이 이르렀을때 부근 철교(永登浦起點에서二二K) 를통과하던 안양주둔 모미군부대「그레터니」차량을 충돌하여 미군「그레터니」이 여과되는 동시 동운전수一명만 중상을입고 열차승객에게는 그리고로 피해가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동사고로 인하여 동열차가 마시 시흥역으로 되돌아오는 상선선(上本線에서의 작업) 으로 안양까지 가더고하여 사

트럭 열차 충돌

안양서 미군 중상

▶ 1956.09.02 석간 3(2)



젓소도 傳染病
安養서 25頭가

농림부에서 알려진바에의하면경기도안양(安養)에있는 도립종축장에서 四十두의젖소(乳牛)중二十五두가「부루세라」(流西病)에 이병(罹病)중이라고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에 대하여는 도심처분하여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보는 전염병으로서법적가축전염병에 포함할수 없어있지않는만큼 도살할수도없는처지에있다고한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이러한전염병발생에 대비하여 전국에 산재해있는 四백여두의 젖소에대하여 혈액검사를하도록하였다고한다

젓소도 전염병

안양서 25마리가

▶ 1956.10.16 석간 4(2)

故 金東根氏
記念碑除幕
安養幽宅앞에

지난六日 故金東根氏의 四十九日齋日을 맞이하여周邊의 親知文化人을 爲始한 各界各層의 人士 約五十名이 參席한가운데 同日下午三時 故人의 幽宅인 安養에서 記念碑의除幕式이 盛대裡行되었다 이記念碑는 氏의 生存時 文化事業에寄與한 많은 功績을 길이아끼고자 文化團體와 親知들도새 모아진 義金으로建立된것이다

이날 除幕式은 來賓代表의 金話氏의 「대루」開切로 始作되어 記念碑建立委員代表인 宋志英氏의 經過報告에이어서 文總에서의 花環證呈등으로 擧行되었다 (사진은 除幕式光景)

故 金東根씨

기념비 제막. 안양 幽宅 앞에서

▶ 1956.10.18 조간 2(1)

安養撮影所
定礎式盛大

안양 촬영소 정초식 성대

▶ 1956.10.18 석간 3(9)

安養工場視察
李大統領

안양공장 시찰

李대통령

▶ 1956.10.20 조간 2(7)

安養水堤竣工
七千餘石增收

안양 水提 준공

7천여석 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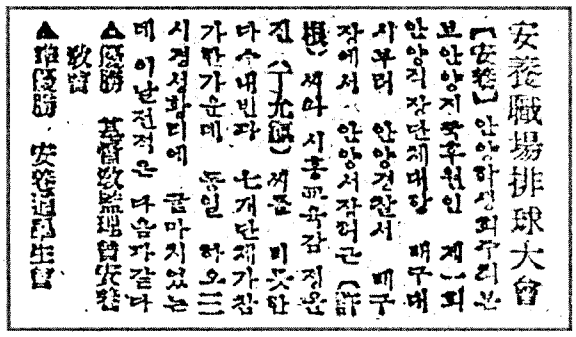
禮拜妨害罪適用

安養、舍牧師와長老起訴

한동안 종교인들의 이권과 파벌싸움이 심하여 이에대한여론이 비등하고있는데 이번에는 같은교회내에 두파벌이생겨 이권아닌교회내의투쟁 즉신축한교회건물을 중심으로 두파사이에 재탈전이벌어진끝에 마침내는 기소되어 사직의신세로지게된사건이있다

즉 서울지방검찰청 문인구(文仁龜) 검사는 二十二일하오 대한예수교장로교회(長老敎會) 안양(安養) 교회목사 노기현(盧基鉉) 씨와 동교회장로이며 방대(前任)(조鎭來) 씨를 예배방해(前任第一五八條) 라는 처음보는 혐의로 목사로들구속 기소하였는데 기소장에나타난 혐의사실은 대략다음과같다 단기四二八七년 七월경 두파별로갈라지기시작되어 일반신도들까지도 두파로갈라졌는데 八八년 二월경 두파의 신도들로부터 거출된기금으로 신축한 교회당 사용문제로 재판이 계속되어 오던중 지난 十九일 오전十시 안양읍 교회당에서 예배를 보고있는 노목사에게 피고인 방대씨가 『너는 교회당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욕설을 퍼붓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노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보고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방대씨는

▶ 1956.11.18 석간 3(5)



安養職場排球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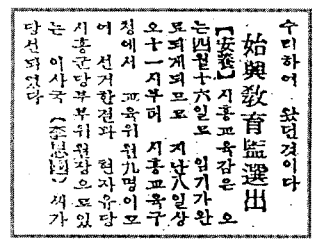
【安養】안양하상회주최로 본안양지부후원인 제一회 안양직장단체대항 배구대회 시부터 안양경찰서 배구장에서 안양서장허근(許根)씨와 시흥교육감 정운진(丁九鎭)씨를 비롯한 다수내빈과 七개단체가참가한가운데 동일 하오三시경성황리에 끝마치었는데 이날전적은 다음과같다

▲(優勝) 基督教監理會安養敎會

▲準優勝 安養運動生會

안양 직장 배구대회

▶ 1957.2.10 석간 3(9)



始興敎育監選出

【安養】시흥교육감은 오는四월十六일로 임기가완료되게되므로 지난八일상오十一시부터 시흥교육구청에서 교육위원九명이모여 선거한결과 현자유당시흥군당부부위원장으로있는 이사국(李思國)씨가 당선되었다

시흥교육감 선출

▶ 1957.01.30 석간 3(7)

警察官正服을大量盜難

安養附近서、트럭으로運搬中에

【安養】남방에있는 굴다리부근 국도상에서는 경기도 경찰국으로부터 평택(平澤)경찰서로 보내는 경찰복(警察服) 을 평택경찰서 소속「그레딘」에 실고 진주중 수명의 괴한이 몽「그레딘」에 뛰어올라 물품을 절취해가는 수절도사건이 빈번이 일어나고있는 이때 이번에는「그레딘」에실고가던 경찰복을 절취해간사건이발생하여 경찰의 신경을날카롭게하고있다

즉 二十八일밤九시경안양서에 집합케하여 범인수사에관한 회합을 하고 범인체포에 노력하고있으나 二十九일오전현재까지 아무런단서도 잡지못하고있어 범인이몇명이나되는지도 모르고있다

경찰관정복을대량도난

안양부근서 트럭으로 운반중에

▶ 1956.12.27

안양교회 교당 봉교

19명 중경상

聖誕禮拜中에慘變

安養서二時무너져19名重輕傷

[安養] 신축중인교회당二층이무너지자 성탄축하에마침모인 신도 약十九명이 중경상을입은 참상사가발생하여 한때수라장을이룬 참상사가발생하였다 즉지난二十五일 하오七시경당시에있는 장로안앙교회에서는 아직 완성을보지못한 신축중인 교회당에서 수명씨 교도가성탄축하예배를 보고있던차 천二층이무너져 안양읍안양리예수교 김준자(金俊子)一一六) 양을비롯하여 十九명이 중경상을입어 부근병원에 입원가도중인데 원인은 건축자재의 불완전과 너무많은 인원을수용하였기때문이라 한다

박윤찬오모씨는 한국인 청년상 (三人一組)의진달 식이 미국대사관 진단하 교회당건축과 이의식의 강주이 참석하고있던 대기거행되었다 그런데이번에 미국박물관으로보내는인형은과거일제당국이한국민족을 모멸함에있어 남 동양의상으로 장식하여미국박물관에다 보내어진열시키게한 한국민족모욕적인형을 교체시키기위한것이라고하며 앞으로 세계각국박물관에 여산한 한국인형이 발견되는대로이를교체시킬것이라고 유진오 단학회 이승녕 (李崇寧) 박사는말하였다 한편이번 「유엔」군사령부가 들어

한국에 이동할 유엔군사 용지결정

안앙-오상-병점에 끝 토지구입

▶ 1957.05.04 석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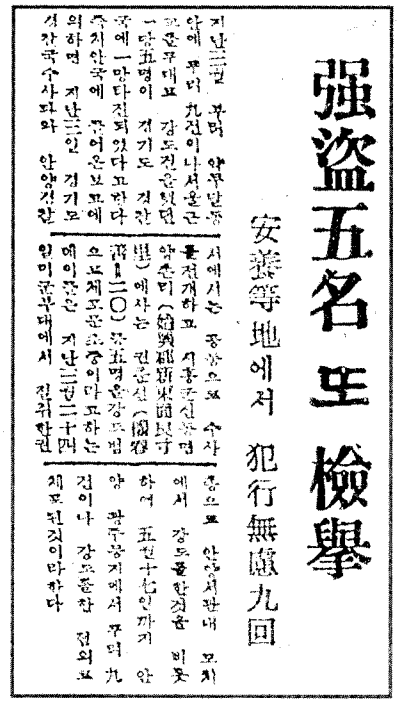
韓國에移動할 유엔軍司用地決定

安養·烏山·餅店에 곧土地購入

三日 국방부관계당국에서 알려진바에의하면 오는七월 한국으로「유엔」군사령부가 이주하게됨에따라 미군당국은 그간 미군에서 사용하게될 대기불문 안양 (安養) 지구의 군용지 十五만여평과 오산 (烏山) 근리과 병점 (餅店) 중지에 二十七, 八만 여평을 대지로 선정하고 이 사에 착수하리라한다 그런데 안양을 제외한 병점기구와 오산지구의 대지는 대부분이 민유지임으로 관계로 국방부에서는 三 진여만평이라는 예산으로 서 이를 예수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매수조치를 취하고있다한다

그리고 전기三개지구에는 미제八군사령부및 예하부대가 위치하게되고 당개의 미제八군사령부 에는

▶ 1957.06.05 조간 2(5)



强盜五名 또 檢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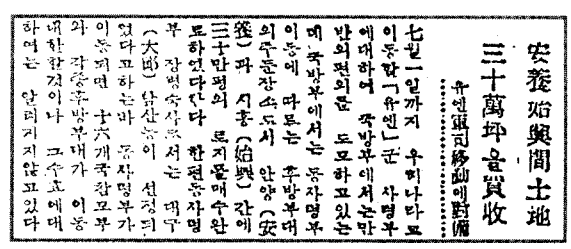
安養等地에서 犯行無慮九回

지난二일 부터 안양등지에서 범행무려九회이나 나서울근교를 荒하여 오던 강도五명이 경기도 경찰국수사과와 안양경찰서에서는 종일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시흥군신동면 약촌리(藥村里)에사는 권순선(權淳善)(二〇)등五명을 강도범으로 체포 취조중이라고하는데 이들은 지난二월二十四일 밤 광주읍거에서 부터 九회에 걸쳐 안양 광주등지에서 강도를 한것을 비롯하여 五월十七일까지 안양서관내에서 강도를 한것이나 강도를 한 것이라고 한다

강도 5명 또 검거

안양등지에서 범행 무려 9회

▶ 1957.06.21 조간 2(5)



安養始興間土地

三十萬坪 을買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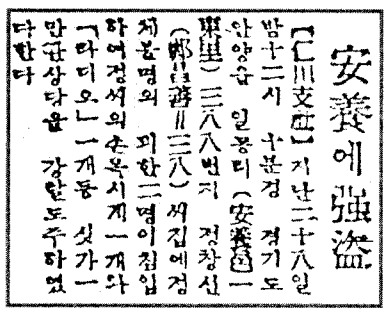
유엔軍司令部에對備

七월一일까지 우리나라로 이동할「유엔」군 사령부에대하여 국방부에서는 막연한 설의점은 도모하고있는데 국방부에서는 동자령부대 이동에 따르는 후방부대의주둔장소로서 안양(安養)과 시흥(始興)간에 三十만평의 토지를매수완료하였다는 한편 동자령부 장병숙사로서는 대구(大邱) 남산동이 선정되었다고하는바 동사령부가 이동되면 十六개국참모부와 각종후방부대가 이동하여는 아직까지 그수효에대한 결정이나 알리지지않고있다

유엔군사 이동에 대비

안양시흥간 토지 30만평을 매수

▶ 1957.10.2



安養에 强盜

【仁川支局】지난二十八일 밤十二시 十분경 경기도 안양읍 일봉리(安養邑一峯里) 三八八번지 정창신(鄭昌信)(三八)씨집에 강도 괴한二명이 침입하여 경석의 손목시계一개와 「라디오」一개등 싯가一만五千상당을 강탈도주하였다한다

안양에 강도

▶ 1957.09.01 조간 2(1)

國聯軍相對의 遊技料食業者資格 規定

特定地域은 安養

三部合同으로 對策委를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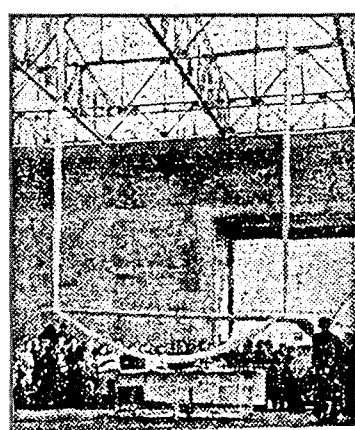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으로 옮겨옴에따라 「유엔」군상대유기장및 요식업자들은 유지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법무부 내무부및 보건사회부 三부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중에있다고한다

「유엔」군상대유기장및 요식업자들은 유지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법무부 내무부및 보건사회부 三부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중에있다고한다 이위원회에서는 「유엔」군상대유기장및 요식업자들은 대부분에서 많기로되었다고한다 한편 보건사회부당국자에의하면 특정지역내에 집결시키기 위한 특정지역내에서의 특수업자인허가는 비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서울의 마찬가지로 시행의 마찬가지하여 시행전문의 부수적으로 생기는 혼란이 없도록 단속할 방침이라고한다

국련군상대의 유기요식업자 자격규정

특정지역은 안양, 3부합동으로 대책위를 구성

▶ 1957.11.06 석간 4(6)



安養撮影所 第二스테이지上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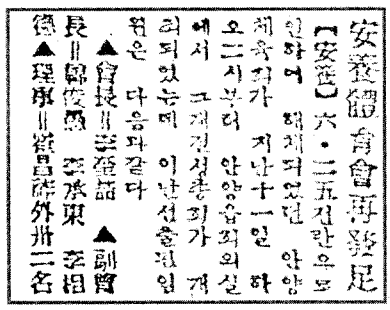
直營撮影所 株式會社 安養

撮影所의 第二 「스테이지」上棟式이 지난二日下午두時 영화계 人士들과 동업계 關人安養撮影所所員 등약二百명이 참가한가운데거행되었다 四七二坪의 건평을가진 이 「스테이지」는 撮影할수 있는同時 錄音시킬수 있는 東洋最大의 것인데 이날上棟式을 거행함으로써 그 모양을 모습에두고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스테이지」와 「테버데아드리」에서는 금월中旬에 본격적인 撮影作業에 들어갈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사진은同 上棟式光景)

안양 촬영소

제2 스테이지 상양

▶ 1957.10.17



安養體育會再發足

【安養】六·二五직란으로 인하여 해체되었던 안양체육회가 지난十一일 하오二시부터 안양읍회의실에서 그재건성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선출된임원은 다음과같다 ▲會長‖李鍾品 ▲副會長‖郭俊燮 李承東 李相德 ▲理事‖崔昌薛外卅二名

안양체육회 재발족

▶ 1958.01.10 석간 3(8)

再生纖維板 國內서生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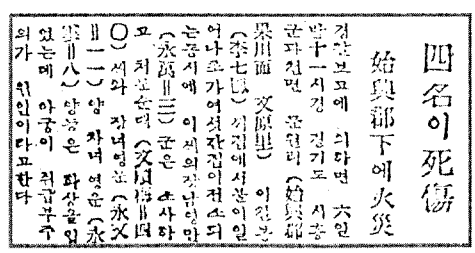
美援助로 安養에 工場設置

경기도안양(安養)에 우미나다리도의 「하드·보드」(저생섬유판) 공장이 건설되리라고한다 본공장은 현재저응정리(서울) 에있는 삼영(三榮)목재공업주식회사에서 五六년도「아이·씨·에이」원조기금에의한 중소기업시설자금 五十만불로건설하게 되었다는것이며 안양에 한개밖에없는 기계공업이 될것이라고한다 제조공장및 동남아시아와 구미각국의 「하드·보드」 공장을 안三개월간에걸치리라고한다 본공장은 현재저응정리(서울) 에있는 삼영(三榮)목재공업주식회사에서 五六년도「아이·씨·에이」원조기금에의한 중소기업시설자금 五十만불로건설하게 되었다는것이며 안양에 한개밖에없는 기계공업이 될것이라고한다

재생섬유판 국내서생산

미국원조로 안양에 공장설치

▶ 1958.02.08 석간 3(10)



四名이死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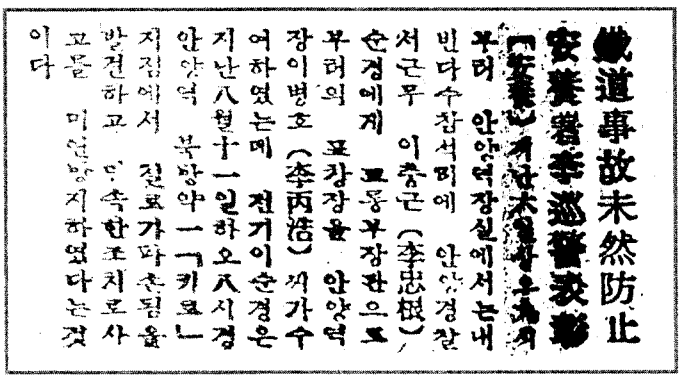
始興郡下에火災

경찰보고에 의하면 六일밤十一시경 경기도 시흥군과천면 문원리(始興郡果川面 文原里) 이진근(李鎭根·四七년) 씨집에서 불이일어나 초가여섯칸이전소되는동시에 이씨의장남영아(永萬‖三) 군은 소사하고 처조순덕(文順德‖四〇) 씨와 장녀영순(永文‖一一) 양 차녀영순(永順‖八) 양등은 화상을입었는데 아궁이 취급부주의가 원인이라고한다

시흥군하에 화재

4명이 사상

▶ 1958.11.11 석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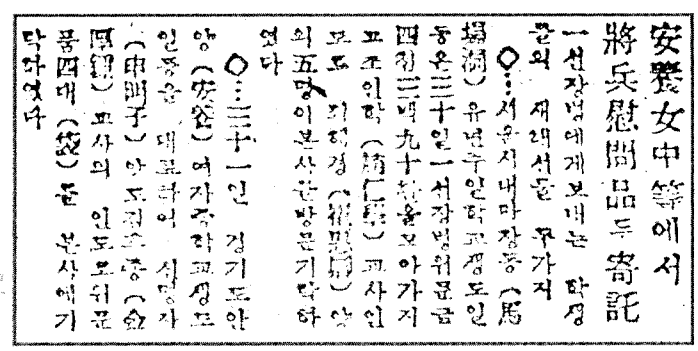


鐵道事故未然防止
安養署李巡警表彰
【安養】지난八월十一일하오八시경
안양역 북방약一一키로니
지점에서 철로가따손됨을
발견하고 이속한조치로사
고를 미연방지하였다는것
이다 안양경찰
서근무 이충근(李忠根)
순경에게 교통부장관으로
부터의 표창장을 안양역
장이병호(李丙浩)씨가수
여하였는데 전기이순경은

철도사고 미연방지

안양서 李忠根순경에 표창

▶ 195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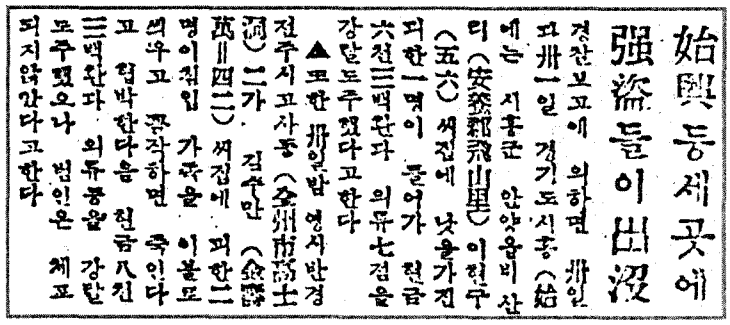


安養女中等에서
將兵慰問品등寄託
一선장병에게보내는 학생
들의 재래선물 부가지
○…서울시내마장동(馬
場洞) 유년주일학교생도일
동은三十일一선장병위문금
四천三백九十환을모아가지
고교인학(崔仁鶴)교사인
솔로 지휘경(崔熙京)양
의五명이본사를방문기탁하
였다
○…三十一일 경기도안
양(安養)여자중학교생도
일동은 대표하여 신영자
(申明子)양으로부터 금
四천환 교사의 인도로위문
품四대(袋)를 본사에기
탁하였다

안양여중등에서

장병 위문품등 기탁

▶ 1959.04.01 석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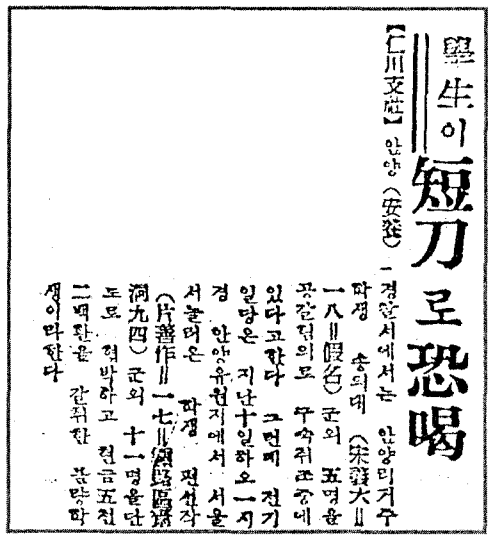
始興등세곳에
强盜들이出沒

경찰보고에 의하면 지난 三월 三十一일 경기도 시흥군 (始興郡) 안양읍 비산리 (安養邑飛山里) 이천구 (五六) 씨집에 낫을가진 강도 한명이 들어가 현금 六천三백원과 의류七점을 강탈해 주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밤 영시반경 전주시고사동 (全州市高士洞) 二가 김수만 (金壽萬 四二) 씨집에 괴한二명이 침입 가족을 이불로 씌우고 공작하면 죽인다고 협박한다음 현금八천三백원과 의류등을 강탈해 주했으나 범인은 체포되지않았다고 한다

시흥등 세곳에 강도들이 출몰

▶ 1959.05.18 조간 4(6)



學生이
短刀로 恐喝

【仁川支社】 안양 (安養) 경찰서에서는 안양미군부대 하청 송의대 (宋義大 二八) 군의 五명을 공갈혐의로 구속취조중에 있다고한다 그런데 전기 일당은 지난十일하오 一시경 안양유원지에서 서울 서울대학생 편선작 (片善作 二七) 군의 十一명을 단도로 협박하고 현금五천 二백환을 갈취한 공갈학생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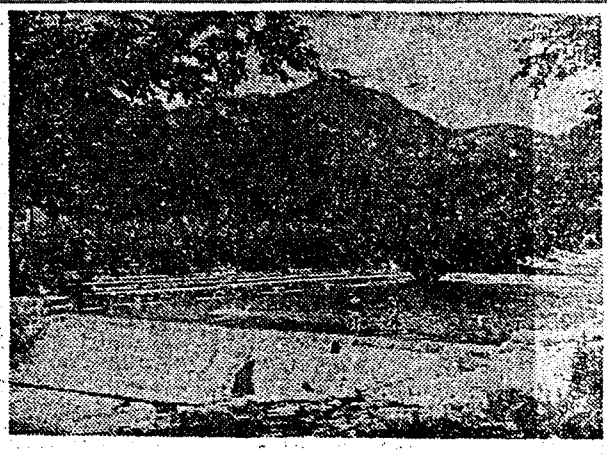
학생이 단도로 공갈

안양경찰서서 일당을 체포

▶ 1959.5.31 조간 4(1)

風土巡覽 始興郡

安養遊園地



郡勢一瞥

▲面數＝三六四平方粁
▲人口＝九九、四一七
▲名勝古蹟＝板橋驛址 三一 中學校三 高等學校一 公民學校八 高等公民學校三

鐵道와舖裝道路

어두산간 로도와「도」탄으로도 서울사람들의귀염을 독차지하는 안양(安養)은 지난고을이다。이고을의 관문이자 경기도의중심지가 되는곳은 조건속에 자리잡아 경부선 수인선(水仁線)의갈드와 전부포장된 국도(國道)와 광탄이진지방도로에「더스」가발멘 희운맺히고있어 원리한 교통망을 가지고있다 겨울 생산하는 의에 많은부업(副業)이 시동수입의 장은 경기도의인구 다른지방에 비해서 많은

농토는 아니지만 총九만六천여단보의논과밭에 九만七천석)의 곡식(쌀 장 사람들은 자그만남 하고있으며 곳곳 산양 그리고 우리나라에흔치 않은사슴과 흰멱조롱은 김기찬 등이다 이고장은 있다 특히나 이고장은 수천농과대학이 가까이 있고 군내에 농산물시 장이 十二곳이나 있고 군내에 농산물시 장이 十二곳이나 있고 군내에 농산물시 장이 十二곳이나

▶ 1959.5.31 조간 4(11)

우물에 有毒廢水

安養三德製紙工場 周邊一帶

계다가 二個工場新設

【안양】 당지에는 상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三만여명의 주민들은 주로 우물물을 음료수로 삼고있는데 공장에서 내놓하는 유독성 폐수(廢水)가 우물로 스며들어 음료로 위험을 주고있다

즉 중앙화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지난二월에 당지에있는 삼덕(三德)제지공장주변에 있는 우물물을 분석한결과 음료수로서는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데 이와같이 우물에 스며드는 폐수는 공장 드림지대에 이있으나 하수도 가 제대로되어있지않은관계로 대부분 지질이 사리등(砂利層)이기때문이라 한다

이와같이 음료수에 대한 위험을말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중심부와 하천상류에록수제지공장을신설중에있어 이공장등이 완성되어 작업을지작하게되는 날에는 등공장에서 내놓하는 일당수만석의 폐수가 우물에 스며든것으로 주민들은 폐수로부터 고히해주기를 바라고있다

우물에 유독 폐수

안양 삼덕 제지공장 주변 일대

▶ 1959.6.26

麻紡績工場 操業開始

安養서 韓國最初로

五五年度 「유크라」貸金 八十二萬五千弗에 의하여 安養에設立된 韓國最初의 麻紡織工場은 드디어 操業開始하여 年間 六十萬碼의 麻織物과 一百二十萬封度의 麻絲가生産되고있다한다 同工場의能力은國內需要品을 完全充足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며 이미 오히려 韓日을計劃하고있는데 이工場에서는 男女麻絨短纖 비롯하여 帆布등 水產用製品도 供給될것이다 所要原料는 아직은 輸入에 의존하고있으나 將來에는 麻林部의 開發增產五個年計劃이 實行되면 全部國內産으로 充當한것이라 한다

안양서 한국최초

마방적 공장 조업개시

▶ 1959.8.25

僧伽寺犯人은 金「꼬마」?

黃의 거듭陳述에 警察도 眞犯으로 推定

襲擊 前에 現地踏査 두번

어젯밤 安養事件도 同一犯인듯

지난 二十四일 경기도 시흥군 (始興郡) 에있는 성불암 (成佛庵) 에 「개머리」 란원숭 「칼빙」 총을 소지한강도가 들어가 공포를쏘며 위협하고 금품을강탈하였는데 그범인의인상착의와 범행방법이 승가사사건과 동일한점만 아니라 그것이김 「꼬마」 와동일인한 인물이라는것을 경찰수사당국자는 시인하고있다 이에 동해준경찰서에서 김 「꼬마」 의 행적을추적하고있던 형사대는 성불암에 집결하였고 서울시내 각경찰서수사대도 동지역에 각각 파견되었는데 「꼬마」 의체포가 되었는데 「꼬마」 의체포가 되었는데 「꼬마」 의체포가

▶ 1959.10.17 석간 3(1)

범인安養서出沒?

寫眞까지入手코「河」를指名手配

僧伽寺强盜事件

승가사(僧伽寺) 살인강도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시 경찰국판하 각경찰서에서는 범인으로 인정되는 괴한이 수차출몰하였다는 시흥군 안양읍一동리(始興郡安養邑一洞里)에 형사대를 급파하는 한편十七일새벽성북경찰서에서는 범인으로 수정의는 하상천(河相天=二八=硏民路모앙빙) 을 지명수배하고 사진까지입수하여 범인체포에 혈안되고있는데 제보는시간문제라고낙관시하고있다

그에따른 유력한송의자로 지명수배하게된 이유는 승가사살인강도사건이후인 지난八월十九일밤十시三十분경 상록암(像祿庵)에서 개머리판없는 「칼빈」총으로 위협하고 금품을강탈 다시九월十五일밤十시三十분경에는 안양읍마본동 五六九 담배가게에 나타나 주인최모(崔某=七三=女)씨를위협하고 금품을강탈 그후 다시 十월一일밤 十시四十분경 안양읍인동리이서안 (仁洞里) 에서 자다났다는 사실도 미루어 승가사의거듭 안양읍내의 지리도 잘알고있음직하니라 전기 강도사건등의 범행시각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銃花病四一〇) 씨의체

리상윤(李相允=三六) 씨는 지난十일 집을나갔재 돌아오지않고있다는 것인데 하씨는 이날새벽五시경 건강어머니 생일잔치에갔다고 집을 나갔으나 실종인 시흥군안양리 (始興郡安養里) 에도 가지않았다는것이며 집을나가기전에 三백만환가량의 돈을 이웃에서 빌음냈다는 사실이있다고한다

승가사 강도사건

범인 안양서 출몰?

▶ 1960.3.26

안양기자 구타사건

28일 대질 심문

28日對質審問

安養記者毆打事件

안양(安養) 기자구타사건 용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 강서동(姜瑞龍) 부장검사는 피해자인 연합신문경기도신문지국(聯合新聞京畿道新聞支局) 기자김삼서 (金三鋤 二三) 씨와가해자인 신동지서 이(李) 모순경을 오는二十八일 소환하여 대질신문할것이라한다

▶ 1960.6.15

안양서 뻐스 사고

安養서뻐스事故로

【始興】十四일 하오七시四十분경안양(安養) 一뎌스一정류소 북방五백一메一터一지점에서 서울로향해오던 경기여객一뎌스노(경기영二三三五호)는 길을건느는여인을 비키려다가가로수를 들이받아七명의승객이부상을입고一뎌스一전면이반파되는 사고를냈다

▶ 1960.07.06 조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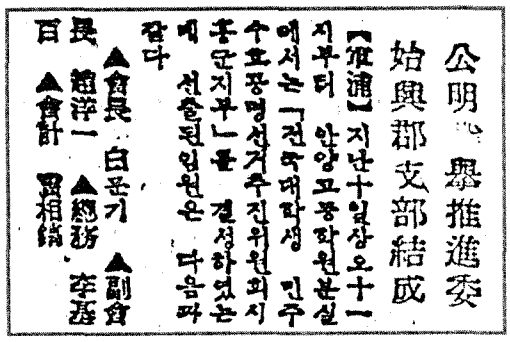
안양유원지에서 화학노조 연차대회

安養遊園地에서

化學勞組年次大會

【安養】지난달 二十九일 하오一시부터 당지에있는 안양유원지「풀」에서는전국각화학피사 노동자대표대의원二十九명이 참석하여 제二차 연차대회를개최하였다이날대회는삼십개지피사 (三陽製鉢鐵鋼) 위원장 박영선(朴永善) 위원장의개회사에이어 임원개선이있었는데 새로선출된 전국위원장 김백균(金白均) 씨는 당선인사에서 앞으로의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참고로 대의원은 四시반경에 도착하였는데이날선출된 전국위원장은 다음과같다 ▲委員長(金白均) 副委員長(朴永善) 副委員長(金五相)

▶ 1960.7.14 조간(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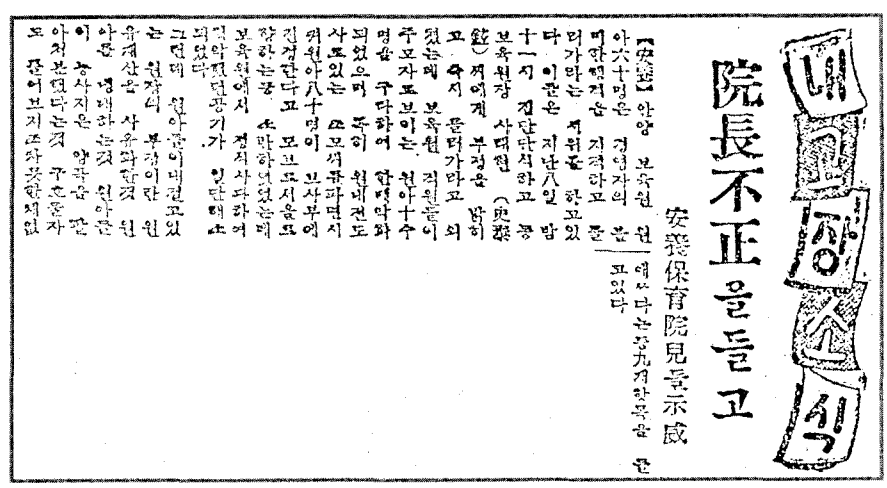


公明選擧推進委
始興郡支部結成

【抱川】지난十일상오十一
시부터 안양고등학원분실
에서는 「전국대학생 민주
수호공명선거추진위원회시
흥군지부」를 결성하였는
데 선출된임원은 다음과
같다
▲會長 白문기 ▲副會
長 趙淳一 ▲總務 李吾
百 ▲會計 曺相鎬

공명선거추진위 시흥군지부 결성

▶ 1960.08.13 조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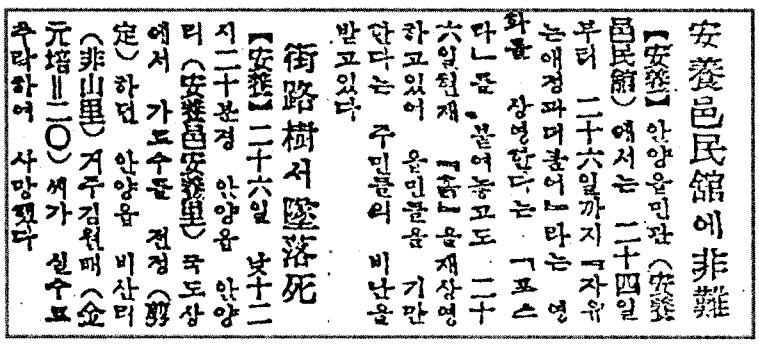
院長不正을들고

安養保育院兒童示威

【安養】안양 보육원 원
아六十명은 경영자의 부
패한행동을 지적하고 물
러가라는 데모를 한고있
다 이곳은 지난八일 밤
十一시 경찰서하고 공
보육원장 사택앞 (吏讀
錄) 에게 부정을 밝히
고 즉시 물러가라고 외
쳤는데 보육원 직원들이
주모자로보이는 원아十수
명을 구타하여 합병악화
되었으며 목하 원내전도
사로있는 모양새로파면시
켜원아八十명이 모사부에
진정한다고 모르시울도
항라는등 소란하였는데
보육원에서 경찰서라며
긴박했던공기가 일단해소
되었다
그런데 원아들이데결고있
는 원장의 부정이란 원
유재산을 사유화한것 원아
이용 행패하는것 원아들
이 농사지은 양곡을 팔
아처분한다는것 주로운자
로 분이므지조차못한데있

원장부정을 들고 안양보육원아들시위

▶ 1960.8.30 조간 4(6)



安養邑民舘에 非難

【安養】 안양읍민관(安養邑民舘)에서는 二十四일부터 二十六일까지 「자유의 눈애경파대콩어」라는 영화를 상영한다는 「포스타」를 붙여놓고도 二十六일현재 『돔』을 올재상영하고있어 읍민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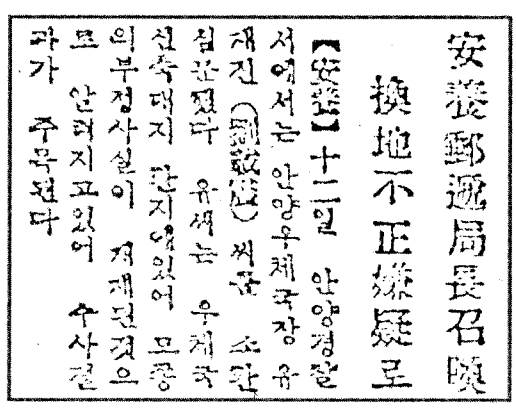
街路樹서 墜落死

【安養】 二十六일 낮十二시二十분경 안양읍 안양리(安養邑安養里) 국도상에서 가로수를 전정(剪定)하던 안양읍 비산리(非山里) 거주김원태(金元培=二〇)씨가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가로수서 추락사

안양읍민관에 비난

▶ 1960.9.15 석간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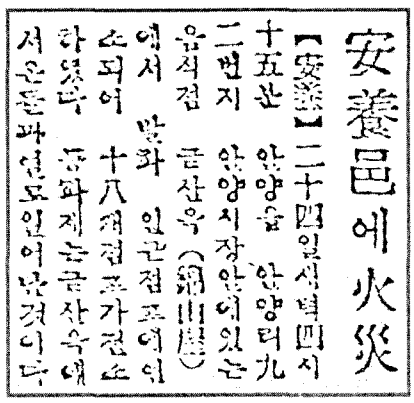
安養郵遞局長召喚

換地不正嫌疑로

【安養】 十二일 안양경찰서에서는 안양우체국장 유재진(劉載鎭)씨를 소환 심문했다 유씨는 우체국 신축대지 환지에있어 모종의부정사실이 제기된것으로 안다지고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환지부정혐의로 안양우체국장 소환

▶ 1960.9.25 석간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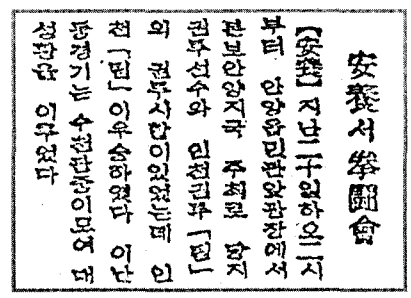


安養邑에 火災

【安養】二十四일 오후 四시 十五분 안양읍 안양리 九二번지 안양시장 안에 있는 유식점 금산옥(錦山屋)에서 발화 인근 점포에 옮아 소되어 十八개 점포가 전소하였다 또 화재는 금산옥 내에서 온돌 파손으로 인하여 났다

안양읍에 화재

▶ 1960.11.22 조간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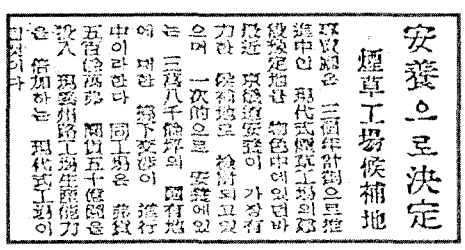


安養서 拳鬪會

【安養】지난 十일하오 二시부터 안양읍민관왕관장에서 본보안양지국 주최로 당지 권투선수와 인천권투 「팬」의 권투시합이있었는데 인천 「팬」이우승하였다 이날 경기는 수천관중이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안양서 권투회

▶ 1960.12.29 조간 2(8)



安養으로 決定

煙草工場候補地

現政府은 三個年計劃으로推進中인 現代式煙草工場의 建設候補地를 物色中에있던바 最近 京畿道安養이 가장有力한 候補地로 檢討되고있으며 一次的으로 安養에있는 三萬八千餘坪의 國有地에 대한 拂下交涉이 進行中이라한다 同工場은 最低五百億圓의 資金으로 新式煙草工場生産能力을 增加하는 現代式工場이라한다

연초공장 후보지

안양으로 결정

▶ 1961.3.2 석간 3(1)

메마른 이江山에 建設의 첫삽

三月! 우렁찬 出發信號

國土建設事業 安養서 着手式

作業服의 隊列들 記念植樹七千本

◇삽질하는 국토건설 기념식수 【안양에서 本社撮影班기자·변영】

부흥을 이룩하는 한편 전국민 경제체제의 혁신을 기할 목적으로 이사업을 거족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윤대통령은 그의 치사에서 「우리국민들이 공주린 생활에서 벗어날 의욕을 상실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이사업에 적극협력함으로써 보다나은 생활환경조성에 모든의욕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한후 정부는 모처럼 착수한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식이 끝난후 첫삽으로서 윤대통령의 「작업복」에 「리기다테라」 「아까시아」 「오리나무」 「장 한 七千本의 기념식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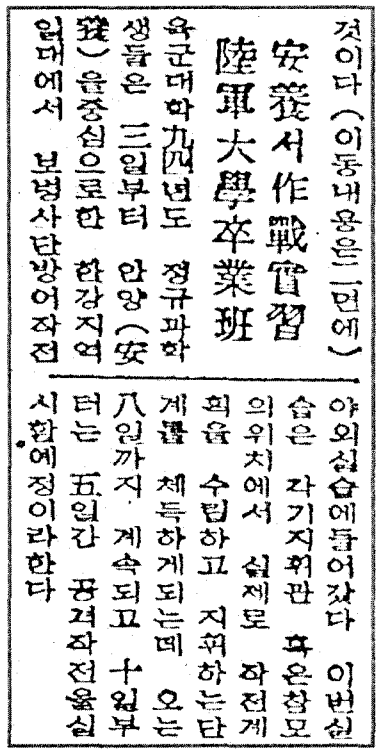
큰 四년여간의 자본과 연四천만명을 동원하여 건설하게되는 국토개발사업의 착수거행식은 三·一절인 一일하오 [illegible]「작업산」에서 작업복으로 통한 대통령 윤대통령 장면총리 [illegible]와 「테가다지」주한 미대사등 내외귀빈 그리고 국회 [illegible]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착수된 총四만 천사백 [illegible] 전국의 [illegible]에서 二·五간동안에 『四千년간의 해정상태 [illegible] 국토개발하여 [illegible]

메마른 이 강산에 건설의 첫삽

삼월! 우렁찬 출발신호. 국토건설사업 안양서 착수식.
작업복의 대열들 기념식수 칠천본

▶ 1961.4.4 조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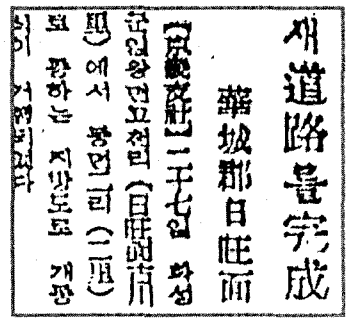
陸軍大學卒業班
安養서作戰實習

것이다 (이동내용은二면에)
야외실습에들어갔다 이번실
습은 각기지휘관 혹은참모
의위치에서 실제로 작전계
획을 수립하고 지휘하는단
계를 체득하게되는데 오는
八일까지 계속되고 十일부
터는 五일간 공격작전을실
시할예정이라한다

육군대학 졸업반

안양서 작전연습

▶ 1961.12.30 석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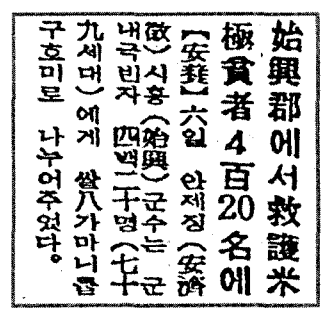
新道路量完成
華城郡日旺面

【水原支社】二十七일 화성
군일왕면요천리(日旺面邀川
里)에서 봉연리(二里)
로 통하는 지방도로 개통
식이 거행되었다

화성군 일왕면에

새 도로를 완성

▶ 1962.7.8 석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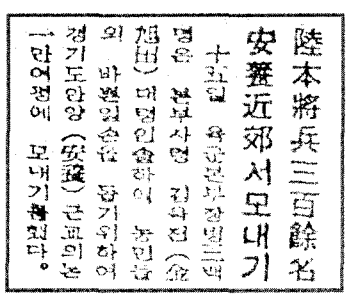


始興郡에서救護米
極貧者4百20名에

【安養】六일 안제정(安濟
政)시흥(始興)군수는 군
내극빈자 四백二十명(七十
九세대)에게 쌀八가마니를
구호미로 나누어주었다。

시흥군에서 구호미

▶ 1962.6.15 석간 3(9)



陸本將兵三百餘名
安養近郊서모내기

十五일 육군본부장병三백
명은 본부사령 김학전(金
旭田)대령인솔하에 농민들
의 바쁜일손을 돕기위하여
경기도안양(安養)근교의논
一만여평에 모내기를했다。

육본장병 3백여명

안양근교서 모내기

▶ 1962.7.17 석간 4(6)

安養製作所竣工式
콜럼비아레코드社
그동안 施設의 竣工을 서두르고 있던 韓國「콜럼비아·레코드」會社 安養製作所는 지난十四日 모든設備가完成되어竣工式을가졌다。
李元雨 公報部長官과金世鎭 財務部長官을비롯한 各界 來賓과 특히「레코드」業界와「레코드」音樂人들이 多數 參席한 이날공식에서 李公報部長官이 「오픈·테이프」를끊고、金財務長官이 「보일러」·「스위치」를 넣었다。
이날 李公報部長官은『現死狀態의 業界不振과 業界의 施設未備등을 指摘하는 한편「레코드」文化界도 質的向上과함께 施設을 갖춘 企業化가 緊急한 일』이라고 만하여 注目을 끌었으며、金財務部長官도 종은 施設에 業界가 團合하여 經濟와 文化의向上에 이바지 할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기계를 돌려다 보는 李公報部長官)

콜롬비아 레코드사 안양제작소 준공식

▶ 1962.10.19 조간 1(9)

始興郡一部包含
서울市行政區域擴張案
政府는 서울特別市의 行政區域擴張계획을 일부바꾸어 始興郡일부지역을 더포함시킬것이라한다。政府소식통은 18日하오 서울의外郭道路계획上 安養부근의 道路를 포함시키기위해 이와같이 늘리기로했다고전했다。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안

시흥군 일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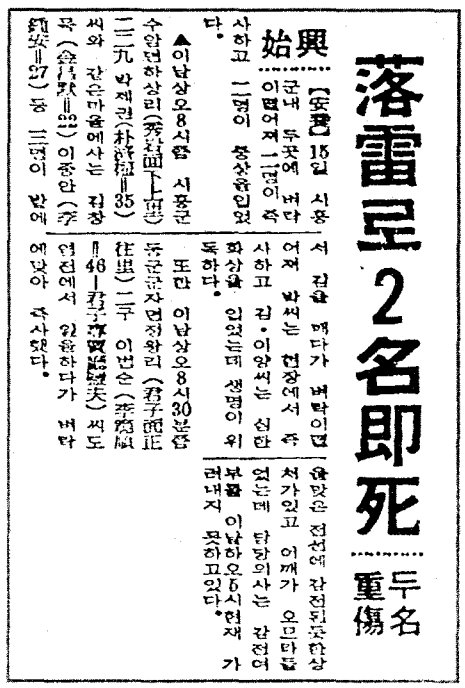
▶ 1962.11.20 조간 7(5)

明年여름完成
安養煉瓦所起工
안양(安養) 교도소 기공식이 19일하오3시 공사현장인 시흥군안양읍 호계리(始興郡安養邑虎溪里)에서 거행되었다。

안양 교도소 기공

명년 여름 완성

▶ 1963.6.16 조간 7(1)



落雷로 2名即死 重傷 두名

興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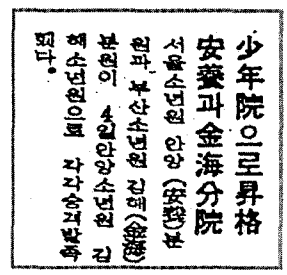
【安養】 15日 시흥군내 두곳에 벼락이 떨어져 1명이 즉사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상오8시쯤 시흥군 수암면하상리(秀岩面下上里) 이경자(李京子=35) 씨와 같은 마을에사는 김창욱(金昌旭=33) 등 3명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벼락이 떨어져 남자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김·이양자는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생명이 위독하다.

또한 이날상오8시30분쯤 동군군자면정왕리(君子面正往里) 이연순(李連順=46—君子面正往里) 씨도 연전에서 일을하다가 벼락을 맞아 전신에 감전되는한상 여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담당의사는 감전여 화상을 입었는데 생명이 위독하다.

시흥에서 낙뢰로 2명즉사 2명중상

▶ 1963.7.5 조간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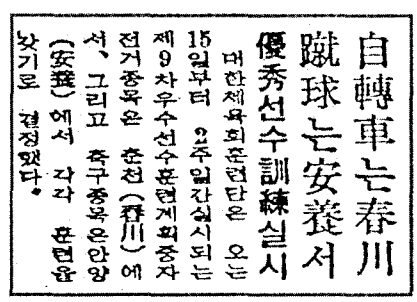
少年院으로昇格

安養과金海分院

서울소년원 안양(安養)분원과 부산소년원 김해(金海)분원이 4일안양소년원 김해소년원으로 각각승격발족 되다.

안양과 김해분원 소년원으로 승격

▶ 1963.7.13 조간 8(7)



自轉車는春川 蹴球는安養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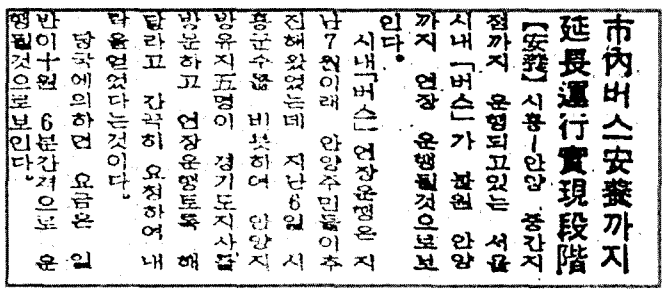
優秀선수訓練실시

대한체육회문련단은 오는 15일부터 2주일간실시되는 제9차우수선수훈련계획중자 전거종목은 춘천(春川)에서, 그리고 축구종목은안양(安養)에서 각각 훈련을 갖기로 결정했다.

자전차는 춘천 축구는 안양서

우수선수 훈련실시

▶ 1963.8.9 조간 7(11)



市內버스安養까지

延長運行實現段階

【安養】 시흥—안양 왕간지점까지 운행되고있는 서울시내「버스」가 불원 안양까지 연장 운행될것으로보인다.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지난 7월이래 안양주민들이 추진해왔었는데 지난6일 서울교통국장과 비공식하여 안양지방유지五명이 경기도지사를 방문하고 연장운행토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내락을 얻었다는것이다.

당국에의하면 요금은 일반이十원 6분간격으로 운행될것으로보인다.

시내버스 안양까지

연장운행 실현단계

▶ 1963.08.18 조간 7(7)

避暑客 덜기 60回

安養「풀」서「텐트」生活하며 一覽 12名檢擧

17일상오5시쯤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대는 안양(安養)「풀」근처에서「텐트」생활을하고있던 심창갑(沈鎭甲=22=新吉洞山九) 윤부옥으로하는 절도단十二명을 일망타진하고 문초중이다。

이들 일당 十二명은 2년전부터 주로 서울 대방동(大方洞) 과 신길동(新吉洞) 일대에서 도둑질을해 왔었는데 요즘 안양「풀」에 집단적으로 옮겨 두개의「텐트」에나뉘어 자취를해가면서 유람객들의 주머니를 털곤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도둑질한 남짜와 지출을 명기한 장부를 갖고있었는데 장부에기재된 도둑질만도 六十여회에 달하고있다。

안양「풀」서「텐트」생활하며 피서객털기 60회

일당 12명 검거

▶ 1963.10.30 조간 7(1)

始興에 또 피의 慘變

한家族세名沒殺

칼로 亂刺, 密屠殺者의 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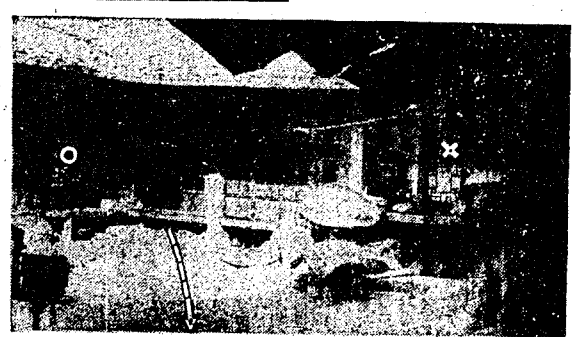
소판돈10餘萬원强奪

기름배인「자귀」등 押收코 捜査網압축

아들은 高在奉이웃部隊에服務한적도

【始興郡下事故現場에서 本社特派員崔永定·黃昇逸·朴宗鎬發】 29일새벽4-시반쯤 시흥군서면보안리(西面安養里) 「무정골」 스물八번지 김종순(金鍾淳=56)씨집에 강도단이 침입, 예리한 칼과 자귀로 김씨와 부인 이기순(李己順=55) 씨및 첫째아들 우근(禹根=26) 군등 일가족세명을 살해하고 十만원이상의 돈을 빼앗아 도망친 전대미문의 살인강도사건이 발생, 30일새벽2시현재 아무런 단서가 잡히지 않아 수사에 막연한 실정이다.

중앙해와 동작경찰서에서 밀도살자의 소행이아닌가 보고 있는 이번 살인강도사건은 로프와 자귀등 범행도구가 평범한 것이고 수사망을 압축하기 위해 서울·부천·안양·시흥·영등포·인천 기타 각지에 수배한 자귀(자귀가 특색있는 것이라 한다)와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 현금이 그대로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범인은 이 지방 지리에 밝은 자로 추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上) 안방(○표)에서 부엌과 건넌방 사이(×표)에 엎드려 죽어있는 김씨부인. (下) 왼쪽부터 손덕봉서 형사과장, 송대희수사계장, 손덕진서장, 김종순씨(金鍾淳=56)

大門서쓰러진金氏

"불이야……" 고함지르자 亂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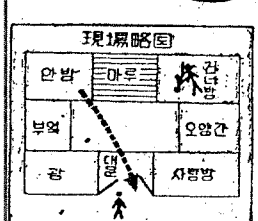
아들悲鳴에달려간 어머니도

事件現場 【안양】 시흥 김규태(金奎泰=58)씨가 현장에 남겨놓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자귀.

事件經過 김씨일가족세명을 살해하고 현금이아닌 쌀과 소판돈을 강탈해간 범인은 김씨가 『불이야』 고함을 지르자 대문을 열고 나가려하여 대문앞에서 김씨를 난자, 김씨가 쓰러지자 김씨의 아들 우근군이 달려나오자 또 난자, 이어 안방에 들어가 잠자고있던 김씨부인을 난자, 세명을 살해한 범인은 안방에서 자고있던 김씨의 막내아들 우성(禹成=6)군을 깨워 『돈이 어디있느냐』 고 묻고 『모른다』 고 대답하자 우성군을 때리고 협박하여 돈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 했으나 우성군이 울기만 하자 그대로 두고 돈을 찾아 나왔다.

범인은 이 돈을 가지고 나와 대문앞에서 첫째아들 우근군을 난자, 우근군이 쓰러지자 또 난자, 이어 안방에 들어가 잠자고있던 김씨부인을 난자, 세명을 살해한 범인은 안방에서 자고있던 김씨의 막내아들 우성군을 깨워 『돈이 어디있느냐』 고 묻고 『모른다』 고 대답하자 우성군을 때리고 협박하여 돈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 했으나 우성군이 울기만 하자 그대로 두고 돈을 찾아 나왔다.

범인은 이 돈을 가지고 나와 대문앞에서 첫째아들 우근군을 난자, 우근군이 쓰러지자 또 난자, 이어 안방에 들어가 잠자고있던 김씨부인을 난자, 세명을 살해한 범인은 안방에서 자고있던 김씨의 막내아들 우성군을 깨워 『돈이 어디있느냐』 고 묻고 『모른다』 고 대답하자 우성군을 때리고 협박하여 돈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 했으나 우성군이 울기만 하자 그대로 두고 돈을 찾아 나왔다.



事件現場 【안양】 시흥 김규태(金奎泰=58)씨가 현장에 남겨놓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자귀.

事件經過 김씨일가족세명을 살해하고 현금이아닌 쌀과 소판돈을 강탈해간 범인은 김씨가 『불이야』 고함을 지르자 대문을 열고 나가려하여 대문앞에서 김씨를 난자, 김씨가 쓰러지자 또 난자, 이어 안방에 들어가 잠자고있던 김씨부인을 난자, 세명을 살해한 범인은 안방에서 자고있던 김씨의 막내아들 우성군을 깨워 『돈이 어디있느냐』 고 묻고 『모른다』 고 대답하자 우성군을 때리고 협박하여 돈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 했으나 우성군이 울기만 하자 그대로 두고 돈을 찾아 나왔다.

범인은 이 돈을 가지고 나와 대문앞에서 첫째아들 우근군을 난자, 우근군이

▶ 1963.10.31

〈李中領一家沒殺事件〉

高在奉의 共犯 逮捕

犯行때使用한 도끼의主人 柳重錫

端緒는 贓物인「라디오」

高와상당히親한사이

事件前날 두차례만난 事實도

高在奉에 懸賞金

陸軍憲兵監室서 2萬원

妻와의對質에서 바닥드러난陳述

焦點못잡는搜查

高의緣故地搜查

高와金雨吉씨 緣故關係調査

이름에 이 頂에 認 「減共63」訓練

이「못망울」들을 왜 꺾느냐

▶ 1963.11.1 이어서

搜査機關間에 손발 안맞아
——高在奉犯行斷定에 엇갈리는 焦點
單獨犯들림없다 도끼主人은 從犯
警察側 問題의「라디오」에도 見解 다르고
◇유군의도소동의당시의 高在奉
共犯斷定에 腐心
柳軍錫氏를 繼續調招中
高의緣故者를 擴大搜査
全國에壁報, 陸軍搜査課長소집
懸賞金도 3백만으로
「컴백」의 跡
屍體를 덮은 新聞紙에
安방에서 韓·美友誼 模範美軍兵士招待
四名은釋放 三名만起訴
民政党金洛杓

▶ 1963.11.1

故者를 擴大搜査

國에 壁報, 陸軍搜査課長소집

容疑者8名嫌疑없어釋放

搜査原點으로「컴·백」

始興一家被害事件 소도둑前科者安을追跡

【始興郡下 本社特派員 黃昇過·朴宗鎬發】

事件前夜 칼든怪漢을目擊

敎師10名을解任

비행청년 일망에 타격

夫婦는合葬

朴恩惠女士 故張德秀氏夫人

<차어사>

始興가정참살사건

소도둑 전과자 안을 추적

▶ 1963.11.2

소도둑 前科者인 容疑者安을 檢擧

捜査線上에오른 마지막希望

【始興에서 本社特派員黃昇逸朴宗鎬發】 1일하오경찰은 시흥읍가족 참살사건의가장유력한용의자로꼽힌 시흥군서면철산그리에사는 전과자안석호 (安錫鎬—23) 를 부평 (富平) 에있는 그의이모집에서 검거, 경기도경찰국으로 연행했다. 여러찬래로 범행현수사선이 모두끊긴것을시인한 경찰은「안」에게 마지막 협의를두고 그의친교관계와 사건을 전후한「안」의 행적을추궁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용의자安錫鎬

端緒못찾은 犯行때의칼

그런데 경찰은 사건발생 5일째인 2일새벽까지 범행에사용한 칼을찾아내지못하고있으며 해부결과에서도 범행용흉기가 하나인지 그이상인지도 가려내지못하고 견해가대립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수사의난점으로 ①중

구멍뚫린? 警戒網

「철통」느비웃듯 이웃동네에도둑

그런데「안」은 사건발생 전날인 28일상오 집을나가 1일하오까지 집에돌아오지 않고있었던것이다。

始興發故朴特派員黃昇逸】 김종근 (金鍾根—64) 씨 일가족참살사건 범인검거에 있어 수사진이 오로지 면내일대에 물샐틈없이 포진하고 있는 1일새벽 2시쯤 현장에서 마을 입구 「길목」도 못되는 마을인가락 (稼洛) 일대「어느 종령」(33) 씨집에 도둑이 들어 참살한가마 수수한가 육저갔다。

시흥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안석호 검거

▶ 1963.11.03 조간 7(9)

容疑者 5名을追跡

家事一件 興신동

犯行合勢 거절한 靑年이 두前科者의 謀議를 告發

占卦가 搜査指揮

우물펐으나 凶器없고 다시原點으로

시흥 일가 살해사건

점괘가 수사지휘. 우물펐으나 흉기없고 다시 원점으로
1963.11.05 조간 7 시흥일가 살해사건 단서는 변소의 피묻은 솜. 金完鎔-일단 집에 돌아갔다 30분후 현장에. 柳根昌-산길 타고 노량진까지 두문 유서까지

▶ 1963.11.5

始興一家殺害事件

眞犯두名逮捕

除隊兵인 金完鎔과 前職警察官 柳根昌

事件發生一週만에 犯行도 自白

大門위 빈틈으로 侵入

金은被殺者의 이웃에사는 十寸동생

柳는망보고 자귀와 칼로 차례차례 慘殺

僞裝과 架空재빨리 看破

나는 이렇게해서 犯人을 잡았다

犯人은동네안에있다고 짐작

煙幕戰術…葬禮式에參席

나는 이렇게 捜査陣을 꾀롭혔다

兄수일수야…警察心理逆利用

犯人은 이렇게 가까운데 있었는데…

軍用삽을發見

手配한安兵長도悲觀的

休業通告

서울市內 全浴湯 36個所營業停止에業者들反撥

변소의 피묻은 솜

事件即後 완선이 만안보였다

窮한판에 헐어먹자

농담이 진담되어 實演

살장수被殺

大學生이 焚身自殺

男便외도에 아내는 비관

杜門, 遺書까지

30分後現場에

老母는失神

시흥 일가 살인사건

▶ 1963.11.6

처의 머리도 地獄이라 했다

留置場서 心境 말하는 犯害殺家一興始

◇키기없는 웃음 만면에 띄우며 심경을 말하는 ○○○씨

◇이런 모든걸 체념한듯…고개숙인채 말없는 ○씨

夢惡온아찾 다마밤

다었수없 는견딜 못보고현場 症弦氣 면行犯

고랑노이하늘 다마다 할때事刑대

十월四일한수 그믐날 ○ 안양읍 ○○○(순경) 부 一명 조상을 목인 ○○○씨의 | 전처 ○○○씨가 피살된이날 | 안양읍 ○○○(순경) 부 | 지검 안양(지청) 전창석부 | 치장에서 목가 지지배한 | 단단히(우)부하되었다. | 도원하오 기자와 단단자 | 리에서 입남한 전부만·심정의 | 변명을 단하는것은 삼인칭이 | 기는 모두 해되었고 유 | 뉴 모두 삼인칭가 됐이었 | 다고 | 산여서단다 법연대처지의

안양읍 ○○○씨 | 전처 ○○○씨가 피살된이날 | 안양읍 ○○○(순경) 부 | 지검 안양(지청) 전창석부 | 치장에서 목가 지지배한 | 단단히(우)부하되었다. | 도원하오 기자와 단단자 | 리에서 입남한 전부만·심정의 | 변명을 단하는것은 삼인칭이 | 기는 모두 해되었고 유 | 뉴 모두 삼인칭가 됐이었 | 다고 | 산여서단다 법연대처지의

안양읍 ○○○씨 이웃지방유지 ○○○씨 | 안양읍 ○○○씨 | 안양읍 ○○○씨 | 안양읍

▶ 1963.11.7 조간 7(8)

죽인일없다…발뺌

柳의否認에 證據保全申請키로

始興一家殺害事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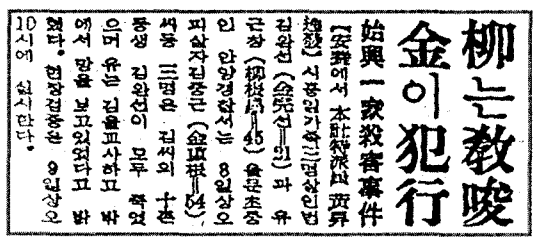
【安養에서 本社特派員 崔昇浩·金鍾根】 시흥읍가축뜸 (金重根=45) 씨를 목이지는않았다」고 법정에서부인한 김완선 (金完善=21) 과 유근창 (柳根昌=45) 을 구속된조중인 안양경찰서는 6일상오 유가 「나는 양물 보았을뿐 김중근 (金重根=45) 씨를 목이지는않았다」고 법정에서부인한것과 관련,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7일상오 10시에 현장에서 검사의 입회아래 현장검증을 하기로 되었다。

검찰에서 자백한 김의자백에서 지난4일검거된 유는 「양육강식이야!」 소리지르며 당당이 부인하다가 「법관앞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로 되었다。

시흥일가 살해사건 "죽인일 없다"…발뺌

柳根昌의 부인에 증거보전 신청키로

▶ 1963.11.9 조간 7(12)



柳는敎唆 金이犯行

始興一家殺害事件

【安養에서 本社特派員 崔昇浩】 시흥읍가축뜸 (金重根=45) 씨를 목이지는않았다」고 법정에서부인한 김완선 (金完善=21) 과 유근창 (柳根昌=45) 을 구속된조중인 안양경찰서는 8일상오 피살자김중근 (金重根=45) 씨의 三男을 김씨의 十촌 동생 김완선이 모두 목였으며 유는 김을교사하고 밖에서 망을 보고있었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은 9일상오 10시에 실시한다。

시흥일가 살해사건

柳根昌은 교사
金重根이 범행

▶ 1963.11.10

始興事件現場檢證

【始興에서 本社特派員 黃昇通】 시흥입가동三명살사건의 현장검증이 9일상오 11시35분부터 실시됐다.

이날 김완선 (金完善=45) 과 유문창 (柳文昌=21) 두범인은 머리를 푹숙이고 안면을 구타하면서 「이새끼

◇범행을 재연하는 김완선과 유문창 (金完善기자촬영)

엠을재연했는데 현장에는누 적하게 2신간15분동안 범 시간전부터 소래·방전머리 동 四방수여리부에서 구경 꾼四백여명이 몰려들어 두범 인을저주하게 지켜보았다.

속눈썹이 유난히길은 새 까만눈을 반짝이는 김은 피 색한 얼굴로 「권투」 바 지와 밤색국민복에 흰고무 신을신었고 빗지못한 관솔 머리가 덥수룩했다.

면도도못한 유는 밤색신 사복 저고리와 우유빛바지에고무신을신고범행당시 에전년된간색깨끗이입었다.

이들은 범행당일 범행현장에서 一백「미터」쯤 떨어진 벼낟가리뒤에서 처음 만났다해도 피살자 김씨 집뒤에서 합해잡피수며 김씨가 자기집기다리다가 김씨의 기침소리가 들려지자 대문턱주에 오줌을누고 김이 유의동정을보고 미문원三十五「센티」가량의 문간으로 들어섰이가 빗장을만무유가 뒤따랐고 김이조카우김(同종=29)씨가 자는안방을탐고 두번씩 유에게들아왔다가 조카와현수 十초경을 죽이는동안 유는도망하는범행을탐탐히재연했다.

두범인의 상치된 진술때문에 진범을 퇴오던 경찰은 이날 김이단독으로 三명을 살해했음을확인했다.

시흥사건 현장 검증

▶ 1963.11.28

金喜甲氏등 安養서負傷

【安養】 지난28일밤11시40분쯤 범아(55세) 영화주식회사 안양촬영소의 「세트」가무너져 김희갑(金喜甲=39)씨가중상을입고 황정순(黃貞順=40)씨와 정애란(鄭愛蘭=38)씨는 경상을입었다. 이날 김희갑씨등 一十여명의 남녀배우들은 문여송(文如松) 씨감독 「각하의 연애편지」 란 제목의영화를 촬영중 높이 四「미터」의 「세트」 가무너져 부상한것이다.

김희갑씨등

안양서 부상

▶ 1964.3.6 조간 1(1)

彈藥分解工場爆發

어제下午 安養附近

세名죽고 重輕傷者百9名

鹽素酸에 불붙어 修羅場化

爆風 4킬로밖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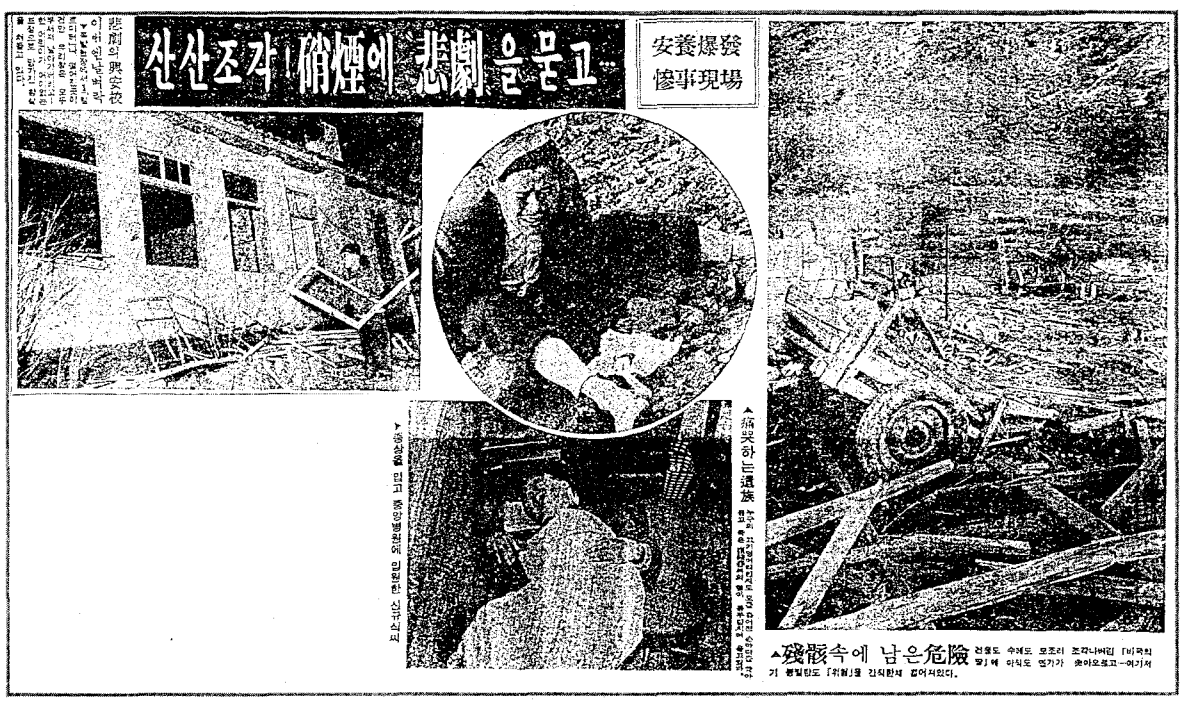
矯導所·興安校어린이도 큰被害

生地獄…하늘에서 굽어본現場

탄약분해공장 폭발

어제하오 안양부근, 세명 죽고 중경상자 백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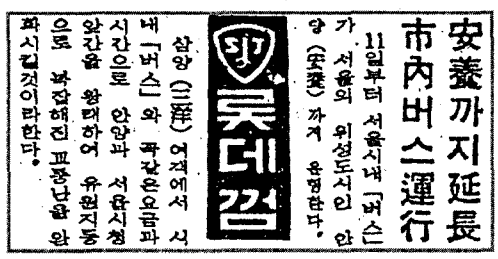
▶ 1964.3.6 조간 4(1)


산산조각! 硝煙에 悲劇을 묻고
安養爆發 慘事現場
殘骸속에 남은危險

안양폭발 참사현장

산산조각! 초연에 비극을 묻고…

▶ 1964.1.1


安養까지延長
市內버스運行
롯데껌

시내버스 운행

안양까지 연장

▶ 1964.3.6

땅꺼진 大爆音 生地獄 4時間

隣近마을 安養까지 震動…時計도「올·스톱」下午3時28分

「沒壓山」一帶에 덮친 硝煙의 慘劇

現場엔 아직 끊겨진 손목이

安養矯導所 在監者 한때 鐵窓잡고 아우성

彈藥爆發事故

安養矯導所 유리窓 8百枚 破損

九死一生으로 살아난 꼬마도

監房엔 피가 낭자

"映畵에서 본 原爆 같애"

흔적없이 날아간 作業場

처음 爆音 뒤이어 連달아

工場監督 吳씨 立件

不發彈 分解중 塩素에 引火

附近엔 危險散在…接近못해

2年前에도 事故 4名 死傷한 일도

韓末때 義兵이 汲戰당해

許可를 取消했던 工場

內務部監査에서 말썽나기도

2百40餘萬원 橫領所의 被害

吳氏도 危篤

땅꺼진 대폭발 생지옥 4시간

안양폭발사건

▶ 1964.3.7 조간 7(6)

安養의 悲劇 다 豫告했었다

矯導所側서 이미 撤去요청

"危險하니 없애주시오"

內務當局 對象밖이라고 通告

五百米나 떨어져 檢察서도 이를 重大視

檢察서 2名立件

의식되찾은 안양폭발사고의 두 증인

"원인은 화약 미찰. 공장측에 책임없다"

▶ 1964.3.8

原因은 火藥摩擦

意識되찾은「安養爆發事故」의 두證人

말못하는病床서 「펜」으로證言도 工場側에 責任없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吳씨

속보=안양(安養) 폭발사고 이 회복되는데로 구체의말을 듣고 오는9일 다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검찰부 장지민(張智民) 검사는 기술자 신규식(申奎植=34=서울마포구도화동二의二五七) 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협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이날검찰은 사고현장에서 중상을입은 五명중 최초로 의식을회복한 현장기술자 吳씨의말을듣고 폭발의원인을 조사하였으나 吳씨자신이 폭발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말하여 검찰은 吳씨의 말을 믿고 폭발원인은 吳씨자신이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吳씨가 현장에 있었다면 폭발원인을 알고있을것이라고 보고있다。

검찰관계자로 말하면 吳씨가 말을 못하지만 이날 『퍼기』와 『연필』 분(粉)、초산(硝酸)、『바리움』、화염소산가리(過鹽素酸加里) 등이 혼합된 것으로 조사결과 吳씨자신이 이들 화학약품을 혼합하였다는 것이 확실하고 『고무장갑』에서 나무가지로 분해하다가 화약이 폭발되어 이상이가 해져 폭발한것으로보아 『펜』을들어 종이에서 간단히 의사표시를했다。

한편 검찰은 현장에서중상을입은 관계자들의 의식을 회복하는데로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어째서 폭발했을까? 무슨 화약입니까? 하는 검사의질문에 「펜」으로 대답한 申씨의 증언。

두犧牲者火葬 어머니는失神까지

【富平】안양폭발참사로 비명에죽은 최종순(崔鍾淳=24)씨와 이숙희(李淑姬=23) 씨의 화장이 7일낮12시30분 富平산업화二리공동묘지에서 있었다。

부상민들의 협조로 삼삼오오 모아 화장을 한것인데 이날 처음의 어머니 이숙희(李順姬) 씨는 화장후 한줌의 재를 안고 실신했다。

의식되찾은 안양폭발사고의두증인

말못하는 병상서 펜으로 증언

▶ 1964.3.12 조간 7(4)

새試藥쓴게原因

安養事故끝結論

속보=안양폭발사건을 담당 수사중인 서울지검 장치민(張治民) 검사는 사고가난 지난 5일 폭발물에 묻어있는 「바리움」을 발견시키는 첫작업을 하다가사고가 발생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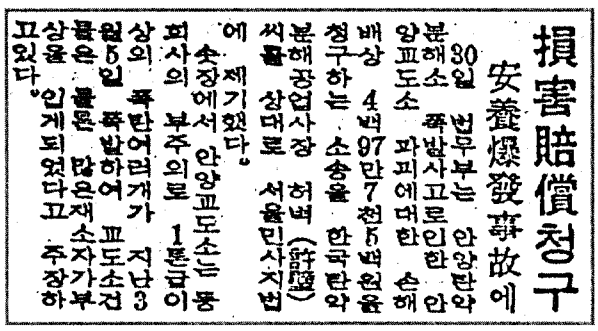
자세한 폭발원인을 캐내고있는 장검사는11일 『같이 비싸고 화장품원료로 쓰이는 「바리움」을 뽑아내기위해 현장기술책임자인 신규식(申奎植=34)씨가 사고당일 처음으로 약품미상의 화공약품을 섞어 화약분해하려다가 잘못되어 폭발한것같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폭발원인을 화약마찰에 두고 수사해온검찰은 이날 이와같은 새로운사실이 밝혀지자 새로사용한 약품의감정을 육군본부병기감실에 의뢰, 파학적감정이 끝나는대로 뚜렷한 사고원인을 밝혀 수사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안양사고 곧 결론

새 시약쓴게 원인

▶ 1964.3.31 조간 7(6)



損害賠償청구

安養爆發事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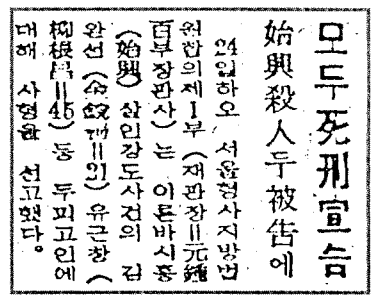
30일 법무부는 안양탄악분해소 폭발사고로인한 안양교도소 파괴에대한 손해배상 4백97만7천5백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탄악분해공업사장 허벽(許璧)씨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안양교도소는 동회사의 부주의로 1톤급이상의 폭탄어뢰개가 지난3월5일 폭발하여 교도소건물은 물론 많은재소자가부상을 입게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안양폭발사고에

손해배상 청구

▶ 1964.25 조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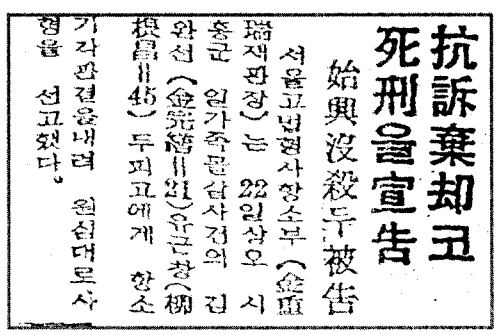
모두死刑宣告

始興殺人두被告에

24일하오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제1부(재판장 元鍾百부장판사)는 이튿바시흥(始興)삼인강도사건의 김완선(金完錄 31) 유근창(柳根昌 45) 등 두피고인에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시흥살인 두 피고에모두 사형선고

▶ 1964.7.23 조간 3(9)



抗訴棄却코

死刑을宣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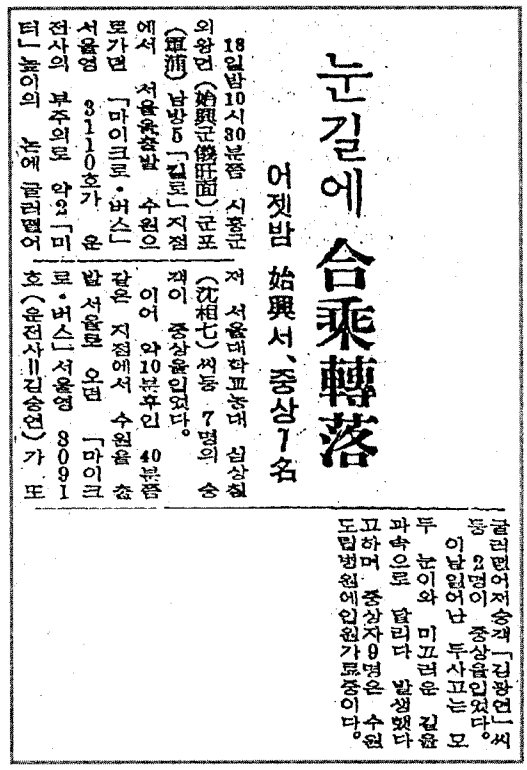
始興沒殺두被告

서울고법형사항소부(金瑞璿재판장)는 22일상오 시흥군 일가족몰살사건의 김완선(金完錄 31)유근창(柳根昌 45) 두피고에게 항소기각판결을내려 원심대로사형을 선고했다.

시흥몰살 두피고

항소기각하고 사형을 선고

▶ 1965.1.19 조간 7(2)



눈길에 合乘轉落

어젯밤 始興서、중상 1名

18일밤10시30분쯤 시흥군 외왕면(始興郡外旺面)군포(軍浦)남방5「킬로」지점에서 서울육송발 수원으로가던 「마이크로·버스」 서울영 3110호가 운전사의 부주의로 약2「미터」 높이의 논에 굴러떨어져 서울대학교농대 심상철(沈相七)씨등 7명의 승객이 중상을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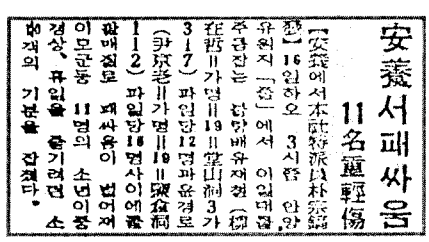
이어 약10분후인 40분쯤 같은 지점에서 수원을 출발 서울로 오던 「마이크로·버스」 서울영 8091호(운전사=김승연)가 또 굴러떨어져 승객「김광연」씨등 2명이 중상을입었다。

이날 일어난 두사고는 모두 눈이와 미끄러운 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발생했다고하며 중상자9명은 수원도립병원에입원가료중이다。

눈길에 합승 전락

어젯밤 시흥서

▶ 1965.5.18 조간 7(11)



安養서 패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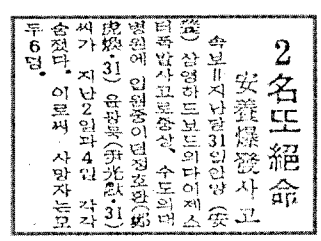
11名 重輕傷

【安養에서本社特派員朴宗鎬】16일하오 3시쯤 안양유원지「집」에서 이웃마을 주민간의 단체대항 패싸움(가명=19=安山洞3가 317)파일단12명과 윤경로(가명=19=興益洞 112)파일당15명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져 11명의 소년이중경상、부녀을 중기려던 소방차의 기본을 잡혔다。

안양서 패싸움

11명 중경상 박종호

▶ 1966.2.5 조간 3(8)



2名또絕命

安養爆發사고

속보=지난달31일안양(安養) 삼영하드보드의다이제스터축압사고로중상、수도의대병원에 입원중이던정희화(鄭熙和·31) 윤광복(尹光福·31)씨가 지난2일과4일 각각 숨졌다。이로써 사망자는모두 6명。

안양폭발사고

2명 또 절명

▶ 1966.4.26 조간 7(1)

"水路내나라" 投石戰

安養農民들 「韓一나일론」職員과 衝突

7名重輕傷

【安養駐在 鄭福滿記者】 안양읍 호계리(虎溪里) 한일(韓一)나일론 공장에서 60여명의 농민들이 「연수로(水路)와 도로안내를내라」(25일오전9시현재)

◇농민들이 한일나일론공무부장에 폭행을 가하고있다.

고농성, 동공장 중업원 70여명과부석전의충돌이있었는데 양하에 7명의부상자를냈다. 3년전 동공장 진입당시 공장측은 「수리및 도로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행치않은데 분격한 주민들이 이날아침 회사에 몰려 폭행을 했는데 1시간반만에 출동한 경찰에의해 해산됐다. 송상용 입은 조진(趙鎭·21·종업원) 씨는 이웃송안내원에 입원했다.

"수로 내놔라" 투석전

안양농민들 「한일나일론」직원과 충돌
(정덕한 안양주재 기자)

▶ 1966.11.20 조간 7(1)

小兒痲痺로 不具된 級友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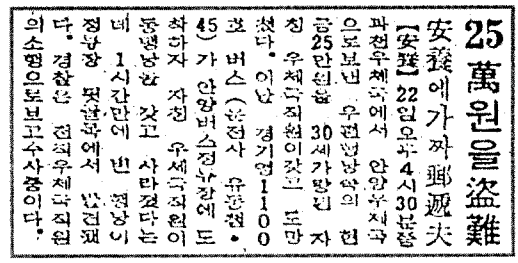
사랑의 登校4年

착하고 착한…安養 홍안국민교 조완석 어린이 「고갯길 10里」 업어

소아마비로 불구된 급우도와

사랑의 등교4년 -
착하고 착한…안양 홍안국민교 조완석 어린이, 「고갯길 10리」업어

▶ 1966.12.24 조간 3(10)



25萬원을 盜難

安養에 가짜 郵遞夫

【安養】 22일오후 4시30분쯤 관천우체국에서 안양우체국으로보낸 우편현금 25만원을 30세가량된 자칭 우체국직원이라고 또만 쳤다. 이날 경기영1100호 버스(운전사 유관철·45)가 안양버스정류장에도 착하자 자칭 우체국직원이 동행남을 갖고 사라졌다는데 1시간만에 빈 현장이 정류장 뒷골목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전직우체국직원의 소행으로보고수사중이다.

안양에 가짜 우체부 -

25만원을 도난

▶ 1967.1.1 조간 1(3)

統一號

貨物列車와 正面衝突

어젯밤 安養서 2名死亡 30名重輕傷

【安養특派現場에서 本社金泰準 崔大圭 鄭德鎭記者發】 2시간15분 남짓동안 31명밖 9시45분 안팎에 걸친 사망 2명이 중경상 30명이 생긴 안양역 구내에서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 2명이 사망 1명이 중상, 10명이 중상, 20여명이 경상을 입은 참사가 일어났다. <詳報는 3面에>

上行中 客車 4輛脫線 原因은 連絡不充分

◇死亡者
▲박춘수(23·제2군변소속·인소대·부산)
▲이정자(20·코스상생회부사업소·여대생)

◇重傷者
▲임의식(40·군수기지사령부·준위)
▲이창우(23·제2군변소속·병장)
▲백병호(32·부병기)
▲지환조(부경제대·수산)
▲정영길(36·부산한라사업부·소장·부동1가50)
▲김상비(24·제2군변소속·병장)
▲정천영(24·제2군
▲현소남(22·제3관구사령부·일병)
▲이강현(24·서울시립병원·간호원·대인동39의1)
▲차재인(12)
▲김정희(36·제63육군병원·간호원)
▲장영성(49·서

통일호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

어젯밤 안양서 2명 사망 30명 중경상
상행중 객사 4량 탈선
원인은 연결 불충분

▶ 1967.1.1 조간 3(1)

除夜의 阿鼻叫喚

車場 現列 現故 安驟 故事

광하자脫線、車에깔린채아우성
「超滿員歸省」 유리창차고脫出

◇탈선된 통일호 2등객차.대파된 객차속에는 2명의승객이 구출되지못한채 끼여있다.

【安養驛故 現場에서 本社金泰準 崔大奎 記者】귀성객들로 초만원인통일호의 사고지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바뀌었다.

예정시간보다 약3분늦은 통일호의 손님들은 대개 자고있었는데 별안간 「광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탈선했다.

기관차 바로뒤에있던 2등손님들은 한데서 깨어서로 얼굴 네다보았다. 이때 기관차쪽에서는 연기가 솟는듯 했다. 누군가가 「불이야!」하고 소리치자 승객들은 유리창을 넘고 차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군인 전용차량 밑에 갈린 한 사병은 몸을 꼼작도 못하며 지붕대를 달라고 아우성을 쳐 지붕대를 찾다주었으나 아무리 지붕대를 받치고 몸부림쳐도 빠져나올수 없었다. 군인은 새벽 2시까지 차밑에 깔려있다.

사고직후 역구내에는 약1천2백명의 승객들로 몰끓였으며, 집을 놓고 뛰어내린 승객들은 다시 차에 뛰어오르다가 뒤늦게 내리는 승객들과 싸우까지 벌였다. 한편 안전모르부장관과 양익식 철도청장이 직접 현장에나와 복구작업을 서두르는 철도청장은 안양역에서 6명의 숙직사원, 차장에 잡힌 사람들은 끌어내려고 차체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있다.

현장엔 급히 마련된 전등과 기관차 탄대를 동원, 헤드라이트로 밤히 비쳐 작업을 서두르고있다.

사고현장부로앗 김건너에 있는 한의제과점 주인 전정기(28·안양읍시대동92)씨는 사고가나자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 창문을부수고 10여명을 끄집어냈다.

전씨는 『중늘소리가 뇌성인듯 3억여명을동원, 토프처럼 오탄했으며』 사람살리라는 아우성과 유리창 깨는 소소리로 아비규환을 이루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통일호 뒤쪽 객차에 탔던 민희란(22) 해병상병은 연말휴가차 인천 자택으로 가던 길이였는데 팔을 감이어 붙이고 구조작업을 거들고 있었다.

사고현장은 길이높아 크레인차가 들어갈수없어 주변 3억여명을동원, 토프로 탈선객차에 매고 끌려는 작업이 계속되고있다.

이사고로 서울역에서는 호남선37연차, 호남선2025임시연차, 부산행보통급행열차등 3개열차가 떠나지못해 귀성객3천여명이 대합실에서 새해를맞았고, 약50여명이 여행을포기, 환불을 받았다. 안전모교통부장관, 양박식철도청장등이 현지에 나가 철도복구작업을 지휘했다.

철도청은 통일호승객의수송을위해 특차3대와 시내버스4대를 동원, 서울안양간을 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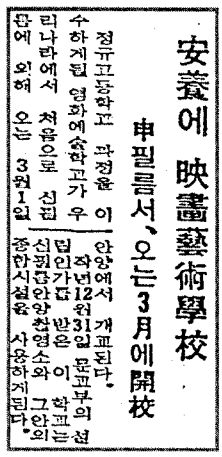
서울역에는 밤늦게 방송을듣고 달려온 5백여명의 가족들이 초조하게 승객을 기다렸다.

歸省客 3千餘명 서울驛서 발묶여

제야의 아비규환

안양 열차사고 현장. 광하자 탈선차에 깔린 채 아우성
「초만원귀성」유리창 차고 탈출

▶ 1967.1.7 조간 4(3)



安養에 映畵藝術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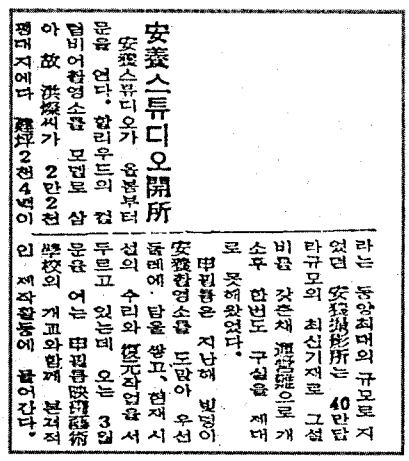
申필름서, 오는3月에開校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게된 영화예술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필름인가를 받은 이 학교는 신필름안양촬영소와 그 안에 외해 오는 3월1일 준한시설을 사용하게된다。

안양에 영화예술학교

申필름서, 오늘 3월에 개교

▶ 1967.2.14 조간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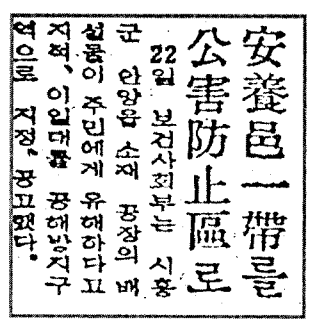
安養스튜디오開所

라는 동양최대의 규모로 지었던 安養撮影所는 40만달러규모의 최신기재로 그설비를 갖춘채 촬영소로 개소후 한번도 구실을 제대로 못해왔었다。

申필름은 지난해 빌딩이 安養촬영소를 도맡아 우선 돌레에 담을 쌓고, 현재 시설의 수리와 보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는 3일 문을 여는 申필름映畵藝術學校의 개교와함께 본격적인 제작활동에 들어간다。

안양스튜디오 개소

▶ 1967.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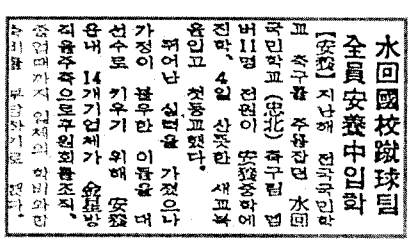
安養邑一帶를

公害防止區로

22일 보건사회부는 시흥군 안양읍 소재 공장의 배설물이 주민에게 유해하다고 지적, 이일대를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안양읍일대 공해방지 구로

▶ 1967.3.5 조간 4(7)



水回國校蹴球팀

全員安養中입학

【安養】지난해 전국국민학교 축구를 주름잡던 水回국민학교(6년) 축구팀 멤버11명 전원이 安養중학에 진학, 4일 산뜻한 새교복을 입고 첫등교했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으나 가정이 부우한 이들을 더 선수로 키우기 위해 安養읍내 14개기업체가 金品과 직을주선으로후원회를조직, 이들을 부산시지 안전의 한빛하인 [illegible]

수회국교 축구팀

전원 안양중 입학

▶ 1967.3.25 조간 3(1)

8세 어린이 피살

안양논두렁, 도끼로 찍히고 목 졸려

8歲어린이 被殺

安養논두렁 도끼로 찍히고 목졸려

【安養에서 鄭淵錫記者】 24일 오후1시쯤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 육교 북쪽 4백m지점 천진엎 논바닥 웅덩이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8세가량된 어린이(남)가 도끼로 이마를 찍히고 끈으로 목을졸린 타살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가정불화에의한 살인으로보고 수사중이다.

이 8세 어린이는 이날 하오 2시쯤 안양읍 석수리 공동묘지 입구 천진엎 논바닥 웅덩이에서 얼굴이 심하게 찍히고 목이 졸린 채 숨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 이명은(22·신안양리20)씨가 발견, 신고했다.

이 어린이는 붉은 바탕에 감색 바둑무늬의 모직 남방샤쓰와 검정잠색 메리야스 천으로된 타이스팜 입고 노란색 끈으로 묶은 고무신(앞표 대동고무신 길이 8㎝)을 신고있었다.

또 양손은 잡티끝 움켜쥐고 있었다.

피가낭자한 현장논둑에는 사과와 파자 부스러기 소주병(진로2홉)및 노란색으로 물든인 여자머리카락 한줌이 흩어져있었다.

경찰은 가정불화에의한 살인으로보고 수사중이다.

▶ 1967.3.29 조간 3(6)

계돈 못받자 살해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 계꾼 여인 구속

契돈 못받자 殺害

安養어린이사건 契꾼女人拘束

【安養】 안양경찰서는 28일 신정순 심리, 이유있다고 석방결정했다. 방면된 이날밤 석방결정했다. 방면된 이날밤 서울교도소를 나왔다.

이날 현재 범사체로 반건된 이승란(6·서울시 이태원동193)군을 죽인 범인으로 최영순(31·여장수·서울시용산동2가8)여인을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여인은 죽은 승란군의 어머니 김숙연씨와 작년2월부터 5만원짜리 계를 해왔는데 6월에 계가 깨져 불입금 2만5천원을 못받은데 원한을 품고 지난18일 아침 이군을 유괴, 버스편으로 안양으로와서 이군을 부근여인숙에 맡겨두었다는것이다.

최여인은 그러고난 다음 상경, 빚을 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1일밤 안양으로 다시내려와 승란군의 숙식비 4백원을 물어주고 범행현장으로 끌어내어 양잿물을 먹이고 끈으로 목을 졸라 죽여서 웅덩이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 1967.5.16

코로나運轉士칼맞아

어젯밤 始興郡內果川面 산중턱서

15일밤10시48분쯤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하리 산중턱에서 서울영1057 코로나택시 운전사정낙정(41)씨가 강도 연쇄파 열구리 등 4군데합전력 선고하는 것을 지나던 카두사 이영식일병(24) 등 4명이 발견, 안양경찰서 과천지서에 신고했다.

이 코로나택시는 차도에서 2m쯤 떨어진 골짜기에 고장이나 처박혀 있었다.

이일병등 4명의 목격자에 의하면 택시는 그곳 옆 이들이 지나가기 10분전쯤 승객을 태우고 산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이 있다고 한다.

현장은 강도살인미수사건으로 보고 범인을 전국에 수배했으며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운전사는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다.

과천면 산중턱서

코로나 운전사 칼맞아

▶ 1967.6.15

"市營버스 延長해주오"

果川面民 호소

경기도 과천면(果川面) 면민 약5백명은 현재 사당동(舍堂洞)까지 운행하고 있는 시영버스를 과천까지 연장운행해달라고 14일 서울시에 진정해왔다.

이들은 현재 이고장에서 움여객 시외버스 4대(동산-안양)가 매시간 운행하고 있으나 아침저녁으로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있어 불편이 큰데다가 차체가 노후하여 고장이 잦아 서울시내 직장에 근무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이 많다고 호소했다.

"시영버스 연장해주오"

과천면민 호소

▶ 1967.6.25 조간 8(3)

하루5~6回 斷電

安養邑소재 中小工場들 非難

하루 5~6회 단전

안양읍 소재 중소공장들 비난

【安養】 한전당국은 안양읍 12개공장에 대해서만 계획적인 송전제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중소 공장에 대해서는 하루에도5, 6회나 아무예고없이 송전을 제한하고있어 입부공장측의 비난이높다.

24일 현재 한전 당국은 5백kw이상의 전력을 쓰는 금성방직등 11개 업체에대해 4일에 하루, 4백kw이상을 쓰는 고려석면은 6일에 하루씩 정기적으로 송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천전문업체인 현대양행, 동국물산등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하루에 5, 6회씩 수시로 송전을 제한, 기계속에서 만들어지던 제품은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목표량산 기일내에 만들지못하게되었다고 아우성이다.

▶ 1967.9.29 조간 3(6)

死刑求刑

安養少年유괴여인

안양 소년 유괴여인 사형 구형

서울지검 강달수 검사는 28일 겨든 2만여원을 돌려주지않는데 원한을 품고 계주의 아들을 유괴, 목졸라 죽인 안양소년유괴살인사건의 최영순 피고인(31·서울용산구 용산2동 2가8)에게사형을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공판에서 강검사는 『재권화보를 못했다는 이유로 어린생명을 숨지게한것은 생명의 존엄성에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그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논고했다.

▶ 1967.11.30 조간 8(1)

춘사羅雲奎 동상 기공

안양영화학교서 영화인 모여

취미 趣味 오락 娛樂

春史 羅雲奎 銅像기공

安養映画学校서 映画人모여

영화계의 선구자 故春史羅雲奎의 동상기공식이 28일낮3시 安養 申리읍 영화예술학교마당에서 있었다. 서울大金水學교수 설계로된 이기념비는 내년4월 제막식을 가질 예정인데 총공사비는 2백만원을 계상하고있다. 높이13尺, 폭10尺짜리의 이大理石기념비는 총공사비 11원28일 전액을 부담하여 기공됐다.

◇映畵人들의 起工式

이날 기공식에는 尹逢春 卜惠淑 申相玉 金一仙 李金林 黃鶴洙씨 등 가족과 관계자 대표하여 金永煥교수 등 10명이 참석했고, 金勝鎬 姜銀姬 申榮均씨등 스타들도 총출석했는데, 특히 故春史의 대표작인 「아리랑」에 출연한 왕년의 연기자들이 모두 참석, 참석자들은 이 2점을 합창한 기공식 피날레는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 1968.1.16 조간 8(1)

골프

極東대회 出発늦어 焦燥

★룸펌로 갑힌골퍼들

○…14일은 골퍼 최영의 생일이었다. 이날 기념권이있다. 이전남로 기독권인있다. 이전남로 기독권인있다. 이전남로 기독권인

▶ 1968.3.6 조간 3(12)

死刑確定
安養유괴殺人犯

대법원은 5일 안양어린이 유괴살인사건의 최영순(崔水順·36·서울용산구용산2동 2가8) 피고인의 살인피고 상고심판결에서 최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시켰다.

최피고인은 작년3월21일 겐돈2만원을 요구하고 김순궁(金順中·34·용산구이태원동139) 어린이 2남 이성관(李成官·6) 군을 시흥군안양읍신안양리644 논둑으로유괴, 양잿물을 먹인뒤 목을졸라 죽인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안양유괴살인범

사형확정

▶ 1968.3.26 조간 7(11)

서울大安養移転案
次官회의서保留돼

문교부는 25일 서울대학교 시설확충10개년계획을 차관회의에 올렸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되지않아 보류되었다.

이계획에 의하면 67년부터 76년사이에 내자 2백28억 2천3백97만원과 외자 1천7백12만4천6백달라를 들여 의학 농업 공업계를 제외한 다른대학의 종합캠퍼스 부지로 2백여만평을 적당한곳에확보, 전입하는것으로 되어있다.

서울대 안양이전안

차관회의서 보류돼

▶ 1968.3.31 조간 7(1)

안양 서귀포등

19개읍…곧 시로 승격.
연내 백80여지구 개편

19個邑市로昇格

安養 西歸浦등 年內 百80餘지구 改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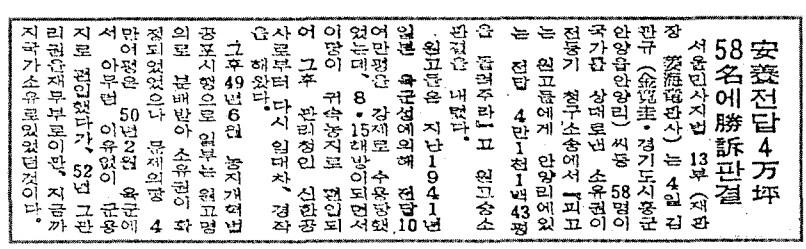
市로 昇格될 19個邑

東豆川 松炭 安養 衿川 (京畿)
鐵原 長湍 (江原) 堤川 (忠北)
公州 (忠南) 南原 金堤 井邑
(全北) 羅州 茂橋 (全南) 永川
尙州 榮州 (慶北) 密陽 金海
(慶南) 西歸浦 (濟州)

▶ 1968.4.5 조간 4(3)

안양전답 4만평

58명에 승소판결



安養전답 4万坪
58名에 勝訴판결

서울민사지법 13부 (재판장 崇海燮판사)는 4일 김완규 (金完圭·경기도시흥군 안양읍안양리) 씨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양리에 있는 전답 4만1천143평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1941년 일본 육군성에의해 전답10여만평을 강제로 수용당했었는데, 8·15해방이되면서 이땅이 귀속농지로 편입되어 그후 원래주인 신한공사로부터 다시 일대차, 경작을 해왔다.

그후 49년6월 농지개혁법 공포시행으로 일부는 원고명의로 분배받아 소유권이 확정되었었으나 나머지땅 4만여평은 50년2월 육군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국방부로 편입했다가, 52년 군관리권만재부부로이관, 지금까지 국가소유로있었던것이다.

▶ 1968.5.24 조간 3(5)

「安養포도주」에 메타놀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중 가장 이름있는 포도주의 하나인 「안양포도주」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타놀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서울시경은 23일 「안양포도주」의 본포인 경향포도협동조합에서 인체에 유해한 「안양포도주」 7백병을 압수하고 동조합장 김창법(金昌範·52·경기도부천군소사읍신곡리)、공장장 민태학(閔泰鶴·53·서울서대문구옹암동 54)씨등 2명을 식품위생법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전무 박한인(朴漢仁)·58·영등포구노량진동38)、동조합서기 홍기전(洪基銓)、동협중앙회참사 안장호(安章鎬·49·동조합판리인)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경향포도협동조합에서는 63년부터 농협중앙회로부터 3천만원의 생산자금을 융자까지 받아가며 「안양포도주」를 생산해왔는데 (금년목표량 2천섬) 지난 2월에 생산된 10드럼분에서 메타놀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포도주의 메타놀법정함유량은 0·1%이하이어야하는데 경기도위생시험소등에서 「안양포도주」를 감정한 결과 0·12%가 검출되었다한다。

그런데 메타놀은 인체에 5%만 축적되면 실명되고 그이하가 축적되어도 간장이 나빠지는등 지극히 유해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농협에서 융자받은 생산자금중 지난 2월 2백63만원을 횡류함으로써 포도주를 조잡하게만들어 팔아왔다는 사실을 적발하고、현재 시중에 나도는 「안양포도주」의 성분을 감정키위해 샘플을수

▶ 1968.5.7 조간 8(3)

冠岳에 푸른請願警察

安養서 1年制会員모집

○…어린이날인 5일의 각 골프場은 前週보다는 비교적 한산한편。「어린이들을 데리고 놀에 나갔거나 青少年축구에 갔기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골프場관계자들은 풀이。

○…서울에선 蠟우会등 친목경기로 봄맞고、漢陽에선 丁총리등 행정각료와 金鍾泌당의장등 의회간의 친선경기외에 方円会경기가 있었고、뉴코리어엔 은행가의 거두들이 많이 보였다。

골프

○…冠岳엔 前願경찰이 처음등장、관심을 모았다。金鍾泌(財務)에의하면 『일부 취객등의 행패가 너무 심해 경비원으로는 감당키어려워 청원경찰로 바꾼것』이라고。아물튼 푸른制服의 모습이 골퍼들의 눈에 자주안띄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여론。

○…安養이 6만원 1년제 会員을 2백명모집했다。여자는 무조건 회원대우。회원은 그린피가 平日5백원、公休日1천원、비지터는 平日1천5백원、공휴일3천원、캐디피는 5백원이라고。会員용버스가 금주부터 다닌다고。〈O〉

〈골프〉 안양서 1년제회원 2백명 모집

「안양포도주」에 메타놀

▶ 1968.5.30 조간 6(1)

週末을 즐겁게

水原 딸기밭

보리물결속 田園情趣
푸른地帶등今週부터제철

고루 갖춰진 오락시설

安養 유원지

수원(水原)에 자리잡은 반환농원(觀光農園)이 이번일요일(6월2일)에 개장한다.

수원시근교의 딸기농장은 농대뒤의「푸른지대」가 이번일요일(6월2일)에 개장한다.

수원시근교의 딸기농장은 농대뒤의「푸른지대」와 「지지대고개」 농장, 창인 김목동 10만여평. 그중에서도 「푸른 지대」가 시설이 잘돼있고 유명하다. 서울서 수원까지 이르는 길은 포장이 잘돼있어 자동차로 약1시간 남짓걸린다. 차편은 서울역앞에서 떠나는 특급버스는 1백원, 합승은 85원, 급행버스는 85원, 기차편은 55원이다.

딸기철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휴일날 수원지방에는 4~5만명의 인파가 밀려들어 버스와 기차표등은 출발에정시간의 한시간 전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름한 정원의 찻집들 중기는「푸른지대」엔 본지동 시설이 되어있다.

「푸른지대」는 올해에 구획자 있다. 경수연변의 그목장 보리는 벌써 이삭이 패고 있는 서호(西湖) 와 「지지대고개」는 내신망까지 차려놓고 주차장, 구내매점과 7천평의 정원에 3천명의 손님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푸른지대」의 입장료는 1인당 1백70~80원이다. 정원입대에는 아이리스와 동백이 만개, 정취를 한껏 돋우고있다. 수백년묵은 노송이 우거져 있는 「지지대고개」는 만개한 아카시아 꽃향기로 방문객을 맞고있다.

입장료는 어린이 1백원, 학생 1백50원, 일반 2백원이다. 정원에는 아이리스, 동백, 장미, 튤립 한껏 돋우고있다. 수백년묵은 노송이 우거져 있는 「지지대고개」는 만개한 아카시아 꽃향기로 방문객을 맞고있다.

「푸른지대」의 입장료는 1인당 1백70~80원이다. 정원입대에는 아이리스와 동백이 만개, 정취를

▶ 1968.2.14 조간 4(3)

実弾 11万餘発 유출

安養弾薬庫서…兵器官등 셋拘束

13일 육군제15범지수사대는 안양에있는 군탄약고에서 카빈및 M1소총실탄 11만9천9백66발 (싯가 50어만원)이 부정유출된 사실을 밝혀내고 육군○○부대 병기관 장권상 (28) 대위및 탄약고 관리하사관 김광광 (27) 병장등 3명을 긴급구속했다。

군당국에의하면 이들은 지난1월 공문서를위조, M1 카빈실탄을 탄약창에반납한 것처럼 꾸민후 트럭에실어 내미리대기중인 민간인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실탄 11만여발 유출 안양탄약고서…

병기관등 셋 구속

▶ 1968.5.13 조간 8(3)

골프

잔디좋은「安養」은 온통 초록바다

투볼포어섬方法

○…11일 「서울」에서 있은月例경기는 「2볼포어섬」경기로 열려 4명 1組에서 2명마다 공하나로 교대로 치면서 플레이하기에 열중-10년만에 열린 이 경기는 전 PGA準會員테스트 통경기의 성적은 A조① 김제환 71 ②김용준 72 ③이동진 73 M 노창호 68 ④유원상 79 (G) B조①김정섭 64 ②차실 67 ③박수형 67 M차실 76 (74) ②張昌煥 (서울) 이150 (75-75) ③남燦온(錦繡) 151。

○…69연도 PCA 제1차理事회선발경기가 12일 冠岳에서 60명의 프로지망생이 참가한 가운데 B조 ①金정섭 64 ②차실 67 ③박수형 67 M차실 76 (74) ②張昌煥 (서울) 이150 (75-75) ③남燦온(錦繡) 151。

○…잔디가 좋고 코스가 무난하기로 이름난 安養코스는 온통 초록의 바다-이날 素尙郁청와대 변인 金東祚씨등이 오전에 18홀을 마쳤으며 공화당의 蓋步會경기가 한창。심역이는 후라이보이 郭主錫이 李載春씨와 코스를돌며 시종 조크-金錫昌전무는 「보다좋은 서비스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C〉

〈골프〉잔디좋은「안양」은 온통 초록바다

▶ 1968.7.18 조간 3(11)

人夫4名重傷

安養서 담무너져

17일 오전10시30분쯤 안양읍 안양리120 현대양행 (대표 정인영) 차량부속품 공장의 5m높이 담벽이 무너져 밑에서 일하던 인부 임순호 (25·안양읍안양리) 씨등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안양서 담무너져 인부 4명 중상

▶ 1969.09.12 조간 3(10)

鄭의원 강제귀가

안양서 서울오다 경찰차에 태워

◇경찰이 타지않으려는 정의원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있다.

鄭의원 強制帰家

安養서 서울오다 警察車에 태워

3선개헌반대 도보행진을 벌인 신민회 정성태(鄭成泰) 의원은 11일오후3시20분쯤 안양에서 서울에 돌아오던중 서울시 접도지구에서 대기중이던 노량진 경찰서장등에 의해 경찰차에 실려 삼청동 자택으로 강제 귀가당했다.

정의원은 이날 식용에서 입방, 12일 서울역에서 환영식을 가진다음 국회로 등원할 예정이었다.

▶ 1969.10.30 조간 8(4)

축구장서 첫 사고

안양-구례중 경기하다 헤딩 부상

蹴球場서 첫事故

安養·求礼中경기하다 헤딩負傷

29일오전 中央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된 전국체전 중등부축구경기에서 安養中(京畿)과 대전중인 求礼中(全南) 팀의 품백차 동선선수와 센터 하프 이규명선수가 점프 헤딩을 하려다 충돌, 李선수는 머리가 깨지고 車선수는 이빱 두개가 부러졌다.

이사고로 경기가 약5분간 중단되었는데 신입 金在植 선수는 全南지사가 마침 찾아와 부상한 두선수를 격려하고 선전분투하여 이긴것을 당부했다.

▶ 1969.11.19 조간 3(4)

안양 3천여 주민들 궐기대회

"폐탄처리장 설치말라"

◇폐탄처리장 설치반대에 나선 안양읍민들.

"廢彈처리장 설치말라"

安養 3千餘주민들 궐기대회

【安養】 18일 오전10시 안양읍민 약3천명이 안양극장에서 폐탄처리장 설치반대궐기대회를 열고 시흥군 청앞까지 가두데모, 긴급총동원 30여명의 경찰에의해 2시간만에 해산했다.

주민들은 경기도당국이 수원시파장동의 폐탄처리장을 안양읍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2km밖에 떨어지지않은 수리산중턱에 이전설치키로 확정짓자 지난3일부터 반대요로에 진정하는등 설치반대운동을 벌여왔다.

▶ 1970.3.20 조간 7(9)

밤만되면 「안내」불통

안양전화 야근자들이 "통화중"조작

밤만되면 「案內」不通

安養전화 夜勤者들이 "通話中"조작

【安養】 안양전화국의 야간근무자들이 각종신고접수전화의 기계를 조작, 「통화중」이 정리되도록 해놓고있었음이 최근 자체조사결과 밝혀졌다.

19일 확인된바에 의하면 안양읍내에서 자동전화를 쓰고있는 안양전화국의 110(고장신고), 114(안내), 115(전보접수) 등 신고전화가 항이면 번번이 통화중이거나 아예 신호조차 정리지않는등 거의장화가 되어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왔는데 기술계 최모계장등 직원이 비밀리에 조사한결과, 고의적인 조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양전화국에 배속된 전화안내양의 인원수가 모두 24명이며 특히남씨가 근무한 110안근직원이 기계조작을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 1970.4.12 조간 8(4)

安養·中大附先頭

春季蹴球리그

◇제7일전적 (11일 光昌球場)

▲中2部

安養 2－0 大成 (2승) (1패)

▲高等1部B組

中央 1－0 安養工 (1승1무1패) (1무2패)

▲高等1部C組

中大附高 2－0 東北 (2승1무) (2승1패)

徵新 2－0 培材 (1승2무) (3패)

慶熙 1－0 中東 (1승1무1패) (1승2무)

춘계 축구리그에서

안양-중대부 선두

▶ 1970.4.14 조간 6(7)

中2部서安養우승

春季中高蹴球리그

◇제9일전적 (13일·光昌)

▲中2部

大成2 (1－0) 0 城北 (1승1패) (2패)

▲高2部

水原12 (8－0) 0 城北 (1승1무1패) (1무3패)

漢陽工B 2 (1－0) 0 徒文 (3승) (2승1패)

▲同1部

漢陽工1 (0－0) 0 徵新 (1승1무) (1패)

▲中2部종합순위=①安養 2승 ②大成 1승1패 ③城北 2패

춘계중고 축구리그 중2부서

안양 우승

▶ 1970.4.23 조간 7(8)

安養서도 対策호소

工場廃水로 못자리 썩어

왼쪽끝이 두목 한봉조.

【安養】 21일 시흥군서면일직리 김종완(58)씨등 안양천변몽리 농민대표 12명은 안양일대의 각공장에서 버린 폐수의 농도가 짙어져 파종한 못자리가 밥아도 하기전에 썩어버리는등 1천2백만평의 올농사를 망치게됐다고 각공장과 관계요로에 몰려가 항의, 대책을 호소했다.

안양천하류의 유목정보(낙차공)에서 하천수를 끌어들여 경작하고있는 이들은 1천여만평에 심을 4천평의 못자리 볍씨가 짙은농도의 독성폐수때문에 밥아와 함착을, 못해 썩어버렸고 나머지 파종해야할 못자리 7만평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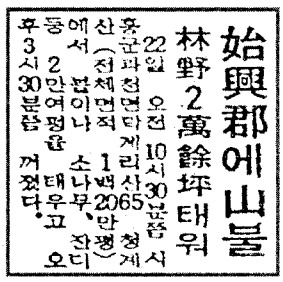
이같은 공해현상은 안양일원에 공장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6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계속된 가물으로 안양천을 흐르는물이 모두 공장폐성폐수로 오염되어 더욱 피해가 많다는것이다.

농민들의 항의로 일부공장에선 발등기를 동원, 저하수를 퍼올려 못자리에 주고, 군당국은 긴급비상대책으로 양수기를 동원하고 있으나 이 일대는 관정등 한해대책용 시설이 없어 실효를 보지못하고 있다.

공장 폐수로 못자리 썩어

안양서도 대책 호소

▶ 1970.4.23 조간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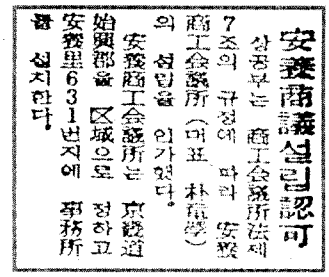


始興郡에 山불
林野 2萬餘坪 태워
22일 오전 10시30분쯤 시흥군과천면다계리산65 청계산(전체면적 1백20만평)에서 불이나 소나무, 잔디 등 2만여평을 태우고 오후 3시30분쯤 꺼졌다.

시흥군에 산불

임야 2만여평 태워

▶ 1970.6.9 조간 4(10)



安養商議설립認可
상공부는 商工会議所法제7조의 규정에 따라 安養商工会議所(대표 朴龍學)의 설립을 인가했다.
安養商工会議所는 京畿道 始興郡을 区域으로 하고 安養里631번지에 事務所를 설치한다.

상공부

안양상의 설립인가

▶ 1970.8.8 조간 8(4)

安養과 水原
즐거운 週末을
葡萄가 익어가는 계절
安養 옛 부터 名物…幽谷서 避暑겸한 味覺
편리한 交通…家族함께 즐기기 좋은곳 水原
「푸른지대」와 「老松地帶」

〈즐거운 주말을〉 안양과 수원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임박

▶ 1970.10.9 조간 7(9)

7名이 설사

【安養】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 삼락동일대에 수인성전 염병이 번져 8일현재 하상용 (65) 씨등 7명이 앓고있다. 이병은 지난 5일 하씨가 처음앓기시작했는데 고열에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고있다.

군보건소는 하씨등 2명을 서울대학부속병원에, 구관서 (21) 씨등 5명은 수원도립병원에 격리수용하고 방역에 나섰다.

안양에서 7명이 설사

▶ 1970.11.21 조간 4(10)

現代軍浦鑄物공장 곧가동

自動車부속품등 海外수출

의 대부분을 수출할 계획인데 이미 英国, 英国, 캐나다등의 商社들과는 契約을 할 단계라는 얘기.

界에서는 관심들이 대단한데 이미 鑄物제품의 需要가 국제적으로 增大하고 있는데 비해 대부분의 先進国에서는 생산비의 과

다로 사양산업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 산업이다.

〈재계〉 현대군포 주물공장 곧 가동

자동차 부속품 등 해외 수출

▶ 1970.12.27 조간 6(1)

京水道路따라「아메바」發展

◇서울시 편입을 기다리는 과천면 하리.

安養·果川·南面地区

取水容易한 南面엔 工場밀집

수암川 埋築, 商街·宅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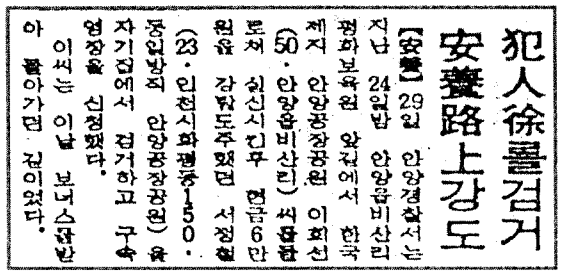
安養駅앞 중심가는 坪当 15萬원呼価

果川은, 땅값만 뛰어 開発에 支障초래

〈수도권 정보〉 안양-과천-남면지구

경수도로 따라 「아메바형 발전」,
취수용역한 남면엔 공장 밀집

▶ 1970.12.30 조간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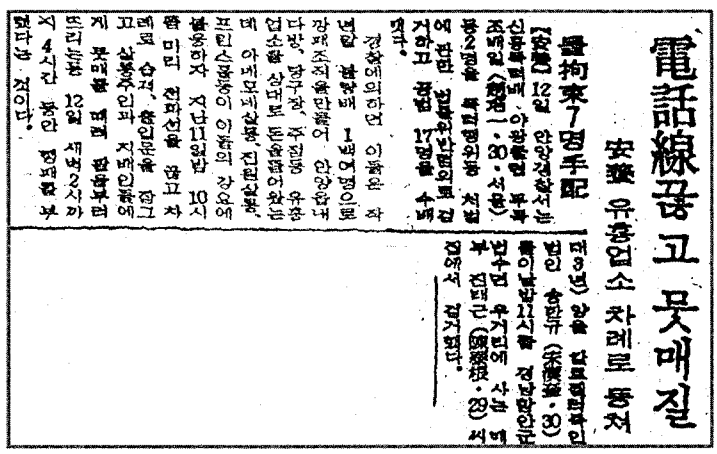
犯人徐를검거
安養路上강도

【安養】29일 안양경찰서는 지난 24일밤 안양읍비산리 평화보육원 앞길에서 한국제지 안양공장공원 이희선(50·안양읍비산리) 씨를 덮쳐 쉰신시신무 현금6만원을 강탈도주했던 서정철(23·인천시화평동150·동일방직 안양공장공원) 을 자기집에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서는 이날 보너스를받아 돌아가던 길이었다.

안양 노상강도 범인 검거

▶ 1971.01.13 조간 7(11)



電話線끊고 못매질
安養 유흥업소 차례로 등쳐

【安養】12일 안양경찰서는 신용특혜대·아광출판 부녀 조세입(회원1·30·서울) 등2명을 특경법위반등 저법에 판한 법률위반등 저법 17명을 수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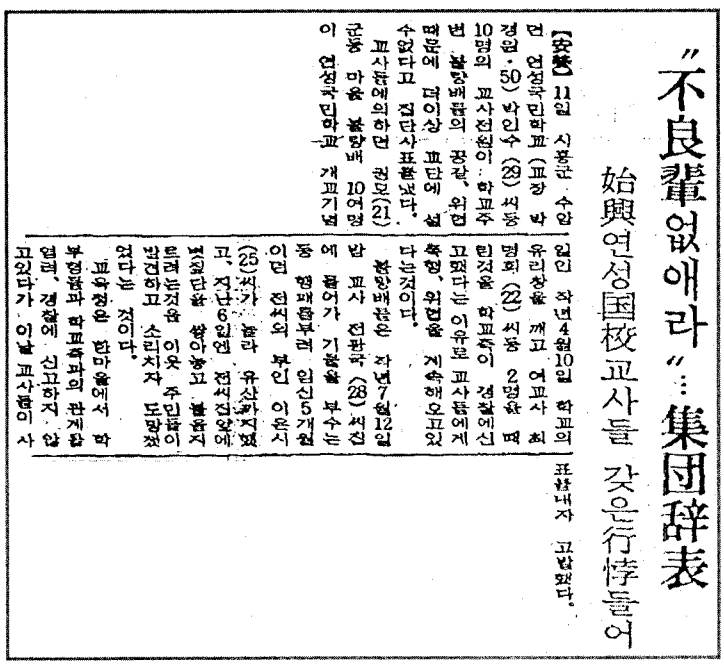
경찰의하면 이들은 작년말 현재로 1백여명으로 강력조직을만들어 안양관내 다방, 당구장, 주점등 유흥업소를 상대로 돈을갈취하는데 아내모의갈봉, 진린상봉, 프린스봉등이 이들의 강요에 불응하자 지난11일밤 10시쯤 미리 전화선을 끊고 차례로 습격, 욕설문을 한그리고 상봉주인과 지배인들에게 봉대를 때리 함부로 미리 12일 새벽2시까지 4시간 동안 폭행을 부렸다는 것이다.

(대9년) 양을 법로협력자인 송탑규(宋榻奎·30) 등이날밤11시쯤 정란항안군 범수면 우거리에 사는 네부 진태근(陳泰根·29) 씨 집에서 검거했다.

전화선끊고 못매질

안양 유흥업소 차례로 등쳐

▶ 1971.2.12 조간 7(9)



"不良輩 없애라"…集団辞表

始興연성国校교사들 갖은行悖들어

【安養】11일 시흥군 수암면 연성국민학교(교장 박경림·50) 박인수(28) 서동 등 10명의 교사전원이 학교주변 불량배들의 공갈, 위협, 위법행위에 더이상 교단에 설 수없다고 집단사표를 냈다.

교사들에의하면 권모(21) 군등 마을 불량배 10여명이 연성국민학교 개교기념일인 작년4월10일 학교의 유리창을 깨고 여교사 최 명희(22) 서동 2명을 때린것을 학교측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폭행, 위협을 계속해오고있어 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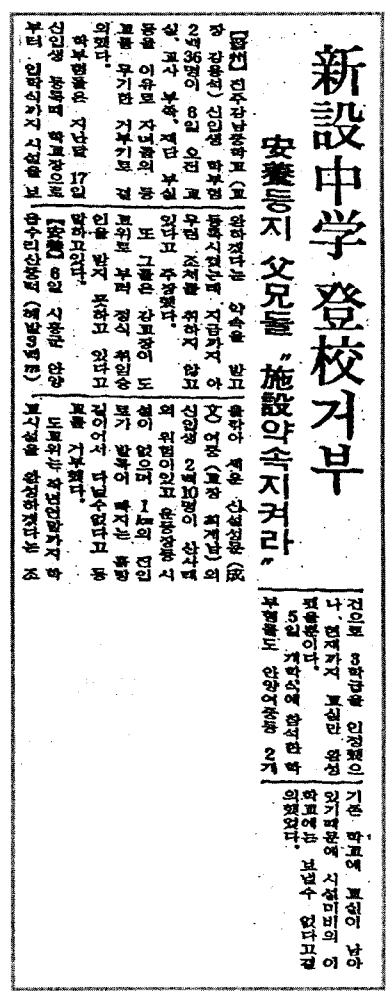
불량배들은 작년7월12일 밤 교사 전원을 (28) 서진이 연성국민학교 개교기념일인 작년4월10일 학교의 유리창을 깨고 여교사 최 명희(22) 서동 2명을 때린것을 학교측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폭행, 위협을 계속해오고있어 다는것이다.

불량배들은 작년7월12일 밤 교사 전원을 (28) 서진

"불량배 없애라" …집단사표

시흥연성 국교교사들 불량배들에게 갖은 행패들어

▶ 1971.3.7 조간 7(1)



新設中学 登校거부

安養등지 父兄들 "施設약속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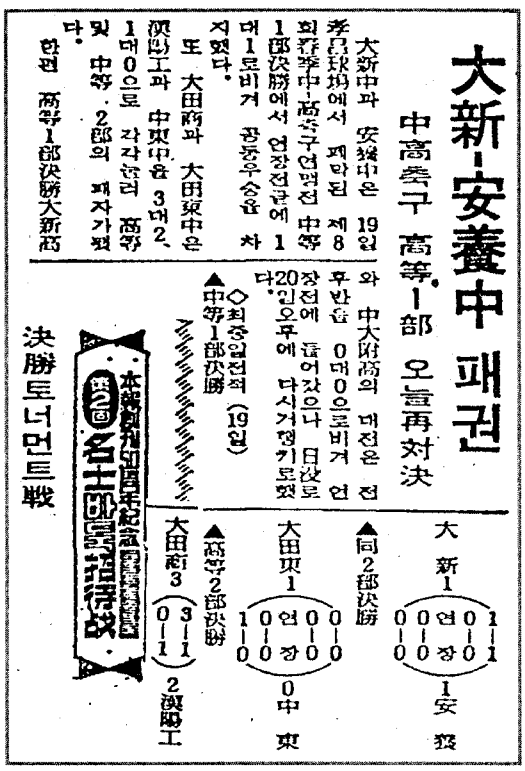
【안양】민주공화당중앙정보부 안양정보분실장 김용원) 신인생 학부형 2백36명이 8일 오전 10시 현재 교사 부족, 재단 부실 등을 이유로 자녀들의 등교를 무기한 거부키로 결의했다.

학부형들은 지난달 17일 신인생 동명대 학교장으로부터 인락시까지 시설을 보

신설 중학 등교거부

안양등지 부형들 "시설 약속 지켜라"

▶ 1971.4.20 조간 8(6)



大新·安養中 패권

中高축구 高等·1部 오늘再対決

大新中과 安養中은 19일 孝昌球場에서 폐막된 제8회 中高축구연맹전 中等1部決勝에서 연장전끝에 1대1로비겨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또 大田商과 大田東中은 決勝工과 中興中을 3대2, 1대0으로 각각눌러 高等 및 中等 2部의 패자가 됐다.

한편 高等1部決勝大新高와 中大附高의 대전은 전후반을 0대0으로비겨 연장전에 들어갔으나 日沒로 20일오후에 다시거행키로했다.

◇최종일전적 (19일)

▲中等1部決勝

大新 1 (0-0 연장 0-0) 1 安養

▲同2部決勝

大田東 1 (0-0 연장 0-0) 0 中東

▲高等2部決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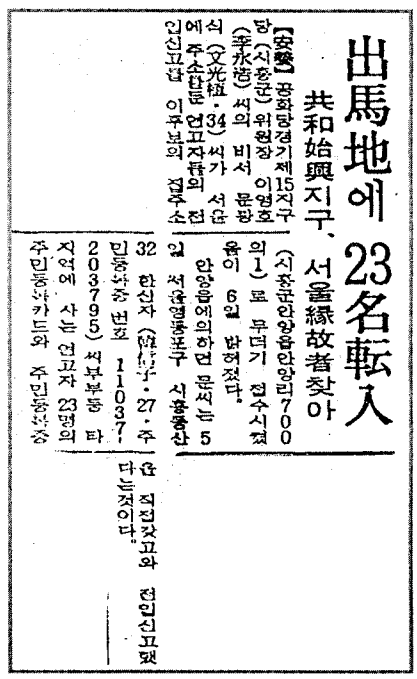
大田商 3 (3-1 0-1) 2 決勝工

決勝토너먼트戰

중고축구 -

대신·안양중 패권

▶ 1971.5.7 조간 7(7)



出馬地에 23名転入

共和始興지구, 서울緣故者찾아

【安養】 공화당경기제15지구당(시흥군·안양읍·안양리 700의1)로 부터기 접수시켰음이 6일 밝혀졌다.

안양읍에의하면 문서는 5일 서울영등포구 시흥동산 32 한신자 (韓信子·27·주민등록증 번호 110372039795) 씨부부등 타지역에 사는 연고자 23명의 주민등록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직접갖고와 전입신고했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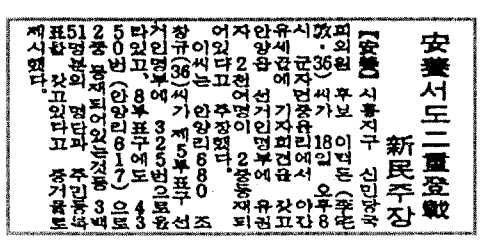
(시흥군안양읍안양리700의1)로 부터기 접수시켰음이 6일 밝혀졌다.

식(文光植·34)씨가 서울에 주소한분 연고자들의 전입신고를 이루보의 접수소

출마지에 23명 전입

공화시흥지구, 서울연고자 찾아

▶ 1971.5.19 조간 7(12)



安養서도二重登戰

新民주장

【安養】 시흥지구 신민당국회의원 후보 이명든(李明燉·36)씨가 18일 오후 8시 군자면중유리에서 유세단에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읍 선거인명부에 2중등재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안양리 680 조창규(36)씨가 제5투표구 선거인명부에 325번으로등재되어있고 8투표구에도 435번(안양리 817)으로 2중등재되어있는것을 3백50명분의 명단과 주민등록증거류로 제시했다.

안양서도 이중등재-

신민주장

▶ 1971.6.13 조간 8(1)

安養·中大附、馬山工·東亞꺾어

大統領盃 고교蹴球

제4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京鄕신문주최)가 12일 蚕島球場에서 전국의 강호 20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安養과 中大附는 馬山工과 東亞를 1대0, 2대1로 누르고 각 2회전에 진출했다.

培材는 大田商의 불참으로 기권승을 거두었다.

◇첫날전적 (12일)

安養高 1 (0-0 1-0) 0 馬山工

中大附 2 (2-0 0-1) 1 東亞高

培材 기권 大田商

◇中大附對東亞高戰—후반 8분을남기고 東亞高CH차경복이 강슛을 시도했으나 골포스트를맞고 튀어나왔다.

대통령배 고교축구 - 안양 · 중대부

마산공 · 동아꺾어

▶ 1971.8.22 조간 6(1)

養鷄·목장地帶

「郊外派 도시민」 趣向에 맞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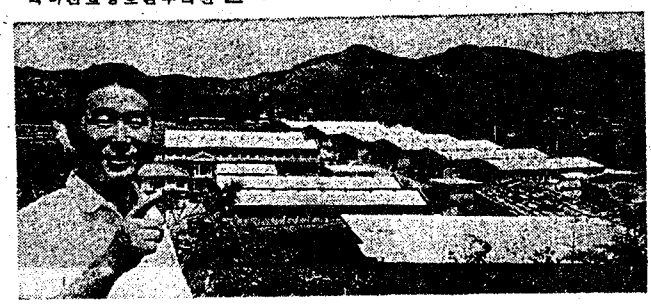
安養·始興

別莊-産業에도 좋은条件
野山닦아 黃金牧場 이룩
收益 목적없는 都市人의 果園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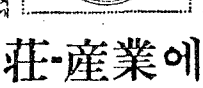
人家멀어疾病없고

3千餘尺에養鷄場

自家用있는수람도



◇김씨가 5년만에 이룩한 함춘목장—. 4만마리의 닭과 30마리의 젖소를 치고있다.



〈수도권정보〉안양과 시흥 –

교외파 도시민 취향에 맞는 양계…
안양-시흥 목장 지대, 별장 · 산업에도 좋은 조건

▶ 1971.9.17 조간 7(9)

그린벨트 地域에 工場新築을 허가

始興郡

【安養】 시흥군은 「수도권그린벨트」 지역이 설정고시된 닷새후인 지난8월4일 개발제한구역인 시흥군 서면 소하리600의89 7만2천평에 기아산업(대표 김철호)이 신청한 8천2백여평 (연건평 (규모의 차량생산공장 신축공사를 허가해 주어 말썽을 빚고있다.

기아산업은 15일현재 약10만평의 녹지대를 메워 정지공사를 하고있다.

그런데 시흥군은 개발제한구역이 고시된 다음날인 지난7월31일 경기도로부터 고시에 따른 철저한 단속을 지시받았고, 지난4일에는 고시이행에대한 공문까지 접수받았었다.

시흥군 그린벨트 지역에 공장신축을 허가

▶ 1971.10.13 조간 6(5)

大新-安養中 공동優勝

◇蹴球
▲中等部決勝
서울大新 0-0 京畿安養
〈공동우승〉
▲高等部決勝
釜山商3 (2-0 1-1) 1 서울漢陽工
◇하키
▲女中部準決勝

◇力道
▲一般部라이트級=①姜寿福(慶南) 推上1백40kg 아시아라이 韓国新(종전 1백35kg) 보를 4백2·5kg ▲同미들級=①허건(京畿) 4백kg ▲同미들헤비級=①박승규(京畿) 3백85kg ▲同L헤비級=①김상관(京畿) 3백82·5kg ▲同헤비級=①임병선(서울) 3백20kg
◇복싱(우승자)
▲L플라급=金致福(釜山) ▲플라이급=李台東(釜山) ▲벤텀급=白純祐(慶北) ▲페더급=李相德(江原) ▲라이트급=韓赫洙(京畿) ▲L라이트급=朴太植(全南) ▲웰터급=朴逸熙(京畿) ▲L미들급=姜成九(全北) ▲미들급=趙原敏(江原) ▲L헤비급=朴鎭錫(江原) ▲헤비급=朴雄甲(慶南)

全北鎭安 0-0 忠南
〈추첨승〉
◇펜싱
▲男中部프리레 準決勝
京畿仁川 9-5 江原소양
釜山大洋 8-8 慶北大코
(被突数差)
▲女中部프리레 準決勝
京畿仁花 9-5 忠北

◇사이클
▲男大部사브르 準決勝
江原 9-5 서울高大
▲男大部프리레 決勝
江原大 9-4 忠北濟川
▲男一般사브르 準決勝
忠南OB 9-3 江原OB
▲中高1만m=①盧海寿(慶北) 17분47초9 ▲同8백m=①朴시윤(慶北) 1분10초5 ▲同1천6백m=①盧海寿 2분49초1 ▲一般8백m=①金光善(서울) 1분9초2 ▲同4천8백m=①李상현(慶南) 2분21초5 ②金光善(서울) 2분21초6 ③權重鉉(釜山) 2분21초8 이상大会新(종전 2분24초3)
◇럭비蹴球
▲大学部準決勝
慶南海士40-0 京畿서울農

◇蹴球高校결승—演陽工의 강슛을 막아내는釜山商GK.

대신-안양중 공동 우승

▶ 1971.12.1 조간 8(4)

高麗·中央大 決勝에

綜合蹴球선수권 安養中、大新과 내일爭覇

30일 효창운동장에서 속개된 71년도 종합축구선수권대회 4일째 대학부준결승에서 高麗는 成均館과연장전을 벌인끝에 3대1로 이겨 中央대 3일 자응을 거루게 되었다。 중등부 준결승에서는 스피드와 개인기가 우세한 安養이 大邱商成技를 3대0으로 여유있게 누르고 2일 패권을 놓고 격돌하게 되었다。

이날 成均館은 전반28분 FW鄭錫勳이 수비진 너머로 길게 센터링한볼을 LW金榮五가 원발로 슈팅, 선취점을 올렸었다。 후반, 高麗는 수비진까지 공세에 가담, 6분 FW高在旭의 헤딩슛으로 동점을 만회한후 연장에들어갔다。

高麗는 연장 전반5분 FW梁光京이, 후반8분 FW洪昊杓가 각각 1점씩 넣어 승리했다。

◇제4일전적 (30일)

▲中等部準決勝

安養 3 (1-0, 2-0) 0 成技

▲大学部準決勝

高麗 3 (0-1, 1-0, 연장 2-0) 1 成均館

◇高麗 FW高在旭(줄무늬옷)의 헤딩슛을 막기 위해 뛰어오르는 成均館 GK장세인(검정옷)

종합축구선수권 안양중, 대신과 내일쟁패

▶ 1971.12.3 조간 8(1)

서울팀 得失點差 우승

京-平-成 蹴球 成興팀 5対1로 大破

서울팀은 2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제8회 京平成 3지역 축구대회 최종일 金容植 (2점) 선수의 선전으로 成興팀을 5대1로 大破, 成興-平壤팀과 동률1승1패를 기록했으나 골 得失差에서 앞서 4년만에 우승을 되찾았다. 이어 거행된 금년도 종합축구선수권대회中等部결승전에선 大新이 安養과 2차의 연장전을 벌인 끝에 1대0으로 간신히 이겨 3連覇했다.

大新중학 3連覇

綜合蹴球 安養中을 延長끝에 꺾어

◇서울-成興戰 후반3분 선취골을 성공시키는 서울팀의 金容植 (右)

전후반25분씩 거행된 이 날 京平-成興戰에서 서울팀은 成興팀과 전반 득점없이 비겼으나 후반3분만에 金容植선수가 페널티라인정면에서 단독 강슛을 성공시켜 1점을 선취한뒤 다시 5분후 金容植선수가 鄭○○선수의 센터링을 받아 1점을 추가했다. 이어 12분에 成興팀 文○○에게 1점을 빼앗긴 서울팀은 18분에 李○○, 20분에 鄭○○, 22분에 張○○선수가 각각 1점씩을 더해 5대1로 크게이겼다.

大新은 安養과의 팽팽한 접전에서 독점에 연결시키지 못하다가 2차연장전후반 4분 문전혼전중 RI 김정민이 뇌게찬것이 크로스바를 맞고 굴인, 힘겹게 이겼다.

京平-成戰 시상식은 오는4일 오후3시20분 綜合선수권시상식과 아울러 가진다.

◇京平-成戰 최종입전적 (2일)

서 울 5 (0-0 5-1) 1 成 興

◇綜合순위=①서울1승1패 ②成興1승1패 ③平壤1승1패 (이상골득실차)

◇綜合선수권 6입째전적 (2일)

大 新 1 (0-0 2-0 0-0 1-0) 0 安養

▲中等部 決勝

안양중, 대신에 석패

▶ 1971.12.30 조간 2(1)

釜山 水原 安養에 그린벨트

建設部 告示

西面중심 半徑 10~20 km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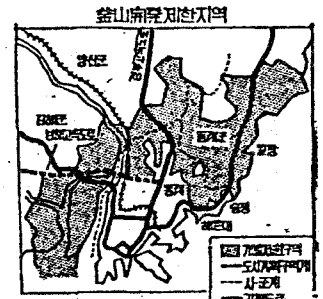
安養駅중심 5~10 km로

釜山 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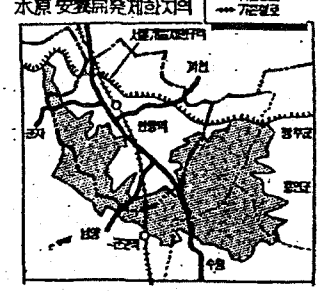
水原-安養

건설부는 29일자로 부산과 水原 安養주변의 開發제한구역을 설정, 告示했다. 지난7월30일 告示된 首都圈(서울) 개발 제한구역에이어 두번째로 설정된 이 개발제한구역은 釜山의경우 1개市 3郡 1邑 18개面에걸쳐 총면적 5백99·6평방km이며 水原 安養은 1개市 4郡 1邑 7개면에 86·8평방km 지역이다. 人口 1백97만에 年12·6%(70년) 씩 증가하는 釜山은 일부 高地帶와 비옥한 농토가 집단 잔식정창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방지하기위해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한 것이며 安養 水原지구는 서울中心部에서 25km떨어진 通勤거리로 境界가 인접해있고 주변에있는 仁川, 水原, 城南市로부터 압력을받아 衛星都市 이상의 속도와 성격을띠고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釜山開発제한지역



水原 安養開発제한지역



4월 細部測量·확정

내년 4월에 細部測量이 끝나는 대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입목竹木의 伐採과 農耕 이외의 宅地조성이나 공장건설이 제한을 받게된다.

釜山의 개발제한 구역은 西面을중심으로 半徑10~20km구역중에 地形과 주요시설의 배치현황을 감안해서 지정한것으로 ① 標高 日光, 松林지역은 제외되며 ②原子力발전소 건설부지인 古里를중심 半徑8km이내와 低地帶 및 ③金海飛行場 施設區域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安養 水原은 安養駅을중심으로서 半徑5~10km구역으로 그린벨트법에 接統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다.

한편 건설부는 大邱의 개발제한구역을 내년초에 설정, 告示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釜山및 水原 安養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다음과같다.

釜山地區

◇釜山市

△釜山組區▽▲金城洞▲金谷洞▲華明洞▲蓮山洞▲校洞▲佛光洞▲石峴洞▲中洞▲佐洞▲松亭洞▲禮洞▲禮洞一部 △東萊區▽▲五

水原-安養地區

△水原市▽▲上光教洞▲下

◇서울 부산및 水原 安養 開発 제한구역 비교

	서 울	부 산	水原 安養
면 적 (km)	469.8	599.6	86.8
区域内人口 (家口)	168,740人 (33,750戶)	126,830 (25,525戶)	未調査
区域内주요施設	大学校, 高校, 중학교, 国民学校, 병원, 단과대학, 종합병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백화점, 시장, 은행, 우체국, 전신전화국,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정신병원, 결핵요양소, 나병원, 맹아원, 양로원, 고아원, 공원, 묘지, 화장장, 납골당, 자연녹지, 골프장, 승마장, 사격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경기장, 수영장, 종합운동장, 국립극장, 시민회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유원지, 관광호텔, 관광지, 국제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 하천, 제방, 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도, 육교, 철교, 역, 차고, 주차장, 정류장, 화물취급소, 조차장, 기지, 조계지, 공원묘지, 공동

▶ 1971.12.31 조간 4(1)

그린벨트와 땅값

서울-水原 安養-釜山圈 확정계기로 展望해본다

外郭지대 붐 일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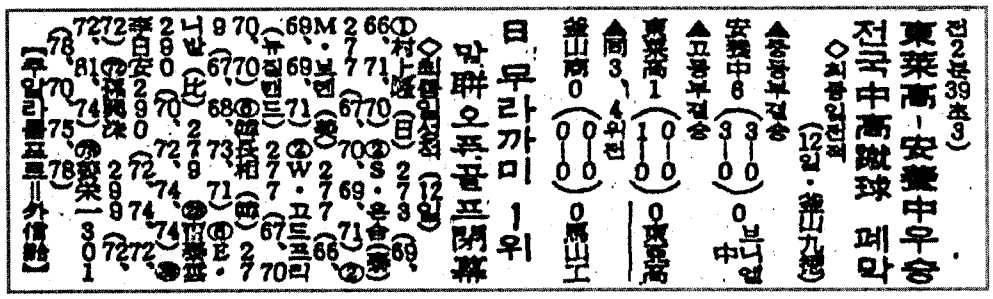
제한区域도 멀어질理由는 없어

焦点

〈초점〉그린벨트와 땅값

서울 - 수원 안양 - 부산권 확정계기로 전망해 본다

▶ 1972.3.14 조간 8(7)



전2분39초3)
東萊高-安養中우승
전국中高蹴球 폐막
◇최종입전제
(12일·錦山九체)
▲중등부결승
安養中6(3-0)0부니엡
中
▲고등부결승
東萊高1(1-0 0-0)0
同3, 4위전
錦山商0(0-0 0-0)0馬山工
日 무라까미 1위
마拼오프골프閉幕
◇최종입전결과 (12일)
【무알라룸프르=外信部】

전국중고축구 폐막. 동래고-안양중 우승

▶ 1972.6.9 조간 7(8)

「料金引下바람」北上

大田→温陽→平沢→水原→安養 全国 波及기세

서울서도 술집은 40%割引

【水原】대전、온양등지서 버스、목욕탕、숙박업소、극장 등이 일제히 봉경기를 이

우리나라 대도시는 공업지역 이외에도 공원지역을 제외하곤 아황산가스의 오염도가 미국의 환경기준인 0.05PPM육박의모두넘어서 있다. 그것은 공업의 발달과 연료의 유류전환정책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朴範珍 記者〉

「요금인하바람」북상

대전→온양→평택→수원→안양 전국파급 기세

▶ 1972.8.6 조간 7(6)

의족 행인 역살 뺑소니

시흥서 버스-퍼블리카-택시 잇달아

버스-퍼블리카-택시, 잇달아

義足행인 轢殺뺑소니

◇죽은서창석씨.

▶ 1972.11.14 조간 7(7)

환각제密賣 14명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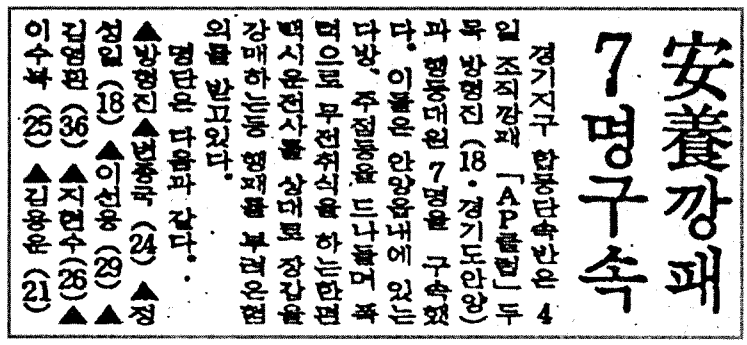
백반가루로 "萬病통치" 安養기도원장도

◇압수된 대마초—환각제와 검거된 범죄자.

환각제 밀매 14명 구속

백반가루로 "만병통치" 안양기도원장도

▶ 1972.12.7 조간 7(12)



安養깡패 7명구속

경기지구 합동단속반은 4일 조직깡패 「AP클럽」 두목 방명진(18·경기도안양)과 행동대원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안양읍내에 있는 다방, 주점등을 드나들며 폭력으로 무전취식을 하는한편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장갑을 강매하는등 행패를 부려온혐의를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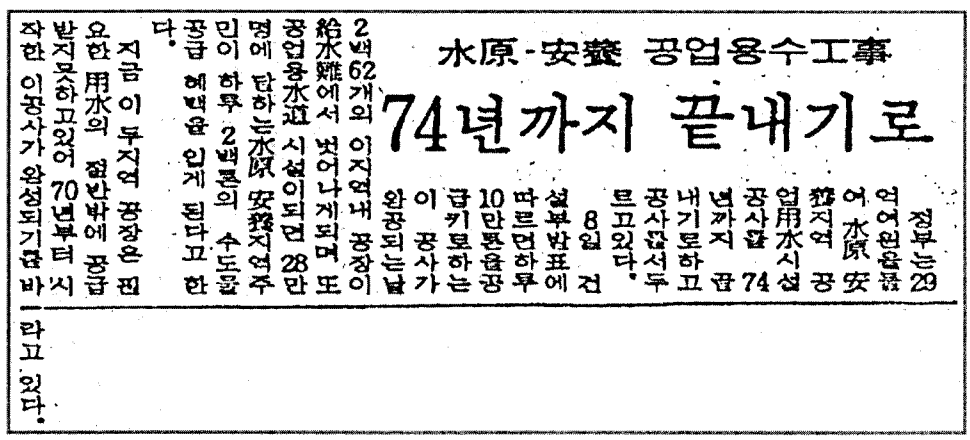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방명진 ▲변종국(24) ▲정성입(18) ▲이선용(23) ▲김영판(36) ▲지연수(26) ▲이수복(25) ▲김용운(21)

안양깡패

7명 구속

▶ 1972.12.9 조간 2(9)



水原-安養 공업용수工事

74년까지 끝내기로

정부는 29일 수원-안양지역 공업用水시설공사를 74년까지 끝내기로하고 8일 건설부발표에 따르면하루 10만톤을 급키로하는 이 공사가 완공되는날 2백62개의 이지역내 공장이 給水難에서 벗어나게되며 또 공업용水道 시설이되면 28만명에 달하는水原·安養지역주민이 하루 2백톤의 수도물 공급 혜택을 입게 된다고 한다.

지금 이 두지역 공장은 필요한 用水의 절반밖에 공급받지못하고있어 70년부터 시작한 이공사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원-안양 공업용수공사

74년까지 끝내기로

▶ 1973.3.2 조간 1(1)

엇갈린 喜悲 期待와 失望과

行政區域 개편…現地의 표정

「서울脫落」에 一部 불평

都市民된 긍지 이제 느껴

安養 開峰洞

늘어날 稅負擔 걱정하기도

안양-소사-성남 시로 승격

도시민된 긍지 이제 느껴 - 안양

▶ 1973.3.2 조간 1(1)

安養·素砂·城南 市로 昇格

全國 行政區域 대폭 개편

1百50개 지역 境界 변경

富川·東萊郡폐지 33개面은 邑으로

◇金 內 務

7월1일까지 段階실시

서울·光州 2개區씩 新設

道峰·冠岳 東區·西區

◇서울市境界변경

◇區신설

共和38·7·1新民32·6%

政黨別得票집계

◇邑昇格

◇市로된邑出張所

◇邑으로된 面

안양-소사-성남 시로 승격

전국 행정구역 대폭 개편
1백50개 지역 경계 변경

▶ 1973.3.4 조간 7(11)

同和藥品제품 不買운동

始興郡藥師會, "出庫가격조작"

【安養】시흥군 약사회(회장 박종환·41) 회원 40여명은 2일 동화(同和) 약품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펴기로 결의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전개해줄것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시흥약사회원들은 최근 동화약품이 출고가격을 인상한 안프스D가 판매약국의 인기를 얻지 못하자 4백여명의 종업원에게 1인당 2백원씩 주어 의무적으로 2병씩 구입토록해 시중판고 가격(송전 42원에서 46원)을 조작하려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동화약품제품 불매운동

시흥군약사회"출고가격조작"

▶ 1973.3.16

果川 "孝寧大君肖像畵" 발견

安城선 大同法 시행 紀念碑도

【水原】문화재 일제조사에나선 경기도는 14일 시흥군과천면문원리비태육(碑台六)씨집에서 이조태종(太宗)의 둘째아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초상화로 보이는 영정(影幀)을, 안성군공도면소사리 산 33에서는 이조시대대동법(大同法) 시행 기념비를발견, 문화재관리국에 감정을 의뢰했다.

효령대군의 영정은 세로 120㎝ 가로90㎝의크기로 명주에 그린것인데 채색이 선명하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이조 효종때 영의정 김육(金堉)이 한양 (漢陽)과 삼남지방으로통하는 관문에세운 것인데크기는 높이2백10㎝ 폭75㎝ 두께20㎝의 대리석으로되어있다.

비문에는 대동법실시로 국민간의 상거래가 원활하게 되는데목적이있다고 적혀있다.

대동법은 이조중기이후 공물(貢物)을 미곡으로 통일하게 바치게 하면 납세제도로 중앙에 선혜청(宣惠廳), 경기지방에 경기청을두고 방납의폐가 가장심한 경기지방부터 시행한 세제(稅制)이다.

과천 효령대군 초상화 발견

▶ 1973.4.5 조간 8(1)

中大附-安養工-晋州-中央高

4强決勝리그에

漢陽工 추첨서 脫落

中大附 安養工 晋州 中央高등 4强이 제3회 建國大 총장배 쟁탈 전국 고교 축구대회 (本社후원) 예선리그에서 각조 首位를 차지하여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 제권을 가리게됐다. 4일 建大운동장에서 열린 예선리그 마지막날 경기에서 安養工은 江陵農을 2대0으로 물리쳐 2승을 기록, B조 수위를 차지했다. 또 中大附와晋州는 大新 漢陽工과 열린 풍방전끝에 득점 없이 비겨 각각 1승1무 동률을 이뤘으나 中大附는 득실점차로, 그리고 晋州는 추첨으로 승리, 결승 토너먼트에 올랐다.

建大총장盃 高校축구 豫選 3日

安養工은 전반15분 이영기의 헤딩패스를받아 曺漢珉이 강슛한것이 江陵農의 CK쇄중벽의 손을맞고 골인되어선취점을 뽑아냈다. 이어 6분만에다시 曺漢珉이 申明珠의 프리킥을 논스톱으로헤딩슛, 승리를 굳혔다. 후반 安養工은 5명씩 후보선수를교체하며 여유있는 플레이를펼쳤다.

◇예선리그 최종일전적(4일·建大運)

▲B조
安養工 2 (2-0 0-0) 0 江陵農

▲同종합순위=①安養工 2승 ②東北 1승1패 ③江陵農 2패

▲A조
中大附 0-0 大新

▲同종합순위=①中大附 1승1무 ②大新 1승1무 (이상득점차) ③大田商 2패

▲C조
晋州 0-0 漢陽工

▲同종합순위=①晋州 1승1무 ②漢陽工 1승1무 (이상추첨) ③釜城 2패

▲D조
永登浦工 4 (3-1 1-1) 2 嶺南商

▲同종합순위=①中央 2승 ②永登浦工 1승1패 ③嶺南商 2패

龍正, 培材高꺾어
春季럭비풋볼대회

◇제2일전적(4일·孝昌運)

▲高等部A조
翠嶽工 4-0 裡里工 (1승)
龍正 12-4 培材 (2승) (1패)
漢城 3-0 漢陽工 (2승) (2패)

▲同B조
東都工 7-9 新進工 (2승) (1승1패)
中央商 6-3 仁川工 (2승) (2패)
大邱商 25-6 抱川綜 (2승) (2패)

▲中等部
曉明 14-9 鐵原 (2승) (1패)

중대부고-안양공고-진주고-중앙고 4강결승리그에

건대총장배 고교축구 예선3일

▶ 1973.4.27 조간 7(1)

우물에 工場廢水

安養 千餘주민 食水難 "惡臭…방문도 못열어"

【水原=金文洙기자】 25일 지동문 안양읍 부곡동과 박달리 일대 1천여주민들은 인근태평방직에서 마을 한복판 개천으로 흘러내리는 폐수로 우물물이 오염돼 식수난을 겪고있고 심한악취때문에 방문도 열고 살수 없다고 시정을 호소했다.

방직공장서 개천으로 흘러
피부염등 傳染病 우려까지

◇폐수에 오염된 펌프물을 걸러 마시기 위해 정화조가 마련되어 있다.

안양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 태평방직안양지공장은 5년전부터 지하수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않은 수백척의 수백척 깊이의 2천여 공원이 사용하게 하여 여기서 흘러내리는 인분과 기름등이 섞인 폐수를 5백여 주택이 들어선 마을 한복판 개천으로 흘려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주부 전계순(41·북부동868) 씨는 『지저먼 기름과 함께 흐르는 인분폐수가 우물물에 스며들어 수도물을 사다 마시는 형편이며 악취가 온마을을 덮어 방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신건정(36·박달리60의 3) 씨는 『작년여름 아들 하송수(7·안양국교1년) 군이 개천에서 놀다가 피부병에 걸려 고생한일이있다』면서 다른 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5년전부터 합작 태평방직안양지공장(사장 지건형)에 수차 개선책을 호소해왔으나 무살되어 왔다고 말하고 이에대해 시당국(문 보건소)는 지난해8월 공장폐수에 수차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공장측이 시설을 하지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대해 시당국(문 보건소)는 지난해8월 공장폐수에 수차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공장측이 시설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물에「공장폐수」

안양 천여명 주민들 식수난 "악취…방문도 못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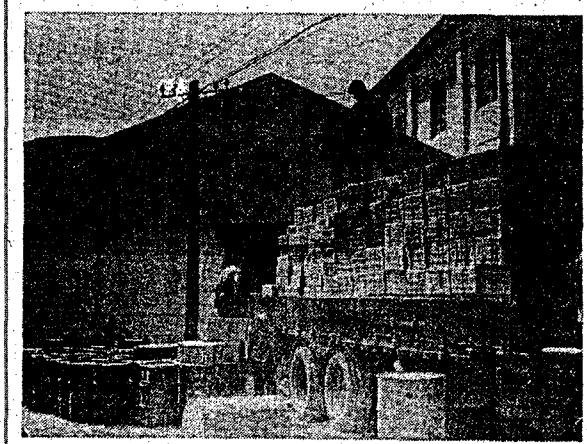
▶ 1973.5.24 조간 7(1)

水銀農藥 대량압수

販禁 PTA·B 밀조

安養성신農藥 급습 工場長등 넷 신병확보

人氣높자 在庫品판매 가장



◇압수된 농약PTA-B(차에실은것)와 원료(드럼통)

강한殺菌力, 製造도금지

PTA-B

천연기념물 왜가리-백로 사인 수은농약 대량 압수

안양성신농약 급습 공장장등 넷 신병확보

▶ 1973.6.5 조간 8(1)

蹴球서 安養中 2連覇

스포츠少年대회 最終日 釜山中央에 2對0勝

大邱中、淸州南中 꺾고 優勝 球野

李德姬 2차전進出

朝大附中에 覇權 女中排球

扶餘 仁中우승 하키男中部서

◇시흥어버린 무우밭을 가리키는 성씨.

스포츠소년대회 최종일 축구서 안양중 2연패

부산중앙에 2대0승

▶ 1973.6.8 조간 7(6)

廢水에 채소 被害

安養 비닐하우스 農民들 보상요구

【水原】 지수리 가물으로 오염된 하천물이 농축된 것을 농민들이 모르고 채소밭에 퍼주었다가 수확기의 무우, 오이등이 모조리 타죽자 이의 보상을 공장측에 요구하고있다.

시흥군 남면 광전리528 성필학씨 (51)의 경우 밭 2천평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무우를 심었는데 날이 가물어 지난 1일 양수기로 인근 안양천지류의 물을 퍼 주었다. 그런데 하룻만에 무우잎이 모두 시들기 시작 3일이 지나면서는 무우뿌리까지 모두 썩어 1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남면 광전리270 유윤준씨 (36)도 비닐하우스의 오이밭 4백6평에 개울물을 주었다가 망쳐 6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했다.

◇시들어버린 무우밭을 가리키는 성씨.

폐수에 채소 피해

안양 비닐하우스 농민들 보상요구

▶ 1973.6.13 조간 8(1)

르포

어떻게 돼갑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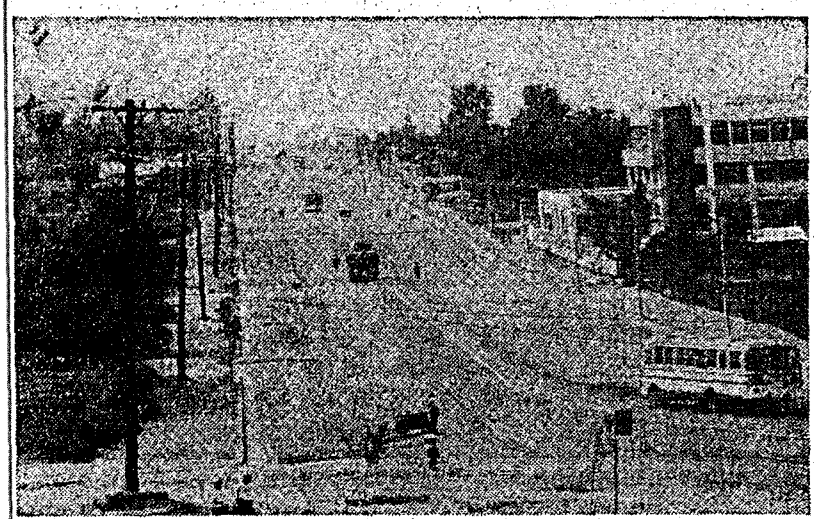
讀者들의 내고장 궁금증을 푼다

安養

20工場 신축한창

道路포장등 宿題많아

轟音속에 서두르는 "市景格"



◇안양시청 청사등 관청이 들어서게될 주접동일대 땅값이 작년의배이상으로 뛰어올랐다.

淨水場 완공, 官街도 새로 등장해

땅값 한달새 3~4배 뛰어 올라

〈安養=馬相元·金文洙 기자〉

▶ 1973.6.27 조간 7(7)

일신섬유 안양공장에 불

기계-제품등 소실

일신섬유 安養工場에 불

기계·製品등 燒失

◇불길에 휩싸인 일신섬유 안양모공장.

【安養】 26일오후 1시쯤 시리 ③도미는 7·3마리 이 흥군안양읍 신안리 290 상먹어서는 안된다는등의 오 일신섬유안양공장에서 불이 염생선의 식용분량을 제한 나 공장건물 3백여평과 연 발표 했었다. 사기 30대, 초빈기등 기계류 50여대및 창고에 쌓아둔 제 품등을 전소시키고 2시간만 에 진화됐다.

불은 이날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린직후 연사부 선별실에서 처음 일어났는데 당시 공장안에 있었던 김미숙양(金美淑·27·공원)에의하면 연사기의 니크롬선을 가열하는 전선이 연결된 벽쪽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나면서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이옮아갔다는 것이다.

불이나자 공장측과 주민들은 10여차례나 119에신고 했지만 불길이 공장전체를 뒤 싼 20여분뒤에야 안양 수원 영등포등지의 소방차 10여대가 도착, 진화작업에 나섰다.

▶ 1973.7.29 조간 6(4)

안양에서 버스끼리 충돌

15명 중경상

15명 重輕傷

安養

버스끼리衝突

【安養·二日】 27일 오후 8시30분쯤안양시석수동260-34) 의앞길 들이 받아 두차

기5사 6706호버스(운전사·오규유·36)가 브레이크 파열로 서울 5사-521 1호버스(운전사 송기현·

송객 했다. 뽑부순시(41·안양시안양동) 등 15명이 중경상을입

▶ 1973.7.31 조간 7(1)

安養大橋 橋脚함몰

【安養】3일 새벽 안양지방에 내린 1백27㎜의 비로 안양천에 놓인 폭 15m, 너비 35m의 안양대교의 3개교각이 감중에서 남쪽 첫번째 교각이 2m가량 내려앉았다.

이 대교는 시흥군이 도시계획사업비 5천7백여만원을 들여 68년에 착공, 70년12월에 준공한 것.

◇모래를 마구 파고난뒤 호우로 안양대교 교각이 대려앉았다.

안양대교 교각함몰

▶ 1973.9.7 조간 7(8)

市外自動전화확대

16日 서울~仁川, 年內大邱-安養

체신부는 75년까지 전국주요도시와 서울간의 시외전화를 장거리 자동화 (DDD) 하기로 했다.

6일 체신부에의하면 예산 78억원을 들여 내년에 서울 파수원 대전 광주 전주 청주 춘천 제주간을 자동화하고 74년에는 서울과 마산 원주 포항 울산 여수 구미 목포 이리 청납 의정부 경주간을 자동화한다는것이다.

또 동해안으로 서울-대구, 서울-안양간이 자동화 되며 16일부터는 서울-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인천간 장거리 자동전화가 개통된다.

시외자동전화 확대

16일 서울~인천, 연내 대구-안양

▶ 1973.9.19 조간 7(4)

인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마산서도

"걷기운동" 에 참여

仁川-水原-城南-議政府-安養-富川-馬山서도 "걷기운동"에 參與

도보통학및 도보통근등에 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심천도는 심천에앞선 계몽및권
17일 마산시가호응했고, 18일 비기간에 들어간것이다.
에는 수원시, 인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등이 호응하기로했다. 이
로써 18일현재전라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도보통학

▶ 1973.9.23 조간 7(8)

◇마포구 상록회-어머니 협의회 회원들이 가두에서 걷기운동을 벌이고있다.

걷기街頭캠페인

麻浦區 상록회-어머니 協議會서

서울마포구 상록회 (회장 李根茂) 와 마포구 어머니협의회 (회장 李惠英) 회원70여명은 22일오전7시부터 2시간동안 1만보 걷기가두캠페인을 벌였다. 회원들은 "만보건강" 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마포구청앞을 출발, 신촌로터리까지 돌아오며 시민들에게 걷기운동참여를 호소하는 유인물 2천장을 나눠주고 「만보걷기운동」이라고 쓰여진 리본2천장을 달아주었다.

全공무원徒步통근

【濟州】 제주도는 22일 전국적으로 벌지고있는 걷기운동에 호응, 24일부터 전공무원에게 도보로 출퇴근 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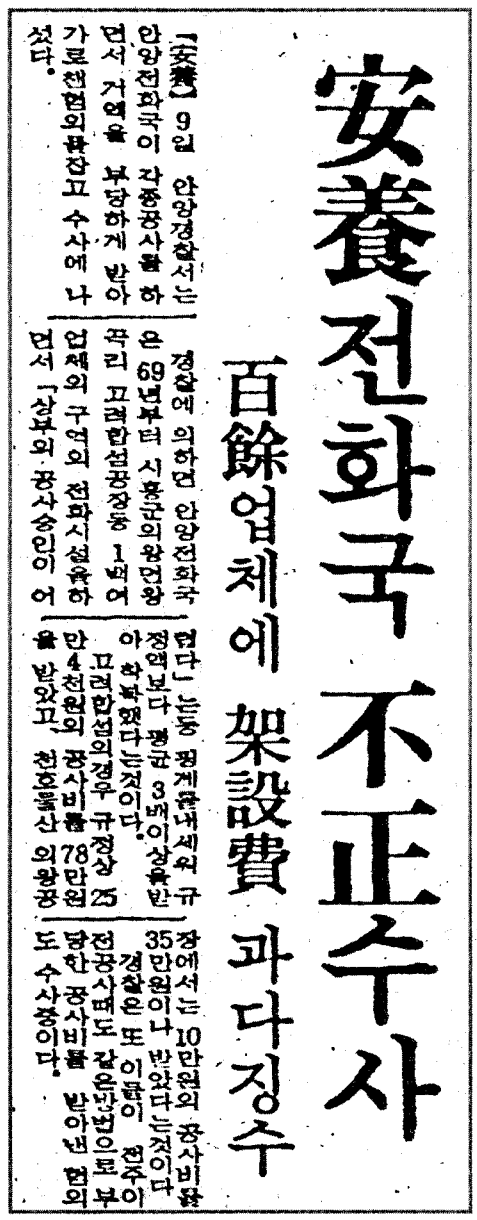
市民에 리본달아줘

【安養】 22일오전 안양시 부녀교실회원과 각여성단체, 근명여중고 학생등 5백여명은 「걸어서 건강찾자」 라는 피켓을들고 시내를 돌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걷기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만보걷기리본」을 나눠주기도했다.

안양 부녀교실회원과 각여성단체 시민에 리본 달아주며

걷기가두캠페인

▶ 1973.10.10 조간 7(8)



安養전화국 不正수사

百餘업체에 架設費 과다징수

【安養】 9일 안양경찰서는 안양전화국이 각종공사를 하면서 거액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혐의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의하면 안양전화국은 69년부터 시흥군의 왕먼왕곡리 고려합섬공장등 1백여 업체의 구역의 전화시설을 하면서 「상부의 공사승인이 어렵다」는등 핑계를내세워 규정액보다 평균 3배이상을받아 착복했다는것이다。

고려합섬의경우 규정상 25만4천원의 공사비를 78만원을받았고 천호물산 의왕공장에서는 10만원의 공사비를 35만원이나 받았다는것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천주이전공사때도 같은방법으로 부당한공사비를 받아낸 혐의도 수사중이다。

안양전화국 부정수사

백여업체에 가설비 과다징수

▶ 1973.10.27 조간 8(1)

晋州·鶴城(江原)
安養·中央(釜山)

4강 준결승에 進出

中學部 大田東·淳昌北은 아깝게 勝負킥 敗

朝鮮日報 中·高蹴球 5일 째

제28회 전국中高축구선수권대회(全北大韓축구협회 공동주최)는 26일로써 중등부의 준준결승전을 모두마쳤는데 京畿 安養, 釜山 中央, 江原 鶴城, 慶南 晋州등 4강이 결승진출권을 놓고 대결케 됐다.

이날 孝昌운동장에서 거행된 중등부 준준결승에서 慶南 晋州, 江原 鶴城은 忠南 大田東, 全北 淳昌北과 한 골씩 주고받은 뒤 무득점이 비긴관에 각각 4대3의 勝負킥勝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또 釜山中央은 京畿 安養의 숙이 경승전에 진출했다.

이어 한北大成을 1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京畿의 라이벌끼리만난 安養1대1(前半0대0)에서 金鈍泰의 강슛으로 2대0으로 제압, 中央과 준결승에서 맞붙게됐다. 釜山中央은 京畿의 숙이 경승전에 진출했다. 또 釜山中央은 京畿 安養, 釜山 中央, 江原 鶴城, 慶南 晋州등 4강이 결승진출권을 놓고 대결케 됐다.

◇信興中—安養中대전 信興운전에서 安養의 李丙泰가 슛한 공을 信興GK金東哲이 안아내고있다.

경기는 전반 8분 慶南 晋州 江原 鶴城 忠南 大田東 全北 淳昌北 釜山 中央 京畿 安養 信興中 安養中 慶南 晋州 江原 鶴城 忠南 大田東 全北 淳昌北 釜山 中央 京畿 安養 信興中 安養中

정력인 위기를 모면했다. 勝負킥에서는 慶成陣가 大田東은 鄭泰熙, 李一九가 각각 失敗했다.

淳昌北은 高圭植 李春洙가 각각 失敗, 鶴城이 4대3으로 승리했다.

釜山 中央은 전반 8분 彭俊植이 골에리어 오른쪽에서 武永의 패스를 받아 슛, 결승점을 뽑았다.

◇5일째 전적(26일·孝昌庭)
▲준준결승
慶南晋州 0—0(승PK3) 忠南大田東
〈勝負킥〉 4—3
江原鶴城 0—0 全北淳昌北
〈勝負킥〉 4—3
釜山中央 1(1—0 0—0) 0 大成
京畿安養 2(1—0 1—0) 0 信興

安養 6 — 3 信興

安養	前			後	信興
3	6	ST		3	1
10	5	FK		3	4
1	1	CK		2	0
0	1	OS		0	0
1	1	GK		2	2

中央 4 — 0 大成

中央	前			後	大成
4	4	ST		4	4
4	5	FK		6	8
0	1	CK		2	2
1	0	OS		0	0
1	3	GK		3	3

鶴城 3 — 0 淳昌北

鶴城	前			後	淳昌北
3	1	ST		1	1
14	10	FK		7	3
2	1	CK		1	0
2	1	OS		1	1
4	0	GK		1	2

晋州 4 — 0 大田東

晋州	前			後	大田東
4	4	ST		0	3
4	13	FK		10	11
1	2	CK		0	1
1	1	OS		0	1

조선일보 중-고축구 5일째 안양 중학부4강 진출

▶ 1973.11.10 조간 8(4)

安養工高、大新대파

全國중고蹴球 嶺南은 徽新에 고배

◇제2일전적 (8일)

▲고등부A조
慶陽工 1 (0-0 1-0) 0 青丘商 (1승)
安養工 1 (0-0 1-1) 1 崇實高 (1무1패)

▲고등B조
中大 1 (0-0 1-1) 1 崇實高 (1무)
徽新高 2 (1-0 1-1) 1 嶺南商 (1승1패)

▲고등C조
中東高 1 (0-0 1-0) 0 慶北高 (1승)
貴族高 0 (0-0 0-0) 0 徽榮高 (2무)

▲고등D조
安養工 3 (2-0 1-0) 0 大新高 (1승)

"스포츠 政治結付"

전국중고축구

안양공고 대신대파

▶ 1973.11.28 조간 8(1)

安養中學은 2連覇

◇善防도 무위 中央高一 安養工 대전一 전반 12분에 安養工 WF 元連在의 슛을 中央GK 김석구가 뛰어나와 膳防하고있다.

전국中-高蹴球폐막

安養工高는 제11회 전국추계중고축구연맹전 최종일(27일·서울運) 고등부 결승전에서 中央과 연장전끝에 FW李在根의 수훈에 힘입어 3대2로 극적 승리, 첫패권을 차지했다.

한편 중등부에서는 지난해 패자安養中이 복수의 투지로 강敵한 타이업인 慶興을 파죽지세로 몰아 7개의 골라시로 慶興門前을 완전파 7대2로 大敗, 2연패를 누렸다.

이게임서 安養中의 李石洞 李明泰는 각각 2골씩 넣어 수훈을 세웠다.

이날 양교의 응원단 5천여명의 환호속에 오른 고등부결승전은 좌려한 FW진 成동의 컴비플레이로 安養工 수비진을 교란시켜 9분에 高 李炳成이 선제점을 뽑아냈으로써 기선을 잡았다. 中央은 FW 李炳成 朴大錫 朴甲 두명의 공격수가 安養工의 門前을 집중 공략했으나 연장선도 양팀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1대1타이가되고 말았다.

연장전에는 들어서자 마자 安養工 李在根가 결승 골을 넣어 2대1로 승리를 거두었다.

◇최종일전적 (20일·서울運)

▲중등부결승
安養中 7 (2-0 5-2) 2 慶興中

▲고등부결승전
安養工 3 (1-0 1-2 1-0) 2 中央
(延長)

전국 중-고축구 폐막

안양공고 첫패권, 안양중학은 2연패

▶ 1973.12.12 조간 7(7)

집게든 主婦들 示威

"연탄輸送車 왜 막느냐"

京畿-서울境界 安養-서울檢問所에 몰려

"먹을건있어도 끓일수없다"

【安養】 11일낮 12시15분쯤 안양시석수동1085 윤제순씨(33) 등 연탄업계를 주부 30여명이 「서울에서의 연탄반출통제를 중지하고 연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 관할구시흥동파 안양시 경계에있는 관악검문소에 몰려가 1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검문소에서 연탄수송차를 막기때문에 먹을것은 있으나 끓일수가없다」며 주부들이 서울시내에서 연탄 3~4장씩을 구입, 버스편으로 돌고 오는것만이라도막지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中炭한개 百원까지

서울外廓都市「市外搬出금지」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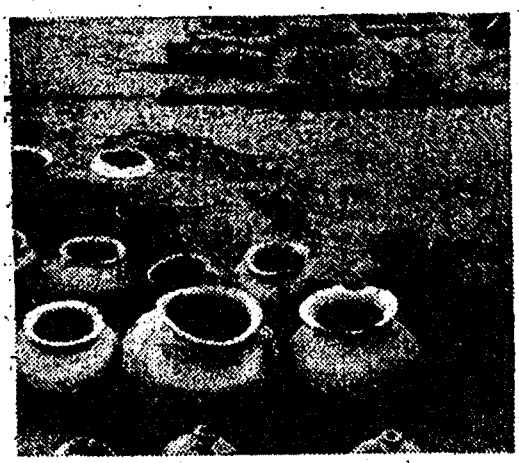
【水原·安養=본사支局】 서울의 관문지대인 경기도 안양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여주 등지엔 지난8일 서울시가 연탄시의 반출을 금지한 이래 심한 연탄파동을 겪고있다.

의정부의 경우 소탄 1개에 10원하던것을 30원에도 팔지 않아 아우성이며, 판매를 기피한 이경하씨(55·삼정연탄 직매소) 를 폭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이 입건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포천군영북면에선 3개 연탄업자들이 탄을 직매소로 숫제 가져가지도 않고 노상에 내려놓고는 소탄 1개에 30원, 중탄은 배도 넘어 올린 1백원씩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연탄을 살수없는 주부들은 영북지서에 몰려와 탄을 사게 해달라고 진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동두천의경우는 지난8일까지 28원하던 소탄이 무려 35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안양에는 하나의 연탄생산공장도없어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있다.

이처럼 연료사정이 악화되자 경기도당국은 연료소비절약대책본부의 이의대책을 조속히 세워줄것을 건의하고있다.



◇손씨의 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의 유물들.

집게든주부들시위

"연탄수송차 왜 막느냐" 안양-서울경계 검문소에 몰려

▶ 1973.12.30 조간 2(2)

安養·軍浦·金谷·冠岳등 대상
不動産投機 막도록

○…정부는 74년초 首都圈電鐵化지역·주변의 不動…○
○…투機를 막기위해 이 지역에 대한 基準地價…○
○…의 告示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9일 관계당국자는 都市의 人口分散策과 더불어 首都圈의 개발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京仁·京水·京原간 98·6㎞의 電鐵개통이 앞으로 있게되면 서울주변의 생활권이 1시간대로 좁혀져 새로운 住居지역으로 변화함에따라 不動産投機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막기위해 基準地價의 告示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電鐵역부근이나 통과주변의 땅값은 지난해 坪당 2백~3백원 하던 것이 12월15일 현재 최고 4천원까지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電鐵化 지역의 不動産投機를 막기위해 電鐵이 통과하는 安養, 軍浦, 冠岳, 金谷, 新吉, 九老, 衿川등지의 땅에대해 基準地價를 책정시키는한편 농경지 처분을 방지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 막도록 수도권 전철지역주변 기준지가 고시 검토

안양-군포-금곡-관악등 대상

▶ 1974.03.15 조간 7(9)

犬公,의문의 떼죽음

安養 사흘새 18마리 도둑所行인듯

[安養=金文洙기자] 70여가구 5백여주민의 식수원인 안양시안양동 삼內마을에서 3일 사이에 18마리의 개가 떼죽음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경찰이 14일 오후 조사에 나섰다.

개가 처음 죽은것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申光鎭씨(54·안양동398) 집에서였다. 申씨는 5개월된 강아지의 갑작스런 비명을 듣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으나 강아지는 10분만에 몸을 뒤틀며 죽었다고 했다.

이어 13일 새벽 3시쯤 이웃 崔榮植씨(35)의 2년생 진도개가 같은 증세로 죽고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에는 鄭錫洙씨(33) 집의 1년생 셰퍼트가 죽는등 13일 하루에만 9마리가, 그리고 14일에는 李錫起씨(39) 집의 1년생 진도개등 8마리가 이웃에서 죽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개가 죽은 집에 도둑이든적은 없으나 범죄신고접수에는 13일정오께 20대청년이 담을 넘어와 집안을 보던 가정부 趙모양(16)을 추행하려다 고함을 듣고 달아난 이웃주민에 쫓기는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이날 사고현장에 도둑단의 지휘자인 소행일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그동안을 마음에 개가 많아 저의 도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동네에는 그동안 40여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으며 이때문에 피해를 한부로 사용치않았다.

안양 견공 의문의 떼죽음

사흘새 18마리

▶ 1974.3.23 조간 8(1)

慶熙·安養工 2連勝 선두

清州商·永登浦工 눌러

全國中高蹴球 8일

慶熙高는 22일 열릴 제11회 慶學旗 전국 中高축구연맹전 8일째 고등1부 5조경기에서 淸州商을 2대0으로 물리치고 선두를 굳혔다. 同3조의 安養工은 金태환의 수훈으로 永登浦工을 1대0으로 격파, 2승으로 3조 선두에 나섰다.

▲고등부3조

大 新 3 (2승1패 2-1) 1 江陵商 (1승1패 1-0)
玄 風 0 (1승1무 0-0) 0 崇 實 (2무)
▲同5조
慶 熙 2 (2승 2-0 0-0) 0 淸州商 (1무1패)
▲同1조
安養工 1 (2승 0-0 1-0) 0 永登浦工 (1무1패)
▲高等1部1組
中 央 2 (1승1무 0-0 2-0) 0 釜山商 (2패)

전국 중고축구 8일

경희-안양공 2연승 선두

▶ 1974.3.29 조간 8(1)

〈高等1部〉

8强 決勝토너

青丘-安養-嶺南商-大田商-中東-大新-傚新-慶熙

千戶、普成에 첫우승 (中等2部)

全國中高축구14일

商、大田商과 서울의 中東、大新、傚新、慶熙등 8강이 제11회 춘季中高 축구연맹전 지방의 青丘、安養工、嶺南

고등1부의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28일 孝昌운동장에서 열린 14일째경기에서 青丘는 蠶湖를 2대1로이겨 2승으로、 고등1부2조의 수위를차지、 준준 결승에 올랐다。 青丘는 같은組에서 2승으로 선두를 달리던 培材가 기권함으로써 漁夫之利를 얻은 것이다。 또 6組의 大田商은 東亞를 1대0으로 격파한 漢榮과 2승1무 동률됐으나 형운의 추첨승을 거두어 준준 결승에 진출했다。

◇14일째전적(28일·孝昌運動場)

▲중등2부결승

千戶 3 (1-0 2-0) 0 普成

▲고등1부2조

青丘 2 (1-1 1-0) 1 蠶湖

▲同종합순위=①青丘2승②蠶東1승1패③蠶湖2패

▲同8조

東北 3 (1-2 2-0) 2 裕信

▲同종합순위=①嶺南商2승②裕信·東北1승1무1패④注文津1무2패

▲同6조

漢榮 1 (1-0 0-0) 0 東亞

▲同종합순위=①大田商2승1패(추첨승)②漢榮2승1패③漢陽工1승1무1패④東亞1무2패

전국중고 축구 14일 안양 8강 결승 토너진출

▶ 1974.4.5 조간 8(1)

건대총장배 축구

안양공고, 중동고 눌러

安養工、中東눌러

정진구 殊勳의 결승골… 1對0

建大總長杯축구

제4회建國大총장배쟁탈전국고교축구대회(本社후원) 2일째(4일·建國大)나흘째 경기에서 安養工이 후반37분 정진구의 수훈으로 결승전을 얻어 中東을 1대0으로 격파, 첫승리를 올렸다.

라섰의 預陽工과 中央은득점없이비겨 각각 1무1패를 기록했다.

◇2일째전적 (4일·建國大球場)

預陽工 0—0 中央 (1무1패) (1무1패)

安養工 1 (0—0) 0 中東 (1승1패) (1—0) (1승1패)

大田商 0—0 京城 (1무1패) (1무1패)

預陽工 (1승1무) 1 (1—0) 0 (0—1) (1승1무) 東亞

大新工 (1승1패) 1 (1—0) 0 江陵農 (1패)

大宇여자팀派遣

멕시코國際排球

4일배구협회는 오는24일부터 28일까지 멕시코프에블로市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배구대회에 大宇實業 여자배구팀(任員3, 選手11)을 파견키로했다.

이대회여자부에는 韓國 日本 캐나다 쿠바 산로도밍고 멕시코등 7개국이 참가한다.

▶ 1974.04.09 조간 8(1)

건대총장배 축구예막

중동, 안양공고 꺾고 우승

中東、安養工꺾고優勝

建大總長杯축구폐막 最우수選手賞 李基錫

中東은 제4회 建大총장杯쟁탈 전국축구대회 최종일전 승전에서 李炳珠(FW)의 외 1골을 득점으로 安養工을 2대1로 격파, 지난3월 春季연맹전에이어 2년째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대회 최우수선수 상에는 中東의 李基錫(LK)에게 돌아갔다.

◇최종일전적 (8일·建大庭)

中 東 2 (0—0) (2—1) 1 安養工

▲3·4위전

東 亞 1 (1—0) (0—0) 0 做新

▲최우수=李基錫(中東) ▲최고득점=吳錫在(東亞) ▲감독=金명환(中東고진) ▲감투=做新▲모범=東亞

▲결승

▶ 1974.4.21

「電鐵희생」事故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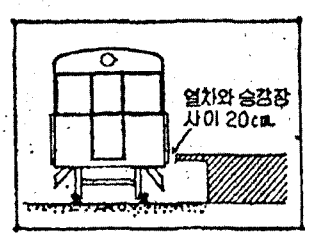
開通두달…28명死傷 一般열차、플랫폼壁접근

【安養=金文洙기자】전철시대의 문턱에서 희생자가 많이나고있다。

현재 운행되고있는 열차와 한창 건설중인 전철의 구조차이는 열차의 승강구가 전철역 플랫폼보다 1m 낮고 통과하는 열차와 플랫폼사이가 20㎝밖에 되지않아 만원열차에 매달려가던 승객이 부딪쳐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는 거의가 水原平沼동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이나 상인들로 야간만원열차에 매달려가다 부딪치는 것이다。야간열차는 더 부분 만원으로 운행되고있다。

낮에도 전철공사장에는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가 없어 열차를 이용하는 많은 승객에게는 복병노릇을 하고 있다。



개통두달

전철 희생사고 늘어

▶ 1974.5.7 조간 7(10)

힘모아 키우던 金鷄도난

安養 삼성국교 어린이들 울먹

【安養】安養시 石水동 三星국민학교 2천여 어린이들은 힘을 모아 키워오던 금계 30마리중 12마리 (암8、수4마리)를 잃어 모처럼의 어린이날에 울음보를 터뜨렸다。

어린이회장 임광현군(12)이 아침 일찍 계사를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

6일 어린이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날을 망친 도둑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진정키로 결의했다。

힘모아 키우던 금계도난

안양 삼성국교어린이들 울먹

▶ 1974.7.6 조간 7(1)

"서울轉學불허"에 學父母농성

議政府-安養등 高校서 "缺員생긴다" "願書안써줘

서울에 전가족이 살고있는 지방고교 1학년생의 서울전입학을 허가키로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방침이 지난1일 발표되자 議政府·安養등 서울 인접도시의 신설고교에 재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서울전학을 원하고있어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원서를 써주지않아 학부모들이 농성, 항의하는등 물의를 빚고있다. 전학원서를 써주지않는것은 학생들이 타지나가면 결원이 많이 생겨 학교운영에 타격이 크기때문이라는것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사정이 그렇다해도 멀쩍 남겨놓고 학교의 이익만 추구하는것은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장은 사태는 원서 마감일인 8일을 앞두고 심각하게 번졌지만, 문교부는 올해부터 서울시내에 연합고사에의한 학군배정제를 실시하면서 서울시내고교에 전학못한 학생들의 구제책으로 서울인접도시에 고교를 신설했기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인접고교에 진학한 학생, 특히 지방부자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의 서울전입학을 허가한 것이다. 문교부는 해당고교들에 전학을 꼭 희망하는 학생들의 전학원서를 써주도록 지시한바있다.

◇교장실을 점거, 李在璟교감에게 전학절차를 요구하는 安養海松고교 학부모들.

재학생 48%희망

【安養】 5일 오전10시 安養시흥松고등학교 (교장 박노태·47) 1년 윤모군(16) 어머니 김순녀(38)등 50여명의 학부형들은 학교에 몰려가 『서울 전입원서를 써달라』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전입허가선을 지연시키고있는 議政府松고등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지난학기초부터 신입생 3백58명이 재학중인데 문교부발표이후 전체학생중 48%에해당하는 1백77명이 서울전입을 희망, 학교문을 닫아야할 심정에 놓였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이들학생이 모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당초 입학생들로부터 받은 「학교지시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내세워 서울전입을 허가하지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양 등 "서울전학불허"에 학부모 농성

고교서 "결원생긴다" 원서 안써줘

▶ 1974.7.11 조간 7(9)

안양주부들 한전에 보상요구

가정용전선에 고압전류 TV등 망가져

가정용電線에 高壓전류 "TV등 망가져"

安養주부들 韓電에 보상요구

▶ 1974.8.15 조간 7(5)

북의 아내 그리며「독신 29년」

광복절 화제 안양의 金炳雲씨

北의아내 그리며 獨身29년

——光復節화제 安養의 金炳雲씨

◇金炳雲씨

33살때 越南길… 머슴살이 까지

婚處생겨도 "조금 더 참자"

▶ 1974.9.7 조간 7(6)

勞賃·資材등 가로채

韓電 安養영업소 5千萬원 橫領협의

【安養】安養경찰서는 5일 韓電安養영업소(소장李在燁·48)가 긴급전기수용 공사대금자재및 지형의 노임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관계자 장부를 압수, 회사간부등을 소환 수사하고있다.

한전은 지난1월부터 8월사이 관하5개지역(安養동59·0) 건물1천7백90호의 전기공사에 의한공사비로 매가옥당 1만5천원씩 받도록 업자에 하청시켰다.

전선과인건비등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업자들은 또다시 주민들로부터 공사비를 받았으며 전선도 규격품인2·6보다 나쁜 2종짜리를 사용, 주민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5천만원을 횡령했을것으로 보고있다.

한전 안양영업소 노임-자재등 가로채

5천만원 횡령혐의

▶ 1974.9.19 조간 7(1)

수도권電鐵 탈선·斷電 소동

어제 두차례…安養-漢江橋 一部線불통…차표 還拂

18일 수도권전철구간에서 2건의 열차및 전로사고가 일어나 복구작업을 하는동안 일부전철이 불통됐고 연착이 잦아 환불소동을 빚는등 혼돈을 빚었다.

첫사고는 오전 9시50분쯤 서울영등포역에서 安養역으로 가던 5809호 화차 (기관사 김영기·38) 가 영여서 5번포인트 옆의 전동보인트 분기점을 지나던순간 화차1량이 탈선함으로써 빚어졌다.

九老—영등포 상행선 구간은 복구작업이 끝난 오후4시45분까지 7시간동안 전철과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보선 (2만5천V)의 하행열차가 오지않아 1천여명의 승객들이 한때 소동을 벌였고 이중 九老역에서는 4백여명이 차표환불을 받았다.

두번째사고는 오후3시10분 永登浦역, 九老방향 상행선 구간을 지나던 전철이 갑자기 멈추어 1시간40분동안 전철운행에 혼란을 빚었다.

사고는 전차선보선이 끊어져 동인천과 전철인력연결의 변압기 (換壓)째 九老기지에 떨어져 일어났다.

두번째사고는오후3시10분 永登浦역, 九老방향 상행선 구간을 지나던 전철이 갑자기 멈추어 1시간40분동안 전철운행에 혼란을 빚었다.

사고는 전차선보선이 끊어져 동인천과 전철인력연결의 변압기 (換壓)째 九老기지에 떨어져 일어났다.

이 때문에 이구간의 열차가 오후4시25분까지 1시간15분동안 멈추어 섰다.

전차선이 다른 전도체와 닿아 정에 닿으면 전력공급원인 구로변전소의 변압기 퓨즈가 자동적으로 끊어진다.

이사고로 지하철에서는 京水로 연결운행을 모든열차는 중도折返했으며 京仁線은 仁川—九老역간, 京水線은 水原—九老역간만 운행했다.

수도권전철 탈선-단전 소동

어제 두차례…안양-한강교

▶ 1974.10.1 조간 8(5)

청룡기 축구 고등부 청구-안양공고 쟁패

青丘(大邱)·安養工 쟁패

青龍旗축구 高等部서 嶺南商—東萊격파

【釜山】29일 야간경기로 열린 제18회 青龍旗쟁탈 全國中高축구대회 준결승에서 青丘와 安養工이 嶺南商, 東萊를 각각 1대0, 4대0으로 격파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大邱青丘는 강호嶺南商과 팽팽한 시소게임이다가 후반20분 조태천이 단독으로 대시, 페널티에리어에서 슛한 것이 골키퍼가 펀칭으로쳐내자 윙쪽에서달려들던 안호상이 가볍게차넣음으로써 決勝點을 얻었다.

한편 安養工은 鐵刀과 個人技에서 東萊를압도, 일방적인 공세를 유지했다. ◇3일째전적 (29일·釜山九德運)

▲고등부준결승

大邱 1	(0—0 1—0)	0 嶺南商
青丘		
安養工 4	(3—0 0—0)	0 東萊

▲중등부준결승

釜山鎭 1	(0—0 1—0)	0 中央
東萊 3	(2—0 1—0)	0 海東

▶ 1974.10.2 조간 8(4)

청룡기 중고축구 청구-안양공고 공동 우승

青丘·安養工 공동우승

青龍旗中高축구 中等部선 東萊3연패

【釜山】慶北青丘高와 京畿安養工高는 30일밤 부산구덕경기장에서 폐막된 青龍기쟁탈 제18회 전국중고교축구대회결승전에서 열띤 공방전을 벌였으나 양교 모두 득점없이 승부를 가리지못해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고등부 3·4위 전에서는 東萊商과 嶺南商이 2대2로 비겨 공동3위를 마크했다.

이에앞서 벌어진 중등부결승전은 東萊中이 釜山鎭中을 3대0으로 가볍게눌러 지난해에이어 2연패를 차지했다. ◇최종일전적(30일·九德)

▲高等部결승

青丘高	0—0	安養工
▲同3·4위전		
東萊高	2—2	嶺南商
▲中等部결승		
東萊中	3—0	釜山鎭中

▶ 1974.10.9

凱歌 東亞(부산)·安養(경기) 첫 蹴球고등부

清州商·光州工에 각각 2對1勝

仁荷附高, 大東(全南)격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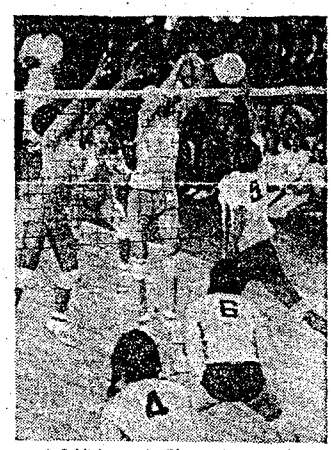
排球

55회 全国体典

제1일

「올림픽」기, 알린팬레, 및 나는 開催을 뉴점하는 제 55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이어 蹴球, 排球, 부산등 3개종기가 스타트, 熱戰에 돌입했다. 오후 1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蹴球 고등부 1회전에서 釜山 東亞는 뛰어난 팀웍으로 후지가 좋은 淸州商을 2대1로, 蹴球 安養工은 全南 光州工을 2대1로 각각 격파, 2회전에 진출했다.

또 排球남고부 1회전 (慶大) 에서 京畿 高大부속을 수비부속의 全南大東을 3대0 스트레이트로 물리치고 忠州商은 全北 裡里을 각각 3대0으로 물리치고 서전을 장식했으며 여고부 1회전(大成館) 에서 江原 裕鳳을 慶北 여상과 2시간45분을 안 접전을 거듭한 3대2로 간신히 이겼다.



◇2시간45분의 熱戰…4세트에서 慶北女商 金英淑(9번)의 헌닝 스파이크가 裕鳳 李明美의 블로킹에 걸렸다. 3대2로 裕鳳의 승리.

裕鳳(江原)·第一(慶南) 2회전에

女高

▲女高部 1회전

京畿仁荷附 3 — 0 大全東南
(15-15-6 / 15-7-5)

忠州商 3 — 0 全北裡里
(15-15-6 / 15-7-6)

慶南第一 3 — 0 永化女商
(15-15-7 / 15-6-7)

江原裕鳳 3 — 2 慶北女商
(15-8-12 / 13-10-15-8-15)

서울市, 入場賞1位

2位 全南·3位엔 慶南

8월 體育 개최직전장상심 1위의 대통령상에 1천4백점을 획득한 서울시선수단을 위한 入場賞은 2위의 문교부장관상은 1천3백87점을 얻은 全南

위의 大會종합점수 1천3백41점을 획득한 慶南선수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 서울시선수단의 입장식 장면과 함께 이들 3개시상품을 획득한 慶南선수단이 상경, 金浦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포드전을 장악, 金銀銅

▶ 1974.10.12 조간 7(1)

首都圈에 煉炭기근

搬出단속 강화로

"소문 안내겠다" 웃돈 붙여

아궁이無視…家口敷만 따져 50원주고도 못사

◇서울시의 강력한 연탄시외반출 합동단속으로 인천 수도권지역에연탄기근따똥이일고있다.

수도권에 연탄파동이 일었다. 예년보다 두부이상 일찍 닥쳐온 추위로 연탄이 오르고 달리기까지 하는것이다. 서울의 그럴고 京畿도의 江原도의 일부지역에서도 그렇다. 서울시는 공급이 달리는데다 지역별 배정량도 고르지않아 일부지역에서는 『소문을내지않겠다』는 조건을 붙여 숨은물량이 주고아 배정받아야 한다. 식은 京畿도에 하루 35만장씩 공식으로 지원하면 한도 지내에 장출한다고 했지만 기근을 줄리지 않았다. 지난4일부터 반출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해놓고도 京畿도의 安養 城南 富川 始興 高陽 金浦등 京畿도와 江原도의 鐵原등 2도17개지구에 아직지원을 않았다. 서울의 지원이중단되고 京畿권 50여만 장의 반입도끊긴 京畿도는 최악의 사태여서 11일에는 安養의 주부 20여명이 시청에 몰려와 『연탄을 배정하라』 고 20분동안 떼모를하기까지했다. 그동안 45원이던 소매가 1백원까지 올라 비명을 지르고있다. 江原도의 鐵原 揮口 富川 春川등에도 비공식이긴하지만 생산량을 늘여서라도 수요를 맞추겠다는 진정도 들린다.

서울시道峰구水踰동, 牛耳동등의 일부 연탄판매소에서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30원에부인 22공탄을 다점을 받고 33원씩 받으며 『소문난 내지않겠다』는 담석을 붙고 아 배달해주고있으며 麻浦구 城山동, 西大門구 弘濟동등지에서도 개당1~2원씩을 공공연히 올려받고있다.

또 西大門구 蓮花가동등은 연탄배정량이 달려 가구당 한달에 1백장을 배정되지 않아 주부들이 연탄을 사기 위해 아우성이다.

반면 東大門구 面牧동, 麻浦구二龍동에서는 연탄이 남아돈다고.

33평형에 한겨울에 1백장을 들여놓았다는 道峰구水踰2동 282의 주부는 『아궁이가 5개인데도 5개에 50장을 줄 거냐 1개월에 50장을 사기 힘들다』 고 울상이었고 연탄판매 순주인 金모씨(42)는 『배정량 양으로는 가구당 한 달에 1백장을 배달할 방수없어 연탄이 남아도는 지경이라 배소에서 숫돈을 주고 반출 중간 사람기 때문에 33원을 주고 개당 1원밖에 남기 못한다』 고 말했다.

이날현재 京畿도의 연탄재고량은 서울가 아니수와는 상관없이 가구수 만을계산, 지역별평균방출량을 경했고 가정이지만이 많을것이라고 지적하자, 주택가에는 공장을 중심해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投값返還소동도

【仁川】 서울시의 지외반출 단속후 仁川지역에는 반품귀현상이없어 서울에서 반입되는 연탄이 엄청나게 비싼값

主婦들 연탄難 항의

安養시청에 20餘名 "對策세워라"

【安養】 11일 오후 安養1-6동등5구7반지 申원호씨 (45. 연)등 가정주부 20여명이 安養시청에 몰려와 『연탄배정을 늘려줄것』 을 제기하는 등 한때 소동을 빚었다.

申씨등은 15일간 배급받을 연탄이 고작 5장밖에 안돼 1백원씩에 팔기때문에 연탄을 지어줄수 없다는 연탄사 사정 등을 이유로 『연탄배정을 늘려줄것』 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안양시는 이날중으로 2톤짜리 연탄을 6장 주민들에 배정 배달하겠다고 약속, 주부들은 해산했다.

安養시는 7월22일까지 5만1천장씩 배정하겠다는 安養시의 2개연탄판장이 하루2만장을 생산할수 있다고 판단, 2만장을 배정했다.

하루 7만5천장이 모자란다. 安養시는 7월22일까지 5만1천장씩 배정하겠다는 安養시의 2개연탄판장이 하루2만장을 생산할수 있다고 판단, 2만장을 배정했다.

주부들 연탄난항의

안양시청에 20여명 "대책세워라"

▶ 1974.10.16 조간 7(1)

主婦들 연탄車 잡고 소동

어제 始興서 3百餘명 輸送 가로막아

"서울사람만 살면 되단 말이냐"

집게들고 示威 1시간

◇『서울시민만 살고 우리는 죽으라는 말이냐』고 주부들이 연탄집게를 들고 시위하고있다. <安養=金文洙기자 찍음>

"열흘동안 3~4장으로 살았다"

【安養】 연탄에 굶주린 주부 3백여명이 연탄집게를 들고나와 수송차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다. 15일 오전 10시40분쯤 始興군西면 所下리 33 韓正順씨(50) 등이 서울관악구 始興동 始興대교앞에서 始興동 한일 삼천리 대정동 3가 연탄중앙의 트이 그동그속 실려 나가는것을 바라보며 『安養川이 사이에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우리는 연탄기근을 겪어야하느냐』 며 이지면서 서울7나4098호 삼륜차 (운전사 金鍾承·24) 를세워 실려있던 연탄8백장을 산시간에 걷어내리고 1시간20분동안 소동을 벌였다. 주부들은 10인동안 3~4장밖에못받아 할도전지 못한집이있다면서 『서울사람만 살면 된다는 말이냐』 『추기위해 떼모은 하는것』 이라고 아우성치다 경찰에의해 해산됐다. 내려졌던 연탄은 도로 실려갔다.

주부들「연탄차」잡고 소동

어제 시흥서 3백여명 수송 가로막아,
"서울 사람만 살면 된단 말이냐"

▶ 1974.10.19 조간 7(7)

하루 6百萬개씩

市, 내주부터 연탄供給量 확대

서울시는 18일 연탄공급량을 하루 5만5만개로 늘린데 이어 21일부터는 다시 6백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평정구영상으로 되었던 연탄을 수송지원 상 서울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始興군西면所下리동 7개 지역엔 이달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연탄을 공급키로 했다.

7개지역에 공급되는 연탄은 하루 7만개다.

연탄업 직접 공급지역과 1일 공급량은 다음과같다.

▲西川군포리, 古浦리(4만5백개) ▲成洲군西部면所下리(1만3천2백개) ▲始興군西면所下리(1만5백개) ▲成洲군西部면所上리(7백개) ▲成洲군西部면梧山리(5백개) ▲成洲군九峯유원지1리(1천6백개) ▲龍洲군九峯유원지2리(2천2백개)

「抗議주부」 6명 出發

安養市 煉炭 갖고도 示威했다고

【安養】 18일 安養시 富연탄 鳥 탄탄」고 지난 17일 동사무소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인 新興洞統장 (57·여·石水동104) 와 林三順씨(63·石水동104) 등 6명의 주부 등 시위진정현의로 경찰에 끄 발됐다.

新興동은 지난17일 오후 3시쯤 石水동사무소에 찾아가 『왜 연탄을 안주느냐』고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던다.

동장 金熙錫씨 (52) 등 직원들은 이날정오 조사한결과 新興동은 1백16장, 林씨는 7백10장의 연탄을 저장하는등 6명의 집에 모두 연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傳票制 병행

安養연탄공급

【安養】 安養시는 18일 연탄기록장제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연탄카드를 모두 회수, 21일부터 전표제를 병용키로했다.

시는연탄기록장제가상인들의 농간으로 가수요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감안 20일까지 회수된 연탄카드를 동별로 다시 분류, 연탄공급량을 조정, 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新興동과 林씨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특정에 통보했다.

사람유 비축량이 많은 가정에는 공급을 일시 중지하고 연탄이없는 영세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표를 발급,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했다.

안양시 연탄 갖고도시위했다고

「항의주부」6명 고발

▶ 1974.10.20 조간 7(9)

矯導 2명 拘束

安養교도소장등 解職-6명 懲戒

法廷살인引責

법무부는 19일 서울지법永등지원에서 열어난 법정살인사건의 책임을묻어 安養교도소장 閔某씨와 朴某씨 (27) 등 6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서울지검 永등지청은 이날오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6명중 朴某씨와 교도보 某씨 (32) 등 2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법정 살인인책 교도2명 구속

안양 교도소장등 해직-6명 징계

▶ 1974.10.27 조간 7(1)

再搜査지시… 두달째 放置

安養접대부殺人 경찰、心證만으로 용의자를 眞犯化

전말의 재수사지시관 발표 경찰이 「진범의 심증」을 내세워 2개월이 넘도록 수사 외 기미를 보이지않고있다. 국다가 경찰은 범인체포의 공을 인정, 경사로 특진 시켜 사건해결을 기정사실화해버렸다.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는 전송되어 돌아왔고 검찰은 없고해도 경찰서는 미제사건에서 제외, 해결된 것으로 처 검찰한 살인사건의 진상을 기려져 버렸다.

永登浦署 체포 警官은 특진시켜 轉出

지난 6월 6일밤11시쯤 서울永登浦구 安養川변에서 京畿도안養군西면新山4리 집 더부살이 元山서(35)의 아내 도리기 넘겨지고 목이 눌려 죽은 사건을 수사하던 永登浦경찰서는 14일만인 20일 永登浦구 江아주동에 사는 任광룡군(19)을 범인으로 검거, 이사건과 73년12월 피살된 金포仙양사건등 安養川주변에서 일어난 13건의 강간사건의 자백을받아 7월 18일 살인, 강간, 강간치상등으로 서울지검 永登浦지청에 송치했다.

永登浦지청 검찰부는 검사는 1차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任군이 2차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 任군의 피해자가 고발하여 증거가부족하고 또 피해자가 고발하여 증거가부족하고 또 피해자가 고발하여 증거가부족하고 또

▶ 1974.11.10 조간 7(5)

精米所에 불

安義서, 收買穀 5백가마 태워

10일 새벽 0시20분쯤 安義시 1동92 三光정미소(대표 李光杓) 창고에서 불이나 1천3백여평 건물중 약 3백평을 태우고 1시간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안에 있던 벼와 쌀 5백여가마와 창고옆 정미소의 도정기(시가 80만원) 3대가 탔다. 불이난 창고는 시흥군 농협창고감 관리하고 있어 정부수매양곡등 1천여가마를 보관중이었는데 밤 10시쯤 정미소 작업이 끝나고 숙직자 1명도 자리를 비어있었다.

.첫목격자 韓王敎군 (19)에 따르면 불길은 공장 천장쪽에서 치솟기 시작했다는것이다.

경찰은 누전으로 불이난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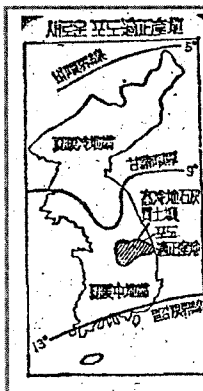
안양서 정미소에 불

수매곡 5백가마 태워

▶ 1975.1.10 조간 2(3)

버려진땅을 포도원으로

平昌-旌善일대 7개郡 高山지대



不毛地로 버려진채 火田民들이 개간하고있는 강원도의 平昌旌善일대 7개郡 高山지대가 포도재배의 適地인것으로 밝혀져 山地개발과 포도주醸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50년대에 경기도 安養일대가 포도主産地로 개발, 시장을 석권케 했던 포도전문가 韓仁錫씨(경기도 안양시 안양동608)등 민간농업기술자들이 작년1년동안 전국에 걸쳐 실시한 「포도栽培 適性地 査」끝에 밝혀진 것이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강원도의 포도適地는 평창, 정선, 영월, 三陟, 旌城, 平昌川동 7개군의 고산지대(해발 400m이상)로 여름철 기온이 25도이하로 내려가는 서늘한 기후와 1급지역이며 나머지 강원도 전역의 약수재배지역(火田)인 산악지대도 2급지역으로 나타나 있다.

포랑스最適地와 맞먹는 國內1級地

10萬정보 개발…年5百萬섬 수확가능

조사에 의하면 平昌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12도로 세계제1의 포도산지인 프랑스 보르도(12·8도)와 1도밖에 차이가 없어 강우량은 1백50mm가량 보르도보다 3백mm가량 많으나 여름의 집중적인 강우인만큼 포도재배에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1천mm이상의 강우량은 사실상 양조용고급포도栽培가 불가능한것으로 알려졌을뿐더러 전국에서 가장 비슷하다 보르도(12·8도)와 3백mm가량 많으나 여름의 집중적인 강우인만큼 포도재배에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농수산부에서도 野山개발과 연간 8백만섬에 이르고있는 酒消비량을 충당하기위해 대대적인 포도재배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포항 大雄興産 등 민간업체에서도 수만정보의 포도재배를 계획중으로 보인다.

포도재배에 적합한 지대는 해발 400m이상의 고산지대로 산지가 많고 경사가 급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개간에 많은 노력이 들고 또 개간한 땅이 비옥하지 못하여 비료를 많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포항 大雄興産 등 민간업체에서도 수만정보의 포도재배를 계획중으로 보인다.

포도의 生産性은 段步당 4백관을 수확, 5섭80관을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돼 段步당 4백kg을 얻는 섭산지대에 비해 10만정보의 포도園地가 개발될경우 5백만섭의 포도주를 생산, 국내 수요량(연간 완전히 代替할 수 있을뿐더러 1백만섭이상의 고급포도주를 수출, 2억달러이상의 外貨를 획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포도園地 개발경우 운반을 위한 交通網이 갖춰져야 하고 전혀 포도재배경험이 없는 농가에의 기술지도 재배지역안의 포도수 加工 등 施設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급지역으로 운산이 많아 바위가 많이 섞여 있는 자갈밭의 반사열로 낮동안의 地熱을 높이는 반면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 日較差가 큰만큼 糖分의 축적이 많아 양조용 고급포도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강원도 山地에 포도개발에 있어 毛地의 이용에 그치지않고 現在 진행중인 火田정리사업에도 전혀 새로운 定着農가의 培養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버려진땅을 포도원으로

평산-시흥일대 7개군 고산지대

▶ 1975.1.16 조간 2(8)

安養-天安間 9개市 都市計劃 44% 축소

건설부는 서울을비롯 주한 변도시의 인구및 산업의팽中 과 도시의 도시化를 막기위 해 安養에서 天安까지 연결 되는 安養 水原 台安 烏山 松炭 平澤 孔道 成歡 天安등 9개도시의 도시계획 면적을 44%축소 조정, 15일 告示했다。

서울에서 天安까지 연결되는 도시들의 도시계획면적을 축소조정한것은 이지역이 평면적으로 부절서하게 확산, 도시가 연결되는 전을막고 이 지역의 자연환경및 耕地를 보존하기위한 것으로 행정구역과 지형등을 감안하여 도로, 하천등 주요시설물을 경계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한것이다。

이번 지역의 도시계획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도시구역 면적은 현재 6백55㎢에서 3백67㎢로 2백88㎢가 줄어들게 되는데 도시별 조정면적은 다음과 같다。(단위㎢, 괄호안은 현면적)

▲水原=120(203)▲安=0(8)▲烏山=11(52)▲松炭=11(15)▲平澤=14(46)▲孔道=0(42)▲成歡=7(55)▲天安=48(78)

안양-천안간 9개시

도시계획 44% 축소

▶ 1975.2.12 조간 6(1)

자칭「義盜」는 잔인했다

——檢擧된 安養 2인조 强盜의 行脚

確認된「善行」60여회

대낮 婦女子있는 집만 털어

◇義盜를 자처해온 2인조강도범들.
(왼쪽부터 權正燮, 權容洙)

대낮 주부혼자있는 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의도(義盜)행세를 해온 2인조강도가 경찰에 잡혔다。 관내 관악구 봉천동326 朴정분인은 權容洙(25·서울 冠岳구九老동326)와 權正燮(26·慶北醴山군醴泉면 浩山리150)。

이들은 지난달 22일오후1시50분쯤 安養시 石水동344의9 李모씨(33·회사원) 집에들어가 李자 집안보모李모씨(25)를 협박, 집안에 있던 현금 6만원, 금반지 등 20여만원어치를 털어 나눠줬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또 『범행은 주로 대낮 혼자있는 부녀자를 골라 했다』며 『한달에 3~4번씩 범행을 했는데 돈을 가졌거나 없을 때는 심심풀이로 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는 부녀자를 겁탈하기도 했다』고 말

▶ 1975.3.1 조간 2(4)

금성방직 안양공장도 헐린다

省谷이 유택으로 가는 날

省谷이 幽宅으로 가는날

金星紡織 安養공장도 헐린다

27년만에 住居地로 변해

술한哀歡…푸른蹴球場 한때 有名

Q:故人이된 金成坤씨가 48년설립, 安養 발전과 함께 술한애환을남긴 金星방직 安養공장 (현 大韓방직 安養西공장)이 金씨가 幽宅에는 1일0시 27년간의 힘찬고동을멈추고 폐기식작, 金씨와 운명을 함께하게됐다.

故人은 해방직후인 48년 소규모 紡紡생산시설을 갖춘 朝鮮紡織을인수, 그해10월5일 현재공장부지 14만평에 2만평규모의 공장을 세웠다.

이때安養의인구는 1만명미만으로공장주변은 밤나무숲이 구되는 시련을 겪기도 한 이공장은 故 金成坤씨의 손때가 묻지않은곳이 없고 그와 얽힌 애기들이 많다. 62년에는 현록축구선수인 金容植씨를 監督으로 초빙, 1만5천평의 공장대지에 잔디밭 蹴球장을 만들어 박수갈 차준만 오윤복 송경호 등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를 길러냈고 실업팀 을 육성, 해외에 원정보내기도 했다.

작년3월까지 남아 있던 잔디球場은 현 국가대표선수들의 연습장이기도했다.

고향의 어려운이웃들을 고용했던때문에 한때 安養은 경상도사투리를 쓰는 아가씨들이관을쳤고 추석등 명절 때면 安養역은 金씨가 전세내 제공한 열차편으로 귀향하는 여공들로 붐비기도했다. 故人과同鄕이라서 20년간이공장에서일해왔다는서무과장崔鍾錫씨(47)는 『한때 여공들이 유니폼파 회모자를쓰고 시내에 나가면 대환영을받았고 월급이 가장많은 공장이기도했다』고말했다.

공장부지가시가지중심으로 변해 주거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현방공장 통합계획에따라 방적추 6만8천추는 淸州공장으로 옮겨지고 공원1천명도 회망에 따라 전원 淸州공장에서 휴수기로 돼있다.

【安養=金文洙기자】

▶ 1975.3.15 조간 8(4)

釜山中央·安養中 2회전에

全國中·高축구개막 江陵農工、東亞격파

제12회 春季전국 中高축구대회가 14일 孝昌운동장에서 개막, 첫날 中等部 1회전에서 釜山中央은 서울 培材를 5대0으로 대파했고 安養은 普成을 3대0으로 꺾었다.

高等部 예선리그에서는 江陵農工이 釜山東亞를 3대1로 물리쳤다. 이대회에서 中等部에는 24개팀이토너먼트로, 高等部는 40팀이 예선리그로 승패를 겨룬다.

◇첫날전적(14일·孝昌運)

▲中等部1회전

安養3 (3-0 0-0) 0普成

釜山中央5 (4-0 1-0) 0培材

▲高等部예선리그

培材2 (1-1 1-0) 1中大附

江陵農工3 (1-1 2-1) 2釜山東亞

慶陽工4 (1-0 3-0) 0大東商

전국중고축구 개막

부산-중앙-안양중 2회전에

▶ 1975.3.25 조간 7(10)

부교재 수업 버젓이

안양시내 중학교 교사들
교과서 대용으로

副教材수업 버젓이

安養시내 중학교 교사들 교과서代用 으로

▶ 1975.4.6

◇安養工—徽新운동장전… 몸비보 진흙탕돌속에서 혼전, 선수들은 컨디션을 찾지못하고 있다.

中大附·安養工쟁패

建大총장杯 고교蹴球 강호 永登浦工·徽新눌러

건대총장배 고교축구

중대부-안양공쟁패

▶ 1975.4.8 조간 8(1)

安養工 宿願의 첫 覇權

建大총장杯 고교蹴球 中大附 3對0 大破

安養工은 6일 延大球場서 폐막된 제5회 建國大총장杯 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결승에서 中大附를 3대0으로 대파, 3, 4회 대회의 준우승에 이어 감격의 첫패권을 차지했다.

1만여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경기에서 安養工은 고른개인기와 팀웍으로 中大附를 라도, 전반20분께 스트라이커 金鉉洙의 스루 FW李永吉이 받아 골 팀숏, 선취점을 뽑았다.

계속 공격의 페이스를 늦추지않은 安養工은 2분후인 22분께 골게터인 FW金鉉洙가 미들필드에서 단독 대시, 슛을 성공시킴으로써 전반에 이미 승세를 굳혔다.

후반에서 安養工은 일방적인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 5분께 FW趙漢政이 문전혼전중 中大附 GK 吳승진을 제치고 가볍게 오른쪽 네트에 꽂아 3대0으로 승리했다.

◇최종일 전적(6일·延大球場)

▲결승전

安養工 3 (1 2—0 0) 0 中大附

◇개인상

▲최우수=기덕서(安養工)

▲득점=차도만(永登浦工·3골)

▲지도=鄭鍾德(安養工)

▲감투=全南機工

안양공고 숙원의 첫 패권

건국대 총장배 전국고교축구에서

▶ 1975.6.25 조간 8(5)

全南機工、龍文 눌러

敞新-中大附-安養工과 3회전 진출

대통령배 高校蹴球

대통령金杯쟁탈 제8회 전국고교축구대회 5일째(24일·孝昌) 2회전 경기에서 全南機械工은 龍文을 3대0으로 完破、3회전에 진출했으며 서울의 강호 敞新도 嶺南商을 3대0으로 꺾어 中大附 安養工등과 함께 역시 3회전에 올랐다。

全南機械工은 초반에 龍文파 팽팽하게 맞서 공방전을 벌였으나 득점없이 전반을 넘겼다。그러나 후반에 들어 포문을 열기시작、3분 龍文 문의 자살골을 얻어 1점을 보탰다。

◇5일째전적(24일·孝昌)

▲2회전

中大附 1 (0—0 1—0) 0 裡里

全南機工 3 (0—0 3—0) 0 龍文

敞新 3 (2—0 1—0) 0 嶺南商

安養工 1 (1—0 0—0) 0 永東

永登浦工 2 (0—0 2—0) 0 晋州

세곱 굳히고 후반에 朴正善의 센터링이 嶺南商 辛允基의 머리에 맞고 들어가 행운의 자살골을 얻어 1점을 보탰다。

◇5일째전적(24일·孝昌)

▲2회전

中大附 1 (0—0 1—0) 0 裡里

全南機工 3 (0—0 3—0) 0 龍文

敞新 3 (2—0 1—0) 0 嶺南商

安養工 1 (1—0 0—0) 0 永東

永登浦工 2 (0—0 2—0) 0 晋州

대통령배 고교축구

안양공고
3회전 진출

▶ 1975..6.27 조간 6(1)

水面사용권 다툼에 낚시 못해

—경기도 안양物旺 有料저수지

【安養】 주말마다 성황을 이루던 京畿道物旺 유료낚시터가 저수지수면 사용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낚시를 못하게 됐다.

이때문에 서울 仁川 水原 등지에서 찾아오는 태공들은 발길을 돌려야하고 태공을대상으로 생계를 이어온 낚시터주변 1백여가구 주민들은 큰 타격을 입고있다.

이 사용권 物旺 (일명 흥부) 저수지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始興군 興安농지개량조합 (조합장 徐炳吉) 이 낚시터를 2중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빚어졌다. 농조합은 72년 5월 內水面開發주식회사 (대표 殷鍾浩) 와 3년간 임대할때 「합수이양어, 유료낚시등 목적에 위배하지 않는한 계속 임대해준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 이를 어기고 D재벌의 仁松농장 (대표 閔仲基) 측에 전대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內水面開發측은 興安農組측 상대로 임차권존속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5일부터 낚시금지조치를 하고 나섰다.

內水面開發대표 殷씨는 『3년간 거액을 투자, 9백여만 마리의 어류를 증식했는데 농조측이 이를 D재벌에 넘겨 주려한다』고 주장, 당국 처사를 비난했다.

殷씨는 『어족을 육성하고 하는 農組측의 말은 9백만 마리의 고기를 떼죽음시키라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始興군당국이 內水面개발 재산인 어족, 시설을 D재벌이 조성한양으며 유료낚시터로 지정해주었다』고 주장, 시정을 요청하고있다.

한편 7년간 낚시터에서 노동을해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金鎭洙씨 (40) 등 주민들은 『당장 낚시를 할수없게되니 살길이 막연하게됐다』며 안타까와했다.

이에대해 仁松농장측의 한 관계자는 『저수지주변의 임야 등 90여만평을 사들였고 저수지를 개발하려면 전망이 밝을것같아 합법적인 절차같은이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尹祺泳 始興군수는 D재벌측에 유료낚시터지정이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興安農組측은 『內水面開發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수없다』고 맞섰다.

경기도안양物旺 유료저수지

수면사용권 다툼에 낚시 못해

▶ 1975.09.05 조간 8(5)

중고축구, 안양 2회전에

新興·安養 2회전에

中·高蹴球 漢陽工은 東大門商과 비겨

제13회 秋季 전국中高등구연맹전 4일째(4일·서울運) 중등부 경기에서 新興과 安養을 연파한 漢陽工은 東大門商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결국 무승부를 기록했다.

◇4일째전적 (4일·光興)

▲중등부

東大附中 3 (0-0 3-1) 1 光 云

新興 6 (2-0 4-0) 0 東大門

安養 4 (3-0 1-0) 0 鐵 湖

▲고등부

新興2 (1-0 1-1) 1 석 산

(1승) (1패)

漢陽1 (0-1 1-0) 1 東大門商

(1무) (1무)

東來 기 권 雲 湖

(1승) (1패)

興이 석산을 2대1로 누르고 1승을 기록했고 12조의 중등부 경기에서 新興과 安養을 연파한 漢陽工은 東大門商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결국 무승부를 기록했다. 송부담 가리지 못하고 1대1로 비겨 무승부를 기록했다.

◇4일째전적 (4일·光興)

▲송등부

東大附中도 光云을 3대1로 제압, 역시 2회전에 올랐다.

고등부 11조경기에서는 新

▶ 1975.09.14 조간 8(4)

安養、決勝진출

大田東、信興눌러 優勝다퉈

中高蹴球 중등부

제13회 전국 중고축구연맹전 13일째 (13일·東大門)중등부 준결승에서 安養을 맞신랑 大田東은 信興을 역시 2대1로 각각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 우승을 다투게 됐다.

이날 安養은 몸신의 스피디한 플레이에 휘말려 전반7분에 1점을 허용, 끝까지 추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공

수진의 전열 육가다듬은 安養은 후반 김완식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1대1로 타이를 이룬후 22분에 정해영이 논스톱슛으로 결승점을 올려 2대1로 逆勝했다.

또 大田東은 信興과의 게임에서 후반20분에 이대호가 25m지점에서 통슛을 성공시켜 2대1로 이겼다.

◇13일째전적 (13일·東大)

▲중등부 준결승

安 養 2 (2-1 0-0) 1 동 신

大田東 2 (1-1 1-0) 1 信 興

▲고등부 2조

東 北 1 (1-0 0-1) 1 中 東

▲同 승위 ①東北 1승1무

②安養工 1승1패 ③中東 1무1패

중고축구 중등부

안양 결승 진출

▶ 1975.10.15 조간 7(9)

잇단 반창고强盜

서울-安養서 어제 또 2건

14일오전 8시10분쯤 서울 麻浦구西橋동451의57 金大奎씨(51·사업)집에 괴도 괴한은 30대2인조 강도가들어 金씨의부인 田丙淑씨(46)와 어머니 姜妙順씨(71)를 반창고로 입과눈을가린후 2층 방에가두고 장롱을뒤져 현금 5만원과 다이어반지1개, 금팔찌 1개등 3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갔다。

범인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3남 明鎬군(17)의 『학교에서왔다』며 집안으로 들어와 明鎬군의 2층공부방을 뒤지다가 『무슨일이 있어서 그러느냐』는 田씨등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반창고로 입과 눈을가린후 45분동안 집안을 뒤졌다는 것이다。

姜씨는 범인들에게맞아 이빨 3개가 부러졌고 田씨는 목에 찰과상을 입었다。

【安養】安養시내에서 10일 사이 강도수법의 2인조강도 사건이 세번이나 잇달아 발생했다。

14일새벽2시30분쯤 安養시2동857 金貞雄씨(36)집에 괴한들 2인조 강도가 침입, 잠자던 金씨부부와 장남 孝眞군(7), 장녀 孝任양(5)의 입에 헝겊으로 재갈을물리고 방안을뒤져 현금1천5백30원을빼앗아 달아났다。

범인들은 돼지저금통 안에 돌아다니던 30원까지 털어갔다。

또 9일새벽 3시30분쯤이곳에서 2·3㎞떨어진 安養시石水동 안양대교옆 포장마차집(주인 崔今順)에 30대 강도1명이 들어 칼을수법으로 崔씨를묶고 현금2만3천원을 털어갔고 4일 새벽4시쯤엔 이곳에서 3백m떨어진 石水동 동원목재상(주인 李東益·56)에 강도2명이 침입, 李씨부부를 위협, 현금2만7천원을빼앗아달아났다。

서울-안양서 어제 또 2건

잇단 반창고 강도

▶ 1975.10.17 조간 8(6)

栗谷-安養결승

靑龍蹴球 京畿예선

【仁川=張昌植기자】靑龍旗쟁탈 제30회전국중고 축구선수권대회 京畿道예선이 16일 개막, 첫날 고등부에서 栗谷은 仁川을 5대0으로 크게 이기고 결승에 진출, 安養과 우승을 다투게됐다。

◇첫날전적 (16일·仁川)

▲중등부

安養 5 (3—0 2—0) 0 仁川

新興 5 (4—0 1—0) 0 光星

▲고등부

栗谷 5 (1—0 4—0) 0 仁

청룡축구 경기 예선

율곡-안양 결승

▶ 1975.10.18 조간 7(10)

서울-安養「반창고 强盜」 2人組 同一犯 단정

최근 서울과 安養에서 잇달아 일어난 「반창고 강도」가 2인조의 동일범소행으로 단정됐다. 경찰은 17일 이들의 인상착의서를 작성,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과도를 품었으며 피해자의손과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손발을 묶은뒤 달아난다.

「반창고 강도」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과 安養에서 발생(본보15일자) 하기전인 9월26일 서울 관악구 大方동 393의50 서울大농大교수 任炳彬씨 (54) 집에서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任씨에 의하면 26일새벽 3시쯤 복면을 한 강도 2명이 담을 넘어 안방문의 자물쇠를 떼고들어와 任씨와 부인 유윤악씨(51)를 칼로 위협, 너비 3㎝가량의 광목을 찢어 손발을 묶은뒤 방을 뒤져 현금 40만원과 금반지, 백금반지, 금으로된 행운의 열쇠, 금목걸이등 70여만원어치를 떼앗은후 방안에서 통금이 풀린 새벽 5시까지 있다가 『신고하면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협박하며 도망쳤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인상은 『한 사람은 차양있는 모자를 쓰고 키는 1백65㎝가량으로 비슷하며 하나는 서울말씨, 다른 한명은 경상도말씨인 20대청년이다』

서울-안양「반창고강도」

2인조 동일범으로 단정

▶ 1975.10.26

全世圭 始興 친구집서 붙잡혀

——典當鋪 살인강도 檢擧 詳報

包圍수색 15시간만에

安養서 4차례 出沒…千餘警官동원

건넌방 덮치자 "할말없다"

가진것은 現金 3千원·典當票뿐

◇犯人 全世圭 <별도촬기자 특파>

전당포살인강도 전세유 시흥 친구집서 붙잡혀

안양서 4차례 출몰

▶ 1975.10.26

美議會조사「지지부」로 계속 波紋
한국정부관리도 "확실성 높아 충격지도"

▶ 1975.10.30 조간 7(5)

「반창고 强盜」 검거

2人組…安養서

【安養=金文洙기자】 서울安養平洞 烏山동지에서 반창고로 눈과 입을 막는등의 수법으로 강도행각을 해온 2인조가 잡혔다.

安養경찰서는 29일 金泰煜(22·安養시石水동186)와 金昇日(20·安養시柳谷동56)을 특수 강도 강간 현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3시쯤 安養시石水동297 東林목재사에 침입, 주인 李益씨 (58) 부부를 칼로위협, 현금 2만3천원을 뺏은후 욕까지 보였고▲14일새벽 3시30분쯤 安養2동857 金貞雄씨(36)집에서 1천5백30원 강탈▲지난달 28일새벽 3시쯤平湖군松炭읍송천동758 吳世萬씨 (52) 집에서 강도미수▲같은날 새벽 4시40분쯤 平城군烏山읍烏山리569 金鎭錫씨 (44) 집포에서 1만8천원을강탈▲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大方동393의50 서울大農大교수 任厥彬씨 (54)집에서의범행등安養에서 3건, 서울에서 4건, 烏山에서 1건의 범행을했다고 자백했다.

7천원을 빼앗았다.

▲9일새벽 2시30분쯤 安養천변 許今順씨 (43)의 포장마차집에서 같은수법으로 현금 2만3천원을 뺏은후 욕까지보였고▲14일새벽 3시30분쯤 安養2동857 金貞雄씨(36)집에서 1천5백30원 강탈▲지난달 28일새벽 3시쯤平湖군松炭읍송천동758 吳世萬씨 (52) 집에서 강도미수▲같은날 새벽 4시40분쯤 平城군烏山읍烏山리569 金鎭錫씨 (44) 집포에서 1만8천원을강탈▲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大方동393의50 서울大農大교수 任厥彬씨 (54)집에서의범행등安養에서 3건, 서울에서 4건, 烏山에서 1건의 범행을했다고 자백했다.

안양서 2인조「반창고 강도」검거

▶ 1975.11.1 조간 8(1)

"패스-중거리슛 좋아 優勝확신"

◇鄭鍾德코치(安養工高)

청단5년의 짧은 연륜에도 각 종전국대회에서 10번이나 패권을 차지했기 때문에다른 팀의공격 타겟트가되어왔다. 그래서 우리와의 대전을 결승전같이 생각, 死力을 다해 도전해 오는 그팀에 끄전, 올해는 建國大총장기쟁탈대회등 2개대회에서만 우승했을뿐 만족할만한 성적을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고교축구의 頂上을 가릴하는 대회인만큼 꼭 이겨야겠다.

FW 李永吉 金炳洙 金炳哲 MF 張雲洙 金光明 金泰洙등이 주축을 이루어 4-2-4 포메이션으로 숏 패스와 중거리슛을 구사, 대량득점을 해보이겠다. 이작전이 여의치않으면 제2의 무기로 장신 李炳泰를 중심으로한 포스트플레이로 대처하겠다. 특히 金炳洙의 스트라이커 金光明을 수비의장신 閔源珉으로하여금 크로스마크시켜 1점도허용치않겠다.

◇張雲洙코지(啓聖高)

청단2년만에 처음 강호安養工을 맞게되어 준결승전이라는것보다 결승전에 임하는 자세로 싸워볼 생각이다. 준결승에 오르기까지 수비의 주역 林鍾翊등 잇단 부상자가 생겨 전력의 약화를 면치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대무기인 1백m 평균 12초대의 주력과 원동한 체력으로 후반에서 승부를 결정짓겠다.

安養工 鄭鍾德코치의 동생인 鄭寬율 비롯, 金永洙 金泰洙등 포드진과, 스위퍼 閔源珉이 이끄는 수비진의 테크닉은 安養工 공수를 무난히 파괴시킬 것이다. 특히 GK 吳世權의 쥐넓은 시야는 상대팀의 예리한 슛도 막아내는 초고교급선수이다. 그러나 중앙무대에서의 경기경험 부족이 우리의 핸디캡인것만은 사실이다.

"體力좋아 後半서 勝負지을터"

"守備보다 攻擊에 치중하겠다"

◇金耕知감독(永登浦工高)

대진운이 나빠 1회전과 준준결승에서 11m 승부킥으로 이겨 간신히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남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골게터인 金錫浩와 장신 韓道晩의 컨디션이 회복되어 주력이 뛰어나다는 江陵商의 수비진도 우리팀을 감당해내지 못할것이다.

지금까지 수비 중심으로 승부작전을 써왔지만 이제부턴 대량득점을 노리는 올라운드플레이로 전원공격, 전원수비하는 작전을 쓰겠다.

20년전의 제10회대회에서 우승했던 영광을 기어코 되찾아 오겠다.

青龍旗는 우리 차지

◇曺鍾一코치(江陵商高)

고른 개인기와 팀웍이 우리의 최대무기이다. 초반에 강력한 우승후보인 釜山공고를 2대0으로 격파한것은 포드진의 기동력이 빛나고 득점원이 고르다는것을 증명했다. 江陵商고의 게임에서도 1대0으로 리드당했으나 후반 포드진의 끈질긴 반격으로 두번이나 연전을 거듭했다. 勝運도 뒤따랐다.

준결승인 永登浦工과의 대전에서 꼭 이기겠다. 永登浦工은 지금까지 숭부킥으로 올라왔기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들필드까지 유도해낸후 朱昌鎬 辛命權 朴斗鎭 崔榮俊등으로 하여금 결승점을 따내도록 할 것이다. 선수들의 긴장도 다소 풀려 제페이스를 찾고있어 상대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여유득점하겠다.

"미들필드장악…상대守備 교란"

청룡기는 우리 차지

"패스-중거리슛 좋아 우승확신" 鄭鍾德 코치(안양공고)

▶ 1975.12.13 조간 7(5)

안양서 사상 첫 컬러TV 수업

15분간 드라마에 "아!"환성

史上 첫 컬러TV 授業

安養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컬러 TV에 의한 공개시범교육이 安養에서 있었다.

【安養=金文洙기자】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도된 컬러TV를 이용한 공개수업이 12일 오전 연구시범학교인 安養西국민학교 (교장 尹東昊)에서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李英燮박사)의 지난3년간 연구끝에 개발한 색수업방법을 실제로 학습에 적용시킨 이날 공개수업은 현재 시공이 한창인 교육개발원 부설 TV교육방송국에서 송신한 것인데 학생들은 신기한듯 TV를 보면서 책읽기와 셈하기 등 수업을 받았다.

수업은 3학년 3개교실 25인치 컬러TV 앞에 학생 각각 1명씩 앉아 10시45분부터 시작, 15분간 계속됐다.

수업내용은 3학년과 5학년 단원중 책읽기와 의무, 산수과목의 「정수」의 개념(5학년)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기위한 수업으로 방영시청부 학생들은 책읽기와 의무에 대한 개념을 재확립 했다는 것을 또는데 큰역할을 한다는것을 실증했다.

이같은 수업방법은 지도교사가 분필만을가지고 일방적으로 끌어간데반해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해보고, 기록하고, 토의,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학생이 중심이돼 탐구하는 획기적인 수업방법이라고 참석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원장 南德佑씨, 연구교수 金勝基씨와 1백40여명의 교육관계자들은 평가했다.

창원영림 프로그램은 서울 江南구우면동에세워진 컬러TV교육방송국에서 忠北 淸川송신탑을통해 발사된전파를 수신한것인데 현재 시범학교 6개교에 설치돼있다.

崔明坤씨 안양공고 축구코치로

▶ 1976.1.7 조간 8(7)

스포츠메모

崔明坤씨 안양공고 축구코치로

崔明坤(사진) 전 韓一銀행 축구코치는 6일 旗 故 대한체육회 축구부코치로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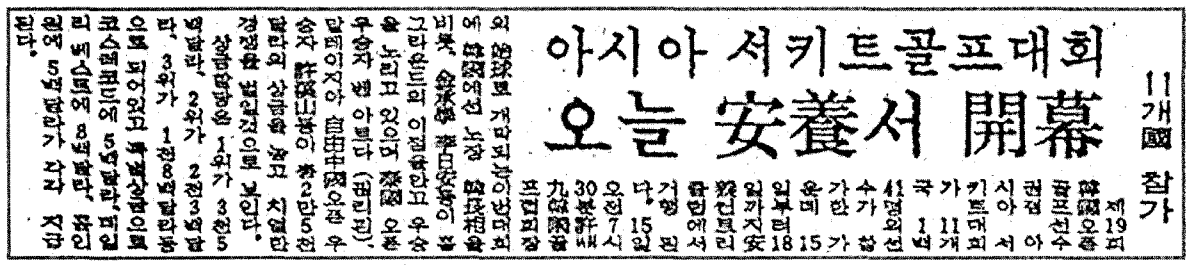
崔明坤씨 안양공고 축구코치로 전임

▲崔明坤씨 안양공고 축구코치로 전임

崔명坤씨는 6일 대한체육회 축구부코치로 확정됐다.

이로써 체육회의 전임코치는 유도 배구 복싱 레슬링 水上에이어 6명으로 늘어났다.

▶ 1976.4.15 조간 8(8)



아시아 서키트골프대회 오늘 安養서 開幕 11개國 참가

韓國오픈 골프선수권 아시아 서키트대회가 11개국 1백41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15일 오전7시 30분부터 18일까지 安養CC 27H코스에서 거행된다.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18일까지 安養CC 27H코스에서 거행된다. 제19회

아시아 서키트골프대회

오늘 안양서 개막

▶ 1976.5.12 조간 7(7)

腦炎예방 「生毒백신」개발 生產費 싸고 豫防率 높아 7月부터 대량供給 農振廳 安養가축위생研

간염예방「생독백신」개발

농업진흥청 안양가축위생연구소
7월부터 대량공급

▶ 1976.11.13 조간 7(4)

安溪川邊 女工살해 용의자 犯行을 自白

◇여공살해범 ㈜

안양천변 여공살해 용의자 범행을 자백

▶ 1976.11.26 조간 6(1)

中浪川·安養川邊 오염

京畿道 公害업소서 비롯

市, 上·中·下流 수질검사서 밝혀내

廢水정화처리 요청

서울시는 中浪川과 安養川오염의 대부분이 京畿道지역에 있는 공해업소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고 적절한 대책을 京畿道에 요청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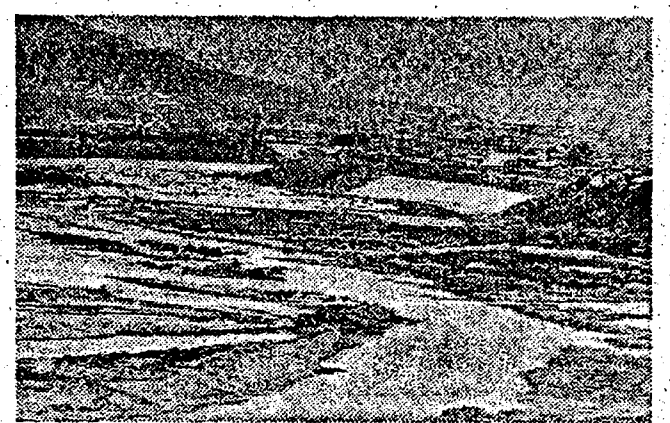
서울시는 지난 18일 시내 7개주요하천중 오염상태가 가장 심각한 이들 하천의 상·중·하류와 시경계, 하류등 3개지역의 물을 각각 수거, 시립보건 연구소에서 5일간 배양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의 발표에따르면 中浪川은 京畿道지역 상류의 수질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4PPm, SS(부유물) 38PPm이던것이 시경계에서 1백42PPm, 1백25PPm으로 크게 악화된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경계지역에서 이미 3백PPm에 달한것으로 나타났고, SS는 1백57PPm이던 것이 시역(市域) 을 통과한후에는 1백85PP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中浪川의 경우 京畿道지역에있는 대한펄프 중앙염색 라진물산의 정부직영 15개 공장에서 폐수정화처리를 하지않은채 하루 1만5천t의 폐수를 방류하고있다.

서울시지역의 공해업소는 모두 79개소로 하루 4만2천4백85t의 폐수를 내보내고있으나 13개 세차장을 제외한 전업소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내에 있는 공장들이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춘것은 아니나 오염요인이 많은 京畿道지역 공장들에 대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京畿道의 공장들이 中浪川과 安養川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중랑천-안양천변 오염 경기도 공해업소서 비롯

서울시, 상-중-하류 수질검사서 밝혀내 폐수정화처리 요청

▶ 1977.1.11

果川일대 大公園조성

昌慶苑施設 옮겨 어린이公園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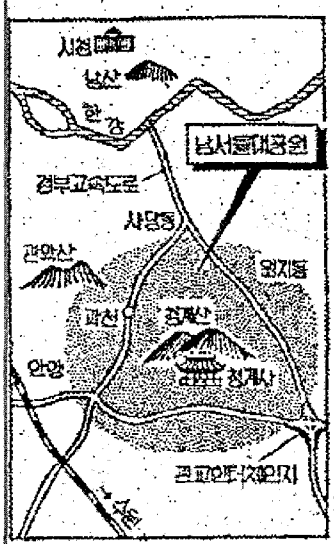
하반기쯤 부지買入·設計위해 예산追更

서울시는 강남부 원지동과 경기도시흥군 과천면일대의 야산및 임야 3백20여만평에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종원인남서울대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4백99억원의 투자로 3백73만평의 녹지대등의 자연미와 특색있는 어린이대공원등의 인공시설을 옮겨갖추게 될 이공원은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이라한다。

서울시는 이 종원건설의기본 계획에서▲야산 계곡에는 종이름을 만들고▲봉우리마다 등산로 산책로 드라이브코스를 만들며▲산정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과천저수지를 확장、보트놀이를 할수있는 유원지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종원안의 그린벨트지구는 종원용지로 바꾸기로 했으며、종원에 편입되는 산림의 사유지는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매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에는 자연과 인공을 종합한 대공원이 없어 이같은 종원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남서울대공원은 아니나、과천일대가 가장 적지로 손꼽히고 있다고말했다。



과천일대 대공원 조정

창경원 시설 옮겨

▶ 1977.2.10 조간 7(1)

工業用水가 모자란다

安養-水原일대 50餘공장 操業단축 위기

1주일째 隔日制 급수

"이대로 가면 輸出목표에도 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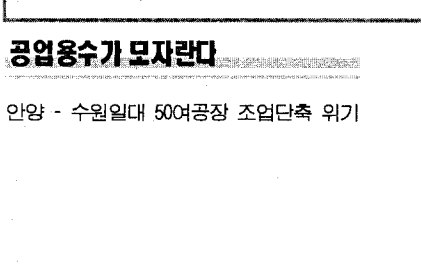
漢江수심 낮아지면 定量 揚水 불가능
淸潭취수장 取水口 江가운데로 옮겨야

「麗水 朴파 밀수」 原審파기
大法院 調書에 모순… 有罪인정 못해

韓國서 麻藥다량密輸
36億엔어치… 日警, 재일교포등 拘束

"55年史 告別"

바르다 위산과다 유궤양 120정(1,500원)



공업용수가 모자란다

안양 - 수원일대 50여공장 조업단축 위기

▶ 1977.2.11

南서울大公園

果川일대 4百66만평 확정

서울市, 총百43億원 투입 81년에 일부 첫 開園

望京臺에 전망탑-모노레일 시설구비
動·植物園과 博物館-어린이놀이터도
駐車場 9만평에 잔디스키장도 설치

남서울대공원

과천일대 4백 66만평 확정

▶ 1977.2.16 조간 1(7)

中小都市 집중개발

申建設밝혀 議政府-安養-富川등에

정부는 도시개발 정책방향을 대도시위주에서 중소도시 위주로 전환시켜나갈 방침이다。15일 申泂植 건설부장관은 전국經濟人연합회가 마련한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급속한 都市化과정이대도시위주로 진행되면 人口의 균형있는 배치가 어렵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대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중소도시의 개발을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앞으로의 도시개발방침을 밝혔다。

중소도시 집중 개발정책으로는 ①수도권과같은 신산업도시 건설등 人口도시를 계속 개발, 대도시의 인구 流入을 막는 방파제구실을 하도록하고 ②기존중소도시에는 그도시에 알맞은 공장을 유치하고 ③지방도시의 財政自立度를 높여 주어 지방육성에 맞는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윤해로 재정자립도가 1백%가 넘는등 재정 규모가 너무 커 개발을 加速化시켜나가고 있으므로 그 재정의 일부를 議政府 城南 安養 富川등 위성도시에도 떼어주어 人口나 企業을 수용할수있는 개발목적에 쓸수있도록 하겠음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행정首都 건설등 새 人口도시건설을 뒷받침하기위해 新都市建設 促進法을 제정, 도시건설에 필요한 모든 법규정차를 한곳에 모을 것을 추진중이며 住宅公社를 開發公社로 확대 개편, 국토종합개발공사로 개편, 도시건설업무도 맡을수 있도록 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언제 어디에 어느기간동안 건설될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다만 건설부에 어떤 건설지침이 내려진다면 아름답고 능률있는 都市美의 모범적인 도시가 되도록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首都圈 稅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자신은 이렇다 저렇다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제한후 『주택건설이 연관산업의 경기자극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므로 주택경기를 촉진시켜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중에 정부의 주택부문 투자가 적어, 예산확보에 힘써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도시 집중개발

申건설밝혀 의정부 - 안양 - 부천등에

▶ 1977.2.19 조간 7(5)

仁川·안양·議政府·성남·水原

都市계획 全面재조정

人口억제 前提

정부는 首都圈의 인구疏散 방침에따라 首都圈範域에 포함되어 있는 仁川 安養 議政府 城南 水原등 6개도시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 人口가 늘어나지않는 방향에 한해 개발을 합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서울의 人口를 이6개위성도시에 분산시키기 위해 공업지역신설등 환발한개발을 해왔으나, 인구억제圈域 범위를 首都圈으로 넓혀 잡게됨에따라 개발방향이 적극적인데서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할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련소식통에 따르면 이6개도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①공업지역 신설은 금지하고 ②새 공장건설을 금지하고 범위만 잠정적으로 허용하며 ③아파트전용 지구를 지정하지않고 ④현재 인구수준을 감안한 적정규모이상의 주거지역은 開發地구로 지정한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일체의 신규주택지 조성이나 토지形質변경을 하지못하도록 하고 上下水道 도로등 도시基盤시설이 끝난 지역에는 일체의 건축을 금지키로 합의정이다.

인천 – 안양 – 의정부 – 성남 – 수원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인구억제 전제

▶ 1977.3.11 조간 2(4)

始興서도 殺人강도

日收놀이 女人 포도밭서 被殺

돈없어져

【安養】 18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시흥군소래면제수리 李鍾權씨 (38) 집앞 포도밭에서 일수놀이하던 李용안 어인 (51·소래면신천리) 이 앞머리를 괭기에 맞고 죽어 있는것을 차대를 지내고 오던 李甲成노인 (74) 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피살된 李여인은 지난16일 오전 일수돈을 받으러 집을 나간후 행방불명됐었다. 시체는 포도밭 이랑에 마트를로 덮여져있었고 돈주머니가 땅위 앞치마가 포도나무에 걸쳐져있었으며 고무신이 없어졌다.

경찰은 일수놀이 수천에 金모씨(42·신천리) 등 3명에게서 12만원 받은것으로 적혀있으나 없어졌고, 원한살 만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살인강도로 보고 있다. 피살현장은 외따로 떨어진 7가구에서 1백50m거리의 포도밭이었다.

李여인은 지난 16일오후 5시 남편묘根燮씨 (60) 와 자녀 (4남 2녀) 놀에게 일수놀이 이자를 받으러간다면서 집을 나갔다라다.

시흥서도 살인강도

일수놀이 여인 포도밭서 피살

▶ 1977.4.13

恐怖의 버스 소매치기 暴力난동

5人組 運轉士목에 面刀대고 강제停車…脫走

대낮 安養서

【安養】12일 오전9시40분쯤 경기도안양시안양6동 한길에서 삼영운수소속 경기 5자2804호 시내버스(운전사 韓태문·42)를 타고가던 27~30세 가량의 소매치기일당 5명이 여자승객의 핸드백을 뺏고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정차시킨 버스를 납치가듯 운전사와 승객들에 폭력하고 끌어내고 위협하며 버스를 몰고 가버렸다.

犯行 목격자 "출입문 닫아라" 고함에

派出所까지 못가게 乘客에 칼부림-暴行

이 버스는 차천에서 안양 | 안양읍 송천리앞길에서 승객 '40명 | 대부분이 안다고 9~10명이 서

이로 가던 중이었다. | 타고있던 범인5명을 안양시관 | 의 승객들이 붙었다. 승객들 | 있었으며 이들도 위협적인

처음에는 일행인줄 알았다는 | 범인 1명이 재빨리 운전석 | 27~28세

것이다. | 옆으로 가 운전사 韓씨의 | 가량의 다른 범인 1명이 재

버스가 2분쯤 갔을때 갑자 | 목을 칼로 겨누며 『차를 세우 | 빨리 운전석 옆으로 가 운전사

중 27세가량의 범인 1명이 | 라』고 위협했다. | 韓씨의 목을 칼로 겨누며 『차를

버스승객들에 섞여있던 金재 | 운전사 韓씨가 속도를 줄 | 세우라』고 위협했다.

근(27·수·안양시 비산 | 이며 7백m쯤 남은 안양파출 | 운전사 韓씨가 속도를 줄

동)의 핸드백을 이부용(여도 | 소앞으로 지나 차를 멈추자 다 | 이며 7백m쯤 남은 안양파출

로 뺏는 것을 金씨가 『소매치기다』하고 소리 | 급해진 범인은 핸들을 잡아 | 소앞으로 지나 차를 멈추자 다

치자 『운전을 멈지말고 경찰서로 | 끌려 안양1동 남부야채시장 | 급해진 범인은 핸들을 잡아

가!』 『소매치기다』 하고 소리 | 건너편 길옆에 차를 멈추게 | 끌려 안양1동 남부야채시장

쳤다. | 했다. | 건너편 길옆에 차를 멈추게

차가 멈추자 범인 3명은 | 했다.

나머지 범인 3명도 출입구 | 차가 멈추자 범인 3명은

쪽으로 가 문을 열으려 | 나머지 범인 3명도 출입구

3명과 안내양은 위협하는 한 | 쪽으로 가 문을 열으려 | 3명과 안내양은 위협하는 한

편, 목격자 金씨에게 『내 이 | 편, 목격자 金씨에게 『내 이

▶ 1977.4.15 조간 6(3)

安養유원지有料化

20일부터開發위해

안양유원지가 오는20일부터 유료화돼 어른30원, 어린이15원씩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유원지의 개발

원지관리 수익 | 기도 판광협회가 입장료징수
피파서 부정 | 업무를 맡고 30%의 수수료
전문피부 편수 | 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51), 국세청3 | 안양시는 입장료수입을 연
간 5천만원으로 잡고있으며 | 윤위한 자원업충을위해 입장
에 하천과 도로등 정비 사업 | 료를 받기로했다고 밝혔는데
율 펴기로 했다. | 새로 마련한 조례에 따라 경

안양 유원지 유료화

20일부터 개발위해

공포의 버스… 소매치기 폭력난동

대낮 안양서

▶ 1977.7.10 조간 6(1)

40m 河幅을 20m로

무모한 都市계획 安養市 80%가 물바다

◇救援의 헬機 마을이 물에 잠겨 고립된 주민들이 구호품을 공중투하하는 군헬리콥터를 보고 손을 흔들어 반기고있다.

우리나라의 수해중 한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기록은 1925년 7월18일에 있었던 중부 지방의 집중호우며, 6백47명이 사망했으며 10만3천3백91동의 가옥이 파손돼 재산피해액은 3백37억원(71년도 물가지수기준)에이르렀다.

당시의 한강수위는 12.26m로 역시 사상최고를 기록했으며 한강인도교와 철교의 일부가 허물어지기도 했다.

1년을 통틀어 수해가 가장많았던 해는 1936년이었다.

그해 8월10일부터 나흘간 전국에걸쳐 폭우가 쏟아졌고 연이어 8월27일과 29일에는 태풍이 휩쓸어 1천9백16명이 사망하고 5백48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근래에 있었던 큰수해는 72년 8천18,19일의 집중호우. 서울과 중부지방에 최고 4백52.4mm의 비가 쏟아져 사망-실종5백28명, 부상자 4백5명등 9백33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이재민은 38만6천명, 재산피해는 1억32억6천6백만원에 달했다.

당시 서울서대문구명창동의 한마을 30가구가 산사태로 급류에 휩쓸려 82명이 몰죽음을 당하기도 했었다.

1925년 7월18일 中部지방 集中豪雨…6百47명 死亡

水害일지

연월일	피해지역	사망자
25.7.18	중부지방	647
33.8.8	호남	411
48.7.25	남국부	399
57.8.5	호전	247
62.8.27	호중	163
65.7.15	중부	225
70.7.4	영남-영동	50
7.15	영-호남	36
9.16	전국	43
71.7.17	중부	60
7.25	중청-호부남	71
72.8.19	중부	528
9.14	영남	156
74.8.29	남부	75
75.7.7	영-호남	27
76.6.7	영남	40

◇공중에 뜬 鐵路 둑이 무너져 허공에 등떠있는 안양천변경부선철로.

安養 상당-심동자수 5천여동등 안양시가 하지 못한 도시계획이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1백여명, 포함 지의 80%를 휩쓸고 지나 도로유실수십개소, 가옥침 10여개소, 갔수마는 봇기 힘들정이었 수 없는 예측 다. 안양천은 폭 40m의 평범한川폭을 20m로 좁혀 73년 안양시가 인공하천 지금 동지로 지나는 복 개하면서 부터 생긴 것이다. 8월오후8시부터 5시간동안에 내린 4백32.1mm의 집중호우로 수위가 3m41cm나 급상승, 제방 50m가 무너지면서 안양천 주변 동편지역 2만여평이 물바다가 되었다. 72년8월19일 수해때의 강우량 2백73mm보다 68mm가 많았다. 더욱 20분만에 수심2.3m의 물바다로 만든 것이 큰 원인이었다. 안양2동 박달동, 적수동등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천의 범람과 함께 안양천 하류지역인 안양1동 명학동 등 4개의 교량이 떠내려온 나무토막등이 걸려 범람한 것이다.

서울 한 치수수방 (水防)체제를 기습적으로 갖추고, 한강수위가 8일 오후와 9일 새벽 최고 10.5m를 넘었다. 한강수위는 3m에서부터 위험수위로 보고 대비하는데 안양천(內水面)의 수위는 내수면 2m나 높았다.

서울시는 이날 하수도 시설이 1만2천ha로 전체면적의 55%에 불과, 하수도 시설을 1백%로 확대하고 빗물펌프장 2백73개소를 설치하는 등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수방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사망-실종 5백28명, 부상 4백5명, 이재민 38만6천명, 재산피해 1억32억6천6백만원으로 집계했다.

엉성한 下水道시설… 준설안해 被害 加重 <문제점>

서울豪水洞別 罹災民수용소

◇영등포구 (4천9백77가구 2만2천6백16명)
▲도림2동=동사무소 도림1동=영등포중학교 ▲문래동=성결교회 ▲양평1동=영등포중학교 ▲양평2동=영등포중학교 ▲양평여고 ▲신정1동=목동국민교 ▲목동=목동국민교 ▲신정2동=목동국민교 ▲신정3동=목동국민교 ▲신정4동=개인집 ▲신월1동=개인집 ▲신월3동=개인집 ▲신월7동=개인집 ▲신월8동=개인집 ▲신월2동=개인집 ▲신월5동=개인집 ▲신월6동=개인집 ▲신월

▶ 1977.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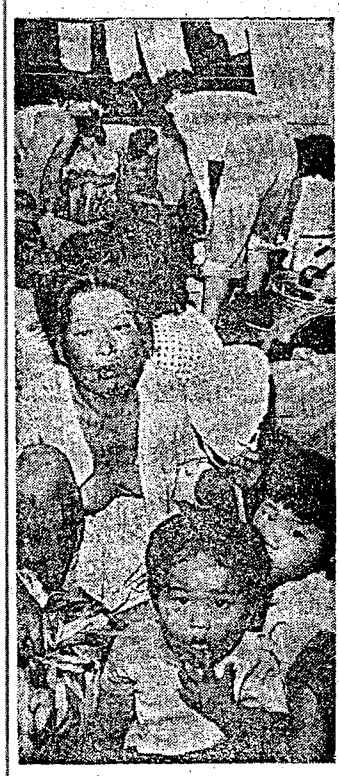
침몰한 首都圈

奇襲물벼락에 조각난 「水防」——救護 총력作戰

건빵·라면으로 끼니

罹災民 벌써 原因 모를 피부병 번져

캄캄한 收容所…추위속 밤지새



◇收容된 罹災民들 산사태로 흙지에집과 가축을 잃고 탐동국교에 수용된 시흥2동 이재민들.

水害복구에 공무원 동원 崔總理 생활安定까지 식량 지급 金內務

서울市선 安養川 준설 확장계획 세워

道路복구 90% 침수지역외 오늘오전 通行

장례비 2萬원 풍앙·성남 대책본부

침몰한 수도원

서울시선 안양천 준설 확장 계획 세워

▶ 1977.7.10

물에 쓸리고… 山에 깔리고…

安養-始興일대 水害詳報

한국서 38명이 떼죽이다

노적봉 野山이 우르르… 햇불밝히며 屍體발굴

安 養

택시만한 바위덩이 뒤덮여

始興 20여棟 흔적없어… 시체도 분간못해

5百75家口피해…긴급대피

青年 15명모아 구조대 편성…스크럼짜고 할래줄이어 릴레이式 구조

◇38명 앗아간 노적봉 山사태

안양-시흥일대 수해 상보

물에 쓸리고 산에 깔리고

▶ 1977.7.13 조간 7(1)

水魔할퀸 廢墟에
落島友情의 꽃 활짝

"우리도 돕겠다" 西海 仙甘어린이들 安養 萬安國校에 격려電報

失意에 찬 교실에 환호성
빗속 너도나도 힘찬 삽질

◇아직 물이 빠지지않은 교실에서 「우정의 안부전보」를 받은 어린이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피었다.

復舊공단 또 긴급
安養川 물어나 災民 비내리자

忠淸 全北 豪雨주의보
서울 京畿엔 暴雨경보

全國을 뵈는

수마할퀸 폐허에 낙도우정의 꽃 활짝

"우리도 돕겠다" 서해 신감어린이들 안양 만안국교에 격려전보

▶ 1977.7.14 조간 5(1)

水災民들에 따뜻한 손길을

安養水害 참사現場을 보고 〈朴賢玲〉

生活隨感

無民은 GNP보다 下水처리 절실

개중에는 성욕서 세번이나 무허가건물 철거로 자립감 잃

◇수재민들의 임시숙소인 안양서국민학교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朴賢玲씨.

『비가 와서, 정말 비탈문에 그런 콘크리트다리가 내려앉았단 말인가?』

『아니 비탈위에 수백명이 죽었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그 비에 산사태까지 났다니…』

연립 신문에 사진이 나고 텔리비전에, 라디오에 피해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다. 아니 피해자들의 생생한 모습과 목소리까지 실려나고 있었으나 피전 딱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 감촉으로도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단하루 햇볕이 났다가 또다시 비가 퍼붓는 날, 나는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안양천변을 찾아가 보았다. 거기서 거대한 콘크리트 다리의 처리가 돋갑게 정말 水災의 위력을 그 무서움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아무리 튼튼하고 빈틈없는 의양을 자랑한다고 天災는 그이면의 악력을 떨고 말았던 것…

계다가 6·25당시의 피난민 수용소를 방불케하듯 처량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수재민들을 보고 나서 나는 또한 몸에 돌진 두아이만 건져내놓고 정작 우리가 無力하기만 했던가? 티없는 어린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뒤덮여 있었다가 떠내려가버린 기막힌 얘기도 있었다. 두아이는 고아가 되고 말았다. 구멍가게의 유일한 밑천이요, 재산목록 제1호인 냉장고 한대만이라도 건져내려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었고…

어느 아낙네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하고 있었다. 겨우 장만한 전셋집이었는데, 그나마 주인집도 몽땅 떠내려 갔으니 어디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것인가! 그래도 살아났으니 여기에 빠져죽은 사람이 수백명이나 되었다니 어쩌면 살수는 없겠지만, 평균도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니, 책임하면 한수록 天災의 엄폭함과 인간의 無力함을 또한 그앞에 더없이 無力한 인간

『물살은 엄청나게 빨리 흘러내려 갔으니 어떻게 건져낼 정도였어요. 아, 하천이 아래쪽을 막혀져 있어 물길이 빠질수가 없고, 위쪽에선 계속 가재도구 일체와 집은 남김없이 떠내려 왔으니 어떻게 살수가 있겠어요.』

『집은 없어도 좋으니 제발 부탁하고 싶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한번 땅,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고 말하고싶다. 남의 나라 발전하는 것, 남이 잘사는것 처다보고 같이 짖아가려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획대서 앞서 뛰어보지않고자주 앞만내다보고 성취것같다.

GNP가 얼마니, 빌딩이니, 수출실적이니도 다 좋으나 그보다는 하수도 문제가, 쓰레기처리가, 수도물의 오염이, 뭣산의 허술한 사방이, 하천부지에 지은 집들이,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부정식품문제가, 산사태가, 용수가 더시급하고 절실한 현실일 것이다. 조금만더 꼼꼼하고 차분하게 내다보고 지면서 따뜻하고 절실한 손길을 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살은 엄청나게 빨리 흘러내려 갔으니 어떻게 건져낼 정도였어요. 아, 하천이 아래쪽을 막혀져 있어 물길이 빠질수가 없고, 위쪽에선 계속 가재도구 일체와 집은 남김없이 떠내려 왔으니 어떻게 살수가 있겠어요.』

가재도구 아까와 죽는줄도 모르고…

입은 정감치 않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쩌 우리가 無力하기만 했던가? 티없는 어린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뒤덮여 있었다가 떠내려가버린 기막힌 얘기도 있었다. 두아이는 고아가 되고 말았다. 구멍가게의 유일한 밑천이요, 재산목록 제1호인 냉장고 한대만이라도 건져내려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었고…

어느 아낙네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하고 있었다. 겨우 장만한 전셋집이었는데, 그나마 주인집도 몽땅 떠내려 갔으니 어디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것인가! 그래도 살아났으니 여기에 빠져죽은 사람이 수백명이나 되었다니 어쩌면 살수는 없겠지만, 평균도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니, 책임하면 한수록 天災의 엄폭함과 인간의 無力함을 또한 그앞에 더없이 無力한 인간

수재민들에 따뜻한 손길을…

안양수해 참사를 보고

▶ 1977.7.15

水災民 4百88가구 入住

來8-10月 2단계로 住公-民營아파트에

요한 수재민에게는 천막을제공, 천막촌을 형성하여 아파트입주때까지 수용키로했다. 천막촌 규모는 20~30가구 단위로 하고 수용소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 관내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받도록 했다.

안양시와 경기도는 14일 수해이재민을 현재 짓고 있는 주택공사 아파트와 복민주택자금으로 건립되는 민간 아파트에 입주시키기로 했으며 입주대상은 1단계로 안양천변의 4백88가구중 오는 8월말 완공되는 관악구 관악아파트(24평 50가구·13평형 10월말 완공되는 영등포구 독산동 근로자 아파트(24평 38가구·13평형 14평형) 에 입주시키고 남은 15가구는 동 이외, 이상 1백50만원을 연리 6%, 1년거치 14년상환 조건인 복민주택자금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수해복구와 이재민정착지원대책으로 노임소득사업비 13억 1천6백90만원을 각구청별로 배정했는데 이재민수는 2천3백46명이었으나 13일에는 3천5백76명으로 불었고, 시 복지과는 정확한 피해집계를 위해 이재민 규모파악을 신청.

救護노린 가짜災民

2명 令狀신청

안양·관악지구 수재민수용소에 수해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수재민인 양 가장하고 들어가 이재민구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당초 수용소에 수재민 2천3백46명이 입소했으나 13일에는 3천5백76명으로 불었고, 시 복지과는 정확한 피해집계를 위해 이재민 규모파악을 신청.

한편 서울 남부경찰서는 이날 위장 수재민 朴大錫씨(29·시흥2동 산1-91) 와 朴大吉씨(36·신길동 위계위원 등 부정입주자 10여명을 가려내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

水災民아파트

3千가구 建立

내년 安養에

경기도는 14일 내년상반기까지 안양에 3천가구분의 아파트단지 건설, 이재민들이 추석을 지내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안양에 이주가 급한 1천5백가구는 13평형 주택공사아파트로 입주시킬것이라고 밝혔다.

◇해로으로 이재민만으로 입법이 모자랄 때는 일반영세민을 우선 입주시키도록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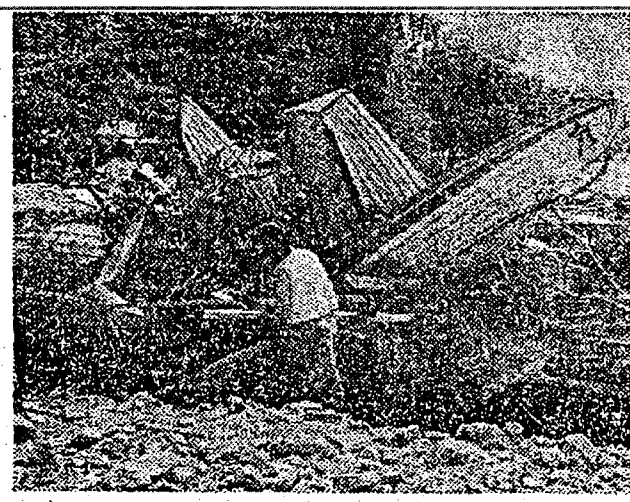
자립의로부구, 입주할수 있는 수용자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수용소마다 3명이상 파견, 11, 12일 이재민을 조사에서 밝혀졌다. 수용소 이재민이 빠져나는 이유는 구호와 아파트입주를 전부해결을 원하기때문이다.

한편 서울 남부경찰서는 이날 위장 수재민 朴大錫씨(29·시흥2동 산1-91) 와 朴大吉씨(36·신길동 위계위원 등 부정입주자 10여명을 가려내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

안양에 수재민 아파트 3천 가구건립

▶ 1977.7.15 조간 6(1)

水害로 사라진 安養 유원지



◇폐허가된 안양유원지. 물위에 떠있던 보트는 큰 크리트수몰에 깔려 찌그러졌고 보트장은 폭우로 변했다.

土砂에 휩쓸린 溪谷

풀·보트場 돌더미로

새 丹裝엔 최소한 6個月 걸릴듯

서울시민들이 즐거찾던 安養유원지가 이번 수해로 폐허가 됐다. 유원지 남쪽 산등성이에서 사태가나 암석과 토사 수만t이 계곡을 덮쳤기 때문. 석간수가 넘실대던 보트장은 집채만한 바위덩이와 모래에 묻혀 흔적조차 없어지고, 계곡옆 풀장은 언덕하게 수로로 바뀌었다. 파각만 남은 6개의 다리.

급류에 씻겨 버팅까지 패어들어간 관광도로는 지프한대 통과나할수도없다.

8일 오후7시쯤 일어난 산사태는 순식간에 계곡입구 숙원여관과 벽수장여관을 비로 쓸듯이 휩고내려가, 朴成植씨(63)의 보트장을 메웠다.

『사태가 나기 직전, 폭우로 계곡의 물이 붇고 상류에서 탁류가 밀어닥쳐 주민들 대부분이 대피했기때문에 인명피해는 적었으나 여관 손님 10명은 토사에 파묻혔거나 탁류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보트장주소에 있다가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온 보트장주인 朴씨는 사태가난 순간을 이렇게 말했다.

보트32척, 낚시점3개소, 보트장 6백여평을 휩쓴 사태더미는 탁류와 함께 바로밑 안양천장을 메워 그 위로 수m나 넘쳐흘렀다.

이일대는 유원지의 각종 시설이 몰려있는 중심부로 2백여m의 좌우 산비탈에 기묘한 바위가 울창한 수림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만물상(萬物相)이라 불리면 곳이다.

이곳의 사태는 계곡위안 양관광호텔도 고립시켜, 호텔측은 외국인 장기투숙자 24명을 서울로 옮기도록했다.

이밖에 16개소의 소규모 사태와 침수는 피지며 복숭아밭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유원지 입구의 새마을농원(주인 朴조상·34) 담기발 8백여평은 30m높이의 토사에 뒤덮여 새로 모종을 해도 내년봄 수확은 바라볼 수 없는형편이다.

지난봄 1천2백여만원을 들여 완공했다 본채조차 없이 씻겨내려간 「하천관원」 자리를 가리키며 인근주민 姜鍾宇씨(36)는 『무리한 하천부지 매립이 빚은 재앙인것 같다』며 이같 허가해준 安養시당국을 나무랐다.

이번 수해로인해 서울중심지에서 20분거리밖에 안팎 연간 2백50만명이 찾아들던 이유원지는 옛모습을 찾기 어렵게 됐으며 유원지기능을 살리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계곡을 끼고 좌우로 펼쳐진 1백28개소의 각종 유흥시설중 건물도피21동, 침수 50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교량파손 6개소, 제방유실 3천6백여m에 전입로 마저 바위덩이로 막혀 安養시는 아직 복구작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한주민은 『시청이 책대로 복구된다해도 봄 철기여름복숭아, 가을의 포도로 서울과 安養시민들의 입맛을 돋아주던 유원지의 옛모습이 되살아날지는의문』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조사속에 계획성있는 복구작업을 펼리해 명소로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姜天錫기자〉

수해로 사라진 안양유원지

▶ 1977.7.20 조간 4(1)

水害는 예방할수있다

安養地方의 폭우에 대한 見解발표

災害대책 3百億들이기 앞서

떨千萬원의 기초資料 마련을

河口까지 組織工學的 水系시설 필요

과잉 保護시설… 資本의 낭비

그런비 어디서도 같은 被害

水防시설엔 經濟的 適正규모 고려해야

安養川의 直江공사는 꼭 필요한가

수해는예방할수 있다.

안양지방의 폭우에 대한 견해-반성

▶ 1977.7.20

安養商街부녀회서 5萬餘원本社기탁

"서울市民들의 의연금에 보답"

우리도 서울水災民에 「誠金」

林明子씨(오른쪽)와 李基石씨

안양상가 부녀회

우리도 서울 수재민에 성금

▶ 1977.7.21 조간 1(1)

"水害工場 낡은施設·裝備 이기회에 最新型으로"

朴大統領, 安養등 復舊현장 시찰… 지시

朴대통령은 20일 지난 10일 강타했던 安養시와 九老구등의 水害복구현장을 다시 들러 3시간동안 복구 진척상황을 점검 시찰했다.

朴대통령은 이날 오전11시 安養시청에 들러 간단하게 수해복구에 관한 보고를 받고 도지사로부터 복구현황을 보고받고 『지방 도로등 사소한 것은 물론 공장등 시설도 이번 기회에 최신형으로 바꾸어 다시는 이런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번 수해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들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협동정신을 발휘, 복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朴대통령은 이어 수해복구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安養시 관내 冠岳산 기슭에 있는 공장지대를 시찰, 공장시설이 너무 낡고 비좁아 이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고 『공장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데 융자를 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또 九老구 新大방동 소재 공장지대를 시찰, 『이곳 공장들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 1977.8.3 조간 7(6)

住公의 盜水에 安養市 보복 斷水

엉뚱한 住民 食水소동

【安養】 안양시가 도수 (盜水)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반수요가에 연결된 수도관을 막아, 폭염속에 아파트주민 3백70여가구가 며아닌식수난을 겪었다.

안양시는 비산지구 주공아파트신축사무소가 공사장에 계량기를 설치하지않고 수도관을 연결, 몰래 쓰고 있는 것을 적발, 31일 오후 7시부터 1일 오후 4시까지 20여시간동안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3백㎜ 수도관을 막아 버렸다.

이때문에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주민 3백70여가구는 35도의 폭염속에 1㎞떨어진 주택가에서 식수를 겨우 얻어다 썼을뿐 수세식 변소와 목욕탕을 이용못하는등 무더운 여름밤을 보냈다.

시수도당국은 1일오전 주민들이 전화로 단수사실을 알리자 『그럴리 없다』『물이 나오는데 농담을 말라』 는등 무책임한 대답으로 일관하다가 낮12시쯤 주민대표들이 직접 찾아가 항의하자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기다리라』고 대답, 오후 4시쯤에야 직원을 보내 막은 수도관을 열게했다는 것이다.

담당직원은 수도관을 열면서 주민들에게 『주공측이 몰래 물을 써왔기 때문에 보복한것』 이라며 『악이 올라, 관을 조금만 열어놓아겠다』 는 등 폭언, 주민들이 사정해서야 관을 모두 열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안양시 수도책임자인 金載敏 건설과장은 『도수보고는 받았으나 단속조치에 대한 결재는 한 일이 없다』며, 『실무자들이 행정절차없이 단수한것이 밝혀지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엉뚱한 주민 식수소동

주공의 도수에 안양시 보복 단수

▶ 1977.8.12

安養지구 水害상공인 再起前進대회

水災復舊 완전히 끝나

Q:지난 8월 大雨 被害復舊 現況은?

A:안양천 大雨 被害復舊 現況은 안양지구의 水害업체들이 그동안 복구작업을 완전히 끝내고 「보다 큰 飛躍의 再起」를 다짐하고 있다.

安養商工회의소(회장 朴龍雲 大興피혁공업사 대표)는 大雨로 피해를 입은 회원업체들의 복구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회원업체 전원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및 재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大雨被害 복구를 위해 정부에서 융자해 준 자금 1천여만원을 비롯, 회원들이 자체 조달한 자금 등 모두 2억여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韓進 整備用役진출 부인

Q:大韓通運과 韓進이 用役진출을 위해 경영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우디의 한 업체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A:사우디의 한 업체가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다. 韓進은 지난 8월 1일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정부의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사우디港灣荷役 落札돼도 실규모 작아

主務관청은 財務部… 골탕은 企劃院서

經濟 칵테일

物價당국 최대의고민

Q:요즘 경제기획원 물가국 최대의 고민은 무엇인가?

A:물가국 최대의 고민은 역시 생필품 가격이 아닌가 싶다.

太陽發電 손목시계 女性用은 세계最初

美展示서 최우수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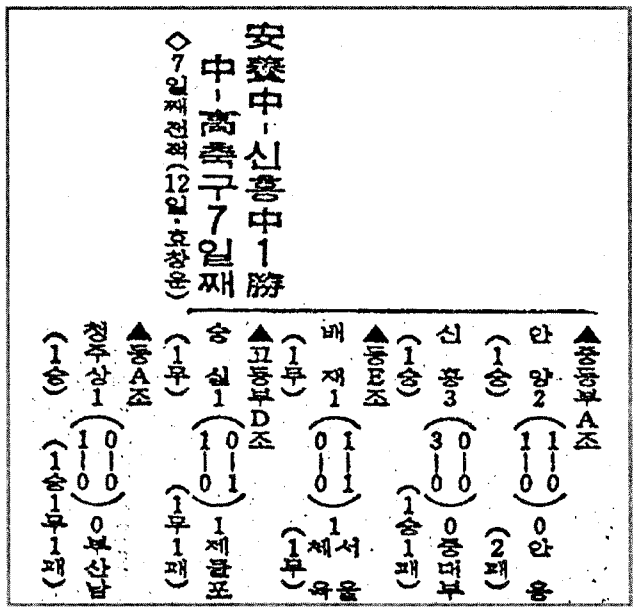
政策바뀌어 金錢등록기업체 倒産지경

朝令暮改… 金錢등록기

안양지구 수해 상공인

재기전진대회

▶ 1977.08.13 조간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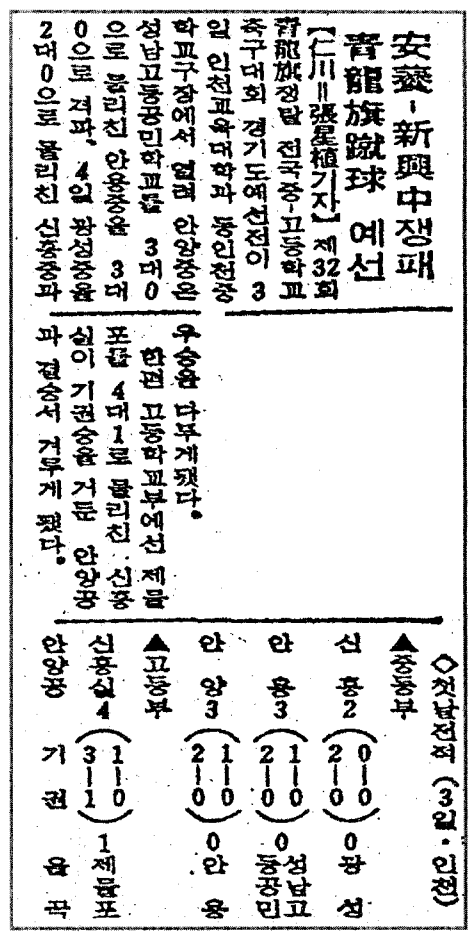


安중中-신흥中1勝
中-高축구7일째
◇7일째전적(12일·효창운)

▲풍동부A조
안 양2 (1-1 1-0) 0안 용 (2패)
(1승)
신 흥3 (0-0 3-0) 0중대부 (1승1패)
(1승)
▲동B조
배 재1 (1-1 0-0) 1서 울 (1무)
(1무)
▲고동부D조
숭 실1 (0-1 1-0) 1제물포 (1무1패)
(1무)
▲동A조
청주상1 (0-0 1-0) 0부산남 (1승1무1패)
(1승)

중-고축구7일째 안양중-1승

▶ 1977.09.04 조간 8(2)



安중-新興中쟁패
青龍旗蹴球 예선
【仁川=張星植기자】제32회 青龍旗쟁탈 전국중-고등학교 축구대회 경기도예선전이 3일 인천교육대학과 동인천중학교구장에서 열려 안양중은 성남고등공민학교를 3대0으로 물리친 안용중을 3대0으로 격파, 4일 광성중을 2대0으로 물리친 신흥중과 우승을 다투게됐다。
한편 고등학교부에선 제물포를 4대1로 물리친 신흥실이 기권승을 거둔 안양공과 결승서 겨루게 됐다。

◇첫날전적 (3일·인천)
▲중동부
신 흥2 (0-0 2-0) 0광 성
안 용3 (1-1 2-0) 0성남고등공민
안 양3 (1-1 2-0) 0안 용
▲고등부
신흥실4 (1-0 3-1) 1제물포
안양공 기권 승 곡

청룡기축구 예선 안양-신흥중쟁패

▶ 1977.09.24 조간 7(8)

「청바지사탕」판금

안양시 유해여부검사의뢰

「청바지사탕」販禁

有害여부검사의뢰

安養市

안양시는 23일 「청바지 사탕」의 유해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기도보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접포에서 판다남은 청바지사탕 을 일제히 팔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롯데제과측은 이날오전9시30분부터 회사직원을 동원, 시내 각점포에 판다남은 제품을 모두 색포장의 제품으로 바꿔주는등 소동을 빚었다.

▶ 1977.12.10 조간 6(1)

안양천변 저지대 침수방지위해

배수로 - 펌프장 개수

安養川변 저지대 浸水방지위해

배수로·펌프장 改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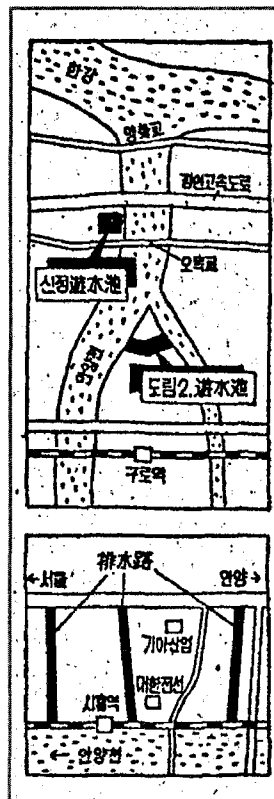
서울市, 18億원투입

서울시는 安養川변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위해 18억5천만원을 들여 배수 펌프장 2개소와 시흥동 입대에 3개의 배수로를 개수키로했다.

▲강서구 육동 212번지에 신정 배수펌프장을 세운다. 이곳은 저지대로서 해마다 비가와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 내수가 빠지지 않는 곳이다. 78년8월10일 준공 예정.

▲영등포구 육산동과 시흥천 수역에 10억2천만원을 들여 호안 암벽 보축 공사와 함께 4백50마력펌프 6대를 설치한다. 78년8월10일 준공예정이다.

▲영등포구 신도림동 320번지에 4억8천만원을 들여 50마력에서 2백마력짜리 펌프 5대를 설치하고 이에따른 용벽, 암거 공사와 4천23평방㎡의 호안공사를 한다. 78년8월10일 준공 예정.



동입대에 3개의 중요배수로를 개수한다. 3억5천만원을 들여 총 1천58㎜의 용벽과 60㎜의 암거를 설치한다.

이곳은 비가 와 안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내수가 빠지지 않는 곳이다. 이번공사는 외수(外水)의 높이만큼 용벽을 쌓아 상류로부터 흐르는 물을 자연그대로 안양천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78년 8월10일 준공예정.

▶ 197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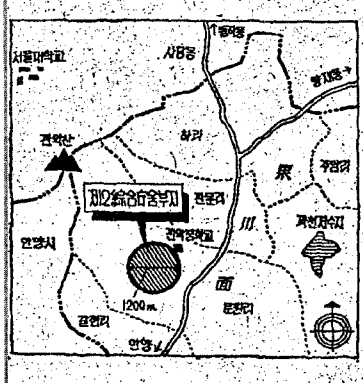
果川(京畿도 始興군)에 제2「종합廳舍」

文原里 34萬평 基準地價고시

올해 着工……80년안에 完工

延建坪 2萬평 규모……1百億원 투입

3、4개의 建物……"行政首都 염두에 두고 建設"



정부는 京畿도 始興군 果川면 文原리에 3~4개 건물로 구성되는 연건평 2만평규모의 제2정부종합청사를 건립할 지역이라며 10일 「정부는 부족되는 통솔력의 해결책으로 제2 종합청사를 과천 文原里산 148등 신축부지로 선정, 그주위중심단경 6백m지점인 약 34만평을 지난 7일자로 건물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히고 『올해 안에 이중 15만평을 부지로 확정, 착공하여 80년안에 총 1백억원의 투자를 투입, 오는 80년안에 완공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건설부는 『제2정부청사가 완공되면 5~6만명의 공무원과 가족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되므로 교통난을 덜기 위해 과천~서울간 국도를 확장하고 과천~안양간 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과천~수원간 철도를 복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날 청사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 조사·측지비로 1억8천2백만원등 모두 16억8천2백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밝히고 『이번 건물은 종합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는 『제2정부청사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청사로 건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徐국현건설은 『이곳 외에 정부는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비 15억원, 조사·측지비로 1억8천2백만원등 모두 16억8천2백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밝히고 『이번 건물은 종합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는 『제2정부청사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청사로 건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徐국현건설은 그러나 신축될 제2정사의 어떤 부처를 수용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1978.1.13 조간 7(5)

始興「三榮화학」全燒 어제밤

工場·스폰지原料 태워……被害 5억

【安養】 12일 밤 9시 20분쯤 경기도 시흥군 남면 금정리 166 三榮화학주식회사(대표 李鍾悅) 스폰지 공장에서 불이나 공장 1·2동 1천5백평과 원료야적장 1·2·3·4동 5백평을 태우고 2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재단실에 있던 스폰지가공 재단실에 쌓아둔 스폰지원료 우레탄에 서 「펑」 소리와 함께 갑자기 불길이 솟아 소화전을 사용하려 했으나 실패, 불이 삽시간에 번졌다고말했다.

공장 1·2동에는 스폰지 제조기와 필름가공기등 자동화된 기계들이 있고 쇠파이프에 비닐 막을 씌운 야적장에는 1천여t의 우레탄 스폰지 등이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탔다.

불이난 시간은 종업원들이 모두 귀가한 뒤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이난지 30분이 지난뒤에야 경찰에 신고됐고 지원요청한 영등포와 수원등지에서 소방차가 출동하지않아 본길 1.2동 건물 25억원으로 평가된 三榮화학은 이불용스폰지, 삼단요, 비닐하우스용 비닐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6년전 준공, 경찰은 피해액을 5억원으로 추산하고 화인을 조사중이다.

시흥「삼여화학」전소

공장-스폰지원료 태워...피해 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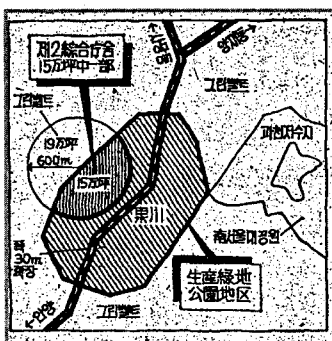
▶ 1978.1.14

果川일대, 「生産綠地」지정

76萬평

종합廣舍·공무원住宅地 제외

土地 過熱投機 방지



"월값에라도 팔겠다"

地主, 「生産綠地」지정에 울상

▶ 1978.1.15

果川 땅값의 責任

취재수첩

제2종합청사가 들어선다고 산정을 발표한 果川지구의 평당 땅값이 정부의 「投機 조장하나」 로 하루 아침에 뛰어 버렸다。 土地綜地로 묶기 하루전까지만해도 평당 13만원을 호가하던 주거지역이 지금은 반값인 6만~7만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상 그럴듯한 자리에 빌딩도짓고 목욕도 만들고 음식점도 석점 보겠다고 부동산을 안고 방황하던 투기꾼들이 한꺼번에 손을 털고 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지경에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원망은 果川지구의 평당 땅값을 너무 높게 발표한 정부에 쏠리고 있다。

법적부피 지장해제하자는 다름이 아닌 땅값을 싸게 발표한 정부부처가 떠맡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닌 분들로 호소하는 소동까지 빚고 있다。 정부는 지금 발표한 시점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지역마다 땅값이 폭등 투기꾼들이 땅값을 그냥 올리기만 하고 생각지 못했을까。 난독하기 어렵다。

말할것도없이 땅은 효용가치가 높을수록 오르게 마련이다。 면구나 하루 드나드는 인구가 5만명이상이될 그것도 소비자로 득실댈 정부의 종합청사가 들어선다는데 그 효용가치야 말할것도 없다。

누구도 果川땅이 싸어도 영등포나 미아리중심가들의 가치를 지니게될것이라고 어림할수 있는 일이다。 그부자가치 떠몬에 땅값이 오르는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것을 投機라고라 몰아세워 폭 매절을 해야될까。 그곳에 投機를 배제할 생각이었다면 당초부터 先조치 後발표를 했었어야 한일이다。

또 果川땅값이 특별한 원인은 정사 후보지의 사전누설이 큰 몫을 차지한다。 발표가 있기 몇개월전 부터 청사가 들어설것이라는 말들이 파다했으며 발표가 있기 이틀전부터 고급승용차들이 땅을 사러 몰을 지었다고 한다。 그정보가 일반자들의 입을통하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나왔을까。 짐작이 갈만한 일이다。 이번 果川지구의 땅값 폭란은 모두가 잡자투를 한 정책당국자의 책임이라고 할수밖에는 없다。 〈金重永·경제부기자〉

과천 땅값 상승의 책임소재

▶ 1978.2.15

종합청사 들어설 果川34萬坪 坪當1萬~5萬6千원 地價고시

건설부는 14일 제2종합청사가 들어설 예정지역인 京畿도 始興군 果川면 文原리 1번지 48번지 일대 34만평에 대해 평당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6천원씩으로 基準地價를 고시했다。

건설부는 기준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標準地點을 1평방km당 4지점씩 선정하면것을 45개 지역을 선정、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천원으로 평균 4만3천2백원▲대지가 3만2천원~5만6천원▲임야가 2천5백원~4만5천원이다。

▲논이 최저 1만원에서 5만4만4천3백원 평균 1만원씩、 평균 5만6

종합청사들어설 과천 34만평

평당 1만~5만 6천원

▶ 1978.2.22 조간 7(9)

안양소년원 직업훈련원입소식

職業훈련원入所式 安養소년원

법무부는 소년원생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지침에 따라 21일 오후2시 안양소년원에서 李鶴中법무부장관, 朴潤烈노동청장, 孫錫植경기도지사등이 참석한가운데 錦旗그룹이 지원하는 안양소년원생 직업훈련소 입소식을 가졌다.

안양소년원에서 1차로 선발된 24명은 모두 여자원생으로, 앞으로 6개월간 직기조정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고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가퇴원의 특전과 함께 전원 錦旗에 취업하게된다.

여자원생들이 민간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기능공의 과정을 밟게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법무검찰간부 부인회(회장 鄭錦旗)회원들은 원생들에게 떡국을 끓여 주고 위로했다.

▶ 1978.3.10 조간 7(5)

일부 安養水害 업체서 被害額 과대신고

不當貸出 일제 수사

檢察

K·D·K社대표등 신병확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수사과는 9일 지난해8월 시흥 안양수재때 피해액신고를 하면서 긴급복구자금을 더많이 받기위해 실제피해액보다 엄청나게 부풀려 수출신고, 그만큼을 많이 대출받은KDK회사대표(서울영등포구가리봉동소재) 권도식(51)을 사기등혐의로 신병을 확보, 수사를 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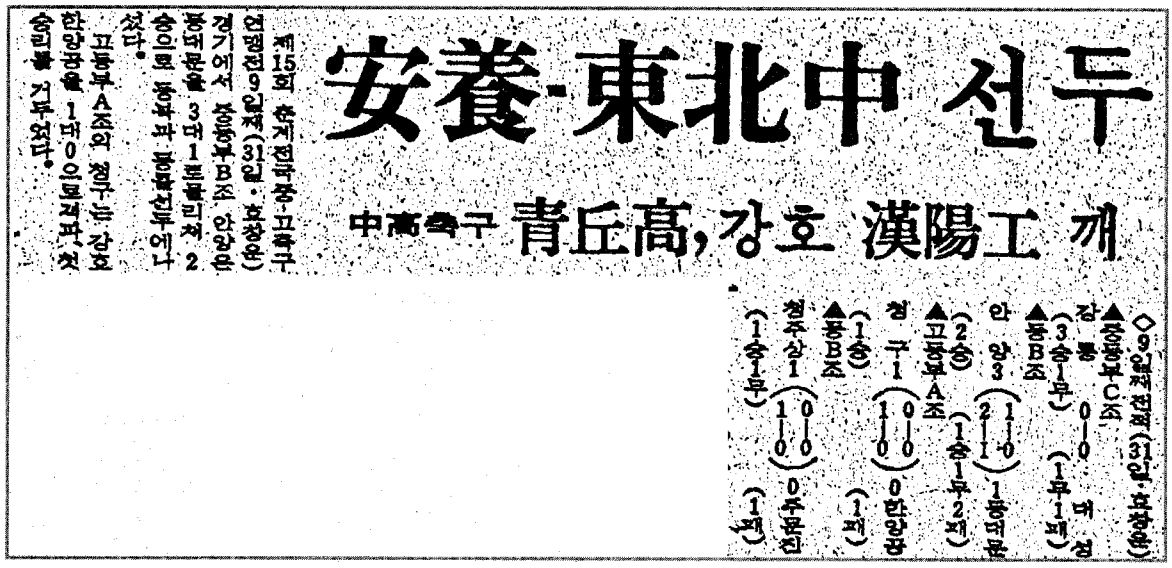
특수 전전매이커인 이회사는 지난해 수재때 공장이 침수되어 기계와 원자재등이 침수, 5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긴급복구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액을 1억5천만원으로 신고, 이를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긴급복구자금이 일반대출금보다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가 싼것을 유리한 조건때문에 이곳 수재지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피해액을 불려 신고하여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정보에 따라 일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부당대출 일제 수사

일부 안양수해 업체서 피해액 과대신고

▶ 1978.4.1 조간 8(6)



安養·東北中 선두

中高축구 靑丘高,강호 漢陽工 깨

제15회 춘계전국중·고축구연맹전 9일째(31일·효창운) 경기에서 중등부B조 안양은 동대문을 3대1로 물리쳐 2승으로 동북과 동률선두에 나섰다。

고등부A조의 청구는 강호 한양공을 1대0으로 제파, 첫 승리를 거두었다。

◇9일째 전적(31일·효창운)

▲중등부C조

장 충 0—0 대 성
(3승1무) (1무1패)

▲동B조

안 양 3 (2—1—0) 1 동대문
(2승) (1승1무2패)

▲고등부A조

청 구 1 (0—0—0) 0 한양공
(1승) (1패)

▲동B조

청주상 1 (1—0—0) 0 수문전
(1승1무) (1패)

중고축구 안양-동북중 선두

▶ 1978.5.27

南大門~漢江~果川 제2政府廳舍 銅雀大路(폭40~50m 길이 15km) 年內착공

銅雀大橋·터널도 건설 民資로…… 20年간 有料化

서울특별시와 남대문에서 한강을 건너 경기도 과천의 제2 정부청사까지를 연결하는 폭 40~50m, 길이 15km의 동작대로(銅雀大路)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동작대로 건설안과 이에 따르는 동작대교(銅雀大橋) 및 동작터널 건설에 관한 건설부의 승인과 민간자본 유치 용역안에 착공키로 했다. 동작대로는 남대문과 서울역에서 시작 서울지방법무청~미8군영내도로~한강~영아트빌딩~이촌동원주부지(광운중고교)~동작대교~국립묘지 정문앞 네거리~동작터널~사당동~남부순환도로네거리~남태령~경기도과천~제2정부청사에 이르는 약 15km의 도로로, 강북부분은 50m로 조성한다.

美8軍과 龍山營內 통과문제 協議중

서울시는 남대문지역이 소~간 운영권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는 동작대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 유료화하고 20년~로 할계획이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14번째의 다리인 동작대교는 폭량 가설경간도 약~넓30억 50m의 길이약~천5백m로서 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고있다.

동작대교와관련, 도로폭 사용에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하는 문제점 등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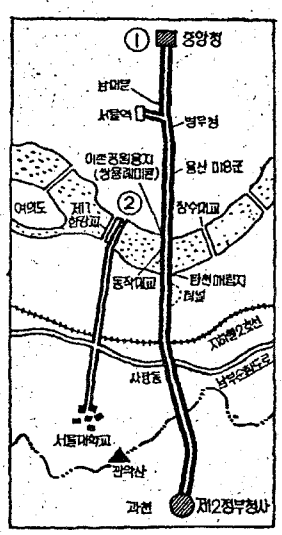
서울시는 남대문~국립묘지 정문앞 네거리~동작대교~국립묘지 정문앞 네거리~동작터널~사당동~남부순환도로네거리~남태령~경기도과천~제2정부청사에 이르는 약 15km의 도로로, 강북부분은 50m로 조성한다.

美8軍과 龍山營內 통과문제 協議중

서울시는 남대문지역이 소~간 운영권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는 동작대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 유료화하고 20년~로 할계획이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14번째의 다리인 동작대교는 폭량 가설경간도 약~넓30억 50m의 길이약~천5백m로서 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고있다.

동작대교와관련, 도로폭 사용에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하는 문제점 등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漢江橋폭 倍확장 서울大까지 道路신설

서울시는 제1한강교를 현재의 폭25m에서 50m로 확장하고, 제1한강교에서 잠수교~신반포~서울대학교 캠퍼스까지 연결하는 폭45m의 새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제1한강교와 맞붙어 건설하는 방안과 별도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다리를 세우는 2개 방안을 검토중인데, 제1한강교 확장공사와 별도 건설 유료화 방법, 교량수 등을 확정할 경우 약 40억원이 들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제1한강교를 현재의 폭25m에서 50m로 확장하고, 제1한강교에서 잠수교~신반포~서울대학교 캠퍼스까지 연결하는 폭45m의 새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제1한강교와 맞붙어 건설하는 방안과 별도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다리를 세우는 2개 방안을 검토중인데, 제1한강교 확장공사와 별도 건설 유료화 방법, 교량수 등을 확정할 경우 약 40억원이 들것으로 보고있다.

시공하던서 끝 난 남북참 한-미 연합사의 새 청사로 용산의 미8군을 이전하는가, 협의가 여의치않을땐 8군영내에 민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한것도 검토중이다.

남대문-한강-과천 제2 정부청사

동작대로 년내착공

▶ 1978.10.29

南서울大公園 내일着工

果川 百63萬평 내년6월까지 基盤시설

南서울대공원 건설공사가 30일 착수된다。 총사업비 9백85억원(시비 4백85억원, 민자 5백억원)을 들여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문원리 일대 1백63만평에 조성되는 이공원은 87만평 규모의 동-식물원을 비롯, 청소년회관, 민속박물관, 각종운동및 놀이시설등을 갖추게된다。 오는 86년 준공될예정。

서울시는 우선 내년6월까지 22억8천7백만원으로 동식물원지구에대한 기반시설공원내 도로, 상-하수도, 호수변 하천정비등을 끝내기로했다。

두방송을 실시했고, 이날 수거된 빈병과 폐품은 공동으로 환매하여 청소년 선도기금으로 에치토록했다。

구국여성봉사단 朴楣嫉총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金致烈내무, 朴琪錄문교부장관과 具滋春서울시장을 비롯, 서울에 있는 구국여성봉사단 맡으며 서울 중로구 관훈사계육 일대에서 오물을 수거했다。

朴총재는 정화하업을 하면서 『자연보호운동은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않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연

과천 남서울대공원 내일착공

▶ 1978.9.14 조간 8(9)

安養中學本選진출

靑龍축구京畿예선

【仁川=張鳳楠기자】청룡기쟁탈 제33회전국중고축구선수권대회 경기도대표 선발전 최종일(13일·인하고운) 중등부결승에서 안양은 파주팀을 3대1로물리치고우승, 본선진출권을 획득했다。

◇최종일전적(13일·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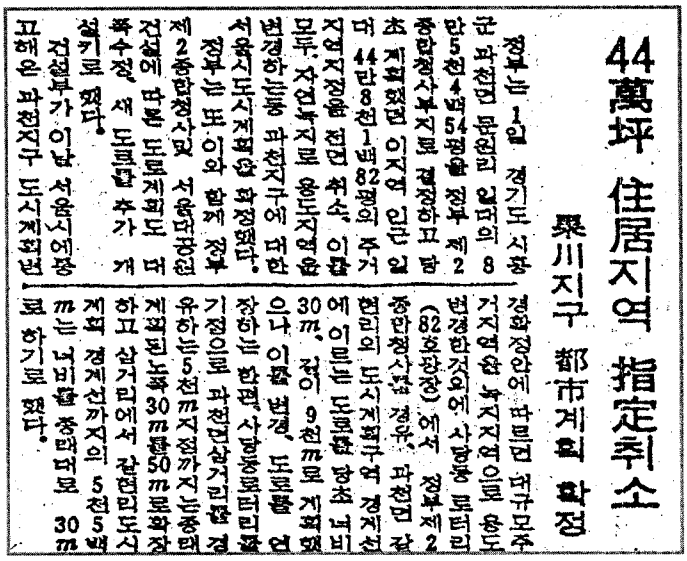
▲중등부결승

안 양 3 (2—1 1—0) 1 파 주

안양중학 본선 진출

청룡 축구 경기 예선

▶ 1978.11.2



44萬坪 住居지역 指定취소

果川지구 都市계획 확정

정부는 1일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일대의 8만5천4백54평을 정부 제2종합청사부지로 결정하고 당초 지정했던 이지역 일반 44만8천1백82평의 주거지역을 전면 취소, 이를 모두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등 과천지구에 대한 서울시도시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이와 함께 정부 제2종합청사및 서울대공원 건설에 따른 도로계획도 대폭수정, 새 도로를 추가 개설키로 했다.

건설부가 이날 서울시에 통보해온 과천지구 도시계획변경화정안에 따르면 현규모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한것외에 상당동 로터리(82호광장) 에서 정부제2종합청사부지 경유, 과천면 갈현리의 도시계획구역 경계선에 이르는 도로를 당초 너비 30m, 현이 9천m로 지정했으나 이를 변경, 도로를 연장하는 한편, 상당동로터리를 기점으로 과천면삼거리를 경유하는 5천m지점까지는종래 계획된 폭 30m를 50m로확장하고 삼거리에서 갈현리도시계획 경계선까지의 5천5백m는 너비를 종래대로 30m로 하기로 했다.

과천지구 도시계획 확정

44만평 주거지역 지정취소

▶ 1978.11.14 조간 2(1)

仁川·安養·富川·忠武·果川 기준地價 年內고시

나머지 候補地는 내년중에

건설부는 기준지가고시대상부보지 36개 市級도시중 仁川 安養 富川 忠武동 4개를 제외한 果川 모두 5개지역 2백35·6평방㎞에 대해 기준지가를 고시키로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 실시를 위해 현국 36개市에 대해 기준지가를 연내에 고시할예정이었으나 필요한 예산 12억원중 1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우선 부기가 예상되는 서울등 5개지역에 대해서만 기준지가를 고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 麻山 大邱 光州 大田등 주요도시에 대한 기준지가고시는 내년 상반기중 5억원을 들여 한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 하반기에 합 계획이다. 연내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은 仁川 1백43·8, 安養 49·1, 富川 26·3, 忠武 14·5, 果川 2·1평방㎞이다.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부칙 2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나 申告制를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준지가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안양-부천-충무-과천 기준지가 연내고시

나머지 후보지는 내년중에

▶ 1979.1.14

果川에 인구3만 新都市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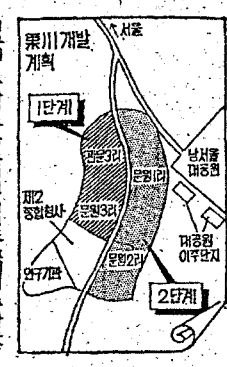
建設部, 세부계획 3월확정 90萬坪에 720億들여

아파트등 6천여家口 건립

初中高 7개校·商街도 세워

住宅公社에 專擔本部

1단계로 82년까지 官門3·文原3里 우선 개발키로



정부제2종합청사가 들어설 경기도 果川에 아파트등 6천6백가구의 주택이 건설되고 주변에 초·중·고 7개학교가 건립되는 등 인구 3만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13일 건설부가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천도시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계획면적 89만6천평중 25만4천평에 택지를 조성, 아파트 5천가구, 연립주택 1천가구, 단독주택 6백가구분을 건립하고 4만평의 대지에 국민교 3개, 중학교 2개, 고교 2개교를 3만6천평에는 수퍼마켓등 상가를 세우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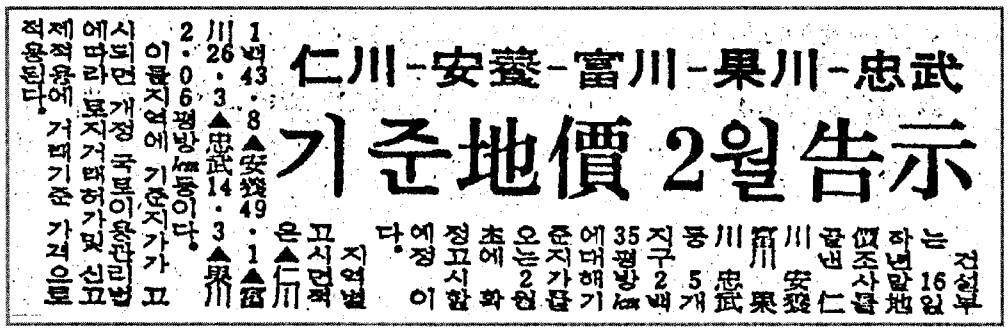
또 9만5천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 33·7.5㎞, 상수도 5천㎥, 동신시설 1만회선을 설치하며 하수처리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1단계는 82년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관문(官門) 3리와 문원(文原) 3리지역을 우선 개발, 주택 2천9백50가구, 도로 10·8㎞, 학교 3개교(초·중·고 각 1개교), 동신시설 5천회선, 상수도 5천㎥, 우체국, 변전소등을 설치한다. 2단계사업은 83년부터 문원1·2리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사업은 주택공사가 자체자금 7백20억원을 들여 추진하게되며 정부는 행정관청을 위해 과천종장산을 철거키로했다. 또한 주공이 이지역에 건설할 예정인 아파트는 일반아파트 13평형 2백가구, 분양아파트 1천가구(13평형 5백가구, 15평형 3백가구, 17평형 2백가구)이다.

정부는 주공에 과천도시계획본부를 설치,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했는데 제2차적인 과천도시계획의 최종인구 20만평규모의 정부제2종합청사가 착공된 이는5월 확정된다.

과천에 인구3만 신도시 조성

▶ 1979.1.17 조간 2(7)



仁川-安養-富川-果川-忠武

기준地價 2월告示

건설부는 16일 하반期地價調査를 끝낸 仁川·安養·果川·忠武 등 5개 지구 2백35평방㎞에 대해 기준지가를 오는 2월초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고시면적은 ▲仁川 1백43·8▲安養 49·1▲果川 26·3▲忠武 14·3▲果川 2·06평방㎞등이다.

이 용지역에 기준지가가 고시되면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적용에 거래기준 가격으로 적용된다.

인천-안양-부천-과천-충무 기준 지가 2월 고시

▶ 1979.2.15

安養川邊등 河川부지

채소耕作 단속키로

江西區

강서구는 15일부터 안양천 범등 하천부지에서의 채소경작행위를 단속, 하천법에 의거 처법하기로 했다.

이는 하천부지에서 자란채소가 오염된 물로 성장, 시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고 경작으로 인해 하천제방이 손되는 사례가 많이 생한 조처이다.

반게된다. 각 구청별 걷사기 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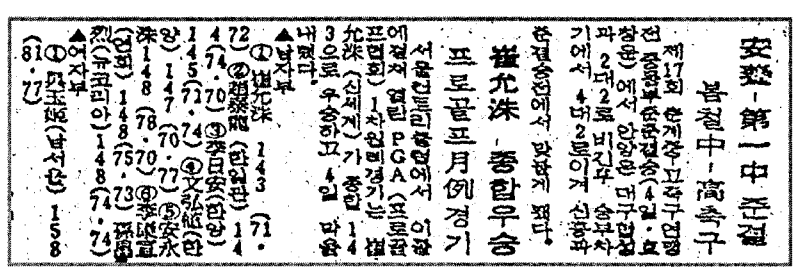
▲중로=5원7~29일 ▲중구=4원16~5원31일 ▲중대문=4원10~5원31일 ▲성동=3원20~4원20일 ▲성북=3원21~5원10일

▲도봉=4원9~5원31일 ▲서대문=4원10~5원31일 ▲마포=4원16~5원16일 ▲용산=3원21~4원18일 ▲영등포=4원2~6원30일 ▲관악=4원2~5원25일 ▲강남=5원7~31일

안양천변 하천부지

채소경작 단속

▶ 1979.4.5 조간 8(8)



安養-第一中 준결

봄철 중-고축구 연맹전 중부권경승(4일·효창운)에서 안양은 대구협회파 2대2로 비긴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이겨 신흥파 준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다.

崔允洙 종합우승

프로골프月例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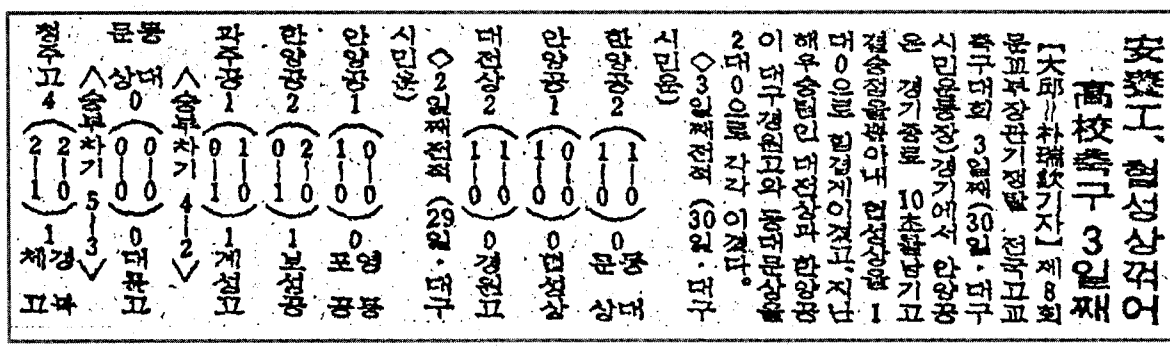
서울컨트리클럽에서 이뤄진 제1회 한국PGA(프로골프협회) 1차월례경기는 崔允洙(신세계)가 종합 143으로 우승하고 4일 마감 내렸다.

▲남자부 ①崔允洙 143(71·72) ②朴興珉(한일관) 144(74·70) ③李日安(한양) 145(71·74) ④文弘植(한양) 147(70·77) ⑤安永泰 148(78·70) ⑥李盛益(경희) 148(75·73) ⑦朴興植(유공) 148(74·74)

▲여자부 ①朴玉姬(남서울) 158(81·77)

봄철 중-고축구 안양-제일中 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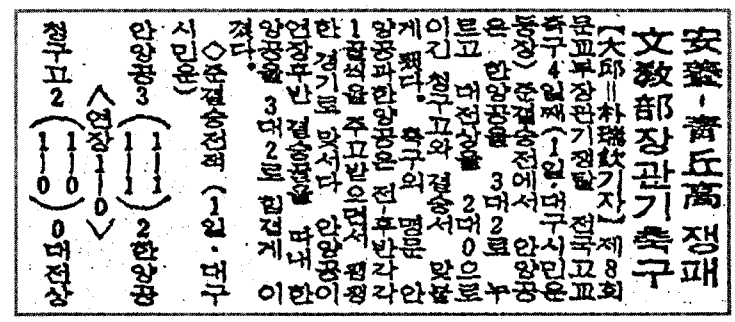
▶ 1979.5.1 조간 8(9)



安養工, 협성상꺾어
高校축구 3일째
【大邱=朴瑞欽기자】제8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3일째(30일·대구시민운동장)전기에서 안양공은 경기종로 10초남기고 결승점올린 1대0으로 협성상업을 2대0으로 각각 이겼다。
◇3일째전적 (30일·대구시민운)
한양공2 (1—0 1—0) 0동대문상
안양공1 (0—0 1—0) 0협성상
대전상2 (1—0 1—0) 0경원고
◇2일째전적 (29일·대구시민운)
안양공1 (0—0 1—0) 0영등포공
한양공2 (2—0 0—1) 1보성공
곽주공1 (1—0 0—1) 1계성고
〈승부차기 4—2〉
동대문상0 (0—0 0—0) 0대륜고
〈승부차기 5—3〉
청주고4 (2—1 2—1) 1경북고

중고축구 3일째 안양工 협성商 꺾어

▶ 1979.5.2 조간 8(8)



安養·靑丘高 쟁패
文敎部장관기축구
【大邱=朴瑞欽기자】제8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고교축구 4일째(1일·대구시민운동장) 준결승전에서 안양공은 한양공을 3대2로 누르고 대전상을 2대0으로 이긴 청구고와 결승서 맞붙게 됐다。축구의 명문 안양공과 한양공은 전·후반각각 1골씩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경기로 맞서다 안양공이 연장후반 결승골을 넣어 한양공을 3대2로 힙겁게 이겼다。
◇준결승전적 (1일·대구시민운)
안양공3 (1—1 〈연장1—0〉 2한양공
청구고2 (1—0 1—0) 0대전상

문교부장관기 축구 안양-청구고 쟁패

▶ 1979.7.29

는 원유수입을 위한 해외조직망을 강화하기위해 런던과 제다에 支社를 설치할 계획。
◆三養, 臺灣에化纖기술제공
○…三養社는 국내 화섬업체로는 처음으로 20만달러의 토열티를받는 조건으로 臺灣에 화섬제조기술을 공여키로 계약을 체결。
◆코오롱, 곧 무교동社屋으로
○…코오롱그룹(회장 李炯燁)은 오는8월12일 무교동 신축사옥으로 옮길 계획。지상15층, 지하3층의 이 신축사옥에는 코오롱 코오롱상사 코오롱油化등이 입주할예정。
◆極東, 栗川에 골프장
○…極東建設(金明根)은 자본금 36억원규모의 栗川에 지상업을 설립, 栗川지역 1백50만평부지에 골프장등 각종 레저시설을 갖출 계획。
◆東亞, 사우디에「友情의塔」
○…東亞建設(崔元碩)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에 「友情의 탑」을 세워 기증。
◆東明木材, 印尼 공장 추진
○…東明木材(姜政男)는1천만달러 규모의자금을투입, 인도네시아에 합판공장을 건설키로하고 현지合作先과 구체적인 공장설립계획을 추진하고있다。
◆大旺코너 8월15일 문열어
○…(株)滯紡계열회사인大旺實業(金旺鎔)은 1백10억원을 투입, 객실 2백19개 점포 4

극동-과천에 골프장건설

▶ 1979.8.24

安養서 貨物列車 탈선

電動車 2시간不通

九老~水原

2만여명 발묶이고 15개列車 연착소동

【安養】 23일오전10시24분쯤 경기도안양시안양6동143 앞 경수간전철구간에서 전북 신태인역을 출발, 춘천으로 가던 제2990호 화물열차 (기관사李강태·32)가 탈선, 급열차등 15개열차가 단선으로 경수간 전동차가 낮12시45분까지 2시간이상 운행이 중단, 전동차를 이용하려던 2만여승객이 발이 묶였다.

또 부산발 서울행 제22폭 화차의 수축 바퀴 2개가 철로밖으로탈선, 4백여m나 끌려가면서 침목 2백여개를 파손시켜 일어났다.

사고는 함생제원로인 염산염을 추출키 위해 직원 이씨 (최규영군 (11·송정국교 4년·잠실수공아파트3단지308숙으로 물에 넣어 실중됐다. (동아제약 (三岡제약) 봉이다. 아레피렌을

이사고로 전동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수원~구로간 전철역에선 밀려드는 승객들이 전동차를타지못해 되돌아가야했고 버스가 없는역의 승객들은 3시간동안 다려서야 전동차를 탈수있었다. 선로는 오후 8시쯤에 완전복구됐다.

▶ 1979.9.27

안양서 화물열차 탈선 전동차 2시간 불통

2만여명 발묶이고 15개열차 연착소동

民生産업체와 用地競爭 말도록

商工部

果川지역 投機목적 집산으면 撤去民宅地분양권 안주기로

건설부는 경기도 果川지역에 투기가 재발함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거주자 택지분양기준을 마련,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사람

양하지않고 전문화도 되어있지않으므로 이분야의 재처에 수출경쟁국에비해 상품이 다 노업해충전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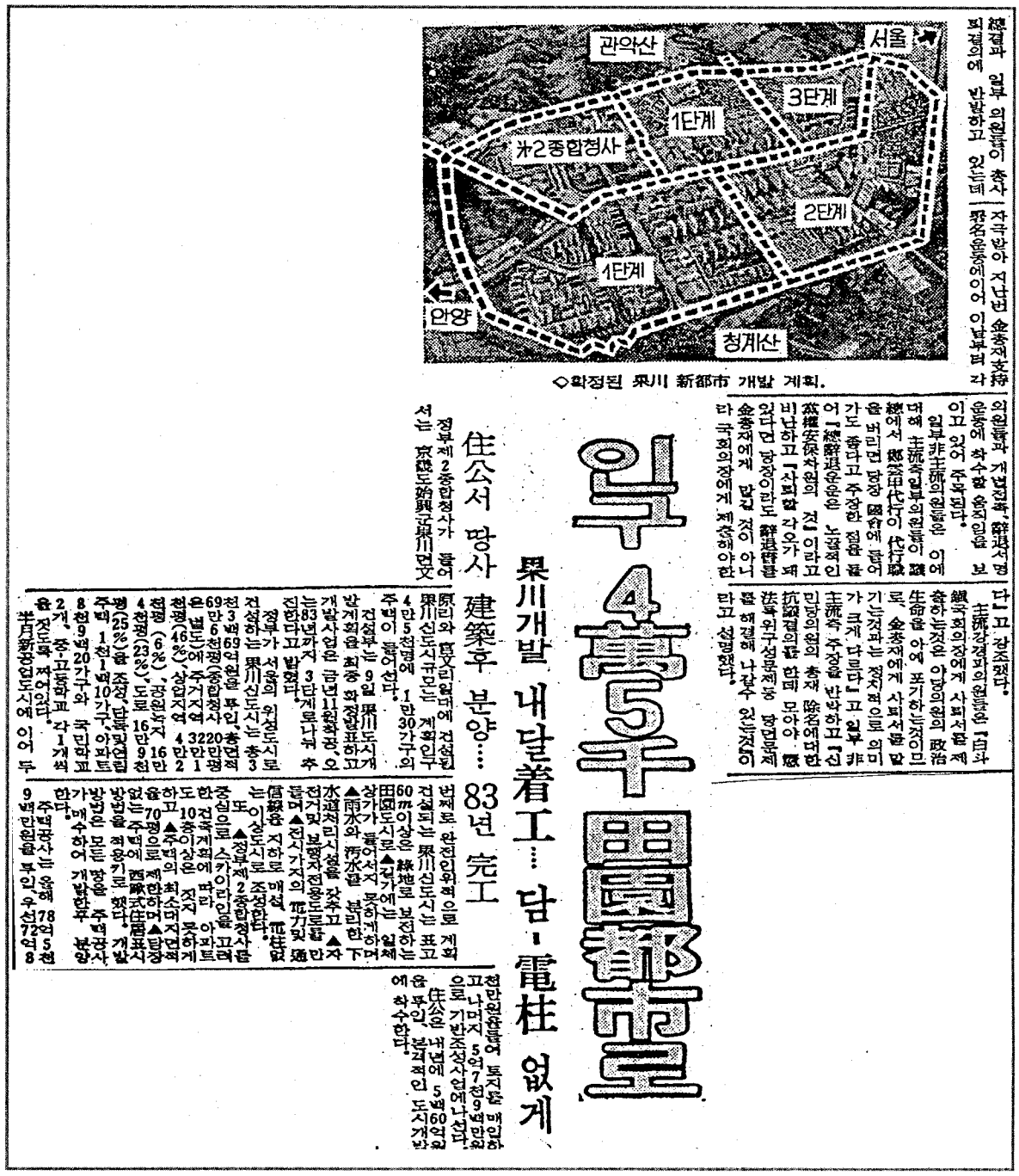
에 대해서는 택지분양권을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철거대상 총8백47가구중 건설부조사결과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78년10월25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住宅을 2채이상 소유했던자중 果川1住宅區 소유했던자중 果川지역내로 이사를 간사람에게만 택지분양권을주기로했다.

택지분양권을 받을수 없는 기존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것으로 밝혀진 2백89가구는 택지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거주자택지분양기준은 ▲果川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인 지난 78년10월25일 이전부터 1住宅을소유하면서 현재까지 살고있는자 ▲78년10월25일 이전부터 1住宅區 소유했던자중 果川지역내로 이사를 간사람에게만 택지분양권을주기로했다. ▲住宅을 2채이상

▶ 1979.10.16



안양 4개동 5만 명 몰려든다

栗川개발 내달着工… 住公서 땅사 建築후 분양… 83년 完工

담·電柱 없게

정부제2종합청사가 들어서는 京畿도始興군栗川면 일원과 富곡리일대에 건설될 栗川신도시규모는 계획인구 4만5천명에 1만3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건설부는 9일 栗川도시개발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개발사업은 금년11월착공, 오는83년까지 3단계로나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의 위성도시로 건설하는 栗川신도시는 총3만6천9백69억원을 투입, 총면적 69만6천평(중합청사 3220만1천평(46%)), 상업지역 4만2천평(6%), 공원녹지 16만9천4천평(23%), 도로 16만9천평(25%)을 조정, 남북및연립주택 1만1천10가구, 아파트 8천9백20가구와 국민학교 각1개씩 2개, 중·고등학교 각1개씩 짓는등 자족적 위성도시로 이어 두번째로 완전인위적으로 계획 건설되는 栗川신도시는 표고 60m이상은 綠地로 보전하는 田園도시로 ▲건가에는 일체 상가가 들어서지 못하게하며 ▲雨水와 汚水를 분리한 下水道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전거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며 ▲전시가지의 平均및 最高층수를 지하로 매설 ▲住宅지역은 이상도시로 조성한다.

또 ▲정부제2종합청사를 중심으로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주택의 최소대지면적을 70평으로 제한하며 ▲탑상 西歐式住居표시 없는 주택에 적용키로 했다. 개발방법은 모든 땅을 주택공사가 매수하여 개발한 후 분양한다.

주택공사는 올해 78억5천만원을 투입, 우선 72억8천만원을 투입, 住公은 내년에 5백60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도시개발에 착수한다.

1천만원을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5억7천9백만원으로 기반조성사업에 나선다.

◇확정된 栗川 新都市 개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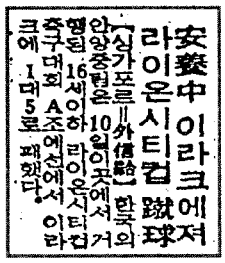
의원들과 개별접촉, 辭表철회 운동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非主流측 일부의원들은 이에 대해 主流측이 辭表를 代行 處理하는 것과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일부 非主流측 주장을 반박하고 신민당의원의 총재 除名에 대한 抗議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모아야 國會 法制사무처장에게 제출했던 辭表를 철회해 나갈수 있는것이라고 성명했다.

主流측 경제과학자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것은 야당의원의 政治生命을 아예 뽀기하는것이므로, 金총재에게 사퇴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 인구 4만 5천 전원 도시로

▶ 1979.12.11 조간 8(9)



安養中 이라크에 져
라이온시티컵 蹴球
【싱가포르=外信部】 한국의 안양중(대표 16세 이하) 팀은 10일 이곳에서 열린 라이온시티컵 축구대회 A조 예선에서 이라크에 1대5로 패했다.

안양중 이라크에 져

라이온시티컵 축구

▶ 1979.12.13

택시운전사 失踪나흘

빈車만 果川 저수지 둑밑서 발견

택시운전사가 일을 나간후 4일동안 행방불명된채 빈차만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오전 5시30분쯤 신창운수택시운전사 尹龍燮씨(27·서울성동구중곡2동84의32)가 택시를 몰고 일을 나간뒤 아직 소식이 없다고, 尹씨의 서울1사625 0호 파란색 포니택시만 다음날인 9일오전 6시쯤 경기도시흥군과천면막계리 서울대공원진축현장앞과천저수지둑밑 공터에서 발견됐다.

차를 처음본 한양주택건설 경비원 조영계씨(26)에 따르면 전날밤 순찰할때 없었던 차가 둑밑공터에 버려져 있어 소속회사인 신창운수에 알렸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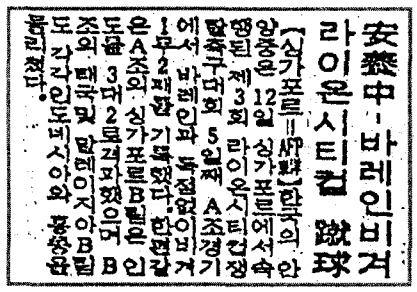
발견당시 차는 운전석옆문이 반쯤 열렸고 택시요금미터기는 3천1백40원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차앞자리에는 빈맥주병 2개와 드릴크류의 병1개가 널려있었다. 운전석부근에는 최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네군데나 있었고 달려진 뒤 트렁크에는 4천9백80원의 동전이든 尹씨의 돈주머니가 들어있었다.

尹씨의 부인 申正禎씨(26)에 따르면 尹씨는 8일 새벽 지폐 5천원과 동전 8천원등 1만3천원을 가지고 집을나섰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9일오후 회사로부터 차만발견됐다는 연락을받고 동부경찰서 풍곡파출소에 신고했다는것이다.

택시운전사 실종 나흘

과천 저수지 빈차 발견

▶ 1979.12.14 조간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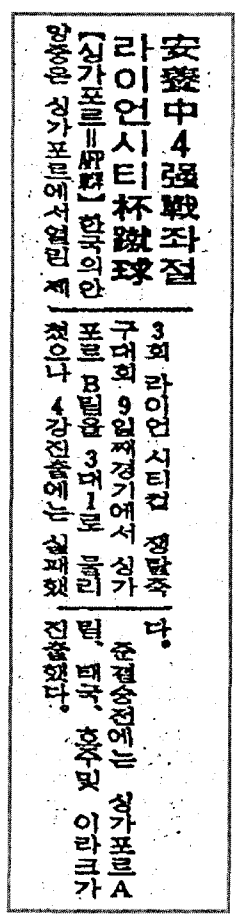
安養中-바레인비겨
라이온시티컵 蹴球

【싱가포르=共同】한국의 안양중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속행된 제3회 라이온시티컵 축구대회 5일째 A조경기에서 바레인과 득점없이 비겨 1무2패를 기록했다. 한편 같은 A조의 싱가포르B팀은 인도를 3대2로 격파했으며 B조의 태국및 말레이지아B팀도 각각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물리쳤다.

안양중-바레인비겨

라이온시티컵 축구

▶ 1979.12.20 조간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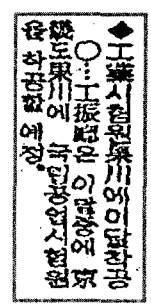
安養中 4强戰 좌절
라이언시티杯蹴球

【싱가포르=共同】한국의 안양중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회 라이언 시티컵 정탈축구대회 9일째경기에서 싱가포르 B팀을 3대1로 물리쳤으나 4강진출에는 실패했다. 준결승전에는 싱가포르A팀, 태국, 홍콩및 이라크가 진출했다.

라이언시티컵 축구

안양중 4강전 좌절

▶ 1980.1.10



◆工業試驗院 果川에 이달착공
○…工振廳은 이달중에 京畿도 果川에 국립공업시험원을 착공할 예정.

국립 공업시험원

과천에 착공

▶ 1980.3.11

"밤에만 돌리는" 安養川변 公害工場
3개社 3명 拘束 5명 입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安永완검사는 10일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도 주민과 당국의 눈을 피해 밤중에 폐수를 한강으로 흘려 보낸 (朝鮮日報 2월26일자 7면보도) 조흥화학(영등포구 고척동)상무 裵鉉鐘(27), 대표식품 (영등포구 고척동)상무 裵鉉泰씨(28)등 3명을 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컬러(강서구 등촌동) 대표 張世一씨(52)등 5명을 입건했다.

땅속에 고무호스묻고 廢水 마구버려

검찰에 따르면 조흥화학은 당국의 감시를 피해 공장안에 있는 폐수집수조(貯水槽)에 서 하루 폐수 1백80t중 30t을 안양천지류인 도림천에 흘려 보냈다는 것이다.

이회사는 주민들의 반발과 사카린등 당분원료를 만들면서 나오는 폐수를 땅속에 묻은 폐수집수조로 자정이후 새벽에 버렸다.

이폐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인 1백50PPM보다 3~4배가 많은 5백~6백PPM으로 오염도가 매우 심한것으로 밝혀졌다.

또대륙식품은 당면을 제조하면서 지난 1월부터 매일 폐수 2~3t을 침전조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흘려 한강을 오염시켰고 어항은 비밀무명을통해 하수도에 흘려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도림천과 안양천변에 있는 다른 많은 업체들도 폐수시설을 해놓고도 경비절감을 위해 주로 밤에 고무호스나 비밀무명을 통해 폐수처리를 하고있는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입건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張世一(52·영등포구 신길2동·한보갈라미표 공사 폐수관리인) ▲劉在天(38·영등포구 고척동·고무제조업) ▲朴興錫(35·조흥화학 공장장)

"밤에만 돌리는"안양천변 공해공장

3개사 3명 구속-5명 입건

▶ 1980.3.11

始興등세곳에
强盜들이出沒

경찰보고에 의하면 괴일
괴괴一일 경기도시흥(始
에는 시흥군 안양읍비산
리(安養邑飛山里) 이현구
(五六) 씨집에 낮을가진
되한一명이 들어가 현금
六천三백원과 의류七점을
강탈도주했다고한다
▲또한 괴일밤 영시반경
전주시고사동(全州市高士
洞) 二가 김주만 (金周
萬=四二) 씨집에 괴한二
명이침입 가족을 이불로
씌우고 공갈하면 죽인다
고 협박한다음 현금八천
三백원과 의류등을 강탈
도주했으나 범인은 체포
되지않았다고한다

시흥동 세곳에 강도들이 출몰

▶ 1980.3.15

果川 새 都市 착공

69萬餘坪…… 人口 4만5천명 수용

83년말 完工

인구 4만5천명규모의 果川 새도시개발사업이 14일착공됐다. 건설부는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서는 京畿도始興군文原리및 富文리일대 69만6천평에 3천3백69억원을 들여 조성되는 果川신도시개발사업을 이날 착공, 83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사업은 건설부 주관아래 주택공사가 건설한다. 3단계로 나눠 실시되는 이사업이 끝나면 果川 신도시에는 단독주택 8백80가구, 연립주택 2백30가구, 아파트 8천9백20가구등 모두 1만3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국민교 4개교, 중·고교 각각 2개교등 교육시설과 시청 경찰서 법원 전신전화국등 공공행정시설이 들어선다. 또 4만2천평의 상업지구에는 호텔 백화점 쇼핑센터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16만4천평의 공원도조성된다. 주공은 이 도시에 연립주택 40가구, 아파트 60가구등 1백가구와 공동사무장 1개소의 태양열시범단지도 건설한다.

과천에 새도시 착공

▶ 198

果川에 「國際식물원」

서울大公園에 2만여평 규모 건설

내년까지, 世界82개국 진귀종 기증 받아

과천서울대공원 2만여평에 세계각국의 고유식물원을 한데모은 국제식물원이 정부

서울시는 26일 세계각국의 희귀한 수종과 고유식물원을 여와 관계자의 자연파괴부에도 도움을주고 수목보존을 촉진 국제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기위해 오는1985년까지 82억7천의 수목·생장 7천그루를 기증받아 경기도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서울대공원내에 심기로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금년도 국제식물원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장 류달영 박사)를 구성했으며 외무부와 협조아래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있는 수십국에 수목교류계획을 알렸다.

현재 세계각국에 있는 나라는 총 1천여종 22만그루가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기웅 서울대공원 관리소장은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기술정보와 자료는 물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각국가는 현재 자국보호 중이며 세계 각국의 고유식물을 한국으로 총 1천여종 22만그루가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기웅소장은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기술정보와 자료는 물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각국가는 현재 자국보호 중이며 세계 각국의 고유식물을 한국으로 총 1천여종 22만그루가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각국에 있는 나라는 총 162개국으로 이들에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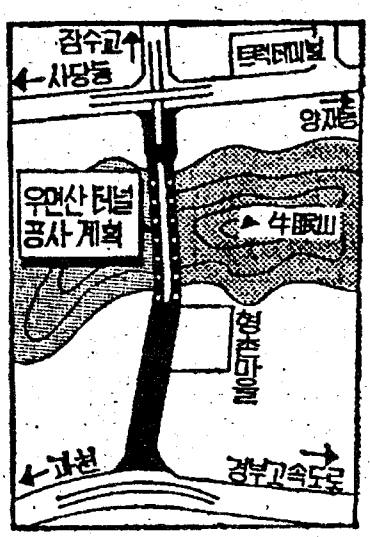
세계적인 희귀식물을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1백62개국으로 총 1천여종 22만그루가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기웅 서울대공원 관리

▶ 1980.6.18

강남지역-과천 외곽도로 연결

江南지역-果川외곽도로 연결
「牛眠山 터널」 신설



서울시는 17일 강남구 우면동 산을 뚫는 터널(안도) 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 터널은 잠수교를 건너 서초동 시경부지앞을 지나는 대로가 남부순환도로와 T자로 만나는곳에서 우면동원촌 마을까지의 우면산을 뚫는것으로 양쪽입구에 진입도로를 신설, 강남지역과 과천-양재동을 연결하는 외곽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도로망 건설의 세부내용을 보면▲우면산에 길이 1천 2백70m의 왕복을 뚫고▲터널부근은 너비40m 길이1백 80m의 진입로를, 남쪽은너비 30m 길이 9백80m의 접속도로를 만들어 총길이 2천4백 30m의 새도로를 건설하며▲이일대 교통량의 인체적인처리를위해 이도로의 부근남부순환도로와의 교차점에는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설치하고▲남쪽 경부고속도로와 과천으로갈리는 지점에 교통광장을 설치하게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도심권~서초동 새시청사~과천 제2정부종합청사를 최단거리로 연결해 강남지역일대의 교통처리를 원활히 할 수있고,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제3한강교~양재동 구간의 길목이 되게된다.

▶ 1980.8.16 조간 8(1)

昌新工、서울體 완파
秋季중-고축구 信興實-安養工과 4强올라
3대0

【교육=池永勳기자】제18회 추계 전국 고등학교축구연맹전은 15일 강릉공설운동장에서 3대0으로 서울체육고를 꺾고 창신공 신흥실 안양공 영동포공을 1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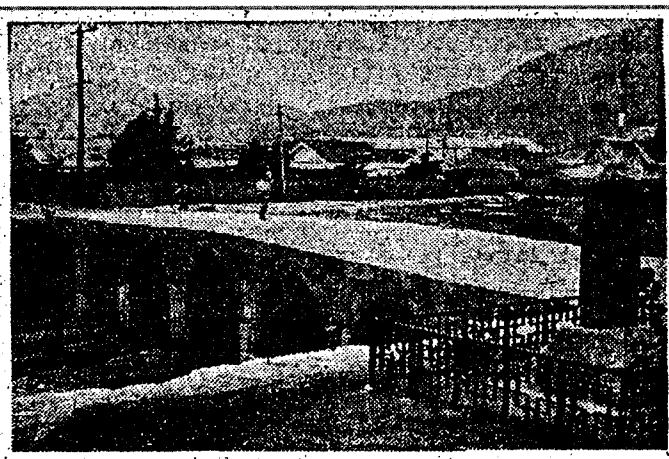
창신공은 전반38분 김석만의 선제골을 굳게 지켜 준결승에 올랐다.

양화와 김종석이 보태 낙승했다. 1골씩을
◇고등부 준결승
창신공 3 (1-0 2-0) 0 서울체
신흥실 1 (1-0 1-0) 0 영동포
안양공 0 (0-0 0-0) 0 중 동
<송부 전기 4대3>
한양공 1 (1-0 1-0) 0 중대부

신흥실-안양공과 4강올라

추계 중-고축구 창신공 서울체 완파

▶ 1980.8.26 조간 6(1)



◇안양에 복원된 1백여년만에 장소를 옮겨 복원된 안양의 만안교(萬安橋).

正祖 효성담긴 "萬安橋" 복원

——百년만에 安養 삼막川에

朝鮮朝 22대 正祖대왕이 아버지 思悼세자에 바친 효성의 전설이 전해지는 경기도 안양시에있는 만안교(萬安橋)가 百여년만에 장소를옮겨 복원됐다.

경부국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며 朝鮮후기의 대표적인 홍예석교(虹霓石橋)인 이다리는 안양시 안양2동826 구경부국도의 안양천에 놓여진지 2백10년이 지나면서 하천의 흐름이 바뀌고 돌보는이없이 방치에 묻혔고, 다리의 유실이 심해 철근콘크리트 다리를 놓기로 결정, 착공 1년만에 완공한것.

복원된 다리는 비석만이 길옆에 세워져 눈길을 끌었던 옛 다리를 약간 하류인 삼막천으로 옮기로 결정, 착공 1년만에 완공한것.

복원된 다리는 비석만이 길옆에 세워져 눈길을 끌었던 옛 다리를 약간 하류인 삼막천으로 옮기로 결정, 착공 1년만에 완공한것.

正祖, 恨맺힌 思悼世子陵 移葬위해 가설

朝鮮後期 대표적인 무지개 모양 돌다리

잘 알려진 이다리를 유속에서 피내 복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자 습그대로를 재현한 이다리는 길이 35.6㍍, 너비 7.1㍍이고 높이 4㍍이다.

안양시는 작년8월 1억여원을 들여 이다리가 있던 곳에서 북쪽으로 2백㍍쯤 떨어진 안양시 석수동 안양의 모습으로 되주변에 있던 이다리가 축조된것은 1776년 正祖대왕이 중신들의 모함으로 뒤주속에서 참묵하게 죽어간 아버지 思悼세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양주에 있던 능을 수원 화산으로 이장한 후 행해졌다.

또 이다리를 축조하는데는 경기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수원, 개성, 강화 유수까지 동원됐었으로 기록돼 있다.

이다리가 놓여진 유래와 함께 전해져오는 말에는 正祖대왕이 양주에 있던 능을 화산으로 옮긴후 남시의 국도였던 노량진~과천을 지나는 남태령고개길 옆에 아버지와 원한이 있는 송덕봉의 무덤이 있어 불길하다하여 행렬길을 시흥~안양쪽으로 바꾸면서 놓여졌다는 것인데, 이때 경부국도로 과천을 경유하면것을 안양으로 바꾸게 됐다는 것이다.

〈安養=金文洙기자〉

正祖 효성담긴 "만안교"복원

백년만에 안양 삼막천에

▶ 1980.10.22

엘그랜 흉터 20代 청년 추적

事件 뒷날 安養金房에 나타나 "다이어 사라"

溪龍學園이사장 被殺 城南선 쇠붙이 절단기 발견

속보=계룡학원 이사장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1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4동 지하상가에있는 금은방 명보당 주인 安興구씨로부터 사건발생 다음날인 15일밤 9시40분쯤 27, 28세 가량의 청년이 3푼짜리 남자 다이어반드 반지와 황금목걸이등을 팔려왔었다는 신고를받고 이청년을찾고있다.

安씨는 이청년이 『안양에 금방이 몇개나 있느냐? 목욕팔아야 할 물건인데 서울에서는 값이 맞지 않았다』고 말한후 귀금속을 내보이지 않자 그냥돌아갔다고말했다.

이청년은 1m 68cm 가량의 키에 몸이 호리호리한편이고 흉이물은 경은반지와 합간T셔츠에 흰 운동화를신고 있었고 오른쪽 팔에는 3~4cm 가량의 흉터가있었다. 경찰은 이청년이 그후 금은방에다시나타나지않았고 숨진김씨의피해품가운데3부

電話 공동사용制 적극권장

遞信部 이웃간의 거리 3百m 이내여야

체신부는 누적된 신규전화 적체를 해소하고 전화없는 사람의 편의를 돕어주기 위해 기존 전화가입자와 연결하여 같이 사용할수 있는 타인사용증설 전화설치제도를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그 시행 방안을 예하관서에 시달했다.

이미 작년부터 실시되고있는 공동사용제도는 전화없는 사람이 이웃에 전화가진 사람의 동의하에 신규 전화를 가설할 때까지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이웃간의 거리가 3백m이내이어야 하며 부가사용료로 월1천7백40원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사용도수로는 두집이 협의하여 분담하게 된다.

짜리 다이어반지와 순금제물품이 많은점으로미루어 이청년을 유력한용의자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안양시 일대에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전국의 금은방및 전당포에 10만부의 장물용표를 배포,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86의84 金편씨(80·여) 집앞 공터에 여행용 검정색 헌가방 하나와 절단기 1개, 작업복 1벌, 흰운동화 한켤레 양말 장갑조각등이 버려져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金씨집 하숙생 金진수씨(22)의 신고에따라 정밀조사에도 현사대를 보내는 한편 버려진 물건들에 혈흔이 있는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물건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치밀했던범인이 버린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을것으로 보고있지만 일단 이를 버린사람도 찾고있다.

계룡학원 이사장 피살사건

사건뒷날 안양금방에 나타나

▶ 1980.12.26

아파트 過大광고 被害

安養入住者 진정 "坪當 15만원 더 줬다"

계 권리금 1백만원도 붙여 1억(38) 동 5차우도 이때문 모르거나 등기절차가 번거로

경기도안양시 석수동 벽조아파트 1백11동301호 崔元燁 (35) 등 2백70여가구 입주자들은 과대광고에 속아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 이를 시정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진정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서울영동포에 있는 종합개발은 지난 11월 벽조아파트 (18·74평) 를 당초 4층기준 평당 66만6천원씩에 분양한다고 선전, 분양희망자를 모집한다음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3·5평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사실상 평당 81만3천원씩에 분양하여 평균 15만원씩을 더 받았다는것.

또 종합개발측은 아직 건설도 되지않은 안양시석수동 삼마전철역이 지난8월말 개통된다고 입간판등에 허위광고를 내거나 입간판등을 세워 입주희망자들을 현혹시켰으며 납입금사동으로 당국의 준공검사를 받지못하자 주민등록을 사전에 입주시켜 상수도등에 편법편승 주고있다고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분양광고를 할때는 당국으로부터 광고공증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회사는 공증을 받지않고 광고를 했다고 아파트주민들은 주장했다.

【水原=錫】

아파트 과대광고 피해

안양 입주자진정

여 백

동아일보 시흥군편

▶ 1922.2.24(3)5

始興에 四名拳銃團

주인을협박하야십오원강탈

경성으로도망한형적이잇서

지나간이십일일오후열두시경에 경긔도시흥군신동면사도리(京畿道始興郡新東面砂道里)에사는 전관조(全寬祚)(三四)의집에엇던나희삼십세가량식되여뵈이는 청년네명이 각々손에 권총을가지고 돌연히침입하야 그권총으로 시고 주인의가삼에 드러대이고당장 죽일듯이 위협하며나는 상해림시정부원인즉 군자금얼마를 제공하라하며 여러가지로 협박하얏는데 주인은자긔의사정을말하고 현금이업다고 여러가지로말하얏스나 그들은종시 듯지아니하고 마침내 방안을이곳저곳 수색한후 현금 십오원을 찻아가지고 즉시 어데로자최를 감초앗는데 이급보를접한 소관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현장에 출장하야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결과 그들은모다 경성으로 도망한형적이잇슴으로 동서에서는 경성각경찰서에 통지하는동시에 방금형사가 사방에출장하야 범인을 수색중이라더라

시흥에4명 권총단

주인을 협박하야 15원을 강탈
경성으로 도망한 형 이 잇서 적

지나간 21일 오후 12시경에 경기도 신동면 사도리에 사는 전관조의 집에 엇던 나이 30세 가량식 되어보이는 청년 4명이 각각 손에 권총을 가지고 돌연히 침입하여 그 권총으로 주인의 가슴에 드러대이고 당상 쏘아 죽일 듯이 위협하며 나는 상해임시 정부원인즉 군자금 얼마를 제공하라하며 여러 가지로 협박하였는데 주인은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현금이 없다고 여러 가지로 말하였으나 그들은 종시 듯지아니하고 마침내 방안을 이곳저곳 수색한 후 현금 15전을 찾아가지고 즉시 어디로 자최를 감초앗는대 이 급보를 접한 소관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현장에 출장하야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결과 그들은 모다 경성으로 도망한 형 이잇음으로 동서에서는 경성 각 경찰서에 통지하는 동시에 방금 형사가 사방에 출장하야 범인을 수색중이라더라

▶ 1922.3.1

始興에 五名强盜

어제새벽세시경에시흥군에

오명의강도가나타난대사건

漢江通에서

一名逮捕

용산서의손에

어제아츰여섯시에

시흥군동면봉천리에강도가낫다

함은 별보와갓거니와 작이십팔일

오전여섯시경에용산경찰서에

서는 소관경찰서와통지를밧고

즉시 형사가관내에버려서서그범

인을 경계하든바 필경은그관내

인한강통 漢江通 부근에서그강

도단의한명을체포하여방금취조

중이라더라

시흥에 5명 강도

어제 새벽 3시경에 시흥군에 5명의 강도가 나타난 대사건
작 28일 오전 3시경에 시흥군 동면 봉천리 47번지에 사는 김준여의 집에 시골사람의 모양을 차린 5명의 강도가 침입하였는대 그 중에 4명은 검은 두루막이를 입고 1명은 흰 두루막이를 입었으며 또 그들은 모두 검은 방한모를 썼는데 그들은 단도와 장난감권총으로 주인을 협박하고 돈을 내이라 하였으나 주인은 그 때마침 돈이 업섯슴으로 그들은 방안을 수색하다가 마침내 시가 7백여원 가량의 의목 몇 십벌을 도적하여 가지고 어대로 자취를 감초앗다는대 이 급보를 접한 당시 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전 서원이 현장에서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경성 각 경찰서로 통지하고 방금 대 활동을 계속하는 중이라더라

한강통에서 일명체포

어제아침여섯시에 룡산서의 손에 시흥군동면 봉천리에 강도가 낫다함은 별보와 갓거니와 작이십팔일 오전 여섯시 경에 룡산경찰서에 서는 소관경찰서의 통지를 밧고 즉시 형사가 관내에 버려서서 그 범인을 경계 하든바 필경은 그 관내인 한강 통 부근에서 그 강도단의 한명을 체포하여 방금 취조중이라더라

▶ 1922.8.18

始興虹山에 慘殺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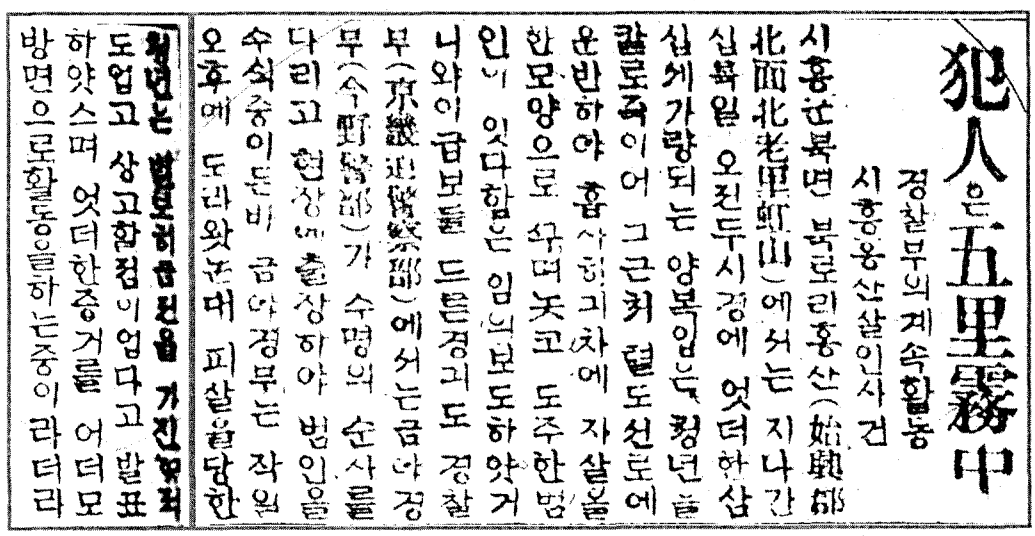
경긔도경찰부에서범인수색명령

시흥 홍산에 피살체

경기도 경찰부에서 범인수색 명령

재작 16일 오후에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그 관내 각 경찰서에 모중대 범인 수색에 대한 통지를 발하엿는대 이제 그 내용을 보듯대 재작 16일 오전 두시경에 시흥군 북면 구로리 뒤에 잇는 홍산이라는 산속에서 30여세 가량 되어 보이는 신사의 모양을 차린 남자 1명이 단도에 목이 찔려 무참히 사망한 것을 그곳으로 나무하러 갓든 농부가 이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내여 이 사실을 소관경찰서에 보고하엿는대 동서에서는 즉시 다수한 경관이 현장에 출장하야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그 조사한 사실을 경기도 경찰부에 보고하엿슴으로 동부에서는 전기와 갓치 관내 각경찰서에 범인수색에 대한 통지를 한것이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에 붓침으로 아직 보도할 수가 업더라

▶ 1922.8.19



犯人은五里霧中

경찰부의계속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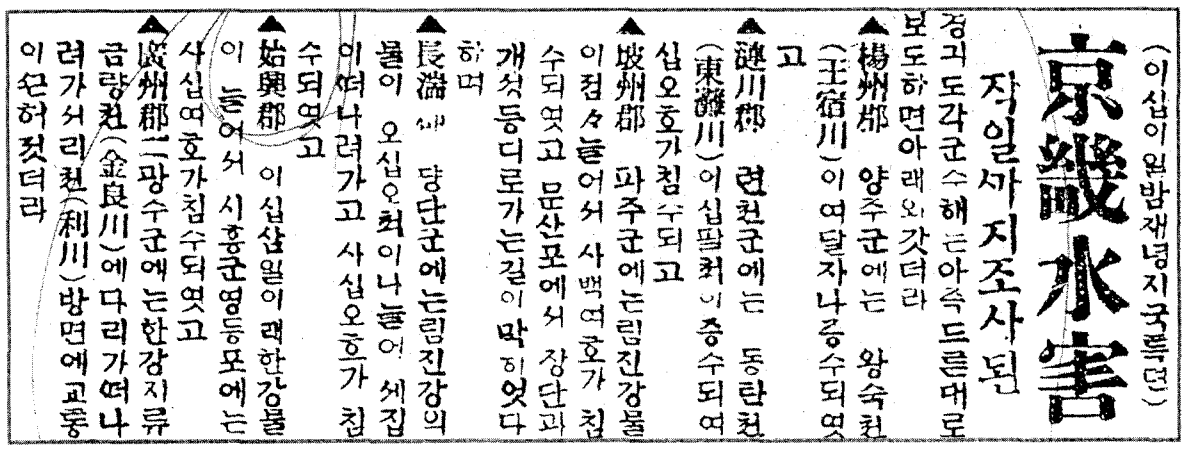
시흥홍산살인사건

범인은 오리무중

시흥 홍산 살인사건 경찰부의 계속활동

시흥군 북면 구로리 홍산에서는 지나간 16일 오전2시경에 엇더한 30세가량되는 양복입은 청년을 칼로 죽이어 그 근처 철도선로에 운반하여 흡사히 기차에 자살을 한 모양으로 꾸며놓고 도주한 범인이 있다함은 임의 보도하얏거니와 이 급보를 들은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금야 경부가 수명의 순사를 데리고 현장에 출장하여 범인을 수색 중이던 바 금야경부는 작일 오후에 도라왓는데 피살을 당한 청년은 별로히 금전을 가진 형적도 업고 상고할 점이 업다고 발표하얏스며 엇더한 증거를 어더 모 방면으로 활동을 하는 중이라더라.

▶ 1922.8.24



(이십이 일밤재녕지국특뎐)

京畿水害

작일까지 조사된 경기 수해

경긔도각군수해는아즉드른대로보도하면아래와갓더라

▲楊州郡 양주군에는 왕숙천(王宿川)이여달자나흥수되엿고

▲漣川郡 련천군에는 동란천(東灘川)이십팔쳐이흥수되여십오호가침수되고

▲坡州郡 파주군에는림진강물이컴々늘어서사백여호가침수되엿고 문산포에서 장단과개성등디로가는길이 막히엇다하며

▲長湍郡 장단군에는림진강의물이 오십여처이나늘어 세집이떠나려가고 사십오호가 침수되엿고

▲始興郡 이십삼일이래한강물이 늘어서 시흥군영등포에는 사십여호가침수되엿고

▲廣州郡二광주군에는한강지류 금량천(金良川)에다리가떠나려가서리천(利川)방면에교통이끈허젓더라

▶ 1922.9.6

五里霧中의 始興事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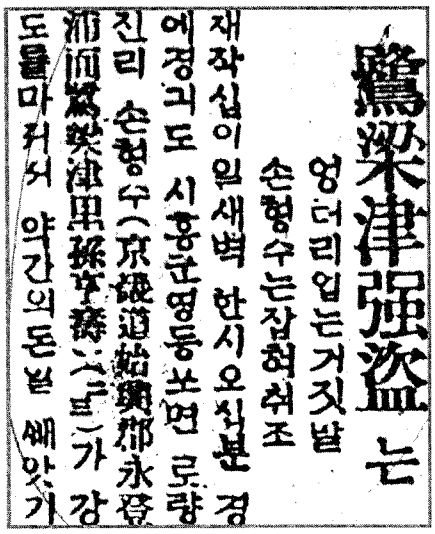
기타의범죄도 잡지못함이만타

시흥군흥산(始興郡虹山)에서 엇더한청년한명을 살해한사실이 잇섯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경긔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서는 지금까지 보안과의경관이 총동원이되야 반달동안이나 각방면으로 범인을 수색하는중이나 범인의종적은 고사하고 현장에서 참살을당한피해자의신분과 성명도 판명되지못하야 사건의수색은 컴々묘연한디경으로 되엿슴으로 사회에서는 경찰의활동을 의심하게되얏는데 경긔도경찰관내에서 금년원월부터 륙월까지 반년사이에 범죄를한건수가 륙천철백사십건이오 검거한건수가 오천철백오십삼건에달하야 범죄한 총계에비하면 사백팔십이건을 더포치못하얏고 그중에는 작년에발생한범죄도 금년에이르러 더포뎡된것도잇슴으로 금년에 발생한범죄의 일할이상은 더포치못한 세음이며범죄의 종류로보면 살인범이 삼십일명이오 강도가 칠십륙명이오 절도가 사천오백구십뉴명이오 횡령이 륙백십삼

오리무중의 시흥사건

기타의 범죄도 잡지 못함이 만타.
향차 시흥군 흥산에서 어떠한 청년 1명을 살해한 사실이 있었다함은 이미 보도한바 있거니와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지금까지 보안과의 경관이 총동원되여 반달동안이나 각 방면으로 범인을 수색하는 중이나 범인의 종적은 고사하고 현장에서 참살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과 성명도 판명되지 못하여 사건의 수색은 점점 묘연한 디경으로 뭇처감으로 사회에서는 경찰의 활동을 의심하게 되얏는대 경기도 경찰관내에서 금년 일월부터 륙월까지 반년사이에 범죄를 한 건수가 6천7백4십건이요 검거한 건수가 5천7백5십3건에 달하야 범죄한 총계에 비하면 482건을 체포치 못하였고 그 중에는 작년에 발생한 범죄도 금년에 이르러 체포된 것도 잇슴으로 금년에 발생한 범죄의 1할 이상은 체포치 못한 세음이며 범죄의 종류로 보면 살인범이 31명이고 강도가 76이고 절도가 4천5백9십1명이고 횡령이 613명이라더라.

▶ 1922.10.14.



鷺梁津强盜는

엉터리업는거짓말

손형수는잡혀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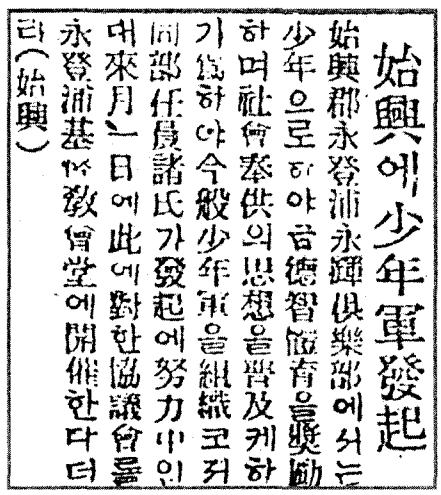
재작십이일새벽 한시오십분경에경긔도 시흥군영등포면 로량진리 손형수(京畿道始興郡永登浦面鷺梁津里孫亨秀)가 강도를마저서 약간의돈을 빼앗기

노량진강도는 엉터리업는 거짓말

손형수는 잡혀 취조

재작 12일새벽 1시50분경에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로량진리 손형수(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노량진리 손형수)(23)가 강도를 만나서 약간의 돈을 빼앗기엇다함은 임의보도한바이어니 용산 경찰서에서 다시 자세히 조사하야 본 즉 강도를 마젓다는것은 엉터리업는 거짓말이요 손형수는 원래로동자인데 그전날 남대문뎡거장 짓는 공사장에서 십장에게 몃칠동안 삭전을받은후 술을먹고 또집으로 도라가다가 종로에서 또 술을먹고 다른 노동자 패들과 싸와서 매를 흠신 맛고 돈을모다 일허버리고 새벽녁에야 집으로 도라갓으나 돈 받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할말이 업스닛가 터무니업시 지금 오는 길에 한강철교에서 별안간 강도 3명이 나타나서 몽둥이로 때리고 가진 돈을 빼앗아 갓다고 꾸며 되엇더니 안에서 자든 형이 그말을듯고 곳그근처파출소에고발하얏슴으로경찰서에서 형사가 갓슬때에도 그대로거짓말을한것임으로 손형수는 관령에거짓신고를 하엿다는 죄목으로 방금용산경찰서에서취조중이라더라

▶ 1923.6.3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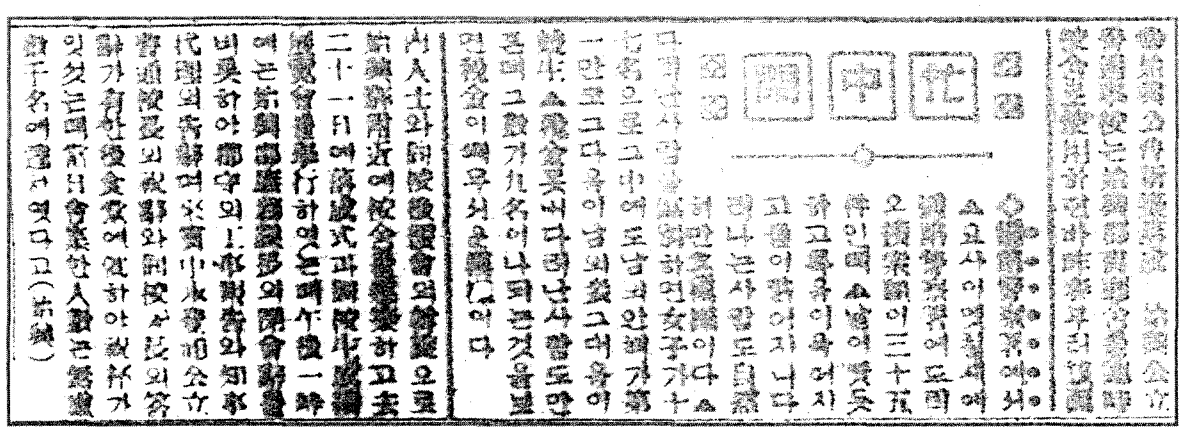
始興에 少年軍發起

始興郡永登浦永興俱樂部에서는 少年으로 하야금德智體育을奬勵하며社會奉供의思想을普及케하기爲하야今般少年軍을組織코저同部任員諸氏가發起에努力中인데來月一日에此에對한協議會를永登浦基督敎會堂에開催한다더라(始興)

시흥에소년군 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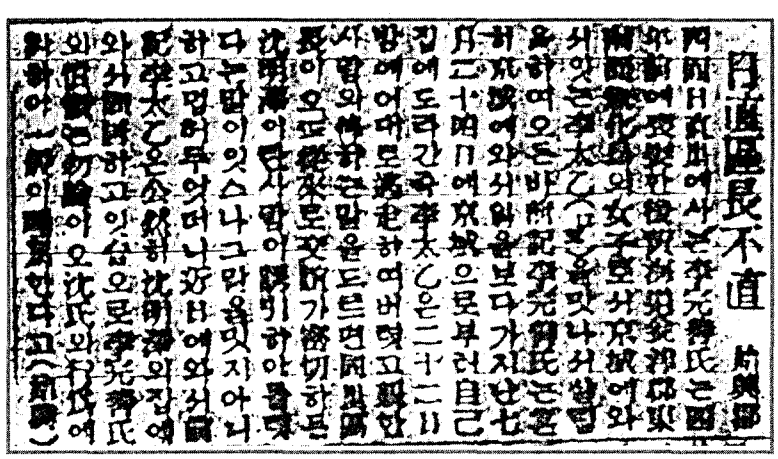
시흥군 영등포 영휘 구락부에서는 소년으로 하야금 덕지체 육을 장려하며 사회봉공의 사상을 보급케 하기 위하여 금반 소년군을 조직코저 동부임원제씨가 발기에 노력중인대 래월 1일에 차에 대한 협의회를 영등포기독교회당에 개최한다더라. (시흥)

▶ 1924.6.2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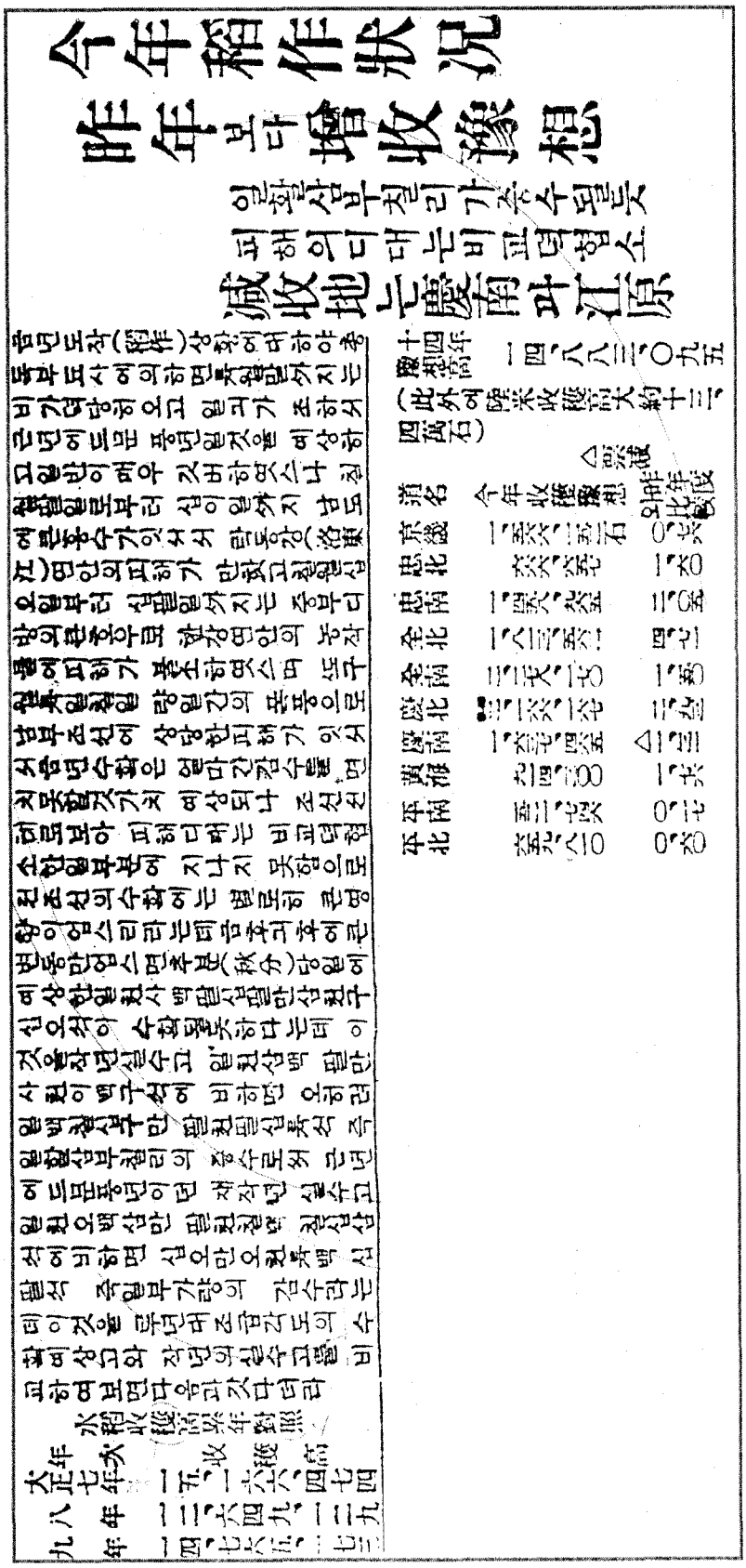
시흥 공립 보통학교

▶ 1924.10.17(3)



日直區長不直

始興郡西面日直里에사는 李完善氏는 四年前에 喪妻한 後 黃海道 옹津郡 東南面 魚化島의 女子로서 京城에 와서 잇는 李太乙을 만나서 살림을 하여오든바 전기 이완선씨는 흔히 경성에 와서 일을 보다가 지난 七月二十四日에 京城으로부터 自己집에 도라간즉 李太乙은 二十二日밤에 어대로 逃走하여 버렷고 親한 사람의 傳하는 말을 드르면 同里區長이 오던 從來로 交誼가 密切하든 沈明擇이란 사람이 유인하야 돌렷다는 말이 잇스나 그 말을 밋지 아니 하고 덥허 두엇더니 近日에 와서 前記 李太乙은 公然히 沈明澤의 집에 와서는 同居하고 잇슴으로 李完善氏의 憤慨는 勿論이오 沈氏의 行爲에 對하야 一般이 唾夕한다고(始興)



今年稻作狀況
昨年보다增收豫想
일할삼부칠리가증수될듯
피해의디대는비교적협소
減收地는慶南과江原
慶南道廳(慶南)에서는 금년도작에 대하야 총독부 묘사에 의하면 육월말까지는 비가 별로 오고 일기가 조하서 근년에 드문 풍년일 것을 예상하엿스나 칠월팔일로부터 십이일까지 남도에 큰홍수가 잇서서 락동강 연안의 피해가 만핫고 칠월십오일부터 십팔일 까지는 중부디방의 큰호우로 한강연안의 농작물에 피해가 불소하엿스며 또 구월육일 칠일 양일간의 폭풍으로 남부조선에 상당한 피해가 잇서서 금년수확은 얼마간감수를 면치못할것가치 예상되나 조선전체로 보아 피해디대는 협소한 일부분에 지나지 못함으로 전조선의 수확에는 별로히 큰영향이 업스리라는데 금후기후에는 큰 변동만 업스면 추분당일에 예상한일천사백팔십팔만삼천구십오석이 수확될듯하다는데 이것을 작년실수고 일천삼백팔만일백칠십구만 팔천팔십육석즉 일할삼부칠리의 증수로써 근년에드문 풍년이던 재작년 실수고 일천오백삼만 팔천칠백 칠십삼석에 비하면 십오만 오천육백십팔석즉 일부가량의 감수라는데 이것을 루년대조급각도의 수확예상고와 작년의 실수고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갓다더라

昨年對照減收豫想

道名	今年收穫豫想	昨年比減收
京畿	一、三六二、三五石	〇、五%
忠北	六六、六五〇	一、六〇
忠南	一、四八六、六五〇	二、〇五
全北	一、八三四、六二〇	四、六
全南	二、六六六、七〇〇	一、六〇
慶北	一、三六六、三〇〇	二、五九
慶南	一、六四四、四五〇	八、三五
黃海	九四四、〇〇〇	一、六
平南	六二二、六〇〇	〇、七
平北	六六六、八一〇	〇、六〇
江原	一四、八八三、〇九五	

(此外에 減收豫想高는 大約十三、四萬石)

年次	收穫高	減收高
大正七年	一、一五、一六、四四七	
八年	一、一二、六四九、一二九	
九年	一、四七、八三、一二九	

▶ 1925.9.27

금년 도작 상황 작년보다 증수 예상

일할삼부칠리가 증수될 듯
피해의디대는 비교적 협소
감수지는 경남과 강원

금년도작 상황에 대하야 총독부 묘사에 의하면 육월말까지는 비가 별히 오고 일기가 조하서 근년에 드문 풍년일 것을 예상하엿스나 칠월팔일로부터 십이일까지 남도에 큰홍수가 잇서서 락동강 연안의 피해가 만핫고 칠월십오일부터 십팔일 까지는 중부디방의 큰호우로 한강연안의 농작물에 피해가 불소하엿스며 또 구월육일 칠일 양일간의 폭풍으로 남부조선에 상당한 피해가 잇서서 금년수확은 얼마간감수를 면치못할것가치 예상되나 조선전체로 보아 피해디대는 협소한 일부분에 지나지 못함으로 전조선의 수확에는 별로히 큰영향이 업스리라는데 금후기후에는 큰 변동만 업스면 추분당일에 예상한일천사백팔십팔만삼천구십오석이 수확될듯하다는데 이것을 작년실수고 일천삼백팔만일백칠십구만 팔천팔십육석즉 일할삼부칠리의 증수로써 근년에드문 풍년이던 재작년 실수고 일천오백삼만 팔천칠백 칠십삼석에 비하면 십오만 오천육백십팔석즉 일부가량의 감수라는데 이것을 루년대조급각도의 수확예상고와 작년의 실수고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갓다더라

▶ 1925. 10. 25(2)

前途不安한 萬餘名生靈

京畿管內罹災民現況

명년종자(種子)도업는집이사만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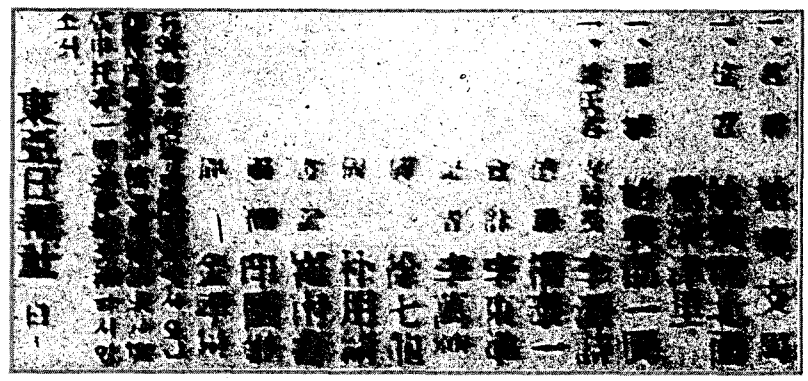
작년여름의 큰수해로 인하야 가옥의류실 도괴 농작물의 전멸등 그의피해가극심함은만아니라 심한곳은디형까지변하야 밧(田)이패여 바다가치되엇고 논에모래가밀리여산가치된곳도잇서서 그대에서는다시 부락을일운다할지라도 살아갈길이업슴으로로동자가되여 생업을따라 일터로몰리고 혹은 물에일허버린 살림사리를다시 일으킬힘이업서서 떠나는부랑민들도 만흐며 또는미래에또다시닥처올듯한수재를염려하야 미리위험한녯터전을버리고 안전한디대를택하야 새로한부락을일우는리재민들도만하서 수재전과 수재후의변화는 딴판으로되여 경기도(京畿道)관내에도 그와가치 이미 변화된것과 금후에 변화될것을종합하면 실로 이천륙백사십팔호에 일만삼천팔백삼십삼명이나 된다는데 그중에는 죽정간접으로 구제를 하지안으면 닥쳐오는 추운겨울을살아갈길이업는 생령이일만명가량이나 된다하며 보안경찰상 악화를일으킬념려가 잇는자가 일백팔십오호에 구백오십여명이나된다하며 농작물의피해로 명년도종자(種子)턱이 염는농민이 사만호가량이나된다더라

전도 불안한 만여 생령

경기도 관내 이재민 현황

금년 여름의 큰 수해로 인하야 가옥의 유실 도괴 농작물의 전멸 등 그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심한곳은 디형까지 변하여 밧이 패여 바다가치 된 곳도 있고 논에 모래가 밀리여 산가치 된 곳도 있어서 그 따에서는 다시 부락을 일운다할지라도 살아갈 길이 업슴으로 노동자가 되어 생업을 따라 일터로 몰리고 혹은 물에 일허버린 살림사리를 다시 일이 킬 힘이 업서 폐허의 고향을 향방 업시 떠나는 부랑민들도 만흐며 또는 미래에 또 다시 닥쳐 올 듯한 수재를 염려하야 미리 위험한 터전을 버리고 안전한 디대를 택하야 새로 한 부락을 일우는 리재민들도 만하서 수재전과 수재후의 변화는 딴판으로 되여 경기도 관내에도 그와 같이 이미 변화된 것과 금후에 변화될 것을 종합하면 실로 2천6백4십8호에 1만3천8십3명이나 된다는데 그 중에는 직접간접으로 구제를 하지 안으면 닥쳐오는 추운 겨울을 살아갈 길이 업는 생영이 1만명 가량이나 된다하며 보안경찰상 악화를 일으킬 염려가 잇는 자가 1백8십5호에 9백5십 여명이나 된다하며 농작물의 피해로 명년도 종자 턱이 업는 농민이 4만호 가량이나 된다더라.

▶ 1925.12.8



동아일보사 사고

▶ 1926.1.2

始興郡殺人事件

檢事活動과事件의表面

경찰이고문하여죽인것은아니라고

전후사실을알수업는시흥살인사건

지난십칠일 경기도 시흥군군자면(始興郡君子面)에서절도범인을 동민들이사형(私刑)하야죽엿는지 경관이 고문을하야 죽엿는지 자못의문의사건이잇섯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십구일본사에서 그사건의진상을조사하기위하야그자톄현장까지 출장식히엿는데 전긔군자면이란곳은 경부선안양역(安養驛)에서나려서도 사십여리나되고 그 통로(通路)는 산간험로로써교통이심히불편한벽디(僻地)인데그자가그곳을갓슬때에는이미원교(元橋) 검사일행은동면 주재소에서동행한면중환(田中丸)의사의손으로 피해자의시테해부를 맛치고 방금피해자의아들을 참고인으로 신문하는중이엿섯다사건의내용은경관의고문으로죽은듯하다는것은 업는사실이라하고기실은 어대까지 운명의손에농락되는인간의옛말과가튼기괴한사실이감초여잇다한다◇고룩의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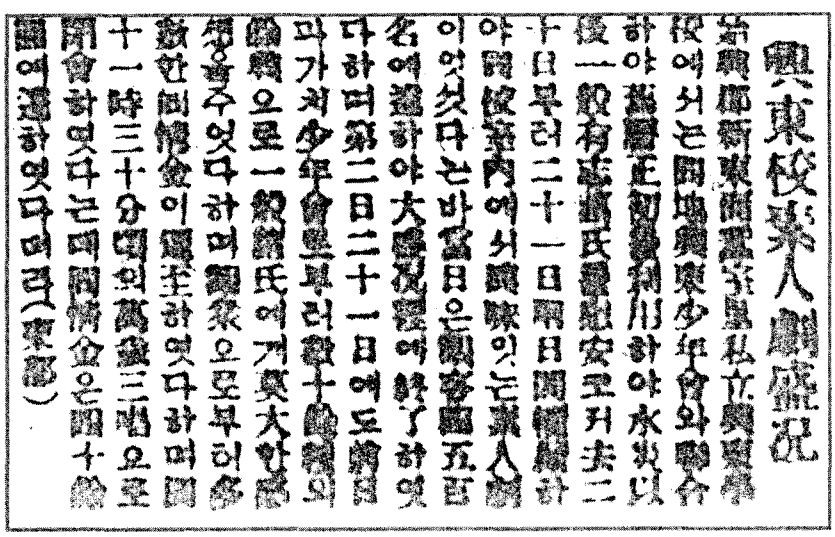
시흥군 살인사건

경찰이 고문하여 죽인 것은 아니라고
전후 사실을 알수 없는 시흥살인 사건
검사활동과 사건의 표면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에서 절도 범인을 동민들이 사형하여 죽엿는지 경관이 고문을 하여 죽엿는지 자못의문의 사건이 잇섯다 함은 기보한바 잇거니와 19일 본사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야 그 사건 현장까지 출장식히엿는데 전기 군자면이란 곳은 경부선 안양역에서 나려서도 40여리나 되고 그 통로는 산간험로로써 교통이 심히 불편한 벽디인데 기자가 그곳을 갓슬 때에는 이미 원교 검사일행은 동면 주재소에서 동행한 뎐 중환 의사의 손으로 피해자의 시테해부를 맛치고 방금 피해자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중이엿섯다 사건의 내용은 경관의 고문으로 죽은 듯하다는 것은 업는 사실이라 하고 기실은 어대까지 운명의 손에 농락되는 인간의 옛말과 가튼 기괴한 사실이 감초여 잇다한다.

▶ 1926.2.25(4)12

흥동교 소인극성황



興東校素人劇盛況

(東部)

▶ 1926.8.20(4)

크로스와드 懸賞募集

讀者慰安 本報始興支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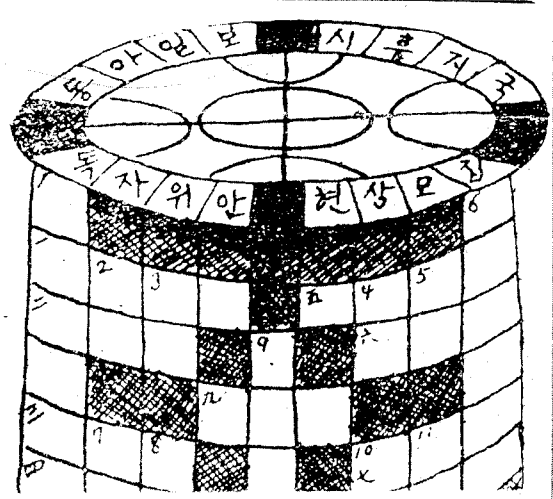
本報始興支局에서는本報讀者를慰安하기爲하여左記規定과갓치(懸賞)크로스와드를募集한다는데一般讀者들은만히應募하기를바란다더라(始興)

橫

一、立春日房門우나大門에붓치는글
二、國家에서功臣에게주는돈
三、學校에第一가는어른
四、兒孩들工夫하도록하는것
五、緻密하게測量한다는말
六、釜山附近에잇는驛名
七、百에열여섯을加한것
八、남의돈만짓는사람들이모인團體의名稱
九、學生의成績이좃타는말
十、漢水鹽浦에잇는私塾의名
十一、전긔를배운다는말
十二、新東面蓮安里에잇는私塾名
十三、十三道中의하나
十四、音樂을硏究하는사람
十五、가르켜준다는말
十六、發展한다는意味와갓흔會名
十七、軍浦場에잇는民間團體의名
十八、몹시기두린다는말
十九、現代朝鮮에서流行하는신思潮學校를積極的으로後援하는機關
二十、現代文學科學其他모든것을硏出하는機關
二十一、조사람이란말
二十二、京仁線中第一큰驛名
二十三、從事하여생활력는女性
二十四、病人치는法을배운다는말

縱

一、軍浦에잇는私立學校
二、無識한사람이라는말
三、돈을빌려준다는말
四、두양주란말
五、山을진다는말
六、慶尙南道에잇는郡名
七、백에16을가한것
八、남의논만짓는사람들이모인團體의일홈
九、학생의성적이천재갓다는말
十、구영등포에잇는사숙의명
十一、전기를배운다는말
十二、신동면잠실리에잇는사숙명
十三、13도중의하나
十四、음악을연구하는사람
十五、가르켜준다는말
十六、발전한다는의미와갓흔희명
十七、군포장에잇는민간단체의명
十八、몹시기두린다는말
十九、조선에서유행하는신



二十一、一人之下五萬人之上

賞品

一等一人十二圓
（本報一個年分購讀券）
二等一人六圓
（本報六個月分購讀券）
三等八人一圓
（本報一個月分購讀券各）

◇應募規定
一、本支局管內에居住者에限함
一、用紙는本報를使用하고封皮에本支局懸賞이라明記할事
一、締切은本月末日限
一、當選發表는本紙上으로함
一、當選者에는本紙上으로通知함
一、當選者에는賞品을本支局에서交付함
一、當選者에는賞品을本支局에서交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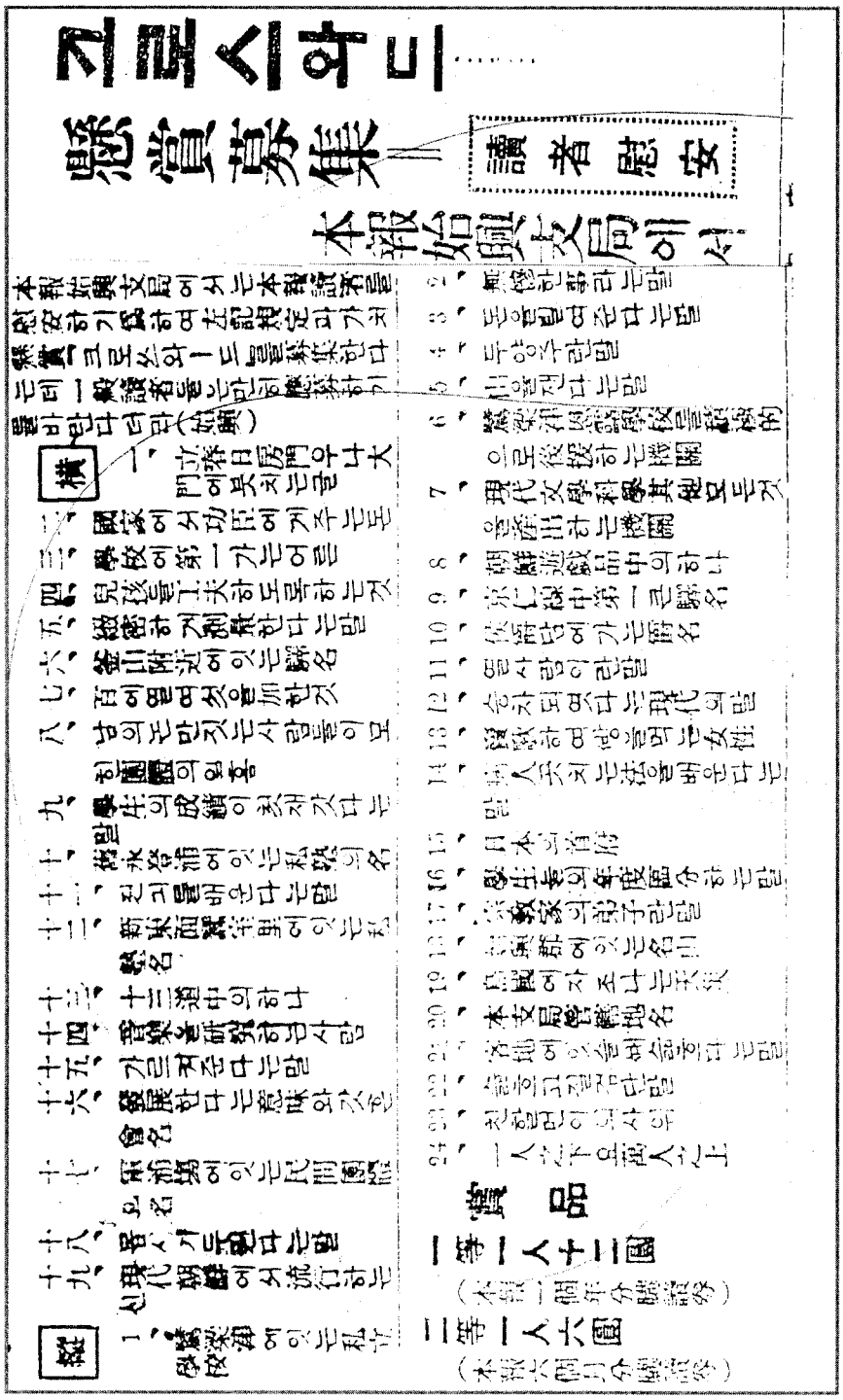
申請期日 本月末日
申請場所 東亞

크로스와드 현상모집

본보시흥지국에서
본보시흥지국에서는 본보독자를 위안하기 위하여 좌기규정과 갓치 현상크로스와드를 모집한다는데 일반독자들은 만히 응모하기를 바란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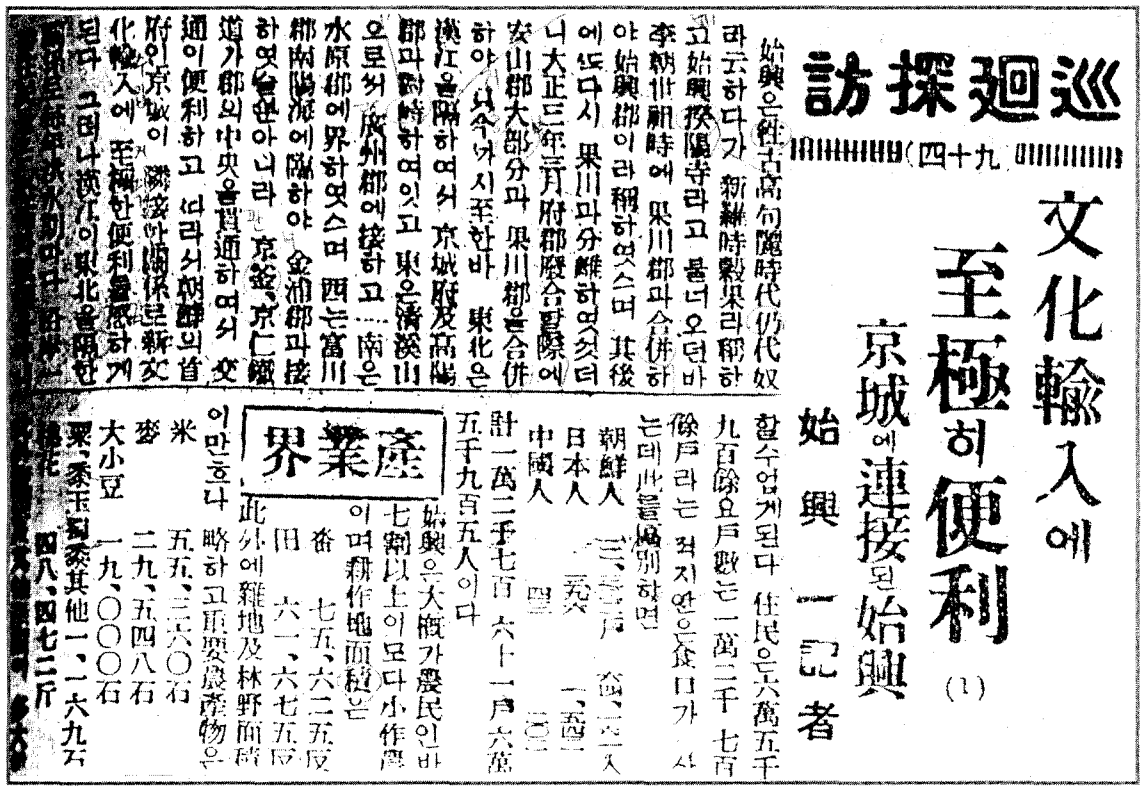
「횡」
1. 입춘일방문우나 대문에 부치는 글
2. 국가에서 공신에게 주는 돈
3. 학교에 제일 가는 어른
4. 이해들 공부하도록 하는 것
5. 치밀하게 측량한다는 말
6. 부산부근에 잇는 역명
7. 백에 16을 가한 것
8. 남의 논만짓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일흠
9. 학생의 성적이 천재 갓다는 말
10. 구 영등포에 있는 사숙의 명
11. 전기를 배운다는 말
12. 신동면 잠실리 에 있는 사숙명
13. 13도중의 하나
14. 음악을 연구 하는 사람
15. 가르켜 준다는 말
16. 발전한다는 의미와 갓흔 희명
17. 군포장에 있는 민간단체의 명
18. 몹시 가두런다는 말
19. 조선에서 유행하는 신

▶ 1926.8.22



「종」
1. 군포에 있는 사립학교
2. 무참한 사라는 말
3. 돈을 빌여준다는 말
4. 두양주란 말
5. 산을 진다는 말
6. 노량진 사로학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기관
7. 현대문학 과학기타 모든 것을 산출하는 기관
8. 조선 유희품 중의 하나
9. 경인선 중 제일 큰 역명
10. 후작담에가는작명
11. 10사람이 란말
12. 승차 되엿다는 현대의 말
13. 매가하여 빵을 먹는 여성
14. 병을 곳치는 법을 배운다는 말
15. 일본의 수부
16. 학생들의 연도 구분하는 말
17. 종교가의 제자란 말
18. 시흥군에 있는 명산
19. 도국에 자조 나는 천재
20. 본 지국관할지명
21. 객지에 있을때 슬프다는 말
22. 솔고 즐겁단 말
23. 친할먼이의 사위
24 일인지하요 만인지상

▶ 1926.10.3(4)1



巡廻採訪 (四十九)

文化輸入에 至極히 便利

京城에 連接된 始興 (1)

始興一記者

始興은 往古高句麗時代에 仍代奴라云하다가 新羅時에 穀果라 稱하고 始興郡으로 改稱하야 始興郡이라 稱하엿스며 其後에 또다시 果川과 分離하엿섯더니 大正三年三月府郡廢合實際에 安山郡大部分과 果川郡을 合併하야 以今에 至한바 東北은 漢江을 隔하여서 京城府及高陽郡과 對峙하여잇고 東은 清溪山으로서 廣州郡에 接하고 南은 水原郡에 界하엿스며 西는 富川郡 南陽에 隔하야 金浦郡과 接하엿을 뿐아니라 京釜, 京仁鐵道가 郡의 中央을 貫通하여서 交通이 便利하고 따라서 朝鮮의 首府인 京城이 隣接한 關係로 新文化輸入에 至極한 便利를 感하게 된다 그런데 漢江이 東北을 隔한 [illegible] 할수업게되다 住民은 六萬五千九百餘요戶數는 一萬二千 七百餘戶라는 적지안은 숫자이다 [illegible] 는데 此를 區別하면

朝鮮人 三、[illegible]戶 [illegible]、[illegible]人
日本人 三九六 一、四二一
中國人 四二 一三一
計 一萬二千七百 六十一戶 六萬五千九百五人이다

産業界

始興은 大概가 農民인바 七割以上이 모다 小作農이며 耕作地面積은

畓	七五、六二五反	
田	六一、六七五反	

此外에 雜地及林野面積은 略하고 重要農産物은

米 五五、三六〇石
麥 二九、五四八石
大小豆 一九、〇〇〇石
粟, 黍, 玉蜀黍其他 一、一六九石
棉花 四八、四七二斤

경성에 연접된 시흥 문화수입에 지극히 편리

시흥 일기자

시흥은 왕고 고구려시대 잉벌노라운하다가 신라시곡과라 칭하고 시흥규양사라고 불러 오던바 이조 세조시에 과천군과 합병하야 시흥군이라 칭하엿스며 그후에또다시 과천과 분리하엿섯더니 대정 3년3월 부군 폐합할제에 안산군 대부분과 과천군을 합병하야 지금까지 지한바 동북은 한강을 격하여서 경성부급 고양군과 대치하여잇고 동은 청계산으로써 광주군에 접하고 남은 수원군에 계하엿스며 서는 부천군 남양해에 임하여 김포군과 접하엿을 뿐 아니라 경부, 경인철도가 군의 중앙을 관통하여서 교통이 편리하고 따라서 조선의 수부인 경성이 인접한 관계로 신문화유입에 지극한 편리를 감하게 된다. 그러나 한강이 동북을 격한 관계로 매년 홍수기마다 연안 일대 주민들은 ■■와■■을 아니 할 수 업게된다. 주민은 6만5천 9백여요 호수는 일만 이천 칠백여호라는 적지안은 식구가 사는데 이를 구별하라면 조선인 삼천삼백삼십일호 육만사천백십육인 일본인 삼백구십육호 일천오백사십이인 중국인 사십삼호 이백이인 계 일만 이천칠백 육십일호 육만오천구백오인이다.

산업계

시흥은 대개가 농번인바 7할이상이 모다 소작농이며 경작면적은.....

▶ 1927.1.30(4)6

永登浦市區改正

◇不遠에實現될터

京畿道始興郡永登浦는京城과隣接한小都市로京仁、京釜線의交通이便利한關係上比較的速度로發展되는傾向이잇슴으로神尾郡守와有志金泰濮氏等의發起로繁榮會를組織하고市區改正、京電電車延長電話料引下運動等으로理想的都市郡第二京城을現出하기에努力中이던바其間同面에對한여러가지複雜한問題로써하여모든計劃이그만空想에歸하엿던바同面協議員金泰濮氏는同案을復活하여서純朝鮮人本位의大都市를만들고저數日前에自宅에來訪한藤田面長과長時間協議한後다시郡當局과交涉하여不遠에實現하도록猛烈히運動할터이라는바金泰濮氏는如左한말하더라

永登浦都市計劃事業으로市區改正을할터인데昨年에委員까지다選定되엿슨즉곳實現에着手하겟지요今年度豫算에編上할것은共同洗濯場、共同便所、屠獸場設置等이외다此는다朝鮮人을爲하는事業임으로斷然코今年度에實施하도록努力하겟슴니다今般高級日本書記採用도前年度豫算에超過치안케다는面長의聲明이잇스니外萬一超過한다하면高級日人書記는結局採用치못하게되겟지요(始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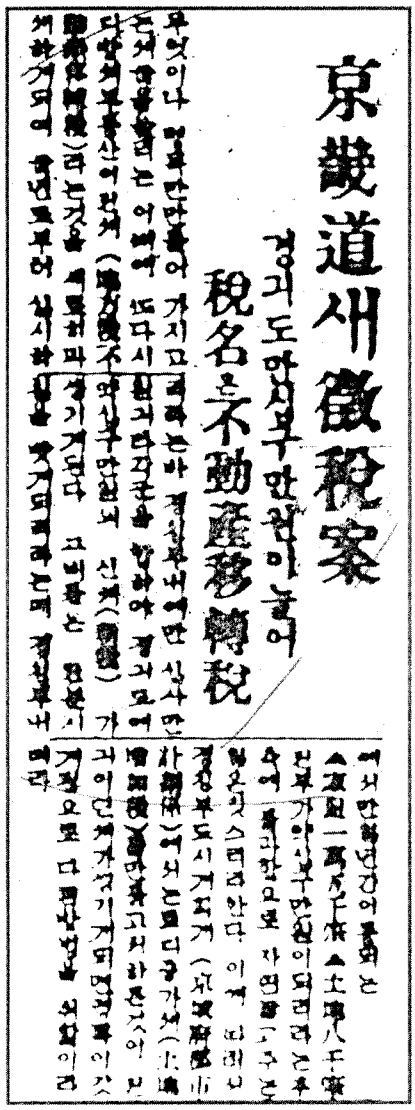
영등포시구개정

불원에 실현될터

(시흥)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는 경성과 연접된 소도시로 경인 경부선의 교통이 편리한 관계상 비교적속도로 발전되는 경향이 잇슴으로 신미 군수와 유지 김태집씨등의 발기로 번영회를 조직하고 시구개정 경전 전차 연장 전화료 인하운동 등으로 리상적 도시군 제이경성을 현출하기에 노력 중이던 바 기간동면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모든 계획이 그만 공상에 귀하였던 바 동면협의원 김태집씨는 동안을 복구하여서 순조선인 본위의 대도시를 만들고저 수일전에 자택에 래방한 등전면장과 장시간 협의한 후 다시 군 당국과 교섭하여 불원에 실현하도록 맹렬히 운동할 터이라는 바 김태집씨는 여좌한말하더라

영등포 도시계획 첫 사업으로는 시구개정을 할 터인데 작년에 위원까지 다 선정되엿슨 즉 곧 실현에 착수 하겟지요 금년도 예산에 편상할 것은 공동세척장 공동변소 도수장설치등이외 다 차는 다조선인을 위하는 사업 임으로 단연코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겟슴니다 금반고급 일본서기 채용도 전년도 예산에 초과하지 않겠다는 면장의 성명이 잇스니까 만일 초과 한다하면 고급일인서기는 결국 채용치 못하게되겟지요. (시흥)

▶ 1927.2.15



京畿道새徵稅案

경기도만십구만원이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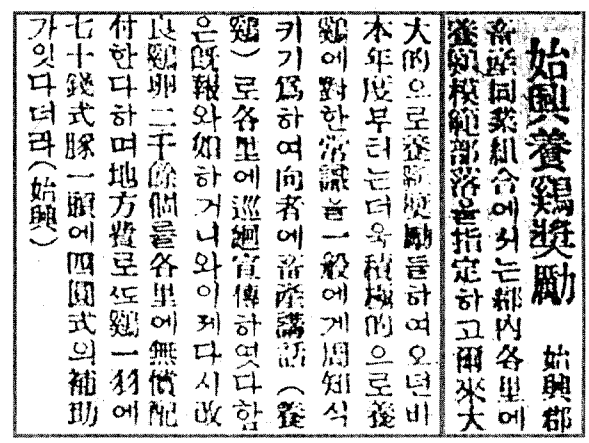
稅名은不動産移轉稅

경기도 새 징세안

경기도만 19만원이 늘어 세명은 부동산 이전세

무엇이나 명목만 만들어 가지고는 세금을 늘리는 이때에 또다시 지방세 부동산이전세라는 것을 새로이 과세하게 되어 금년도부터 실시하리라는 바 경성부내에만 14만원 기타 각 군을 합하여 경기도 에 약 19만원의 신세가 생기게 된다. 그 비율은 천분지칠을 밧게 되리라는데 경성부내에서만 일년간 이동되는 가세 1만5천원 토지 8천원 전부가 약 19만원이 되리라는 추측에 불과함으로 자연 늘고 주는 일은 잇스리라 한다. 이에 따라서 경성부 도시계획게에서는 토지증가세를 만들고자 하든 것이 전기이전세가 생기게 되면 명목이 갓게됨으로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더라 .

▶ 1927.3.3(4)



始興養鷄奬勵

始興郡

시흥양계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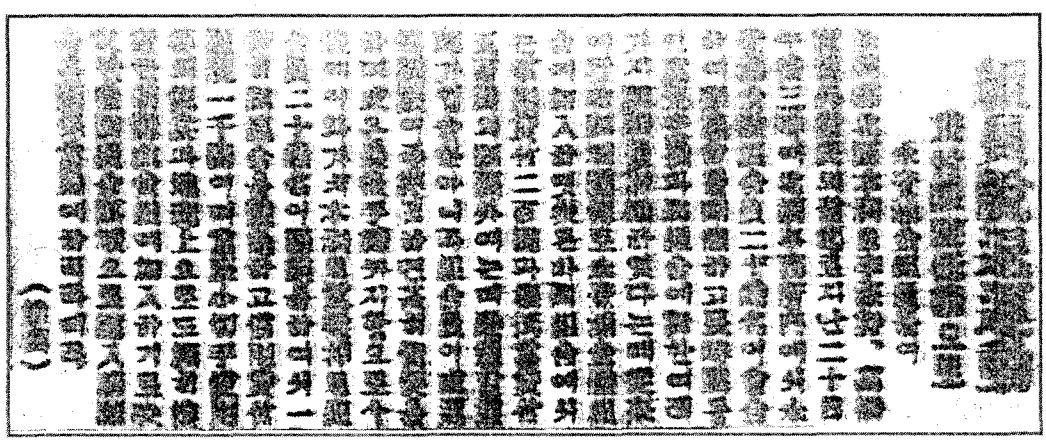
시흥군 축산동업 조합에서는 군내 각리에 양계 모범부락을 지정하고 대적으로 양계장려를 하여 오던 바 본 년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양계에 대한 상식을 일반에게 주지식키기 위하여 향자에 축산강화로 각리에 순회선전하엿다함은 기보와 여하거니와 이제 다시 개량계란 2천여개를 각리에 무상 배부한다하며 지방비로 또 계일우에 70전식 돈일두에 4원식의 보조가잇다더라. (시흥)

▶ 1927.3.5(4)5

잠구 진사 강습

시흥군에서는 농가부업중의 하나인 양잠을 장려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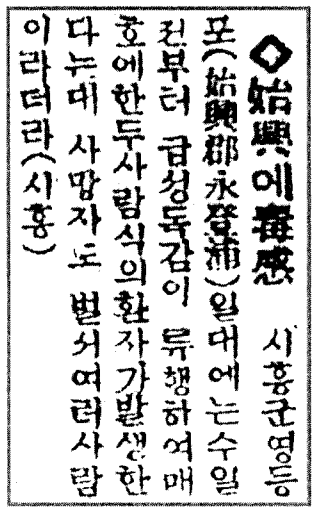
▶ 1927.3.24(4)1



조원 탈퇴운동

1927.3.28(2)9
시흥에 독감
(시흥)시흥군 영등포 일대에는 수 일전부터 급성 독감이 류행하여 매호에 한두 사람식의 환자가 발생한다는대 사망자도 벌서 여러 사람 이라더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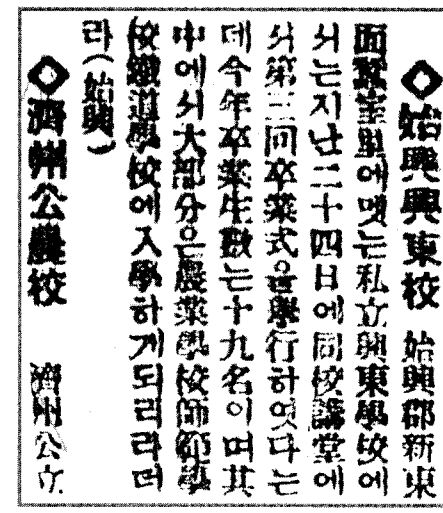
▶ 1927.3.28



◇始興에 毒感 시흥군영등포(始興郡永登浦)일대에는수일전부터 급성독감이 류행하여매호에한두사람식의환자가발생한다는데 사망자도 벌서여러사람이라더라(시흥)

시흥에 독감

▶ 1927.3.3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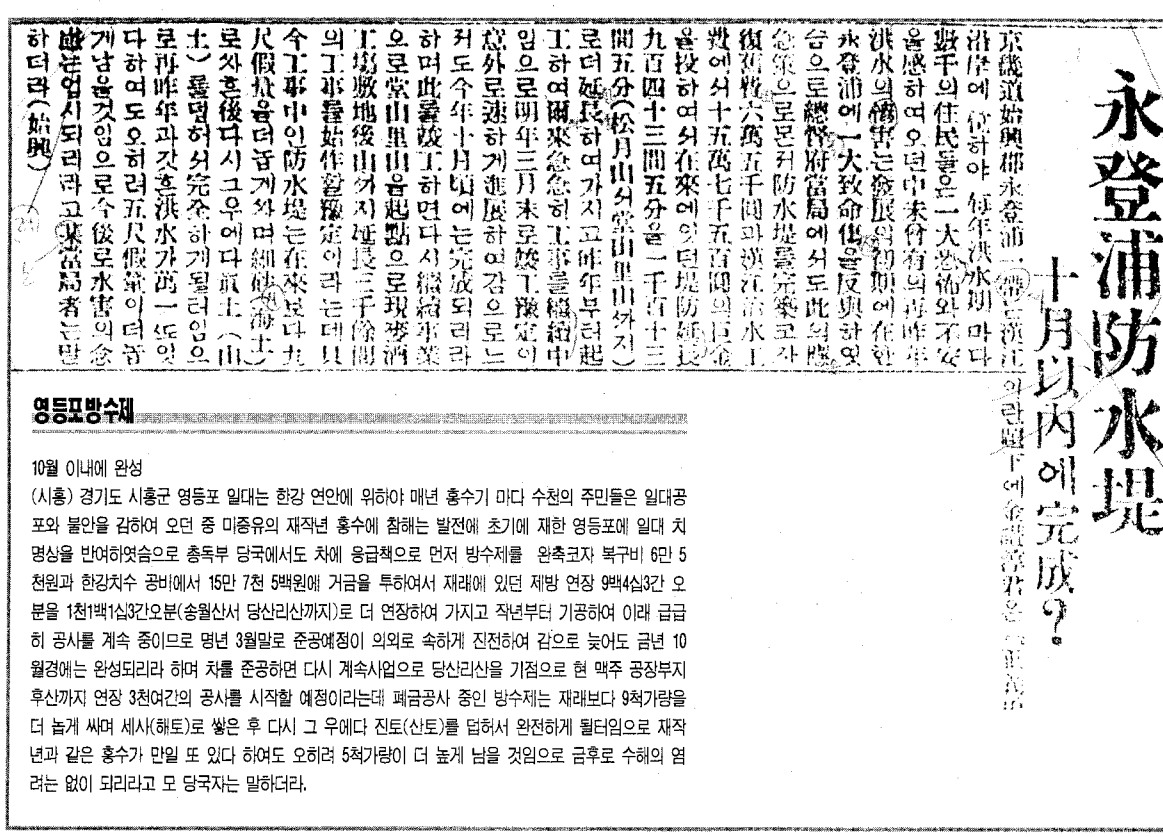
◇始興興東校 始興郡新東面衿牛里에멧는私立興東學校에서는지난二十四日에同校講堂에서第三回卒業式을擧行하엿다는데今年卒業生數는十九名이며其中에서大部分은農業學校師範學校鐵道學校에入學하게되리라더라(始興)

◇漢州公農校 漢州公立

시흥흥동교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에 멧는 사립흥동학교에서는 지난 24일에 동교 강당에서 제3회 졸업식을 거행하엿다는데 금년 졸업생수는 19명이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농업학교 사범학교 철도학교에 입학하게 되리라더라.

▶ 1927.4.4(4)



永登浦防水堤

十月以內에完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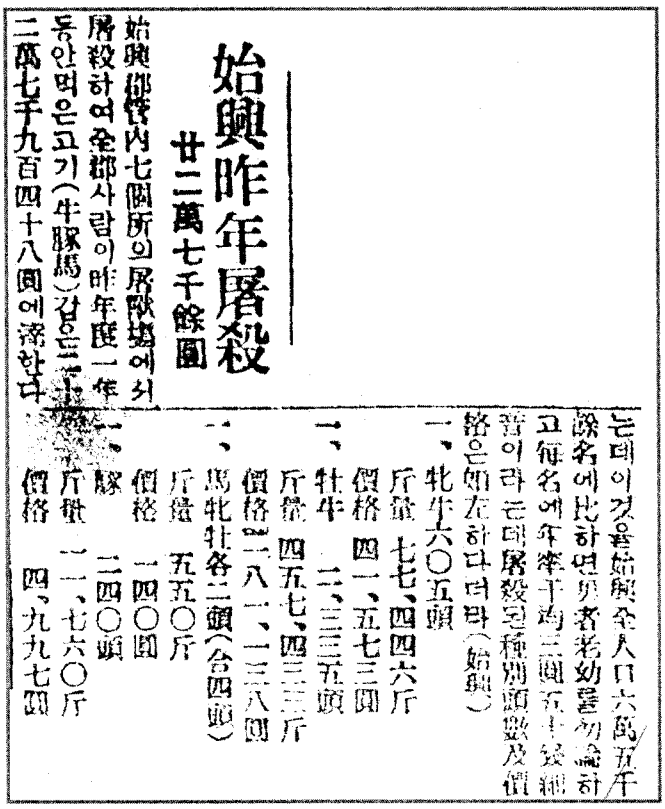
京畿道始興郡永登浦一帶는漢江의沿岸에位하야每年洪水期마다數千의住民들은一大恐怖와不安을感하여오던中今年에再昨年洪水의慘害는發展의初期에在한永登浦에一大致命傷을與하엿음으로總督府當局에서도此의應急策으로본커防水堤를完築코자復舊費六萬五千圓과漢江治水工費에서十五萬七千五百圓의巨金을投하여서在來에잇던堤防延長九百四十三間五分(松月山서부터山里山까지)로더延長하여가지고昨年부터起工하여爾來急急히工事를繼續中임으로明年三月末로竣工豫定이라도今年十月頃에는完成되리라하며此暑竣工하면다시繼續事業으로當山里山을起點으로現永洞工場敷地後山까지延長三千餘間의工事를始作할豫定이라는데只今工事中인防水堤는在來보다九尺假量을더높게하며細砂(海土)로써흐後다시그우에다眞土(山土)를덮어서完全하게될터임으로再昨年과갓흔洪水가萬一또잇다하여도오히려五尺假量이더높게남을것임으로今後로水害의念慮는업시되리라고當局者는말하더라(始興)

영등포방수제

10월 이내에 완성

(시흥)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 일대는 한강 연안에 위하야 매년 홍수기 마다 수천의 주민들은 일대공포와 불안을 감하여 오던 중 미증유의 재작년 홍수에 참해는 발전에 초기에 재한 영등포에 일대 치명상을 반여하엿슴으로 총독부 당국에서도 차에 응급책으로 먼저 방수제를 완축코자 복구비 6만 5천원과 한강치수 공비에서 15만 7천 5백원에 거금을 투하여서 재래에 있던 제방 연장 9백4십3간 오분을 1천1백1십3간오분(송월산서 당산리산까지)로 더 연장하여 가지고 작년부터 기공하여 이래 급급히 공사를 계속 중이므로 명년 3월말로 준공예정이 의외로 속하게 진전하여 감으로 늦어도 금년 10월경에는 완성되리라 하며 차를 준공하면 다시 계속사업으로 당산리산을 기점으로 현 맥주 공장부지 후산까지 연장 3천여간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데 폐금공사 중인 방수제는 재래보다 9척가량을 더 높게 싸며 세사(해토)로 쌓은 후 다시 그 우에다 진토(산토)를 덥허서 완전하게 될터임으로 재작년과 같은 홍수가 만일 또 있다 하여도 오히려 5척가량이 더 높게 남을 것임으로 금후로 수해의 염려는 없이 되리라고 모 당국자는 말하더라.

▶ 1927.4.19(4)5



始興昨年屠殺

廿二萬七千餘圓

始興郡管內七個所의屠獸場에서屠殺하여全郡사람이昨年度一年동안먹은고기(牛豚馬)값은二十二萬七千九百四十八圓에達한다는데이것을始興全人口六萬五千餘名에比하면男者老幼를勿論하고每名에年率平均三圓五十錢씩普이라는데屠殺된種別頭數及價格은如左하다더라(始興)

一、牝牛六〇五頭
斤量 七七、四四六斤
價格 四一、五七三圓

一、牡牛 二、三三五頭
斤量 四五七、四三三斤
價格二八一、一三八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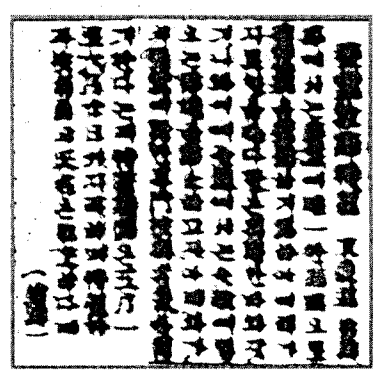
一、馬牝牡各二頭(合四頭)
斤量 五五〇斤
價格 一四〇圓

一、豚 二四〇頭
斤量 一一、七六〇斤
價格 四、九九七四

시흥작년 도살 2십2만7천여원

(시흥) 시흥군 관내 7개소의 도수장에서 도살하여 전 군사람이 작년도일년 동안 먹은 고기 (우돈마)갑은 2십2만7천9백4십원에 달한다는데 이것을 시흥 전 인구 6만5천여명에 비하면 남자노유를 물론하고 매명에 연율 평균 3원5십전 세음이라는데 도살된 종별두수급 가격은 여좌하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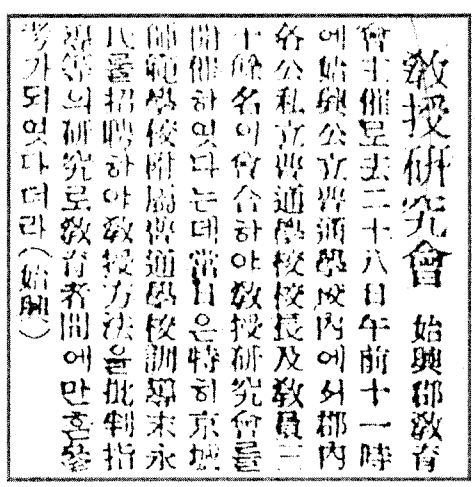
▶ 1927.5.28(4)5



始興産業講習

京畿道 始興郡에서는 産業奬勵와 文化啓發을 目的으로 各面有志數千餘名을 召集하여 지난 二十四日부터 二十七日까지 四日間武德館에서 産業講習會를 開催하고 神尾郡守以下 各郡係局과 道講師의 實際有利한 ■話等의 大盛況으로 지난 二十七日 午後二時에 完了하였다더라(始興)

▶ 1927.6.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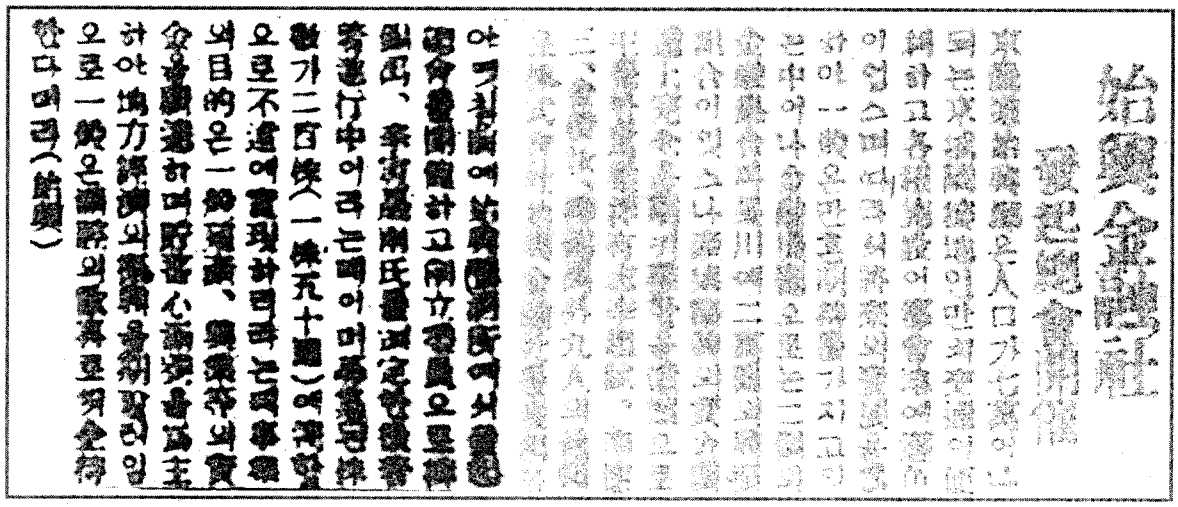


敎授研究會 始興郡敎育會主催로 去二十八日午前十一時에 始興公立普通學校內에서 郡內各公私立普通學校校長及敎員二十餘名이 會合하야 敎授研究會를 開催하였다는데 當日은 特히 京城師範學校附屬普通學校訓導 宋永吉氏를 招聘하야 敎授方法을 批判指導의 研究로 敎育者間에 만흔 參考가 되엿다더라(始興)

교수연구회

(시흥) 시흥군 교육회 주최로 거28일 오전11시에 시흥 공립보통학교내에서 군내 각 공사립보통학교 교장급 교원 3십여명이 회합하야 교수연구회를 개최하엿다는데 당일은 특히 경성사범학교부속 보통학교 훈도 말영씨를 초빙하야 교수방법을 비판지도 등의 연구로 교육자간에 만흔 참고가 되엿다더라

▶ 1927.6.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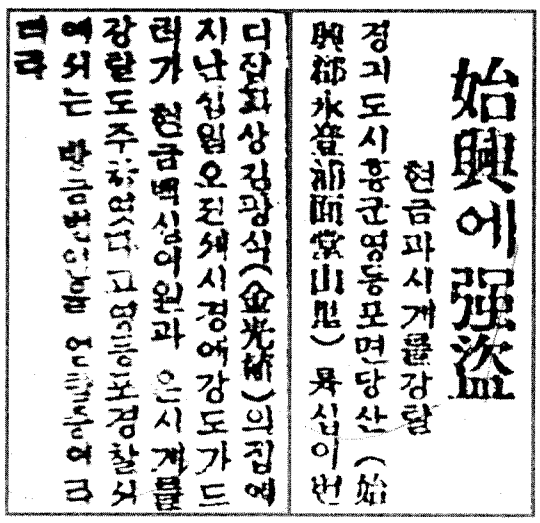


始興金融社
發起總會開催

시흥 금융사 발기총회개최

경기도 시흥군은 인구가 7만이나되는 경성인접지인 만치 교통이 편리하고.....

▶ 1927.6.15(2)9



始興에 强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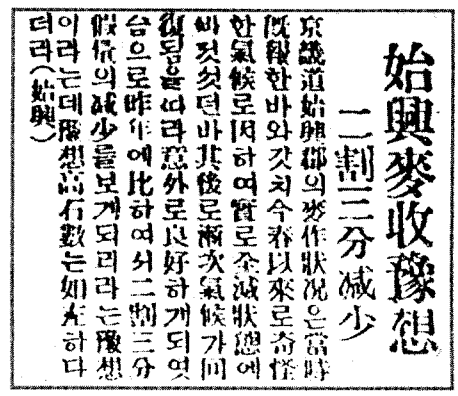
현금과시계를강탈

경기도시흥군영등포면당산 (始興郡永登浦面堂山里) 묘십이번

시흥에 강도

현금과 시계를 강탈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당산리 2번지 잡화상 김광식의 집에 지난 십일오전 세시 경에 강도가 드러 현금 112원과 은시계를 강탈 도주하엿다고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방금 범인을 염탐중이라더라.

▶ 1927.6.24(4)7



始興麥收豫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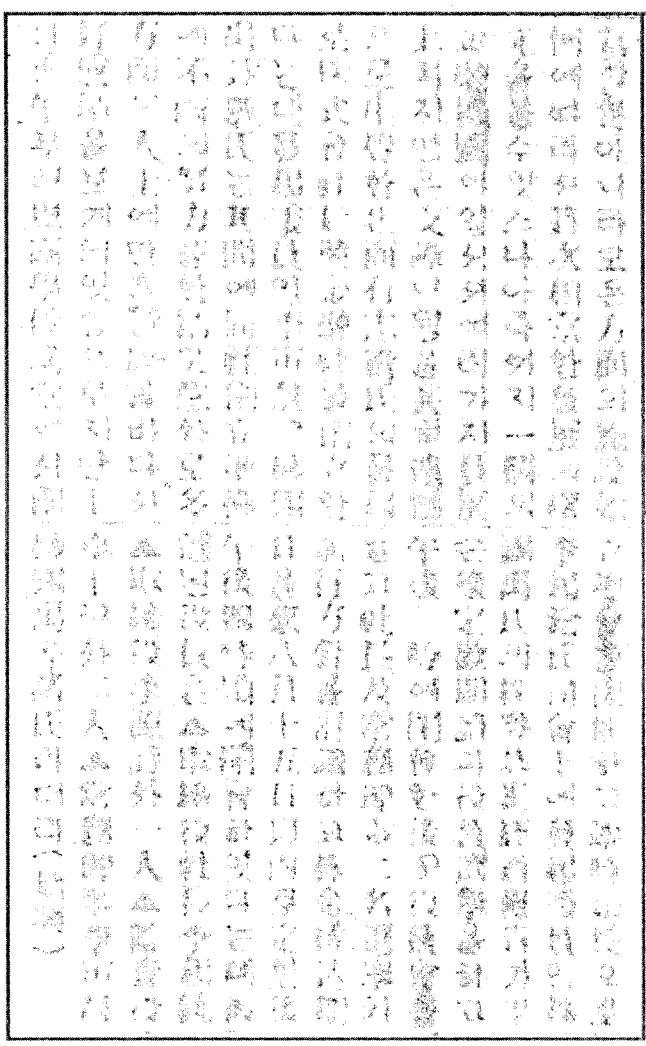
二割三分減少

시흥 맥수예상 2할3분 감소

(시흥) 경기도 시흥군의 맥작상황은 당시 기보한바와 갓치 금춘 이래로 기괴한 기후로 인하여 실로 전감상태에 빠젓던바 그후로 점차 기후가 회복됨을 따라 의외로 양호하게 되엿슴으로 작년에 비하여서 2할3분가량의 감소를 보게되리라는 예상이라는데 상상고석수는 여좌하다더라.

대맥 19,603석 소맥2,255석

▶ 1927.7.12(4)2



始興金融社創立

既報ニ京畿初始ノ株式組織ニ而設立ノ運ニ向ヒ居タル始興金融社ニ於テハ一般株主ノ熱望ニ應ジ

시흥금융사 창립

▶ 1927.8.14(4)5

始興支局主催
納涼活寫公開
二日間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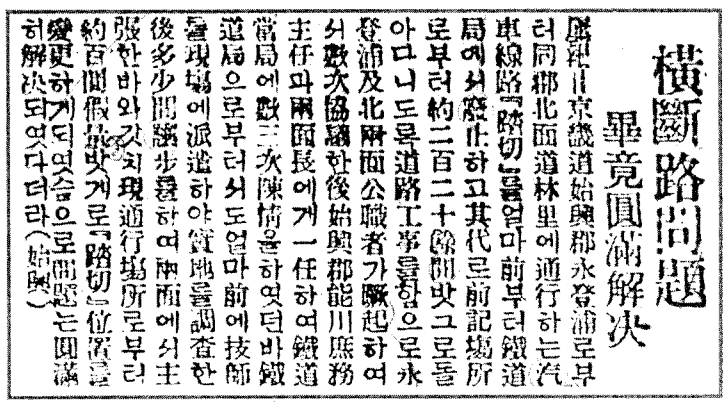
既報ニ本報始興支局主催ノ暴暑ト支離滅裂ノ霖雨ニ悩ミ倦ミ給ヘル愛讀者ト一般人士ヲ慰安スル爲メ納涼活動寫眞大會ヲ開催シ朝鮮映畫ヲ去八日ヨリ三日間毎夜八時ヨリ恩露學校大講堂ニ於テ上映スル事ハ既報セシ通リ豫定ノ如ク去八日ヨリ三日間空前ノ大盛況ヲ呈シ本支局ニ於テハ一般ノ熱望ト企待ニ應ジ二日間延期シ十二日ヨリ十三日迄特ニ無料ニテ上映スル筈ナリト雖モ場内整理ノ爲メ十錢均一ノ入場料ヲ徴収スルノ已ムナキニ至レリ(始興)

始興支局主催
納涼活寫公開

二日間延期

既報 - 本報始興支局主催로 暴暑와 支離한 霖雨에 시달닌 愛讀者와 一般人士를 慰安코저 納涼活動寫眞大會를 開催하고 朝鮮映畵를 去八日로부터 三一間 恩露學校 大講堂에서 上映한다함은 既報하였거니와 豫定대로 지난 八日로부터 三一間 空前의 大盛況을 이루게 되엿슴으로 本支局에서는 一般의 熱望과 企待에 가應코저 二日間을 延期하야 十二日부터 十三日까지는 特히 無料로 上映할 터이라는데 場內整理를 爲하여 十錢均一의 入場料를 밧는다더라(始興)

▶ 1927.9.24(4)4



橫斷路問題
畢竟圓滿解決

屬花川京畿道始興郡永登浦로부터同郡北面道林里에通行하는汽車線路「踏切」를얼마前부터鐵道局에서廢止하고其代로前記場所로부터約二百二十餘間밧그로돌아다니도록道路工事를함으로永登浦及北面公職者가協議한後始興郡龍川廳務主任과兩面長에게一任하여鐵道當局에數三次陳情을하엿던바鐵道局으로부터시도얼마前에技師를現場에派遣하야實地를調査한後多少間步를하여兩面에서主張한바와갓치現通行場所로부터約百個假量밧게로「踏切」位置를變更하게되엿슴으로問題는圓滿히解決되엿다더라(始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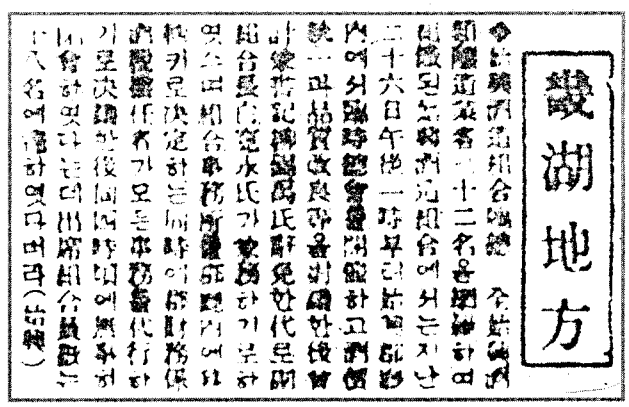
횡단로 문제, 필경 원만 해결

(시흥) 속보=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로부터 동군 북면 도림리에 통행하는 기차선로(답절)를 얼마전부터 철도국에서 폐지하고 기대로 전기장소로부터 약 2백2십여 간 밧그로 돌아다니도록 도로공사를 함으로 영등포급북양면공직자가 궐기하여서 수차 협의한 후 시흥군 능천 서무주임과 양면장에게 일임하여 철도당국에 수삼차 진정을 하였던 바 철도국으로부터서도 얼마 전에 기사를 현장에 파견하야 실지를 조사한 후 다소간의 양보를 하여 양면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현 통행장소로부터 약 백간가량 밧그로(답절)위치를 변경하게 되였음으로 문제는 원만히 해결 되였다더라.

시흥주류종합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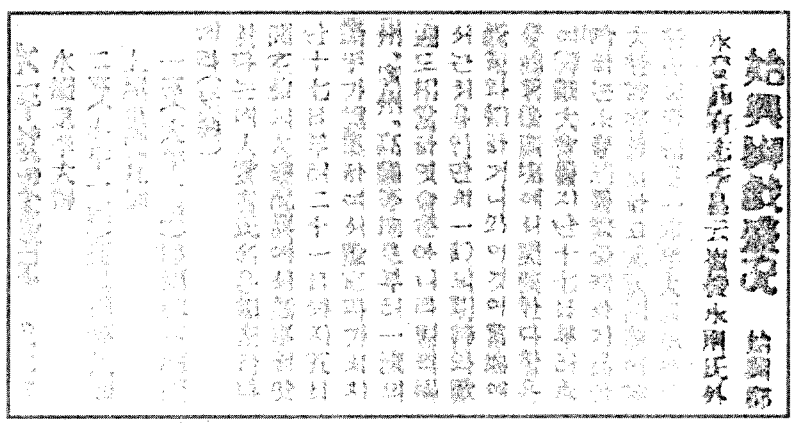
전시흥주류양조업계 32명을 결속하여 조직된 시흥 주류조합에서는 지난 26일 오후1시부터 시흥군청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주가통일과 품질개량등을 토론한 후 회계겸서기 유석우씨 사면한 대로 부조합장 백관영씨가 병무하기로 하엿스며, 조합사무소를 군청내에 이전키로 결정하는 동시에 군재무계 주세담임자가 모든사무를 대행하기로 결의한후 동 4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는데 출석 조합원수는 18명에 달하엿다더라.

▶ 1927.9.24



雙湖地方

▶ 1927.9.24



始興郡

시흥 각희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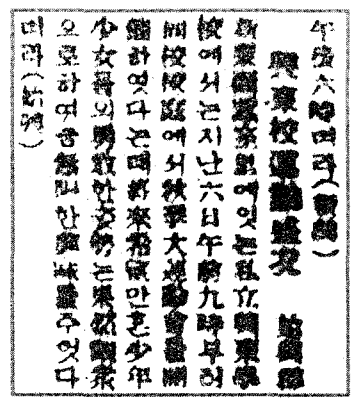
▶ 1927.10.8(4)9

기호지방

당산청년회관신축

(시흥) 시흥군 영등포면 당산리 유지 김종혁, 홍경용, 최문엽, 강귀남, 김형태 외 수씨에 발기로 얼마전 당산 청년대를 조직하고 동회무진전에 부단의 노력을 하여온 결과로 다액의 경비를 투하여서 동회관을 신축하고 따라서 전당산 구락부에서 경영하던 노동야학까지 인계하여 경영하는 중이라는데 대원은 80여명에 달한다더라.

▶ 1927.10.1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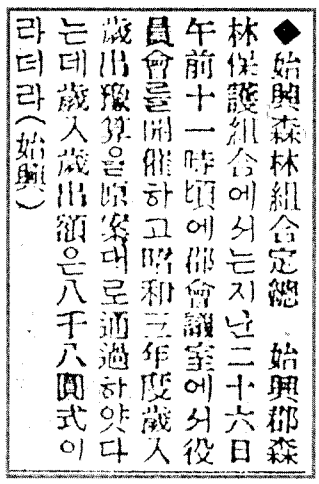
시흥 흥동교 운동성황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에 잇는 사립흥동학교에서는 지난 6일 오전9시부터 동교교정에서 추계대운동회을 개최하엿다는데 장래 꿈만흔 소년소녀들의 용감한 자세는.....

▶ 1927.11.17(4)5

수도다수획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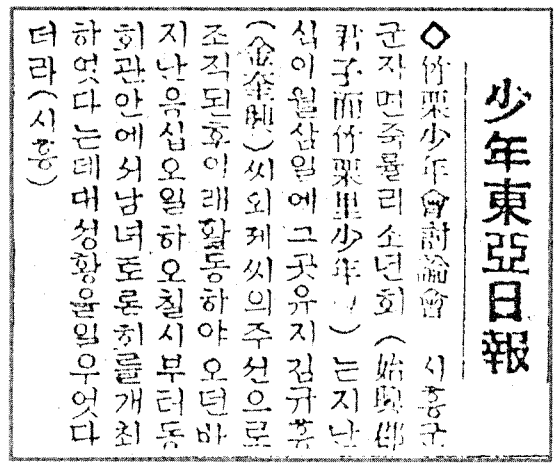
▶ 1928.1.31(4)6


◆始興森林組合定總 始興郡森林保護組合에서는지난二十六日午前十一時頃에郡會議室에서役員會를開催하고昭和三年度歲入歲出豫算을原案대로通過하얏다는데歲入歲出額은八千八圓式이라더라(始興)

시흥 삼림 조합 정총

(시흥) 시흥군 삼림보호조합에서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경에 군 회의실에서 역원회를 개최하고 소화 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얏다는데 세입세출은 8천8원식 이라더라.

▶ 1928.2.17(3)5


少年東亞日報

◇竹栗少年會討論會 시흥군군자면죽율리소년회(始興郡君子面竹栗里少年會)는지난십이월삼일에그곳유지김규홍(金奎弘)씨외제씨의주선으로조직된후이래활동하야오던바지난음십오일하오칠시부터동회관안에서남녀토론회를개최하엇다는데대성황을일우엇다더라(시흥)

죽율 소년회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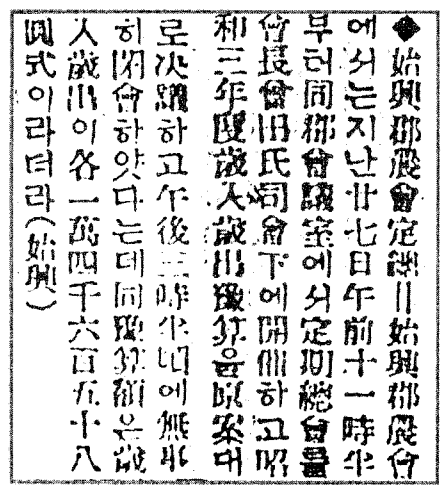
(시흥) 군자면 죽율리 소년회 (시흥군 군자면 죽율리소년회)는 지난 12월3일에 그곳 유지 김규홍씨외 제씨의 주선으로 조직된 후 이래 활동하야 오던 바 지난 음15일하오7시부터 동회관안에서 남녀토론회를 개최하엿다는데 대성황을 이루엇다더라.

▶ 1928.3.2(4)16

시흥군 축산동조정총

시흥군 축산동업조합에서는 거월 27일 오후3시40분부터 동군회의실내서 증전씨사회하에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소화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결의한 후 동5시반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는데 동예산액은 세입세출 각 5천6백4십6원씩이라더라.

▶ 1928.3.2(4)4


◆始興郡農會定總∥始興郡農會에서는지난廿七日午前十一時半부터同郡會議室에서定期總會를會長會田氏司會下에開催하고昭和三年度歲入歲出豫算을原案대로決議하고午後二時半頃에無事히閉會하얏다는데同豫算額은歲入歲出이各一萬四千六百五十八圓式이라더라(始興)

시흥군 농회 정총

(시흥) 시흥군 농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30부터 동군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회장 증전씨 사회 하에 개최하고 소화 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결의하고 오후 3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엿다는데 동예산액은 세입세출이 각1만4천6백5십8원식 이라더라.

▶ 1928.3.3(4)7

金組對組合員
配當問題로 葛藤

始興郡永登浦金融組合에서는金組對組合員間에一大問題가勃發해서去月二十七日에同組合會議室에서役員會를開催하고長時間討議한結果左記와如히決議하얏다는데그內容을듯건대同組合에서積立金外지출附한金額中不當히附로廻收할希望이업는總額一萬二千圓을道의方針에依하야서全部決損處分을하고今年度中純益金七千餘圓으로充用하고今年中에는利益配當을안켓다고永井理事가主張한다하야一般組合員들은組合의過失로不當貸附를하야서決損된것을一般貧窮한組合員에配當될利益으로充用한다함은容認할수업다하야그와가티輿論이沸騰타는데萬一組合員側의要求를不應하는時에는役員의總辭職은勿論이고組合員의脫退外지잇스리라더라(始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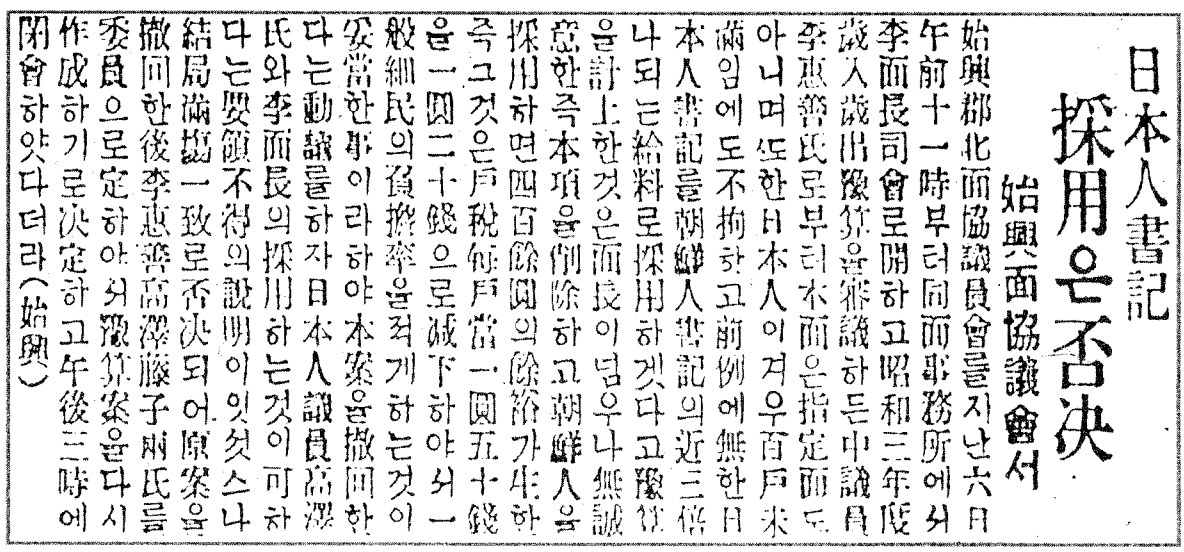
決

금조대조합원

배당문제로 갈등

시흥군 영등포 금융조합에서는 금조대 조합원간에 일대문제가 발발해서 거월27일에 동조합회의실에서 역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토의 한 결과 좌기와 여히 결의하였다는데 그 내용을 듣건대 동조합에서 지금까지 대부한 금액 중 부당대부로 회수할 희망이 없는 총액 1만2천원을 도의 방침에 의하여서 전부 결손처분을 하고 금년도중 순익금 칠천여원으로 충용하고 금년중에는 이익배당을 안켓다고 영정이사가 주장한다하야 일반 조합원들은 조합에 과실로 부당대부를 하여서 결손된 것을 일반 빈곤한 조합원에 배당될 이익으로 충용한다 함은 용인할수 없다하야 그와가티 여론이 비등타는데 만일 조합 원측의 요구를 불응하는 시에는 역원의 총사직은 물론이고 조합원의 탈퇴까지 있으리라더라 (시흥)

▶ 1928.3.9(4)4



日本人書記
採用은否決

始興面協議會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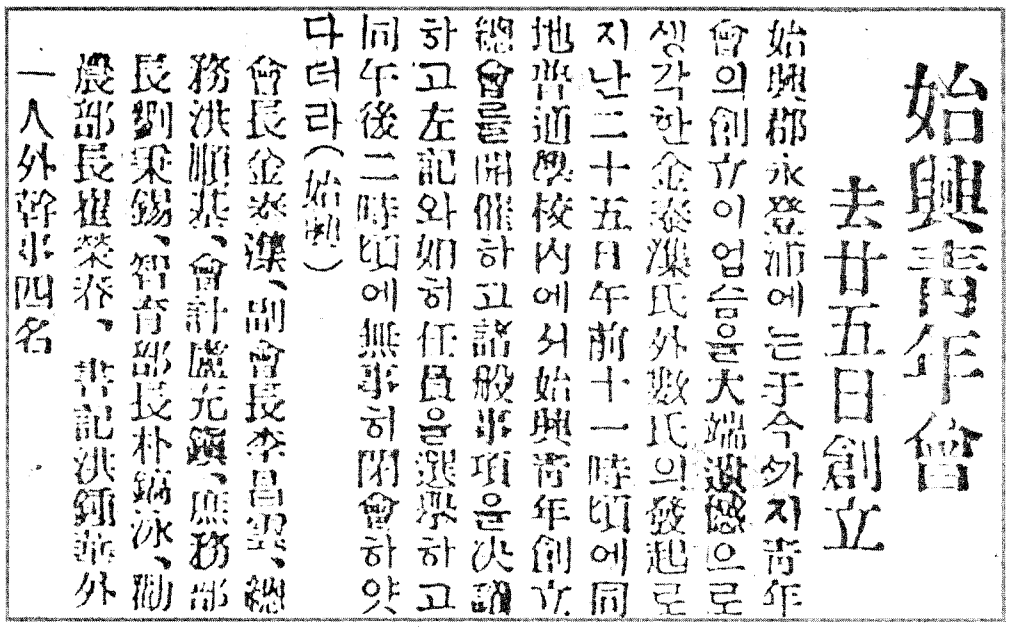
始興郡北面協議員會를지난六日午前十一時부터同面事務所에서李面長司會로開하고昭和三年度歲入歲出豫算을審議하든中議員李惠善氏로부터本面은指定面도아니며또한日本人이겨우百戶未滿임에도不拘하고前例에無한日本人書記를朝鮮人書記의近三倍나되는給料로採用하겠다고豫算을計上한것은面長이넘우나無誠意한즉本項을削除하고朝鮮人을採用하면四百餘圓의餘裕가生하즉그것은戶稅每戶當一圓五十錢을一圓二十錢으로減下하야서一般細民의負擔率을적게하는것이妥當한事이라하야本案을撤回한다는動議를하자日本人議員高澤氏와李面長의採用하는것이可하다는뜻領不得의說明이잇섯스나結局滿場一致로否決되어原案을撤回한後李惠善高澤藤子兩氏를委員으로定하야서豫算案을다시作成하기로決定하고午後三時에閉會하얏다더라(始興)

일본인서기 채용은 부결

시흥면 협의회서

(시흥) 시흥군 북면 협의원회를 지난 육일 오전10시부터 동면사무소에서 이면장 사회로 개하고 소화 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던 중 의원 이혜선씨로부터 본면은 지정면도 아니며 또한 일본인이 겨우 백호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무한 일본인서기를 조선인서기의 근 삼배나 되는 급료로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계산한 것은 면장이 넘우 무성의한즉 본항을 삭제하고 조선인을 채용하면 4백여원의 여유가 생한 즉 그것은 호세 매호당 1원5십전을 1원2십전으로 감하여서 일반 세민의 부담율을 적게 하는 것이 타당한 사이라 하여 본 안을 철회한다는 동의를 하자 일본의원 고택씨와 이면장의 채용하는 것이 가하다는 요령부득의 설명이 잇섯스나 결국만장 일치로 부결되어 원안을 철회한후 이혜선 고택동자 양씨를 위원으로 정하여서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동년 오후 3시에 폐회하였다더라.

▶ 1928.3.29(4)3



始興靑年會
去廿五日創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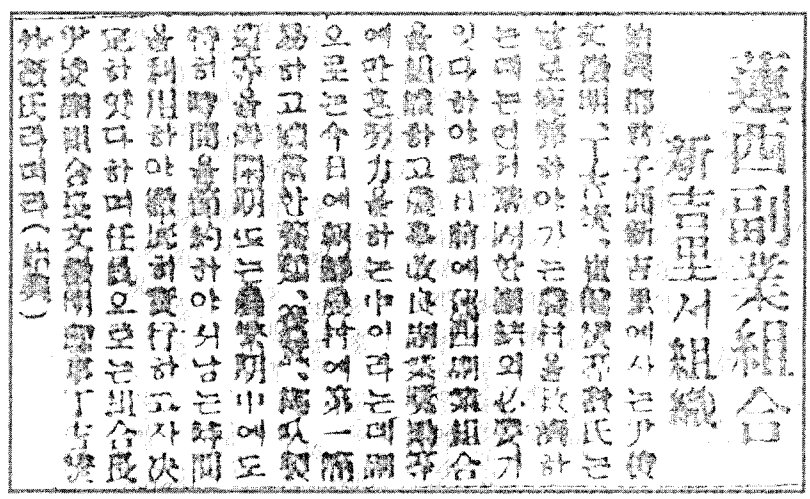
始興郡永登洞에는于今外지靑年會의創立이업슴을大端遺憾으로생각한金泰燁氏外數氏의發起로지난二十五日午前十一時頃에同地普通學校內에서始興靑年創立總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決議하고左記와如히任員을選擧하고同午後二時頃에無事히閉會하얏다더라(始興)

會長金泰燁、副會長李昌翼、總務洪順基、會計盧元鎭、庶務部長劉東錫、智育部長朴鎬冰、勸農部長崔榮祚、書記洪鍾諤外一人外幹事四名

시흥청년회 거 25일 창립

(시흥) 시흥군 영등포에는 우금까지 청년회의 창립이 업슴을 대단유감으로 생각한 김태집씨외 수씨의 발기로 지난 25일 오전11시경에 동지 보통학교 내에서 시흥청소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좌기와 여히 임원을 선거하고 동 오후 2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더라. 회장 김태집 부회장 이창운 총무 홍순기 회계 노윤진 서무부장 유병선 지육부장 박호영 권농부장 최영춘 서기 홍종화 외 1인 간사4명 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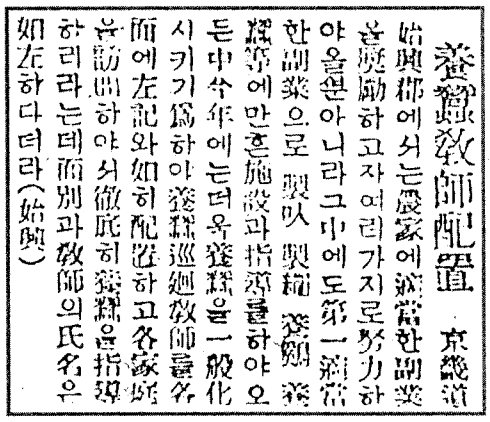
▶ 1928.4.10(4)8



연서부업 조합

신길리서 조직

▶ 1928.4.2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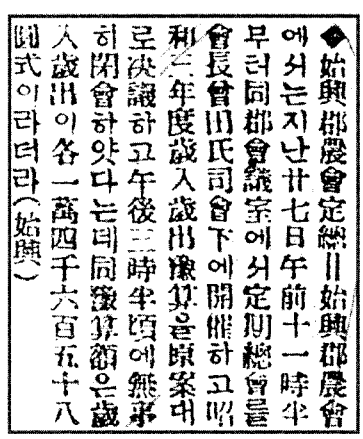
養蠶敎師配置 京畿道

始興郡에서는農家에適當한副業을奬勵하고자여러가지로努力하야옴은아니라그中에도第一適當한副業으로 製糸 養蠶等에만흔施設과指導를하야오든中今年에는더욱養蠶을一般化시키기爲하야養蠶巡廻敎師를各面에左記와如히配置하고各家庭을訪問하야徹底히養蠶을指導하리라는데面別과敎師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始興)

양잠교사배치

(시흥)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농가에 적당한 부업을 장려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야 올 뿐 아니라 그 중에도 제일 적당한 부업으로 제팔 제견 양계 양잠 등 에 만흔 시설과 지도를 하야오던 중 금년에는 더욱 양잠을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양잠순회교사를 각 면에 좌기와 여히 배치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야서 철저히 양잠을 지도하리라는 데 면별과 교사의 씨명은 여좌하다더라.

▶ 1928.4.25(4)10



◆始興郡農會定總=始興郡農會에서는지난廿七日午前十一時半부터同郡會議室에서定期總會를會長曾田氏司會下에開催하고昭和二年度歲入歲出豫算을原案대로決議하고午後三時半頃에無事히閉會하얏다는데同豫算額은歲入歲出이各一萬四千六百五十八圓式이라더라(始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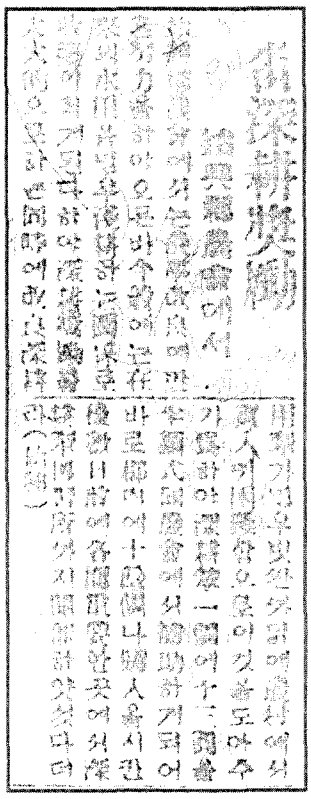
시흥군농회정총

독농가등표창

(시흥) 시흥군에서는 지난 이십일 오전 10시에 증전군수로부터 군내 독농가급 모범정농자평등의 표창식을 거행하얏다는데 상품은 경기도 농회로부터 수여된 것이라 하며 표창을 바든 사람은 여좌하다더라.

- 독농가 남면 당정리 양재찬
- 정농청년 동면 봉천리 이정한
- 우량면 서이면 일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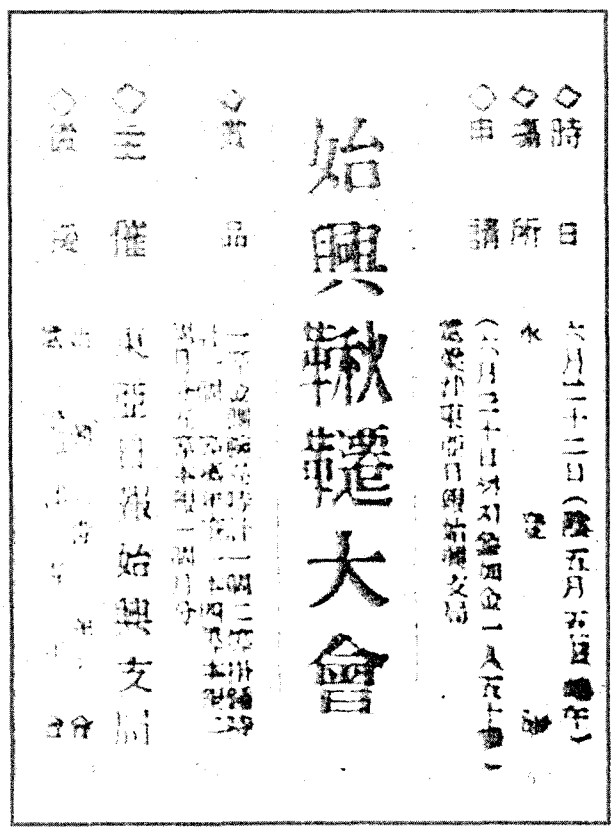
▶ 1928.5.13(4)5



시흥군농회에서 답심경장려

(시흥) 시흥군 농회에서는 농사개량에 만흔 노력을 하여 오던바 금반에는 재래의 수전을 넘우 천경하는 관계로 수확이 적게된다 하여 심경장려를 대대적으로하는 동시에 개량심경용기가 넘우비 싼까닭에 농촌에서 매입키 곤란함으로 이것을 도아 주기위하야 심경계 1개에 13원을 반액식농회에서 보조하게되어 바로 군내에 10여기나 구입을 시킨후 수일전에는 각면중요한곳에서 심경계 ■습소까지 개최하얏다더라.

▶ 1928.7.6(4)11



시흥추천대회

◇상품
◇주최
◇후원

▶ 1928.7.6(4)2

護岸區域에 除外
家屋撤毁를 命令
洞民은 郡當局에 陳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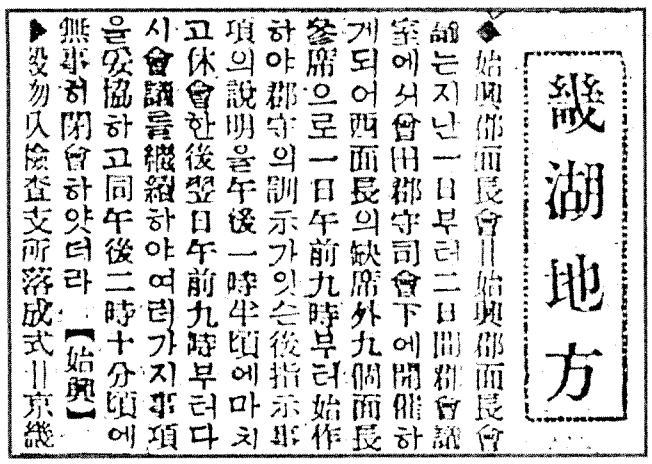
始興郡永登浦가漢江沿岸에在하야 每年洪水期마다 數千의 住民들이 一大不安과 恐怖를 늣기게 됨은 아니라 乙丑年洪水에 全滅狀態에 싸지게되엇슴에 달하야 總督府當局으로서도 그대로 放置할 수가 업서서 巨額의 工費로 再昨年부터 防水堤工事에 着手하야 一期工事를 마치고 二期工事로 堂山里後山에서 安養川까지의 工事를 昨冬부터 始作하게되엇다함은 當時報道하얏거니와 이 恩典을 밧지 못하고 堤防밧그로 쫏겨나고서도 所有土地와 家屋外지 撤毁를 하지 아니하면 안니될 運命에 싸진 永登浦面堂山里一部二十餘戶와 金浦郡陽東面楊花里五十餘戶 住民은 將次 갈바를 알지 못하고 憂愁中에 잇다는데 얼마前에 洞民大會를 開催하고 金宮培氏를 代表로 選定後 金浦郡當局에 數額 陳情書를 提出하고 下回만 苦待하는 中이라는데 그 內容을 듯건대 同里合七千餘戶는 乙丑年洪水에 全部流失을 當한 後 每年 洪水에 全力을 傾注한 結果 겨우 原形에 돌아오게 되엇슴에 不拘하고 防水堤로부터 除外함으로 조그마한 洪水에라도 全滅을 當할 것은 無疑할 뿐 아니라 雪上에 加霜으로 同工事基地에 編入된 家屋 全部를 今年 霖雨期以內로 全部 撤毁하라고 嚴命하는 同時에 所謂 移轉敎라고 家屋의 好不好를 不問하고 一律 金十五圓式을 주겟다함으로 護岸工事로 因하야 利益을 享受하기는 姑捨하고 돌이어 如此한 恐怖와 犧牲을 當하게 됨은 참으로 遺憾인 同時에 所謂 移轉敎를 줌에 잇어도 一律 四十圓以上 最下 三十圓以內를 支給하도록 하야 달라는것이라더라(始興)

호안구역에 제외 가옥 철훼를 명령

동민은 군당국에 진정

(시흥) 시흥군 영등포가 한강연안에 재하여서 매년 홍수기 마다 수천의 주민들이 일대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을축년 홍수에 전멸상태에 빠지게 되엇슴에 달해서 총독부 당국으로서도 그래도 방치할 수가 업서서 거액의 공비로 재작년부터 방수제공사에 착수하야 1기공사를 마치고 2기공사로 당산리 후산에서 안양천까지의 공사를 작동부터 시작하게 되었다함은 당시 보도 하였거니와 이 은전을 받지 못하고 제방밖으로 쫓겨나고서도 소유토지와 가옥까지 철훼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운명에 빠진 영등포면 당산리 일부 200여호와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 오십여 주민은 장차 갈바를 알지 못하고 우려중에 있다는데 얼마 전에 동민대회를 개최하고 김인배씨를 대표로 선정 후 김포군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하회만 고대하는 중이라는데 그 내용을 듣건대 동리합 7천여호는 을축년 홍수에 전부유실을 당한 후 이래 복구에 전력을 경주한 결과 겨우 원형에 돌아오게 된 금일에 수간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방수제로부터 제외함으로 조그마한 홍수에라도 전멸을 당할 것은 무의할 뿐 아니라 설상에 가상으로 동 공사기지에 편입 된 가옥전부를 금년 임우기 이내로 전부 철회하라고 엄명하는 동시에 소위 이전비라고 가옥의 호불호를 불문하고 매간에 금 15원식을 주겟다함으로 호안공사로 인하여서 이익을 향수하기 고사하고 돌이어 여차한 공포와 희생을 당하게 됨은 심히 유감인 동시에 소위 이전비를 줄랴면 적어도 매간40원 이상 최하 30원이내를 지급하도록 하여달라는 것 이다더라.

▶ 1928.8.9(4)10



始興地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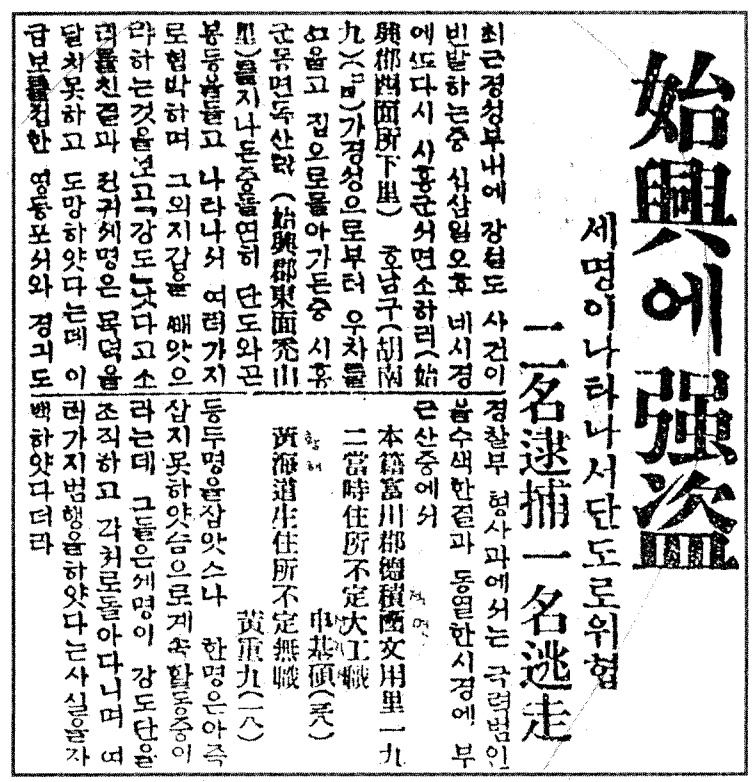
◆始興郡面長會는 始興郡面長會議는 지난 一日부터 二日間 郡會議室에서 會田郡守司會下에 開催하게되어 西面長의 缺席外 九個面長參席으로 一日午前九時부터 始作하야 郡守의 訓示가 잇슨後 指示事項의 說明을 午後一時半頃에 마치고 休會한後 翌日午前九時부터 다시 會議를 繼續하야 여러가지 事項을 妥協하고 同午後二時十分頃에 無事히 閉會하얏더라 【始興】

◆設勿入險査支所落成式 = 京畿

시흥군 면장회

(시흥) 시흥군 면장회의는 지난 1일부터 2일간 군회의실에서 증전군수 사회하에 개최하게되어 서면장의 결석 외 9개 면장참석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야 군수의 훈시가 있은 후 지시사항의 설명을 오후 1시 반경에 마치고 휴회한 후 익일 오전 9시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타협하고 동오후 2시10분경에 무사히 폐회하얏더라.

▶ 1928.8.15(2)8



始興에 强盜

세명이나타나서단도로위협

二名逮捕一名逃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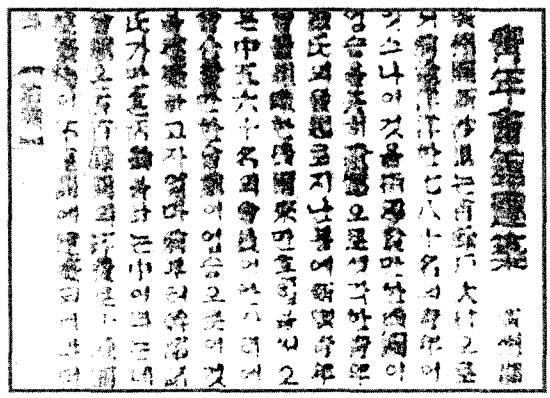
최근경성부내에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는중 십삼일오후 네시경에또다시 시흥군서면소하리(始興郡西面所下里) 호남구(胡南九)가경성으로부터 우차를 끄을고 집으로돌아가든중 시흥군동면독산리(始興郡東面禿山里)를지나든중돌연히 단도와곤봉등을들고 나타나서 여러가지로협박하며 그의지갑을 빼앗으라하는것을보고 강도놋다고소리를친결과 전기세명은 목적을달치못하고 도망하얏다는데 이 급보를접한 영등포서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는 극력범인을수색한결과 동일한시경에 부근산중에서 本籍富川郡德積面文用里一九二當時住所不定大工職 申基頊(弐八) 貢海道生住所不定無職 黃重九(二八) 등두명을잡앗스나 한명은아즉 잡지못하얏슴으로계속 활동중이라는데 그들은세명이 강도단을조직하고 각처로돌아다니며 여러가지범행을하얏다는사실을자백하얏다더라

시흥에강도

3명이 나타나서 단도로 위협, 2명체포 1명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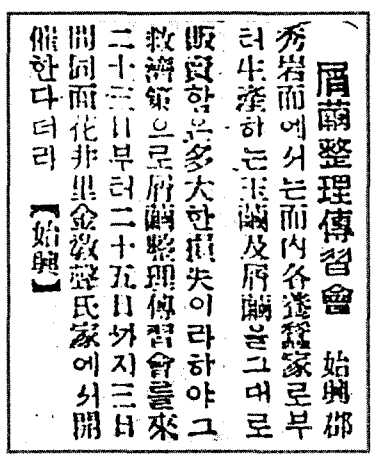
최근 경성부내에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는 중 13일 오후 4시경에 또다시 시흥군 서면 소하리 호남구가 경성으로부터 우차를 끄을고 집으로 돌아가든 중 시흥군 동면 독산리를 지나든 중 돌연히 단도와 곤봉을 들고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협박하면서 그의 지갑을 빼앗으라하는 것을 보고 '강도'낫다고 소리를 친 결과 전기 3명은 목적을 달치못하고 도망하얏다는데 이 급보를 접한 영등포서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는 극력 범인을 수색한 결과 동11시경에 부근 산중에서 본적 부천군 덕적면 문용리 192 당시 주소부정대공직 신기석 (38) 황해도생 주소부정 무직 황중구 (19) 등 2명을 잡앗스나 1명은 아직 잡지 못하얏슴으로 계속 활동중이라는데 그들은 3명이 강도단을 조직하고 각처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 하얏다더라.

▶ 1928.8.15(4)6



청년회관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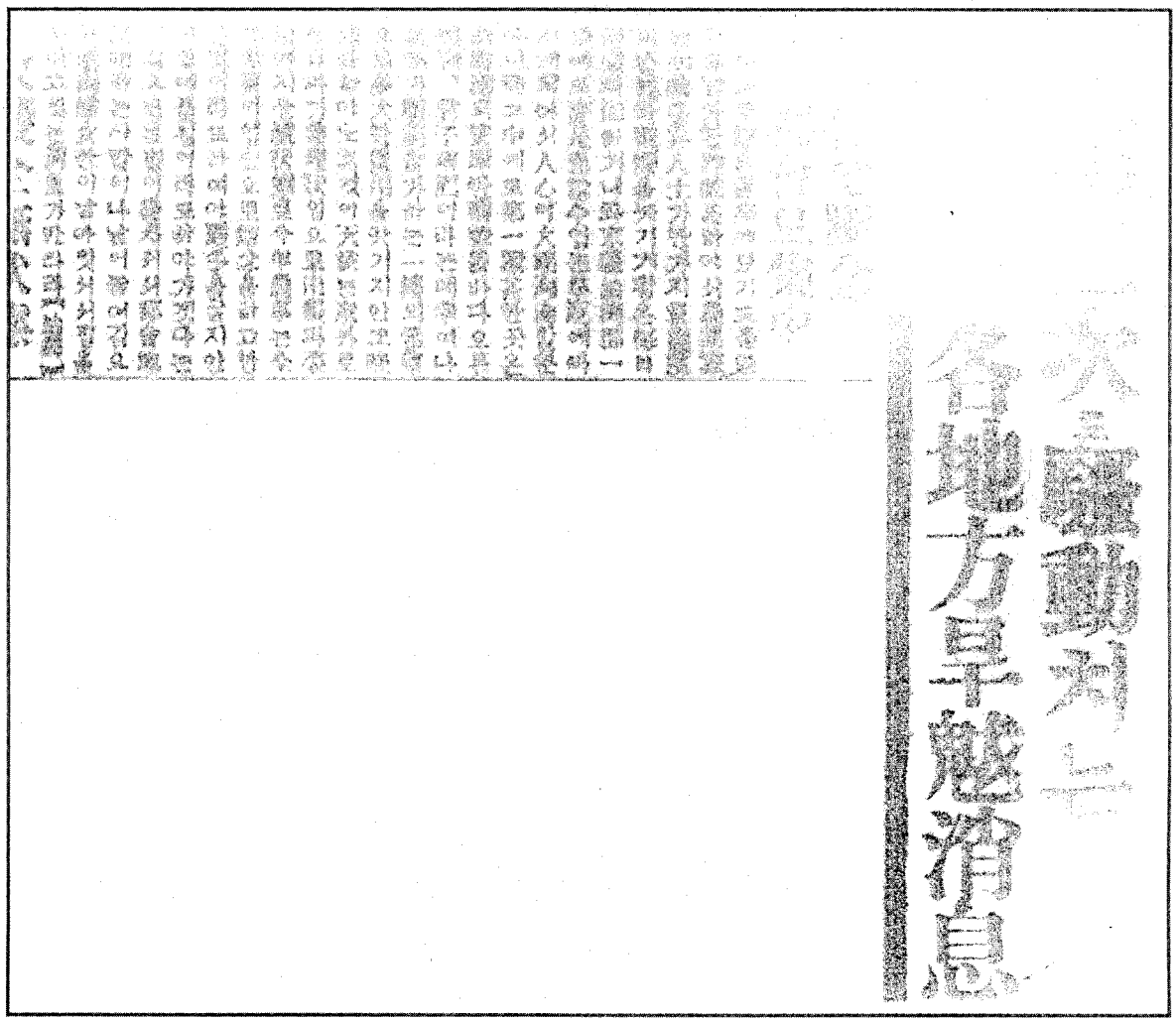
▶ 1928.8.16(4)4



설견정리전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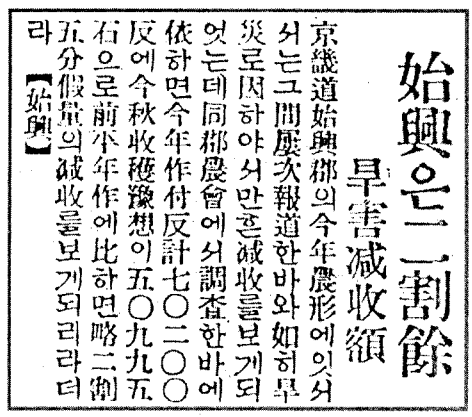
(시흥) 시흥군 수암면에서는 면내 각 양잠가로부터 생산하는 옥견급설견을 그대로 판매함은 다대한 손실 이라하야 그 구제책으로 설견정리전습회를 내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동면화정리 김교성씨가에서 개최한다더라.

▶ 1928.8.26(4)1



제 2차로 요동치는 각지방한발소식

농작엔 단염 도회로 집중



始興은二割餘

旱害減收額

京畿道始興郡의今年農形에잇서서는그間屢次報道한바와如히旱災로因하야서만흔減收를보게되엇는데同郡農會에서調査한바에依하면今年作付反計七〇二〇〇反에今秋收穫豫想이五〇九九五石으로前年年作에比하면略二割五分假量의減收를보게되리라더라【始興】

▶ 1928.9.25(4)6

시흥은 2할여 한해감수액

경기도 시흥군의 금년 농형에 잇서서는 그간 수차보도한바와 여히 한재로 인하야서 만흔 감수를 보게되었는데 동군 농회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금년 작부반계 칠만이백반에 금추 수확예상이 50,995석으로 전 평년작에 비하면 약2할5푼 가량의 감수를 보게되리라더라.

▶ 1929.1.31(7)6

始興富川間橫行ᄒᆞᄂᆞᆫ

强盜二名逮捕

여죄도만히잇슬듯하다고

◇仁川署에拘禁取調中

지난이십일밤에 부천군 소래면 면월곳리(始興郡君子面月谷里)포ᄃᆡ(富川郡蘇萊面浦里)잡화상 사백오십이번디김창희(金昌熙)안세용(安世鎔)(ㄴ)의집에강도 (ㄷ)하동리이백륙번디 라사진 두명이나타나서그주인을결박한(縛上進)(ㄹ)의두명이라하며인 후현금칠십삼원과기타상품가격 사십여원어치를 강탈도주 하얏 슴으로 이급보를들은 인천경찰 서에서는 그동안그범인 수사에 전력하든바 지난이십칠일에 부 천군소래면 고잔리(富川郡蘇萊面古棧里)에잠복한것을 테포하 얏다는데 그범인은 시흥군군자

시흥 부천간횡행튼 강도 2명 체포

여죄도 만히 잇슬 듯 하다고
- 인천서에 구금 취조 중

(인천)지난 21일밤에 부천군 소래면 포리 잡화상 안세용의 집에 강도 2명이 나타나서 그 주인을 결박한 후 현금73원과 기타 상품 가격 40여원어치를 강탈 도주 하엿슴으로 이 급보를 들은 인천 경찰서에서는 그 동안 그 범인 수사에 전력하든 바 지난 27일에 부천군 소래면 고잔리에 잠복한 것을 테포하얏다는데 그 범인은 시흥군 군자면 월곳리 452번지 김창희와 동리206번지 라사진의 2명이라 하며 인천경찰서에서 그간 엄중 취됴 한 결과 그 범인은 강도범행을 한 것이 금번뿐이 아니라 작년 7월경부터 2명이 공모하고 시흥과 부천간에서 13번이나 강도범행을 한 사실이 판명되었다는데 또 여죄유무에 대하야 계속취조 중 이라더라.

▶ 1929.2.26(4)6

貧民救濟事業

始興兩面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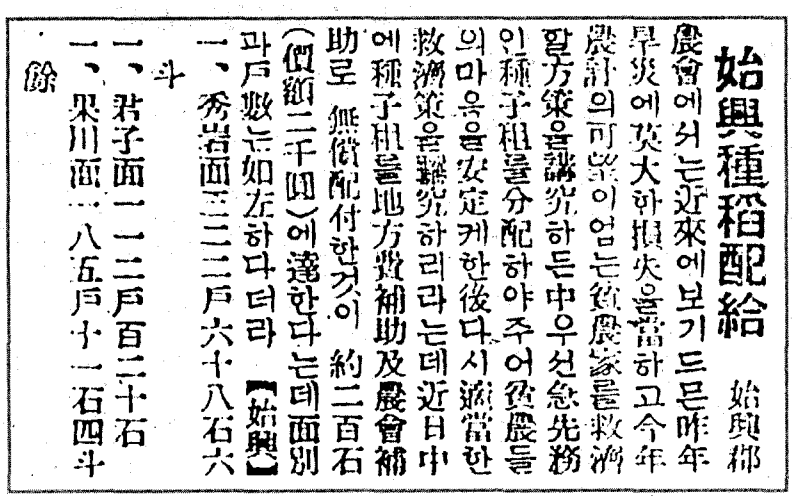
始興郡君子、秀岩兩面은元來土地가肥沃하고農産物의生産이만흠으로始興郡의寶庫라는稱呼를바다오든바 未曾有의 昨春大旱災로서하야金融梗塞으로갓득이나窮乏하든農民들의生活이압흐로어떠케나되어갈는지一般은大端히憂慮하든바前記兩面長의斡旋으로早害罹災貧民救濟會를各各兩面에서組織하고一般有志의同情을求할뿐아니라道當局으로부터近百石의正租補助外지바닷다더라【始興】

빈민구제 사업

시흥양면에서

(시흥)시흥군 군자, 수암양면은 원래 토지가 비옥하고 농산물의 생산이 만흠으로 시흥군의 보고라는 칭호를 바다오든바 미증유의 작춘 대한재로 인하야 전멸상태임으로 갓득이나 궁핍하든 농민들의 생활이 압호로 어떠케나 되어 갈른지 일반은 대단히 우려하든바 전기양면장의 일선으로 한해리재빈민구제회를 각각양면에서 조직하고 일반 유지의 동정을 구할뿐아니라 도당국으로부터 근백석씩의 정조보조까지 바닷다더라

▶ 1929.3.20(4)2



始興種稻配給 始興郡

農會에서는近來에보기드문昨年旱災에莫大한損失을當하고今年農計의可望이업는貧農家를救濟할方策을講究하든中우선急先務인種子租를分配하야주어貧農들의마음을安定케한後다시適當한救濟策을講究하리라는데近日中에種子租를地方費補助及農會補助로 無償配付한것이 約二百石(價額二千四)에達한다는데面別과戶數는如左하다더라 【始興】

一、君子面一一二戶百二十石
一、果川面一八五戶十一石四斗
一、秀岩面三二二戶六十八石六斗
餘

시흥종도 배급

(시흥) 시흥군 농회에서는 근래에 보기 드문 작년 한재에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금년 농계의 가망이 업는 빈농가를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던 중 우선 급선무인 종자조를 분배하야주어 빈농들의 마음을 안정케 한 후 다시 적당한 구제책을 강구하리라는데, 근일중에 종자조를 지방비 보조급 농회 보조로 무상배부 한 것이 약 2백석(가액2천원)에 달한다는데 면별과 호수는 여죄 한다더라.
수암면 322호 68석6두
군자면 112호 120석
과천면 185호 11석 4두여

▶ 1929.5.5.(2)9

九歲兒慘殺 시흥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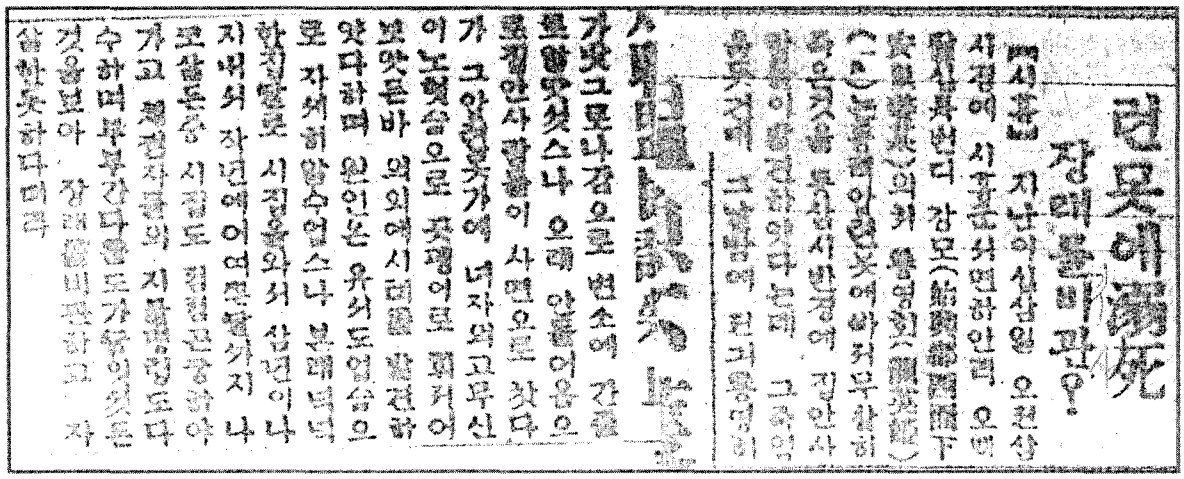
면번대곡리 (始興郡北面番大谷里)김상봉(金上鳳)(八)이라는소년은지난이십팔일로량진(鷺梁津)으로놀러간다하고 돌아오지아니함으로그아이의집에서는사방으로수색한결과이일오후두시경에로양진염산속에서타살된시데를발견하얏다는바경찰에서엄밀히검시한결파타살인것이확실히관명되어범인을엄탐중인데범인은동리사람으로벌서어대로인지도주하얏다더라

置備完全 溫突 專意 診察
外科 皮膚科 門科
李理鎔醫院
釜山瀛洲洞入口
電話九四五番

9세아 참살

(시흥) 시흥군 북면 번대곡리 김상봉이라는 소년은 지난 28일 노량진으로 놀러간다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그 아이의 집에서는 사방으로 수색한 결과 2일 오후 2시경에 노량진 염산속에서 타살된 시체를 발견하얏다는 바 경찰에서 엄밀히 검사한 결과 타살인 것이 확실히 판명되어 범인을 염탐중인데 범인은 동리 사람으로 벌서 어대로인지 도주 하얏다더라.

▶ 1929.5.2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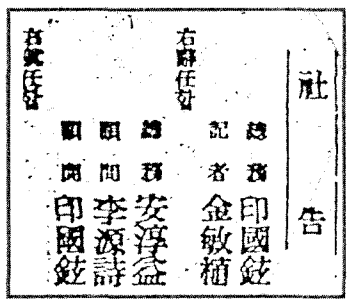


련못에 익사

장래를 비관?

(시흥) 지난 23일 오전 3시경에 시흥군 서면 하안리 586번지 강모의 처 용영희는 동리압 련못에 빠져 무참히 죽은 것을 동 삼시반경에 집안사람들이 발견하얏다는데 그죽업을 돗건데 그날밤에 전긔 용영회가 밧그로 나감으로 변소에 간줄로 알앗엇스나 오래 안들어 옴으로 집안사람들이 사면으로 찻다가 그 압 연못가에 녀자의 고무신이 노혓슴으로 곳괭이로 휘저어 보앗던 바 의외에 시체를 발견하얏다하며 원인은 유서도 업슴으로 자세히 알 수 업스나 본래 넉넉한 집 딸로 시집을 와서 3년이나 지내서 작년에 어여쁜 딸까지 나코 살던 중 시집도 점점 곤궁하여가고 채권자들의 지불 명령도 다수하며 부부간 다툼도 가끔 잇섯던 것을 보아 장래를 비관하고 자살한 듯 하다더라

▶ 1929.5.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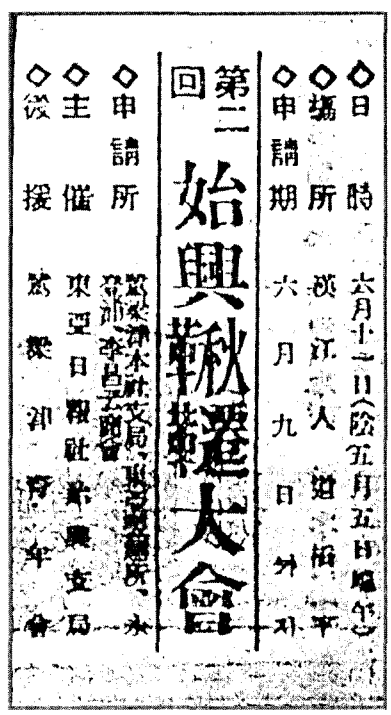
사고

우 사임함
총무 인국현
기자 김민식
우 취임함
총무 안순익
고문 이원시
고문 인국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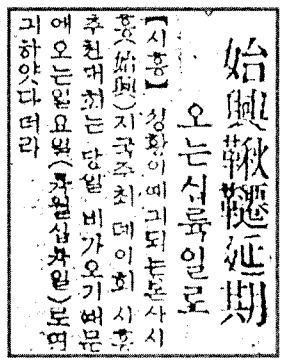
제2회 시흥 추천대회

일시- 6월 11일 (음 5월5일 정오)
장소- 한강인도교
신청기- 6월 9일까지
신청소- 노량진 본사지국 동아 □□□□소
영등포- 이창운 상회
후 원- 노량진 청년회

▶ 1929.6.9(3)11



▶ 1929.6.1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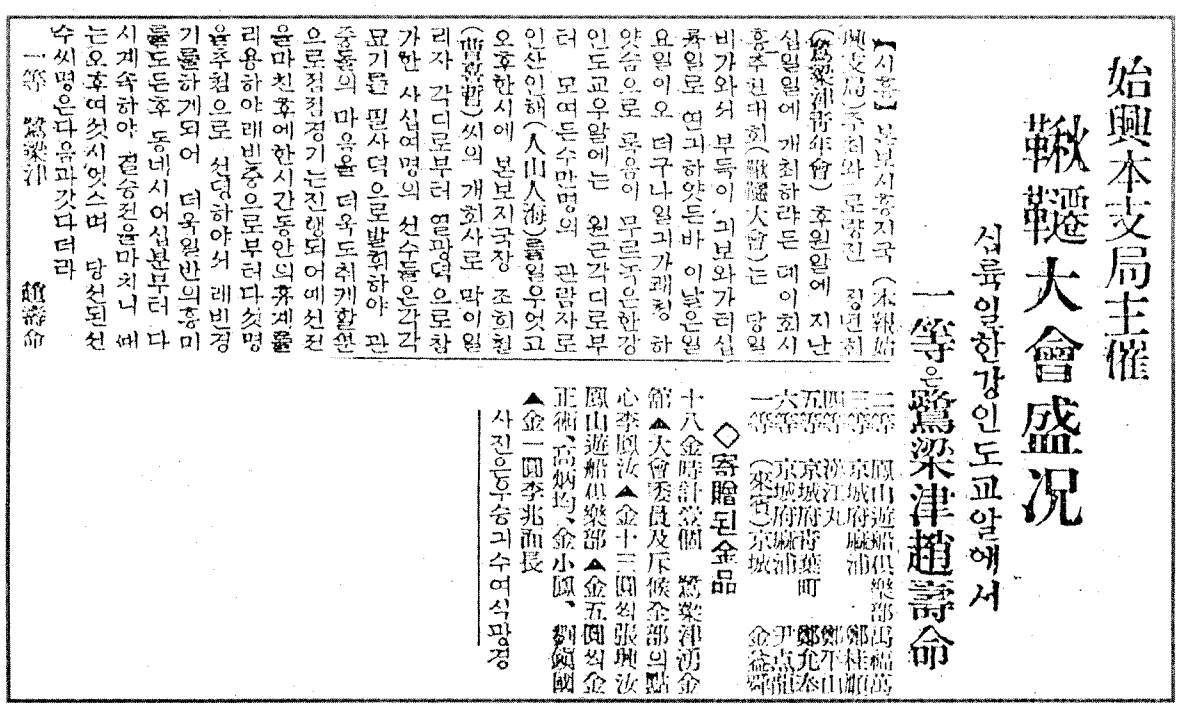
始興鞦韆延期
오는십륙일로

【시흥】 성황이예긔되는본사시흥(始興)지국주최데이회시후추천대회는당일비가오기때문에오는십륙일(來十六日)로연긔하얏다더라

시흥추천연기 오는 16일로

(시흥) 성황이 예기되는 본사 시흥지국주최 제2회 시흥추천대회는 당일 비가오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6월16일)로 연기하얏다더라.

▶ 1929.6.19(3)6



始興本支局主催
鞦韆大會盛況
십륙일한강인도교알에서
一等은鷺梁津趙壽命

【시흥】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주최와노량진 청년회(鷺梁津青年會) 후원알에 지난십일일에개최하랴든 데이회시흥추천대회(鞦韆大會)는 당일비가와서 부득이 긔보와가티십륙일로 연긔하얏든바 이날은원요일이오 더구나일긔가쾌청 하얏슴으로 록음이 무르녹은한강인도교우알에는 원근각디로부터 모여든수만명의 관람자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일우엇고 오후한시에 본보지국장 조희철(曹喜哲)씨의 개회사로 막이열리자 각디로부터 열광적으로참가한 사십여명의 선수들은각각 묘기를 필사적으로 발휘하야 관중들의 마음을 더욱 도취케할뿐으로 점점 경기는 진행되어 예선전을 마친후에 한시간동안의 휴게를 리용하야 래빈중으로부터 다섯명을 추첨으로 선뎡하야서 래빈경기를 하게되어 더욱 일반의 흥미를 도든후 동4시20분부터 다시 계속하야 결승전을 마치니 때는 오후여섯시엇스며 당선된 선수씨명은다음과갓다더라

一等 鷺梁津 趙壽命

二等 鳳山遊船俱樂部 馮福萬
三等 京城府麻浦 鄭桂順
四等 沙江九 鄭不山
五等 京城府苧麻町 鄭允本
六等 京城府麻浦 尹点權
一等 (來金) 京城 金益鎭

◇寄贈된金品

十八金時計壹個 鷺梁津酒金
館▲大會委員及斥候全部의點心 李鳳汝▲金十三圓외張興汝
鳳山遊船俱樂部▲金五圓외金正術、高炳均、金小鳳、劉鎭國
▲金一圓李兆而長

사진은우승기수여식광경

시흥 본지국 주최 추천 대회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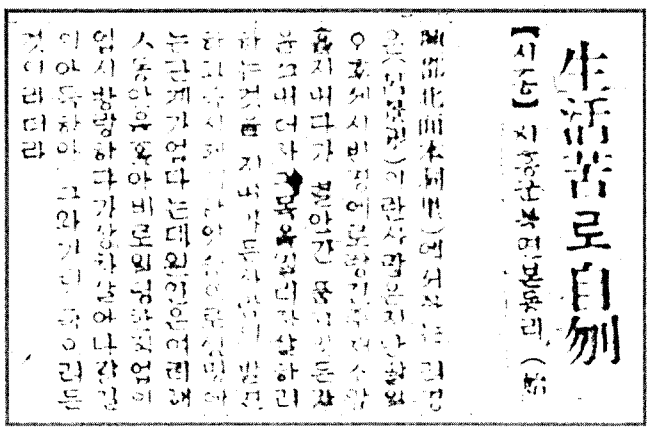
16일 한강인도교알에서 일등은 노량진 조수명

(시흥) 본보시흥지국주최와 노량진 청년회 후원알에 지난 11일에 개최하랴든 제2회시흥추천대회는 당일 비가와서 부득이 귀보와 같이 16일로 연기하였던 바 이날은 일요일이고 더구나 일기가 쾌청하얏슴으로 록음이 무르녹은 한강인도교우알에는 원근각디로부터 모여든 수만명의 관람자로 인산인해를 일우엇고 오후1시에 본보 지국장 조희철씨의 개회사로 막이 열리자 각디로부터 열광적으로 참가한 40여명의 선수들은 각각 묘기를 필사적으로 발휘하여 관중들의 마음을 더욱 도취케할 뿐으로 점점 경기는 진행되어 예선전을 마친 후에 한시간 동안의 휴계를 리용하여 래빈중으로부터 5명을 추첨으로 선뎡하여서 래빈경기를 하게되어 더욱 일반의 흥미를 도든 후 동4시20분부터 다시 계속하여 결승전을 마치니 때는 오후 6시엇스며, 당선된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등 노량진 조수명
2등 봉산유선구락부 우복만
3등 경성부마포 정계순
4등 한강환 전평산
5등 경성부 청엽정 정윤봉
1등 (래빈) 경성 김익수

*기증된금품
18금 시계일개 - 노량진 용금관
대회 위원급척후 전부의점심 이봉녀
금13원씩 장홍여 봉산 유선 구락부
금5원씩 김정술, 고병균, 김소봉, 유진국
금1원 이조면장
사진은 우승기수여식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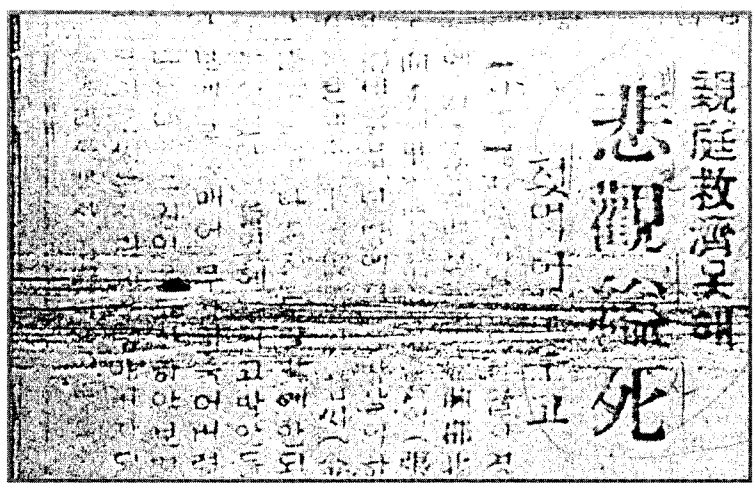
▶ 1929.9.10(4)6



생활고로 자문

(시흥) 시흥군 북면 본동리에 사는 려경은이란 사람은 지난 팔일 오후세시반경에 노량진 주재소압을 지나다가 별안간 품고있던 칼을 꺼내어 자기목을 찔러 자살하려 하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얏슴으로 생명에는 관계가 없다는데 원인은 여러 해 동안 홀아비로 일덩한 직업이 업시 방랑하다가 장차 살아나갈 길이 아득하야 그와 같이 죽으려든 것 이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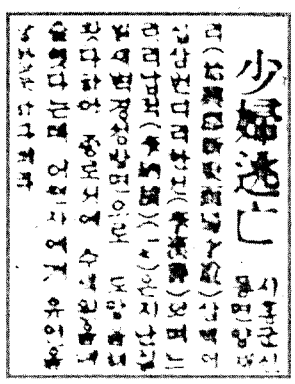
▶ 1929.9.15(4)9



친정구제못해 비관익사

젓먹이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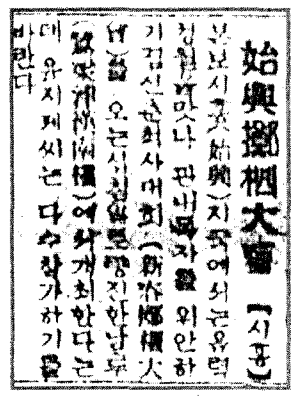
▶ 1929.10.11(2)7



소부도망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323번지 리한선의 며느리 리납적(16)은 지난 7일 새벽 경성방면으로 도망을 해왓다 하여 종로서에 수색원을 뎨출햇다는데 어떤자에게 유인을 궁한 듯 하다더라.

▶ 1930.2.16(3)6


始興擲柶大會【시흥】

시흥척사대회

(시흥) 본보시흥지국에서는 음력 정월을 만나 관내 독자를 위안하기 겸 신춘 척사대회를 오는 17일 노량진 한남루에서 개최한다는데 유지제씨는 다수 참가하기를 바란다.

▶ 1930.3.31(3)8

平和의 農村이 破滅

◇부호에 침륜된 백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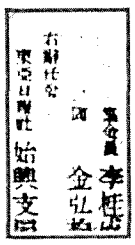
始興黑石住民의困境

문화주택건설로 평화의 농촌이 파멸

부호에 침륜된 1백여호 (시흥 흑석 주민의 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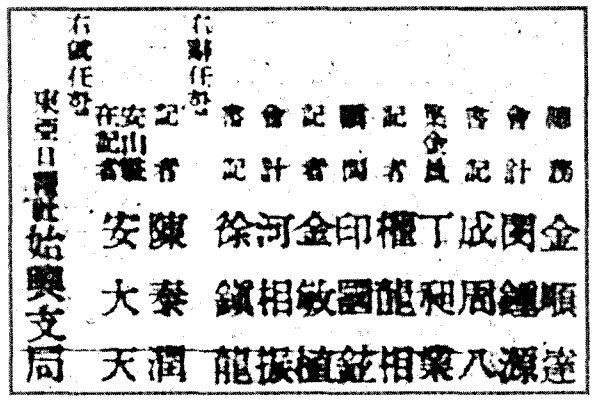
(시흥) 시흥군 북면 흑석리에서 다량의 라즘을 함유한 조선서 제일 가는 온천이 난다하여 4,5년전에 모 일본인 자본가들은 땅 한 평에 싯가 5,60전밧게 가지 안튼 것이 30원이란 고가로 매수하야 가지고 쟁선하야 그 시험에 몰두하는 중에 아직까지 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하얏스나 이곳은 경성시외의 신선한 지대에 소재하여 문화주택지로 최적지라하야 지기조와 기타 유력한 일본인들은 얼마전부터 주택건축에 대한 준비에 골몰하다가 근일에 그 준비가 완성됨에 따라 우선 금년중에 42조의 주택을 건설 하리라는데 원래 흑석리라는 곳은 불과 100여호 밧게 아니되는 한산한 농촌으로 마을 압에 잇는 약간 전답에다 전 생명을 부치고 살아오다가 이럭저럭 토지를 다 팔아먹고 지금은 제터를 가진 사람이 100여호 중에 불과 10여호 밖에 되지 안흠으로 자본가들의 문화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그들의 밀려나갈 곳이 망연하다하여 100여호 주민들은 우울과 공포에 싸여지낸다 한다.

▶ 1930.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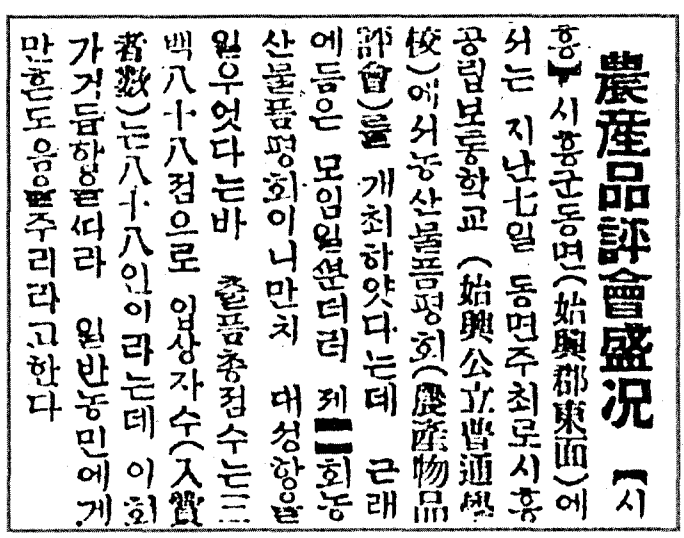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 30.9.22



동아일보사

▶ 1930.11.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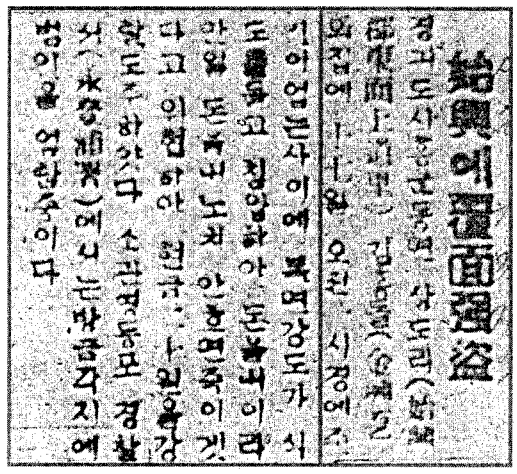
農産品評會盛況 【시흥】

시흥군동면(始興郡東面)에서는 지난七일 동면주최로시흥공립보통학교(始興公立普通學校)에서농산물품평회(農産物品評會)를 개최하얏다는데 근래에듬은 모임일새더러 제二회농산물품평회이니만치 대성황을 일우엇다는 바 출품총점수는三백八十八점으로 입상자수(入賞者數)는八十八인이라는데 이회가거듭함을따라 일반농민에게 만흔도움을주리라고한다

농산 품평회성황

(시흥) 시흥군 동면에서는 지난7일 동면주최로 시흥공립보통학교에서 농산물품평회를 개최하얏다는데 근래에 듬은 모임일 뿐더러 제 2회 농산물 품평회이니 만치 대성황을 일우엇다는 바 출품 총 점수는 388점으로 입상자수는 88인이라는데 이 회가 거듭함을 따라 일반농민에게 만흔 도움을 주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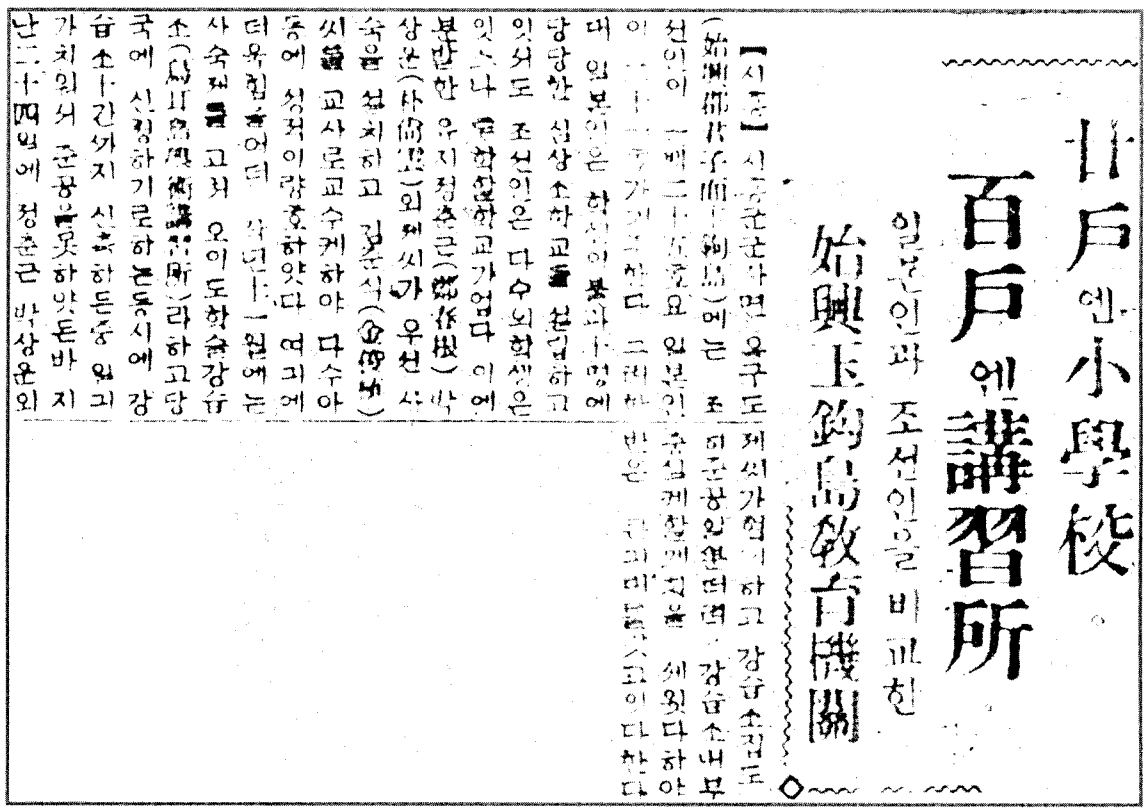
▶ 1931.1.19(2)4



시흥에 복면강도

경기도 시흥군 동면 상도리 김홍돌의 집에 오전1시경에 주인이 업는 사이에 복면강도가 식도를 들고 침입하야 돈을 내이라 만일 돈을 내놓지 안흐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야 현금 20원을 강탈 도주하였다. 소관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방금 각지 범인을 염탐 중이다.

▶ 1931.3.3(7)5



20호엔 소학교 100호엔 강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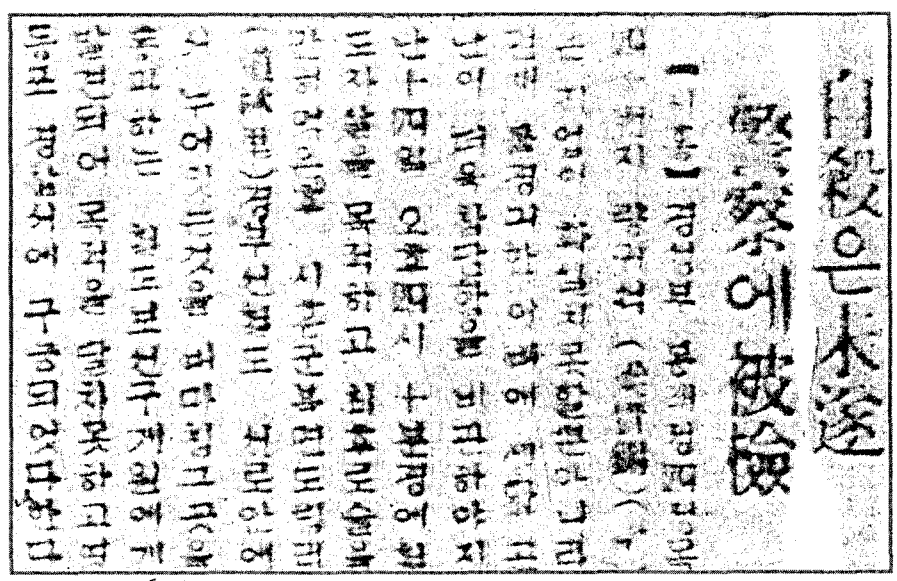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한 시흥 옥구도 교육기관 (시흥) 시흥군 군자면 옥구도에는 조선인이 1백 2십5호요 일본인이 21호가 거주한다 그러한대 일본인은 학생이 불과 10여명에 당당한 심상 소학교를 설립하고 있어도 조선인은 다수의 학생은 있으나 통학할 학교가 업다 이에 분발한 유지 정춘근 박상운외 제씨가 우선 사숙을 설치하고 김준식씨를 교사로 교수케하야 다수아동에 성적이 량호하엿다 여기에 더욱 힘을 얻어 작년 11월에는 더욱 힘을어더 사숙제를 고쳐 오이도학술강습소라하고 당국에 신청하기로 하는 동시에 강습소 십간까지 신축하든 중 일기가 치워서 준공을 못하얏든 바 지난 24일에 정춘근 박상운외 제씨가 협의하고 강습소집도 속히 준공할뿐더러 강습소 내부도 충실케 할 계획을 세웟다하여 일반은 큰 기대를 갖고 잇다한다.

▶ 31.4.11

주재기자

소화 6년 4월9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임기자 민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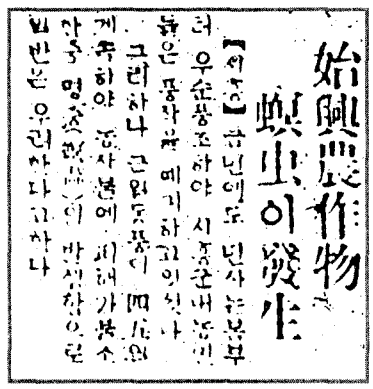
▶ 1931.5.19(7)4



자살은 미수 경찰에 피검

(시흥) 경성부봉래정 4정목 40번지 량귀석은 직업이 확실치 못할 뿐 아니라 면내 물경귀한 이때에 생활 곤난이 더욱 참담함을 비관하여 지난 14일 오후4시 10분경에 침도자살을 목적하고 최후로 술을만히 먹은후 시흥군 북면 도림리 경부선 철도 선로안에서 누워잇는 것을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는 철도보선구개원에게발견되어 목적을 달치못하고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되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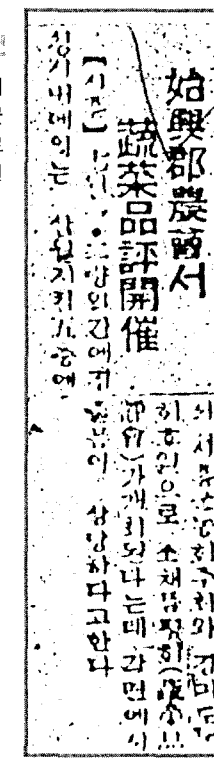
▶ 1931.7.18(7)4



시흥 농작물 명충이발생

(시흥) 금년에도 년사는 봄부터 우순풍조하여 시흥군내 농민들은 풍작을 예귀하고 잇섯다. 그러하나 근일 동풍이 4,5일 계속하야 농산물에 피해가 불소한중 명충이 발생함으로 일반은 우려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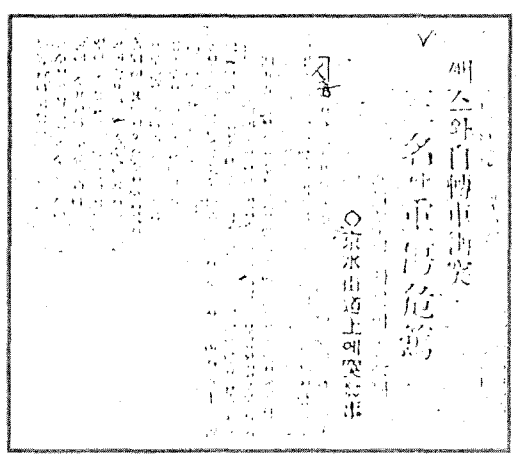
▶ 1931.7.5(5)10



시흥군농회서 소채품평 개최

(시흥) 7월 1·2양일간에 경성 시내에 잇는 3월지점 5층에서 시흥군 농회주최와 경기도 농회 후원으로 소채품평회가 개최된다는데 각 면에서 출품이 상당하다고 한다.

▶ 1931.8.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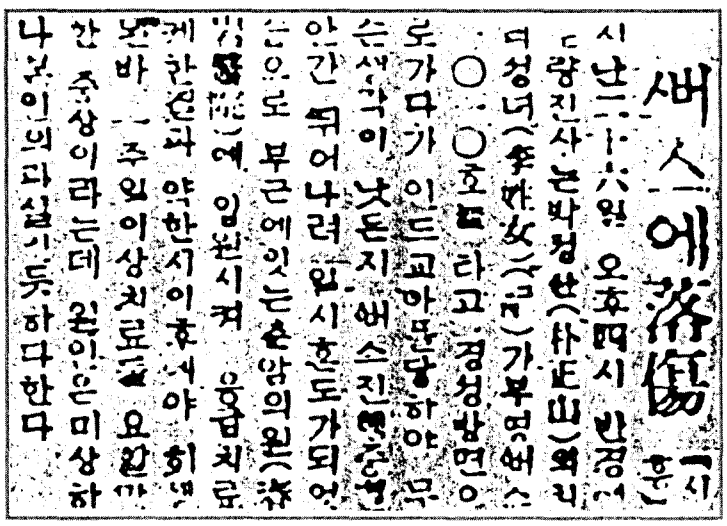


경인버스와 자전거 충돌

3명 중상위독

(시흥) 지난 29일 오전 열시 30분경에 경인버스 568호가 영등포를 떠나 경인가도 북면 번대방리 지점을 질주할 때에 마침 철도국화물자동차가 그 곳와서 역시 경성으로 가고저 회전 할지음 불행히 피차 충돌되어 경인버스 승객 중 임경재(57), 정만제(35), 고영긔(50)등 3인은 면부와 두부에 삼일간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당하여 영등포 철도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각기 귀가하였다고 한다.

▶ 1931.10.3(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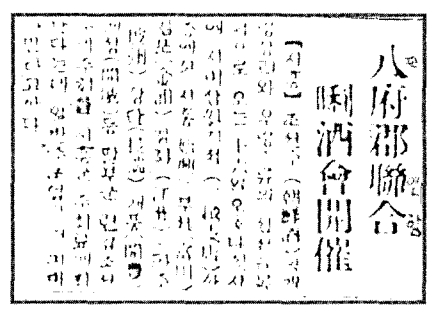

버스에落傷

(시흥)지난 16일 오후4시 반경에 노량진 사는 박정산의 처 이성녀가 부영버스2 010호를 타고 경성방면으로 가다가 인도교 아풀 달하야 무슨 생각이 낫든지 버스 진행 중 별안간 뛰어나려 일시 혼도가 되엇슴으로 부근에 잇는 춘암의원에 입원시켜 응급키로 한 결과 약1시 이후에 회생된바 일주일이상 치료를 요할만한 중상이라는데 원인은 미상하나 본인의 과실인 듯하다한다

버스에 낙상

(시흥)지난 16일 오후4시 반경에 노량진 사는 박정산의 처 이성녀가 부영버스2 010호를 타고 경성방면으로 가다가 인도교 아풀 달하야 무슨 생각이 낫든지 버스 진행 중 별안간 뛰어나려 일시 혼도가 되엇슴으로 부근에 잇는 춘암의원에 입원시켜 응급키로 한 결과 약1시 이후에 회생된바 일주일이상 치료를 요할만한 중상이라는데 원인은 미상하나 본인의 과실인 듯하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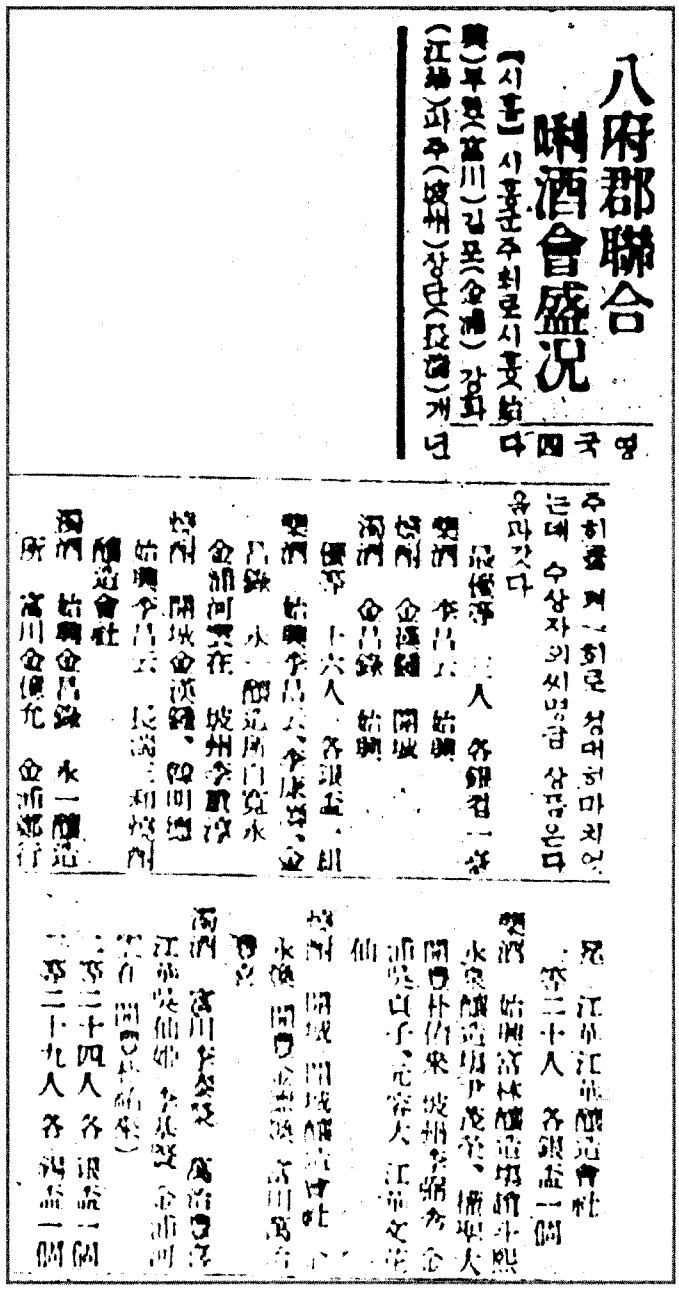
▶ 1931.10.13(2)5


八府郡聯合 懇話會開催

팔부군연합 리주회개최

(시흥) 조선주의 개량장려와 우량주류의 선전을 목적으로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시내삼월지점 사층에서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풍 개성 등 팔부군 련합조선주리주회를 시흥군 주최로 개최 한다는데 일반주조업체의 기대가 만타고 한다.

▶ 1931.10.22(7)1



八府郡聯合
唎酒會盛況

【시흥】시흥군주최로시흥부천김포강화파주장단개풍(개성)부천(富川)김포(金浦)강화(江華)파주(坡州)장단(長湍)개

영주국 四다

주최로 제一회로 성대히마치었는데 수상자의씨명급 상품은다음과갓다

品種別 二人 各銀盃一個

始興 李昌六 始興

開城 金源鎭 開城

金昌錄 始興

優等 十六人 各銀盃一個

始興李昌六、金康錫、金

昌錄 永一釀造所在

金浦河雲在 坡州李觀淳

開城金源鎭、開川鄭

始興李昌六 長湍三和燒酎

釀造會社

富川 始興金昌錄 永一釀造

所 富川金德允 金浦鄭行

兒 江華江華釀造會社

李二十人 各銀盃一個

始興清林釀造場趙斗熙

永興釀造場尹茂英、佛堂大

開春井仁來 坡州李鍾泰 金

浦金昌子、元容大 江華文英

仙

開城 開城釀造會社

永興 開春金泰源 富川萬石

富川 富川李泰昊 富川李泰

江華吳仙姬 李基燮 金浦河

李石 開春金泰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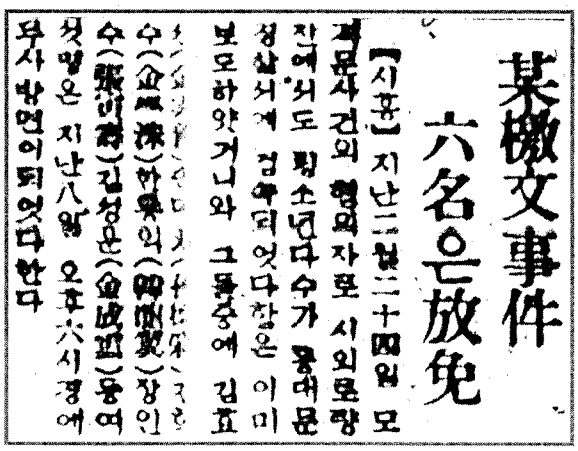
李二十四人 各銀盃一個

李二十九人 各銀盃一個

팔부군 연합 리주회 성황

(시흥) 시흥군 주최로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풍 개성에 팔부군이 연합하여 조선주의 개량장려와 우량주류의 선전을 목적으로 삼월지점 4층에서 리주회를 개최하얏던 바 그 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6시경에 경기도 송본지사이하 각 부군 직원급 래빈들과 주조업 조합원 등 수백명이 회합하여 식이 잇은 후 산전 회장의 식사와 송본지사의 고사며 래빈들의 축사로 경기도 내에 8부군 연합조선주리주회를 제1회로 성대히 마치엇는데 수상자의 씨명급 상품은 다음과 갓다.

▶ 1932.3.12(2)5



某機文事件
六名은放免

【시흥】지난二월二十四일 모
계문사건의 혐의자로 시외노량
장에서도 십소년다수가 동대문
경찰서에 검속되엇다함은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그들중에 김효
수(金孝[illegible])한동익(韓東[illegible])장인
수(張[illegible])김성운(金成[illegible])등여
섯명은 지난八일 오후六시경에
무사방면이되엇다한다

모격문사건 6명은 방면

(시흥) 지난 2월 24일 모격문사건의 혐의자로 시외 노량진에서도 청소년다수가 동대문 경찰서에 검속 되엇다함은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그들 중에 김효선, 손덕채, 김학수, 한동익, 장인수, 김성운 등 6명은 지난 8일 오후 6시경에 무사방면이 되엇다한다.

▶ 1932.3.13(2)10

八旬記念으로
橋梁을架設

【시흥】시흥군군자면 거모리
[illegible]里 去毛里) 리명규
李明奎)씨의모친김씨(金氏)는
八十평생 지내[illegible]동안 약간의재
산을 저축하야 자손의교육비와
공덕을 위하야서는 앗깝업시 써오던 터인데 작년이
오튼터인때 작년이 김씨부인의
八十세에 해당한해임으로 그의 아들 이명규씨는 이를 기념코저 삭동에 군
자면 거모리 압내에 목교를 노하 일반 교통에 만흔 편의를 주던 바 금춘에 또 거모리
[illegible]里 간 통로중 두 곳에 세멘트로 교량을 가설하고저 근일 공사에 착수하얏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린근동 거모, 죽률, 정왕 세 동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또한 교통상
큰 공덕이라 하여 송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팔순기념으로 교량을 가설

(시흥)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리명규씨의 모친 김씨는 80평생 지내는 동안 약간의 재산을 저축하야 자손의 교육비와 공덕을 위하여서는 앗깝업시 써오던 터인데 작년이 김씨부인의 80세에 해당한 해임으로 그의 아들 이명규씨는 이를 기념코저 삭동에 군자면 거모리 압내에 목교를 노하 일반 교통에 만흔 편의를 주던 바 금춘에 또 거모리 죽률리 간 통로중 두 곳에 세멘트로 교량을 가설하고저 근일 공사에 착수하얏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린근동 거모, 죽률, 정왕 세 동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또한 교통상 큰 공덕이라 하여 송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 1932.6.12

妙齡女自殺 【시흥】

지난 九일 오후 一시경에 시외로 로량진 복흥촌 [illegible] 두어 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김점쇠(金點釗)처 서양순(徐良順)(二一)는 다량의 아편을 먹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죽엇다하는데 그는 천성이 자기 이름과 같이 양순할뿐더러 범백이 다얌전하야 일동에 칭송이 만흐나 무슨 일인지 그 집안에는 항상 풍파가 끈이지를 아니하다가 근자에는 수삼일을 연속하야 싸워섯는데 죽기 전날에는 밤중에 돈 십전을 김점쇠가 주고 자기 친정인 부평으로 가라한 일이 있다는데 그 먹고 죽은 아편 출처를 알고저 경찰당국에서는 업중 조사중이라 하며 일반 동민들은 그녀자의 불상한 정사에 만흔 동정을 두어 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묘령여자살

[시흥] 지난 구일 오후 한시경에 시외 로량진 복흥촌 김점쇠 처 서양순이는 다량의 아편을 먹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죽엇다하는데 그는 천성이 자기 이름과 같이 양순할뿐더러 범백이 다양전하야 일동에 칭송이 만흐나 무슨 일인지 그 집안에는 항상 풍파가 끈이지를 아니하다가 근자에는 수삼일을 연속하야 싸워섯는데 죽기 전날에는 밤중에 돈 십전을 김점쇠가 주고 자기 친정인 부평으로 가라한 일이 있다는데 그 먹고 죽은 아편 출처를 알고저 경찰당국에서는 업중 조사중이라 하며 일반 동민들은 그녀자의 불상한 정사에 만흔 동정을 두어 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 1932.8.12(7)9

蠶室里의 生命線 防坡林을 拂下! 리권자의 금후 태도에 住民의 不安頗沸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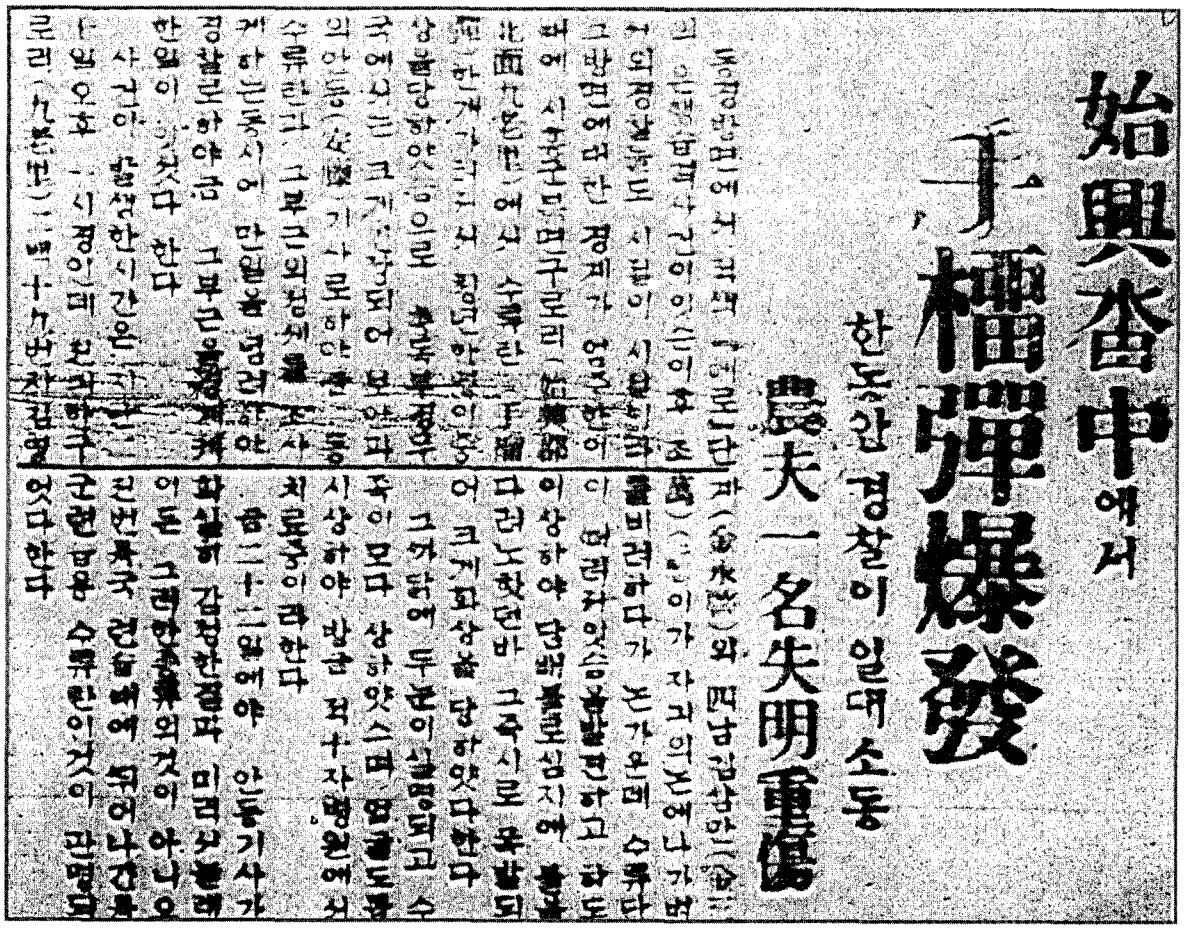
【시흥】 시흥군신동면 잠실리(始興郡新東面蠶室里) 백여호대촌은 한강연안에잇서도 아모제방이업서서 년년히 홍수때에는 참담한위경을 면키가 어려웟다 그리하야 일반주민들은 위급할때는 이곳에서 다시는아니살겟다고 맹세하고도 날만개이면 자연히 직업의속박으로 어쩌할수업시 살아오든 위험한지대이다 그럼으로 거금二十여년전에 주민들은 만일당국으로서 무조건하에 이방파림을 불하하얏다가는 리권자로서 수림을작벌하게되면 우리들에게는 사활의문제라하야 중대시하고 잇다한다 경긔도로부터 그지방의 보안방침으로 방파림(防坡林)을 상당한장거리에 조림하야 왓슴으로 그후로는 홍수때에 주민들에게 큰위안과 보호가될뿐더러 인근 그리하야 일반주민들은 위급할때는 이곳에서 다시는아니살겟다고 맹세하고도 날만개이면 자연히 직업의속박으로 어쩌할수업시 살아오든 위험한지대이다 그럼으로 거금二十여년전에 주민들은 만일당국으로서 무조

잠실리 생명선 방파림을 불하

리권자의 금후 태도에 주민의 불안파 비등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백여호 대촌은 한강 연안에 잇서도 아무 제방이 업서서 년년히 홍수 때에는 참담한 위경을 면키가 어렵다. 그리하여 일반 주민들은 위급할 때는 이곳에서 다시는 아니 살겟다고 맹세하고도 날만 개이면 자연히 직업의 속박으로 어찌 할 수 업시 살아오든 위험한 지대이다. 그러므로 거금 20여년 전에 경기도로부터 그 지방의 보안 방침으로 방파림을 상당한 장거리에 조림하야 왓슴으로 그 후로는 홍수때에 주민들에게 큰 위안과 보호가 될뿐더러 인근 지방에는 일대 풍치림이 되어 잇슴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으로서는 무슨 선후책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방파림을 불하처분 한다 하야 일반 주민들은 만일 당국으로서 무조건 하에 이 방파림을 불하햇다가는 리권자로 수림을 작벌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사활의 문제라 하야 중대시하고 잇다한다.

▶ 1932.10.23(2)9



始興舍中에서

手榴彈爆發

한동안 경찰이 일대소동

農夫一名失明重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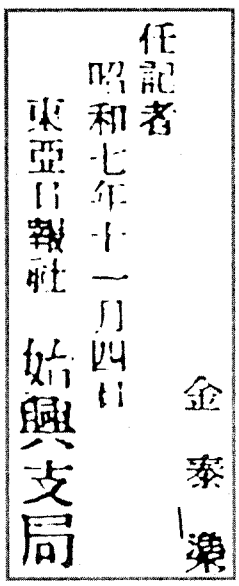
동경방면에서 적색「테로」단과(金水龍)와 四남김삼만(金三萬)(二)이가 자고이즈음에 나가 벼를 비려하다가 논가운데 수류탄이 떠러저있음을 발견하고 하도 이상하여 담배불로 심지에 불을 다려 노핫던바 그 즉시로 폭발되어 크게화상을 당하엿다한다 그 까닭에 두 눈이 실명되고 수족이 모두 상하얏스며 얼굴도 몹시상하여 방금 적십자병원에서 치료중이라 한다 금二十二일에야 안동기사가 확실히 감정한결과 미리서 놀래어든 그러한종류의것이 아니오 전번육국 연습때에 뛰어나간 육군연습용 수류탄인 것이 판명되엇다한다

시흥담중에서 수류탄폭발

한동안 경찰이 일대소동
농부 1명 실명중상

동경방면에서 적색「테로」단의 은행습격사건이 잇슨 이 후 조선의 경찰들도 시절이 시절이라 그방면에 대한 경계가 엄중한이때에 시흥군 북면 구로리에서 수류탄한개가 터져서 청년 한명이 중상을 당하얏슴으로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크게긴장되어 보안과의 안등 기사로 하야금 동수류탄과 그 부근의 정세를 조사케 한 일이 있었다 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20일 오후 1시경인데 전기한 구로리 2백18번지 김영계의 4남 김삼만이가 자기의 논에 나가 벼를 비려하다가 논 가운데 수류탄이 떠러저있음을 발견하고 하도 이상하여 담배불로 심지에 불을 다려 노핫던바 그 즉시로 폭발되어 크게 화상을 당하엿다한다. 그 까닭에 두 눈이 실명되고 수족이 모두 상하얏스며 얼굴도 몹시상하여 방금 적십자병원에서 치료중이라 한다. 금二十二일에야 안동기사가 확실히 감정한결과 미리서 놀래어든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 전번 육국 연습때에 뛰어나간 육군연습용 수류탄인 것이 판명되엇다 한다.

▶ 1932.11.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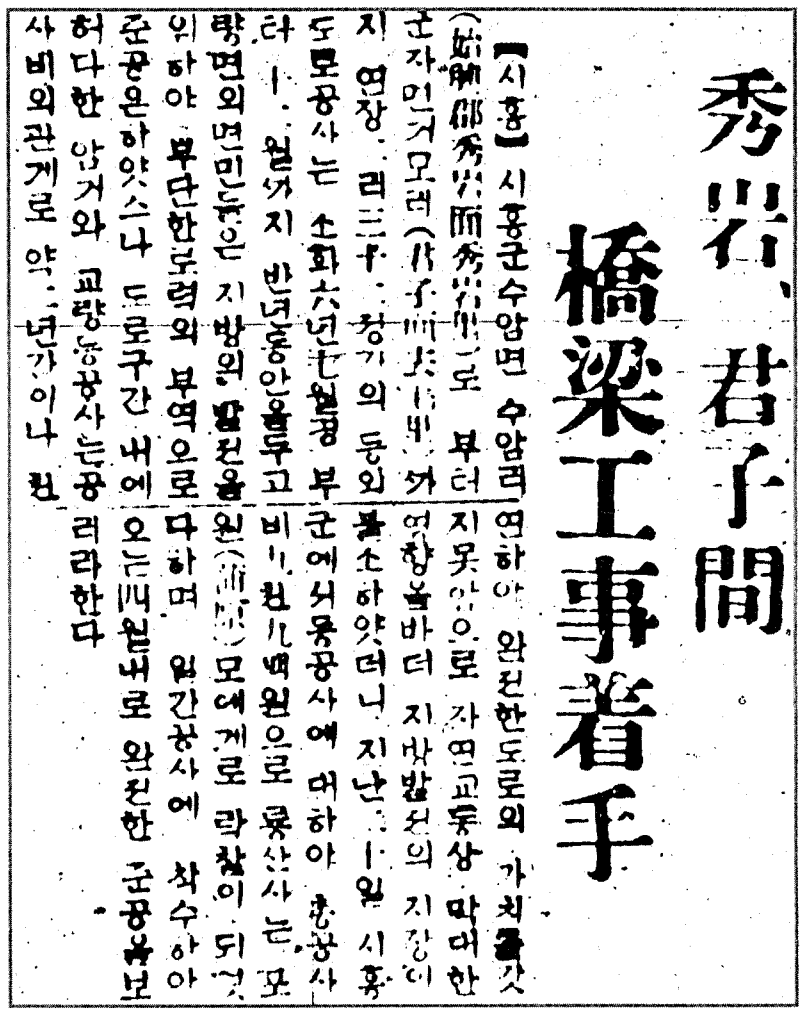


任記者
昭和七年十一月四日
東亞日報社 始興支局
金泰榮

동아일보사고 임기자 김태영

소화 7년11월4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 1933.1.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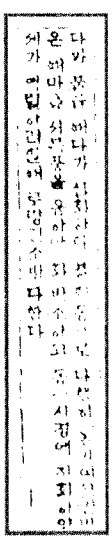
秀岩、君子間
橋梁工事着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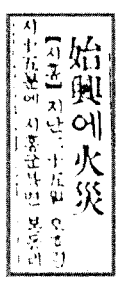
【시흥】시흥군수암면 수암리(始興郡秀岩面秀岩里)로 부터 군자면거모리(君子面巨牟里)까지 연장 이리 삼십이정(二里三十二丁)의 등외 도로공사는 소화六년七월경 부군에서동공사에 대하야 총공사비 오천원(五千圓)으로 용산사는 포원모(浦原某)에게로 락찰이 되엇다 하며 일간공사에 착수하야 준공은하얏스나 도로구간 내에 허다한 암거와 교량등공사는공사비 외 관계로 약 二년간이나 천연하야 완전한도로의 가치를 갓지 못함으로 자연교통상 막대한 영향을 바더 지방발전의 지장이 불소하얏더니 지난二十일 시흥군에서 동공사에 대하야 총공사비 五천九백원으로 용산사는 포원모에게로 락찰이 되엇다 하며 일간공사에 착수하야 오는四월내로 완전한 준공을 보리라한다

수암 군자간 교량공사착수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로부터 군자면 거모리까지 연장2리 32정가의 등외 도로 공사는 소화6년 7월경 부터 12월까지 반년동안을 두고 량면의 면민들은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로력의 부역으로 준공은 하얏으나 도로구간 내에 허다한 암거와 교량등 공사는 공사비 외 관계로 약 2년 간 이나 천연하야 완전한도로의 가치를 갓지 못함으로 자연 교통 상 막대한 영향을 바더 지방발전의 지장이 불소하얏더니 지난 20일 시흥군에서 동공사에 대하야 총공사비 5천9백원으로 용산 사는 포원모에게로 낙찰이 되었다 하며 일간공사에 착수하여오는 4월내로 완전한 준공을 보리라한다.

▶ 1933.1.2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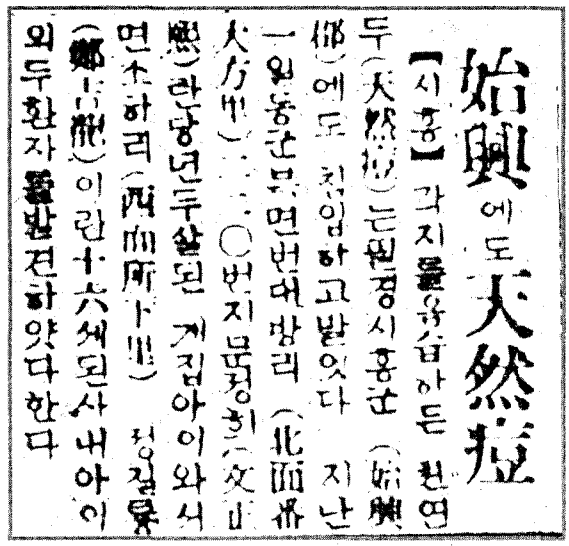


始興에 火災

시흥에 화재

지난 25일 오후 10시 15분에 시흥군 북면 본동리 가가 불을 피다가 실화하야 불은 때마침 서북풍을 응하야 화세가 맹렬하려 할때 로량진 소방활동으로 다행히 초가 여섯간만을 태우고 동 1시경에 진화하얏다 한다.

▶ 1933.3.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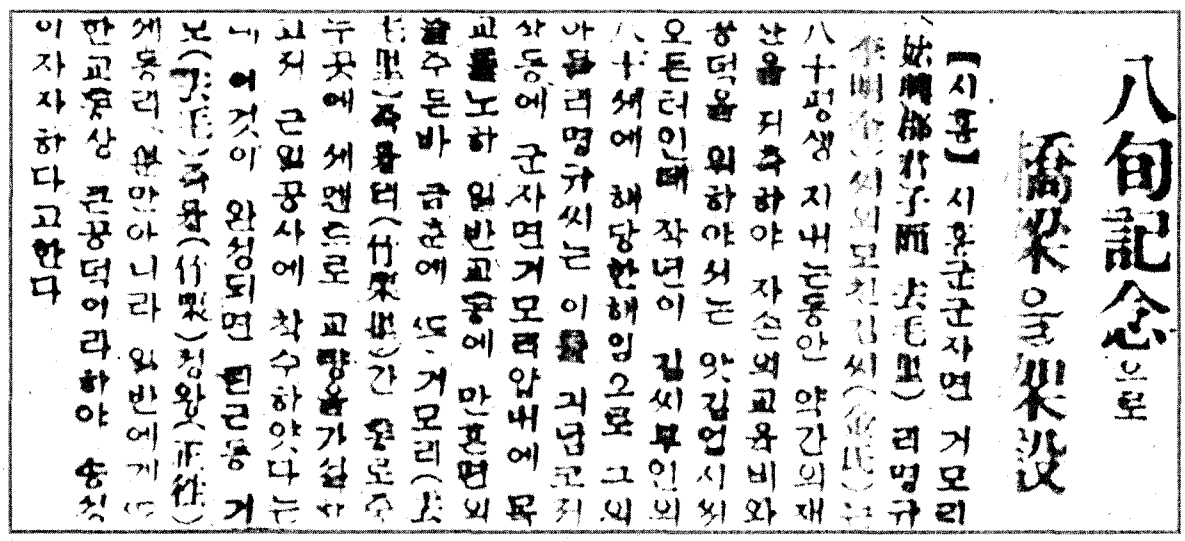
始興에도 天然痘

【시흥】 각지를 음습하든 천연두(天然痘)는 필경 시흥군(始興郡)에도 침입하고 말엇다 지난 一월 동군 북면 번대방리(北面 番大方里) ○번지 문정희(文正熙)란 당년 열두살된 계집아이와 서면 소하리(西面所下里) 정길룡(鄭吉龍)이란 十六세된 사내아이의 두환자를 발견하얏다한다

시흥에도 천연두

(시흥)각지를 음습하든 천연두는 필경 시흥군에도 침입하고 말엇다. 지난 1일 동군 북면 번대방리 220번지 문정희란 당년 12살된 계집아이와 서면 소하리 정길룡이란 16세된 사내아이의 두환자를 발견하얏다한다.

▶ 1933.3.13(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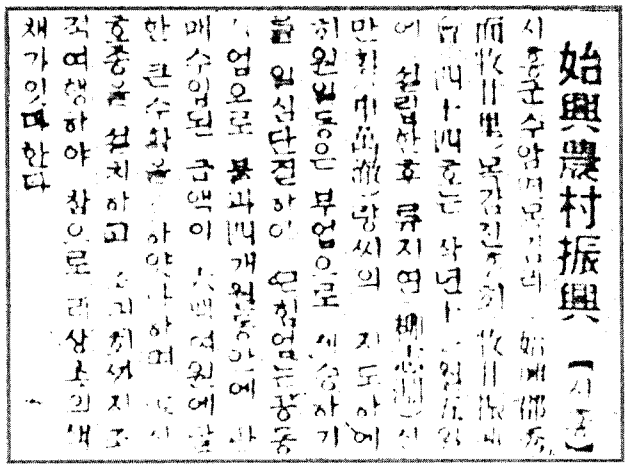
八旬記念으로 橋梁을 架設

【시흥】 시흥군군자면 거모리 (始興郡君子面 去毛里) 리명규 (李明奎)씨의모친김씨(金氏)는 八十평생 지내온동안 약간의재산을 저축하야 자손의교육비와 공덕을 위하야서는 아낌없이 써오든 터인데 작년이 김씨부인의 八十세에 해당한해임으로 그의 아들리명규씨는 이를 기념코저 산동에 군자면거모리앞내에 목교를노하 일반교통에 만흔편의를 주든바 금춘에 또 거모리(去毛里)죽율터(竹栗基)간 통로중 두곳에 세맨트로 교량을가설하고저 근일공사에 착수하얏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린근동 거모(去毛)죽율(竹栗)청왕(正往)세동리 뿐만아니라 일반에게 또한교통상 큰공덕이라하야 송성이 자자하다고한다

팔순기념 교량 가설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이명규씨의 모친 김씨는 80평생 지내는 동안 약간의 재산을 저축하여 자식의 교육비와 공덕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써오든 터인데 작년이 김씨부인의 80세에 해당한 해임으로 그의 아들 이명규씨는 이를 기념코저 산동에 군자면 거모리 앞내에 목교를 놓아 일반 교통에 많은 편의를 주든 바 금춘에 또 거모리 죽율리 간 통로 중 두 곳에 세맨트로 교량을 가설하고자 근일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데 이것이 완성되면 린근동 거모죽 율정왕 세동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또한 교통 상 큰 공덕이라 하여 송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 1933.3.1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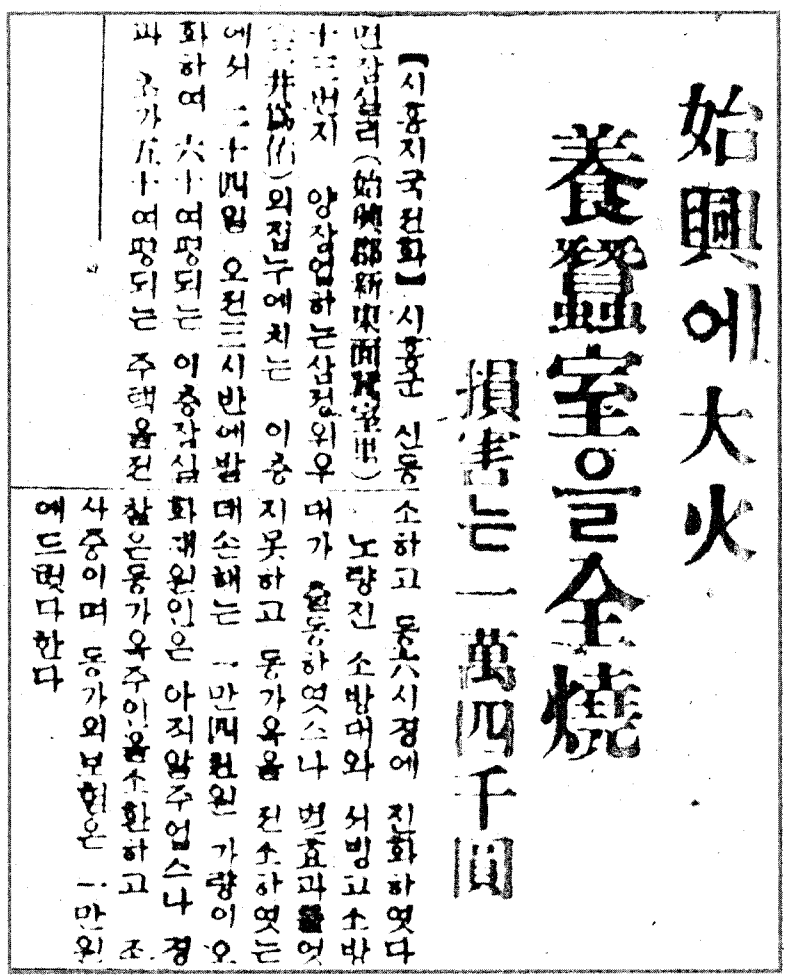
始興農村振興 【시흥】

시흥군 수암면 목감리 목감진흥회 44호는 작년 11월 5일에 설립한 후 류지연, 신만철, 양씨의 지도하에 회원일동은 부업으로 제승하기를 일심 단결하여 끈임업는 공동기업으로 불과 4개월 동안에 판매 수입된 금액이 6백여원에 달한 큰 수확을 하얏다하며 또 신호종을 설치하고 조기회까지 조직 여행하야 참으로 리상촌의 색채가 잇다한다.

시흥농촌진흥

(시흥)시흥군 수암면 목감리 목감진흥회 44호는 작년 11월 5일에 설립한 후 류지연, 신만철, 양씨의 지도하에 회원일동은 부업으로 제승하기를 일심 단결하여 끈임업는 공동기업으로 불과 4개월 동안에 판매 수입된 금액이 6백여원에 달한 큰 수확을 하얏다하며 또 신호종을 설치하고 조기회까지 조직 여행하야 참으로 리상촌의 색채가 잇다한다.

▶ 1933.3.25(3)4



始興에 大火

養蠶室을 全燒

損害는 一萬四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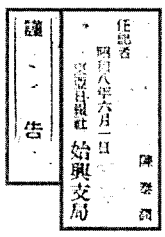
【시흥지국전화】시흥군 신동 소하고 동六시경에 진화하엿다 면잠실리(始興郡新東面蠶室里) 노량진 소방대와 서빙고소방 十三번지 양잠업하는삼정위우의대가 출동하엿스나 별효과를 엇 (三井洞作)외집누에치는 이층 지못하고 동가옥을 전소하엿는 에서 二十四일 오전三시반에발 데손해는 一만四천원 가량이오 화하여 六十여평되는 이층잠실과 화재원인은 아직알수업스나 경 초가집十여평되는 주택을전 찰은동가옥주인을소환하고 조 사중이며 동가의 보험은 一만원 에드럿다한다

시흥에 대화 양잠실을 전소

손해는 1만4천원

(시흥지국전화)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13번지 양잠업하는 삼정위우의집 누에치는 2층에서 24일 오전 3시30분에 발화하여 60여평되는 2층 잠실과 초가50여 평되는 주택전소하고 동6시경에 진화하엿다. 노량진 소방대와 서빙고 소방대가 출동하엿으나 별효과를 엇지 못하고 동가옥을 전소하엿는데 손해는 1만4천원 가량이고 화재원인은 아직 알 수 업스나 경찰은 동가옥 주인을 소환하고 조사중이며 동가의 보험은 1만원에 드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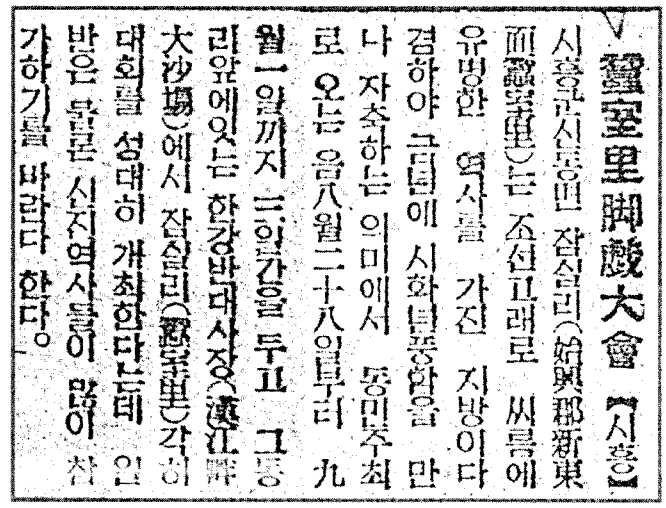
▶ 1933.6.8(3)12


謹告
陳泰錫
住所者 四月八日六月一日
始興支局

근고

임기자진태윤
소화팔년유월일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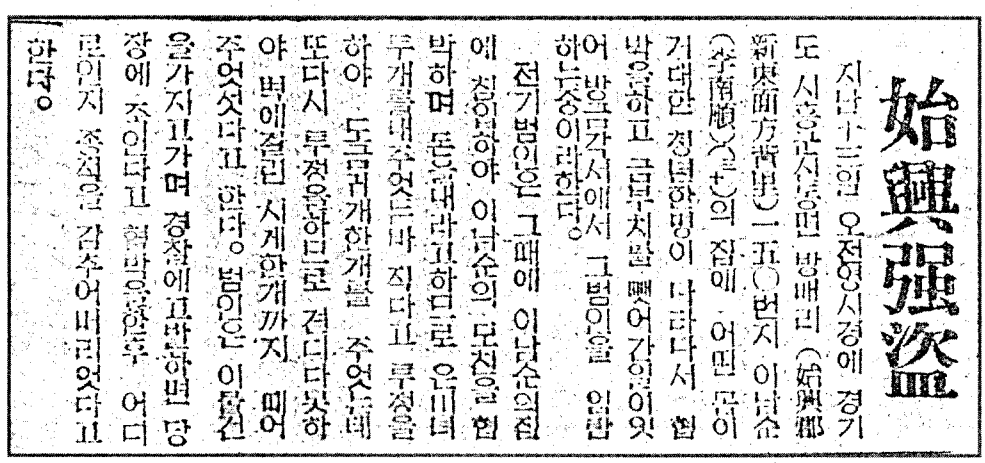
▶ 1933.10.17조(5)8


蠶室里脚殿大會 【시흥】
시흥군신동면 잠실리(始興郡新東
面蠶室里)는 조선고래로 씨름에
유명한 역사를 가진 지방이다
겸하야 금년에 시화년풍함을 만
나 자축하는 의미에서 동민주최
로 오는 음八월二十八일부터 九
월一일까지 三일간을 두고 그동
리앞에잇는 한강반대사장(漢江畔
大沙場)에서 잠실리(蠶室里)각희
대회를 성대히 개최한다는데 일
반은 물론 신진역사들이 많이 참
가하기를 바란다 한다。

잠실리각희대회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는 조선고래로 씨름에 유명한 역사를 가진 지방이다. 겸하야 금년에 시화년풍함을 만나 자축하는 의미에서 동민주최로 오는 음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을 두고 그동리앞에잇는 한강반대사장에서 잠실리 각희대회를 성대히개최한다는데 일반은 물론 신진역사들이 많이 참가하기를 바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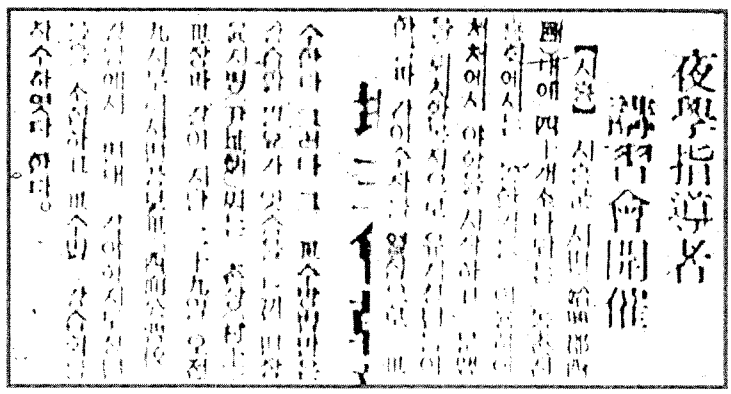
▶ 1933.11.15(2)6


始興强盜
지난十三일 오전영시경에 경기
도 시흥군신동면 방배리 (始興郡
新東面方背里) 一五〇번지 이남순
(李南順)(三七)의 집에 어떤 몸이
거대한 청년한명이 나타나서 협
박을하고 금부치를 뺏어간일이잇
어 방금각서에서 그범인을 엄탐
하는중이라한다。
전기범인은 그때에 이남순의집
에 침입하야 이남순의 모친을 협
박하며 돈을내라고하므로 은비녀
두개를내주엇든바 적다고 투정을
하야 도금귀개한개를 주엇는데
또다시 투정을하므로 견디다못하
야 벽에걸린 시계한개까지 떼어
주엇섯다고 한다。 범인은 이물건
을가지고가며 경찰에고발하면 당
장에 죽인다고 협박을한후 어디
로인지 종적을 감추어버리엇다고
한다。

시흥강도

지난13일 오전영시경에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150번지 이남순(30)의 집에 어떤 몸이 거대한 청년한명이 나타나서 협박을하고 금부치를 뺏어간일이잇어 방금각서에서 그범인을 엄탐하는중이라한다. 전기범인은 그때에 이남순의집에 침입하야 이남순의 모친을 협박하며 돈을내라고하므로 은비녀 두 개를내주엇든바 적다고 투정을 하야 도금귀개한개를 주엇는데 또다시 투정을하므로 견디다못하야 벽에걸린 시계 한개까지 떼어주엇섯다고 한다. 범인은 이물건을가지고가며 경찰에고발하면 당장에 죽인다고 협박을한후 어디로인지 종적을 감추어버리엇다고한다.

▶ 1933.1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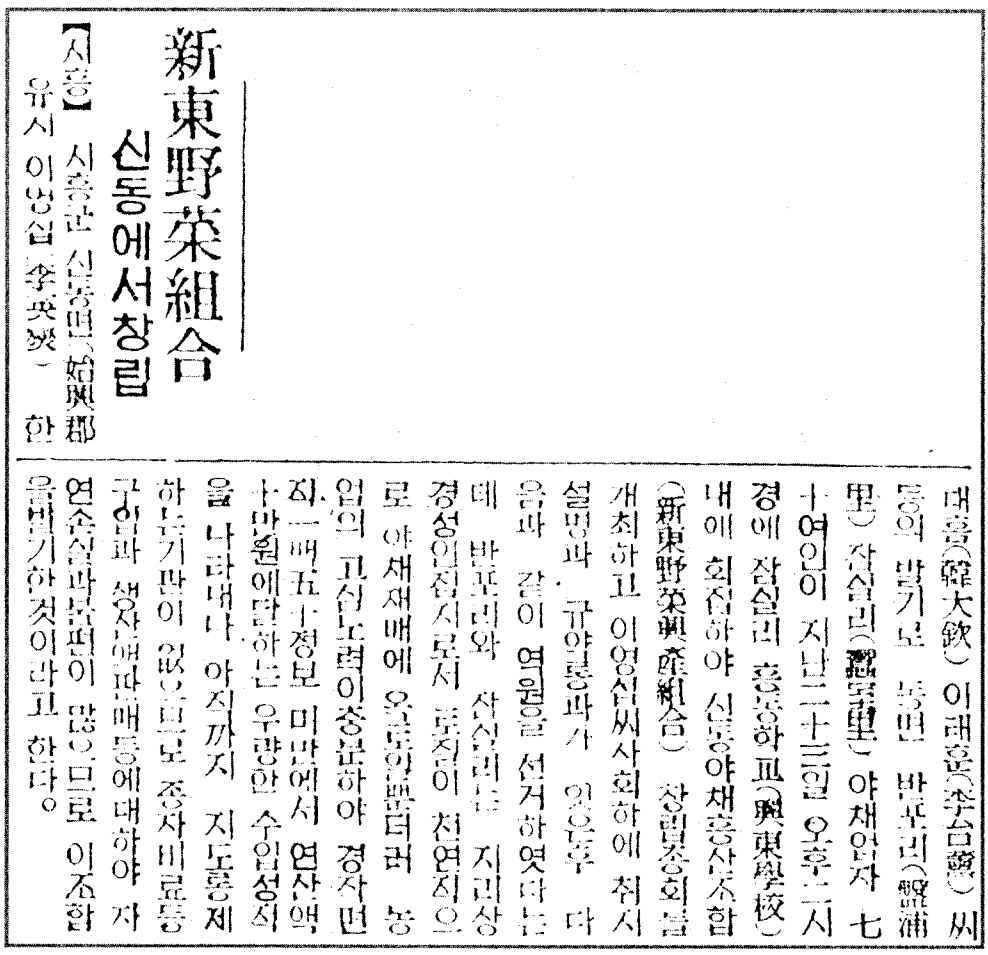


夜學指導者
講習會開催

야학지도자 강습회 개최

(시흥)시흥군 서면 내에 40개소나되는 농촌진흥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처처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문맹을 퇴치할 목적으로 유지청년들이 한글과 간이 수자를 열심히 교수한다. 그러나 그 교수 방법만은 강습할 필요가 잇슴을 느낀 면장 윤지병씨는 촌상 교장과 같이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서면 공보교 강당에서 면내 각 야학지도 청년들을 소집하고 강습회를 착수하엿다 한다.

▶ 1933.12.26



新東野菜組合
신동에서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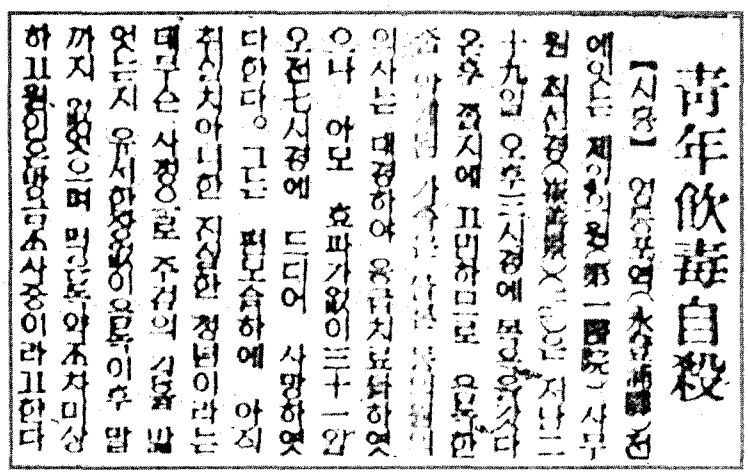
【시흥】 시흥군 신동면(始興郡 新東面) 유지 이영섭(李英燮) 한대흠(韓大欽) 이태훈(李台薰) 씨 등의 발기로 동면 반포리(盤浦里) 잠실리(蠶室里) 야채업자 七十여인이 지난二十三일 오후二시경에 잠실리 흥동학교(興東學校) 내에 회집하야 신동야채흥산조합(新東野菜興産組合)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영섭씨사회하에 취지설명과 규약통과가 잇은후 다음과 같이 역원을 선거하엿다는데 반포리와 잠실리는 지리상 경성인접지로서 토질이 천연적으로 야채 재배에 옥토일뿐더러 농업의 고심노력이 충분하야 경작면적 一백五十정보 미만에서 연산액 一십만원에달하는 우량한 수입성적을 나타내나 아직까지 지도통제하는기관이 업슴으로 종자비료등 구입과 생산액 판매등에 대하야 자연손실과불편이 만흠으로 이조합을발기한것이라고 한다。

신동야채조합

신동에서 창립

시흥군 신동면 유지 이영섭 한대흠 이태훈씨 등의 발기로 동면 반포리, 잠실리 야채업자 70여인이 지난 23일 오후 2시경에 잠실리 흥동학교 내에 회집하여 신동야채흥산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영섭씨 사회 하에 취지 설명과 규약 통과가 있은 후 다음과 같이 역원을 선거하였다는데 반포리와 잠실리는 지리상 경성인접지로서 토질이 천연적으로 야채 재배에 옥토일뿐더러 농업의 고심노력이 충분하야 경작면적 1백 5십정보 미만에서 연산액 1십만원에 달하는 우량한 수입 성적을 나타내나 아직까지 지도 통제하는 기관이 없음으로 종자비료 등 구입과 생산액 판매 등에 대하여 자연 손실과 불편이 많음으로 이 조합을 발기 한 것이라고 한다.

▶ 1934.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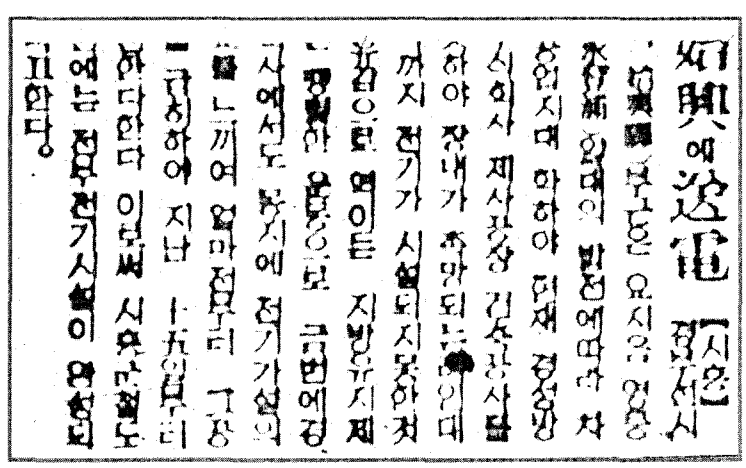

青年飮毒自殺

【시흥】 영등포역(永登浦驛) 전에잇는 제일의원(第一醫院) 사무원 최선경(崔善慶)(二二)은 지난二十九일 오후三시경에 물을 먹고 자살을 하였다 오후 五시에 H씨하므로 음독한 줄 알게되어 의사는 대경하여 응급치료를 하엿으나 아모 효과가업시 三十一일 오전七시경에 드디어 사망하엿다한다。그는 편모슬하에 아직 취임치아니한 진실한 청년이라는데 무슨 사정으로 주검의 길을 밟엇는지 유서한장업시 음독이후 말까지 업섯으며 먹은 독약조차 미상하고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고 한다

청년 음독자살

영등포역전에 잇는 제일의원사무원 최선경(22)은 지난 29일 오후 3시경 목욕을 갓다 온후 졸지에 고민하므로 음독한 줄 알게된 가족은 물론 동의원의 의사는 대경하여 응급치료를 하엿으나 아무 효과가 없이 31일 오전 7시경에 드디어 사망하엿다 한다. 그는 편모슬하에 아직 취임치 아니한 진실한 청년이라는데 무슨 사정으로 주검의 길을 밟엇는지 유서 한 장 없이 음독이후 말까지 없엇으며 먹은 독약조차 미상하고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고 한다.

▶ 1934.7.20(5)4


始興에送電 【시흥】

시흥에 송전

(시흥) 경부선 시흥역 부근은 요지음 영등포일대의 발전에 따라 공업지대 화하야 현재 경성방직회사 제사공장 건축공사를 하야 장래가 촉망되는 터인대 이태까지 전기가 시설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기든 지방유지 제씨는 맹렬한 운동으로 금번에 경성방직에서도 동지에 전기 가설의 필요를 느끼여 얼마전 부터 그 공사를 급히 하여 지난 15일부터 공사를 한다한다 이로써 시흥군 철도역에는 전부전기시설이 완성된다고 한다.

▶ 1934.12.11

永登浦多年懸案인 地下道開鑿問題

◇또다시 주민간에 대두하여 公職者等連署로陳情

【시흥】 신흥공업도시로 장족의 발전을 보고잇는 영등포(永登浦)에 十여년전부터 중대현안으로 잇는 역구내지하도 개착문제는 이래五六차나 철도당국에 진정을 하야왓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안어 일반은 당국의무성의함을 항상비난하야오든터인데 근래에 十개년계속사업으로 명춘三월에 준공되는 제방공사를비롯하야 한강치수공사, 경성영등포간 十五간도로의완성, 한강인도교의가체(架替) 등 경비七백여만원의 관영공사가 착착진행되는 한편에 종방(鐘紡)의진출이 확정되고 기타각종 유수한공장들이 접종진출된다는설이 잇게되자 인구가 격증하야 실로 놀랄만치 발전을보이고잇다。그런데 영등포는 경부, 경인철도가 시가억중앙을 관통하야 양쪽으로 쪼기여잇는시가와 시가 당국에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엿든바 관계당국에서 세밀히 조사한결과 총면적 二백九十二정보 인원수 二백三十二인 면세총액 一만九천四백五十五원으로 결정하엿다 특수면세 二만여원을 합하면 총면세액은 실로 四만여원으로 전부과금액 十五만원의 약三분지一이나 된다한다。

영등포 다년 현안인 지하도 개착 문제

또다시 주민간에 대두하여 공식자 등 연서로 진정

(시흥) 신흥 공업도시로 장족의 발전을 보고 잇는 영등포에 10여년 전부터 중대현안으로 잇는 역구내 지하도 개착문제는 이래 5.6차나 철도 당국에 진정을 하야 왓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안어 일반은 당국의 무성의 함을 항상 비난하야 오던 터인데 근래에 10개년 계속사업으로 명춘 3월에 준공되는 제방공사를 비롯하야 한강 치수공사, 경성 영등포간 15간의 도로의 완성, 한강인도교의 가체 등 경비 7백여만원의 관영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한편에 종방 동방의 진출이 확정되고 기타 각종 유수한 공장들이 접종 진출된다는 설이 잇게되자 인구가 격증하야 실로 놀랄 만치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영등포는 경부 경인 철도가 시가의 중앙을 관통하야 양쪽으로 쪼기여 잇는 시가와 시가 당국에 연명으로 면세 신청을 하엿든바 관계당국에서 세밀히 조사한 결과 총면적 291정보 인원수 232인 면세총액 1만9천4백55원으로 결정하엿다. 특수면세 2만여원을 합하면 총 면세액을 실로 4만여 원으로 전부과금액 15만원의 약 삼분지 일이나 된다한다.

▶ 1934.12.25(5)4

生活難苦에 縊首하고自殺

【시흥】 지난二十二일 오전十시경에 북면신길리(北面新吉里) 방학정(放鶴亭)수림속에 목을 매여죽은 시체를 통행인이 발견하고 고발한바 영등포경찰서에서는 검시(檢屍)의사를 대동하고 검시한결과 자살이 분명하다는데 그는영등포읍영등포리(永登浦邑永登浦里)五四번지에사는손기현(孫基鉉)(三八)으로서 전날밤九시경에 술이대취하야 자기집에 들어갓다가 빈궁에 쪼들리는 그의 처와 가정풍파가잇은후 그밤으로 나와서 죽은것으로 판명되엇다 한다。

생활난 끝에 액수하고 자살

(시흥) 지난 22일 오전 11경에 북면 신길리 수림속에 목을 메어 죽은 시체를 동행인이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발한바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통구의사를 대동하고 검시한 결과 자살이 분명하다는데 그는 영등포읍 영등포리 54번지에 사는 손기현(38)으로서 전날밤 9시경에 술이 대취하야 자기 집에 들어갓다가 빈궁에 쪼들리는 그의 처와 가정 풍파가 잇은 후 그밤으로 나와서 죽은 것으로 판명되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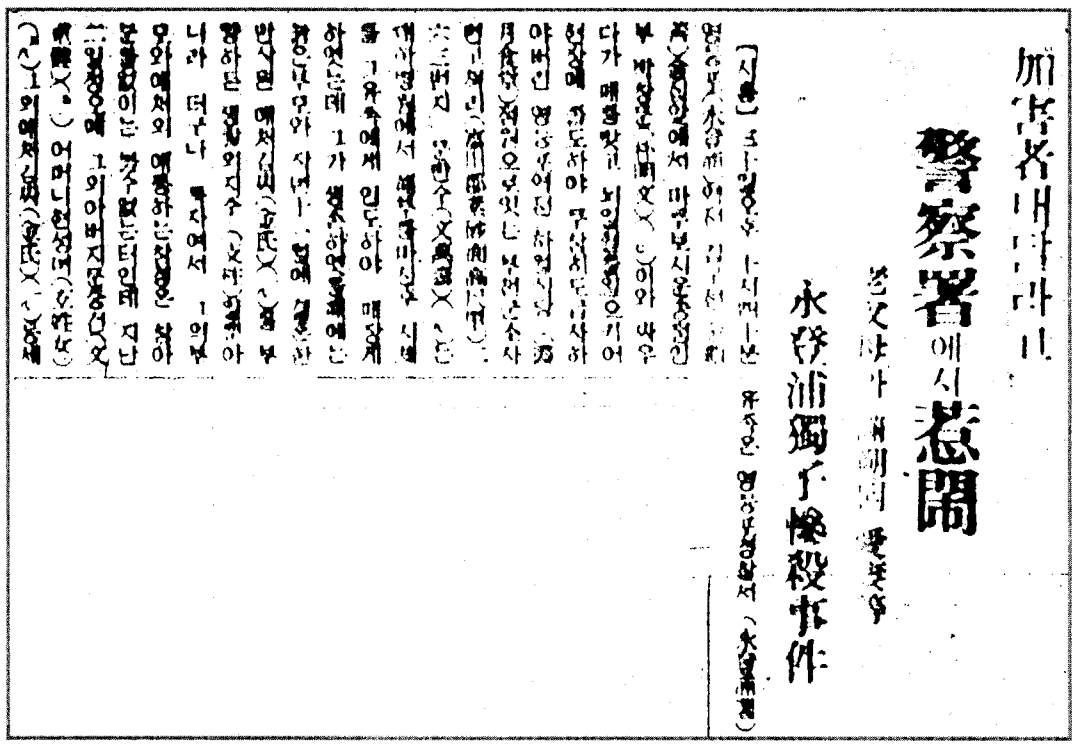
▶ 1935.2.4(4)8

九百餘貧民同情

兩氏의喜捨金으로

【시흥】 수일전영등포(永登浦)가 二백여에 인구가 九백여인이 실업가 이창훈(李昌勳)씨로부터 금三백원 유지 김주연(金周演)씨로부터 금백원을 각각 휴대하고 영등포경찰서장(永登浦警察署長)에게당(二월오)이게당(二월오) 영등포경찰서장 전중에 五十전 은화 二백매 합계 백원을 경찰서에가지고와서 三十가마니의 쌀로 二백여나되는 빈민들에게 다만 쌀한되씩이라도 나누워 달라고 부탁하엿스므로 동서에서는 감격에 넘치어 즉시 관내 극빈자를 조사한바 구제를 요하는 호수가 二백호에 인구가 九백여인이나 되므로 백미 三十가마니를 사서 나누어주기로 되엇는데 예상외의 비곤자가 많다는 말을 들은 이창훈씨는 다시 지난 이일 오전 중에 五十전 은화 二백매 합계 백원을 경찰서에 가지고 와서 三十가마니의 쌀로 二백호나

▶ 1935.11.5(2)



加害者내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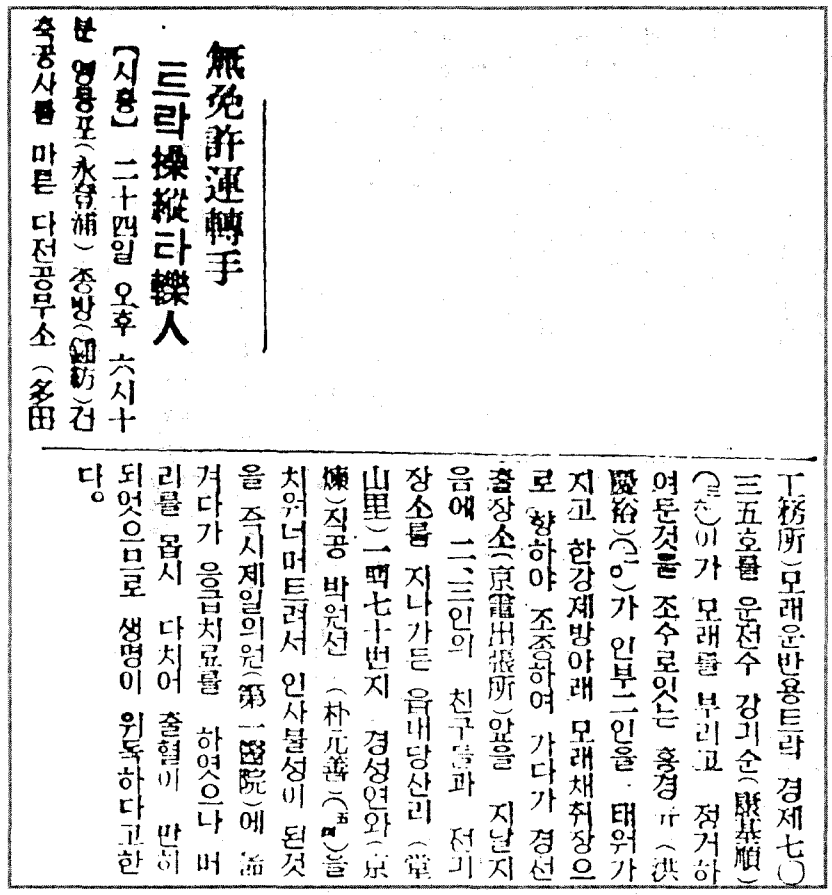
警察署에서 惹鬧

永登浦獨子慘殺事件

가해자 내달라고 경찰서에서 야료

노부모와 만삭된 애처 등
영등포 독자참살사건
(시흥) 30일 오후 10시40분 영등포 역전 김구선술집 앞에서 마루보시 운송점 인부 박창문이와 싸우다가 매를 맞고 뇌일혈을 일으키어 현장에 졸도하야 무참히도 급사하야 버린 영등포역전 하월식당 점원으로 잇는 부천군 소사면 고척리 263번지 문만수는 대학병원에서 해부를 마친 후 시체를 그 유족에게 인도하야 매장케 하엿는데 그가 생존하엿을 때에는 늙은 부모와 작년 십일월에 결혼한 만삭된 애처 김씨를 부양하는 생활의 지주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독자여서 그의 부모와 애처의 애통하는 참경은 참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터인데 지난 2일 정오에 그의 아버지 문중건 어머니 현성녀 그의 애처 김씨 등 세 유족은 영등포경찰서의 사법주임을 찾아 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가해자 박가를 내어주면 당장 에서 잡아먹겟다고 야단을 쳐서 사법계원들은 머리를 알타가 보냇다고 한다.

▶ 1935.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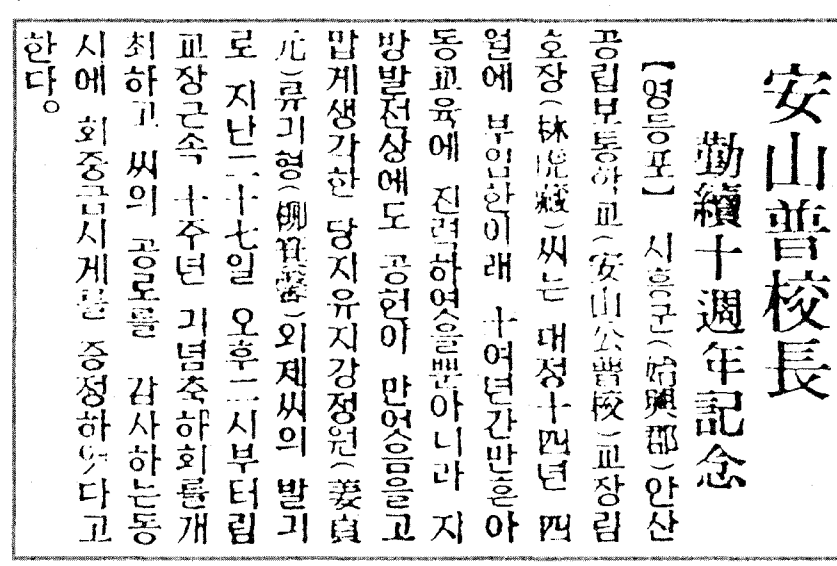


無免許運轉手
트락操縱타驛人
【시흥】 二十四일 오후 六시十분 영등포(永登浦) 종방(鍾紡)건축공사를 마튼 다전공무소(多田工務所)모래운반용트락 경제七〇三五호를 운전수 강기순(康基順)(ㄹ)이가 모래를 부리고 정거하여둔것을 조수로잇는 홍경유(洪慶裕)(ㄱㅇ)가 인부二인을 태워가지고 한강제방아래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야 조종하여 가다가 경선출장소(京電出張所)앞을 지날지음에 二,三인의 친구들과 전기장소를 지나가든 읍내당산리(堂山里)一백七十번지 경성연와(京城煉)직공 박원선(朴元善)(ㄱㅁ)을 치어너머트려서 인사불성이 된것을 즉시제일의원(第一醫院)에 업혀다가 응급치료를 하엿으나 머리를 몹시 다치어 출혈이 만히 되엇으므로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무면허 운전수 트락 조종타 격인

(시흥) 24일 오후 6시 10분 영등포 종방 건축공사를 마튼 다전공무소 모래 운반용트락 경제7035호를 운전수 강기순이가 모래를 부리고 정거하여둔 것을 조수로 잇는 홍경유가 인부2인을 태워가 지고 한강제방아래 모래 채취장으로 향하여 조종하여 가다가 경전출장소 앞을 지날 즈음에 2,3 인의 친구들과 전기장소를 지나가든 읍내 당산리 170번지 경성연와 직공 박원선을 치워 너머트려서 인사불성이 된 것을 즉시 제일의원에 옮겨다가 응급치료를 하엿으나 머리를 몹시 다치어 출혈이 많이 되었으므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 1935.12.31(4)



安山普校長
勤續十週年記念
【영등포】 시흥군(始興郡)안산공립보통학교(安山公普校)교장 림호장(林虎藏)씨는 대정十四년 四월에 부임한이래 十여년간만흔아동교육에 진력하엿을뿐아니라 지방발전상에도 공헌이 만엇음을고맙게생각한 당지유지강정원(姜貞元)류긔형(柳基馨)외제씨의 발긔로 지난二十七일 오후二시부터림교장근속 十주년 긔념축하회를개최하고 씨의 공로를 감사하는동시에 회중금시계를 증정하엿다고한다。

안산보교장 근속 10주년 기념

(영등포) 시흥군 안산공립보통학교 교장 림호장 씨는 대정14년 4월에 부임한 이래 10여년간 만흔 아동교육에 진력하엿을 뿐 아니라 지방발전상에도 공헌이 만엇음을 고맙게 생각한 당지 유지 강정원 류기형외 제씨의 발기로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림교장 근속 10주년 기념축하회를 개최하고 씨의 공로를 감사하는 동시에 회중금시계를 증정 하엿다고 한다.

▶ 1936.2.27(2)4

始興牛臥皮雜貨商에

短刀三人强盜侵入

一家五名을結縛、現金을强奪

主人의大腿骨을刺傷

【영등포지국전화】 작二十五일 오후十一시반경에 시흥군북면 전대방리 우와피동(始興郡北面全大方里牛臥皮洞) 잡화상 한홍삼(韓興三)씨방에 三인조 강도三명이와서 문을부수고다리며 양초를달라고 하였는데 나가본즉 강도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칼을 각각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동생 관홍이(觀興)의다리를찔러 왼편다리에 중상을입히엇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아래동생까지 허리띠로 묶어서 방안으로드러가자고하야 그집식구五명을모조리 결박지어놋고 전기를끈후에 현금을 내라고 요하야 금궤속에서 현금十원七十五전을 받어가지고 범인들은 어대로인지 도망하엿다。집안사람들은 겨우 이튼날 새벽二시에 정신을차려 영등포서에 알리어 곧서장이하 비상소집을하고 총동원하야 범인을엄탐중이다。

그날이 마침 주인아들의 생일으로 유식을 만드러 유쾌히 먹고 잘려고 하는데 그와같이 침입하엿고 현장에는 아모증거품이없고 상한곳은 대퇴골 깊이 六센치 기리四센치로 곧영등포 홍승철병원(洪承喆病院)에 입원치료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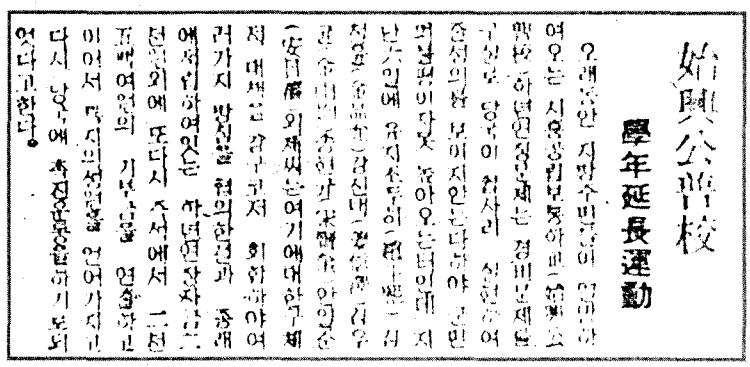
시흥 우와피 잡화상에 단도 3인 강도침입

일가5명을 결박 현금을 강탈

주인의 대퇴골을 자상

(영등포 지국전화) 작 25일 오후 11반경에 시흥군 북면 전대방리 우와피동 잡화상 한홍삼 방에 3인조 강도3명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양초를 달라고 하였는데 나가본즉 강도들은 길이8촌 가량의 칼을 각각 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홍이의 다리를 찔러 왼편 다리에 중상을 입히엇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 아래 동생까지 허리띠로 묶어서 방안으로 드러가자고 하야 그 집 식구 5명을 모조리 결박지어 놓고 전기를 끈 후에 현금을 내라고 강요하야 금궤 속에서 현금10원75전을 받어 가지고 범인들은 어디로 인지 도망하엿다. 집안 사람들은 겨우 이튼날 새벽2시에 정신을 차려 영등포서에 알리어 곧 서장이하 비상소집을 하고 총동원하여 범인을 엄탐 중이다. 그날이 마침 주인아들의 생일으므로 유식을 만드러 유쾌히 먹고 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침입하엿고 현장에는 아무 증거품이 없고 상한 곳은 대퇴골 깊이 6센티 길이 4센티로 곧 영등포 홍승철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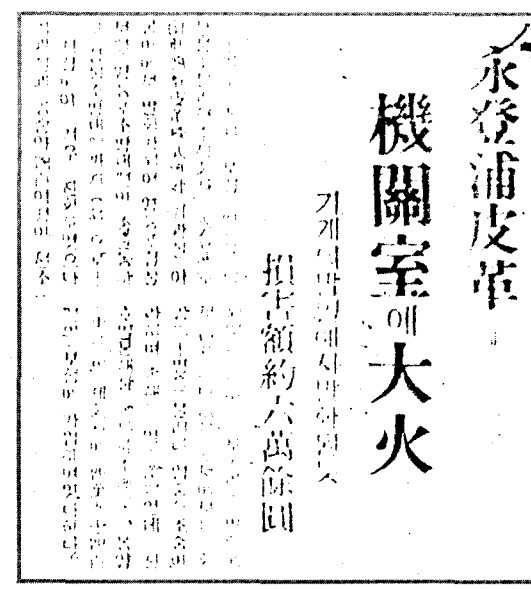
▶ 1936.5.13(4)4


始興公普校
學年延長運動

시흥 공보교 학년연장 운동

오래동안 지방주민들이 열망하여오는 시흥공립보통학교 학년연장문제는 경비문제를 구실로 당국이 쉽사리 실현하여줄 성의를 보이지 안는다 하야 군민의 불평이 자못 높아 오는 터인데 지난 6일에 유지 조두희, 김철윤, 강신택, 김우균, 송현규, 안일순의 제씨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코저 회합하야 여러 가지 방침을 협의한 결과 종래에 적립하여잇는 학년연장자금 이천원외에 또다시 즉석에서 2천5백여원의 기부금을 얻어 가지고 다시 당국에 촉진운동을 하기로 되엇다고 한다.

▶ 1936.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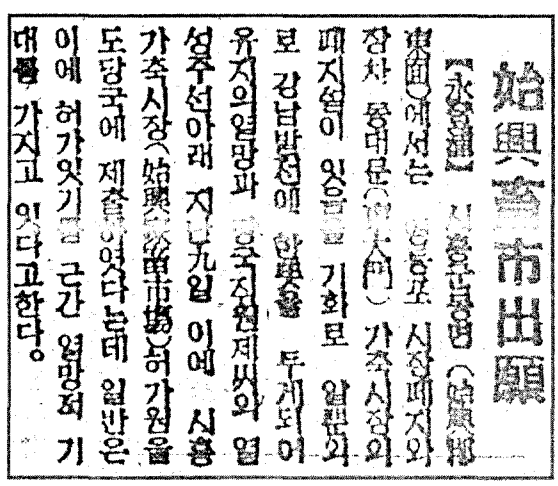

永登浦皮革
機關室에大火
損害額約六萬餘圓

영등포피혁 기관실에 대화 기계의 발열에서 발화된 듯

손해액 약 6만여원

10일 오후 9시 10분 경 영등포 당산정조선피혁주식회사 기관실 아궁이에서 발화가 되어 영등포경찰서원 영등포소방대원이 총출동하고 경성소방대원까지 응원으로 11시경에야 겨우 진화하였으나 기관실과 공장 약 사백여 평이 전소되엇다. 원인은 보일러의 발열에서 난 듯 하나 영등포서에서는 화공 20명을 불러다 엄중 취조중이라 하며 손해는 약 6만원 인데 신호일본해상 동양의 제 회사에 4억9천4백여 원의 보험에 가입하엿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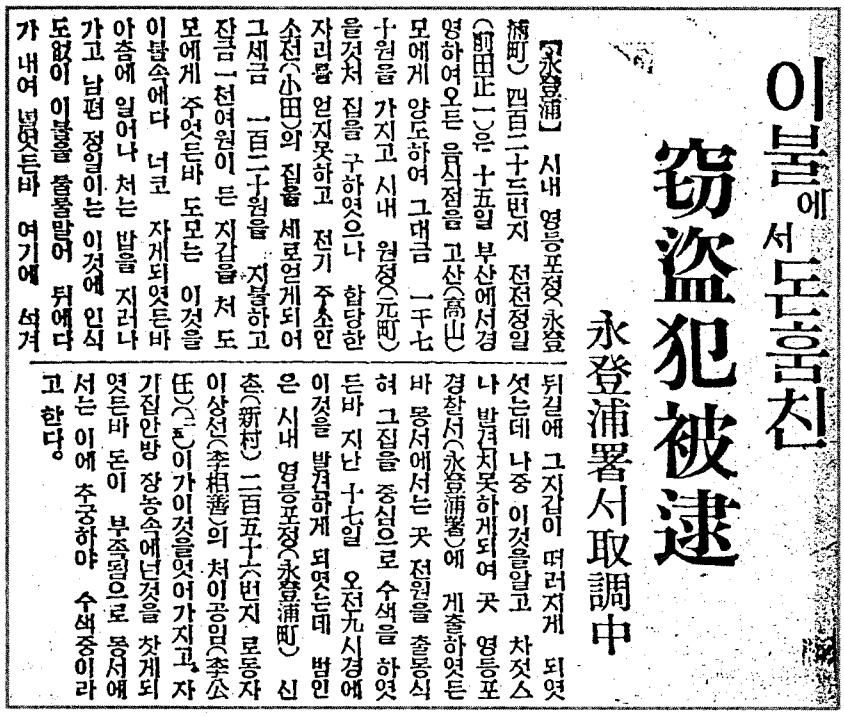
▶ 1937.6.19조(4)12


始興市出願

시흥축시출원

(영등포)시흥군동면에서는 영등포 시장폐지와 장차 동대문 가축시장의 폐지설이 잇음을 기회로 일뿐외로 강남발전에 한뜻을 두게되어 유지의열망과 당국직원제씨의 열성주선아래 지난9일 이에 시흥가축시장 허가원을 도당국에 제출하엿다는데 일반은 이에 허가잇기를 근간 열망적 기대를 가지고 잇다고한다.

▶ 1937.6.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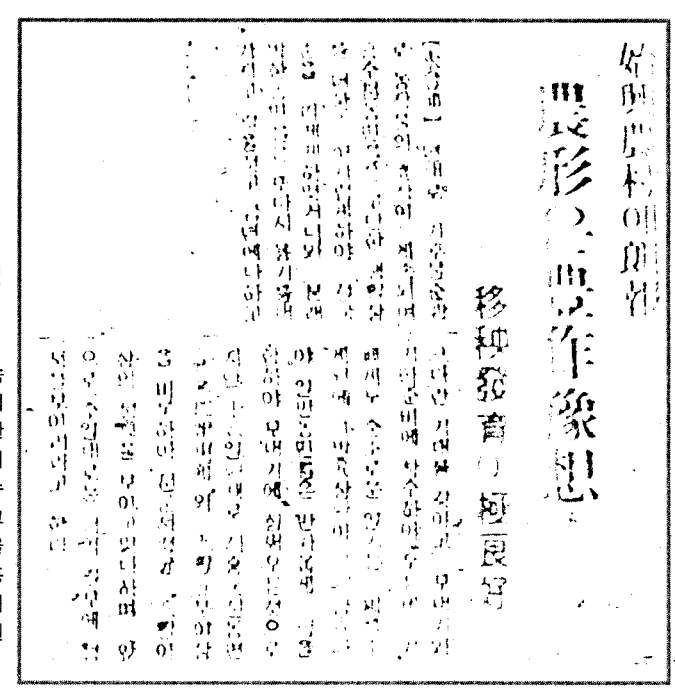
이불에서 돈 훔친 절도범 피체

永登浦署서取調中

【永登浦】 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 四百二十三번지 전전정일(前田正一)은 十五일 부산에서 경영하여오든 음식점을 고산(高山)모에게 양도하여 그대금 一千七十원을 가지고 시내 원정(元町)을 것처 집을 구하엿으나 합당한 자리를 얻지못하고 전기 주소인 소전(小田)의 집을 세로얻게되어 그세금 一百二十원을 지불하고 잔금 一천여원이 든 지갑을 처 도모에게 주엇든바 도모는 이것을 이불속에다 너코 자게되엿든바 아츰에 일어나 처는 밥을 지러나가고 남편 정일이는 이것에 인식도업시 이불을 둘둘말아 뒤에다가 내여 널엇든바 여기에 석겨 뒤길에 그 지갑이 떠러지게 되엿섯는데 나중 이것을알고 차젓스나 발견치못하게되여 곳 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에 게출하엿든바 동서에서는 곳 전원을 출동식혀 그집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엿든바 지난 十七일 오전九시경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엿는데 범인은 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 신촌(新村) 二百五十六번지 로동자 이상선(李相善)의 처이공임(李公任)(二五)이가이것을엇어가지고 자기집안방 장농속에넌것을 찾게되엿든바 돈이 부족됨으로 동서에서는 이에 추궁하야 수색중이라고 한다.

영등포서 서 취조 중
(영등포) 시내 영등포정 423번지 전전성일은 15일 부산에서 경영하여오든 음식점을 고산모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 1070원을 가지고 시내 원정을 것처 집을 구하엿으나 합당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전기 주소인 소전의 집을 세로 얻게되어 그 세금 120원을 지불하고 잔금 1천여원이 든 지갑을 처 도모에게 주엇든바 도모는 이것을 이불 속에다 너코 자게되엿든바 아침에 일어나 처는 밥을 지러나가고 남편 정일이는 이것에 인식도 없이 이불을 둘둘 말아 뒤에다가 내어 열엇던 바 여기에 석겨 뒤길에 그 지갑이 떨어지게 되엿섯는데 나중 이것을 알고 차젓으나 발견치 못하게 되어 곳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하엿는바 동서에서는 곳 전원을 출동시켜 그 집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엿든바 지난 17일 오전 아홉 시경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엿는데 범인은 시내 영등포정 신촌 256번지 노동자 이상선의 처 이공임(25)이가 이것을 엇어 가지고 자기 집 안방 장롱 속에 넌 것을 찾게 되엿든바 돈이 부족됨으로 동서에서는 이에 추긍하야 수색중이라고 한다.

▶ 1937.6.20(4)7



시흥 농촌에 낭보

농형은 풍작예상
이앙발육이 극양호
(영등포) 년내로 기후불순 관계로 농작물의 흉작이 계속되여 시흥 수천 농민들은 고난한 생활상을 더한층 어지럽게 하야, 결국 농촌을 피폐하게 하엿거니와 본래 순박한 농민들은 또 다시 용기를 내어 가지고 팔을 것고, 금년에나 하고 크다란 기대를 갖이고 모내기와 기타 준비에 착수하야 오던 바 기쁘게도 순조로운 일기는 비를 주게되어 그 발육상황이 극히 양호하야 일반 농민들은 반가웁게 힘을 합하여 모내기에 힘써오는 것으로 지난 18일 현재로 시흥군 신동면의 9할 5푼 이상을 비롯하여 전군서 평균 8할 이상의 성적을 보이고 잇다하며 앞으로 수일내로는 거의 필모에 성적을 보이리라고 한다.

▶ 1937.6.22조(8)7

始興麥作大增

【永登浦】 始興郡은 大個面을 가진純農村으로서 前年凶年으로 因하야 一般農民들은 더욱困窮에 처하여잇든바 今年에이르자 一般農民들은다시그 希望에 抱負를가지고 不撤晝夜 그耕作에힘써오든터더욱 今年麥作은 前年에比하야 十一割增 平年에比하야 四割五分增加하얏슴으로 一般農民들은 큰 기쁨에잇다고 한다

시흥맥작대풍

(영등포) 시흥군은 팔개면을 가진 순농촌으로서 전년흉년으로 인하야 일반농민들은 더욱곤궁에처하여잇든바 금년에이르자 일반농민들은 다시 그 희망에 포부를가지고 불철주야 그경작에 힘써오든터더욱 금년맥작은 전년에 비하야 십일할증 평년에 비하야 사할오분증가하얏슴으로 일반농민들은 큰기쁨에잇다고 한다.

▶ 1937.6.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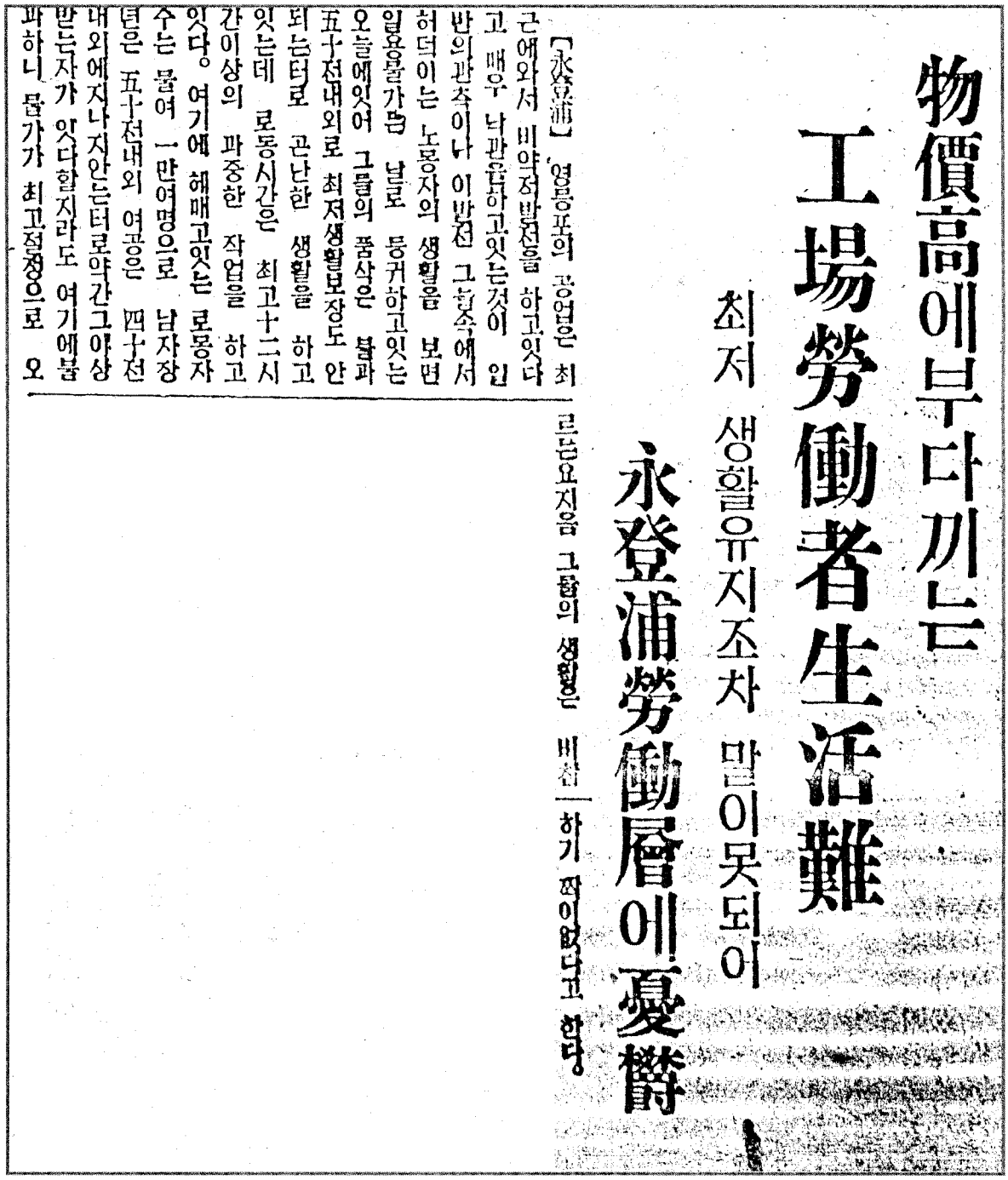
自作農逐年減少
小作、日傭은激增
始興農村의不況

【永登浦】 시흥군(始興郡)은 본대농업지대로서 군당국으로부터 루년그개량을 지도하야 오든터 많은 발전과 개량을보게되어 날로 그성과를 이루고 잇든 중이나 작년에 이르어 전년인 소화十년의그것보다 농가호수가 四백여호 의 감소를 보인것은 통계가 말하는 이상한 현상의 하나이라할것이다。더구나 자작농에잇서 소화十년보다 十一년에 백여호가 감소된것인데 반하야 자작겸소작과 로농자의 날쌕군이 붓쩍늘어잇는 것은 농가불황이라고 볼수잇다고 한다。

자작농축년감소

소작 일용은 격증

▶ 1937.6.24(7)



物價高에부다끼는 工場勞働者生活難

최저 생활유지조차 말이못되어 永登浦勞働層에憂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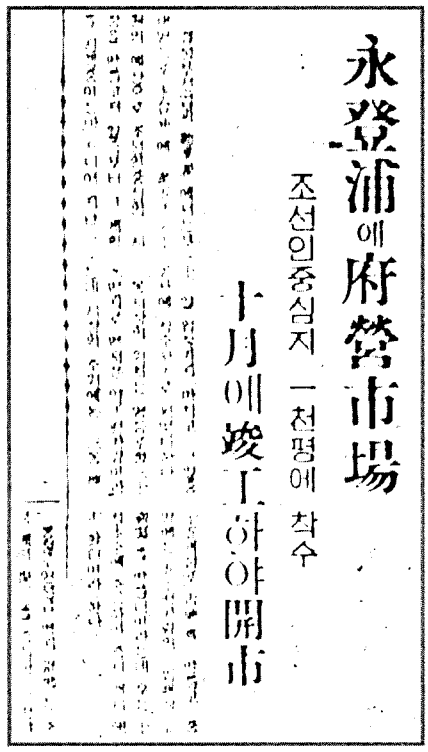
【永登浦】 영등포의 공업은 최근에와서 비약적발전을 하고잇다고 매우 낙관을하고잇는것이 일반의관측이나 이발전 그늘속에서 허덕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면 일용물가는 날로 등귀하고잇는 오늘에잇어 그들의 품삭은 불과 五十전내외로 최저생활보장도 안되는터로 곤난한 생활을 하고잇는데 로동시간은 최고十二시간이상의 파중한 작업을 하고잇다。여기에 헤매고잇는 로동자수는 물여 一만여명으로 남자장년은 五十전내외 여공은 四十전내외에지나지안는터로약간그이상 받는자가 잇다할지라도 여기에불과하니 물가가 최고절정으로 오르는요즘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없다고 한다。

물가고에 부다끼는 공장 노동자생활난

최저 생활유지조차 말이 못되어
영등포 노동층에 우울

(영등포) 영등포의 공업은 최근에 와서 비약적 발전을 하고있다고 매우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의 관측이나 이 발전 그늘 속에서 허덕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면 일용물가는 날로 등귀하고있는 오늘에 있어 그들의 품삭은 불과 50전 내외로 최저생활보장도 안되는 터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은 최고 십이시간이상의 과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헤매고있는 노동자수는 무려 1만여명으로 남자 장년은 50전 내외 여공은 40전 내외에 지나지 안는 터로 약간 그 이상 받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불과하니 물가가 최고절정으로 오르는 요즘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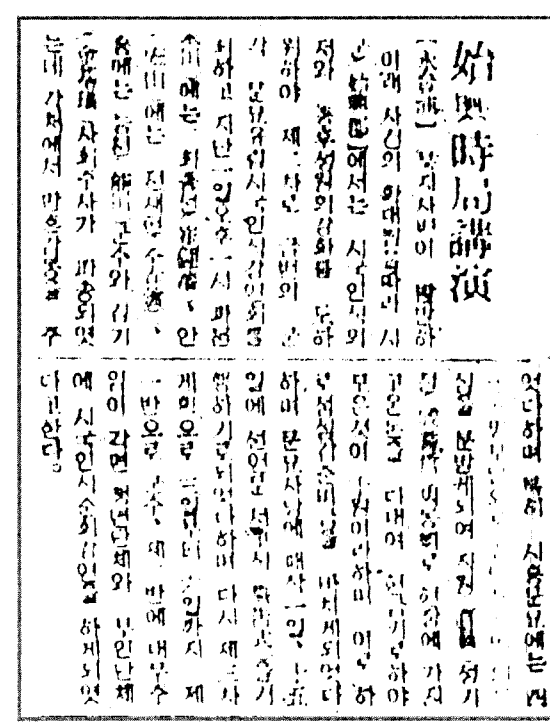
▶ 1937.7.27(2)


永登浦에 府營市場
조선인중심지 一천평에 착수
十月에竣工하야開市

영등포에 부영시장

조선인 중심지 1천 평에 착수
10월에 준공하야 개시
경성부 산업과에서는 부내 영등포에 1만5060원의 예산으로 조선인 중심의 시장을 만들 고저 일찍부터 그 계획을 진행 중이던 바, 드디어 지난 23일 입찰까지 마치고 근일중 공사에 착수하기로 되엇다 한다. 동시장의 위치는 영등포구청 39번지로 면적은 약 1천평 가량이라는데 시장의 주위에는 3동 15개 점포을 만들고 중앙에는 50평 가량의 입매장을 만들 것이라는데 오는 10월 초순에 준공하야 즉시 개시 할 터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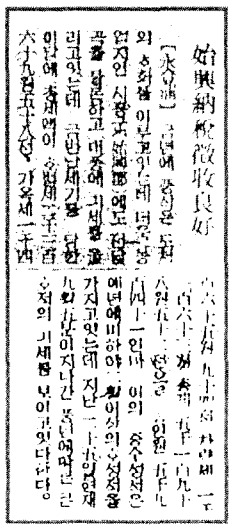
▶ 1937.9.4(2)


始興時局講演

시흥시국강연

(영등포) 북지사변이 발발한 이래 사건의 확대됨을 따라 시흥군에서는 시국인식의 고저와 종후성원의 강화를 도하기 위하여 제 이차로 금번의 군내 각 문묘유림시국인식강연회를 개최하고 지난 일일 오후 한시 과천에는 최종선, 안산에는 전재헌, 시흥에는 능천 군수와 김기황 사회주사가 파송 되엿다는데 각처에서 많은 감동을 주엇다 하며 특히 시흥문묘에는 45명 모임으로 강연요지에 의문심을 분발케되어 직원 성기철씨 동의로 현장에 가지고 온 돈을 다내어 헌금키로 하여 모은 것이 10원이라하며 이로 하로 점심갑준비금을 바치게되엇다하며 문묘사당에 매삭 일일 15일에 선언문 선고식를 거행하기로 되엇다하며 다시 제 삼차 계획으로 삼일부터 육일까지 제 1반으로 군수, 제 2반에 내무주임이 각 면 청년단체와 부인단체에 시국인식 순회강연을 하게 되엿다고 한다.

▶ 1937.10.2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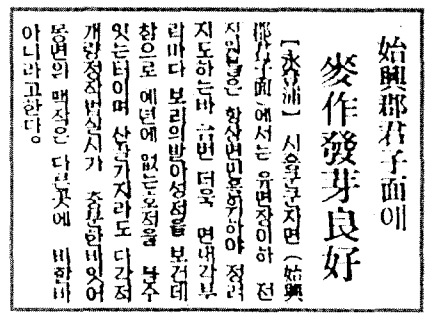


始興納稅徵收良好

시흥납세 징수 양호(始興 納稅 徵收 良好)

[영등포] 금년에 풍작은 도처의 호화를 이루고잇는데 더욱 농업지인 시흥군에도 전답곡을 물론하고 대풍에 과세를 물리고 잇는데 금번 납세기를 당한 이 달에 총 세액이 호별세 이천삼백육십구원 오십팔전, 가옥세 일천사백육십오원 구십사전, 차량세 일천삼백육십삼원 총계 오천일백구십팔원 오십이전으로 총인원 오천구백사십일인바 이의 증수성적은 예년에 비하야 이할 이상의 호성적을 가지고 잇는데 지난 이십오일 현재 구할 오분이 지나간 풍년에 따른 큰 호적의 과세를 보이고 잇다 한다.

▶ 1937.11.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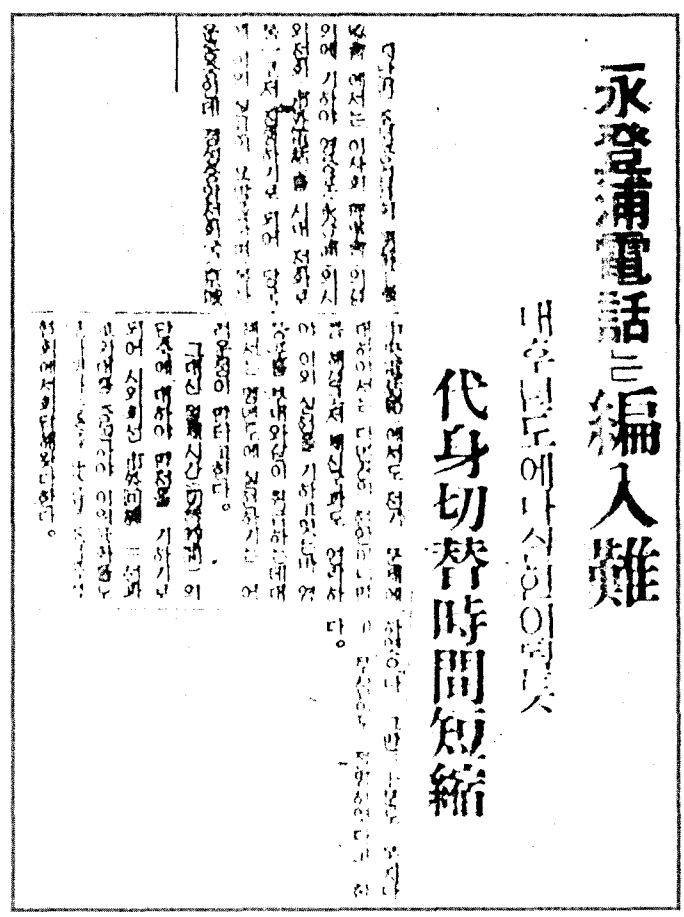


始興郡君子面에
麥作發芽良好

시흥군 군자면에 맥작발아 양호(始興郡 君子面에 麥作 發芽 良好)

[영등포] 시흥군 군자면에서는 유 면장이하 전 직원들은 항상 면민을 위하야 정려 지도하는바 금번 더욱 면내 각 부락마다 보리의 발아 성적을 보건데 참으로 예년에 없는 호적을 볼 수 잇는터이며 산골가지라도 다각적 개량 정작법 실시가 충분한바잇어 동면의 맥작은 다른곳에 비할 바 아니라고 한다.

▶1937.11.27(2)



永登浦電話는 編入難
내후년도에나 실현이될듯
代身切替時間短縮

영등포 전화는편입 난

내 후 년도에나 실현이 될 듯
대신 절체 시간 단축

지난번 조선공업협회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야 영등포의 시외전화를 시내전화로 통일코저 진행하기로 되어 당국에 이의 실현의 요망을 하며 목하 운동중인데 경성중앙전화국에서도 전기문제에 대하여서는 다년간의 현안이니 만큼 해결코자 체신국과도 연락하야 이의 실현을 기하고 잇는바 영등포를 부내와 같이 취급하는데 대해서는 명년도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만타고 한다.

그 대신 절체 시간의 단축에 대하야 만전을 가하기로 되어 시외회선 3선과 교환대를 증설하야 이의 융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을 25일 조선공업협회에서 회답해 왓다 한다.

▶ 1937.12.1(8)

代地料十割引上
借地人等不納決議
始興良才里借地人結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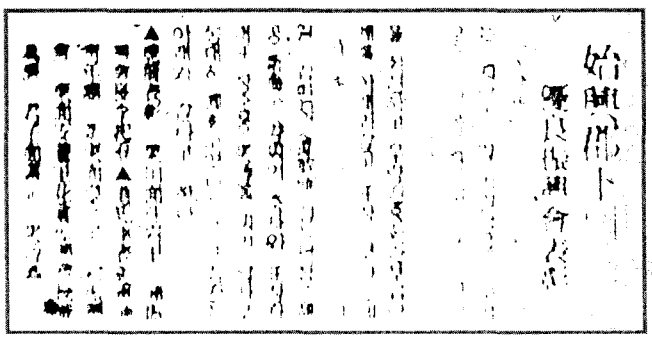
【永登浦】 시내서빙고역전 (西氷庫驛前) 박모(朴某)시흥군 신동면양재리(始興郡新東面良才里)에 대지(貸地)평천평을금년에처음으로 사게되엿다는데 동래에징수한 도로는 공평치못하다는 이유로가장공정히 간평하엿다고하야 일반작인에게 통지하엿는바 최소二할고、최고十할까지 늘리여 이는 공정이아니라 당년에 금리를뽑자는데 지내지안는 수단이라하야일반작인들은 크게분개하고 전혀불납할의사를 가지고잇다는데 앞으로 저하개정이없으면 동맹을하는 동시 소작위원회에까지 진정을상달하리라고한다

대지료 10할 인상

차지인등불납결의
시흥 양재리 차지인 결속

(영등포) 시내서빙고역전 박모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에 대지 몇 천평을 금년에 처음으로 사게 되엿다는데 동래에 징수한 도로는 공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가장 공정히 간평하엿다고하야 일반작인에게 통지하엿는바 최소 2할고, 최고 10할까지 늘리여 이는 공정이 아니라 당년에 금리를 뽑자는데 지내지 안는 수단이라하여 일반 작인들은 크게 분개하고 전혀 불납할 의사를 가지고잇다는데 앞으로 저하개정이 없으면 동맹을 하는 동시 소작위원회에까지 진정을 상달하리라고 한다.

▶ 1938.2.14(2)10



시흥군하의 우량진흥회 표창

(영등포) 시흥군에서는 지난 11일 □□을 기하야 오후□시 동 군청 회의실에 군내 진흥회간부 관계 유지제씨 수십명을 회견하고 우량진흥회 간부급 단체를 아래와 같이 표창하였다는데 □□□□□□□□□□□□김□□ 경찰서장 □□□양씨의 축사와 표창자 대표 장□□□씨의 답사로 성대히 폐회하였다는데 표창자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

▶ 1938.12.3.(2)3

始興에 短刀强盜

主人夫妻亂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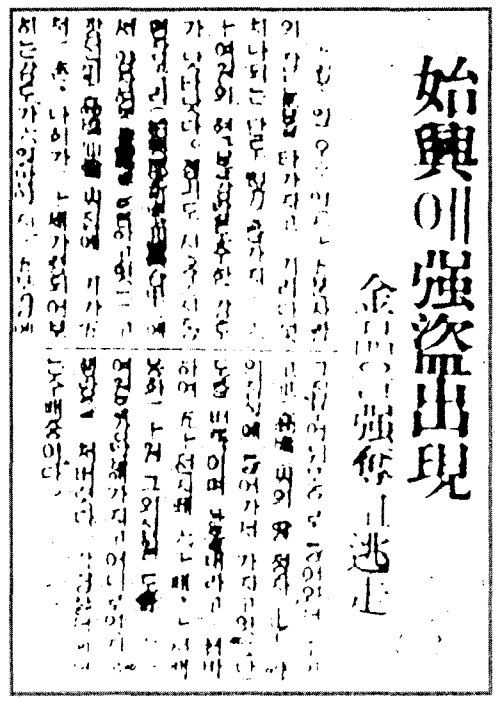
各地에 犯人을 手配中

始興郡北面도림리(始興郡北面 도림리) 九〇三번지 삼전구차장(三田九次郎) 방에 二일오전四시三十분경에 괴한으로 추정되는 二十七八세가량의 괴한이 침입하야 주인에게 단도를 겨누고 돈을 강요해도 이것을 들어주지안자 들엇던단도로 주인부처의 얼골을 여러곳 찌른다음 도망하엿다. 이급보에 접한 소관영등포경찰서에서는 비상활동을 개시하고 경기도경찰부를 통하야 각지에 범인 수배중이다.

시흥에 단도강도

주인부처난자
각지에 범인을 수배중
시흥군북면도림리 903번지 삼전구차랑 방에 2일오전 바지를 입은 노동자풍의 이십칠세 가량의 괴한이 침입하야 주인에게 단도를 겨누고 돈을 강요해도 이것을 들어주지안차 들엇던 단도로 주인부처의 얼골을 여러곳 찌른다음 도망하엿다. 이급보에 접한 소관영등포경찰서에서는 비상활동을 개시하고 경기도경찰부를 통하야 각지에 범인 수배중이다.

▶ 1939.5.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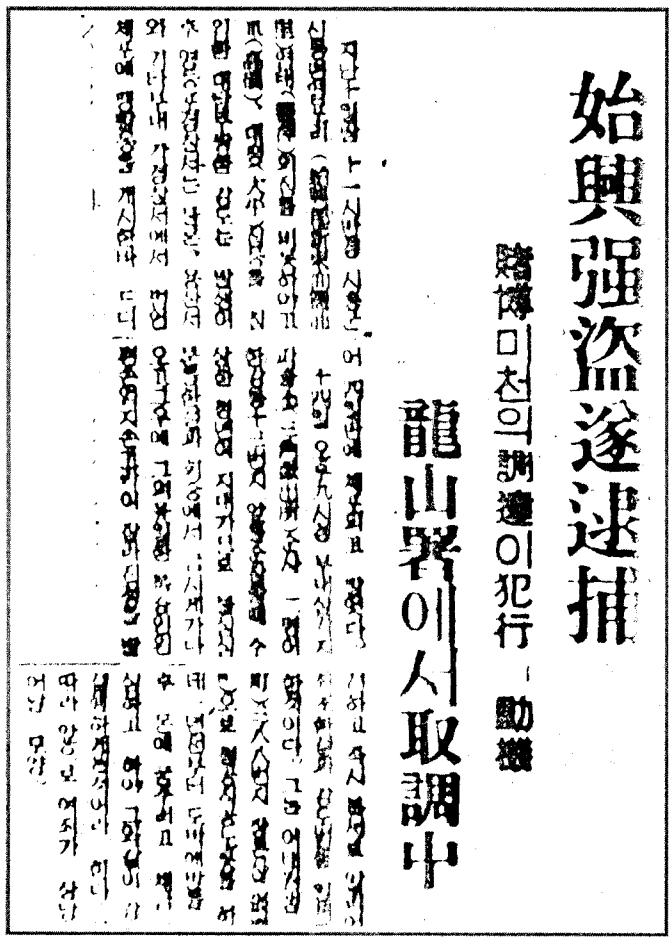
始興에 强盜出現

金品을 强奪코 逃走

시흥에 강도출현

금품을 강탈코 도주
5월 6일 오후 10시 15분 사람이 잠든 틈을 타가지고 기리 5치나 되는 단도를 가지고 60여 원의 현금의 강탈 도주한 강도가 나타났다.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잠곡리서 양잠업을 하고 잇는 고광선씨 집에 키가 5척 1촌, 나이가 20세 가령 되어 보이는 강도가 6일 밤 10시 19분 경에 그 집 부엌 뒷문으로 들어와서 주인 고씨의 딸 정자양의 침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잇는 단도를 번뜩이며 돈을 내라고 협박하여 50전 지폐 60매, 전매통화 11원 그 외 십원 도합ㅁㅁㅁㅁ여원을 강탈 해 가지고 어디로 인지 줄행랑을 처버렷다. 각 경찰서에서는 수배중이다.

▶ 1939.5.16(2)6



始興强盜逐逮捕

踏博口천의 調遭이犯行 動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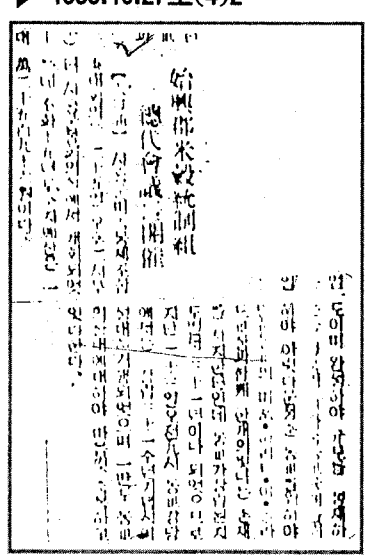
龍山署에서取調中

시흥강도수체포 도박마천의 조달이 범행동기

용산서에서 취조 중

지난 10일밤 11시 반경 시흥군 신동면 염포리 염택의 집을 비롯하여 고교, 대평 집을 침입한 대담무쌍한 강도는 발생이후 영등포경찰서는 물론, 용산서와 기타부내 각 경찰서에서 범인 체포에 맹 활동을 개시한바 드디어 4일만에 체포되고 말았다. 14일 오후 9시경 부내 삼각지 파출소순사 2명이 한강동 13번지 앞을 순찰할 때 수상한 청년이 지내가므로 불심 심문을 한 결과 현장에서 금시계가 나오고 그 후에 그의 유일한 증거인 왼편 손 엄지손가락이 잘라진 점을 발견하고 즉시 본서로 알리어 취조한 결과 강도범을 체포 한 것이다. 그는 이태원정 388번지 장은산으로 철공직공 노동을 하는데 3년전부터 도박에 발을 들인 후 돈에 굼주리고 채금■■심■고 하야 그와 같이 강도짓을 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그에 따라 앞으로 여죄가 상당들어날 모양.

▶ 1939.10.27조(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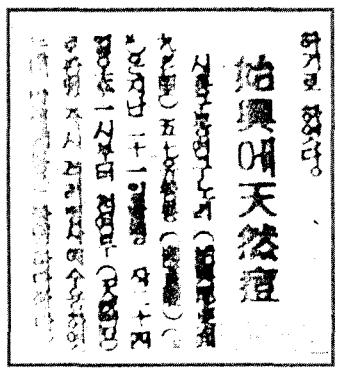


시흥군 미곡통제조

총대회의를 개최

(시흥) 시흥군 미곡 통제조합 총대회의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흥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엇는데 소화 15년도 수지예산은 1만2천5백9십6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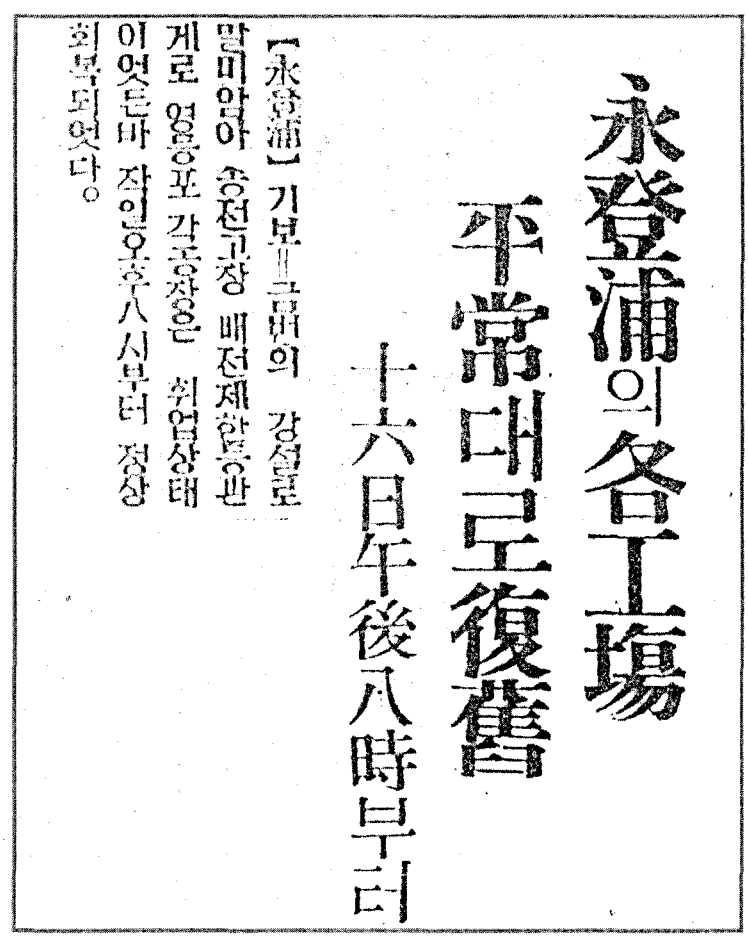
▶ 1940.1.26(2)5



시흥에 천연두

시흥군 동면 구노리 57 유황룡은 지난 21일 발병 작 24일 오후 1시부터 천연두로 판명 즉시 격리병자에 수용하엿는데 발생계통은 불명하다한다.

▶ 1940.2.20



永登浦의 各工場

平常대로復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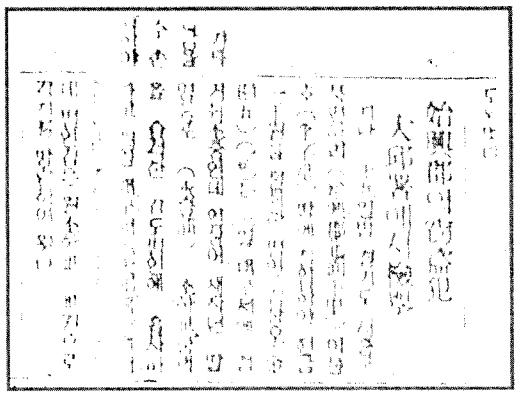
十六日午後八時부터

【永登浦】기보=금번의 강설로 말미암아 송전고장 배전제한등관계로 영등포 각공장은 휴업상태이엇든바 작일오후八시부터 정상회복되엇다。

영등포의 각 공장

평상대로 복구
16일 오후 8시부터
(영등포) 기보=금번의 강설로 말미암아 송전고장 배전 제한 등 관계로 영등포 각 공장은 휴업상태이엇든 바 작일 오후8시부터 정상회복 되엇다.

▶ 1940.3.5조(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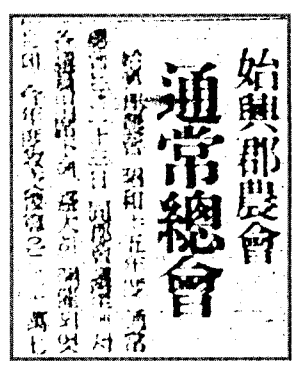
시흥군의 절도범 대구서 검거

지난 29일밤 경기도 시흥군 북면 하리 이불호방에 침입하야 현금 1천원을 절취한 범인 김상오는 3일 대구서에 검거 취조중인데 인상이 재작년 말 영등포 소학교장 댁을 습격한 강도범인에 흡사하다고 4일 대구서에서 경성구내 각서에서 조회가 잇섯는데 범인 김은 원소학교 교원으로 각지를 방랑하여 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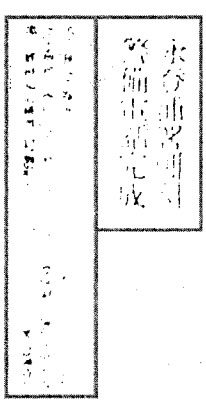
▶ 1940.3.30(8)

시흥군농회

통상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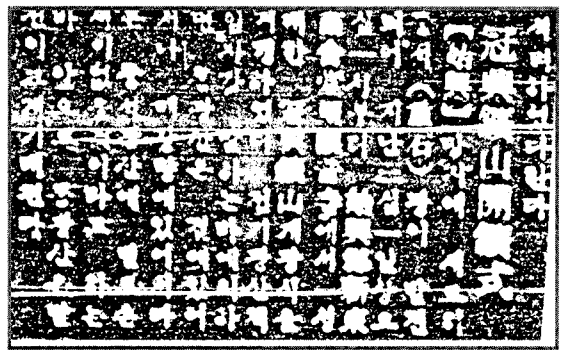
▶ 1940.4.20



영등포서에서 경비 전화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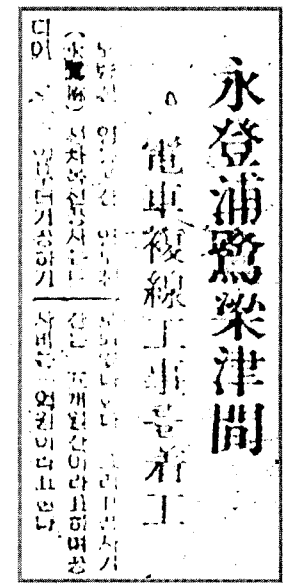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작년이래 각 관내 각 주재소 경비전화 가설을 위하여 공사 진행 중이던 바 작 18일로써 그 완성을 보게되엇다. 이제는 어느 주재소에나 경비전화 없는 곳은 없게되엇으나 이로써 경비통화의 □□□를 기하리라 한다.

▶ 1951.1.3



관흥광산 개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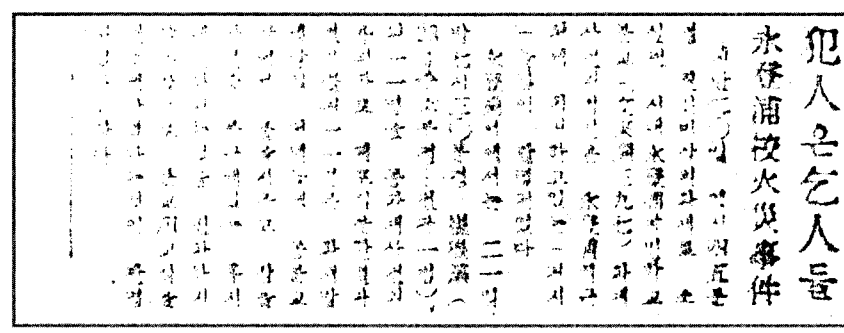
▶ 1950.5.22(2)5


永登浦鷺梁津間
電車複線工事

영등포 노량진간 전차복선공사를 착공

노량진 영등포간 전차복선공사는 드디어 21일부터 기공하기로 되엇다한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5개월간이라고 하며 공사비는 2억 원 이라고 한다.

▶1959. 9. 22(3)9


犯人은 乞人들
永登浦校火災事件

영등포교 화재사건 범인은 걸인들

지난 20일 10시 45분 경 신원미상의 화재로 소실된 시내 영등포(永登浦)초등학교 분교 화재 사건의 범인은 영등포역 근처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들임이 판명되엇다. 영등포서에서는 21일 밤 7시 30분 경 최■■(23 전과 일범)외 11명을 동 화재사건의 용의자로 체포 심문한 결과 전기 최 외 11명은 화재발생당일 저녁 늦게 동 분교장에서 불을 피우고 잠을 자던 중 부근에 있는 휴지에 인화되는 것을 진화하지 않은 탓으로 분교 4 교실을 전소케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시흥군편

苦學堂素人劇團

今日永登浦로出發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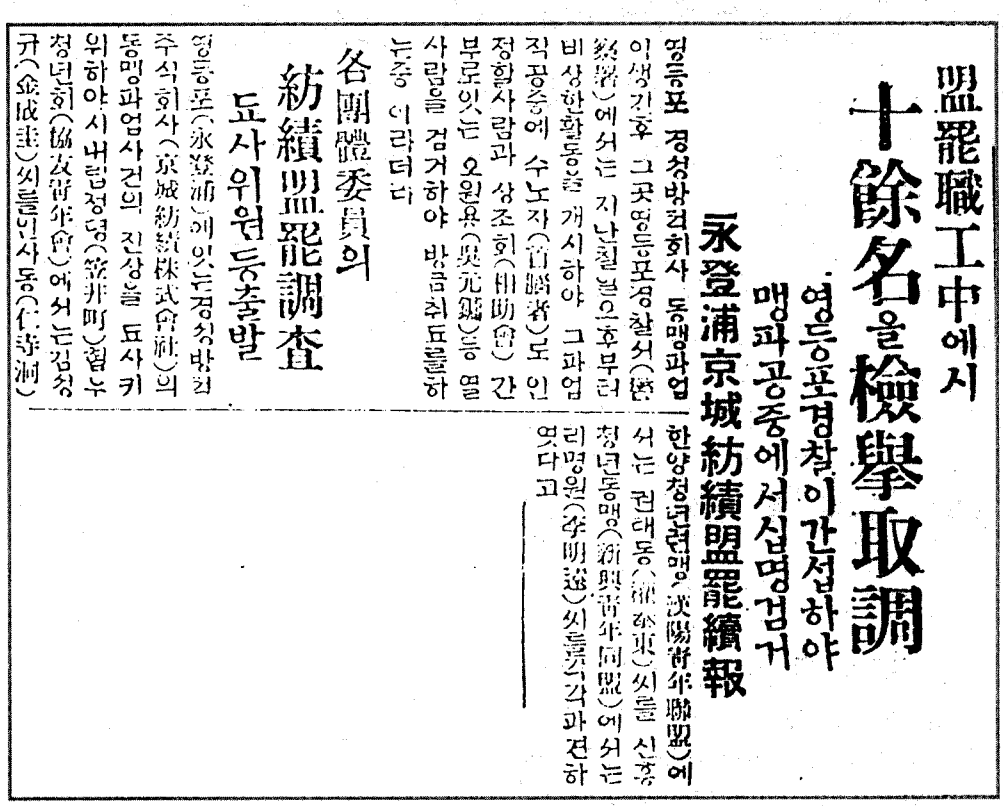
데일회시험을성황으로마치고

동대문밧안암동(安岩洞)에잇는고학당에서 소인극단(素人劇團)을조직하야가지고 하긔휴학을리용하야 각디방을순회할터인데 재작일밤에는먼저 시험하기의하야 그 당교실에서 데일회로흥행한다 함은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날밤에 일긔가 씨는듯이 더웁도불구하고 고학당을동정하는 마음으로 모히여온관람객은 예상밧게 다수에일으럿성황을이루엇스며

완락극중 에한사람인리인환(李仁煥)씨는무산자의교육긔관을사랑하야 긔부금오원으로써 동정을표하엿고 그극단일행은 래 십칠일밤에 금일명등포(永登浦)를 향하야 출발할터인데 그들의흥행하는각본(脚本)은 고정(苦情)이막과 황금국(黃金國)이막과 우정(友情)삼막등인데 그각본의내용도자미잇고 출연자의기술도소인극으로는

매우연숙 하거니와각본이자미잇느니보다 출연자의기술이 정교하니하는것보다도 무산자의자뎨로 학문을배호고자하야 웅집생활을하며 매일조밥으로 련명을하야가는 그들의사정을동정하야 간곳마다 재작야와가티 예상밧게성황을일울것을 가히예측할수 잇슬뿐안이라 그각본내용은 현사회리면에잡겨잇는불합리(不合理)한점을솔직하게글이여내인것이라아모라도한번볼필요가잇더라

▶ 1926.5.9 朝(2)



盟罷職工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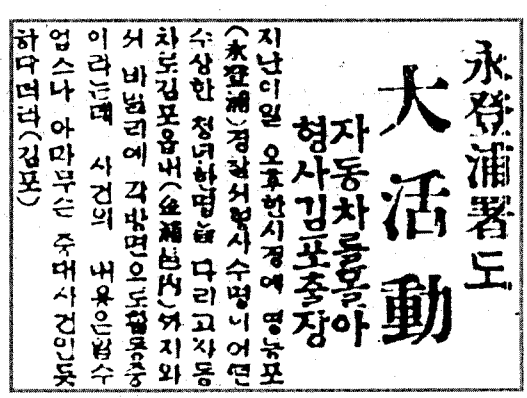
十餘名을 檢擧取調.
永登浦 京城紡績盟罷로 경찰은 相助會간부등을 검거

▶ 1926.5.21 朝(2)

異晩圭氏 放免

경성방적주식회사 영등포공장 동맹파업사건으로 파송되엿든 異晩圭氏와 파업직공 다수방면

▶ 1926.6.5 夕(2)



永登浦署도

大活動
자동차를 몰아 형사 김포 출장

▶ 1926.11.14 夕(2)

關係업는 者에게

無理하게 自意差押

영등포금융조합서기가

一般의 非難이 藉藉

시흥군 노등포 금융조합은 장래 유망한 리상디(李相迪)인 영등포에잇서 다방경제의 중심긔관(中心機關)이되며 산업개발(産業開發)상 그사명을 다하지아니하면아니될뿐아니라 세상도볼구하고 근일에와서는 사무원들의 태도가년우나교만불손(驕慢不遜)

▶ 1927.2.16 朝(2)

慰安講演盛況

장내장꾀는인산인해

본보시흥지국(始興支局)에서보독자위안강연을 연다함은 거보한바어니와 예정과가티 지난 십삼일에는 영등포 부덕관 (永登武德館)에서 여사리긍종 (李栢鍾)씨가 『세바람』이라는 제로열변한 웅변을토하야 만장청중에게 만흔늣김을 주고그이튼날인십사일에는 본시주필 안재홍(安在鴻)씨가 『조선인의 생존권리』라는 연제로로량진(老良津)공학교(鳳鳴學校)에서 열변을 토하야 [illegible] 장내 청중은인산인해의 더성황을 이루엇고특히 후원하든구미양행(歐米洋行)에서는 『이러케오느라 사흘하야강연장에잠여하시아흔이에게도듯게하얏다』는데이번가튼성황은 일즉이 못나도량진에서처음보는것이엇더라(시흥)

독자위안강연 인산인해

▶ 1928.11.29 (4)

湧興講習所

學藝會盛況

始興禁北面木洞里(興洞)湧興講習所에서는二十四日午后七時부터同會館에서 [illegible] 學藝會가開催되엇섯는데 [illegible] 의順序를 아래와 [illegible] 男女兒童의 [illegible] 와 [illegible] 及 [illegible] 에 [illegible] 케하엿스며 少年 [illegible] 의 [illegible] 와 [illegible] 에 [illegible] 하엿고 [illegible] 十一時頃에 大盛況裡에 閉會하엿다 [illegible] 同講習所는開所한지가 [illegible] 八九個月間의 短期에 그가티되엇다 [illegible] 것은 [illegible] 外의 [illegible] 이라고 一般은 [illegible] 하며 [illegible] 하야 [illegible] 다더라(始興)

始興湧興講習所

學藝會盛況

▶ 1929.2.27

始興

始興機械組合에서는 去十日을期하야 始興支廳大會를 開催한다함은 旣報하엿거니와 我郡과가티 僻地에서 後九時부터 始興普通學校에서 開催되엿는데 午前 午後를 通하야 會員 一同은 熱心으로 會議를 進行하여 午後 五時半頃에 閉會하엿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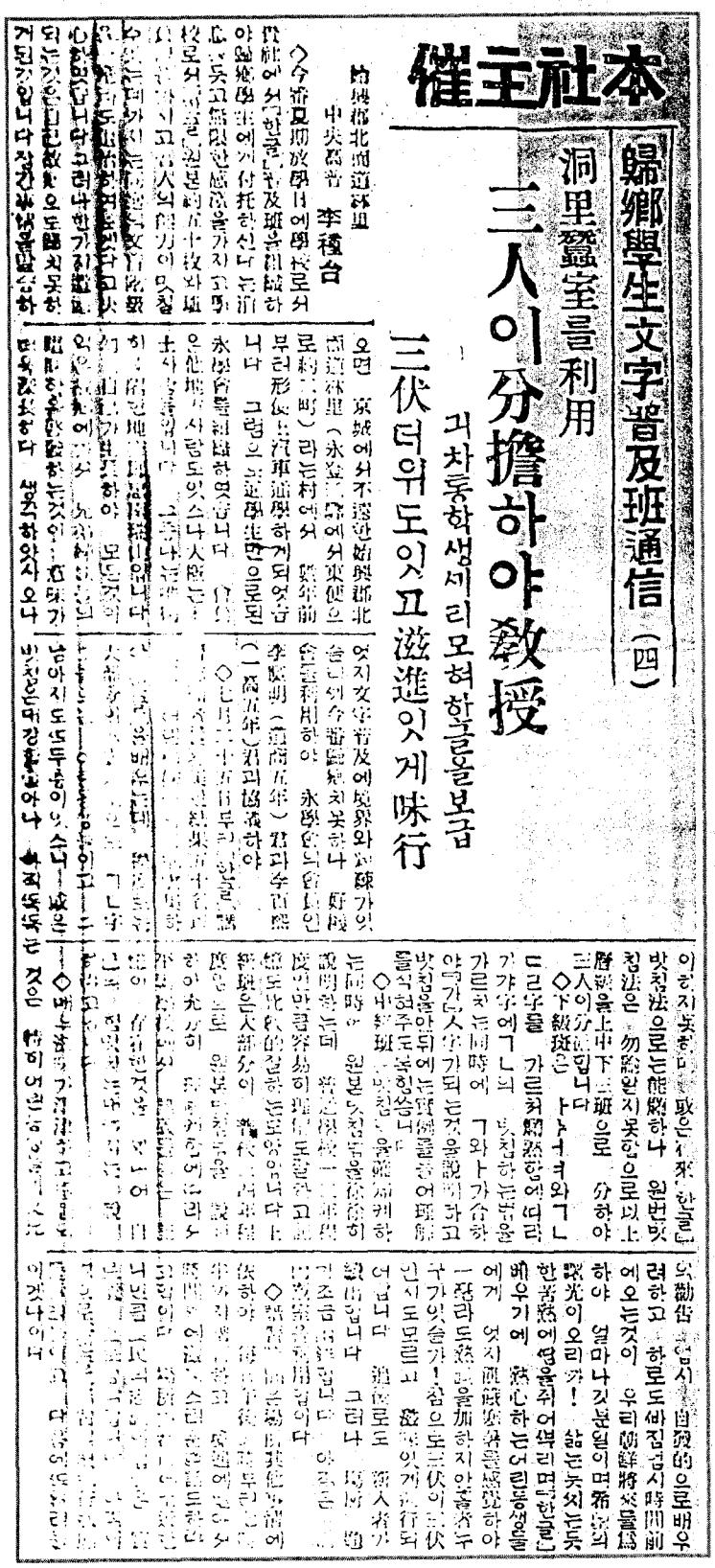
▲一等 今番 始興組合長 金鳳鎭 ▲二等 金學成 ▲三等 金學成 ▲四等 高鳳鳴 洋傘 ▲五等 李興善 洋傘一柄 ▲六等 金學成 ▲七等 金學成 ▲八等 金學成 ▲九等 李興善 ▲十等 金學成 ▲十一等 李興善 ▲十二等 李興善 ▲十三等 李興善 ▲十四等 李興善 ▲十五等 李興善 ▲十六等 李興善 ▲十七等 李興善 ▲十八等 李興善 ▲十九等 李興善 ▲二十等 李興善 ▲二十一等 李興善 ▲二十二等 李興善 ▲二十三等 李興善 ▲二十四等 李興善 ▲二十五等 李興善 ▲二十六等 李興善 ▲二十七等 李興善 ▲二十八等 李興善 ▲二十九等 李興善 ▲三十等 李興善 ▲三十一等 李興善 ▲三十二等 李興善 ▲三十三等 李興善 ▲三十四等 李興善 ▲三十五等 李興善 ▲三十六等 李興善 ▲三十七等 李興善 ▲三十八等 李興善 ▲三十九等 李興善 ▲四十等 李興善 ▲四十一等 李興善 ▲四十二等 李興善 ▲四十三等 李興善 ▲四十四等 李興善 ▲四十五等 李興善 ▲四十六等 李興善 ▲四十七等 李興善 ▲四十八等 李興善 ▲四十九等 李興善 ▲五十等 李興善 ▲五十一等 李興善 ▲五十二等 李興善 ▲五十三等 李興善 ▲五十四等 李興善 ▲五十五等 李興善 ▲五十六等 李興善 ▲五十七等 李興善 ▲五十八等 李興善 ▲五十九等 李興善 ▲六十等 李興善 ▲六十一等 李興善 ▲六十二等 李興善 ▲六十三等 李興善 ▲六十四等 李興善 ▲六十五等 李興善 ▲六十六等 李興善 ▲六十七等 李興善 ▲六十八等 李興善 ▲六十九等 李興善 ▲七十等 李興善 ▲七十一等 李興善 ▲七十二等 李興善 ▲七十三等 李興善 ▲七十四等 李興善 ▲七十五等 李興善 ▲七十六等 李興善 ▲七十七等 李興善 ▲七十八等 李興善 ▲七十九等 李興善 ▲八十等 李興善 ▲八十一等 李興善 ▲八十二等 李興善 ▲八十三等 李興善 ▲八十四等 李興善 ▲八十五等 李興善 ▲八十六等 李興善 ▲八十七等 李興善 ▲八十八等 李興善 ▲八十九等 李興善 ▲九十等 李興善 ▲九十一等 李興善 ▲九十二等 李興善 ▲九十三等 李興善 ▲九十四等 李興善 ▲九十五等 李興善 ▲九十六等 李興善 ▲九十七等 李興善 ▲九十八等 李興善 ▲九十九等 李興善 ▲百等 李興善

면장업시 월여 지내는 과천면

◇面長업시 月餘을 지내는 果川面

果川面長 金溶彬氏가 去一月初에 突然히 辭職하여 郡當局에서 後任을 物色中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年度來이갓가와오는지금까지 面長의 就任을보지못하게되어 一般은 금금히 알엇더러 速히 面長의 就任되기를바라지 안는다는 바 面務하는이도 업시 고요하다고

▶ 1929.8.6



本社主催

歸鄕學生文字普及班通信 (四)

洞里蠶室를利用 三人이分擔하야敎授

귀향학생세리모혀한글을보급

三伏더위도잇고滋進잇게味行

執筆者 北面道林里 李種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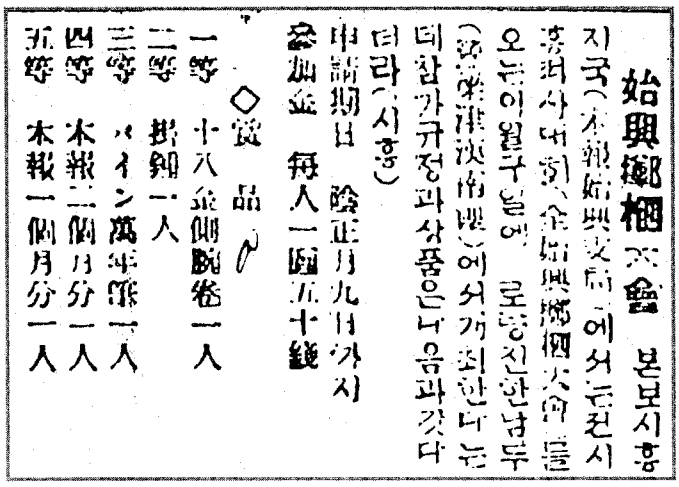
◇今番夏期放學日에學校로서 農村에서한글及算術普及하야 農民諸君에게付托하신다는 消息을듯고 無限한感激을가지고 學校로서 (一段落略) 사람도잇스나 大部는 (一段落略) 그리하여 (一段落略) 永遠히 (一段落略) 오면 京城에서不遠한 始興郡北面道林里 (永登浦에서東便으로 利二里) 라는村에서 (一段落略) 부터形成된汽車通學하게되엇습니다 그럼으로通學生은으로되 (一段落略) 엇지文字普及에 (一段落略) 全部利用하야 永學館의 (一段落略) 李順明 (一段落略) 君과 李昌熙 (一段落略) 君과協議하야

◇ (一段落略) 한글, 算術은 (一段落略) 하야 (一段落略) 이러지못하면 (一段落略) 한글 (一段落略) 밧침法으로는能熟하나 원번밧침法은 勿論읽지못함으로以上 曆數을上中下三班으로 分하야 三人이分擔합니다

◇下級班은 ㅏㅑㅓㅕ와ㄱㄴ ㄷㄹ字를 가르쳐熟熟함에따라 가갸字에ㄱㄴ의 밧침하는方法을 가르치는同時에 ㄱ와ㅏ가合하야 각각가人生가되는것을說明하고 밧침을아는데에는實例를들어說明하주도록힘씁니다

◇中級班 (一段落略) 밧침을除하고 (一段落略) 는同時에 원본으로 (一段落略) 說明하는데 (一段落略) 原本 (一段落略) 이조금困難합니다 (一段落略) 남아지도또두둥이잇스나 (一段落略) 밧침은따로가르치겟습니다 (一段落略) 되는것은記載하오도록치못하거됩니다 (一段落略) 생각하와사오나

▶ 1930.2.2(7)



始興鄕柵大會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에서는 전시흥청년회(全始興靑年會)를 망라하야 시흥청년대회(始興靑年大會)를 오는이월구일에 로량진한남루(鷺梁津漢南樓)에서개최한다는데 참가규정과상품은다음과같다더라(시흥)

申請期日 陰正月九日까지
參加金 每人一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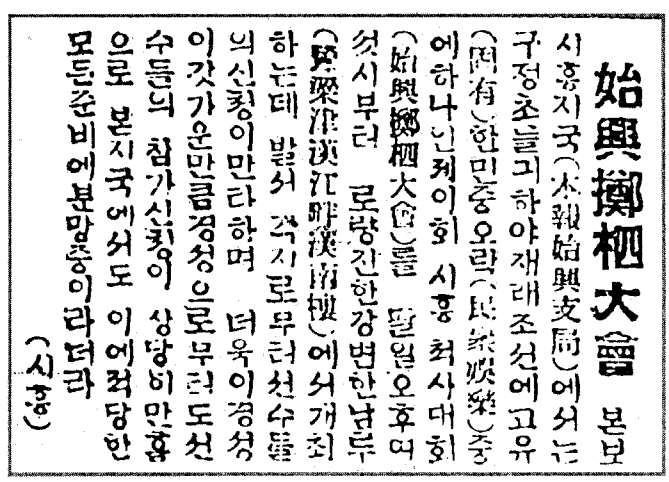
◇賞 品

一等 十八金側腕卷一人
二等 掛鐘一人
三等 パイン萬年筆一人
四等 本報二個月分一人
五等 本報一個月分一人

始興鄕柵大會

본보지국주최로 來二月九日에

▶ 1930.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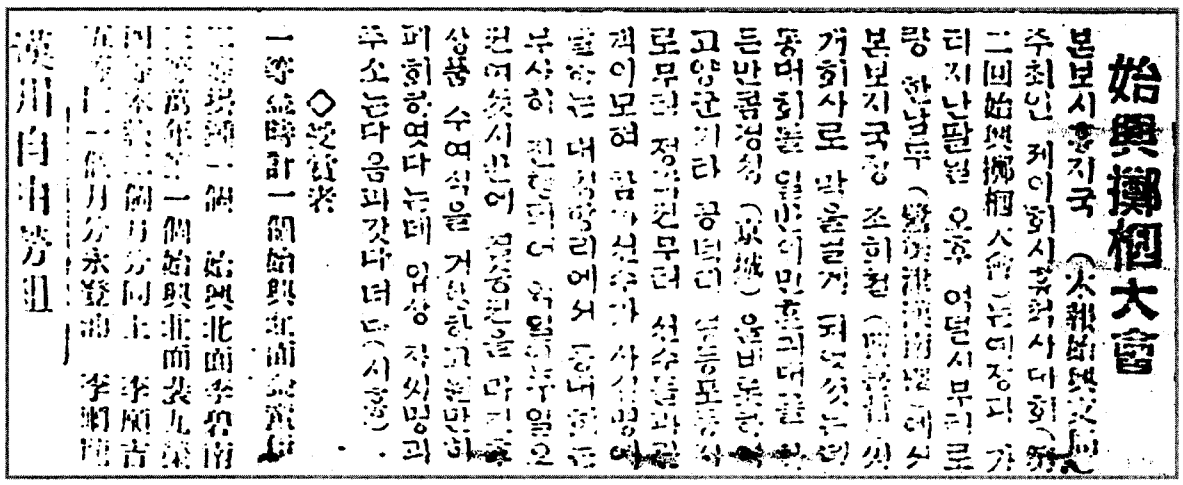


始興鄕柵大會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에서는 구정초를긔하야재래조선에고유(固有)한민속놀(民俗戲)중에하나인씨이회 시흥청년회(始興鄕柵大會)를 달일오후여섯시부터 로량진한강변한남루(鷺梁津漢江畔漢南樓)에서개최하는데 발서 각지로부터선수들의신청이만타하며 더욱이경성이갓가운만큼경성으로부터도선수들의 참가신청이 상당히만흠으로 본지국에서도 이에적당한 모든준비에분망중이라더라 (시흥)

始興鄕柵大會

본보지국주최로 來八日에 개최

▶ 1930.2.12 (3)



始興擲梱大會

본보지국주최로 去八·九 兩日間 로량진한남루에서 개최

▶ 1930.3.1(3)

計上한 學級增設案을

新郡守가 削除

始興西面公普問題 증설비용을 면민들이 부담 한다고해도

▶ 1930.4.25(6)

堤防費滯納者

二百餘名 財產差押

始興郡 永登浦面에서

堤防費滯納者 二百餘名財産差押

始興郡永登浦面에서 한강제방축조공사비를듯게낸다고 一般은問題展開를注目

시흥군영등포면에서는한강제방(漢江堤防)공사비부담금체납자만사원이란거액을십오개면간에뜨는주거하는사람으로부터십원하기를바란다고한다(명영)

◇規 定

一、募集人員 男三十名 女三十名
一、兒童年齡 滿九歲以上
一、志願期日 四月廿八日(月末日)까지
一、申請場所 東亞日報兒童文局

영등포면에서는한강제방공사비부담금체납자만사원이란거액을십오개면간에뜨는주거하는사람으로부터십원하기를바란다고한다(명영)

▶ 1931.6.9(7)

野藝大會開催

시흥지국후원

추권저가 있다는데의인데 귀조여하늘말아서는 장차 정당권제까지진전할는지도원수업다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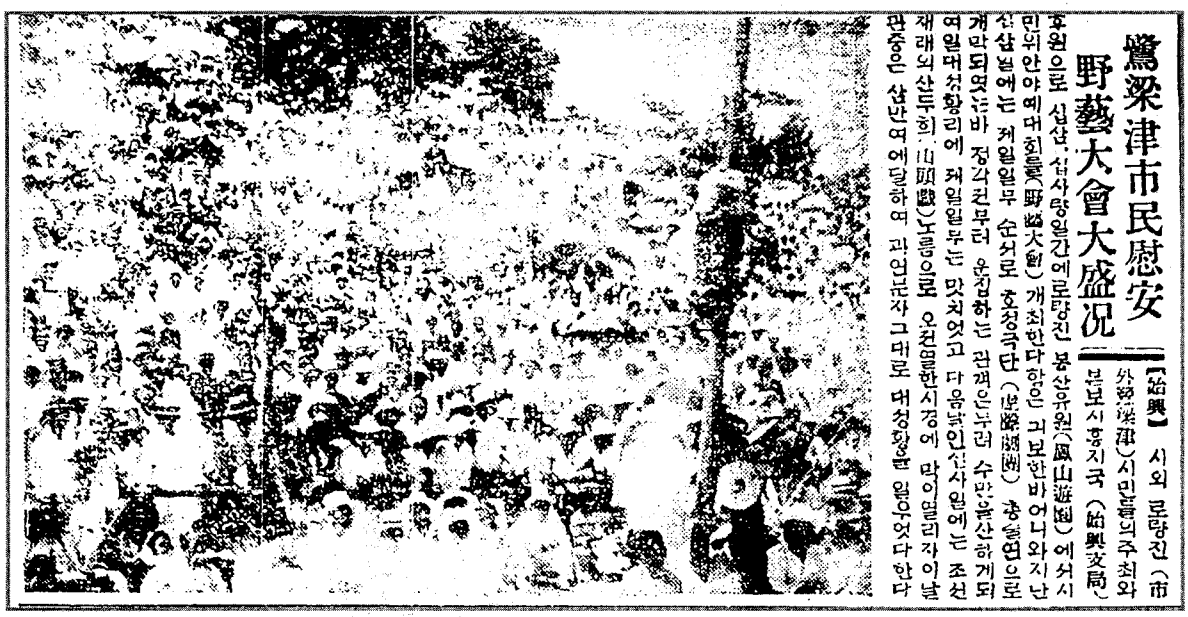
시외로당진 [illegible] 시장과만강컨교(漢江鐵橋)하나를격하야잇든지대로서 경성부년임 후보지로 대경성도시계획에 까지도편입되어 물론만강대에 경성부로편입될것이며 큰래에는 한강인도교(人道橋)기준공과같이제한차 [illegible]천도의 임정과 아울러부명 경인 경수 (京釜、京仁、京水)등철에1쓰의개통으로교통의관의 완명을보시 보급따라

자못 장족의발전을 보게되엇이사실이바 그것시민들은 여러가지로 발긴책에힘써오든중 레심삼 신사장일간을 [illegible]하여서당시봉산유원(鳳山遊園)에서시민위안야예대회(野藝大會)를본보시흥지국 후원아래에 개최하리라는데 종목은육단 농구 [illegible]과 소년셋커—스만의 출연도 잇슬터이며 그외일반주최지 [illegible]은 기타흥미진진한것 [illegible]이라는바 일반의인기는 지금보터 동야에대회보통은 동대회의만전을 도모코자하야 그준비에망살되어 잇다고한다

野藝大會 開催

本報시흥支局後援下에 來十三日부터

▶ 1931.6.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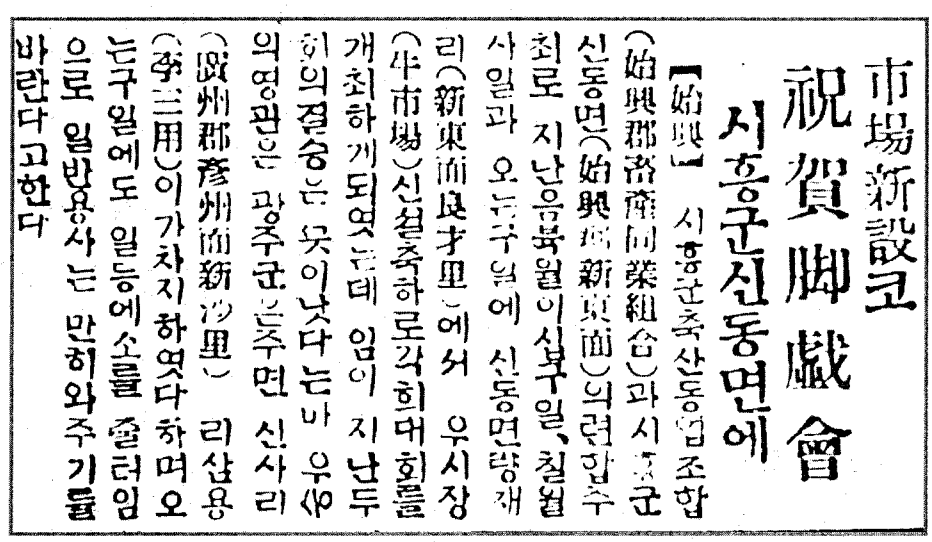
鷺梁津市民慰安
野藝大會大盛況

【始興】 시외 로량진(市外鷺梁津)시민들의주최와 본보시흥지국(始興支局)후원으로 십삼, 십사량일간에로량진 봉산유원(鳳山遊園)에서시민위안야예대회를(野藝大會)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지난 십삼일에는 제일일부 순서로 호성극단(虎聲劇團) 총출연으로 개막되엿는바 정각전부터 운집하는 관객은누리 수만을산하게되여일대성황리에 제일일부는 맛치엇고 다음날인십사일에는 조선재래의산두희(山頭戲)노름으로 오전열한시경에 막이열리자이날 관중은 삼만여에달하여 과연분자그대로 대성황을 일우엇다 한다

鷺梁津市民慰安

野藝大會 大盛況
本報始興支局後援下에 去十三日부터(寫)當大會광경

▶ 1931.8.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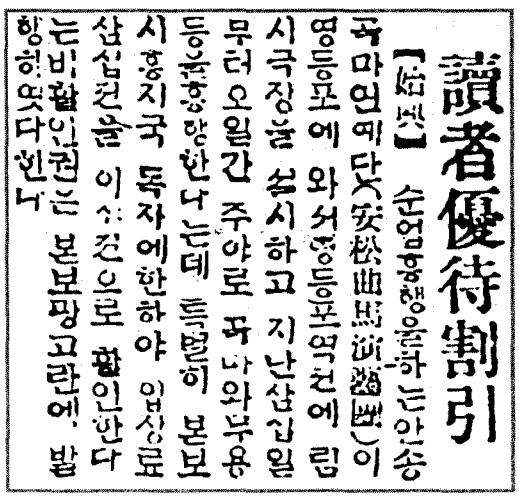
市場新設코
祝賀脚戲會
시흥군신동면에

【始興】 시흥군축산동업조합(始興郡畜産同業組合)과시흥군신동면(始興郡新東面)의련합주최로 지난음륙월이십륙일, 칠월사일과 오는구월에 신동면량재리(新東面良才里)에서 우시장(牛市場)신설축하로각희대회를 개최하게되엿는데 임이 지난두회의결승은 못이낫다는바 우(牛)의영관은 광주군(廣州郡)초주면 신사리(廣州郡彦州面新沙里) 리삼용(李三用)이가차지하엿다 하며오는구일에도 일등에소를 출려임으로 일반용사는 만히와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市場新設코

祝賀脚戲會, 시흥군신동면에서 去陰六月二十九日부터

▶ 1931.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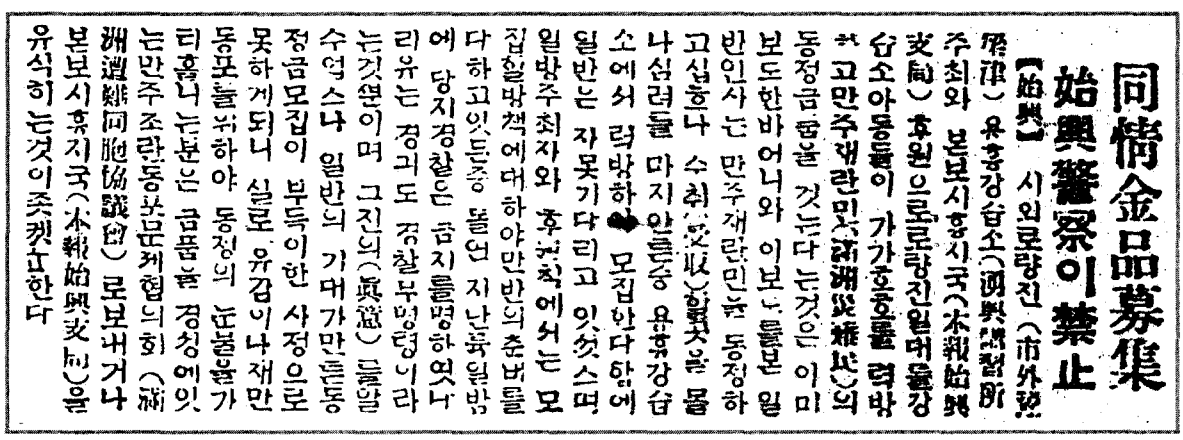
讀者優待割引

【始興】 순연흥행을하는안송(安松)曲馬演藝團이 영등포에 와서흥행하고 지난삼십일 무러오일간 주야로 두나와무용 등흥행을한다는데 특별히 본보 시흥지국 독자에한하야 입장료 삼십전을 이십전으로 할인한다는바 할인권은 본보광고란에 박힝하엿다한다

讀者優待割引

去三十日부터 영등포에서

▶ 1931.11.13(7)



同情金品募集

始興警察이 禁止

【始興】 시외로량진(市外鷺梁津) 유흥강습소(遊興講習所) 주최와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 후원으로량진일대를강습소아동들이 가가호호를 력방하고만주재란민(滿洲災難民)의 동정금품을 것는다는것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이보도를본 일반인사는 만주재란민을 동정하고십흐나 수취(受取)할것을 몰나심려를 마지안튼중 유흥강습소에서 력방하야 모집한다함에 일반은 자못기다리고 잇섯스며 일방주최자와 후원측에서는 모집할방책에대하야만반의준비를 다하고잇든중 돌연 지난육일밤에 당지경찰은 금지를명하엿나 리유는 경긔도 경찰부명령이라는것엿스며 그진의(眞意)를알수업스나 일반의 기대가만튼동정금모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게되니 실로 유감이나재만동포를위하야 동정의 눈물을가티흐나 눈분은 금품을 경칭에잇는만주조란동포문제협의회(滿洲難同胞協議會)로보내거나 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을 유식히 는것이조켓다한다

同情金品募集

始興 경찰이 禁止

▶ 1932.1.22(6)

洞民의 努力으로 講習所를 建築

◇신흥의 공업도시 영등포에

【始興】 경부선 영등포(永登浦) 라곳은 순전한 새로 발흥되는 공장도시로서 일반시민의 대부분이 공장분동인 관계로 그생활이 곤경에 빠져있슬것이야 일반이 미리다 알것이며 더욱이 교육긔관으로서는 다만 공립보통학교(公普校) 한곳과 야소교회의 경영인 수개의 강습소가 잇스나 그로서는 도저히 수다한 아동을 수용하기가 어려우나 소위 시내 유력자라는 사람들은 그에대한 하등의 관심도 업섯슴으로 이를 원망하는 마지아니하며 영등포 읍(永登浦邑)에서도 가장 빈촌인 당산리(堂山里)에 잇는 김종혁(金鍾赫) 리만수(李萬壽) 씨 외 수씨의 발긔로 그동리에서 삼백여원의 의연을 바더가지고 약 일백오십명을 수용할만한 교사를 건축하고 지난십이월부터 개교하엿다는데 벌서 학생수효가 일백이십여명이나 되며 일체비용은 그동리에서 부담하기로하고 교원은 차인섭(車仁燮)씨외 수씨가 무로가르치기로하엿다 한다

洞民의 努力으로

講習所를 建築, 신흥의 공업도시 영등포에

▶ 1932.12.1(6)

垈地拂下問題로 復興村輿論沸騰

村民은拂下反對對策講究 府當局의處理를注目

【始興】 시흥군동면복흥리북흥촌(始興郡東面福興里北興村復興村) 이라면 누구나다 하방일우(下坊一隅) 에지내지못하는줄을것 시만한강교(漢江橋)를건느기만 하면거기가 복흥촌이다 물자와 가티 죽엇다다시 사러난사람들 인데대정 십사년지금으로 부터 팔년전 을축년정마년에 한강변 리기업이촌(京城府)에서살든 주민으로서 불난리를 맛나서면 주먹만한자기나온사람들이니 당시경성부(京城府)에서는이를 구제코저 복흥촌대지(復興村垈地)를반여명이나매수하야이촌 동수재민(水災民)에게매호당십 오평식분여(分與)하야주며 대정에 오긴작 대지로 垈地料를 바더왓다 지금오십여세년(世帶)와 전이주민이사는리이나대지로의 중수가 원래에사오할밧게 깃치지안니하야 경성부에서는 네년히 중수하는터 골치가 압서서 복흥촌대지를 개인에게 불하(拂下)한다는 소문이 생겨 최근은항을 불안분자만 아지엇서서 사법여조 원들이 나왓는 이것이사실이 아닐가 하야 전전긍긍이다 전긔와갓치 경성부(京城府)에서 만일복흥촌대지(復興村垈地)를개인에게 불하한다면 현재주민의 사활문제에 대하야 경주할 것도 여긔당한대책을 강구할 것이나 최종당국자인 시흥군 복면(福興面北面)으로보아서도 이상과가튼중대문제가면내에발생되엿다면 주민의면자신으로서 신중적극운동을하야주민의안도를 꾀할것이당연한일이다 그리나대지로(垈地料)를정부에서중수하는것이아니고하야반환치해도를취하야 조금도관심하는바가 업슬 에이라 일반에비난도업다 이를 운동하야 주민들도 그대책으로 대지료조환(垈地料調查)을장쳘 하야 금후각개인에게 불하(拂下)되도록노력하자는 소래가수 민사이에자못놉다고한다

垈地拂下問題로

復興村 輿論沸騰

▶ 1933.3.15(4)

문맹퇴치위해

여자 야학강좌

文盲退治爲하야 女子夜學開講

유치원선생들이헌신적으로

永登浦婦女의福音

영등포 동화유치원(興化幼稚園)에서는원내에서만다년이래가정부인과 학교에가지못한 녀자들을위하야 이달십삼일부터 매일 밤 녀자야학을 개최하리라는바 그시간은오후칠시반부터 십시반까지며 과목은 『朝鮮語 算術 國語 家庭衛生』 등이라한다 그런데 동야학은 동유치원버진 정(張振禎)씨와 보모김은해(金恩海)씨의 희생적로력으로써구 히지지하야 나갈것이라는데 일반사회에서는 양씨에대한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 1935.2.23

영등포에 대화재

永登浦에大火災

貧村一部落을全燒

水利不便으로七棟八戶全滅

六十罹災者街頭彷徨

(永登浦)어십이일오후한시십분경에시외시흥군영등포읍산리(新興里)제육십일통(第十一統)리봉초의 잘곳도없이 길거리에서 불이일어난시간에 초가로이은 동가를태워버리고 마을전부를 모조리태워버릴듯이 맹렬히 타올라가는 불길은 순식간에 옹기종기 서있는 인가를 모조리 태워버리는데 급보를 접하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소방대(消防隊)를 총동원하야 전력을 다하야 불을 끄기에 노력하였으나 마침 군부가 지주재 소장회의 관계로 소방대원이 전부 출동하였기 때문에 불은 점점 더 맹렬히 타올라 가는 동시에 바람은 점점 더 심하게 불어 불길은 더욱 맹렬하여

▶ 1935.3.1 夕(5)

南陽舞臺公演

本報讀者半額

【永登浦】극단남양구대 (劇團南陽舊隊)가남선각지를순회하야 절대의 환영을받고 영등포에 드러온것을 긔회로 본사영등포지국에서는 흥행긔간인 이십일일부터 오월간본보에독자 우대권을발행하야 대인 삼십전을삼십오전、소인이십전을십전으로 각각할인하기로 되엿는데 동극단은 평북창성군 대유동에서 신진남녀배우삼십명으로 조직된 극단으로 수만흥행장에게 만흥행을 주리라고 긔대된다고한다

南陽舞臺公演

去月二十八日부터 五日間 永登浦에서, 本社支局 優待券發行

▶ 1935.12.17夕(5)

本報讀者優待

「洪吉童傳」上映

永登浦演藝館서

【永登浦】조선영화로서 초유의 호화판이라고 할만한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십륙、십칠일간영등포연예관에서 상영하기로되엇는데 동긔회로 본보애독자에게는 특별히 계상오십전을 이십전으로 각각할인우대키로 되엿는대 홍길동전은 조선에잇서서는 물론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편으로 이것을 영화화하기까지에는 만흔경비가 들엇스며 려사가 오백년(吳白年)씨의 고심력작으로 오백여명의 노련한남녀배우들의 익숙한 기술과 영화예술의 정수(精髓)로서 되엿인만치 누구나한번감상할만한 가치가 잇다고한다

本報讀者優待

「洪吉童傳」上映

▶ 1936.1.11 夕(2)

永登浦赤色事件
仁川에도 關連?

永登浦赤色事件

仁川에도 關連?

▶ 1936.3.6 夕(2)

廣州共産黨協議會事件
關係者十名 今日送局
永登浦署高等係에서檢擧
前後三個月만에取調段落

廣州共産黨協議會事件 關係者十名 今日送局

永登浦署 高等係에서 檢擧 이양재외 九名

東紡永登浦工場

近日中工事着手

벌서부터人夫供給難

【永登浦】수륙의교통이 지극히 편리한곳이라 지하수가 풍부한것과 수질이 량호한것등으로 공장지대로서의 모든조건이 구비하야 현재 조선피혁(朝鮮皮革)경성방직(京城紡織)사보로 기타 량해주공장 룡산공작(龍山工作)창화(昌和)조선(朝鮮)등 량영색공장 기타대소기설공장이 점점 드려안젓스며 목하공사중에 잇는 종연방적(鐘淵紡績)회사등 웅장한 굴뚝이 벌려서잇는 영등포에 또다시 동양방적(東洋紡績)회사가 진출하야 방대한 기지아만오천여평을 매수하고 기초공사를 꾸냇후 이래 건축공사의 준비중이엿섯는데 이번에 여럼조(大林組)와 청부계약을 맺고 금번내로 착공식을 고쳐 근일중건축공사에 착수할터이라는데 총공사비는 약이백오십만원 정도이며 이로서영등포는 법서부터 로동자의 공급부족으로 기업가 청부업자들은 큰 동요거리로 되여잇스며 반면에 상공업자들의 흥성으로 놀날마지 번창하야 폭발적경기를 보이고잇다

自轉車竊盜 【永登浦】지

난 [illegible] 오후여섯시경에 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전대(田代)순사가 부내상도정(上道町)부근을 순찰하든중 행동이수상한 소년이 자전거를타고 쏜살가티다러나는것을 붓들어검문한바 그소년은 본적을 려주군주내면 상리(驪州郡州內面上里)삼백십사번지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시 라다니는 원래복(元萊福)[illegible]라자로서 작년십이월중에 절도죄로 귀소유예처분을 받든입이잇섯는대 지난달일일오후세시경에 려비가 충하야 부내방대문통을 정목 경성방직회사 정문압헤세워노앗든 시내계동정(桂洞町)일백이십팔번지 김재수(金在洙)의 소유 자전거시가삼십원 짜리를 훔처라고 다라난것을 자백하엿슴으로 취조가끗나 불일간소송국으로 송치할모양이라는데 일반은 자전거 장물죄를 잘잡거 피해가업도록 주의하는것이 조타고한다

동방영등포 공장

근일중 공사착수

▶ 1936.5.28 朝(3)

永登浦에선 最初로

市民慰安野談會盛況

出演、灌雀과 하모니카團도

本社支局의 主催로

永登浦에선 最初로

市民慰安野談會 盛況

▶ 1936.7.10 朝(2)

永登浦、淸凉里、麻浦의 市區劃正에 着手

모다工業地帶로서 京城府當局이 代行

大地主의 投機盛行이 念慮

영등포 청량리 마포 시구획정에 착수

행정구역을 종래의 사배로확장하야 대경성이되기는 금년봄이엇스나 실제로 대경성의 규모가 실현성하기까지의 제일보는 명년부터로 사업은 전반이 도목에관한것이다 첫재 대경성건설사업의목표는 근년급격히 발전하고잇는 신편입구에대한 시설이 주요한것인데 우선명년도에 착수할것은 도로망의계획보다는 시구획정(市區劃正)을 첫착수로하게될것으로 그목표는 영등포(永登浦)와청량리(淸凉里)와마포(麻浦)의 삼개소로 작금에 그 예비조사를 하고잇다 전기삼개소의 구역범위가아직명확치는안흔모양이나대개 그범위도당당히 넓게 잡혀질모양이다 즉전기삼개소는 대경성의 배양지로 대개공장지대로서 급격한 발전을 볼것임으로 청량리방면은 중앙선(中央線)과 경춘선(京春線)의 종점정거장도 설치될것임으로더욱 시급히 시구획정이 필요한 모양이고 영등포도 역시공장지대로 대단한 발전을 보고잇고 마포방면도 거이 시가지를 형성하고잇는터이어서 금후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미리 시가지의 구획을 만들어두어야 되는것이다 그실시에는 설계비와 기타제도의관한 비용은 부당국에서 지출하고 그여의 일반 비용은 일반지주들이보담하여야 되는것인데 당초는 지주들로하여금 구획정리조합을 조직케하야 그조합에서 공사를하게될것이나 편의상부에서 대행하게되면 소지주들은 비용대문에 땅을팔지 안흘수 잇슬것으로 결국은 시구획정의 결과는대지주들의토지투기가성행할모양이다 그설계모양인데 경성부에서는 비용으로 지주들이 부담하여야할 것은 매평에이원 평균으로보고 잇다 이가리하야 시구획정을하게되면 소지주들은 비용대문에 땅을팔지 안흘수 잇슬것으로 결국은 시구획정의 결과는대지주들의토지투기가성행할모양이다

▶ 1938.2.13

영등포정민

성미를 모아 헌금

誠米를 모아 獻金

永登浦町民의 熱誠

【永登浦】부내 도림정(道林町) 제이구 총대리장하(李喜夏)씨수 최로금번 출정군인(出征軍人)을 위문하기위하야 작년십이월십오일부터 지난일월이십사일까지사십일간 정내일백삼십일호(百三十一戶)의 부어케다 주머니를비치해노코 조석때마다 성미(誠米)를 모하오든것을 수일전에전부수합하야 대금(代金)으로 바꾸어본결과 사십일원팔십신에달함으로 곳소관영등포경찰서에헌금수속을 하였다한다

永登浦에서 山不出漫談會

本報支局後援으로

【永登浦】만담계(漫談界)의 인기자 신불출(申不出)씨의 만담대회(漫談大會)는 오는십사일밤 영등포연예관(演藝館)에서 세원당약국(世元堂藥局)주최와 본보영등포지국(永登浦支局)후원하에 개최될터인데 당지에서는 이러한 전례가 희귀한만큼 벌써부터 비상한 인기를 집중하고잇는바 당야의 입장료는 계상(階上) 계하(階下)의 구별이업시 오십전식으로 예정되엿스나 특히 본보독자에게는 십전식 할인을 하기로되엿다

영등포에서

신불출 만담회

▶ 1938.6.21 朝(3)

少年提琴家白高山君
永登浦서 演奏會
廿三、四兩日演藝館에서
本局 後援 支援

【永登浦】금번 조선이나온 천재소년 백고산형제(白高山兄弟)의 제금연주회(提琴演奏會)가 오는이십삼、이십사양일간 영등포연예관(演藝館)에서 백고산연주회(白高山演奏後援會)주최와 조선일보 영등포지국 후원하에 개최키로되엿다 이미 세상에서 널리아는바와가티 백고산군은 당년열세의 소년이요 형되는백해제(白海帝)군은 겨우삼박게아니되는터이나 『바이올린』을 들면은 제대가(諸大家)도 딸을올리는 『지고이넬와이젠』과가튼 난곡(難曲)을 무난히 연주하야 일세를 놀래인 신동(神童) 들로써 금번등연해 영등포에서 그들의 귀여운 연주회를 뜻게된것은 다시 업는 기회일것이다 그리고 당야에는 『고리라의 습래(習來)』라는모험과 『스켈로』이가튼 맹수영화(猛獸映畵)등상영하게되엿는바 입장료는 계상계하오십전균일이나 본보독자에게는 특히삼십전으로 할인하게되엿다 (사진은 백고산군)

少年提琴家 白高山君

永登浦서 演奏會

▶ 1938.8.3 朝(3)

獨占을奇貨로 過重한入場料金

永登浦演藝館의專橫

【永登浦】 풍어철대 영등포오락부민의 유일한오락기관인 부내 영등포좌 연예단(演藝團)은 수년래 창설이래 일지월보하는발전영등포와는 도리혀 역행하야 상영영화 재반장치 업장료 위생시설등 모든면에 시서 불완전하기 짝이업서 일반관객에게 물의가만코 분함을 짓모리기하고있나니 복래 영등포는 업지대이란점 일급오락전으로부터 최고일류이내외 집중생활하는 세민중이 관객의 대다수를 점령하고있는바 여러주위의실정(實情)을 생각치안코유일한 독점경영이것을 기화로 입장료를 파지천간인 구경성부내 영화상설관에서 신천 혹은 이십전균일로 오륙차식상영한 봉오자진을 삼사십전의 비싼입장료를밧기가 비일비재일뿐아니라 올라전 모『레코-드』회사 모소년가극단(少女歌劇團)등소요되는다른흥행(興行)이라도오면 즉시일류부장에 서보 추저할만한 일류일원오십전이란 여천냥 입장료를바드릴이상 일반보 떠러판의 짜포레대하야 분개함을마지안코 다만 참고만잇는 정황에 대하야 분개함을마지안코 다만 참고만잇는 정황에 대하야 분개함을마지안코 다만 참고만잇는 정황에

▶ 1939.12.3 朝(3)

六六個所 千餘名에

國語講習會 開催

始興郡 청년단체주최

六六個所千餘名에
國語講習會開催
始興郡青年團體主催

【水原電】시흥군 [illegible]에서는 [illegible]하여 국어강습회를 [illegible]하고 각청년단체에서는 작년겨울에도 훈육과를보냈섯는데 금번결과에 군내육십륙개소에서 일천여명의 도여서 [illegible]하시기를 [illegible]하여 국어를해득기못하는다수에게 대 [illegible] 삼개월내지사개월간예정으로 일제히 국어강습회를개최하엿다그런데 교과서로는 국어교본을배부하엿고 강사는 당원중실업학교직원의 지도미해서 차기로되엇스며 강습회에드는 일절비용은 단원들이 가지나눈어서동근로작업에의한 수입금으로당하기로하고 작년마지막 보충으로부터 원조하 방기하기로하엿다

▶ 194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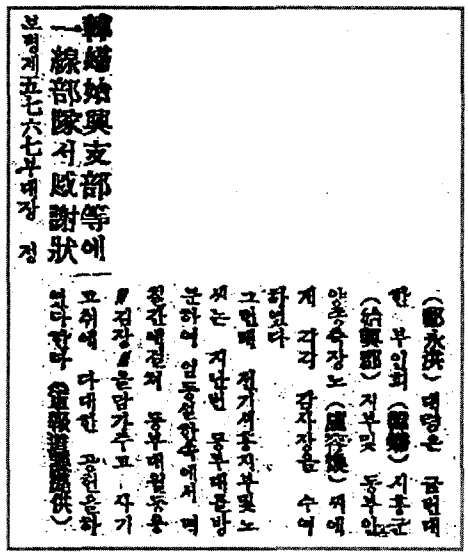
永登浦金組窓口에서
남의돈가지고逃避
犯人은米穀商
犯行卽後逮捕

【水原電】 [illegible]에서 영등포정 이백구십팔번지 미곡시상 유성우(柳聖佑)(三一)로 [illegible]되어 동소에서 [illegible]고 수속을 [illegible]하여노코도 차남아천 유성우도 이백오십원을 자아가지고 의심을가지고 유적 유진을 수색한결과 [illegible]원의돈과 기타증권이나와 검거하게되엇인데 범행동기는 그 [illegible]린 사나이라한다 이사실을안영등포경찰서에서는 곳 사방으로 그범인의 행방을 찾는중이나아직도 잡지못하엿다한다

영등포금조 창구에서

남의돈 가지고 도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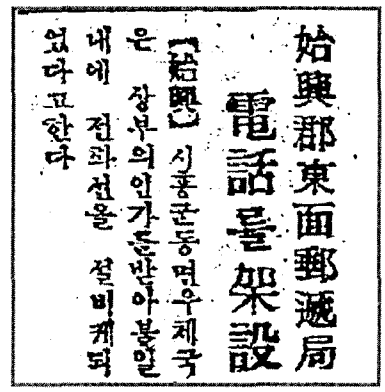
▶ 1952.12.16 조간 2(5)



대한부인회 시흥 지부등에

일선부대서 감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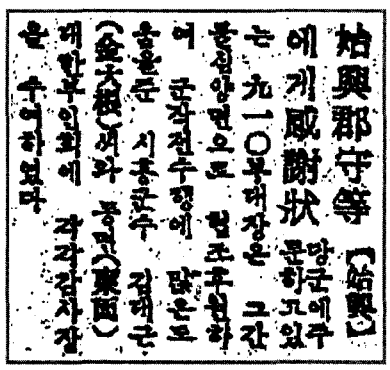
▶ 1953.3.8 조간 2(8)



시흥군 동면 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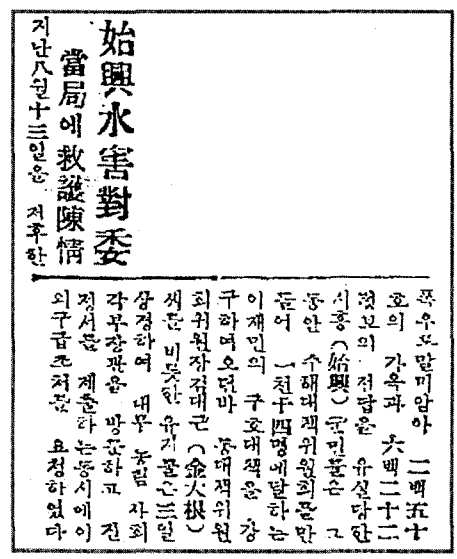
전화를 가설

▶ 1953.4.3 조간 2(6)



시흥군수등에게 감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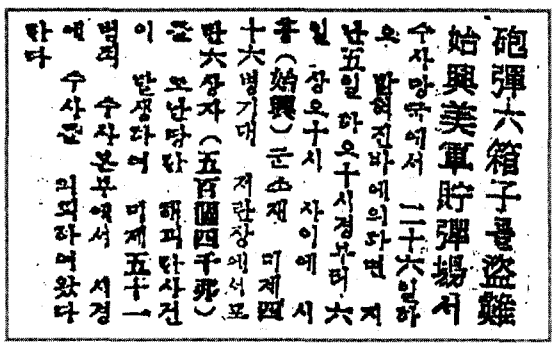
▶ 1953.9.7 조간 2(7)



시흥수해대위

당국에 구호진정

▶ 1954.3.29 조간 3(7)



砲彈六箱子를盜難
始興美軍貯彈場서
수사망국에서 二十六일하
오 발견진바에의하면 지
난五일하오十시경부터 六
일 상오十시 사이에 시
흥(始興) 군내재 미제四
十六병기대 저탄장에서포
탄六상자(五百個四千발)
을 모난당한 해괴한사건
이 발생하여 미제五十一
범죄 수사본부에서 시경
에 수사를 의뢰하여왔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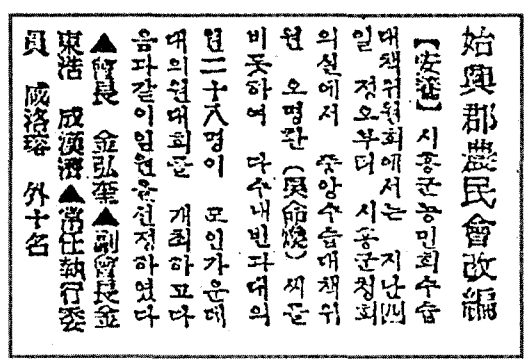
시흥미군 저탄장서 포탄 6상자를 도난

▶ 1955.3.3 조간 4(9)

年次大會를開催
自由黨始興郡黨
【安養】자유당 시흥군당
부에서는 지난二十七일하
오부터 시흥군청 회의실
에서 제회 이십 (李英
[illegible]의원참석하에 (決正員
시흥군 수아리大會議場
에서 열린 제회 九十여
명의 각리대의원이 참석
하여 성대리에과같 개
회하였는데 당일 선출된
임원은 아음과 같다
委員長 李英根 副委員長
張炳根 副金弘奎

자유당 시흥군당 연차대회를 개최

▶ 1955.5.7 조간 4(8)



始興郡農民會改編
【安養】시흥군농민회수습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四
일 정오부터 시흥군청회
의실에서 중앙수습대책위
원 오명관(吳命燒)씨를
비롯하여 다수내빈과대의
원二十六명이 모인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다
음과같이임원을선정하였다
▲會長 金弘奎▲副會長金
東浩 成演澄▲常任執行委
員 成洛瑢 外十名

시흥군 농민회 개편

▶ 1957.2.9 조간 2(6)

三十二名이負傷

始興附近에서 「버스」 顚覆

【水原通】 승객을 만재한 「버스」가 시골길을 질주하다가 앞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가드수에 충돌되어 三十二명의 중경상자를 낸 시흥간선 교통사고가 八일하오 五시四十분경 서재운(徐在運=四一)씨가 운전하던 동진(東進)여객 소속의 시외 「버스」(경기 영 一五六九호)는 승객을 만재한 수원(水原)을 출발 서울로 달리던중 시흥군 동면 독산리(始興郡 東面 禿山里=始興에서 八百米地點) 앞도상에 이르렀을때 돌연 오른편바퀴가 떨어져달아나는 바람에 옆에있던 가로수(街路樹)를 들이받아 三十二명의중경상자를 발생시켰다고하는데 이날의 부상자들은 모두 영등포시립(市立)병원에 운반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는바 다행이도 사망자는 없었다는것으로서 부상당한승객들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重傷者十二名 (金泊二週以上)

▲金崇燦(二五=서울東大門區淸凉里一洞山 二號六號) ▲韓敬萬(二二=京畿道始興郡郡廳 一〇一) ▲李用雄(五〇=서울中區旭林洞二七〇) ▲林炳勳(一九=서울東大門區綠蔭洞二五四) ▲具滋允(二〇=京畿道始興郡郡廳前始興邑九五) ▲金圭默(四七=仁川市昌榮洞一六五) ▲馬福喜(四七=시흥永登浦區楊平洞二一三) ▲金明良(四六=京畿道華城郡日旺面타광리) ▲鄭在萬(二七=女=서울中區舊忠洞二街八五) ▲宋英子(一九=女車掌=서울永登浦區新吉洞九六의八) ▲柳相律(二二=女=서울永登浦區文來洞一統) ▲李貞順(三七=女=서울長興國中職校敎員) ▲徐仁玉(四九=連絡手=서울永登浦洞四二〇) 外二〇名

시흥부근에서 버스 전복 32명 부상

▶ 1957.3.5 석간 3(8)

버스가 또 半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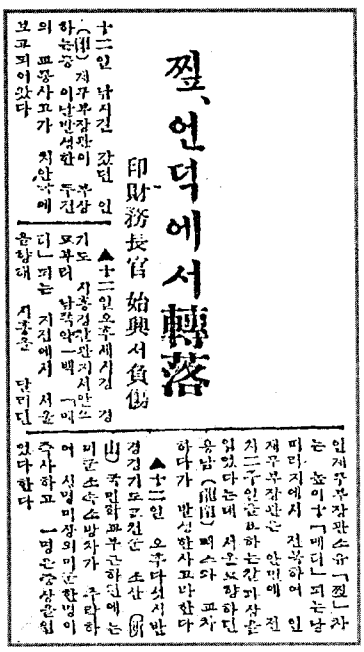
永登浦始興間서 重傷者四名

三일하오六시경 영등포와 시흥(始興) 사이에있는 마장교(馬場橋) 남방 一백m지점에서는 수원(水原)서 서울로오던 「에터」지 (버스) 서울영一一一二호 「버스」(서울영一一三二호)에서 불이일어나 四명이 중상을입고 八명은 경상을입었다하며 문「버스」는 반소되었다한다 그런데 발화원인은운전수 김일재(金一載=三五)씨가 휘발유 五「까론」을 구하여다가 「버스」에다주유하던순간 「엔진」과연로 휘발유에인화된것이라하며 중상자四명은시립영등포병원에 입원가료중이라한다 병(朴炳丙) 소장과 정시흥 강교(馬場橋) 남방 一백m지점에서는 수원(水原)서 서울로오던 「에터」지 (버스) 서울영一一一二호 「버스」(서울영一一三二호)에서 불이일어나四명이 중상을입고 八명은 경상을입었다하며 문「버스」는 반소되었다한다 그런데 발화원인은운전수 김일재(金一載=三五)씨가 휘발유 五「까론」을 구하여다가 「버스」에다주유하던순간 「엔진」과연로 휘발유에인화된것이라하며 중상자四명은시립영등포병원에 입원가료중이라한다 병(朴炳丙) 소장과 정시흥 강교(馬場橋) 남방 一백m지점에서는 수원(水原)서 서울로오던 「에터」지 (버스) 서울영一一一二호 「버스」(서울영一一三二호)에서 불이일어나四명이 중상을입고 八명은 경상을입었다하며 문「버스」는 반소되었다한다 그런데 발화원인은운전수 김일재(金一載=三五)씨가 휘발유 五「까론」을 구하여다가 「버스」에다주유하던순간 「엔진」과연로 휘발유에인화된것이라하며 중상자四명은시립영등포병원에 입원가료중이라한다

버스가 또 반소

영등포 시흥간서 중상자 4명

▶ 1957.5.14 석간 3(6)



찔、언덕에서轉落

印財務長官 始興서負傷

十二일 낙시간 갑린 인 (田) 재무장관이 부상 하였음 이날만생한 두건 의 교통사고가 치산국에 보고되어있다

인재무부장관은 「찔」차는 높이十「메다」되는날 미다지에서 전복하여 인 재무부장관은 안면에 전 치二주인줄모하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는데 서울로향하던 윤남(潤南)에스와 교차하다가 발생한사고라한다

▲十二일 오후다섯시반 경기도시흥군 소산(所山) 국민학교부근에서는 이곳 소속 발동기선이 주탄하여 십일미상의 이곳 한일이 즉사하고 一명은중상을입고 있다한다

찔 언덕에서 전락

印泰植재무장관 시흥서 부상

▶ 1957.10.17 석간 1(5)

選擧法分離不當

野側、始興會談聲明에反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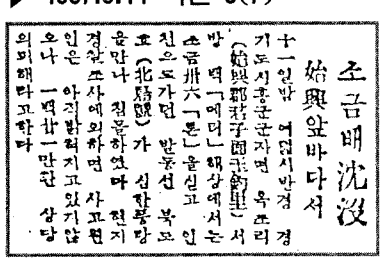
民議員 參議員選擧法案을 分離提案하기 同時通過하도록한다는 決起 團 與 張澤相등三指導者의 合同 事項은 各派議員을에게적지않은 反撥을일으켰다 兩法案을 分離提案한다는 原則에對한議員들의 反撥은自然히協商結果 보이두어 진折衷案中 얼가지問題에 있어 十五日밤의始興會談 結果에依한 與會議員選擧 法案의與會通過에는 相當 한難關을 克服하지않으면 안될것으로보인다 이反撥 지않은 野黨議員들 사이에서 더욱强力하게 表面化되었 는데 그들은 「參議院構成 을하지않고있는것이 違憲 이라고 主張하던野黨側이 오히려 同調했던것인데이제 와서 民議員選擧法案과分 離한다는것은 「스스로違憲 的인것」이라고 反駁분을 모나고있는데 十六日아침 野黨側은公公 然하게 三者會談이 「協商 員과政友會所屬議員들으로大 體로 三者會談을 「政擧밥

同動(民)議員은 「포大 統領이應天에걸쳐 參議院 構成을促求하였고 野黨側 모이에同調했던것인데이제 華한다는것은 悉行하는것」이라 고 그不當性을指摘하고있 으며 이밖에民主黨所屬議 員은 政局은 大 수없는 「國事」라고 平穩하 고있다 한편三者會談에나 있던 當事者의 한사람인 民主黨 張勉 最高委員은 現實的인利 害關係를考慮해서 野黨이 協商에 應할것같다는 觀測을 내리고있다 始興會談에서 兩法案을 分 離하여 提案키로한것도 原 案으로는 통과하기란 오늘날의 實情으로보아서不得已 取 해진것이고 「앞으로도 같은 協議가 있을것」이라고말 하였다

선거법 분리 부당

야당측 시흥회담 성명에 반발

▶ 1957.9.14 석간 3(7)



소금배沈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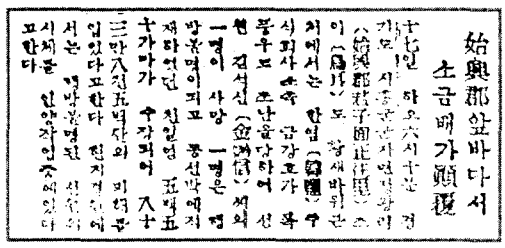
始興앞바다서

十一일밤 여덟시반경 경기도시흥군군자면 옥포리 (始興郡君子面玉浦里) 서방 一백「에머」해상에서는 소금배六「톤」을싣고 인천으로가던 발동선 북고호(北高號)가 신원불명 을만나 침몰하였다 현지 경찰조사에의하면 사고된 인은 아직밝혀지고있지않 으나 一백십一만원 상당 의피해라고한다

소금배 침몰

시흥앞바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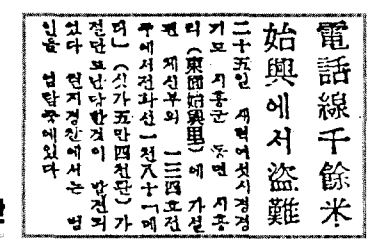
▶ 1957.10.19 석간 3(2)



始興郡앞바다서
소금배가顚覆

시흥군 앞바다서 소금배가 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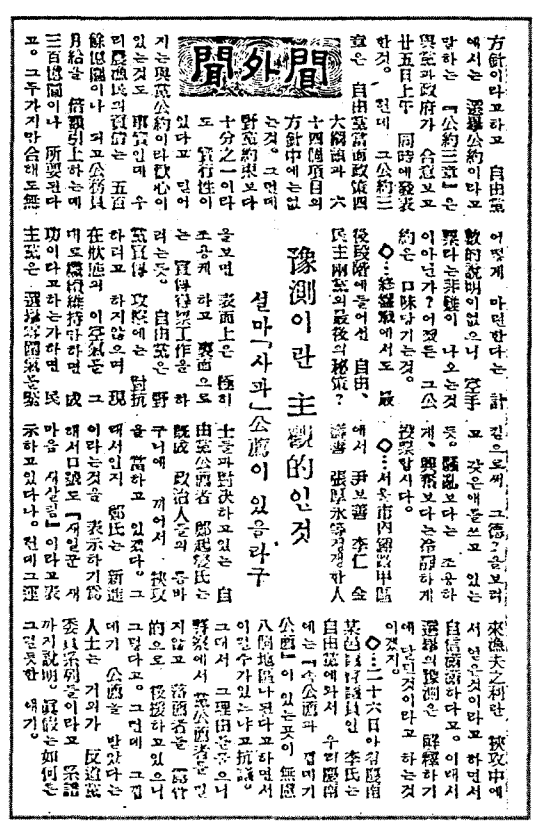
▶ 1957.10.27 석간 3(1)



電話線千餘米
始興에서盜難

전화선천여미터 시흥에서 도난

▶ 1958.4.27 석간 1(7)



閒外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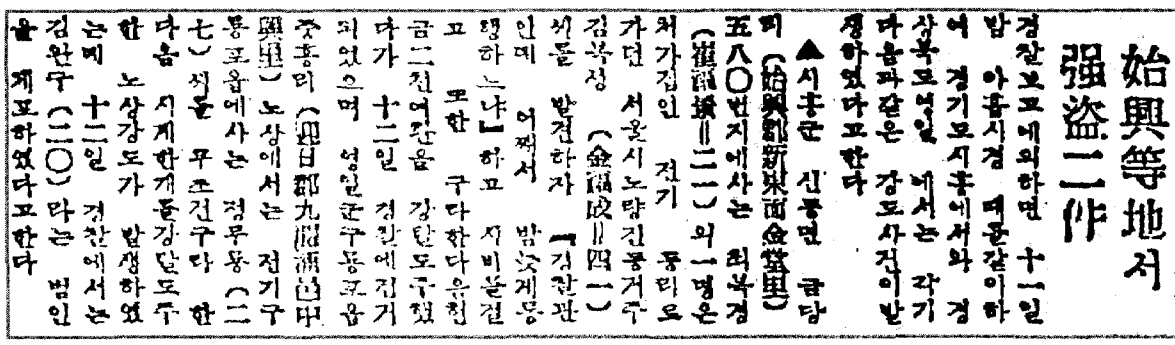
豫測이란 主觀的인것

설마「사과」公薦이 있을라구

시흥군

출마자 李英燮씨 기소

▶ 1958.10.14 석간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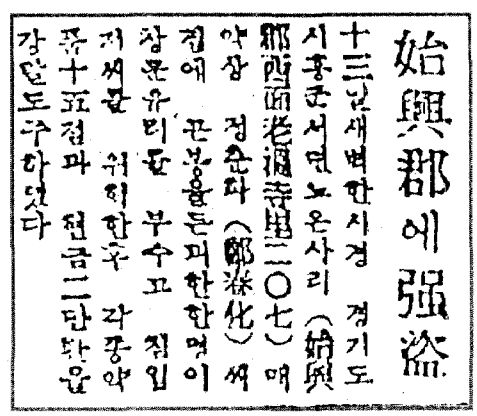
始興等地서
强盜二件

경찰보고에의하면 十一일
밤 아홉시경 데문같이하
여 경기모시흥에서와 경
상북모영일 에서는 각기
다음과같은 강도사건이발
생하였다고한다

▲시흥군 신동면 금당
리(始興郡新東面金堂里)
五八〇번지에사는 최복경
(崔福璟‖二一)의一명은
처가집인 전기 동리로
가던 서울시노량진동거주
김복성 (金福成‖四一)
씨를 발견하자 『김관관
인데 어째서 밤늦게몽
행하느냐』하고 시비를걸
고 또한 구타하다유친
금二천여환을 강탈도주했
다가 十二일 경찰에잡기
되었으며 영일군구룡포읍
중흥리 (迎日郡九龍浦邑中
興里) 노상에서는 전기구
룡포읍에사는 정무용 (二
七) 씨를 무조건구타 한
다음 시계한개를강탈도주
한 노상강도가 발생하였
는데 十二일 경찰에서는
김완구 (二〇) 라는 범인
을 체포하였다고한다

시흥등지서 강도 2건

▶ 1959.9.14 석간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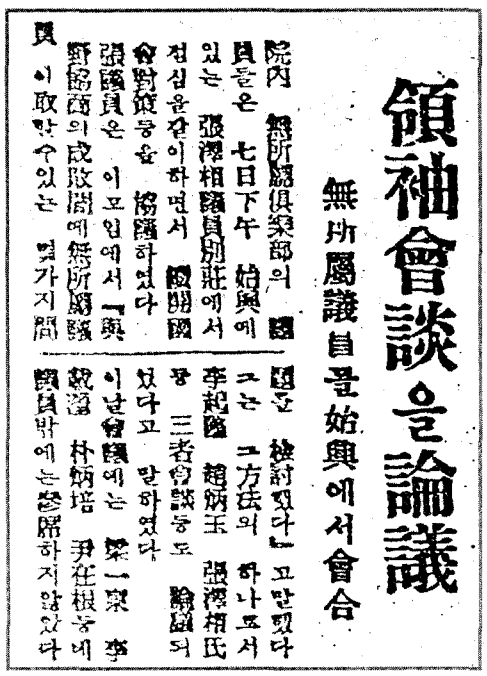


始興郡에强盜

十三일새벽한시경 경기도
시흥군서면노온사리 (始興
郡西面老溫寺里二〇七) 여
약상 정순자 (鄭淳化) 씨
집에 괴한여이
침입 부수고
각종약
품十五점과 현금二만원을
강탈도주하였다

시흥군에 강도

▶ 1959.5.8 조간 1(3)



領袖會談을論議

無所屬議員을始興에서會合

院內 無所屬俱樂部의 [illegible]
員들은 七日下午 始興에
있는 張澤相議員別莊에서
점심을같이하면서 國關國
會對策등을 協議하였다
張議員은 이모임에서 「與
野協商의成敗問에無所屬議
員이取할수있는 몇가지問
[illegible]도 檢討했다」고말했다
그는 그方法의 하나로서
李起鵬 趙炳玉 張澤相氏
등 三者會談등도 論議되
었다고 말하였다
이날會議에는 梁一東 李
敎善 朴炳培 尹在根등네
議員밖에는參席하지않았다

영수회담을 논의

무소속 의원들 시흥에서 회합

▶ 1959.9.21 석간 3(8)

全員에無嫌疑

始興兵器隊서

彈丸爆發事件

二十一일상오 서울지방검
찰청 황전영(黃銓永)검
사는 경기도시흥군(始興
郡)소재三〇六병기대대의
탄환폭발사건의 수사를종
결하고 경찰이 저항했던
「일반이적혐의」에 대하
여 전원에게 무혐의결정
을 내렸다
황검사는 이날 八명의
○) 등 三명의 고물상들
에 한하여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명을 적용구
속기소했다

◎總資産80餘億圓整(資本金社10億社)
海上保險 一切擔保
海上保險 共同事務所
TEL ②1097 ②4106-8

자동 안동식(安東植)二一
강순태(姜淳泰)二二
七) 김동한(金東漢)二三

시흥 병기대서 탄환 폭발사고

전원에 무혐의

▶ 1959.11.11 석간 3(1)

헐벗은 山野를 기름지게

始興現地서 五年計劃첫發足

明春까진 10萬헥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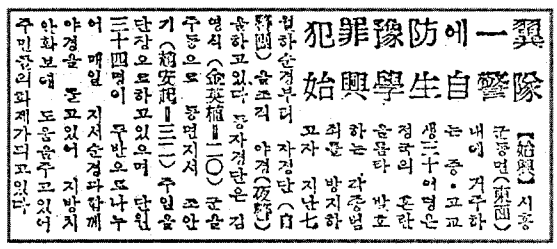
總砂防工事面積은 671헥타

砂防事業促進全國大會盛況

헐벗은산야를기름지게

시흥 현지서 5년 계획 첫 발족
사방사업 촉진회 전국대회 성황

▶ 1960.10.28 조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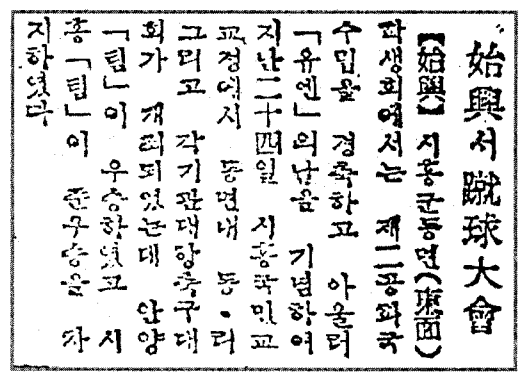


翼一에 防豫罪犯
隊警自生學興始

【始興】시흥군동면(東面) 내에 거주하는 중·고교생三十여명은 정국의 혼란을 틈타 발호하는 각종범죄를 방지하고자 지난七월하순경부터 자경단(自警團)을 조직 야경(夜警)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 동자경단은 김영식(金英植ㅣ二〇) 군을 주동으로 동면지서 조안기(趙安基ㅣ三二) 주임을 단장으로 하고 있으며 단원 三十四명이 두반으로 나누어 매일 지서순경과 합께 야경을 돌고있어 지방치안화보에 도움을주고있어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시흥학생자경대 범죄예방에 일익

▶ 1960.10.29 조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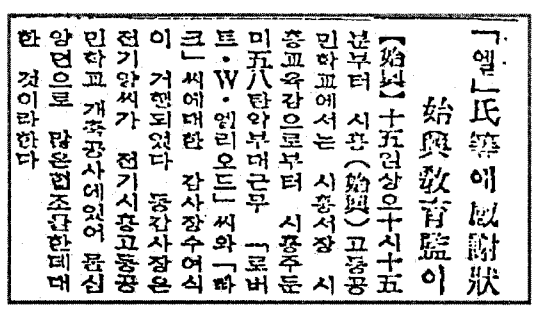


始興서 蹴球大會

【始興】시흥군동면(東面) 학생회에서는 제二공화국 수립을 경축하고 아울러 「유엔」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二十四일 시흥국민교 교정에서 동면내 동·리 대항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안양 「팀」이 우승하였고 시흥 「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시흥서 축구대회

▶ 1961.1.18 조간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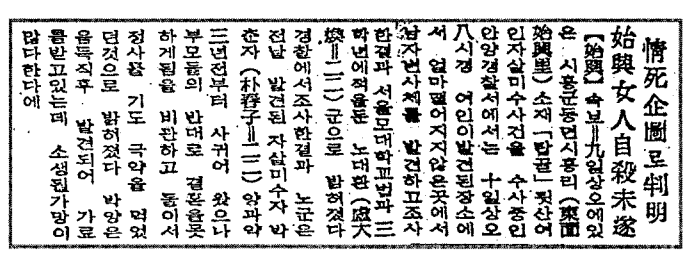
「엘」氏等에 感謝狀
始興敎育監이

【始興】十五일상오十시十五분부터 시흥(始興)고등공민학교에서는 시흥서장 시흥교육감으로부터 시흥주둔 미五八탄약부대근무 「로버트·W·엘리오드」씨와 「바크」씨에대한 감사장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동감사장은 전기양씨가 전기시흥고등공민학교 개축공사에있어 특심한 편의로 많은협조를한데대한 것이라한다

시흥교육감이

「엘리오드」씨등에 감사장

▶ 1961.3.14 조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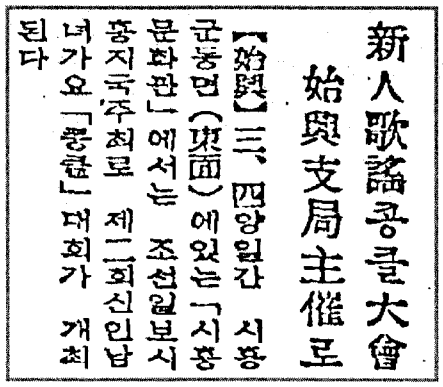


情死企圖로判明
始興女人自殺未遂

【始興】속보=九일상오에있은 시흥군동면시흥리(東面始興里) 소재 「탑골」뒷산에서 안양경찰서에서는 十일상오八시경 여인이발견된장소에서 염마멸어지지않은옷에서 「청자빈사체를 발견하고조사한결과 서울모대학교법과 三학년에적을둔 노대완(盧大燁ㅣ二二)군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조사한결과 노군은 전날 발견된 자살미수자 박춘자(朴春子ㅣ二二) 양과약 三년전부터 사귀어 왔으나 부모들의 반대로 결혼을못하게됨을 비관하고 동이서 정사를 기도 극약을 먹었던것으로 밝혀졌다 박양은 을득지후 발견되어 가료를받고있는데 소생될가망이 많다한다에.

시흥여인 자살 미수 정사기도로 판명

▶ 1961.5.3 조간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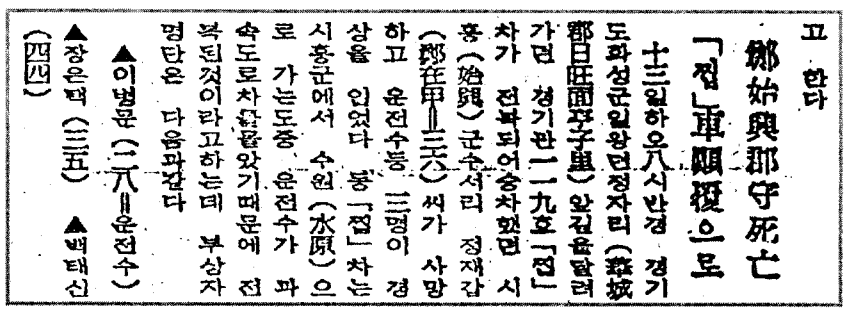


新人歌謠콩클大會
始興支局主催로

【始興】三、四양일간 시흥군동면(東面)에있는 「시흥문화관」에서는 조선일보시흥지국주최로 제二회신인납너가요「콩쿨」대회가 개최된다

시흥지국 주최로 신인가요콩클 대회

▶ 1962.2.14 석간 3(9)



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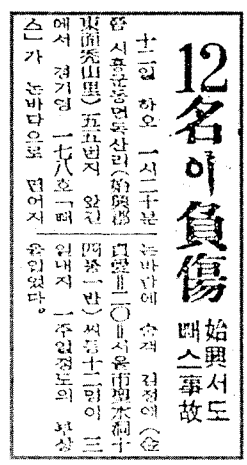
鄭始興郡守死亡
「찝」車에 顚覆으로

十三일하오八시반경 경기도화성군일왕면정자리(華城郡日旺面井子里)앞길을달려가던 경기관一一九호「찝」차가 전복되어숭차했던 시흥(始興)군수서리 정재갑(鄭在甲=三六)씨가 사망하고 운전수등 三명이 경상을 입었다 동「찝」차는 시흥군에서 수원(水原)으로 가는도중 운전수가 파속도로차륜을앗기때문에 전복된것이라고하는데 부상자명단은 다음과같다

▲이병문(二八=운전수) ▲백태신(四四) ▲장은택(三五)

필차 전복으로 鄭在甲시흥군수 사망

▶ 1962.4.13 조간 3(1)



12名이負傷
始興서도
버스事故

十二일 하오 一시二十분 시흥군동면옥산리(始興郡東面玉山里)五五번지 앞길 논바닥에 승객 김정애(金貞愛=二〇=시흥市鼎水洞十四반)씨등十二명이 三에서 경기영 一七八호「버스」가 논바닥으로 떨어져 一주일정도의 부상을 입게되었다。

12명이 부상

시흥서도 버스 사고

▶ 1962.5.19 조간 1(1)

自由센터 來月中에 着工

京畿道 始興郡 冠岳山 附近에

基金 12億圜이 이미 確保

三十名으로 籌備委員會 構成

亞洲民族反共聯盟 임시총회가 결의한 바에 따라 韓國에 설치되는 自由「센터」는 세계 각국으로 공산주의 실상을 폭로하는 한편 자유진영 국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게 되며 그 位置는 京畿道 始興郡 冠岳山 부근으로 대충정해졌음이 十八日하오 알려졌다。韓國聯盟 理事長인 朴馥洙씨는 「센터」 設置基金으로 이미 十二億圜이 확보되었음을 밝히면서 『十月에 東京에서 열릴 八次總會까지는 상당한 규모를 보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또 앞으로 구성될 籌備委員會에서 設立、企劃、涉外、總務등 實務의 發起人을 다음과 같다。

▲朴馥洙 ▲金俊燁 ▲朴泌圭 ▲金活蘭 ▲金点坤 ▲金東成 ▲朴圭夏 ▲金用雨 ▲朴一 ▲金昌順 ▲趙民夏

자유센터 내월중에 착공

경기도 시흥군 관악산 부근에 기금 12억환 이미 확보

▶ 1962.6.5 조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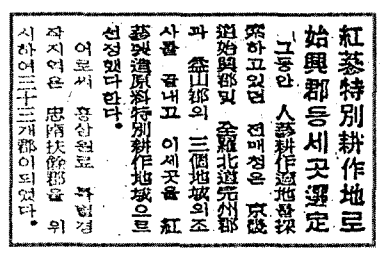
"職場閉鎖는 不當"

勞總 始興鑛山 告發키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기도시흥관산(始興鑛山)의 직장 폐쇄에따르는 一명三十명의 중업원들의 구호대책을세우고 시흥화산회사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四일 결정했다。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은 시흥광업주식회사가 노동조합의 해체를 도모하여 직장폐쇄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시흥광업주식회사측이 작년十二월에 노동조합간부 十七명을 정당해고했다가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되어 현정명령에의해서 해고했던 十七명과 十四개산업노동조합에 금품인하하는 도급단가(都給單價) 제정을 신시하여 이에반대하는 三十명의중업원에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四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여기에대비해서 시흥광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전국작업장지정투쟁위원」로 지목되어 현정명령에의해서 해고했던 十七명과 十四개산업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해고、포고령 위반으로 송치(送致)했던 도급단가 인하반대투쟁 중업원들의 구속대책을 협의하기로 四일 결정했다。대의원은 거부하는동맹위원장 해오다가지난五월八일에직장

▶ 1963.4.6 조간 4(10)



紅蔘特別耕作地로
始興郡등세곳選定

「그동안 人蔘耕作適地를探索하고있던 전매청은 京畿道始興郡및 全羅北道完州郡과 益山郡의 三個地域의조사를 끝내고 이세곳을 紅蔘興造原料特別耕作地域으로 선정했다한다。

여로서 흥삼원료 특별경작지역은 忠南扶餘郡을 위시하여三十三개郡이되었다。

▶ 1963.11.28 조간 7(6)

과잉투표

밀양·삼랑진·시흥에서도
유권자수보다 더많아

密陽·三浪津·始興에서도 有權者數보다 더많아

과잉投票

野黨側 保全申請 준비

투표자수가 一천六백五十八명인데 투표지는벌써 가다나왔으며 위원장전임원은 투표가 완전히 아직 참관인이 재검표및무효선언환요구했으나 개표강행했기때문에 소송을제기하겠다고 밝히고있다。【始興支社】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하면 경남 十六구밀양(密陽)삼랑진(三浪津)제一투표함을 검표한 결과 투표자四천七十六표보다 二十표가 더많은 四천九十六표가 나왔다。이와같은 사실은 민정당참관인 장원술(張源述)씨가 입회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같이 투표함 四천一백四十표가 나왔다。

정기十三지구(始興·西川·軍浦·雙鶴)에서는투표자수보다 많은 투표용지가나와 국민의당후보 박제환씨는 전부표만의 보선신청을 법원에 내기로했다。 【동지구 소재면 제一투표

시흥 국민의당서

당선무효 소송

▶ 1963.12.7 조간 7(7)

當選無效訴訟

始興국민의당서

6일하오 국민의당대표최고위원김병로(金炳魯)씨는 공화당의 당선자 육조남(陸朝南)씨를 상대로 당선무효및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 1964.06.17 조간 7(1)

2名服死, 2名入病 始興에서

잠든새벽, 호롱불켜다 불나

시흥에서 잠든새벽 호롱 불 켜다 불나

2명소사 2명 화상

동생의 悲報도 모른채

꿈이던 땅사러 自願해 갔어요

같이 轉轉한 孤兒院入隊도 같이

【京畿道 始興郡下에서 本社特派員 金榮基·金鎭昶·朴鎭恒發】 정기도 지방은 지금 보리시기로 김봉남 (金鳳男=41=가명) 씨의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24년전, 추집 피란길부터의 전재생사 노동기 (전쟁=25)하나의 단하나뿐인 혈육기전 (전쟁=26) 직장 부생의 [연락] 을 전하고 찾아오라 보리을 동생의 전지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봉남씨의 고생으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 3년동안에 사회 풍파에 시달리다 이 이야기에서 3년동안에 부정보안지못한 고생을 겪었다。 7세때 5세인 노하사 를 이끌고 전주시전매보 육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부터였다。 어린나이 기전적 지저분한 생각을 하지않았다。 부모들이 부산으로 이동하자 이 어린생각으로 모든 이별 혈육이 이별이 되었다가 이곳 합천, 문득 기전적 문산으로 갔다。 문산에 도착한 이들은 문산지청으로부터 사정을 알기하고 「고아」 이유원의 수용되

◇同生의 얼굴도 모르고 얼하는 모습을 지켜

<동생의 悲報도모른채 손님을맞은 盧基善씨의 초人집에들러든 동네사람들과 웃고가

<士王基雲虛 의時生>

며날直前에말렸더니 "꿈을위해선 이길뿐"

마자 제대하여 집에 돌아온 것은 1년전이었다。 『전남의 노하하여 이 되 부산에 있는 형님을 찾아 가보았다는 것이 그만 이곳에 눌러앉게 되었다』고 말했다。

7년동안 정감이란 전혀 없었다는 노하사의 얼굴에는 그러나 어느새 감회가 서리고 있었다。

24일만 기전적가 하겠다는 노하사의 얼굴에는 그러나 어느새 감회가 서리고 있었다。

동생의 비보도 모른채

꿈이던 땅사러 자원해 갔어요 시흥에 있는 盧雲基하사의 형은 말한다

▶ 1965.11.27 조간 1(9)

[聞外聞]

지역구 출신의원과 전국구 출신의원이 백중지세로 겨룬 공화당의 시흥-부천-웅진구의 개편대회

重中農의 「中進國」이로

시흥서 부녀자 희롱끝에…

3백여명이 패싸움 벌여 20명 부상

▶ 1966.10.14

3百餘名이 패싸움

始興서 婦女子 희롱끝에… 20名負傷

▶ 1967.2.17

始興등변두리에
家內工業센터

서울시는 16일 시흥、상계、신림、거여동 변두리지역에 가내공업센터를 설립、영세민들의 생활기반을 만들게 했다。 당국은 우선 2천만원을 들여 소규모 벽돌공장 4개를 3월내로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방직기계、노트공장등을 세운다는 것이다。

시흥동 변두리에

가내 공업센터

▶ 1967.3.25

캐나다서보낸衣類
始興難民村에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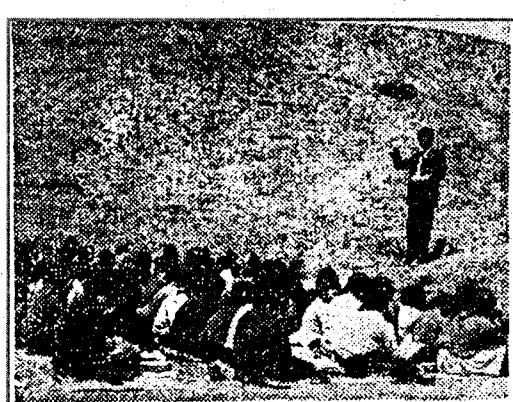
24일 서울시는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서 난민구제용으로 기탁해온 의류 1만여점을 영등포구 시흥동 난민촌의 1천2백가구에 골고루 나누어 줬다。

캐나다서 보낸의류

시흥 난민촌에 전달

▶ 1967.4.28 조간 4(1)

始興難民村에
사랑의露天敎室



◇배움길을 잇게한 노천교실。

大學生 10名이 지난12月부터
百餘어린이에 中學課程 授業

서울의 빈민지 영등포구시흥동 수재민촌에 중학과정을 무료로 가르치는 배움터가 마련됐다。 무료봉사를 나선교사들은 배희남 (22) 심명섭 (22) 군등 연세대신학과 기독학생회회원 10명。 배움터라야 판자집 언덕위에 거적과 휴지를 깔다놓고 지난 12일에수업을 시작한 보잘것없는 노천교실이다。

시흥 난민촌에 사랑의 노천교실

대학생 10명이 지난 12월부터

▶ 1967.6.9 조간 3(1)

곳곳서 代理投票 暴力사태

野參觀人에 못매

始興2投票所 新民黨青年들도反擊

選擧官 앞서 取材記者폭행

河東에서도 參觀人납치

8일 오전7시40분경 서울 영등포갑구 시흥 제2투표소에서 공화당 참관인 유남주씨(52)가 신민당참관인 유남주씨(43)에게 너무 오래 투표인명부를 대조한다고 항의함으로써 시비가 벌어져 최영점(52) 위원장에의해 양당 참관인이 퇴장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투표소밖으로 나오자 변관석(42)등 4, 5명의 공화당원이 신민당참관인 유남주씨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몽매를 가했다.

입하루 신민당정보기동대원 약20명은 6대의 캠에 분승, 투표소안으로 들어와 공화당참관인을 집단구타하고 이를제지하던 장태순순경등 3명의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투표가끝난 8일오후 5시20분경 서울 용두1동제3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감행하던 공화당원 이기자는 대리투표를 반대하는 청년이 청바지경찰서장실에 있는것을 알고 이 사실을 취재하던 동양방송 이대식기자가 공화당원에게 집단구타되는가 하면 입부에서는 군개투표가 행해지는등 공포분위기속에 투표가 진행되고있다고 주장 「투표를 중지하고 공포 분위기를 없애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8일오전6시30분경 영등포군 양평동 사무소에 20대의 청년 수명이 나타나 동면 1, 2, 3투표구 신민당추천 참관인 정태순씨(40)등 3명의 추천서류를 빼앗아갔다.

【安養】 8일오후9시30분경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에서 서울-수원-안양간의 선거연락용 시외전화선 6백m(2·9㎞)가 절취되어 이날밤11시까지 통화가 중단됐다.

◇騷亂의現場 8일오후1시25분경 서울서대문갑구 제3투표소앞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는 박모씨(34·중앙)를 사이에놓고 공화-신민 양당원들이 「가자」「못간다」로 시비를 벌이고있다.

곳곳서 대리투표…폭력 사태

야 참관인에 못매. 시흥 2투표소 신민당원 청년들도 반격

▶ 1967.5.9

區廳職員 暴行致死

始興洞民들이,不正캔다고

◇손씨

난민주택건립보조금 횡령여부를 조사하러나갔던 서울영등포구청관악출장소 사회담당 손관선 (38·시흥동220)씨가 주민들에게 맞아 7일 새벽1시쯤 숨졌다.

손씨는 지난6일 오후4시쯤 서울시흥동 난민주택건립보조금 7만원을 횡령했다는 통민들의 진정서를 받고 시흥동27산장 심영선씨를 찾아 사실여부를 물던 도중 김장규 (48·시흥동산89)、강용남 (27·ク)씨등 3명이나타나 『너는 부정이나 이럼짓을 많이하고 난고 욕설을 퍼붓으로 손씨의 목을 조르며 심신시켜 이튿날새벽 1시쯤 숨지게했다.

경찰은 이들3명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시흥동민들이 부정캔다고

구청직원 폭행치사

▶ 1967.12.6 조간 4(3)

始興등7個洞에 신규로區劃整理

5일 서울시는 68년도에 22억원의 예산으로 시흥 중곡 도봉 우이 수색 중화신림등 7개동에 3백80만평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새로 벌이고、이미 구획정리 작업을 하고있는 창동 망우리 화양 연희 연희 성산 김포동 7개지구의 구획정리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다。신규구획정리사업 정리지구의 정리면적과 예산은 다음과같다。

▲中谷=40만평(2억40만원) ▲道峰=60만평(3억6천만원) ▲牛耳=60만평(3억6천만원) ▲水色=60만평(2억4천만원) ▲新林=60만평(3억6천만원)

시흥등7개동에

신규로 구획정리

▶ 1968.3.27 조간 3(1)

始興앞바다에 怪漢 5名出沒

潛跡정로 徹夜수색

인근海岸-山돔봉쇄 漁夫 申告

고무보트利用-日製농구화 자국

【북구·군서 發=金鎭煥·金仁鎭 記者】26일 새벽1시쯤 始興군 북면 인천시 해안에 괴한 4, 5명이 상륙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괴한이 상륙한 흔적이 있는 始興군 북면 군서리 앞바다 일대 해안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이날 하오까지 12시간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벌였으나 괴한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괴한들이 이날 상륙한 것으로 보인 곳은 始興군 북면 군서리 앞바다 일대 (서진) 봉우리 일대 해안이다.

이 1·5공화국 벌인 이날 하오 8시쯤 군서리 앞바다에 고무보트 1척이 떠 있는 것을 어부 4명이 발견,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비상을 걸고 부근 일대 해안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수색작전을 벌였으나 괴한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괴한들이 상륙한 흔적이 있는 군서리 앞바다 일대 해안에서 고무보트 1척과 노 2개를 발견했으며 고무보트 안에서 일제 농구화 자국 1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괴한들이 상륙한 흔적이 있는 군서리 앞바다 일대 해안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수색작전을 벌였으나 괴한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괴한들이 상륙한 흔적이 있는 군서리 앞바다 일대 해안에서 고무보트 1척과 노 2개를 발견했으며 고무보트 안에서 일제 농구화 자국 1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지휘하는 김우제대령이 부고있 상황선명을 【閔榮植記者찍음】

怪漢셋出現신고

東南쪽10余里農家서 "밥달라"

한편 수색대와 인근 어민 등에 의하면 괴한들이 상륙한 것으로 10월경인 군서리 북쪽 해안 (문제점) 부근에 괴한 3명이 나타나 밥을 달라고 하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있어 군서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작전을 펴고 있다.

시흥앞바다에 괴한 5명 출몰

잠적경로 철아 수색

▶ 1968.9.7 조간 3(9)

洪피고에死刑

始興一家間諜선고

서울 형사지법합의 2부 (재판장 李鍾振부장판사)는 6일 시흥 일가족 간첩사건의 洪順吉 (洪淳翼·41)피고인에게 간첩,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崔昌淑 (洪淳翼·38·洪淳翼의 처)등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15년에서 1년까지의 실형을, 朴正杓·16·洪淳翼의 장남) 등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흥일가 간첩선고

洪淳翼피고에 사형

▶ 1969.1.14 조간 7(5)

또 건널목慘事… 4名절명

始興 列車·택시충돌…「우선멈춤」않고 가다

지난 8일밤에 있었던 서울 영등포구 건널목참사에 이어 13일밤 7시20분쯤 시흥군 서면 유립리에서 4백90m 떨어진 서울영등포구 시흥동558 남부건널목에서 또 열차와 택시가 충돌, 4명의 사고를 일으켜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날 여수발-서울행 제61열차 (特急 통근호 第6號) 기관사 張水錫(45·대전열차사무소)가 이 건널목을 통과할 무렵 영등포에서 시흥군 서면으로 가던 유립운수소속 서울영1:9611호 코로나택시 (운전사 趙萬根·33·영등포구 구로동 간이주택247)가 우선멈춤을 않고 지나치다가 정면충돌을 한것이다.

충돌한 택시는 시흥연구소에 내려갈 손님 3명을 태우고 가다가 이 사고를 당했는데 택시에 타고있던 한명동(韓明同·34·시흥군서면 하안2리) 어인과 만삭 6개월(고3·3) 임산부 현장에서 숨지고, 운전사 조씨와 승객 평연규(平連奎·41·시흥군서면 하안1리)씨는 시흥 영등포병원으로 옮기는도중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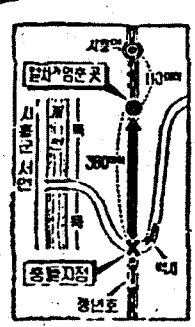
중년호 특급열차는 부서진 택시를 미58병기며 레이카로 끌어올리는등 사고뒤처리로 약1시간20분연착, 급행보통되돌려짜아되었다.

폭이 4m밖에 안되는 이 건널목에서는 지난67년12월과 68년2월에 열차와 트럭이 충돌하는등 사고가잦아 68년8월에 수동식차단기를 설치했으나 간수는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만 나와있기때문에 이날 사고시간에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았다.

송진경씨는 아들의 대학입학 문제로 서울에 갔다 오는 길이었으며 한어인은 친척 결혼식에 다니오다가 서 한승을 사람끼리 영등포에서 합승을 하게되었던 것이다. 사고원인은 건널목이 S자형으로된 경사진 곳에있어 모든차량은 일단정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택시운전사 조씨가 우선멈춤을 않고 돌진한때문이었다.

부딪쳐 380m나 끌려가 박살이 나택시를 크레인으로 끌어내고있다.

◇숨진 윤전사 조만근씨, 평연규씨, 한명동 어인과 만삭(위로부터).



시흥 또 건널목참사…4명 절명

열차-택시충돌

▶ 1970.9.18 조간 4(1)

人物로 본 韓国学

人脈

歷史의 두안길을 더는 特別連載

<34>

壯烈……어느 女兵候兵

水原에 뿌려져 뻗어난 農学人脈

冠岳山은 進步主義者

広州山脈 ①

華城, 葛平, 始興, 高陽

農民들에 흘러간 多面的인 護国思想

광주산맥, 화성, 부평, 시흥, 고양

▶ 1970.3.18 조간 8(7)

陽西·始興·梧柳洞 市外전화 (8)局으로 編入

오는21일 0시를기해 양서(陽西)·시흥(始興)및 오류(梧柳)의 자석식교환방식이 자동식교환방식으로 변경, 시외전화가 모두 시내전화로 자동화된다.

체신부는 이지역 주민의 전화소통편의를 위해 서울시내 전화가입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수동식전화를 모두 자동식 다이얼전화로 바꾸기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전화가입구역으로 편입된 이지역의 국번은 ⑧번이되며 서울시내 가입자를 호출할때는 먼저 0번을돌린다음 전화번호를 돌려야한다.

(69·8m)、연건평1만2천7백평에 5백4개의 객실을 갖추고있다.

양서-시흥-오류동 시외전화

(8)국으로 편입

▶ 1970.6.4 조간 7(8)

어린이伝染病번져 始興郡노온파리

【安養】시흥군 서면 노온파리입대에 이틀모르는 병이 번져 3일현재 홍후근(40)씨의 장녀 미영(4)양이 숨지고 최문자(61)노파의 3남 천부삼(15)군등 15세미만의 어린이 7명이 앓고있다.

군보건소는 이병을 아메바성이질로추정, 방역에나서는 한편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 도위생검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어린이전염병 번져

시흥군 노온파리

▶ 1970.11.22 조간 6(1)

술렁이기 시작한 永東地区

一部지역 換地공고

◇하늘에서본 永東地区 (본사 체비호機上에서 李榮雨기자 찍음·金鎭元조종)

年內 替費地 10萬坪 공매

換地된곳엔 建築허가도

60萬규모로 始興地区와 연결

永東橋가설, 議政府-京釜高速道 南北으로 관통

삼성-도곡洞에 商工部庁舍등 들어서

〈수도권 정보〉 술렁이기 시작한 영동지구

일부지역 환지 공고
60만 규모로 시흥지구와 연결

▶ 1971.1.20

預金百50萬원 가로채

시흥우체국職員구속 電話請約金도

19일밤 서울노량진경찰서는 예금한돈을 가로챈 시흥우체국저금계원 박종근(朴鍾根·33)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134 이예자(李藝子·32)씨등 13명에게서받은 전화청약금 780만원을 국고에넣지않고 가로챈것과비롯, 그해12월11일 이재관(李在光·50·시흥동 81)씨등 8명이 예금한 10만여원을 떼돌리는등 두달동안 모두 20여차례에걸쳐 1백50만원을 가로챘다는것이다.

박씨는 예금주들에게정액의 통장과 영수증을 발행하고 우체국 장부에는 이들이 전혀안된것처럼 꾸며놓고 돈을 찾으러온 예금주들에게는 자기가 돈을 빼돌해 놨다고 한다. 이사실을 알게된 박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돈을 찾으러 왔던 이재관씨에게 발각됐는데 박씨는 돈을 유흥비로 써버렸다고 한다.

예금 백오십만원 가로채

시흥 우체국 직원 구속

▶ 1971.5.26

洞職員이 通知表숨겨

始興 百12장

25일오전6시20분쯤 시흥2동 동직원 박경정(朴慶正·32)씨가 시흥2동산 91)씨등 1백12명의 투표통지표를 나누주지않고 시흥2동 제2투표소앞 답배가게에 숨겨둔것을 신민당 원 정수현(鄭守鉉·32)씨가 찾아냈다.

원씨는 이날아침까지 나눠주지못한 통지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기 위해서 보관했다고 변명했다.

동직원이 투표 통지표 숨겨

시흥 백십이장

▶ 1971.2.5

비전'71 私学 ②

中央大学校

医大부속病院·国際大 건립

水原-果川까지 2萬평 基地 10개년 매스터플랜

중앙대학교 의대부속병원·국제대 건립

수원 과천까지 2만평 대지

▶ 1971.4.24

年內 準工業地설정 어려워

始興등5개地区 豫算한푼도 策定안돼

주택가의 공해업소간 정리하고 도심인구분산을 위해 석유시가 추진중인 5개 준공업지구 설정사업은 예산의 책정없이는 불가능하다 관계국장의 참여조로 9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지못하고있다. 양택식 (兩澤植) 서울시장은 작년7월 시흥, 김포, 독산, 송파, 성산등 5개지구 5백18만7천평을 준공업지구로 만들어 도심에있는 3천7백여공장을 업종별로 재배치하여 각지구에 분산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8월초부터 착수키로 한

이 사업은 예산이 한푼도 책정되지않아 공장 부지와 공업용수등 여건조성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또 제3차추진에 있어서도 도시개발국은 공장유치문제이므로 주무국이 산업국이라 주장하고 있는가하면 산업국에선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여야하며 보사국에서도 공해업소 조처에 대한 협조가없다는등 이유를 내세워 관계국 간에 이견 (異見)을 빚고있다.

시 산업국 당국자는 이 에대해 『지난 3월 생산성 본부에 용역을 주어 세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재정 사정 때문에 유해안에 사업은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양시장이 아파트주민들과 함께 부녀생활 관의 개관테이프를 끊고있다.

金華아파트 生活館 개관

5百萬원들여 託児所·図書室갖춰

금화시민아파트 생활관이 23일오후 문을 열었다. 5백46만원을 들여 아파트53호동에 마련된 이 생활관은 탁아소, 도서실, 진로소개실, 부녀교실등을 갖추고있다.

기독교 태화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는 50~60명을 수용하며 부녀교실에서는 60명에게 아우장, 편물, 양재등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해준다.

생활관에는 이밖에도 「갑」동 마련, 단체 모임의 집」을 마련, 단체 비전등을 비치해 할머니들이 여가를 즐기도록 했으며 어린이와 어머니의 도서실, 가정문제상담소, 우량 및 불량상품전시장등도 들어선다.

通行路막힌 20住民 所有主가 팔아버려

서울서대문구대현동60의28 이병덕(공48)씨등 주민20명은 사용중인 토지를 소유주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윤보선)에서 지정개인에게 팔아버려 길이 막히게됐다고 23일 서울시와 보사부등에 진정했다.

이들은 70도·비닥전평균 25만8천40원에 팔았다』며 이씨등은 팔아버린 땅에 시선을 세우는경우 진입로가 없게되고 나머지 19가구는 폭1m정도의 좁은길을 사용할수밖에 없다고 관계당국에 시정을 호소했다.

한편 곽씨는 『공공, 마지는 않겠다. 정당하게 산것이며 왜 대드는지 모르겠다』고 말서고있다.

▶ 1972.4.5 조간 1(7)

山地개발지시

朴大統領, 始興들러

朴正熙대통령은 4일오후 4시55분부터 中央廳舍大会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길에 京畿道始興郡을 들러 보고받고 『앞으로 정부는 山地개발을 위한 立法조치를 마련할것이며 이 산지이라도 마을주민이나 그이전이라도 마을주민의 협의해서 소유주와 협의해 산에 山主와 협의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되는 有実樹를 심는등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金宰潤農林部長官의 보고에서 아직 旺山里에 전기가 들어오지않았다는말을 듣고 『農村電化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에따라 되는것이지만 自助사업에 협의를 보이고있는 이마을에 특별히 전기를 한달안으로 가설해주도록 하라』고 수행했던 金宰潤農林部長官에게 지시했다.

朴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모든 사업은 所得증대와직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공사중인 2·1km의 이마을 農路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사람들이 합심해서 不在地主를 설득하여 길을 넓히도록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朴대통령은 이어 九老洞한국수출공단에 들러 박명림이사장으로부터 단지운영을 보고받고 수출증진시책과 새한방직공장건설을 격려했다.

시흥등 5개지구 년내준공업지

설정 어려워

산지개발 지시

▶ 1973.1.30 조간 7(8)

◇진대사(오른쪽)가 김이장에게 성금을 전하고 있다.

本社주선으로 새마을結緣

駐加 韓國大使館-始興郡당삼리

캐나다주재 한국대사관과 경기도시흥군 남면 당삼리가 조선일보사의 주선으로 28일 오후 새마을 자매결연을 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구미(歐米) 지역 공관장회의에 참석차 귀국중인 진필식(陳弼植) 대사는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주 뭘루버총영사관, 대한무역진흥공사 토론토 몬트리올등 3개 무역관직원들이 모은 성금 20만원을 이장 김기양(金基陽·37)씨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협조를 약속했다.

김충원(金鍾元·56) 남면면장, 유지청(柳志廷·50) 지서장등 마을 유지와 주민들이 모인 이날 전연식에서 부락 지도자 유광업(38)씨는 『이돈으로 현재 전입해 있는 마을 회관을 10평에서 20평으로 확장하겠으며 부락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시흥군 당삼리

본사 주선으로 새마을결연

▶ 1973.5.5 조간 1(9)

企業體移轉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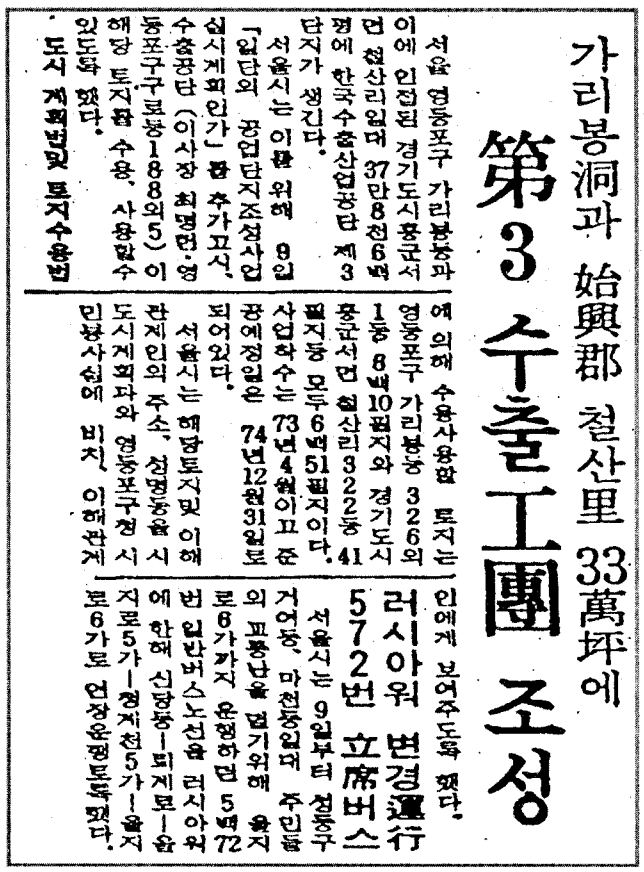
浚渫公社 이미 仁川옮겨
住宅公社는 永東 지구에
水資源 개발公社는 懷德
道路公社는 始興 板橋로

건설부는 首都圈 인구분산 정책에 따른 산하 국영기업체의 地方移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4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浚渫公社는 지난 3월말에 이미 仁川으로移轉을 완료했으며 ▲住宅公社는 年末까지 서울 永東지구에새 본사를 지어 移轉하며 ▲水資源開發公社는 연말까지 大田懷德 지구에 ▲道路公社는 始興郡 板橋지구에 각각청사를 신축, 이전하는것으로 잡혀있다.

기업체 이전확정

준설공사 이미 인천 옮겨, 주택공사는 영동지구에, 수자원개발공사는 회덕, 도로공사는 시흥 판교로

▶ 1973.7.10 조간 6(5)



가리봉洞과 始興郡 철산里 33萬坪에 第3 수출工團 조성

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과 이에 인접된 경기도시흥군서면 철산리일대 37만8천6백평에 한국수출산업공단 제3단지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9일 「입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추가고시, 수출공단 (이사장 최명헌·영등포구구로동188의5) 이 해당 토지를 수용,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 도시 계획법및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사용함 토지는 영등포구 가리봉동 326의 1동 8백10필지와 경기도시흥군서면 철산리322동 41필지등 모두 6백51필지이다.

사업착수는 73년4월이고 준공예정일은 74년12월31일로 되어있다.

서울시는 해당토지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등을 시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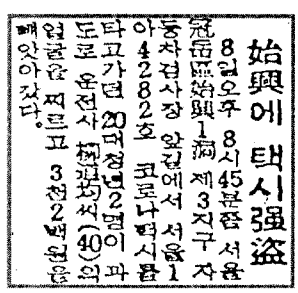
러시아워 변경運行 572번 立席버스

서울시는 9일부터 성동구 거여동, 마천동일대 주민들의 교통난을 덜기위해 율지로6가까지 운행하던 5백72번 입석버스노선을 러시아워에 한해 신당동-퇴계로-율지로5가-청계천5가-율지로6가로 연장운행토록했다.

가리봉동과 시흥군 철산리 33만평에

제3수출공단 조성

▶ 1974.3.9 조간 7(12)



始興에 택시强盜

8일오후 8시45분쯤 서울특별시 始興1洞 제3지구 자동차검사장 앞길에서 서울1아4282호 코로나택시를 타고가던 20대청년2명이 파도로 운전사 崔모씨(40)의 엽금을 찌르고 3천2백원을 빼앗아 갔다.

시흥에 택시강도

▶ 1974.3.10

脚光의 여울따라

電鐵驛주변 不動産 거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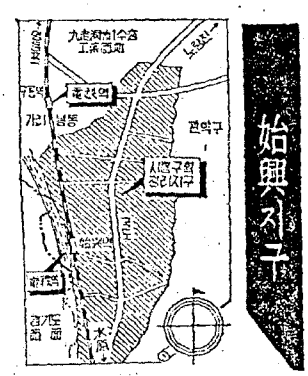
始興지구는 永登浦區 始興洞 乘山洞 加里峰洞等 3개동으로 永登浦에서 水原에 이르는 약 50분의 산업도로변에 자리한다. 이지역은 산업도로변부에 개발이 한창진행되다가 最近에게 되어 개발속도가 다소지연되고 있다. 지역은 1백70만평정도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오고있다. 주변도심권에서 자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지로서는 적합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평균 2만원안팎. 이것은 금년안에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상하수도시설이 안돼 기대만에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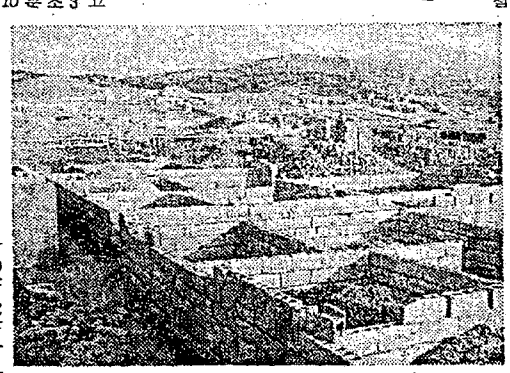
주택건설에 건축자재의 인상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50평에 건평 20평짜리 건축가격이 4백50만원선, 3년정도로 지불한다면 3백만원이면 살수 있다. 저지역은 수돗물도 하수처리가 안되고 있어 전체적인 상가가 형성되기에는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수있는 상가주택은 대략 20만원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영등포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흠이다.

始興지구 부동산업자 이영희씨(41)는 『始興지구는 아직 개발이 덜되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공장이 많아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始興지구 부동산업자 이영희씨(41)는 『始興지구는 아직 개발이 덜되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공장이 많아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始興지구 乘山洞에 짓고있는 D주택단지.

宅地등 작년比 50%나 뛰어

都心까지25分 坪당 3萬원線 去來활발

취재 8행부팀 부동산업이 이어드리 시작, 편재 취재

◇始興지구편

始興지구는 永登浦區 始興洞 乘山洞 加里峰洞等 3개동으로 永登浦에서 水原에 이르는 약 50분의 산업도로변에 자리한다. 이지역은 산업도로변부에 개발이 한창진행되다가 最近에게 되어 개발속도가 다소지연되고 있다. 지역은 1백70만평정도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오고있다. 주변도심권에서 자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지로서는 적합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평균 2만원안팎. 이것은 금년안에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상하수도시설이 안돼 기대만에 않은 편이다.

주택건설에 건축자재의 인상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50평에 건평 20평짜리 건축가격이 4백50만원선, 3년정도로 지불한다면 3백만원이면 살수 있다. 저지역은 수돗물도 하수처리가 안되고 있어 전체적인 상가가 형성되기에는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수있는 상가주택은 대략 20만원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영등포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흠이다.

始興지구 부동산업자 이영희씨(41)는 『始興지구는 아직 개발이 덜되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공장이 많아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九老공단편

九老공단은 지난69년 조성공사를 시작, 현재 1단계 공사가 끝나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곳에는 현재 1천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업원수는 3만여명에 이른다.

이곳 공단은 지난 70년 8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년반동안 입주업체수가 1천여개로 늘어나는 등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

▶ 1974.4.21(2)

疑惑의 自首 "7千9百萬원 들치기 당했다"

朱安震協 차대리-金양 警察에 나타나기까지

「盜難도」 누이집 은닉說

始興에 刑事隊 釜山행적에도 疑問點 많아

金양이 犯行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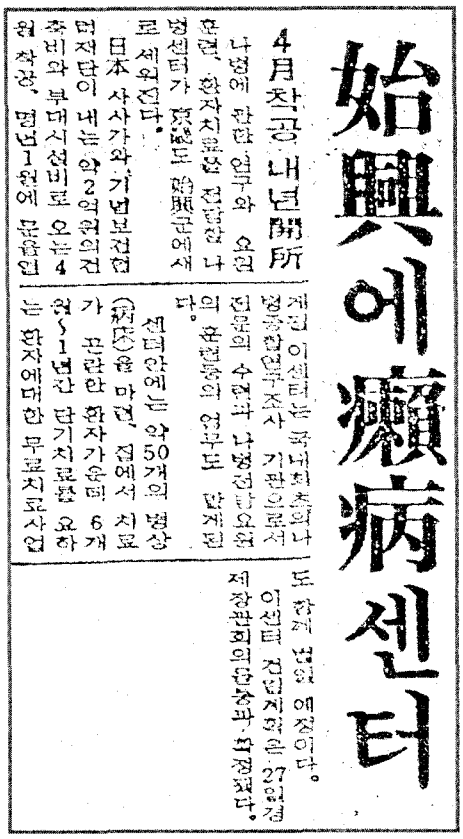
서울거쳐 釜山으로…露宿 돈잃어 密航포기

自首길에 妻子만나

夫人 "용서하겠으니 돌아오라" 흐느껴

우리關係에 웃음도 있었다

▶ 1975.2.28 조간 7(9)



始興에 癩病센터

4月착공 내년開所

나병에 관한 연구와 요원 훈련, 환자치료를 전담할 나병센터가 設置된다.

日本 사사가와기념보건협력재단의 내년 약2억원의 건축비와 부대시설비로 오는 4월 착공, 명년1월에 문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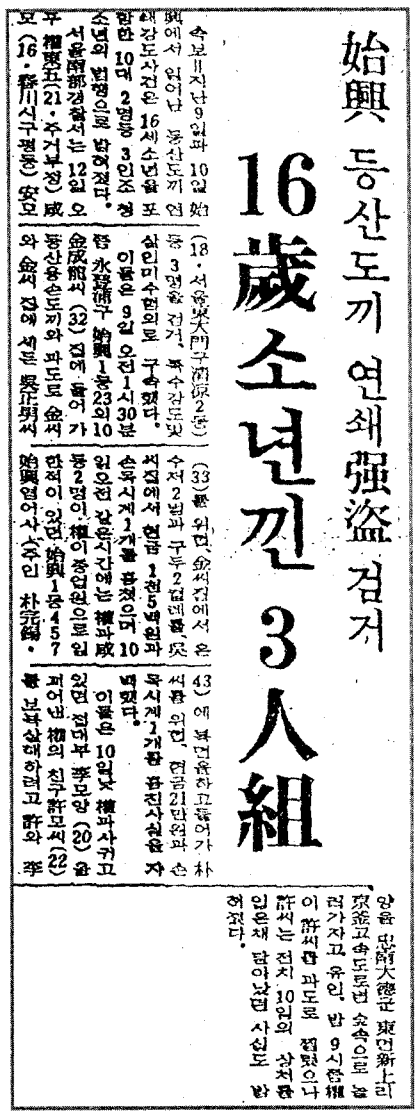
제공 이센터는 국립보건원 나병연구소 기관의료지원부의 수련과 나병전문요원의 육성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센터안에는 약50개의 병상을 마련, 집에서 치료가 곤란한 환자가운데 6개월~1년간 단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대한 무료치료사업도 한국 나병 예방 협회가 이센터 진료지원을 맡게 된다.

시흥에 나병센터

4월착공 내년 개소

▶ 1975.11.13 조간 7(7)



始興 등산도끼 연쇄强盜 검거

16歲 소년낀 3人組

속보=지난 9일과 10일 始興에서 잇따라 등산도끼 연쇄강도사건은 16세 소년을 포함한 10대 2명등 3인조 청소년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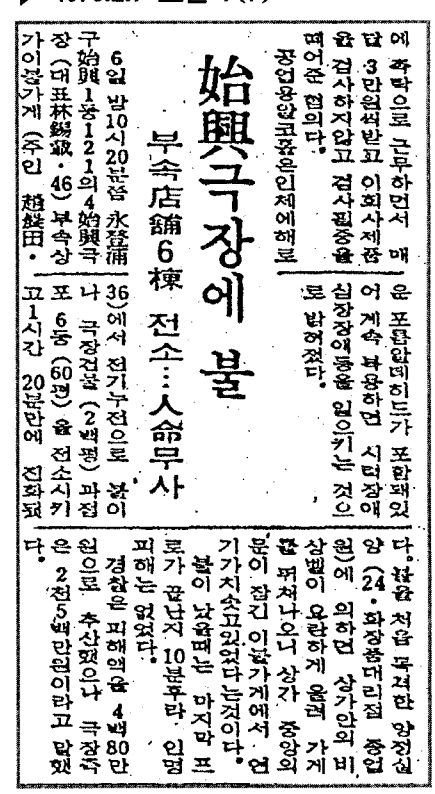
서울麻部경찰서는 12일 오후 柳東五(21·주거부정) 咸모(16·麻川시구평동) 安모(18·서울東大門구淸涼2동) 등 3명을 검거, 특수강도및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9일 오전 1시30분 麻포永登浦구 始興1동23의10 金成昭씨(32) 집에 들어가 동산용손도끼와 파도로 金씨 부부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金씨 집에 세들어 있던 始興연어사 李完鎬·李(33)를 위협, 金씨집에서 은수저 2벌과 구두 2켤레를 빼앗아 金씨집에서 현금 1천5백원과 손목시계 1개를 뺏었으며 10일 오전 같은시간에는 麻포成(43)에 복면을 하고들어가 차 등 2명이 麻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始興1동457 朴完鎬·李 보복살해하려고 許와 李 양을 麻포大德군 東인新노리 로 끌고 속도로변 숫속으로 끌려가자고 유인, 밤 9시쯤 麻이 許씨를 파도로 찍했으나 許씨는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은채 달아났다. 사건도 밝혀졌다.

시흥 등산도끼 연쇄강도 검거

16세 소년낀 3인조

▶ 1976.2.7 조간 7(7)



始興극장에 불

부속店舖6棟 전소…人命무사

6일 밤10시20분쯤 永登浦구 始興1동121의4 始興극장(대표林錫圭·46) 부속상가이층가게(주인 趙基田·36)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나 극장건물(2백평) 과점포 6동(60평)을 전소시키고 1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극장에 보관중이던 포스터 등 3만원상당과 점포 6동에 있던 가재도구 등 3백만원상당이 타 모두 3백6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해액을 4백8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극장측은 2천5백만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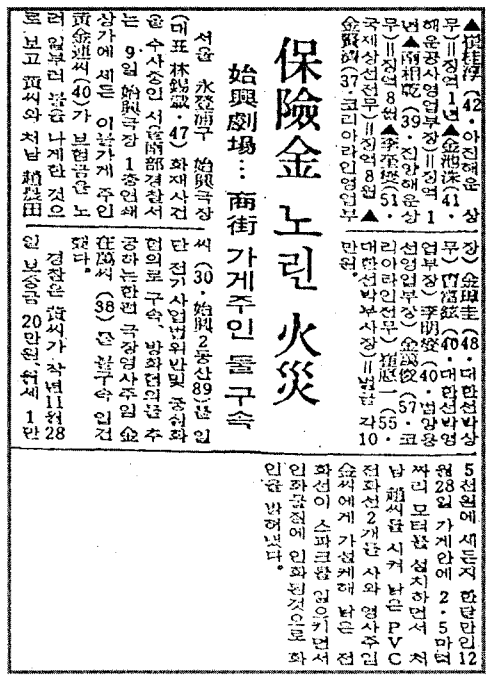
경찰은 처음 목격한 양정심(24·화장품대리점 종업원)에 의하면 상가안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가게문이 잠긴 이웃가게에서 연기가 치솟고있었다는것이다.

불이 났을때는 마지막 프로가 끝난지 10분후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흥극장에 불

부속점포 6동 전소…인명무사

▶ 1976.2.10 조간 7(8)



保險金 노린 火災

始興劇場… 兩街 가게주인 둘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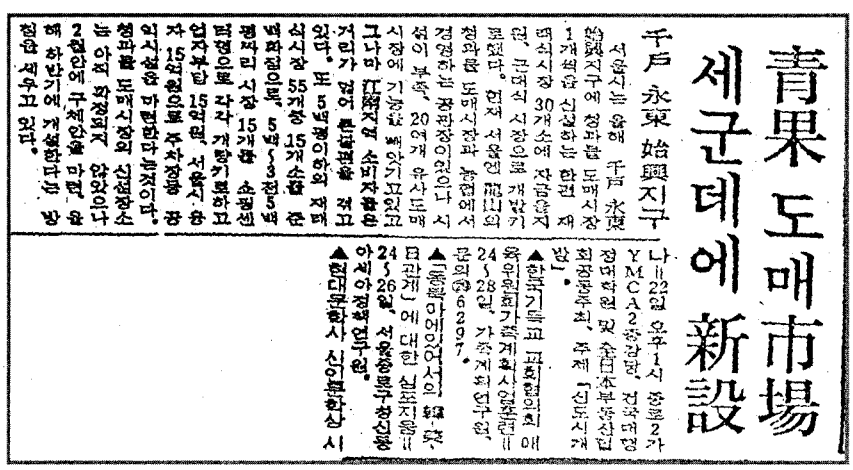
서울 永登浦구 始興극장(대표 林錫鎭·47) 화재사건은 수사중인 서울地檢합동수사본부(부장 朴容吉 검사)는 9일 始興극장 1층연쇄상가에 세든 이웃가게 주인 高金洪씨(40)가 보험금을 노려 업주리 몰래 나게한 것으로 보고 高씨와 처남 韓在田(30·始興2동산89)씨 등 2명을 방화혐의로 구속, 방화한 韓씨를 추궁하는한편 극장업자주임 金在洙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高씨가 작년11월28일 보험금 20만원짜리 화재보험에 들고 5천원에 세든지 한달만인 12월28일 가게안에 2·5마대 짜리 모터를 설치하면서 처남 韓씨를 시켜 낡은 PVC 전화선 2개를 사와 영사주임 金씨에게 가설케해 놓은 전화선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인화물질에 인화된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노린 화재

시흥극장…상가가게 주인 둘 구속

▶ 1977.1.21 조간 6(5)



青果도매市場 세군데에 新設

千戶 永東 始興지구

서울시는 올해 千戶 永東 始興지구에 청과물 도매시장 1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재래식시장 30개소에 간급산지 판매장, 근대식 시장으로 개발키로했다. 현재 서울의 청과물 도매시장과 농협에서 경영하는 공판장이없는 시설이 부족, 20여개 유사도매시장에 기능을 못하고있고 그나마 江陵지역 소비자들은 저리가 없어 불편을 겪고있다. 또 5백평이하의 재래식시장 55개중 15개소를 뺀 5백평미만으로 5억~3천5백평짜리 시장 15개를 소공센터형으로 작각 개발키로하고 업자부담 15억원, 서울시 융자 15억원으로 주차장등 부대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청과물 도매시장의 신설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천만에 구천만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개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나=22일 오후1시 동로2가 YMCA2층강당, 전국대명정대학원 및 순대本부동산업회장단부회, 주제 「신도시개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족계획사업본부=24~28일, 가족계획연구원, 문의☎62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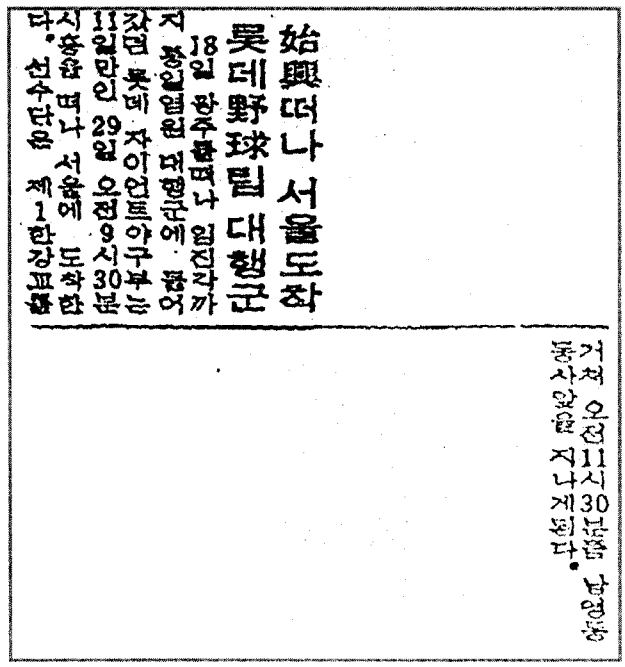
▲「동북아에있어서의 韓·日관계」에 대한 심포지움=24~26일, 서울중구정동 아세아정책연구원.

▲한대문학사 신영복강사 시

청과 도매 시장

세군데에 신설
천호 영동 시흥지구

▶ 1977.1.29 조간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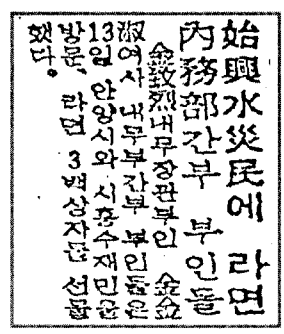
始興떠나 서울도착
롯데野球팀 대행군

18일 광주를떠나 임진각까지 종일행군 대행군에 끝어 갔던 롯데 자이언트야구부는 11일만인 29일 오전9시30분 시흥을 떠나 서울에 도착한다。선수단은 제1한강교를 거쳐 오전11시30분쯤 남영동 동사앞을 지나게된다。

시흥 떠나 서울도착

롯데야구팀 대행군

▶ 1977.7.14 조간 6(5)



始興水災民에 라면
內務部간부 부인들

金玖烈내무장관부인 金泳淑여사 내무부간부 부인들은 13일 안양시와 시흥수재민을 방문、라면 3백상자를 선물했다。

내무부간부 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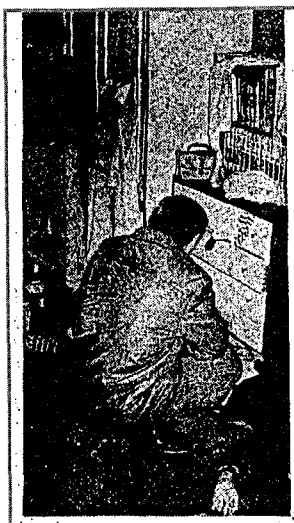
시흥수재민에 라면 전달

▶ 1977.12.31 조간 7(1)

아파트에「殺人 放火」강도

어제밤 가정부 죽이고 金品강탈…불질러

始興 광복아파트



수事京子양(오른쪽 끝)이 살해된 방을 수사관들이 검증하고 있다. 나 다행히 큰돈이 되지는 않았다.

商街 2층茶房에 불

한밤중 이발소-中國음식점도 태워

▶ 1978.5.13조(7)10

揚水機 12대등 始興郡에 전달
中央大生들 물푸기 勞力지원도

◇농민들의 가뭄 극복작업을 돕고 있는 중앙대 학도호국단 간부들.

중앙대 학도 호국단 산하 학생경찰관 (경찰과 3년) 등 간부들은 봉표정 7천여명이 모은 2백만원으로 양수기 12대, 호스 6개를 구입, 가뭄에 시달되고 있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보내달라고 12일 오전 시흥군에 맡겼다.

이어 장곡동 간부 30여명은 시흥군내여서 가뭄피해가 장한만 파천면문원리만 찾아 지하수 퍼올리기등 가뭄극복 작업을 도왔다.

양수기 12대등 시흥군에 전달

중앙대생들 물푸기 노력지원도

▶ 1978.5.28조(7)1

"食水였읍니다…필요한 분은 오세요"
——永登浦 始興1洞 향화목욕탕 安炳錫씨 '異色간판'

上水道 끊기자 私財들여 地下水 퍼올아
消毒藥까지 풀어 淨化시켜…沐浴湯은 오전만 영업

3週째 무료로…이웃 3백여家口 혜택

이 가뭄에 「물人心」

○…한치옥허양상에 중앙 인 인심에 가뭄에 시달린 주민들은 만결 없다.

<사진 김대년 기자>

〈일요화제〉 이 가뭄에 "물인심"

"식수있읍니다…필요한 분은 오세요" 영등포 시흥1동 향화목욕탕 安炳石씨 "이색간판"

▶ 1978.6.14조(1)1

◇朴대통령이 1백80여點의 논에 모두 모판 모두 심은후 맨발로 논두렁을 걸어나오고 있다.

"水利 不安全畓을 밭으로"

朴大統領, 始興 葛峴1里에서 모내기

朴대통령은 13일 오전 관내 葛峴1리 소재 1백80여평의 논에 직접 모내기를 했다.

朴대통령은 이날 모내기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수리안전답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가뭄에 대비, 수리안전답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농민들이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수리안전답 조성사업은 농민의 협조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朴대통령은 모내기를 마친 후 『농민들이 수리안전답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농민들이 협조하는 한 정부는 계속 수리안전답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은 또 『농민들이 수리안전답 조성사업에 협조하는 것은 농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농민들이 협조하는 한 계속 수리안전답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은 이날 모내기를 마친 후

▶ 1979.11.14 조간 2(6)

冠岳-始興 2개지역에 LPG공급 전담회사

工場渡값으로 판매

서울시는 13일 관악·시흥동 2개지구에 대한LP가스공급단위사업체를 인가, 오는 12월1일부터 가스공급을 독점 공급토록했다. 이 단위사업체는 LP가스가종전 영세상인들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사고가 잦아 이의 대비책으로 만든것인데 앞으로 이들 지역은 승인업체에 의해 가스를 공급받게된다.

이날 사업승인이난 한일개발은 시흥동 한양아파트주변의 1천가구를, 영동가스주식회사는 관악지역의 4천여가구를 맡아 가스를 독점 공급한다.

특히 이들 사업체는 종전 LP가스의 유통단계인 공장→대리점→부판장→용기상→소비자의 단계를 거치지않고 공장도 직판가격으로 직접 공급하기때문에 가격도 10%정도 싸진다.

시는 LP가스의 단위사업체제도를 영등포, 강남지역에도 확대키로했다.

고위험도가높이 마련되지 않는등 부작용

관악 시흥 2개지역에

LPG 공급 전담회사

▶ 1980.1.9 조간 6(6)

始興郡 서면~富川市 원종동 도로 9㎞를 新設

서울시는 8일 경기도시흥군서면소하리~부천시원종동간 9·29㎞에 너비 20m의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이도로는 경수산업도로에서 김포공항을 연결시키는 외곽도로로, 수원-안양등지서 영등포도심을 거치지않고 갈수있도록 하고, 남부순환도로와 연결, 서울과 교통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시흥군서면~부천시 원종동도로 9㎞를 신설

▶ 1980.1.16 조간 6(6)

金浦·始興·新林洞등 9개지구 區劃정리사업 2년延長

서울시는 15일 김포·시흥·신림동등 9개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계획을 변경, 사업시행기간을 2년씩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들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기간은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기간내에 사업시행이 안돼 다시 2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은 81년12월31일로 됐다.

사업계획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면적은 다음과같다.

▲김포=1백42만3천평▲시흥=1백73만6천평▲신림=1백3만4천평▲화양추가=46만평▲신림추가=62만7천평▲천호=78만5천평▲광사=51만3천평▲영동추가=25만3천평▲이수=61만1천평.

구획정리사업 2년연장

김포-시흥-신림동등 9개지구

▶ 1980.3.12 조간 6 (1)

근로자 아파트등 8천家口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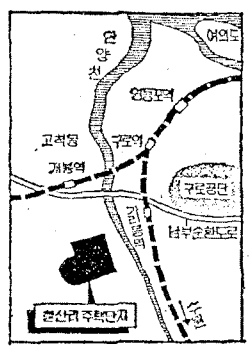
鐵山里(始興)에 새 衛星도시

82년까지 人口 5만 규모

九老공단 女性근로자 2만명 수용

6월 착공… 빠르면 年末까지 入住

서울에 인접한 京畿도始興군鐵山리 일대에 앞5만명규모의 위성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8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백11억2천5백만원을 들여 鐵山리 일대 15만평을 개발, 아파트형 근로자용 기숙사 4천가구, 일반서민용아파트 4천5백가구등 모두 8천5백가구를 건립키로 확정했다. 11일 건설부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평형 아파트형 기숙사 2천가구, 내년에 2천가구를 각각 건설, 서울九老공단 여성근로자 2만명을 수용키로 했으며, 일반서민용 임대아파트 13평형 4천가구와 분양아파트 17평형 5백가구는 올해 5백가구, 81년과 82년에 각각 2천가구를 연차적으로 건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일대에 수퍼마켓 파출소 병원 목욕탕등 복지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鐵山리 개발부지는 주택부서가 맡아 오는6월에 착공, 빠르면 연말까지 입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건설부는 이사업을 촉진하기위해 올해 서울지하철 4호선 5천만원을 지원, 上水道管 3천m(구경 4백50mm) 매설및 도로포장을 하기로했으며 현재 덮개형태로 되어있는 이일대 안양천 주거지역 일부지역에 홍수방지를 위한 제방부터 완전히 하기로 했다.

근로자용 기숙사는 가구당 보증금 1백만원에 월세 2만원, 일반서민용아파트는 보증금 1백50만원에 월세 3만5천원으로 할 예정이나 근로자용기숙사는 1년간의 입대가 원칙이며 기업체에 분양, 기업체가 도맡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77년 IBRD차관으로 이일대 51만6천평을 개발, 인구 10만명이상의 서울위성도시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단지조성을 위한 부대시설비 1백80억원 염출을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미뤄 계획자체가 백지화 됐었다. 정부는 최근 근로자문제가 큰 정책적인 쟁점으로 등장하자 九老공단근로자용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짓기로 결정, 鐵山리 개발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아파트 管理업체 審査로 免許발급

속보=서울시는 11일 추천제로 하게될 아파트 전문관리업체의 면허 발급방침(본보 2월22일자 6면보도)을 심사에 의해 시행키로 방침을 바꾸고 현재 17개사로 제한한 관리업허회사의 수를 늘려 줄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로자중 7만여명이 전세, 삭월세생활을 하고 있다.

鐵山리일대에는 현재 1천 가구의 주민이 살고있다.

단 위생보호를 할 방침이다.

시흥 철산리에 새 위성도시

근로자 아파트등 8천가구 건립, 82년까지 인구 5만규모

▶ 1980.7.6 조간 6(1)

江南지역 給水難 해소

내년末까지 八堂~잠실~시흥 送水管묻어

延長41㎞…百萬t급수 대비

서울시는 5일 팔당수원지에서 잠실을 거쳐 시흥동과 철산리에 이르는 한강이남지역에 금년하반기부터 81년말까지 총공사비 2백25억원을 투입, 41·4㎞의 상수도 송수관을 새로 묻기로했다。

이공사는 팔당수원지의 식수공급능력이 81년말까지 1일 40만t에서 1백만t으로 60만t이 불어나는데 대비키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필요한 공사비 2백25억원 가운데 1백억원은 시중은행에서 기채로, 1백억원은 시민채권으로 조달키로하고 채무(외상공사)로, 25억원은 시비로 조달키로했다。

확정된 공사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년하반기부터 81년 5월까지는 1백36억원을 들여 팔당수원지에서 ~잠실~서초동을 거쳐 방배동~이수교에이르는 구간에 구경 8백~2천2백㎜ 송수관 25·4㎞와 팔란리수원지~거여동~마천동까지는 구경 6백~9백㎜송수관 2·6㎞를 새로 설치하고 ▲81년6월부터 연말까지 89억원을들여 서초동~시흥동을 거쳐 철산리까지의 사이에 구경 1천5백~1천6백50㎜ 송수관 16㎞와 우면동 가압장을 새로 설치한다。

이공사가 끝나면 팔당수원지에서 공급되는 수도물 1백만t중 50만t은 이미 설치돼있는 송수관을 통해 강동~강남지역에 공급되며, 나머지 50만t은 일단 강동구 삼전동까지 그대로 송수된후, 이중 10만t이 청탑배수지를통해 삼성동등 강남저지대 영동지역과 잠부지역등에 공급되고 10만t은 대치동 서초동 방배동등 아파트밀집지구에 공급된다。

나머지 30만t은 내년에 신설되는 잠남구 우면동 가압장에서 가압돼 남부순환로를 따라가다 영동과 사당동에 10만t이, 봉천동 신림동에 8만t이 공급되며, 나머지 12만t이 시흥동 독산동과 철산리 지역까지 공급된다。

또 이 공사가 끝나면 그동안 강남, 강북지역에 나누어 공급하던 노량진 수원지의 8만t, 선유수원지의 12만t등 모두 20만t이 모두 강북지역에만 공급될 예정이어서 강남은 물론, 강북지역의 급수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게된다。

내년까지 팔당~잠실~시흥

역수관묻어 강남지역 급수난해소

여 백

색 인

여 백

동아일보 안양편 색인

1923.3.31(4)5 금주와 단연 금주단연실행동맹
1925.10.27(2) 시흥에 흉기 강도 3명이 떼지어 결박하고 현금과 물품을 강탈 도주
1926.10.5(4)2 문화수입에 지극히 편리한 경성에 연접된 시흥
사회단체
- 노량진청년회
- 시흥청년회
- 군포구락부
- 노량진교육회
- 남면진흥회
- 과천유신회
- 안양소년척후대
종교계
- 야소교
- 노량진야약교회
- 영등포교회
1926.11.12(4)5 잠연 제조판매
1927.2.6(4)10 시흥 1년 주가 25만여원 보교 25개의 1년 경비
1927.2.25(4)1 연고임양여 신청서수리
1927.3.5(4)3 2개공보교증설 학교평의원회서 결의
1927.5.8(4)10 양잠교사 특치
1927.7.5(2)1 책임 엄폐코저 군청고의행동
1928.2.11
1928.7.7(4)7 시흥에 기우제 관민동합으로
1928.7.30(4)5 시흥이앙상항 약9할6분 서이면 95%달성
1928.10.10(3)11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
1928. 10. 28 한해 구재책으로 등외도로 개수 총 공비 2만여원
1928.11.27 시흥군 면세액
1928.11.29(4)3 시흥농산품평
1929.2.2(4)6 경품 부제팔
1929.3.18(2)4 시흥에 강도출현 권총 갓튼 것으로 주인을 협박 현금을 강탈 후 잠적
1929.3.24(5)3 시흥강도 혐의자 5명 검거취조
1929.12.8(2)10 시흥강도 피착
1929.12.9(3)6 시흥을 풍비튼 강도단체포 금춘의 사건도 가튼 자 소위 군인은 이로써 안도
1930.11.29(7)3 시흥에 산화 관악산맥 수리산에 발화
1931.3.4(2)10 취객 추락
1931.10.12(2)3 안양역 옥구도 간 도로공사에 착수
1931.10.14(7)2 시흥군내에 장질부사발생
1932.1.20(7)5 안양에 천연두
1932.6.5(7)4 궁춘기민에 속미를 분배 오기영씨 미상
1932.6.9 시흥군 농회 주최 구주시찰단 출발

1932.6.9(7)7 안양에 천연두, 우부발생 만연
1932.7.21(7)3 안양 석수동 수영장을 신설 산명수려 절승지에
1932.8.12(7)9 안양의 수영장 가정거장 설치
1933.1.2(3) 시흥 호계리 복면 흉기강도 지난 30일 새벽에 나타나 현금 6원강탈 도주
1933.7.25(4)1 시흥의 일야강습
1933.10.26 도율강습회
1933.10.26(3)6 소작인에복음 지세와색조를폐지 시흥남면지주회서
1933.11.29(5)1 시흥도로품평 포상수여식
1933.12.19일조(2)11 농촌진흥강연회
1934.7.1(3)8 안양풀공개 칠월 일일부터
1935.4.13(2)8 안양 인견공장 직공들이 동요 유족 부조료 등 요구
1935.6.3 안양 금조 거모지소 승격운동 촉진
1935.6.8조(3)2 과천에적리유행
1935.6.8(2)1 시흥에 적리 생도등교 정지 현재 환자 30명
1935.9.3조(3)9 안양각희대회
1935.10.26(5)10 근고
1935.11.19 안양에 대농장설치 고아를 농지로 지도민간자선 기관으로 첫시험
1936.2.26 시흥군 청사 이전을 획책 공작자등 백 명이 회합 기성회조직코 활동
1936.3.4(3)6 군청 유치 코저 군민 대회 개최 시흥군청을 안양으로 경성부 편입을 계기로
1936.3.7(4)4 시흥군민대회 진정위원사명을 선정하여 군청유치 운동 적극화
1936.3.20(2)6 이제는 남되엇느나 군청은 돌려주오 시흥군청 이전 기성회원 입경 활동
1936.6.26(4)5 시흥 강우 태부족 이앙불과 이할
1936.7.10(2)11 안양역 조직염색공 70명 동맹파업 상여금 안준 데서 불평폭발
1937.6.24(4) 시흥 과천면에 적리 창궐
1937.7.16(4)7 안양, 호계, 내인에 공려수조를창립
1938.2.19조(6)1 안양금과원의 창고를 전소 손해는 2천원가량
1938.2.19조(남6)14 경기도내무부장 안양을 초순찰
1938.6.14(4)6 등산대로 연일 인해, 경기 금강관악위용 안양역도 개축, 제반 시설에 분망
1938.6.29(7) 공비 만2천원으로 안양 내인 저수답 완성 박토기 일약 옥토화
1938.7.5(4) 안양 풀 개장
1938.8.21(8) 평안 자동차가 전복 남녀 오명 중상 시흥군 석수동 참사
1938.12.10(조2)10 시흥 군포방호단원 야경사업 노력
1939.1.12(남7)5 안양 전화 개통 축하
1939.7.7(2)4 안양풀, 동림폭포 가승강장설치
1939.7.25(남7)3 천혜의 안양 풀 수영객 답지
1939.7.30(5) 경기도 시흥의 호성적으로 관하각군에 서과 출하 조합결성을 장려
1939.8.10(2)11 안양풀은 쉰다.
1939.11.3조(4)2 시흥군내 각기관에 1천원을 기부
1940.1.16(2)5 취객 력사 양건 시흥 석하양처서
1940.2.24(남7)1 날 풀리자 도로 불완전에 교통 두절 처 부소
1940.2.25(4)11 안양 경방당 검열
1940.2.26(4)3 교육 안양 공립 심상소학교 안양교학예회 성황

1940.3.11(4)3 안양소교의 명랑보 6년제로 대승격
1940.3.24 안양 소교도 입학난 지원아동 반분 수용
1940.3.30(6)6 시흥식량조합 협의회를 개최
1940.6.22(남3)4. 시흥군 농회 춘포공판개시
1940. 7. 1(2)8 안양 "풀" 명1일부터 개장
1940.7.10(2)5 안양풀 10일개장
1940.7.20(3)1 용감한 소년 격투 끝에 절도 체포
1946.3.19(2)8 강연회성황
1946.11.12(4)2 중학 창설에 3백만원 특지가 서병선씨가 쾌척
1947.5.28(2)5 한국청년회해소 민족청년단발족
1947.6.11(2)5 서관사 사용 진정
1947.6.14(2)1 안양 습격사건 이재일 등 언도
1948.2.28(2)3 안양 중학교 25일 개교
1948.6.26(2)3 안양「풀」개장
1948.6.29(3)6 안양에 고등공민교
1949.1.21(2)11 사립안양중학교 도립중학으로 승격
1950.4.24(2)5 안양공업중학교 개교기념식거행
1951.3.7(2)6 (이 경기지사 담)안양 여주 이천 오산 등은 초토화
1952.7.25(2)9 원호금기탁 월남피난민들이
1952.12.21(2)10 안양읍 청사 낙성
1952.12.28(2)9 안양중학교 가교사 낙성
1954.11.18(3)5 추기 사격대회 개최
1955.5.18(3)10 안양서서 체포 양부인 살해범
1955.7.27(3)8 애국동지연맹결성
1955.10.26(4)1 안양 유기 김동오
1955.11.14 상이용사 추수봉사
1955.12.18(3)8 서울에서 체포 군자면 삼인조 강도
1956.4.13(3)6 안양공업중고교장 경질
1957.1.15(3)3 교육 공로자를 표창
1957.5.21(3)1 「뻐스」에 치어 즉사
1957.5.22(3)6 버스 전소 자동전선누전 휘발유에 인화 승객 중 11명이 화상
1959.4.17(4)3 경기도내 모범군 김포·시흥군 선정
1959.4.25조(4)2 책상·걸상 인수식 안양 국민교에서
1959.5.8조(4)4 집들어 받아 소동「꽁치」실은 츄럭
1959.5.11조(4)1 양이씨에 감사장 위독한 미군 구출
1959.5.18(4)3 신병을 비관자살 기차에 뛰어들어
1959.6.9(4)3 열차에 뛰어들어 28세 청년이 즉사
장교가 마구 때려 휴가병이 타박상
1959.8.14(4)1 시흥군내 4계면도
1959.8.18(4)4 고압선에 감전즉사 연 찾으려던 어린이
수영하다 처녀익사

1959. 9. 18조(4)1 안양교 강당 락성식
1959.11.27(4)3 전신· 화개통식 과천우체국에서
1960.1.13(3)8 안양 등기소 신설
1960.1.29조(3)10 안양촬영소 종업원 1백명이 진정 "노임받게해주오"
1960.3.29(4)1 안양여고교 개교
1960.5.11(4)5 금성노조임원개선
1960.6.25(4)2 여차장을 구타 군인이 차비관계로
1960.8.11(3)12 때렸다고 데모 안양보육원생들
1960.9.6(4)1 관용차 빌려주어 아직도 후생사업
1960.9.27(4)1 안양시장에 화재
1960.10.28(4)2 재봉틀 13대 도난
1961.5.11(3)8 음독한 후 애인집서 실연 여인 자살
1961.8.11(3)3 열차에 투신자살
1961.9.22(2)9 개천절에 본사수원지국주최로 안양-수원간 단축 마라톤
1962.9.6(7)11 괴한이 칼질
1962.9.25 관리인 밀치고 연고 없는 군수장인에 국유림 임대차에 말썽
정실로 무너진 10년 공든탑
1962.11.15(7)5 마포교도소는 1차로 안양에 도심의 교도소 소개
1962.11.19(7)10 안양 호계리서 기공 이전할 마포교도소

조선일보 안양편 색인

1920.08.23(1) 〈詞藻〉舍兄移家海倉時舍弟以漢城主事旅환//有感//果川舊居逢寒食//子眞洞省墓 // 買榮 학예 弗須齋 ☞기사 없음
1923.08.17(3) 趙 安兩氏 出獄. 故 姜宇奎사건 련루자 趙炳喆 安敦厚 항일 ☞기사 없음
1928.10.04(3) 〈가정부인〉天朗氣淸한 安養에 女子 습률의 쾌거 특집 ☞신문 없음
1928.10.09(3) 〈가정부인〉歡呼聲에 싸인 安養 낙원이룬 栗林一帶 특집
1929.10.08(5) 第三回 습률대회. 槿友支會와 本社主催로 來十一日 安養에서 학예 ☞기사 없음
1933.01.12(6) 南面檢擧事件 六人 公判廻付. 夜學을 통해 적화선전, 劉載星등 항일 ☞신문 없음
1935.02.14 朝(3) 安養擲柶大會. 本報販賣所主催로 陰十三日부터 三日間 학예
1935.09.03 夕(6) 安養脚戱大會. 陰七月三十日부터 학예 ☞신문 없음
1952.02.01 조간 1 금품에 여자까지. 안양에 지독한 강도 ☞신문 없음
1952.07.08 조간 2(8) 안양 "풀" 개방
1952.11.15 조간 2(9) 金英基지사 안양 순시
1952.12.18 조간 2(7) 〈지방단신〉안양여중 金信子양 학술경시회서 수상
1953.01.17 조간 2(3) 〈지방단신〉안양 金組신축 이전
1953.05.01 조간 2(9) 안양읍 政監査
1953.05.08 조간 2(5) 〈지방단신〉안양사격대회
1953.05.12 조간 2(1) 〈지방단신〉시흥출신전몰 군경합 동위령. 안양에서 엄수
1953.05.18 조간 2(8) 안양署員들이 고아에게 동정금
1953.05.22 조간 2(10) 〈지방단신〉안양수조공사 순조 증산목표 3천여석
1953.07.26 조간 2(10) 안양에 임간문고. 국립도서관에서
1953.12.20 조간 2(4) 중학입학시험 하느냐, 안하느냐. 당국 방침을 변경? 입학선발요령을 만든다고 / 안양교육계대표 재시험 반대 건의
1954.01.28 조간 2(1) 〈지방단신〉세탁부대의 이전 안양읍의회서 진정
1954.02.19 조간 2(2) 〈지방단신〉안양에 교회당
1954.03.22 조간 3(5) 〈지방단신〉안양경찰서 시국계몽 좌담회
1954.04.04 조간 2(4) 〈지방단신〉녹화운동에 유공 안양서장을 표창
1954.04.09 조간 2(6) 〈지방단신〉안양서 사격대회
1954.05.13 조간 2(7) 안양서 축산전습회
1954.06.06 조간 2(2) 〈지방단신〉안양「풀」확장. 각종경기장도 신설
1954.06.13 조간 2(9) 안양「풀」개장
1955.03.17 조간 4(5) 축산의 질을 향상. 안양에 최초의 기술훈련소 설치
1955.05.22 조간 2(7) 여인을 낫으로 살해. 안양서, 도벌 하지 말란다고
1955.05.23 조간 2(4) 안양에 새로운 풀 설치. 길이 50메터, 폭 20메터
1955.07.02 조간 3(7) 안양에 정규풀. 3일에 개장식
1955.09.11 조간 4(4) 〈지방소식〉 안양 학생회서 5백 문맹 계몽
1955.10.15 조간 3(4) 안양부근서 버스가 전복. 40명이 중경상
1955.12.05 조간 4(1) 〈지방소식〉안양부인회에서 부대김장 조력
1956.02.03 조간 3(4) 키 큰 군복 청년이 피살. 안양서 순경 총 뺏고 도주 하려다
1956.02.06 조간 3(6) 순경 구속은 낭설. 치안국장, 안양 탈주병 사살사건에 담

1956.04.21 조간 2(7) 충돌된 버스 다시 전락. 안양 남방에서 9명이 중경상
1956.04.23 석간 3(1) 죄수 9명 한몫 탈주. 돌연 안양서 작업중에
1956.05.11 조간 2(9) 트럭 열차 충돌. 안양서 미군 중상
1956.09.02 석간 3(2) 젓소도 전염병. 안양서 25마리가
1956.10.16 석간 4(2) 故 金東根씨 기념비 제막. 안양 幽宅 앞에서
1956.10.18 조간 2(1) 안양공장 시찰. 李대통령
1956.10.18 석간 3(9) 안양 촬영소 정초식 성대
1956.10.20 조간 2(7) 안양 水提 준공. 7천여석 증산
1956.10.23 조간 2(4) 예배 방해죄 적용. 안양 교회 목사와 장로 기소
1956.11.18 석간 3(5) 안양 직장 배구대회
1956.12.27 석간 3(6) 성탄 예배중에 참변. 안양서 2층 무너져 19명 중경상
1957.01.30 석간 3(7) 경찰관 정복을 대량 도난. 안양부근서 트럭으로 운반중에
1957.02.10 석간 3(9) 시흥교육감 선출
1957.04.23 석간 1(1) 유엔군사 8군사 건물 사용.8군사는 안양-평택으로 이전 ☞기사 없음
1957.05.04 석간 3(4) 한국에 이동할 유엔군사 용지결정. 안양-오상-병점에 곧 토지구입
1957.06.05 조간 2(5) 강도 5명 또 검거. 안양등지에서 범행 무려 9회
1957.06.21 조간 2(5) 유엔군사 이동에 대비. 안양시흥간 토지 3만평을 매수
1957.09.01 조간 2(1) 국련군 상대의 유기요식업자 자격규정. 특정지역은 안양, 3부 합동으로 대책위를 구성
1957.09.06 석간 3 시네스코제작시설 수영안양 촬영소 스타디오 근일 완성 ☞기사 없음
1957.10.02 석간 3(7) 안양서 강도
1957.10.17 조간 2(8) 안양체육회 발족
1957.11.06 석간 4(6) 안양 촬영소 제2 스테이지 상양
1958.01.06 조간 2 안양에 2인조 강도, 의류 수점 강탈 ☞신문 없음
1958.01.10 석간 3(8) 재생섬유판 국내서 생산 - 미국원조로 안양에 공장설치
1958.02.08 석간 3(10) 시흥군하에 화재, 4명이 사상
1958.11.11 석간 3(3) 철도사고 미연방지 안양서 李忠根순경에 표창
1959.01.01조간 11(11) 안양여중등에서 장병 위문품등 기탁
1959.02.05 조간 4 필름 절도범 안양서 두명 구속 ☞기사 없음
1959.02.19 조간 4 고치다 만 다리. 안양-군포간 ☞신문 없음
1959.04.01 석간 3(3) 시흥등 세곳에 강도들이 출몰
1959.05.18 조간 4(6) 학생이 단도로 공갈. 안양경찰서서 일당을 체포
1959.05.31 조간 4(1) 〈풍토순람〉시흥군. 활발한 공업 농업
1959.05.31 조간 4(11) 우물에 유독 폐수. 안양 삼덕동 제지공장 주변 일대
1959.06.26 석간 2(1) 마방직 공장 조업 개시. 안양서 한국 최초로
1959.08.25 석간 3(1) 승가사 범인은 金꼬마. 黃의 거듭 진술에 경찰도 진범으로 추정. 어젯밤 안양 사건도 동일범 인 듯
1959.10.17 석간 3(1) 승가사 강도사건 범인 안양서 출몰?
1960.01.13 조간 3 안양에 등기소. 법원행정회의 결정 ☞기사 없음
1960.01.28 석간 3 안양촬영소 노무자들 「떡값이라도 달라」 노임체불에 진정 ☞기사 없음
1960.03.26 조간 3(7) 안양 기자구타사건 28일 대질심문
1960.06.15 조간 3(9) 안양서 뻐스사고로 승객부상

1960.07.06 조간 4(6) 〈내고장소식〉안양유원지에서 화학노조 연차대회
1960.07.14 조간 4(3) 〈내고장소식〉공명선거추진위 시흥군지부 결성
1960.08.13 조간 4(1) 〈내고장소식〉안양보육원아들 시위. 원장부정을 들고
1960.08.30 조간 4(6) 〈내고장소식〉안양읍민관에 비난
1960.09.15 석간 3(10) 환지부정혐의로 안양우체국장 소환
1960.09.25 석간 3(10) 안양읍에 화재
1960.11.22 조간 4(7) 〈내고장소식〉안양서 격투회
1960.12.29 조간 2(8) 연초공장 후보지 안양으로 결정
1961.03.02 석간 3(1) 메마른 이 강산에 건설의 첫삽, 삼월! 우렁찬 출발신호. 국토건설사업 안양서 착수식. 작업복의 대열들 기념식수 칠천본. 국토개발사업 한달가량 지연으로 농촌식량위기 예상
1961.04.04 조간 3(4) 육군대학 졸업반, 안양서 작전연습
1961.12.30 석간 3(4) 화성군 일왕면에 새 도로를 완성
1962.06.15 석간 3(9) 육본장병 3백여명 안양근교서 모내기
1962.07.08 석간 3(4) 시흥군에서 구호미
1962.07.17 석간 4(6) 안양제작소 준공식
1962.10.19 조간 1(9)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안 시흥군 일부 포함
1962.11.20 조간 7(5) 안양 교도소 기공. 명년 여름 완공
1963.06.16 조간 7(1) 시흥에서 낙뢰로 2명즉사 2명중상
1963.07.05 조간 7(6) 안양과 김해분원 소년원으로 승격
1963.07.13 조간 8(7) 자전차는 춘천, 축구는 안양서 우수선수 훈련실시
1963.08.09 조간 7(11) 시내버스 안양까지 연장운행 실현단계
1963.08.18 조간 7(7) 피서객털기 60회. 안양「풀」서「텐트」생활하며 일당 12명 검거
1963.10.30 조간 7(1) 시흥에 또 피의 참변. 한가족 세명 몰살. 칼로 난자 밀도살자의 소행? 소판돈 10여만원 강탈. 대문서 쓰러진 金씨 최영정
1963.10.31 조간 7(12) 시흥일가 살인사건. 피묻은 돈 쓰는사람 즉각신고토록
1963.10.31 조간 7 시흥일가 살인사건 시체를 해부
1963.10.31 조간 7 李得周중령일가 몰살사건 高在奉과 시흥일가 살인사건의 金雨吉씨 연고관계 조사 황승일;박종호
1963.10.31 조간 7 시흥일가 살인사건 초점못잡는 수사. 용의자 8명만 올려놓고 황승일;박종호
1963.11.01 조간 7(7) 시흥일가 살해사건 용의자 8명 혐의없어 석방. 수사 원점으로 컴백. 사건전야 칼든 괴한을 목격 황승일;박종호
1963.11.02 조간 7(6) 시흥일가 살해사건 소도둑 전과자인 용의자 安을 검거. 수사선상에 오른 마지막희망 황승일;박종호
1963.11.02 조간 7(8) 시흥일가 살해사건 구멍뚫린 경계망. 철통 비웃듯 이웃동네에 도둑
1963.11.03 조간 7(8) 시흥일가 몰살사건 용의자 5명을 추적. 범행합세 거절한 청년이 두전과자의 모의를 고발
1963.11.03 조간 7(9) 시흥일가 살해사건 점괘가 수사지휘. 우물쭈물하나 흉기없고 다시 원점으로
1963.11.05 조간 7 시흥일가 살해사건 단서는 변소의 피묻은 솜. 金完鐥-일단 집에 돌아갔다 30분후 현장에. 柳根昌-산길타고 노량진까지 두문 유서까지
1963.11.05 조간 7 시흥일가 살해사건 나는 이렇게 범인을 잡았다-위장과 가공 재빨리 간파. 나는 이렇게 수사진을 희롱했다-연막전술…장례식에 참가 최영정

1963.11.05 조간 7(1) 시흥일가 살해사건 진범 두명 체포. 제대병인 金完鐥과 전직경찰관 柳根昌. 사건발생 1주만에 범행도 자백. 대문위 빈틈으로 침입 황승일;김종옥
1963.11.06 조간 7(6) 유치장서 심경 말하는 시흥일가 살해범. "처음으로 지옥을 느꼈다" 밤마다 찾아온 악몽 황승일
1963.11.07 조간 7(8) 시흥일가 살해사건 "죽인일 없다"…발뺌. 柳根昌의 부인에 증거보전 신청키로 황승일;김종옥
1963.11.09 조간 7(12) 시흥일가 살해사건 柳根昌은 교사. 金重根이 범행
1963.11.10 조간 7(10) 시흥일가 살해사건 현장검증. 몸서리나는 재연. 金完鐥의 단독살해를 인
1963.11.28 조간 7(12) 金喜甲씨등 안양서 부상
1964.01.11 조간 7(12) 시내버스 운행 안양까지 연장
1964.03.06 조간 1(1) 탄약분해공장 폭발 어제하오 안양부근. 세명 죽고 중경상자 백 9명 정광헌
1964.03.06 조간 3(1) 탄약폭발사고. 땅꺼진 대폭음…생지옥4시간, 인근마을 안양까지 진동…시계도 올스톱 하오3시28분, 안양교도소 재감자 한때 전창잡고 아우성, 한국탄약분해공업사 시설나빠 허가를 취소했던 공장 정광헌
1964.03.06 조간 4(1) 안양폭발 참사현장. 산산조각! 초연에 비극을 묻고…
1964.03.07 조간 5(1) 안양의 비극 예고했었다. 교도소측서 이미 철거요청, "위험하니 없애주시오", 내무당국 대상 밖이라고 통고
1964.03.08 조간 7(6) 의식 되찾은 안양폭발사고의 두 증인. "원인은 화약 마찰. 공장측에 책임없다"
1964.03.12 조간 7(4) 안양사고 곧 결론. 새 시약쓴게 원인
1964.03.31 조간 7(6) 안양폭발사고에 손해배상 청구
1964.04.25 조간 3(4) 시흥살인 두피고에 모두 사형선고
1964.07.23 조간 3(9) 시흥몰살 두피고. 항소기각하고 사형을 선고
1965.01.19 조간 7(2) 눈길에 합승 전락. 어젯밤 시흥서
1965.05.18 조간 7(11) 안양서 패싸움. 11명 중경상 박종호
1966.02.05 조간 3(9) 안양폭발사고 2명 또 절명
1966.02.25 조간 3(8) 서울 (연대극장) 안양에 불 ☞기사 없음
1966.04.05 조간 6(7) 수원 - 안양간 공장용수 해결. 광역수도 계획 수립 ☞기사 없음
1966.04.26 조간 7(1) "수로 내놔라" 투석전. 안양농민들 「한일나일론」 직원과 충돌 정덕한
1966.11.20 조간 7(1) 소아마비로 불구된 급우도와 사랑의 등교4년 - 착하고 착한…안양 홍안국민교 조완석 어린이, 「고갯길 10리」 업어
1966.12.24 조간 3(10) 안양에 가짜 우체부 - 25만원을 도난
1967.01.01 조간 1(3) 통일호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 어젯밤 안양서 2명 사망 30명 중경상. 상행중 객사 4량 탈선, 원인은 연결 불충분 김태준;정덕한
1967.01.01 조간 3(1) 제야의 아비규환. 안양 열차사고 현장. 쾅하자 탈선, 차에 깔린 채 아우성. 「초만원귀성」 유리창 차고 탈출 최대규
1967.01.07 조간 4(3) 안양에 영화예술학교. 申필름서 오늘 3월에 개교
1967.02.14 조간 5(6) 안양스튜디오 개소
1967.03.05 조간 4(7) 수회국교 축구팀 전원 안양중 입학
1967.03.23 조간 7(12) 안양읍 일대를 공해방지구로
1967.03.25 조간 3(1) 8세 어린이 피살. 안양논두렁 도끼로 찍히고 목 졸려
1967.03.29 조간 3(6) 계돈 못받자 살해.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 계꾼 여인 구속

1967.05.16 조간 7(3) 코로나 운전사 칼 맞아. 어젯밤 시흥 군부대 과천면 산중턱서
1967.06.15 조간 8(5) 시영버스 연장해 주오 과천 면장호소
1967.06.25 조간 8(3) 하루 5~6회 단전. 안양읍 소재 중소공장들 비난
1967.09.29 조간 3(6) 안양 소년 유괴여인 사형 구형
1967.11.30 조간 8(1) 춘사 羅雲奎 동상 기공. 안양영화학교서 영화인 모여
1968.01.16 조간 8(1) 〈골프〉「안양」 회원제 구상
1968.03.06 조간 3(12) 안양유괴살인범 사형확정
1968.03.26 조간 7(11) 서울대 안양이전안 차관회의서 보류돼
1968.03.31 조간 7(1) 안양 서귀포등 19개읍…곧 시로 승격. 연내 백80여지구 개편
1968.04.05 조간 4(3) 안양전답 4만평 58명에 승소판결
1968.05.05 조간 6 일요일을 즐겁게. 가족동반을 위한 가이드. 덕수궁엔 모란이 함빡. 교외선 편도 95원…7개열차 운행. 낚시 안양-과천저수지가 적당. 스포츠는 아시아청소년축구 한-일전 ☞신문 없음
1968.05.07 조간 8(3) 〈골프〉 관악에 푸른청원경찰. 안양서 1년제회원 모집
1968.05.24 조간 3(5) 「안양포도주」에 메타놀
1968.05.30 조간 6(1) 주말을 즐겁게. 수원 딸기밭, 안양 유원지
1968.07.10 조간 3(12) 서울대 종합캠퍼스 시흥지역 상신
1969.02.14 조간 4(3) 안양탄약고서…병기관등 셋 구속. 실탄 11만여발 유출
1969.05.13 조간 8(3) 〈골프〉 잔디좋은 「안양」은 온통 초록바다
1969.07.18 조간 3(11) 안양서 담무너져 인부 4명 중상
1969.09.12 조간 3(10) 鄭의원 강제귀가.안양서 서울오다 경찰차에 태워
1969.10.30 조간 8(4) 축구장서 첫 사고. 안양-구찰중 경기하다 헤딩 부상
1969.11.19 조간 3(4) 안양 3천여 주민들 궐기대회. "폐탄처리장 설치말라"
1970.03.20 조간 7(9) 밤만되면 「안내」 불통. 안양전화 야근자들이 "통화중" 조작
1970.04.12 조간 8(4) 춘계 축구리그에서 안양-중대부 선두
1970.04.14 조간 6(7) 춘계중고 축구리그 중2부서 안양 우승
1970.04.23 조간 7(8) 공장 폐수로 못자리 썩어 안양서도 대책 호소
1970.04.23 조간 8(9) 시흥군에 산불. 임야 2만여평 태워
1970.06.09 조간 4(10) 상공부, 안양 상의 설립 인가
1970.08.08 조간 8(4) 〈즐거운 주말을〉 안양과 수원.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임백
1970.10.09 조간 7(9) 안양에서 7명이 설사
1970.11.21 조간 4(10) 〈재계〉 현대군포 주물공장 곧 가동. 자동차 부속품 등 해외 수출
1970.12.27 조간 6(1) 〈수도권 정보〉 안양-과천-남면지구. 경수도로 따라 「아메바형 발전」, 취수용역한 남면엔 공장 밀집
1970.12.30 조간 7(10) 안양 노상강도 범인 검거
1971.01.13 조간 7(11) 전화선 끊고 뭇매질. 안양 유흥업소 차례로 등쳐
1971.02.12 조간 7(9) "불량배 없애라" …집단사표. 시흥연성 국교교사들 불량배들에게 갖은 행패를 들어
1971.03.07 조간 7(1) 신설 중학 등교 거부. 안양등지 부형들 "시설 약속 지켜라"
1971.03.16 조간 6 35개소에 관광개발. 24억1천만원 들여 안양엔 종합휴양소 증축 ☞기사 없음

1971.04.20 조간 8(6) 중고축구 - 대신·안양중 패권
1971.05.07 조간 7(7) 출마지에 23명 전입. 공화시흥지구, 서울연고자 찾아
1971.05.19 조간 7(12) 안양서도 이중등재-신민주장
1971.06.13 조간 8(1) 대통령배 고교축구 - 안양·중대부, 마산공·동아꺾어
1971.08.22 조간 6(1) 〈수도권정보〉안양과 시흥 - 교외파 도시민 취향에 맞는 양계…목장 지대, 별장·산업에도 좋은 조건
1971.09.17 조간 7(9) 시흥군, 그린벨트 지역에 공장신축을 허가
1971.10.13 조간 6(5) 대신 - 안양중 공동 우승
1971.12.01 조간 8(4) 고려 - 중앙대 결승에 종합축구선수권 안양중, 대신과 내일쟁패
1971.12.03 조간 8(1) 서울 - 평양 - 함흥 축구. 서울팀, 득실점차 우승. 함흥팀 5대1로 대파. 대신중학 3연패. 종합축구 안양중을 연장끝에 꺾어
1971.12.21 조간 8 우수선수 金浩추천 축구협회, 단체론 안양중 ☞신문 없음
1971.12.30 조간 2(1) 부산 수원 - 안양에 그린벨트. 건설부 고시. 부산권 서면중심 반경 10 ~20km. 수원 - 안양. 안양역중심 5~10km . 4월 세부측량 - 확정
1971.12.31 조간 4(1) 〈초점〉그린벨트와 땅값. 서울 - 수원 안양 - 부산망 확정계기로 전망해 본다. 외곽지대 붐 일수도
1972.03.14 조간 8(7) 전국중고축구 폐막. 동래고-안양중 우승
1972.06.09 조간 7(8) 「요금인하바람」 북상. 대전→온양→평택→수원→안양 전국파급 기세
1972.08.06 조간 7(6) 의족 행인 윤살 뺑소니. 시흥서 버스-퍼블리카-택시 잇달아
1972.08.08 조간 2 부산-수원-안양 그린벨트 확정 ☞신문 없음
1972.08.08 조간 5 KBS-TV안양에도 중계소 ☞신문 없음
1972.11.14 조간 7(7) 환각제 밀매 14명 구속. 백반가루로 "만병통치" 안양기도원장도
1972.12.07 조간 7(12) 안양깡패 7명 구속
1972.12.09 조간 2(9) 수원-안양 공업용수공사 74년까지 끝내기로
1972.12.17 조간 4 〔발굴 새사료 15세 용천기생의 시폐상소문. 초월이 통곡하며 아뢰옵니다 (전6회)〕 (3)태아-백골에 군포징수. 흉년의 빈논-밭도 결복받아 ☞신문 없음
1973.03.02 조간 7(1) 엇갈린 희비 시기와 실망과…행정구역 개편 현지의 표정. 안양-도시민된 긍지 이제 느껴
1973.03.02 조간 1(1) 안양-소사-성남 시로 승격. 전국 행정구역 대폭 개편. 1백50개 지역 경계 변경
1973.03.04 조간 7(11) 동화약품제품 불매운동. 시흥군약사회 "출고가격조작"
1973.03.16 조간 7(9) 과천에서 "효령대군초상화" 발견. 안성선 대동법 시행 기념비도
1973.04.05 조간 8(1) 중대부고-안양공고-진주고-중앙고 4강결승리그에. 건대총장배 고교축구 예선3일
1973.04.27 조간 7(1) 우물에 「공장폐수」. 안양 천여명 주민들 식수난 "악취…방문도 못열어" 김문수
1973.05.24 조간 7(1) 천연기념물 왜가리-백로 사인 수은농약 대량 압수. 안양성신농약 급습 판금 PTA-B 밀조 공장장등 넷 신병확보
1973.06.05 조간 8(1) 스포츠소년대회 최종일 축구서 안양중 2연패 부산중앙에 2대0승 201
1973.06.08 조간 7(6) 폐수에 채소 피해 안양 비닐하우스 농민들 보상요구
1973.06.13 조간 8(1) 르포 어떻게 돼갑니까 독자들의 내고장 궁금증을 푼다. 안양 광음속에 서두르는 "시승격", 20공장 신축한창 도로포장등 숙제많아 마상원;김문수
1973.06.27 조간 7(7) 일신섬유 안양공장에 불 가계-제품등 소실
1973.07.29 조간 6(4) 안양에서 버스끼리 충돌 15명 중경상
1973.07.31 조간 7(1) 안양대교 교각함몰

1973.09.07 조간 7(8) 시외자동전화 확대 16일 서울~인천, 연내 대구-안양
1973.09.19 조간 7(4) 인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마산서도 "걷기운동" 에 참여
1973.09.23 조간 7(8) 안양 부녀교실회원과 각여성단체 시민에 리본 달아주며 걷기가두캠페인
1973.10.10 조간 7(8) 안양전화국 부정수사. 백여업체에 가설비 과다징수
1973.10.27 조간 8(1) 조선일보 중-고축구 5일째 중학부 진주-학성(강원) 안양-중앙(부산) 4강 준결승에 진출
1973.11.10 조간 8(4) 전국중고축구 안양공고 대신대파
1973.11.20 조간 8 중고축구 경신고-안양공고-한양공고-중앙고 4강 준결승 진출 ☞신문 없음
1973.11.28 조간 8(1) 전국 중-고축구 폐막. 안양공고 첫패권. 안양중학은 2연패
1973.12.12 조간 7(7) 집게든 주부들 시위. "연탄수송차 왜 막느냐" 안양-서울각계 검문소에 몰려
1973.12.30 조간 2(2) 수도권 전철지역주변 기준지가 고시 검토. 안양-군포-금곡-관악등 대상 부동산 투기 막도록
1974.03.12 조간 6(2) [脚光 의 여울따라.전철역 주변 부동산 가이드(전8 회)] (3)안양지구.70% 오른곳도 거래한산 유정현;김문수 ☞기사 없음
1974.03.15 조간 7(9) 안양 태공 의문의 떼죽음. 사흘새 18마리
1974.03.23 조간 8(1) 전국 중고축구 8일. 경희-안양 2연승 선두
1974.03.29 조간 8(1) 전국중고 축구 14일.청구-안양-영남상-대전상-중동-대신-경신-경희 8강 결승 토너
1974.04.05 조간 8(1) 건대총장배 축구. 안양공고, 중동고 눌러
1974.04.09 조간 8(1) 건대총장배 축구폐막. 중동, 안양공고 꺾고 우승
1974.04.21 전철희생 사고 늘어
1974.05.07 조간 7(10) 힘모아 키우던 금계도난.안양 삼성국교어린이들 울먹
1974.07.06 조간 7(1) 의정부-안양등 "서울전학불허"에 학부모 농성.고교서 "결원생긴다"원서 안써줘
1974.07.11 조간 7(9) 안양주부들 한전에 보상요구. 가정용전선에 고압전류 TV등 망가져
1974.08.15 조간 7(5) 북의 아내 그리며 「독신 29년」. 광복절 화제 안양의 金炳雲씨 김문수
1974.09.07 조간 7(6) 한전 안양영업소 노임-자재등 가로채.5천만원 횡령혐의
1974.09.19 조간 7(1) 수도권전철 탈선-단전 소동.어제 두차례…안양-한강교
1974.10.01 조간 8(5) 청룡기 축구 청구-안양공고 쟁패
1974.10.02 조간 8(4) 청룡기 중고축구 청구-안양공고 공동 우승
1974.10.09 조간 8(1) 55회 전국체전. 축구고등부 동아-안양 첫 개가, 배구 인하부고 대동 격파
1974.10.12 조간 7(1) 주부들 연탄난 항의. 안양시청에 20여명 "대책세워라"
1974.10.16 조간 7(1) 주부들 「연탄차」잡고 소동. 어제 시흥서 3백여명 수송 가로막아, "서울 사람만 살면 된단 말이냐"
1974.10.19 조간 7(7) 안양 연탄공급 전표제 병행
1974.10.19 조간 7(7) 안양시 연탄 갖고도 시위했다고 「항의주부」 6명 고발
1974.10.20 조간 7(9) 법정 살인인책 교도2명 구속. 안양 교도소장등 해직-6명 징계
1974.10.27 조간 7(1) 안양접대부 살인. 재수사 지시…두달째 방치, 경찰 심증만으로 용의자를 진범화
1974.11.10 조간 7(5) 안양서 정미소에 불
1975.01.10 조간 2(3) 버려진땅을 포도원으로. 평산-시흥일대 7개군 고산지대 정태기
1975.01.16 조간 2(8) 안양-천안간 9개시 도시계획 44% 축소
1975.02.12 조간 6(1) 〈프리즘〉자칭 「義盜」는 잔인했다. 검거된 안양 2인조 강도의 행각, 확인된 「선행」 60여회, 대낮 부녀자 있는 집만 털어 김문수

1975.03.01 조간 2(4) 금성방직 안양공장도 헐린다. 省谷이 유택으로 가는 날 김문수
1975.03.15 조간 8(4) 전국중고축구 개막, 부산-중앙-안양중 2회전에
1975.03.25 조간 7(10) 부교재 수업 버젓이. 안양시내 중학교, 교사들 교과서 대용으로
1975.04.06 조간 8(4) 건국대 총장배 쟁탈 전국 고교 축구대회, 중앙부고-안양공고 쟁패
1975.04.08 조간 8(1) 건국대 총장배 전국고교축구에서 안양공고 숙원의 첫 패권
1975.06.25 조간 8(5) 대통령배 고교축구, 전남기공이 용문 눌러 경신-중앙부-안양공고와 3회전 진출
1975.06.27 조간 6(1) 경기도 안양物旺 유료저수지, 수면사용권 다툼에 낚시 못해
1975.09.05 조간 8(5) 중고축구, 신흥-안양 2회전에
1975.09.14 조간 8(4) 중고축구 중등부, 안양 결승 진출
1975.10.11 조간 8 청룡기 축구 경기 예선에서 율곡-안양 결승 ☞기사 없음
1975.10.15 조간 7(9) 서울-안양서 어제 또 2건, 잇단 반창고 강도
1975.10.17 조간 8(6) 청룡축구 경기 예선, 율곡-안양 결승 장성식
1975.10.18 조간 7(10) 서울-안양「반창고 강도」, 2인조 동일범으로 단정
1975.10.26 조간 7(1) 전당포 살인강도 검거 詳報, 全世圭…시흥 친구집서 붙잡혀. 포위수색 15시간 만에 검거 이용호:서청원
1975.10.30 조간 7(5) 2인조 안양서「반창고 강도」검거 김문수
1975.11.01 조간 8(1) 청룡기는 우리 차지. "패스-중거리슛 좋아 우승확신" 鄭鍾德 코치(안양공고), "체력 좋아 후반서 승부지을터" 張雲洙코치(계성고), "미들필드 장악…상대 수비 교란" 曺鍾一코치(강릉상고), "수비보다 공격에 치중하?" 渼? 金耕知감독(영등포공고)
1975.12.13 조간 7(5) 안양서 사상 첫 컬러TV 수업. 15분간 드라마에 "야" 환성 김문순
1976.01.07 조간 8(7) 〈스포츠메모〉 崔明坤씨 안양공고 축구코치로
1976.04.15 조간 8(8) 아시아 서키트 골프대회 오늘 안양서 개막
1976.05.12 조간 7(7) 간염예방「생독백신」개발. 농업진흥청 안양가축위생연구소, 7월부터 대량공급
1976.11.13 조간 7(4) 안양천변 여공살해 용의자 범행을 자백
1976.11.26 조간 6(1) 중랑천-안양천변 오염 경기도 공해업소서 비롯. 서울시, 상-중-하류 수질검사서 밝혀내 폐수정화처리 요청
1976.12.31 조간 7 안양서도 연탄가스로 3명 숨져 ☞신문 없음
1977.01.11 조간 6(1) 과천일대 대공원 조성 . 어린이 공원 창경원시설 옮겨. 하반기착공 부지 매입 - 설계위해 예산 추경
1977.02.10 조간 7(1) 공업용수가 모자란다. 안양 - 수원일대 50여공장 조업단축 위기
1977.02.11 조간 7(1) 남서울대공원 과천 일대 4백66만평 확정. 서울시, 총 백43억원 투입 81년에 일부 첫 개원
1977.02.16 조간 1(7) 중소도시 집중개발. 申건설밝혀 의정부 - 안양 - 부천등에
1977.02.19 조간 7(5) 시흥서도 살인강도. 일수놀이 여인 포도밭서 피살. 돈없어져
1977.03.11 조간 2(4) 인천 - 안양 - 의정부 - 성남 - 수원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인구억제 전제
1977.04.13 조간 7(1) 공포의 버스…소매치기 폭력 난동. 5인조 운전사 목에 면도 대고 강제 정차… 도주. 대낮 안양서
1977.04.15 조간 6(3) 안양 유원지 유료화. 20일부터 개발위해
1977.07.10 조간 6(1) 무모한 도시계획 안양시 80%가 물바다

1977.07.10 조간 7(1) 한사람의 「직감」이 「안양」을 구했다. 동민 천여명 모두 대피시킨 宋昌基씨 변용식
1977.07.13 조간 7(1) 수마할퀸 폐허에 낙도우정의 꽃 활짝. "우리도 돕겠다" 서해 신감어린이들 안양 만안국교에 격려전보 김문수
1977.07.14 조간 5(1) 〈생활수감〉 수재민들에 따뜻한 손길을… 안양수해 참사를 보고 박현영
1977.07.15 조간 7(12) 내년 안양에 수재민아파트 3천가구 건립
1977.07.15 조간 6(1) 수해로 사라진 안양유원지 강천석
1977.07.20 조간 7(11) 안양상가부녀회서 5만원 본사기탁 "서울시민들의 의연금"에 보답. 우리도 서울 수재민에 「성금」
1977.07.20 조간 4(1) 수해는 예방할수 있다. 안양지방의 폭우에 대한 견해-반성 박성우
1977.07.21 조간 1(1) 朴대통령 안양등 복구현장 시찰… 지시. "수해공장 낡은 시설- 장비 이 기회에 최신형으로"
1977.08.03 조간 7(6) 엉뚱한 주민 식수소동. 주공의 강수에 안양시 보복 단수
1977.08.12 조간 2(1) 〈경제칵테일〉 안양지구 상해상공인 재기전진대회
1977.08.13 조간 8(5) 중-고축구 7일째 안양중-신흥중 1승
1977.09.04 조간 8(2) 청룡기축구 예선. 안양 - 신흥중 쟁패
1977.09.24 조간 7(8) 「청바지사탕」 판금. 유해여부검사의뢰, 안양시
1977.12.10 조간 6(1) 안양천변 저지대 침수방지위해 배수로 - 펌프장 개수
1978.01.11 조간 1(1) 과천에 제2 「종합청사」 올해 착공...80년안에 완공, 연건평 2만평 규모... 1백억원 투입
1978.01.13 조간 7(5) 시흥 「삼여화학」 전효. 공장-스폰지원료 태워...피해 5억
1978.01.14 조간 1(1) 과천일대 「생산녹지」 지정. 토지 과열투기방지
1978.01.15 조간 3(10) 〔기자수첩〕 과천 땅값의 책임
1978.02.15 조간 2(11) 종합청사 들어설 과천34만평. 평당1만-5만6천원 지가고시
1978.02.22 조간 7(9) 안양소년원 직업훈련원입소식
1978.03.10 조간 7(5) 검찰 부당대출 일제 수사. 일부 안양수해 업체서 피해액 과대신고
1978.04.01 조간 8(6) 중고축구 안양-동북중 선두
1978.05.27 조간 1(1) 남대문-한양-과천 제2정부청사 동작대로 연내착공
1978.09.14 조간 8(9) 안양 중학 본선 진출 ,청룡 축구 경기 예선 장성식
1978.10.29 조간 7(1) 「남서울 대공원」 내일 착공, 과천 백63만평 내년 6월까지 기반시설
1978.11.02 조간 1(10) 44만평 주거지역 지정 취소 과천지구 도시계획 확정
1978.11.14 조간 2(1) 인천-안양-부천-충무-과천 기준지가 연내고시. 나머지 후보지는 내년중에
1978.01.14 조간 7(1) 과천에 인구 3만 신도시 조성. 건설부 세부계획 3월 확정. 90만평에 720억돌파
1979.01.17 조간 2(7) 인천-안양-부천-과천-충무 기준 지가 2월 고시
1979.02.15 조간 6(4) 강서구 안양천변 등 하천부지 채소경작 단속키로
1979.04.05 조간 8(8) 봄철 중-고축구 안양 - 제일中 준결
1979.05.01 조간 8(9) 중고축구 3일째 안양工 협성商 꺾어 박서흠
1979.05.02 조간 8(8) 문교부장관기 축구 안양 -청구고 쟁패 박서흠
1979.07.29 극동 과천에 골프장 건설
1979.08.24 조간 7(7) 안양서 화물열차 탈선 전동차 2시간 불통. 2만여명 발묶이고 15개열차 연착소동
1979.9.27 과천지역 투기목적 분양권 거래 단속
1979.10.16 과천인구4만5천 전원도시로

1979.12.11 조간 8(9) 안양중 이라크에 져, 라이온시티컵 축구
1979.12.13 택시운전자 실종나흘 빈차만 과천 저수지 둑밑서 발견
1979.12.14 조간 8(8) 안양중-바레인 비겨, 라이온시티컵 축구
1979.12.19 조간 8(7) 안양중, 말聯 A격파, 라이언시티컵 축구 ☞기사 없음
1979.12.20 조간 8(5) 라이언시티컵 축구, 안양중 4강전 좌절
1980.01.10 조간 2(9) 〈재계단신〉 공업시험원 과천에 이달 착공
1980.03.11 시흥동 세곳에 강도들이 출몰
1980.03.11 조간 7(1) "밤에만 돌리는" 안양천변 공해공장 3개사 3명 구속-5명 입건
1980.03.15 조간 7(5) 과천 새 도시착공 69만여평…인구 4만5천명 수용
1980.03.27 조간 7(6) 과천에 「국제식물원」 서울대공원에 2만여평 규모 건설
1980.04.17 조간 7(6) 과천서 실종 택시운전사 저수지서 시체발견
1980.06.18 조간 7(5) 서울시 강남지역-과천외곽도로 연결 「牛眼山 터널」 신설
1980.08.16 조간 8(1) 추계 중-고축구 창신공 서울체 완파, 신흥실-안양공과 4강올라
1980.08.26 조간 6(1) 백년만에 안양 삼막천에 正祖 효성담긴 "만안교" 복원 김문수
1980.10.22 조간 7(6) 얼굴 흉터 20대 청년 추적, 사건 뒷날 안양금방에 나타나 "다이어 사라", 계룡학원이사장 피살
1980.12.26 조간 6(3) 아파트 과대광고 피해. 안양입주자진정 "평당 15만원 더 줬다"

동아일보 시흥군편 색인

1922.2.24(3)5	시흥에 4명 권총단 주인을 협박하야 15원을 강탈
1922.3.1	시흥에 5명 강도 어제 새벽 3시경에 시흥군에 5명의 강도가 나타난 대사건
1922.6.12(7)6	⇒ 기사없음
1922.8.18	시흥 홍산에 피살체 경기도 경찰부에서 범인수색 명령
1922.8.19	범인은 오리무중 시흥 홍산 살인사건 경찰부의 계속활동
1922.8.24	작일까지 근사된 경기 수해
1922.9.6	오리무중의 시흥사건 기타의 범죄도 잡지 못함이 많다.
1922.9.6(2)	各地豪雨와 農作被害 ⇒ 기사없음
1922.10.14.	노량진강도는 엉터리업는 거짓말 손형수는 잡혀 취조
1923.6.30(4)8	시흥에 소년군 발기
1924.6.29(3)5	시흥 공립 보통학교
1924.10.17(3)	日直區長不直
1925.9.27	금년 도작 상황 작년보다 증수 예상
1925. 10. 25(2)	전도 불안한 만여 생영, 악화될 염려 잇는 사람이 9백여명
1925.12.8	동아일보사 사고
1926.1.2	시흥군 살인사건 경찰이 고문하여 죽인 것은 아니라고
1926.2.25(4)12	홍동교 소인극 성황
1926.8.20(4)	크로스와드 현상모집 본보시흥지국에서
1926.8.22(4)	크로스와드 현상모집 본보시흥지국에서
1926.10.3(4)1	경성에 연접된 시흥 문화수입에 지극히 편리
1927.1.30(4)6	영등포시구개정 불원에 실현될터
1927.2.15	경기도 새 징세안 경기도만 19만원이 늘어 세명은 부동산 이전세
1927.3.3(4)	시흥양계장려 시흥군 축산동합 조합에서는 군내 각리에 양계
1927.3.5(4)5	잠 기구 진사 강습
1927.3.24(4)1	조원 탈퇴운동
1927.3.28(2)9	시흥에 독감
1927.3.31(4)9	시흥 홍동교
1927.4.4(4)	영등포방수제 10월 이내에 완성
1927.4.19(4)5	시흥작년 도살 2십만7천여원
1927.5.28(4)5	始興産業講習
1927.6.1(4)7	교수연구회
1927.6.4(4)6	시흥 금융사 발기총회개최
1927.6.15(2)9	시흥에 강도
1927.6.24(4)7	시흥 맥수예상 2할3분 감소
1927.7.12(4)2	시흥금융사 창립
1927.8.14(4)5	始興支局主催
1927.9.24(4)4	횡단로 문제, 필경 원만 해결
1927.9.24	시흥주류종합총회
1927.9.24	시흥 각회 성황
1927.10.8(4)9	기호지방 당산청년회관신축

1927.10.10(4)6 시흥 홍동교 운동성황
1927.11.17(4)5 수도다수확품평
1928.1.31(4) 6 시흥 삼림 조합 정총
1928.2.17(3)5 죽율 소년회 토론회
1928.3.2(4) 4 시흥군 농회 정총
1928.3.2(4)16 시흥군 축산동 조정총
1928.3.3(4) 7 금조대조합원 배당문제로 갈등
1928.3.9(4)4 일본인서기 채용은 부결 시흥면 협의회서
1928.3.29(4)3 시흥청소년 거 25일 창립
1928.4.10(4)8 연서부업 조합
1928.4.20(4)6 양잠교사배치
1928.4.25(4)10 독농가등표창
1928.5.13(4)5 시흥군농회에서 답심경장려
1928.7.6(4)11 시흥추천대회
1928.7.6(4)2 호안구역에 제외 가옥 철훼를 명령 동민은 군당국에 진정
1928.8.9(4)10 시흥군 면장회
1928.8.15(2)8 시흥에 강도 3명이 나타나서 단도로 위협, 2명체포 1명도주
1928.8.15(4)6 청년회관건축
1928.8.16(4)4 설견정리전습회
1928.8.26(4)1 제 2차 요동치는 각지방한발소식
1928.9.25(4)6 시흥은 2할여 한해감수액
1928.11.27(4)1 ⇒ 기사없음
제팔 경기대회 영등포서 개최
1929.1.31(7)6 시흥 부천간 횡행든 강도 2명 체포, 여죄도 만히 잇슬 듯 하다고
1929.2.26(4)6 빈민구제 사업 시흥양면에서
1929.3.20(4)2 시흥 종도 배급
1929.5.5.(2)9 9세아 참살
1929.5.27(4)1 련못에 익사 장래를 비관?
1929.5.29(2) 사고
1929.6.9(3)11 제2회 시흥 추천대회
1929.6.12(4)9 시흥추천연기 오는 16일로
1929.6.19(3)6 시흥 본 지국 주최 추천 대회성황
1929.9.10(4)6 생활고로 자문
1929.9.15(4)9 친정구제못해 비관익사 젓먹이두고
1929.10.11(2)7 소부도망
1930.2.16(3)6 시흥척사대회
1930.3.31(3)8 문화주택건설로 평화의 농천이 파멸
1930.4.5(3)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1930.9.22 동아일보사
1930.11.15(2)6 농산 품평회성황
1931.1.19(2)4 시흥에 복면강도

1931.3.3(7)5 20호엔 소학교 백호엔 강습소
1931.4.11 주재기자
1931.5.19(7)4 자살은 미수 검찰에 피검
1931.7.5(5)10 시흥군농회서 소채품평 개최
1931.7.18(7)4 시흥 농작물 명충이 발생
1931.8.1(7)5 경인버스와 자전거 충돌 3명 중상 위독
1931.10.3(2)10 뻐스에 낙상
1931.10.13(2)5 팔부군연합 리주회개최
1931.10.22(7)1 팔주군 연합 리주회 성황
1932.3.12(2)5 모격문사건 6명은 방면
1932.3.13(2)10 팔순기념으로 교량을 가설
1932.6.12 묘령여 자살
1932.8.12(7)9 잠실리 생명선 방파림을 불하
1932.10.23(2)9 시흥답중에서 수류탄폭발 항동안 경찰이 일대소동 농부 1명 실명중상
1932.11.14(4) 임기자 김태집 소화 7년11월4일
1933.1.26(3) 수암 군자간 교량공사착수
1933.1.27(3)4 시흥 화재
1933.3.5(3)7 시흥에도 천연두
1933.3.13(2)10 팔순기념 교량 가설
1933.3.14(3)4 시흥농촌 진흥
1933.3.25(3)4 시흥에 대화 양잠실을 전소 손해는 1만4천원
1933.6.8(3)12 임기자
1933.10.17조(5)8 잠실리각희대회
1933.11.15(2)6 시흥강도
1933.12.4(3)1 야학지도자 강습회 개최
1933.12.26 신동야채 조합 신동에서 창립
1934.2.1(2)7 청년 음독자살
1934.7.20(5)4 시흥에 송전
1934.12.11 영등포 다년 현안인 지하도 개착 문제
1934.12.25(5)4 생활난 끝에 의수하고 자살
1935.2.4(4)8 9백여 빈민 동정 양씨의 희사금으로
1935.11.5(2) 가해자 내달라고 경찰서에서 야료 노부모와 만삭된 애처 등
1935.11.20 무면허 운전수 트락 조종타 락인
1935.12.31(4) 안산보교장 근속 10주년 기념
1936.2.27(2)4 시흥 우와피 잡화상에 단도 3인 강도침입 일가5명을 결박 현금을 강탈
1936.5.13(4)4 시흥 공보교 학년연장 운동
1936.5.20 영등포피혁 기관실에 대화 기계의 발열에서 발화된 듯 손해액 약 6만여원
1937.6.19조(4)12 시흥축시출원
1937.6.19(4) 이불에서 돈 훔친 절도범 피체 영등포서 서 취조 중
1937.6.20(4)7 시흥 농촌에 낭보 농형은 풍작예상 이앙발육이 극양호
1937.6.22조(8)7 시흥맥작대풍

1937.6.24(4)	자작농축년 감소 소작일용은 격증 시흥 농촌 의 불황
1937.6.24(7)	물가고에 부다끼는 공장 노동자생활난 최저 생활유지조차 말이 못되어
1937.7.27(2)	영등포에 부영시장 조선인 중심지 1천 평에 착수
1937.9.4(2)	시흥시국강연
1937.10.28(7)3	시흥납세 징수 양호(始興 納稅 徵收 良好)
1937.11.18(8)6	시흥군 군자면에 맥작발아 양호(始興郡 君子面에 麥作 發芽 良好)
1937.11.27(2)	영등포 전화는 편입 난 내 후 년도에나 실현이 될 듯
1937.12.1(8)	대지료 10할 인상 차지인등불납결의 시흥 양재리 차지인 결속
1938.2.14(2)10	시흥군하의 우량진흥회 표창
1938.8.5(4)6	시흥근로보국단 발단식 거행(擧行)
1938.8.31(4)4	시흥역 부근에서 우적을 체포
1938.9.22(3)12	동아일보시흥지국 ⇒ 기사없음
1938.12.3.(2)3	시흥에 단도강도 주인부처난자 각지에 범인을 수배중
1939.5.8(3)7	시흥에 강도출현 금품을 강탈코 도주
1939.5.16(2)6	시흥 강도 수체포 도박미천의 조달이 범행동기
1939.10.27조(4)2	시흥군 미곡통제조 총대회의를 개최
1940.1.26(2)5	시흥에 천연두
1940.2.20(8)	영등포의 각 공장 평상대로 복구 16일 오후 8시부터
1940.3.5조(2)5	시흥군의 절도범 대구서 검거
1930.3.30	시흥군 농회
1940.4.20	영등포서에서 경비 전화 완성 경비
1950.5.22(2)5	영등포 노량진간 전차복선공사를 착공
1951.1.3	관흥광산 개광식
1959. 9. 22(3)9	영등포교 화재사건 범인은 걸인들

조선일보 시흥군편 색인

1924.07.17 (3) 苦學堂素人劇團. 今日 永登浦로 巡廻할터(寫)「友情」의 일막과 관객의 광경 학예
1924.11.28 朝(1) 永登浦 江陵 濟州의 三刑務所를 廢止하니 日鮮人의 差別이 撤廢되엇다고. 그 연 유가 日人이朝鮮人을 指導할 수 있다는데서 나왔다는데 과연 어떤 方面의 指導? 항일 ☞신문 없음
1926.05.09 朝(2) 盟罷職工中에서 十餘名을 檢擧取調. 永登浦 京城紡績盟罷로 경찰은 相助會간부 등을 검거 항일
1926.05.12 朝(2) 紡織工 復業. 영등포 경성방직주식회사직공들의 동맹파업은 원만하게 해결되 항일 ☞신문 없음
1926.05.21 朝(2) 異晩圭氏 放免. 경성방적주식회사 영등포공장 동맹파업사건으로 파송되엿든 異晩圭氏와 파업직공 다수방면 항일
1926.06.05 夕(2) 永登浦署도 大活動. 자동차를 몰아 형사 김포 출장, 무슨 중대사건인 듯 항일
1926.11.14 夕(2) 關係업는 者에게 無理하게 自意差押. 영등포금융조합서기의 행위에 대해 일반의 비난이 자자 항일
1927.01.02 (2) 三峰鄭道傳 墓所를 發見. 始興郡 新東面 瑞草里에서 학예 ☞신문 없음
1927.02.16 朝(2) 兄弟座一行 始興讀者優待. 去十五日부터 학예
1928.11.29 (4) 始興涌興講習所 學藝會. 去二十四日 始興青年會館 落成紀念으로 학예
1929.02.27 (4) 始興擲柶大會. 本報支局主催로 去陰正月十四日 노량진涌興青年會館에서 학예
1929.08.06 (3) 本社主催 文字普及班. 三人이 分擔하야 敎授, 李種台(始興) 학예 李種台
1929.09.12 (4) 新劇志星團 本報讀者優待. 李一海一行 始興鳳山遊園에서 去十日부터 입장료 반액할인 학예 ☞기사 판독 불가
1929.09.17 (4) 新劇 無料公開. 李一海一行이 始興鳳山遊園에서 鎚な?습?期해 학예 ☞기사 판독 불가
1930.02.02 (7) 始興擲柶大會. 본보지국주최로 來二月九日에 학예
1930.02.07 (3) 제이회 始興擲柶大會. 본보지국주최로 來八日에 개최 학예
1930.02.12 (3) 제이회 始興擲柶大會. 본보지국주최로 去八·九 兩日間 로량진한남루에서 개최 학예
1930.03.01 (3) 計上한 學級增設案을 新郡守가 削除. 始興西面公普問題 증설비용을 면민이 부담 한다고해도 항일
1930.04.25 (6) 堤防費滯納者 二百餘名 財産差押. 始興郡 永登浦面에서 항일
1931.06.09 (7) 野藝大會 開催. 本報시흥支局後援下에 來十三日부터 학예
1931.06.18 (6) 鷺梁津市民慰安 野藝大會 大盛況. 本報始興支局後援下에 去十三日부터(寫) 當大會광경 학예
1931.08.24 (4) 市場設置코 祝賀脚戲會. 시흥군신동면에서 去陰六月二十九日부터 학예
1931.11.02 (4) 讀者優待割引. 去三十日부터 영등포에서 安松曲馬演藝團의 興行時 학예
1931.11.13 (7) 同情金品募集 始興 경찰이 禁止. 아동들의 모금을 금지 항일
1932.01.22 (6) 洞民의 努力으로 講習所를 建築. 신흥의 공업도시 영등포에 항일
1932.12.01 (6) 垈地拂下問題로 復興村 輿論沸騰. 村民은 拂下反對 對策講究 府當局의 處理를 注目, 시흥군 항일
1933.03.15 (4) 文盲退治 爲하야 女子夜學 開講. 永登浦 婦女의 福音 항일
1934.06.16 夕(2) 今日은 端午(寫)本社시흥支局主催의 추천대회장 학예 ☞신문 없음

1934.06.22 夕(3) (寫)端午畵報. 始興 釜山 各本報支局主催의 추천大會 광경 학예 ☞신문 없음
1935.02.23 夕(2) 京畿高等課 猛活動 地方青年을 檢擧. 安城지방과 永登浦工場區가 연락 某種赤色 工作 綻露 항일
1935.03.01 夕(5) 南陽舞臺公演. 去月二十八日부터 五日間 永登浦에서, 本社支局 優待券發行 학예
1935.12.17 夕(5) 本報讀者優待「洪吉童傳」上映. 尹白南作 今十六·十七日에 永登浦演藝館에서 학예
1936.01.11 夕(2) 永登浦赤色事件 仁川에도 關連? 항일
1936.03.06 夕(2) 廣州共産黨協議會事件 關係者十名 今日送局. 永登浦署 高等係에서 檢擧 이양재외 九名, 前後三個月만에 取調段落 항일
1936.05.22 夕(3) 本報永登浦支局主催로 永登浦町民 慰安野談大會. 來二十六日 학예
1936.05.28 朝(3) 永登浦에선 最初로 市民慰安野談會 盛況. 申鼎言 金濯雲과 하모니카團도 出演, 本社支局主催로 去二十六日(寫)야담회광경 학예
1936.07.10 朝(2) ∝흔覓코ぁ깔터睛盂?九日朝 盟罷斷行. 待遇改善 絶叫코 會社와 對峙, 永登浦署 現場嚴戒中 항일
1936.12.27 夕(6) 永登浦에서 春香傳 公演. 去二十四日부터朝鮮聲樂硏究會에서 학예 ☞신문 없음
1937.02.23 朝(3) 永登浦普校學藝會. 去二十一日에 盛況(寫)학예회 광경 학예 ☞기사 판독불가
1937.06.25 夕(1) 號外發行. 昨夜 永登浦 大火災事件으로 학예 ☞신문 없음
1937.10.08 夕(7) 今夜 七時半부터 軍人家族慰安音樂會. 本報영등포지국等의 後援으로 학예 ☞신문 없음
1937.10.09 夕(7) 出演者와 曲目變更 今夜로 最終演奏. 本報영등포지국等의 후원인 軍人家族慰安音樂會 학예 ☞신문 없음
1937.11.28 夕(7) 始興郡內 各面에 戰慌映畵會 開催. 時局認識을 위해 去二十五日부터 支那事變映 畵를 上映 학예 ☞신문 없음
1938.02.13 夕(7) 永登浦에서 申不出漫談會. 來十四日 演藝館에서 世元堂藥局主催 本報支局後援下 에 학예
1938.04.01 夕~4.6.夕 永登浦 私立校 巡訪記(전5회) 연재 ☞신문 없음
1938.06.21 朝(3) 少年提琴家 白高山君 永登浦서 演奏會. 本報支局後援으로 來二十三·二十四日 演藝館에서(寫)今年 七歲의 白君 학예
1938.08.03 朝(3) 獨占을 奇貨로 過重한 入場料金. 永登浦演藝館의 專橫 학예
1938.10.25 朝(3) 中央舞臺를 招請 永登浦에서 公演. 本社支局主催 학예
1939.03.07 朝(4) 金允心孃 漫談大會. 今七日부터 永登浦에서 학예 ☞신문 없음
1939.12.03 朝(3) 六六個所 千餘名에 國語講習會 開催. 始興郡 청년단체주최로 去十月一日부터 학예
1940.02.20 朝(3) 協同藝術座一行 明二十一日 永登浦에서 公演. 本社永登浦支局後援 학예
1952.12.16 조간 2(5) 대한부인회 시흥지부등에 일선부대서 감사장
1953.03.08 조간 2(8) 시흥군내에서 자진 입영 청년 陸續
1953.04.03 조간 2(6) 〈지방단신〉시흥군수등에게 감사장
1953.09.07 조간 2(7) 시흥수해대위. 당국에 구호진정
1954.03.29 조간 3(7) 시흥미군 저탄장서 포탄 6상자를 도난
1955.03.03 조간 4(9) 〈지방소식〉 자유당 시흥군당 연차대회를 개최
1955.05.07 조간 4(8) 〈지방소식〉 시흥군 농민회 개편

1957.02.09 조간 2(6) 시흥부근에서 버스 전복. 32명 부상
1957.03.05 석간 3(8) 버스가 또 반소,영등포 시흥간서 중상자 4명
1957.05.14 석간 3(6) 짚 언덕에서 전락. 印泰植재무장관 시흥서 부상
1957.09.14 석간 3(7) 소금배 침몰. 시흥앞바다서
1957.10.17 석간 1(5) 선거법 분리 부당. 야당측 시흥회담 성명에 반발
1957.10.19 석간 3(2) 소금배가 전복. 시흥군 앞바다서
1957.10.27 석간 3(1) 시흥에서 도난. 전화선 천여미터
1958.04.27 석간 1(7) 시흥군 출마자 李英燮씨 기소
1958.10.14 석간 3(10) 시흥등지서 강도 2건
1959.05.08 조간 1(3) 영수회담을 추진. 무소속 의원들 시흥에서 회합
1959.08.25 조간 3 과천에 강도 ☞신문 없음
1959.09.14 석간 3(10) 시흥군에 강도
1959.09.21 석간 3(8) 시흥 병기대서 탄환 폭발사고 전원에 무혐의
1959.11.11 석간 3(1) 헐벗은 산야를 기름지게. 시흥 현지서 5년 계획 첫 발족. 사방사업 촉진회 전국대회 성황
1960.10.28 조간 4(3) 〈내고장소식〉시흥학생자경대 범죄예방에 일익
1960.10.29 조간 4(3) 〈내고장소식〉시흥서 축구대회
1960.12.08 조간 4 〈내고장소식〉미국 58탄약 부대서 개축. 노후한 시흥 고등공민학교사 ☞신문 없음
1961.01.18 조간 4(5) 〈내고장소식〉시흥교육감이 「엘리오드」 씨등에 감사장
1961.03.14 조간 4(8) 〈내고장 소식〉시흥여인 자살 미수 - 정사기도로 판명
1961.05.03 조간 4(9) 〈내고장소식〉신인가요콩클 대회 시흥지국 주최로
1962.02.14 석간 3(9) 찝차 전복으로 鄭在甲시흥군수 사망
1962.04.13 조간 3(1) 12명이 부상. 시흥서도 버스 사고
1962.05.19 조간 1(1) 자유센터 내월중에 착공. 경기도 시흥군 관악산 부근에 기금 12억환 이미 확보
1962.06.05 조간 3(8) 노총 시흥 광산 고발키로 "직장폐쇄는 부당"
1963.04.06 조간 4(10) 홍삼 특별경작지로 시흥군등 세곳 선정
1963.11.28 조간 7(6) 과잉투표 밀양·삼랑진·시흥에서도 유권자수보다 더많아
1963.12.07 조간 7(7) 시흥 국민의당서 당선무효 소송
1964.06.17 조간 7(1) 시흥에서 잠든 새벽 호롱 불 켜다 불나 2명 소사. 2명 화상
1965.04.25 조간 7(1) 동생의 비보도 모른채 꿈이던 땅사러 자원해 갔어요. 시흥에 있는 盧雲基하사의 형은 말한다 김운하
1965.11.27 조간 1(9) 〔聞外聞〕 지역구 출신의원과 전국구 출신의원이 백중지세로 겨룬 공화당의 시흥-부천-웅진구의 개편대회
1966.02.17 조간 7(1) 시흥등 변두리에 가내공업 센터
1966.10.04 조간 7(8) 시흥서 부녀자 희롱끝에…3백여명이 패싸움 벌여 20명 부상
1967.03.25 조간 4(7) 캐나다서 보낸 의류 시흥 난민촌에 전달
1967.04.28 조간 4(1) 시흥 난민촌에 사랑의 노천교실. 대학생 10명이 지난 12월부터
1967.05.09 조간 7(11) 구청직원 폭행치사. 시흥동민들이 부정 캔다고

1967.06.09 조간 3(1) 곳곳서 대리투표…폭력 사태. 야 참관인에 뭇매. 시흥 2투표소 신민당원 청년들도 반격
1967.12.06 조간 4(3) 시흥등 7개동에 신규로 구획정리
1968.03.27 조간 3(1) 시흥앞바다에 괴한 5명 출몰 잠적경로 철야 수색. 어부신고 인근해안-산악봉쇄, 고무보트 이용-일제농구화 자국 강인원;정덕한
1968.05.05 조간 6 일요일을 즐겁게. 가족동반을 위한 가이드. 덕수궁엔 모란이 함빡. 교외선 편도 95원…7개열차 운행. 낚시 안양-과천저수지가 적당. 스포츠는 아시아청소년축구 한-일전 ☞신문 없음
1968.09.07 조간 3(9) 시흥일가 간첩선고 洪淳翼피고에 사형
1969.01.14 조간 7(5) 시흥 또 건널목 참사… 4명 절명. 열차-택시충돌…「우선멈춤」않고 가다
1969.09.18조간4(1)(34) 광주산맥. 화성, 부평, 시흥, 고양
1970.03.18 조간 8(7) 양서-시흥-오류동 시외전화 8국으로 편입
1970.05.22 조간 8 서울시, 시흥 등 체비지 5만평 공매 ☞신문 없음
1970.05.22 조간 8 주택가서 발파 작업. 시흥택지 조성단지, 돌덩이-폭음에 주민 불안 ☞신문 없음
1970.06.04 조간 7(8) 어린이 전염병 번져. 시흥군 노은파리
1970.11.22 조간 6(1) 〈수도권 정보〉 술렁이기 시작한 영동지구. 일부지역 환지 공고, 60만 규모로 시흥지구와 연결
1971.01.20 조간 7(6) 예금 백50만원 가로채. 시흥우체국 직원 구속 전화 청약금도
1971.02.05조간 5(1)(2) 중앙대학교. 의대부속 병원 - 국제대 건립. 수원 - 과천까지 2만평 대지「10개년 매스터 플랜」/동국대학교. 예술대 - 의대 - 가정대 신설. 방송국과 체육관도…역경원선 불경현대화 작업
1971.04.24 조간 6(1) 년내 준공업지설정 어려워 - 시흥등 5개지구, 예산한푼도 책정안돼
1971.05.26 조간 7(1) 동직원이 통지표 숨겨, 시흥 백12장
1972.04.05 조간 1(7) 朴대통령 시흥 들러 산지개발 지시
1973.01.30 조간 7(8)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시흥군 당삼리 본사 주선으로 새마을결연
1973.05.05 조간 1(9) 기업체 이전확정. 준설공사 이미 인천 옮겨, 주택공사는 영동지구에, 수자원개발공사는 회덕, 도로공사는 시흥 판교로
1973.07.10 조간 6(5) 가리봉동과 시흥군 철산리 33만평에 제3수출공단 조성
1974.03.09 조간 7(12) 시흥에 택시강도
1974.03.10 조간 6(1) 〔脚光 의 여울따라.전철역 주변 부동산 가이드(전8 회)〕 (2)시흥지구. 택지등 작년비해 50%나 뛰어 유정현
1974.04.21 조간 7(1) 「도난 돈」 누이집 은닉설. 시흥에 형사대 부산행적에도 의문점 많아
1975.02.28 조간 7(9) 시흥에 나병센터. 4월착공 내년 개소
1975.07.01 조간 6 시흥군수수사. 허가이면 추궁, 물왕 낚시터 분규 ☞신문 없음
1975.11.13 조간 7(7) 시흥 등산도끼 연쇄강도 검거. 16세 소년낀 3인조
1976.02.07 조간 7(7) 시흥극장에 불. 부속점포 6동 전소…인명무사
1976.02.10 조간 7(8) 보험금 노린 화재. 시흥극장…상가가게 주인 둘 구속
1977.01.21 조간 6(5) 청과 도매 시장 세군데에 신설. 천호 영동 시흥지구
1977.01.29 조간 8(8) 시흥 떠나 서울도착 롯데야구팀 대행군
1977.07.14 조간 6(5) 내무부 간부부인들 수재민에게 라면 전달
1977.12.31 조간 7(1) 아파트에「살인방화」강도, 시흥광복아파트

1978.05.13 조간 7(10) 양수기 12대등 시흥군에 전달. 중앙대생들 물푸기 노동지원도
1978.05.28 조간 7(1) 〈일요화제〉 이 가뭄에 "물인심". "식수 있읍니다…필요한 분은 오세요" 영등포 시흥1동 향화목욕탕 安炳石씨 "이색간판" 강천석
1978.06.14 조간 1(1) "水利 불안전잠을 밭으로" 朴대통령 시흥에서 모내기
1978.06.16 조간 6(7) 「신정호」 완공. 시흥3동 식수해결
1979.07.19 안양색인 이곳으로
1979.11.14 조간 6(5) 관악-시흥 2개 지역에 LPG공급 전담회사 공장도 값으로 판매
1980.01.09 조간 6(6) 경기도 시흥군 서면~부천시 원종동 도로 9㎞를 신설
1980.01.16 조간 6(6) 구획정리사업 2년 연장 김포-시흥-신림동등 9개 지구
1980.03.12 조간 6(1) 시흥 철산리에 새 위성도시. 근로자 아파트등 8천가구 건립, 82년까지 인구 5만 규모
1980.07.06 조간 6(1) 내년까지 팔당~잠실~시흥 역수관 묻어 강남지역 급수난해소

◀ 기사로 본 안양 근대사 ▶

▌발행인 : 문원식
▌발행처 :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발행일 : 2001.12.31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산 147-2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표지디자인: 홍사영
인쇄처 : 현대애드.컴 (TEL.02-2272-8125)

비매품

본자료집은 안양시의 재정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01
THE INSTITUTE OF ANYANG STUDIES